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精選  
제교諸  
교學  
學

06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06

精選諸敎學正선제敎학 · 譯註역주

*Doctrinal Treatises: Selected Works*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6*

역주 ▣ 정병삼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09년 10월 15일

발행일 2009년 10월 25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62509-6-8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09003063

© 2009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精選  
諸敎學

06

역주... 정병삼 鄭炳三

박정미 · 이종수 · 라정숙 · 옥나영



##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익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産)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활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하는 대작불사업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불사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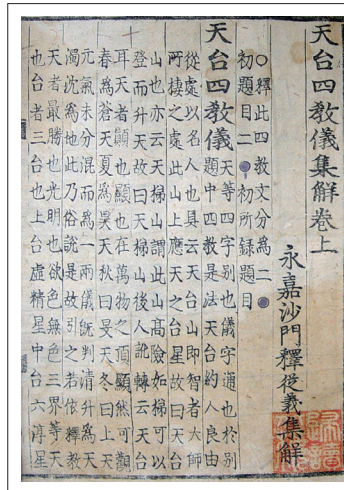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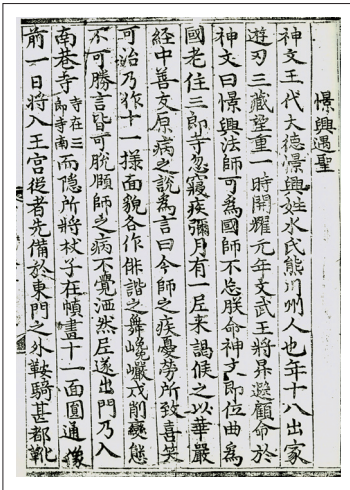




(맨 위쪽)원측의 사리탑. 중국 산시성 시안 흥교사 소재  
(위쪽)서명사 원측법사 불사리탑명. 중국 산시성 시안 흥교사 원측탑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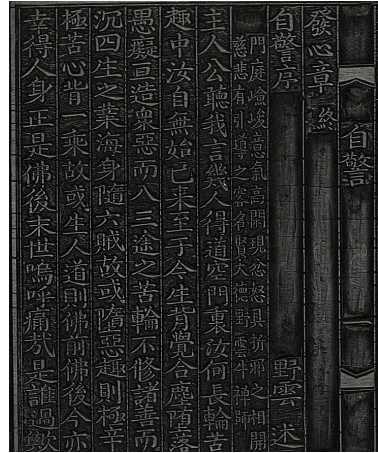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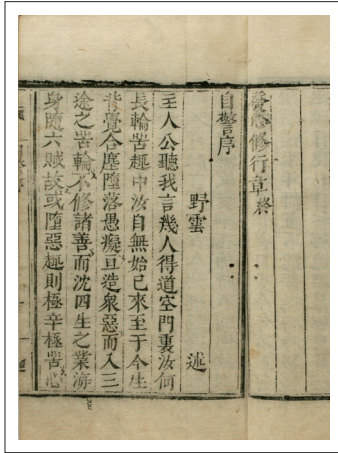




(위 왼쪽) 경흥의 전기인 『삼국유사』 「경흥우설」 편  
 (위쪽) 제관의 『천태사교의』,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아래쪽) 대현이 주석하던 용장사터. 경주 남산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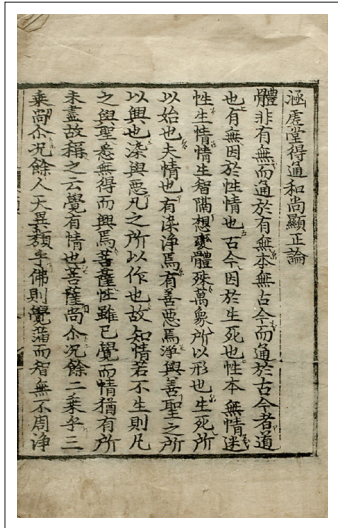


(위쪽)아운의 「자경문」. 간송미술관 소장 『초발심자경문』 중에서

(위 오른쪽)아운의 「자경문」. 해인사 소장 경판

(아래쪽)기화의 「현정문」. 간송미술관 소장

(아래 오른쪽)기화의 사리탑. 강화 정수사 소재







## 總目次 총목차

【解深密經疏 해심밀경소】

【三彌勒經疏 삼미륵경소】

【成唯識論學記 성유식론학기】

【天台四教儀 천태사교의】

【自警文 자경문】

【顯正論 현정론】





##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의 선양·유통을 위하여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제6권 [제교학편]이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지침에 따랐다.
3. 번역의 저본은 『한국불교전서』로 하여 교감한 교감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저본과 다른 교감 내용은 각주로 밝혔다.
4. 전체 내용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번역문과 원문을 나란히 실었다. 단락은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역주자가 구분하였다.
5. 번역문과 원문의 표점은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 직접인용 안의 인용은 작은따옴표(‘ ’), 작은따옴표 안에 다시 인용이 있을 경우는 홑낫표(「 」)를 사용하였다.





6. 한자어 그대로인 경우에는 ( ), 한자를 풀어서 쓴 경우에는 [ ]를 사용하였으며, 원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위하여 덧붙인 부분은 ( )를 사용하였다. 원주는 < >로 표시하고 글씨의 크기를 작게 하였다.
7.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는 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은 大,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卍續藏經)은 卍으로 표시하고, 그 인용문은 번역문-전거-원문 순서로 제시하였다. 전거는 『책 이름』- 권수- 전거권수- 면수 순서로 표기하였다. 예) 『해심밀경소』 권1 韓1 p.123b1.
8. 산스크리트어는 ॐ, 팔리어는 𑖀로 표기하였다.
9. 이 책에는 제관의 『천태사교의』, 야운의 『자경문』, 기화의 『현정론』은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다양한 교학을 한권 분량으로 엮는 제한으로 인해 원측의 『해심밀경소』, 경홍의 『삼미륵경소』, 대현의 『성유식론학기』는 일부분만을 가려 번역하였다.








# 解題 해제

신라 불교사상사

- 
1. 신라 불교사상의 확립 \_\_\_\_\_
  2. 유식사상 \_\_\_\_\_
  3. 원효 사상 \_\_\_\_\_
  4. 화엄사상 \_\_\_\_\_
  5. 계율사상 \_\_\_\_\_







## 1. 신라 불교사상의 확립

무열왕이 즉위하여 ‘중대’(654~780년)가 시작되면서 7세기 중반의 신라 왕실은 지방제도 정비와 중앙제도 개편으로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유지해갔다. 이들 체제를 운영하는 이념으로 유교가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유학자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왕의 이름도 불교식 왕명에서 시호로 바뀌었다. 중대 왕실은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후 사회구조의 재편성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교계의 제도적인 개편으로 성전사원(成典寺院)이 승정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채상식, 1984) 이러한 정치적, 제도적 변화와 유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어가는 사상계의 동향에 상응하여 삼국의 불교를 종합하고 중국불교의 신경향을 이해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불교사상을 담아낼 새로운 불교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기층민들에게까지 널리 불교를 이해 전파시키는 것이 불교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통일기 신라 일반민들은 의식의 성장에 따라 보살사상에 입각한 보살계와 불성론 수용으로 인간의 본질적 평등성을 주장하는 인간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업설과 윤회사상이 현실의 신분 차별을 완고하게 지지하고 있었지만 불교 교리의 이해에 따른 평등관의 수용은 새로운 의식의 변화였다.(김영미, 1998)

중국의 남북조불교는 부처가 깨달은 연기의 정수가 중도이며 공이라는 논리를 체계화한 중관(中觀)계통의 사상과 삼라만상을 인식작용과 인식의 대상인 현상세계와의 관계로 파악하는 유식(唯識)계통의 사상 연구가 심화되었으며, 모든 중생이 여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래장(如來藏)사상도 연구 경향의 한 축을 이루었다. 6세기 말에 통일왕조 수(隋)가 개창되자 남북조불교의 성과를 종합한 위에서 이론적인 교학과 실천적인 관행을

체계화한 지의(智顗)의 천태종(天台宗)이 일어나 종파불교의 장을 열었다. 618년 당(唐)나라의 개창 이후에는 현장(玄奘)에 의한 신유식의 소개를 바탕으로 법상종(法相宗)이 형성되었고, 법상종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조의 유식사상을 계승하여 법장(法藏)은 화엄종(華嚴宗)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동향은 신라불교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기 신라불교의 중심을 이루었던 유식 교학의 기반 위에 고구려나 백제에서 발달한 삼론학이나 열반학이 수용됨으로써 통일기 신라불교는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신유식과 화엄과 같은 중국의 신불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원측과 원효와 의상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라 불교 교학은 독자적인 꽃을 피우며 크게 발전하였고, 특히 유식과 화엄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국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성장하였던 국가불교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 시기에 성장하던 기층민의 신앙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어 미타신앙과 관음신앙 등이 성행하였다.

삼국시기부터 교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유식사상은 신유식이 신라에 전해지면서 여러 학승들의 왕성한 연구가 이어져 통일신라 교학의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유식사상은 미륵과 미타 및 지장신앙을 배경으로 법상종을 열어 큰 줄기를 이루었다. 삼국시대에 수용된 화엄은 통일신라시대에 의상이 화엄종을 개설하여 신라 교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신라불교 초기부터 저변에 기반을 가져왔던 밀교적 면모는 통일기를 지나면서 국가적 활동을 통해 기반을 쌓았고, 8세기에 중국 신밀교의 정립과 나란히 밀교 조사로서 널리 활동한 현초나 혜초와 같은 인물을 배출하기도 하였다.(정병삼, 2005)

## 2. 유식사상

유식(唯識)사상은 마음과 마음 작용을 모든 인식과 존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 자체에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의 인식작용[識]에 달려 있으며, 그 인식하는 마음의 주체가 알라야식[阿賴耶識=眞如]이라고 한다. 이 인식작용의 대상이 되는 경계가 현상[相]이라고 보아, 모든 존재의 성질과 모습을 탐구한다. 이런 교학 전통이 법상종(法相宗)을 형성하였다. 유식에서는 모든 존재를 이루어내는 인식 주체인 제8 근본식 알라야식을 설정하고, 6식의 밑바탕에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헤아리는 자아의식인 제7 마나식[末那識=心識]과,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의 기본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직접 접촉하면서 판별하는 5식(前五識)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의식 작용인 제6 의식(意識)을 배치한 8식설을 세웠다. 현장 이전에는 지론(地論)에서는 알라야식을 순수청정한 진식(眞識)으로 보기도 하고, 청정하지 않고 생멸하는 망식(妄識)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섭론(攝論)에서는 알라야식을 진과 망이 함께 있다 하여 다시 순수청정한 제9 아말라식[阿摩羅識]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현장이 체계화한 신유식에서는 마음의 근저에서 모든 행위를 발생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인 알라야식을 중심으로 8식설을 주장하였다.

신라 유식사상은 원광(圓光)과 자장(慈藏) 등에 의해 『섭대승론』의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원광은 중국에 가서 섭론의 연구에 열중하여 뛰어난 해석을 발휘하였다. 이들을 통해 신라에 소개된 섭론 교학은 7세기에 들어 유식에 통합되어 신라 교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며 여러 학승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래서 저술을 남긴 통일신라 승려 대부분이 유식에 관계된

저술을 남기고 있을 만큼 교학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통일신라 유식의 흐름은 일찍이 중국에 건너가 활동하였던 원측(圓測, 613~696)에게서 비롯된다. 왕가에서 태어나 일찍이 중국에 유학하여 유명한 승려들에게서 대승과 소승을 고루 배운 원측은 특히 당시 성행하던 유식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를 비롯한 6개 국어에 뛰어난 재능을 가져 경전 번역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원측은 학설에서 다양한 견해를 추구하였고, 장안 남쪽의 종남산 운제사에서 8년 동안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측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당 태종은 그를 서명사에서 지내게 하였고, 이곳에서 23종 108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을 이루어냈다. 신라에서 여러 차례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에 의해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서명학과(西明學派)라는 뚜렷한 흐름을 이루기도 했고, 신라에 전해져 신라 유식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원측은 중국에서 구유식에서 신유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활동하였다. 원측은 처음에 신라 유식의 근간이었던 진제 계통의 섭론에서 기반을 닦았으나 현장이 신유식을 소개하자 이를 수용하여 선양하였다. 그러나 원측의 유식사상은 현장을 계승한 규기(窺基)가 정립한 중국 법상종과는 다른 관점을 보였다.

원측은 독특하고 일관된 틀로써 불교를 이해하고, 일관된 도리에 입각해서 여러 견해를 취사선택하였다. 대립되는 두 견해가 있을 때 원측은 때로는 어느 한 쪽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쪽 모두 취하기도 하며 때로는 제삼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원측이 불교를 이해하는 일관된 틀이란 모든 교설을 방편(方便)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는 이론이란 목적에 이르는 도구라고 생각하였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이 불타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론 자체의 논리적 체계성이나 적합성보다는 그 쓰임에 주목해서 보는 시각이다. 쓰임에 주목해

서 불교의 여러 견해를 대하게 되면 각각의 견해들이 제기되는 맥락과 상황 또는 현실 적용에서의 유효성 등을 두루 주목할 수 있다.(정영근, 1998)

원측이 자신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으로 삼은 도리는 중도(中道)이다. 원시불교 이래 중도는 불교사상의 기준으로서 모든 불교사상가들이 이를 주목하였다. 중관불교의 공(空)사상은 논서를 통해 사상을 심화시킨 부파(部派)불교와 대승의 유식불교를 유(有)에 치우친 것으로 규정하고 허무주의를 무(無)에 치우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중도임을 자부하였다. 그런데 유식불교에서는 부파불교와 중관불교를 유와 공에 치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관점이 중도라고 하였다. 원측은 이에 대해 중관과 유식 모두를 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중도는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며 집착을 떠나면 곧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원측은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중생의 집착을 제거하여 중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유를 전개한 원측은 유식학자로서는 독특한 관점을 가졌고, 그의 유식사상은 집착과 편견을 제거하고 중도를 밝히는 모든 불교사상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원측은 모든 교의가 각각 한 뜻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유식이 주장하는 유(소승)·공(반야)·비유비공(해심밀, 법화)의 삼시(三時)교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리 내용은 중생의 병에 따라 다르고 경의 성질에 따라 그리고 교설의 시기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하였다. 원측은 어느 하나의 입장을 배타적으로 고집하거나 두 입장을 단순히 조합하지 않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각각의 준거와 장점을 밝혀 모두를 불교 속에 포용하였다. 이러한 원측의 인식은 유식학설뿐만 아니라 대승과 소승의 여러 교설을 폭넓게 포용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일승적인 인식체계였다.

현상계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유식에서 인간에 관점을 돌려 수행에 차별

을 두어 구분한 것이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로서, 그 초점은 결코 부처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인 일천제(一闡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다. 신유식에서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특유의 종지로 삼았다. 이에 대해 원측은 일체중생에게 모두 평등하게 여래가 될 가능성[如來藏]이 있으므로, 오성 모두 불성이 있어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천제도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불보살의 위력을 만나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영근, 2002) 또한 일정한 단계에 오른 보살의 수행에 집중하는 신유식과는 달리 원측은 범부의 수행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들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였다.

여러 교설을 폭넓게 인정하는 원측의 포용적인 사상 경향을 잇는 제자들은 당의 법상종과는 다른 별도의 서명학과를 이루었다.(고익진, 1989) 승장(勝莊)·도증(道證)·도륜(道倫)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한 신라 유식 승려 중에는 현장이 인도 경전을 번역하는 데 참여한 신방(神昉)이나 현장에게 배운 순경(順璟)과 같이 중국 유식학의 발전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승장은 저명한 번역가인 의정과 보리유지의 번역장에 참가한 범어 전문가로, 원측의 입적 후에 종남산 풍덕사에 사리탑을 세워 원측에 대한 숭모 풍조를 조성하였다. 692년에 신라에 귀국하여 왕에게 천문도를 바친 도증의 사상은 『성유식론요집(成唯識論要集)』에 집약되어 대현에게 계승됨으로써 신라 법상종 성립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 중국에서 주로 활동한 도륜은 18종 57권의 다양한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그 중 당대 유식사상을 집대성한 『유가론기(瑜伽論記)』 20권(705년)의 방대한 저술에서 당과 신라 유식학승들의 여러 학설을 망라하였는데, 그 견해가 규기의 중국 법상종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방면에 걸친 저서를 남긴 원효(元曉)는 『판비량론(判比量論)』 등 유식학의 저술도 상당수 남겼다. 그의 저술에는 『유가론』이나 『섭대승론』을 비

릇한 13중에 이르는 유식과 인명에 관한 경론을 인용하고 있어, 새로운 사상인 유식학을 크게 활용하여 그의 사상체계를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효는 후에 고려 법상종에서 대현과 함께 해동 조사로 추앙되었으며, 불교 논리학인 인명(因明)을 인식논리학으로 전환시킨 진나(陳那)보살의 화신으로 일컬어졌다.

순경은 특히 인명에 뛰어난 이였다. 순경은 현장에게 신유식을 수학한 현장의 제자로서, 유식의 논증 방법을 배우고 신라에 돌아와 전하였다. 순경이 666년경에 현장의 인명 사상을 전해 듣고 그와는 다른 자신의 견해를 사신편에 중국에 보냈더니, 현장은 이미 죽고 그 제자인 규기가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고 할 만큼 수준이 높았다. 순경은 대승과 소승을 두루 배우고 청정한 마음을 강조하는 두타행을 실천하였으며 신라에 돌아온 뒤에는 기원사에 주석하였다. 순경은 또한 『화엄경』의 ‘초발심에 곧 성불한다’는 구절을 믿지 않고 비방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경흥(憬興)은 문무왕의 유언으로 신문왕대에 국로(國老)로 봉해지고 삼랑사에서 활동한 백제 출신의 인물이다. 경흥은 유식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에 걸쳐 40여 종의 주석서를 남겨 원효·대현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로 꼽힌다. 이 중에서 유식에 관한 저술은 17종으로 그 중심을 이루지만 저술이 전하지 않아 자세한 사상은 알 수 없다.

의적(義寂)은 유식 관계 4종의 저술을 비롯하여 정토·반야·법화·열반·계율 등 25종의 주석서를 저술하여 유식승의 왕성한 저술활동을 계승하였으며, 의상과 만나 교리를 토론하는 등 화엄종과 교류를 갖기도 하였다. 현장에게 수학한 의적은 유식의 우월성 강조에 비판적이었으며 융합적인 태도로 대승경전의 동등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의 규기는 물론 원측과도 다른 독자적인 경향으로서, 원효나 대현의 사상 경향과 통하는 것이었다. 금산사에서 활동했던 의적의 유식 사상은 이후 진표의 법상종 활

동에 영향을 주었다.

대현(大賢)은 법상종 조사인 유가조사로서 추앙된 유식의 대가였다. 그는 경주 남산의 용장사에 주석하며 미륵과 미타상을 함께 받드는 신앙을 전개하였으며, 일체의 논과 중을 편력하였다고 기록될 만큼 불교학의 전 분야를 두루 수학하였다. 그는 모두 50여 종의 저술을 남겼는데, 화엄의 원용한 이치를 탐구하고 법화·열반·반야 등의 대승 경전과 여래장·중관 경전에 주석하였으며, 유가계의 계율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고 정도 관계 저술도 많다. 20종이나 되는 유식 관계 저술은 초기유식으로부터 중국 법상종의 정통이 된 호법의 유식과 인명 등 현장의 신역 논서에 대한 광범위한 주석서들이다.

대현은 유식은 원측-도종의 견해를 계승하고 화엄은 법장과 원효를 계승하여, 유식과 중관에 대해 각기 그 진리성을 인정하는 공정한 입장에서 학설을 비판하고 계승하여 종합하였다. 대현은 중심 저술인 『성유식론학기』에서 당대 학계의 논쟁점을 포괄하여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 가운데 공과 유의 쟁론에 대해 공과 유는 언어상으로는 다투지만 그 근본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서, 논쟁의 의도는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화쟁의 입장을 보였다. 대현의 유식 학설은 법상종 정통의 규기의 학설을 토대로 그와 다른 경향을 보인 원측의 학설을 포용하여 종합 회통한 것으로서, 여기에 대현의 사상적 특색이 있다. 그러나 그 중심 입장은 유식 중도를 근본 중지로 보는 신유식사상이었다.(김남윤, 1995) 대현의 사상은 신라 불교학의 성과를 종합하여 유식중도설의 입장에서 각 교설의 의미를 밝혀 성상(性相)의 대립을 지양하고 신유식사상을 받아들여 당대의 불교를 종합 정리한 것이었다.

중대 초기 이래 유식학승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대현의 사상과 신앙이 중심이 되어 경덕왕대에 법상종(法相宗)이 형성되었다. 법상종은



유식사상 연구를 중심으로 계율 연구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상 연구를 수행하여 신라 불교사상 연구를 주도하였다. 대현은 미륵신앙을 실천하여 이끄는 법상종의 조사가 되었다. 대현이 선도한 법상종은 경덕왕대에 왕경을 중심으로 학파적인 교단을 형성하여 미륵과 미타신앙을 체계화한 것이었다.

이보다 약간 늦게 진표(眞表, 718~? 또는 734~?)가 주도하는 또 하나의 법상종 계통이 있었다. 완산주 출신의 진표는 금산사로 출가하여 당의 선도에 배워온 승제(또는 순제)에게 배우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치열한 수행인 망신참(亡身懺)을 실천하여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의 계법을 받았음을 표방하였다. 진표는 또한 점찰법(占察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과보를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참회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진표는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겠다는 비원의 보살인 지장신앙과 미륵상생 신앙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이 진표가 선도한 법상종은 점찰법과 참회를 내세운 실천적인 교단으로서, 일반민을 대상으로 미륵과 지장신앙을 내세우며 전개되었다. 이 흐름은 속리산의 영심(永深)과 헌덕왕의 왕자 심지(心地)로 이어지고, 석충(釋忠)을 통해 고려 태조에게 연결되는 등 문도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속리산·강릉·금강산 등지의 신라 변방 지역에 실천 신앙 중심의 교화를 전개한 진표 계통의 법상종은 기층민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김남윤, 1984)

이처럼 법상종은 유식사상 연구를 중심으로 계율 연구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상 연구를 수행하여 신라 사상 연구를 주도하는 한편 미륵과 미타 및 지장신앙을 실천하면서 화엄종과 대비되는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 3. 원효 사상

원효(元曉, 617~686)는 신라 교학 연구의 기반 위에서 『기신론』의 학설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상적 과제이던 중관과 유식을 회통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파의식을 극복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는 당대의 사상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대한 사상 체계를 이루어낸 것으로써, 통일기의 신라불교를 근원적인 입장에서 종합 정리하는 불교 이해의 기준을 확립한 것이었다.

원효의 이름이나 그의 집을 초개사(初開寺)라고 했다는 사실은 그가 불교를 처음 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효는 10대 중반에 불문에 출가하여 일정한 스승을 정해 배우거나 한곳에 머무름이 없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교학을 섭렵하였다. 원효가 교류를 가졌던 인물들은 모두 교단불교가 아닌 마을에서 일반민과 어울리거나 산속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이들이었다.

이즈음에 현장이 새로 번역 소개한 신유식은 신라에서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원효는 후배인 의상과 함께 이를 배우고자 고구려를 통해 중국 유학을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침예한 삼국관계 때문에 실패하였다. 대신에 의상과 함께 고구려의 보덕(普德)에게서 열반경 강의를 들음으로써 보다 진전된 불교 사상을 수용할 수 있었다. 원효는 10년 후 다시 중국 유학을 시도하여 해로를 택해 중국으로 건너가려 하였으나 도중에 머무르게 된 고분 속에서 ‘온 세상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요, 모든 이치는 모두 인식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三界唯心 萬法唯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화를 남긴 채, 중국에 건너간 의상과 달리 유학을 포기하였다.

원효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을 저술하였

다. 『금강삼매경』은 뇌종양에 걸린 왕비를 구하기 위해서 용궁에서 얻어와 대안(大安)이 경전을 순서대로 맞추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그리고 원효는 무열왕의 따님인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교단에서 나와 교화에 진력하였다. 원효는 교화 못지않게 많은 저술 작업을 통한 사상체계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원효가 남긴 많은 저술은 반야·유식과 법화·화엄·열반·계율·정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원효가 가장 애써 이론 저작은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금강삼매경론』이다. 원효는 당시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공유의 집착과 편견의 적극적인 극복을 위해 각각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 다른 견해 사이의 적극적인 회통을 위하여, 『기신론소』의 일심이문(一心二門) 이론과 『금강삼매경론』의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실천원리로 정립하였다.(고익진, 1989)

원효의 『판비량론』(671년)은 논리학의 차원에서 중관과 유식의 논리가 같음을 논증하는 것으로서, 공유의 화쟁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준거였다. 이러한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여러 경론의 차이점을 화회(和會)시키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저술하여 구체적인 분파의식의 극복 이론을 전개하였다.

사회 기층에까지 불교를 전파한 원효의 정토신앙은 치밀한 교리적 바탕 위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원효는 미타 경전에 대한 여러 주석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의 본질적인 평등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심과 집착을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발심(發心)과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 염불을 강조한 원효의 정토관은 일심에 의거한 것이었으며,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 서방 극락에 왕생하여 성불할 것을 강조한 대중 지향의 것이었다.

원효는 소승계를 범망계에 포섭 융회한 『범망경보살계본사기』와, 범망계와 유가계를 종합 융화시킨 『보살계본지범요기』를 지어 형식주의적인 소승 계율을 지양하고 정신주의적인 보살계(菩薩戒)를 강조하였다. 원효가 제시한 대승보살계 사상은 출가와 재가를 조화하는 범망계(梵網戒)였다. 원효는 계의 판단기준을 결과가 아닌 동기에 둬으로써 명리와 탐욕과 교만에 빠진 신라 불교계를 비판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수행자 개개인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원효의 저술은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에 의해 모두 90종에 가까운 200여 권의 방대한 분량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는 23종만이 전해진다. 원효의 많은 저술에 인용된 전거는 유식 계통의 경론들이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 이것은 다른 경론과 대조하며 나타나는 차이를 조화하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원효는 여러 저술에서 중관과 유식의 편견에 빠진 교리를 비판하였다. 『기신론별기』에서 원효는 “중관은 모든 집착을 깨뜨리고 깨뜨린 것 또한 깨뜨려서, 깨뜨리는 것과 깨뜨려지는 것을 다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보내기만 하고 두루하지 못하는 논”이고, 이에 비해 “유식은 깊고 얇은 것을 두루 세워 법문을 판별하여, 스스로 세운 법을 모두 버리지 않으므로 이는 주기만 하고 빼앗지 못하는 논”이라고 비판하였다. 다른 저술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은 자주 나타난다. 학도들은 이런 편견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고 행동을 깨끗이 하며 바른 지해를 체득해야 하므로 유와 무를 다 버리고 어디에도 의거함이 없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중관이나 유식과는 달리 『기신론』의 의미는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지혜롭고도 어질며 깊고도 넓어, 세우지 않음이 없으면서 스스로 버리고, 깨뜨리지 않음이 없으면서 다시 인정한다. 다시 인정

한다는 것은 저 가는 것이 다하여 두루 세움을 나타내며,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이 주는 것이 다하여 빼앗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을 일러 모든 논의 근본이요, 못 쟁론을 평정하는 주인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과 긍정을 각각 특징으로 하는 중관과 유식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해도, 중생의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원효는 『기신론』이 이와 같은 중생의 마음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의 사상으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원효 사상의 핵심은 일심이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고, 마음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원효는 파악한다. 모든 현상세계는 일심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일심의 견지에서 포괄되고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심은 본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형상이 있다거나 없다는 모든 상대적인 차별을 떠나서 존재한다. 따라서 일심에서 보면 모든 것은 근원적인 점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허남진, 2005) 기신론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하나는 마음의 있는 그대로의 본래적인 모습[心眞如]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움직이고 변화하는 측면[心生滅]이라고 한다. 두 문은 서로 떨어져 분리된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서로 융통하는 관계에 있는 완전한 전체이기 때문에 진여문은 진여문대로, 생멸문은 생멸문대로 일체법을 포섭하는 전체이다. 진여문은 변하지 않고[不變], 참되고 가치있는[眞] 등의 특징을 지니고, 생멸문은 연에 따라 달라지고[隨緣], 거짓되고 가치없는[俗]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렇게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지만, 각각 모든 것을 포섭하는 한마음을 이루기 때문에 또한 둘이 아니다. 두 문은 일심의 경지에서 화합하고 통한다. 진여와 생멸의 근저에 일심이 있기 때문에 일심에서 보면 진여가 생멸이고 생멸이 진여이다.

원효 사상의 또다른 특징은 화쟁(和諍)이다. 화쟁은 다양한 불교 이론들

사이의 다툼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원효는 각각의 견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다. 그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견해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올바르게 인식시켜줌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원효의 화쟁은 각각의 견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설득력 있게 내려주고, 자신의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기신론』의 해석에서 조직된 원효의 여래장사상은 『금강삼매경론』에서 그 실천 이론을 전개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주제를 일미관행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실천적인 관행이 의거하는 이론적인 원리를 일심 이문 삼대설과 일치시킨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다. 일체의 법은 오로지 일심이며 일체의 중생은 하나의 본각이다. 원효는 한마음을 중심으로 융통무애한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기신론소』에서 일심이문삼대설을 중관과 유식을 회통할 수 있는 이론 체계로 정립하고, 『금강삼매경론』에서 일미관행의 실천 원리로서 사상 체계를 종합하였다.(남동신, 1994)

당시 새롭게 대두하던 화엄사상에 대해서도 원효는 저술을 남겼다.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화엄경소』의 서문에서 밝힌 원효의 화엄관은 보법(普法)사상이다. “결림이 없는 법계법문이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매우 급하지도 않고 유장하지도 않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며 전체도 아니다. 크지 않으므로 아주 조그만 극미가 되어도 남음이 없고, 작지 않으므로 무한히 큰 대허가 되어도 남음이 있다. 매우 급하지 않으므로 능히 삼세겁을 머금고, 유장하지 않으므로 몸을 들어 일찰나에 들어간다. 움직이지도 않고 정지해 있지도 않으므로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이요 일체의 법이 하나의 법이다. 이러한 결림 없는 법이 법계법문의 묘술이니, 모든 보살이 들어갈 바요 삼세제불이 나올 바이다.”

보법이란 일체법이 아무런 장애 없이 서로 드나들 수 있음을 말한다. 일체법이 하나의 티끌과 일체 세계의 대소(大小)관계, 한없이 긴 시간인 삼세겁과 순간인 일찰나의 촉사(促奢)관계, 그리고 움직임과 정지함, 하나와 많은 관계의 모든 범주에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화엄경』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원효는 하나와 일체가 서로 걸림 없이 통하는 것을 보법이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심에 근거하여 일체행을 성립시켰다.

원효가 보법의 원리를 자세히 밝힌 『화엄경소』의 비유는 『기신론소』의 종체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원효의 일심사상은 『기신론소』에 의해 철학적 토대가 구축되어 『금강삼매경론』에 의해 실천성을 부여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화엄경소』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는 원효가 기신론 철학을 화엄경의 보법과 동일한 경지의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말해준다.

원효의 사교판(四敎判) 역시 그의 사상 체계를 잘 드러내준다. 불교의 가르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가르침의 바른 의도를 밝히려는 것이 교판이다. 원효는 사교(四敎)를 먼저 삼승(三乘)과 일승(一乘)으로 나누고, 삼승은 다시 법공의 유무를 기준으로 별교(別敎)와 통교(通敎)로 나누며, 일승은 보법을 기준으로 분교(分敎)와 만교(滿敎)로 나누었다. 삼승별교에는 소승, 삼승통교에는 『반야경』과 『해심밀경』을 배당하여 대승 교학의 양대 조류인 중관과 유식이 나란히 위치하도록 하였다. 일승 분교에는 대승보살계를 설하는 『범망경』과 『영락경』을 배당하고, 정점인 일승만교에는 『화엄경』을 배당하였다. 중관과 유식의 병렬 배당은 공유의 화쟁을 위한 원효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며, 그 위에 대승계율을 배치한 것은 실천적인 특성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남동신, 1988) 사교판은 공유를 화쟁하는 교리와 실천적인 계율을 거쳐 원용무애한 화엄사상을 증득하는 데로 나아가는 원효 교학의 체계를 잘 보여준다.

## 4. 화엄사상

화엄(華嚴)은 『화엄경』이 최고 진리를 설한 것이라고 보아 종래의 여러 사상을 종합하여 화엄이 최고의 원만한 가르침[圓敎]임을 강조한다. 화엄의 교리적 특징은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지어 있다는 연기(緣起)설에 있다. 그 연기는 서로가 결립 없이 통하고[相卽相入] 서로서로 거듭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는[重重無盡] 것으로서, 어떠한 일에도 결립이 없는 세계가 법계(法界)이다.

통일신라 화엄사상을 주도한 것은 의상(義相, 625~702)이었다. 스무살 전후해서 황복사에 출가하여 당시 신라에 소개되었던 섭론·지론 등의 교학 탐구에 열중하던 의상은 현장이 인도에서 들여온 신유식을 배우고자 선배인 원효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로 바닷길을 통해 당나라에 건너갔다.

당나라에 들어간 의상은 그동안 신라에서 익혔던 지론을 더욱 연마하였다. 그리고 나서 장안 남방의 종남산에서 당대의 교학을 집대성하여 새로이 화엄을 정립해가던 지엄의 문하에 나아가 화엄을 배웠다. 의상은 지엄 화엄의 정수를 체득하고 이를 체계화한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668년)를 저술하였다. 그는 화엄일승(華嚴一乘) 법계연기(法界緣起)의 핵심을 언어의 절제 하에 210자의 법계도시로 엮고, 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법계도인(法界圖印)을 만들어 그 내용을 『일승법계도』로 정리함으로써 화엄일승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그 형식도 구불구불 돌아가는 반시(盤詩) 형태의 법계도에 핵심을 집약시켜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상징적인 효과를 의도하고, 최신 기술이던 목판 인쇄에 다라니를 강조하여 담아냈다. 다라니는 모든 법을 갖춘 상징이면서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당에서 귀국한 의상은 신라에서 화엄사상을 떠나갈 전법도량을 물색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깊이 통찰하였다. 이 시기 원효는 유식과 중관을 화회하여 새로운 철학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중 교화를 통해 민중을 정토신앙으로 포용하고 있었다. 의상은 이즈음에 낙산(洛山) 관음의 전승 설화를 남겼다. 동해변 낙산 굴 안에 관음 진신이 산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정진한 끝에 관음 진신을 친견하였다는 것이다. 674년에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의하기도 하였던 의상은 676년에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여 화엄 근본도량을 이루었다. 신라가 당군을 격파하여 통일 전쟁을 마무리지는 시점이다.

통일 이후 신라 사회는 새롭게 확보한 국토와 국민을 새로운 토대에서 하나로 이끌어갈 화합과 안정이 절실하였다.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은 도성을 새롭게 쌓고자 하였다. 이에 의상은 왕의 정치가 바르기만 하면 풀로 언덕을 만들어 경계로 삼더라도 백성들이 감히 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 강력하게 축성 중지를 건의하고 관철시켰다. 의상은 또한 청정한 수도자의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의상은 비구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지물인 승복 세 가지와 발우 하나 곧 삼의일발(三衣一鉢)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소유물도 갖지 않았다. 그래서 국왕이 토지와 노비를 주고자 하였을 때도 불법은 평등하여 귀하고 천한 사람이 함께 이루어간다고 거절하였다.

의상은 부석사를 중심으로 화엄종단을 이끌었는데 그 이념은 화엄사상의 평등과 조화의 이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신분에 따라 구분되는 골품제 사회였다. 의상은 화엄종단 내에서 모든 문도들에게 평등한 종단 운영을 실현하고자 하여 진정과 지통과 같은 기층민 출신 제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활동을 한껏 보장함으로써 분명한 성과를 이루었다. 의상 화엄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일(一)과 다(多)의 상입상즉(相入相卽)으로 설명되

는 법계연기는 평등과 조화의 논리로서 의상의 화엄교단에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실천되었다.(정병삼, 1998)

의상 화엄사상의 정수인 『일승법계도』는 화엄 법계연기설의 핵심으로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말하는 상입상즉의 연기법이 핵심을 이룬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一中多]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多中一], 하나가 곧 전체요[一卽多] 전체가 곧 하나[多卽一]라는 것이 그것이다. 의상은 이를 동전 열 개를 세는 수십전(數十錢)의 비유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법계연기의 범주를 하나와 전체의 상입상즉, 조그만 티끌과 광대한 시방세계, 한 순간과 무한한 시간, 처음 마음을 내는 것[初發心]과 궁극의 깨달음, 그리고 생사와 열반으로 이루어진 다라니 이용(理用)·사(事)·세시(世時)·위(位)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의상은 이를 자리행(自利行)으로 보고, 여기에 이타행(利他行)과 수행(修行)을 추가하여 강한 실천적 성격의 사상 체계를 제시하였다.

의상이 중(中)과 즉(卽)의 이론으로 파악한 법계연기론은 다양한 현상세계와 동일한 이치의 세계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하나와 전체가 같은 자격으로 서로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만 상대를 인정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법계연기의 논리는 개체간의 절대 평등을 의미한다. 상입상즉의 연기설은 전체 구성원의 평등과 조화를 의미하는 이론이었다.

의상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과 깨달은 부처처럼 전혀 다른 두 입장을 융합한 상태의 중도를 말하면서, 동시에 두 입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상대법이 각자의 형식을 지니면서 그대로 중도임을 말한다. 의상이 말하는 중도는 양변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융합으로서의 중도도 인정한다. 양변과 중도의 구도를 통해 중생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대로 성불할 수 있다는 본래성불을 말하는 것이다.

의상의 『법계도』에서 중시하는 법성의 원용은 존재 그 자체가 스스로 드

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인 해인삼매에서만 체득되는 경지로서 이것이 성기(性起)이다.(전해주, 1993) 이 깨달음의 경지 즉 드러난 존재 그 자체로부터 일체 사물이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 연기이다. 지엄은 법계연기의 순정한 면이 성기임을 말하였다. 연기와 성기는 포괄 개념이다. 『일승법계도』 자체에는 성기라는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의상의 견해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화엄경문답』에는 성기에 관한 많은 해설이 나온다. 성기를 강조하여 포괄하는 법계연기설이 의상이 전개한 연기관의 특색이다.

의상은 십현설 등에서 지엄의 학설을 계승하였으나, 수십전설과 육상설을 연기설의 중요한 교의로 정착시키는 독자적인 관점을 보였다. 그는 또 일반 화엄학과는 달리 이의 차별을 인정하는 견해 위에서 이이상즉설(理理相卽說)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실천행을 중시하였고 이는 사상과 문도 형성으로 이룩한 화엄종단에서 신앙으로 실천되었다. 화엄경에 토대를 둔 구도적인 관음신앙과, 시방정토를 본체로 삼는 아미타불이 이 땅에서 중생을 정토로 이끈다는 미타신앙을 실천한 의상의 화엄교단은, 통일기 신라사회가 지향하던 사회 안정을 선도하는 것이었다.(정병삼, 1998)

의상의 원융한 화엄사상을 일심에 의하여 우주의 만상을 통섭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는 전제왕권을 중심으로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에 적당하다고 보기도 한다.(김두진, 1995) 국민들과 국왕을 다(多)와 일(一)의 관계로 보고 화엄의 원융사상이 국민들을 국왕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이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승법계도』에서의 일은 하나와 전체의 상입상즉한 관계 속에서의 일이지 어떤 절대적 개별체가 아니며, 우주의 일체만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동시에 그 하나 역시 일체만상으로 융합되므로 오히려 조화와 평등이 강조되는 이론으로 해석된다. 중국

법장의 화엄사상이 당의 절대주의 체제 이념이었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왕권 이념설은 당대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당위성을 가질 수 없다.(남동신, 1996) 의상 외에 원효나 명효·표원 그리고 의상의 제자들이 일과 다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종교의 본질적 이념 구현에 충실하고자 했지 화엄사상을 현실적, 정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없다.

의상의 활동은 화엄교단을 열어 문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화엄교학과 정토신앙의 실천을 이어나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의상은 『일승법계도』를 중심으로 부석사와 태백산 소백산 등지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화엄사상을 강의하여 신라 화엄사상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제자들은 의상의 강의를 묶어 『추동기』나 『도신장』과 같은 책으로 엮기도 하였고, 그동안 법장의 저작으로 알려져 왔던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도 그중의 하나로 추측되고 있다.

의상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십대제자로 불리는 오진·지통·표훈·진정·진장·도용·양원·상원·능인·법체·도신인데, 이들의 활동 시기는 일부 뒤섞여 있다. 표훈(表訓)은 의상의 지도에 따라 새로운 교의 해석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경덕왕대에 주로 활동했던 연대를 고려하여 의상의 손제자로 보기도 한다. 진정(眞定)은 기충민 출신으로 문하의 사상을 주도하던 제자이다. 지통(智通, 655~?)은 노비로서 어려서 낭지에게 출가하였다가 의상의 문하로 옮겨서 화엄을 깨치고 관행을 닦던 수행인으로 스승의 강의를 기록한 『추동기(錐洞記)』(또는 요의문답) 2권을 지었다. 도신은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도신장(道身章)』(또는 일승문답) 2권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의상과 지엄이나 제자들의 문답과 학설들이 실려 있다. 상원은 의상 문하의 강의에서 많은 문답을 남겼고 양원은 법계도에 주석을 남겼다. 다시 이들에 이어 신림(神琳)과 법융(法融) 등이 의상의 화엄 전통을 널리 계승하여 왕성한 흐름을 이루었다.(김상현, 1991)

의상과 그를 계승하는 문도들은 당시 불교계에서 크게 중시되던 『기신론』을 중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이를 깎아내리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기신론』의 교설이 의상계의 근본사상인 구체적인 사물에서 진리를 봄으로써 자기화하는 무주(無住)의 강조나 오척신(五尺身) 곧 이 몸 그대로의 성불론 주장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의상계에서는 오직 화엄경만을 특화하여 연구하였다.

의상의 직계제자들이 신라 화엄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들과는 사상 내용을 달리 하는 흐름도 다양하게 파악된다. 우선 의상을 계승한 주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 의상계 내에서도 부석사계와 표훈계, 해인사계로 나누기도 한다. 비주류는 원효와 법장의 융합에 따른 화엄과 기신의 융합인 원효계, 오대산·지리산·천관산 등 다른 화엄 경향을 보였던 계통, 또는 황룡사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밖에 법장의 제자인 승전(勝詮)은 690년대에 당에서 귀국하면서 법장이 의상에게 보내는 서신과 법장의 화엄사상을 집약한 화엄경 해석서인 『탐현기』 등의 저술을 가져왔다. 심상(審祥, ?~742) 역시 법장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화엄종의 초조가 되었다.

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의상을 계승하는 화엄종단에 의해 큰 사찰이 곳곳에 건립되어[傳教十刹] 화엄의 성세를 보여준다. 부석사·화엄사·해인사·범어사·옥천사·비마라사·미리사·보광사·보원사·갑사·화산사·국신사·청담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상 경향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해인사에서는 의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활동 경향을 보였다. 현준과 결언은 884년에 중국 화엄종을 정립한 지엄을 추모하는 보은결사를 조직하였고, 886년에는 헌강왕의 명복을 비는 화엄경결사를 조직하였다. 결언은 861년에 경문왕의 초청으로 곡사에서 원성왕의 명복을 비는 강의를

하였으며, 중국 화엄종의 완성자 법장의 저술로서 화엄사상의 핵심 저술인 『교분기』를 강의하였다. 895년에 해인사는 당시 성행하던 지방 세력의 침입을 받아 승군을 조직하여 사원을 보호하였다. 최치원(崔致遠)도 만년에 해인사에 머물며 법장의 덕을 기리는 일을 주도하였다.

화엄사를 대찰로 경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緣起)는 754년에 현존하는 『화엄경』 사경(寫經)을 주도했는데, 『개종결의』·『화엄경요결』·『진류환원략도』와 함께 『기신론』 관계 저술을 남겨 원효 계통의 사상과 연관된 면모를 보였다. 화엄사에서는 이밖에도 정행·정현·영관 등이 활동하였다.

황룡사에서는 법해와 지해 등의 화엄 승려가 활동하였다. 8세기 중반에 보림사를 창건한 원표는 천관보살 신앙을 지녔던 화엄행자였으며, 787년에 승관직인 소년서성을 지낸 범여는 『화엄경요결』 6권을 지었고, 범수는 799년에 징관의 『화엄경소』를 강의하였다.

의상의 화엄과 다른 화엄 저술들도 한 부류를 이룬다. 8세기 중반에 활동한 황룡사의 표원(表員)은 화엄사상의 중요 과제에 대한 제 학설을 집대성하여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訣問答)』을 편찬하였다. 표원은 화엄경의 구조와 설한 시기 등의 문제, 화엄교설의 중심사상인 육상·수십전유·연기·탐현·보법 등의 문제, 대승보살의 수행도 문제 등을 18분야로 묶어 설명하였다. 표원은 법계연기의 근원을 밝히고 각종 법계와 역대 교판을 두루 이해하였는데, 신라화엄학의 주류인 의상의 사상을 위주로 하지 않고 법장의 사상을 토대로 하면서 원효와 혜원·안륜 등의 학설을 집중적으로 인용하였다. 표원은 의상계가 아닌 원효계 화엄학승이었으며, 이처럼 원효와 법장의 사상을 융합한 형태가 표원에서 건등으로 계승되었다.(고익진, 1989)

명효(明晄)는 『해인삼매론(海印三昧論)』을 저술하였는데 형식상 의상의 「법계도인」과 같은 상징적 형상을 취하고 있으나 기신론과 상통하는 해석을 보였다. 명효는 의상사상의 계승자가 아니라 화엄과 기신을 동일한 경

계로 보았던 원효 계통에 속하는 이로 추정된다. 『법계도인』과 『해인삼매론』은 둘 다 상징적인 도인 형태를 사용하여 성불을 지향한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견등(見登)은 화엄사상의 성불의를 밝힌 『화엄일승성불묘의(華嚴一乘成佛妙義)』와 『기신론동이약집(起信論同異略集)』을 저술하였다. 견등은 법장의 저술을 집중적으로 인용하며, 삼승 유가교의 경계와는 판연히 다른 화엄의 성불의를 해석하며 원효와 법장의 사상을 융합 수용하였다.

후삼국 시기에 해인사에는 두 계통의 화엄학풍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회랑(希朗)으로 왕건을 지지하였고, 다른 하나는 관혜(觀惠)로 견훤을 지지하였다. 회랑은 의상계 화엄학의 정통을 주도하던 태백산 분석사 학풍을 계승하여 북악이라 불렀고, 관혜는 지리산 화엄사 학풍을 계승하여 남악으로 불렀다. 각기 독자적인 활동을 보이던 이들 두 학풍은 고려 초에 북악 출신의 균여(均如)에 의해 통합되었다.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은 의상계 화엄사상이 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전승되던 사실을 알려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제공해준다. 고려 중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는 총수록은 2차에 걸쳐 편집되었다. 1차적으로 신라말의 대기(大記)와 법기(法記)와 진기(眞記)의 주석서를 모으고, 다시 이에 부수적인 보충 자료를 추가하여 2차 편집이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되었다. 균여는 초기 화엄의 완성자인 지엄과 의상과 법장의 저술에 대한 방대한 해석서를 짓고 선학들의 의기에 나타난 교의를 재정립하였다. 나말의 선종 수용기를 지나면서 선종의 비판에 위축된 화엄사상의 재정립에 역점을 둔 균여의 화엄사상은 총수록 등에 나타나는 신라 화엄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김상현, 1991)

## 5. 계율사상

계율이란 수행자 개인이 선행을 하겠다는 자율적 의지인 계(戒)와 교단 통제를 위한 승가 규범인 타율적 율(律)을 합쳐 말한 것이다. 불도를 배우는 이가 반드시 닦아야 할 삼학(三學), 곧 잘못된 것을 그치고 잘못되지 않게 하는 계율[戒], 산란한 마음을 막고 안정을 얻는 선정[定],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치를 관하는 것[慧] 중의 하나인 계율은 초기불교 이래 크게 중시되어 승려와 불교도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변화해왔다. 신라에서는 삼국 시기에 사분율(四分律)에 대한 저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장을 비롯한 율사들은 불교 수용 이후 교단 체제 형성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었던 계율을 중심으로 신라 불교 교단을 이끌었다. 중대 신라에 들어서면 계율에 대한 관심이 원효를 계기로 사분율 위주에서 범망계(梵網戒) 중심으로 바뀌고, 계율 연구도 율사들이 아니라 유식학승들이 주도하였다.(최원식, 1999)

원효는 『범망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통해 보살계(菩薩戒)를 신라 사회에 수용 정착시켰다.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에서 원효는 특정 경론에 의거하지 않고 『범망경』을 주석하여, 이미 유행하던 소승계와 새로이 수용된 범망계와의 관계를 해명하였다. 그리고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에서는 범망계를 중심으로 현장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은 유가계와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원효는 중죄의 규정을 완화하고 계를 범하게 된 동기를 중시하여, 정신성을 강조하면서 수행자 개개인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원효는 중생의 이익을 위한 자비살생은 도리어 복을 짓는 것이라고 하여 이타행과 중생제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무애행과 중생 제도



활동과 연관을 갖는 새로운 포괄적 계율관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승장은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를 지어 유가계를 기준으로 범망계를 포섭하려는 의도를 보여 원효와는 다르게 이해하였다. 의적의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와 대현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역시 승장과 같이 유가계의 입장에서 유가계를 바탕으로 범망계를 주석하였다. 그러나 유가계에 범망계를 포섭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본 것 등은 승장과 다르다. 의적은 재가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통일 이후 증가한 서민 신자들의 성장을 반영한다. 동시에 의적은 노비와 주인은 지위가 서로 섞일 수 없다고 신분의 구별을 엄격히 하기도 하여 신라 신분제 사회의 한계를 반영한 면도 보인다. 대현은 현실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왕권 수용을 인정하고 효을을 강조하였다.

계율의 구체적인 해석에서 원효를 비롯한 계율 논사들은 중생에게 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자비살생은 오히려 복을 짓는 일이라는 살생관을 보였으며, 자신을 높이고 남을 헐뜯지 말라는 자찬훼타계의 경우에도 드러난 결과보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중시하여 평가하였다. 보살계 이외에도 원효나 도륜·경홍·혜경 등은 사분율 관계의 저술을 남겼다.

이처럼 신라에서 크게 중시된 보살계 사상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으로 지배자의 전횡을 삼가하게 하고 선정을 유도하는 일면도 가질 수 있었고, 평등사상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살계를 설하는 『범망경』은 효행을 강조하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것을 역설하고 있으므로 이의 유행은 유교와 불교간의 갈등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최원식, 1999)

## 참고문헌

- 趙明基, 1962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新太陽社
-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學校出版部
- 金相鉉, 1991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 全海住, 1993 『義湘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 金英美, 1994 『新羅佛敎思想史研究』, 民族社
- 金두진, 1995 『義湘-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 鄭병삼, 1998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崔源植, 1999 『新羅菩薩戒思想史研究』, 民族社
- 金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허남진 외,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鄭병삼 외, 2007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 金知見, 1973 「新羅 華嚴學의 系譜와 思想」 『學術院論文集』 12
- 金南允, 1984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 蔡尙植, 1984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 南東信, 1988 「元曉의 敎判論과 그 佛敎史의 位置」 『韓國史論』 20
- 丁永根, 1994 「圓測의 唯識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南東信, 1995 「元曉의 大衆敎化와 思想體系」,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南允, 1995 「新羅 法相宗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南東信, 1996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 현실』 20
- 金英美, 1998 「삼국 및 통일신라 불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史論』 28
- 鄭영근, 2002 「一切衆生의 成佛에 대한 圓測의 입장」 『불교학연구』 5
- 鄭병삼, 2005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 『新羅文化』 25



## 목차

• 간행사	004
• 화보	009
• 일러두기	014
• 해제	017

### 1. 【圓測 원측·解深密經疏 해심밀경소】

해제 51

1. 가르침을 일으킴과 제목 60
2. 경의 중체를 밝힘 67
  - 1) 허망한 것을 거두어 진실로 돌아가는 문 68
  - 2) 상을 거두어 식으로 돌아가는 문 69
  - 3) 거짓으로써 진실을 따르는 문 70
  - 4) 세 가지 법으로 결정된 문 72
  - 5) 법수(法數)로서 체(體)를 나타내는 문 75
    - (1) 법수로서 체를 나타냄 75
    - (2)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 92
3. 글에 의해 바르게 해석함 115

### 2. 【憬興 경흥·三彌勒經疏 삼미륵경소】

해제 159

1. 彌勒上生經料簡記 미륵상생경요간기 167
  1. 가르침을 일으킨 연기를 서술함 169
    - 1) 간략히 분별함 169
    - 2) 자세히 분별함 172





- 2. 가르침의 종지와 요체를 자세히 분별함 181
  - 1) 종지와 요체를 총괄하여 분별함 181
  - 2) 별도로 경의 종지를 드러냄 184
- 3. 경전 대본의 단역과 중역 187
  - 1) 단역본인지 중역본인지를 분별함 187
  - 2) 진위를 분별함 191
- 4. 문장에 따라 해석함 194
- 2. 彌勒下生經疏 미륵하생경소 219
  - 1. 설한 뜻 221
  - 2. 이름을 해석함 222
  - 3. 글을 풀이함 223
- 3. 佛說彌勒成佛經疏 불설미륵성불경소 253
  - 1. 설한 뜻을 분별함 255
  - 2. 제목을 해석함 256
  - 3. 본문을 바르게 풀이함 258

### 3. 【大賢 대현·成唯識論學記 성유식론학기】

해제 273

- 1. 종지를 드러내어 체를 나타냄 281
- 2. 문장의 뜻을 해석함 293
  - 1) 가르침을 일으키는 인연에 관한 부분 294
  - 2) 성인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한 부분 340





#### 4. 【諦觀 제관·天台四敎儀 천태사교의】

해제 355

- 사교송(四敎頌) 361
- 사교의연기(四敎儀緣起) 362
- 천태사교의를 새기고[刻天台四敎儀引] 371

##### 1. 총설(總說) 377

##### 2. 화의사교(化儀四敎)와 오시(五時) 385

[前四時] 1) 돈교(頓敎) … ① 화엄시(華嚴時) 386

2) 점교(漸敎) … ② 녹원시(鹿苑時) 390

③ 방등시(方等時) 393

④ 반야시(般若時) 395

3) 비밀교(秘密敎) 397

4) 부정교(不定敎) 398

[五時] …… ⑤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399

##### 3. 화법사교(化法四敎) 411

1) 삼장교(三藏敎) 411

2) 통교(通敎) 442

3) 별교(別敎) 450

4) 원교(圓敎) 463

##### 4. 관심(觀心) 480

1) 25방편(二十五方便) 480

2) 십승관법(十乘觀法) 486





## 5. 【野雲 야운·自警文자경문】

해제 495

1.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고 공안을 참구하라 501
2. 열 가지 경책 508
3. 열 가지 계법을 지켜 정각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라 522

## 6. 【己和 기화·顯正論현정론】

해제 529

1. 불교의 특성 535
2. 불효론에 대해 547
3. 불충론에 대해 554
4. 불살생에 대해 556
5. 불음주에 대해 568
6. 재보시에 대해 572
7. 윤회응보설에 대해 575
8. 화장에 대해 583
9. 삼세인과설에 대해 591
10. 이단설에 대해 593
11. 불교 유해론에 대해 597
12. 무위도식설에 대해 605
13. 불교 사태에 대해 607
14. 불교 무용론에 대해 609
15. 도·유·불 삼교의 같고 다름 614

- 찾아보기 .....617
- 역주자 .....651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653
- 한국전통사상총서 .....655





圓測 원측

## 【解深密經疏 해심밀경소】

해제

1. 가르침을 일으킴과 제목 \_\_\_\_\_
2. 경의 종체를 밝힘 \_\_\_\_\_
  - 1) 허망한 것을 거두어 진실로 돌아가는 문
  - 2) 상을 거두어 식으로 돌아가는 문
  - 3) 거짓으로써 진실을 따르는 문
  - 4) 세 가지 법으로 결정된 문
  - 5) 법수(法數)로서 체(體)를 나타내는 문
    - (1) 법수로서 체를 나타냄
    - (2)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
3. 글에 의해 바르게 해석함 \_\_\_\_\_









## 解題 해제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는 원측(圓測, 613~696)이 지은 유식학의 중요 저술이다.

원측은 법휘는 문아(文雅)인데 자인 원측으로 불렸다. 신라의 왕족으로 태어나 3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10대의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였다. 15세 때에 법상(法常)과 승변(僧辯)에게 섭론을 들으며 교학 수련에 열중하였다. 원측은 당 태종이 득도를 허락하고 장안의 원법사에 머물게 할 만큼 당에서도 일정한 후원을 받아 활동하였다. 원측은 중국에서 수학하면서 다양한 불교학을 익혀 비담·성실·구사·비바사 등에 두루 통달하고 범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하였다. 645년에 현장이 새로운 경론을 가지고 인도에서 귀국하여 『유가론』과 『성유식론』 등을 번역 소개하자 원측은 이들 사상을 수용하였다. 658년에 서명사(西明寺)가 낙성되자 원측은 대덕으로 초빙되어 이곳에서 머물며 『성유식론소』를 비롯한 많은 논서를 지어 현장의 신역불교를 널리 퍼는 데 이바지하였다. 한때 종남산 운제사에 물러나와 지내고 이후 더욱 한적한 곳에서 8년 동안 한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서명사에 돌아와 『성유식론』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밀엄경』·『현식론』 등을 번역하



는데 증의(證義)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유가론소(瑜伽論疏)』를 비롯한 10여 종이 있었는데, 현재는 『해심밀경소』·『인왕경소』·『반야심경찬』만이 전해지고 있고, 후대의 저술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을 모아서 편집한 『성유식론소』 복원본이 근대에 편집되었다. 신라에서는 신문왕이 여러 차례 원측의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측천무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아 원측은 끝내 신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낙양에서 실차난타가 새로이 들여온 『화엄경』(80화엄) 번역에 참여한 원측은 이를 모두 마치고 전에 불수기사에서 84세로(696년) 입적하였다.

원측은 먼저 진제의 구유식을 깊이 이해하는 교학 기반을 다졌으나 현장이 호법 계통의 신유식을 소개하자 곧 이를 수용하여 크게 선양하였다. 원측은 식설(識說)과 삼성설(三性說)에서 진제계의 유식을 비판하였다. 식설은 외경을 파악하는 마음의 작용을 구분한 유식의 중요 개념이다. 지론중에서는 이를 8식설로 정리하였는데, 진제가 정립한 섭론에서는 진망화합식인 8식 아리야식 위에 진여정식인 제9 아마라식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측은 그 명칭과 이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9식설을 비판하고 신유식의 8식설을 주장하였다. 원측은 현상세계의 이론적 설명과 깨달음으로의 실천적 전환을 포괄하는 삼성삼무성설에서도 진제설을 비판하였다. 원측은 삼성 중에서 진제가 집착하는 작용으로서의 의타기성과 집착하는 대상으로서의 변계소집성을 모두 부정한 데 대해, 의타기성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거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올바른 진리마저 부정하게 되므로 이는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원측은 그러나 여러 이론을 전개하면서 진제의 학설을 많이 인용하였다. 다만 신구유식의 견해가 차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유식설을 따르고 있다. 이는 원측의 지향점이 현장에 의해 새로이 소개되어 당시 당의 불교계

를 풍미해가던 신유식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원측은 현장에서 규기로 이어지는 당의 법상종 유식사상과는 달리 중관과 유식의 대립에 대한 의식에서는 포용적인 관점을 보였다.

원측은 미륵은 진속(眞俗)이 아울러 존재함을 설하고 용수는 공유(空有)를 둘 다 버림을 설하여 유식과 중관이 비롯되었고, 청변과 호법에 의해 공유 대립의 형세가 전개되었다고 소개하였다. 청변은 일체법은 모두 공이러하고, 호법은 일체법은 유무에 통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원측은 공관(空觀)을 통해 이 둘을 화회하고자 하였다. 공이면서 유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두 가지 진리를 이루며,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중도를 터득한 것이라고 하여 청변과 호법 모두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불법의 큰 뜻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강조하며, 그러기에 내가 낫다는 논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에 심히 어긋난다고 학파간의 대립적 입장을 경계하였다.

원측은 중국 유식의 기본 관점인 오성각별설을 부정하고 일천제의 성불을 인정하는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의 주장이 그 중요한 사상적 특색임이 평가되어왔다.<sup>1)</sup> 그런데 근자에 원측의 견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규기나 혜소 등 중국 법상종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원측도 오성각별설을 정당화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sup> 그 요지는 원측이 일성개성설을 주장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측의 견해를 반박한 혜소가 원측이 일성개성을 주장했음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과 도륜이 『유가론기』에서 인용한 원

---

1) 이런 논지는 다수를 차지한다. 丁永根(1994「圓測의 唯識哲學 - 新·舊唯識의 비판적 종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과 南武熙(2005「圓測의 生涯와 唯識思想 研究」, 國民大學校 박사학위논문) 등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橘川智昭, 1997「西明圓測と五性各別論」『東洋學研究』34, 東洋大學 東洋學研究所 등

측이 무종성인(無種姓人)의 존재를 인정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혜소의 『성유식론요의등』은 『성유식론』에 대한 원측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상유식과 원측유식이 다른 점을 모두 들어서 반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원측이 중생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혜소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고 논박하는 차이를 보인 것은 일성개성설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도륜의 인용은 신역 경전과 관련한 경전 해석의 편협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그 본질로서, 원측은 일천제 성불여부의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가 모두 다 각기 경전적 근거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sup>4)</sup> 원측은 오성각별에 대한 해석에서 오성각별 및 삼승차별을 진실이라고 설하는 『해심밀경』의 논지에만 충실히 따르지 않고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경론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오성각별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성(理性)과 행성(行性)을 구분하고, 이성의 관점에서는 모든 중생이 동일하지만 행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생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자은파의 기본적인 논지인 데 비해, 원측은 이의 동일성과 행의 차별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와 행을 종합한 관점에서 중생을 평등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sup>5)</sup>

이처럼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원측의 사상에는 유식과 중관 그리고 구유식과 신유식의 두 학파의 대립적인 입장을 폭넓게 포용 이해하여 극복하려는 화회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3) 키츠가와 토모아키, 2001 「圓測 思想의 再檢討와 課題」 『普照思想』 16, 보조사상연구회, pp.170~173

4) 정영근, 2002 「一切衆生の 成佛에 대한 圓測의 입장」 『불교학연구』 5, 불교학연구회, pp.159~163

5) 정영근, 위의 글, pp.173~174

관점은 원측이 모든 교설을 목적에 이르게 하는 도구인 방편으로 보고 이론 자체의 논리적 체계성보다는 그 쓰임에 주목했던 인식과도 상통한다.<sup>6)</sup>

원측 이후 중국 법상종의 계승자들은 원측 계통을 비판하여 원측의 유식사상은 중국 법상종에서는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측이 보였던 포용적인 태도는 당시 불교사상계의 가장 중요한 중관 유식의 지양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이었다. 원측의 포용적인 사상 경향을 잇는 제자들은 현장-규기로 이어지는 당의 법상종과는 다른 별도의 학파를 이루었고, 이를 원측이 활동하던 사원을 따라 서명학과(西明學派)라고 부른다. 승장(勝莊)·도증(道證)·도륜(道倫) 등의 계승자들이 이런 독자적인 사상 경향을 이어갔다. 서명학파의 유식사상은 『성유식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자은학과와 견해가 달랐다. 원측은 10대 논사들이 유식을 검토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여러 견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유식의 올바른 뜻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혜소는 여러 학설들의 객관적 대조보다는 규기의 견해만이 옳다고 보고 다른 주장을 논파하는 데 주력한 차이가 있다.<sup>7)</sup> 일미의 관점에서 융섭적 입장을 취하는 원측의 유식사상은 도증을 통해 신라에 전해져 대현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신라 교학의 활발한 전개를 주도하였던 유식사상의 바탕에 원측의 유식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원측 유식사상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해심밀경소』를 선택하여 그 중요한 분을 골라 번역하였다. 원측이 나눈 단락 중 교흥제목(敎興題目)과 변경종체(辨經宗體)의 출체(出體) 부분 대부분, 그리고 의문정석(依文正釋) 중에서 오성각별설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

6) 丁永根, 1994 앞의 글, pp.34~46

7) 南武熙, 앞의 글, pp.141~150

부분을 중심으로 번역하여, 원측 유식사상의 실마리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教興題目 ○

2 辨經宗體 • 出體

1) 攝妄歸真門 ○

2) 攝相歸識門 ○

3) 以假從實門 ○

4) 三法定體門 ○

5) 法數出體門 (1) 法數出體 ○

(2) 本影有無 ○ ① 本影有無 有本無影/ 有影無本  
本影俱有/ 本影俱無

② 說法差別

(3) 聚集顯現歷心差別

(4) 辨音一異

• 辨宗

1) 四宗 (1) 存妄隱真宗

(2) 遣妄存真宗

(3) 真妄俱遣宗

(4) 真妄俱存宗

2) 三宗 (1) 約時辨宗

(2) 部別顯宗

(3) 隨病別宗

3 顯所依爲 1) 顯教所依

2) 顯教所爲

4 依文正釋 1) 廣略同異

2) 判文解釋 (1) 教起因緣分

(2) 聖教正說分 ○ (一切法相品 일부)

(3) 依教奉行分

## 『해심밀경소』의 구조

(○표시 부분이 이 책에서 다른 부분임)

## 참고문헌

- 宋復, 「大周西明寺故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 卍二乙23-1
- 崔致遠, 「故翻經證義大德圓測和尚諱日文」, 『智異山華嚴寺事蹟』
- 張明희, 2005 「圓測의 解深密經疏三에 나타난 止觀思想」, 『佛教研究』 22, 한국불교연구원
-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東國大學校 出版部
- 키즈가와 토모아키, 2001 「圓測 思想의 再檢討와 課題」, 『普照思想』 16, 보조사상연구회
- 金南允, 1984 「新羅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 金성구·김묘주 역, 1996·2000 『해심밀경소』 1·2, 동국역경원
- 南武熙, 2005 「圓測의 生涯와 唯識思想 研究」, 國民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박인석, 2004 「圓測의 勝義諦觀」, 『佛教研究』 21, 한국불교연구원
- 白眞順, 2003 「敎體論에 나타난 圓測과 窺基의 言語觀」, 『伽山學報』 11, 伽山佛教文化研究院
- 申賢淑, 1979 「唐 窺基와 新羅 圓測의 相違說 研究(Ⅰ)」, 『韓國佛敎學』 4, 韓國佛敎學會
- 吳亨根, 1976 「圓測法師와 一乘思想」, 『韓國佛敎學』 2, 韓國佛敎學會
- 吳亨根, 1988 「新羅 圓測法師의 唯識思想 研究」, 『佛敎學報』 25,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 元義範, 1975 「圓測의 唯識思想」,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圓佛敎思想研究院
- 丁永根, 1993 「圓測의 敎體論」, 『泰東古典研究』 10,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 丁永根, 1994 「圓測의 唯識哲學 - 新·舊唯識의 비판적 종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鄭영근, 2002 「一切衆生의 成佛에 대한 圓測의 입장」, 『불교학연구』 5, 불교학연구회
- 趙明基, 1949 「圓測의 思想」, 『震檀學報』 16, 震檀學會
- 최정규, 1999 「원측 유식학의 철학적 기반」, 『九山論集』 3, 九山獎學會
- 許一範, 1991 「티베트譯 圓測『解深密經疏』에 관한 基礎研究」, 『東國思想』 24,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 黃晟起, 1972 「圓測의 唯識學觀에 關한 研究」, 『佛敎學報』 9,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 稻葉正就, 1949 「圓測撰解深密經疏의散逸部의研究」, 京都:法藏館
- 橘川智昭, 1997 「西明圓測と五性各別論」, 『東洋學研究』 34, 東洋大學 東洋學研究所
- 橘川智昭, 1999 「圓測による五性各別の肯定について」, 『佛敎學』 40, 佛敎思想學會
- 橘川智昭, 2001 「圓測の五性各別思想-圓測思想に對する從來解釋の再檢討と基敎學との比較」, 東洋大學博士學位請求論文
- 吉村誠, 2000 「唐初期における五性各別說について」, 『日本佛敎學會年報』, 日本佛敎學會





# 해심밀경소

## 解深密經疏

서명사(西明寺)<sup>1)</sup> 사문(沙門) 원측(圓測) 지음

### 『해심밀경』 「서품」 제일(解深密經序品第一)

이 경을 해석하는데 네 가지 문(門)으로 분별할 것이다. 첫째 가르침을 일으킴과 제목[敎興題目], 둘째 경의 중체를 밝힘[辨經宗體], 셋째 의지하여 삼은 것을 나타냄[顯所依爲], 넷째 글에 의해 바르게 해석함[依文正釋]이다.

將欲釋經四門分別。一敎興題目，二辨經宗體，三顯所依爲，四依文正釋。<sup>2)</sup>

---

1) 서명사(西明寺):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에 있던 절. 당 고종(高宗)이 칙명으로 창건하게 한 절로 658년에 완공되었다. 규모는 10원(院)에 4천 여 칸이 되며, 주위가 몇 리나 되는 큰 절로 인도 기원정사의 규모를 따라 지었다고 한다. 완공 후 도선(道宣)을 상좌로 임명하여 주석하게 하고, 이어 현장(玄奘)을 초빙하여 지내도록 하였다. 신라의 원측법사가 이 절에서 주석하여 서명대사로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법상종이 현장 이후 규기-혜소로 이어지는 정통을 강조하면서 자은종(慈恩宗)이라 불린 데 비해 이와 다른 교학 경향을 가졌던 원측과 그 제자들을 서명학과(西明學派)로 구분해 부른다.

2) 이하 앞 부분의 원문은 『해심밀경소』 권1 韓1 pp.123b1~129a4.

## 1. 가르침을 일으킴과 제목[教興題目]

첫 번째 가르침을 일으킴과 제목이다. 생각해보니 진성(眞性)은 매우 깊어서 온갖 형상을 뛰어넘어 형상을 이루고, 원음(圓音)<sup>3)</sup>은 신비하여 많은 말을 베풀면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말 자체에서 말을 잊어버리고, 형상이 아닌 것에서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치(理)는 비록 고요하지만 말할 수 있으므로 말 자체에서 말을 잊어버리고, 말은 비록 넓게 퍼졌지만 설함이 없다. 설함이 없으므로 (유마의) 방장실에서 둘이 아님(不二)에 대해 침묵하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궁(淨宮)<sup>4)</sup>에서 삼성(三性)<sup>5)</sup>을 분별하였다. 이 때문에 미륵보살<sup>6)</sup>은 진리(眞)와 세속(俗)을 말하여 나란히 두었

3) 원음(圓音): 부처님의 말씀. 원만하고 신묘한 말이라는 의미에서 원음이라고 한다. 이 땅의 중생들은 듣는 기관이 비교적 예민하여 부처님께서 음성에 의지하여 이름과 글귀와 문장을 대법을 연설하시는 것을 원음을 연설하신다 하는데, 이는 제불의 국토에서 광명과 미묘한 향기와 맛 등에 의하여 설법하시는 것과 같아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4) 정궁(淨宮): 사원·사찰. 절을 말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인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이므로 궁궐이란 이름을 붙였고, 그곳이 청정한 곳이므로 청정한 궁궐이라는 의미로 절을 일컫는 말로 사용됨.

5) 삼성(三性): 일체 모든 법을 그 성질상으로 보아 셋으로 나눈 것. ①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이리 저리 억측을 내어 집착하는 성(性)이란 뜻. 범부의 미망(迷妄)한 소견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아는 일체의 사물. ②의타기성(依他起性), 다른 인연에 의하여 생긴 만유(萬有). ③원성실성(圓成實性), 현상의 본체. 곧 원만·성취·진실한 진여를 말함.

6) 미륵보살: 270~350경. ㉔Maitreya, 인도 대승불교의 2대 학파 중의 하나인 유가행파(瑜伽行派, yōgacāra)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사람. 대승 초기의 『반야경』 이래의 공사상에 기초하여 『해심밀경』 등에 의한 유식학설을 수립하였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지어 아뢰야식(阿賴耶識)에 대해 상세한 이론을 펼쳤는데, 우리들의 인식은 모두 아뢰야식의 나타남이며 그밖에 외적 내적인 존재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대승장엄경론송(大乘莊嚴經論頌)』과 『변중변론송(辯中

고 용수(龍樹)대사<sup>7)</sup>는 공(空)과 유(有)를 말하여 함께 버렸다. 그런즉 그대로 둔 것[存]이 버리는 것[遣]과 어긋나지 않아서 유식(唯識)의 뜻이 더욱 빛나고, 버리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무상(無相)<sup>8)</sup>의 뜻이 항상 세워져 있다. 공(空)이기도 하고 유(有)이기도하므로 이제(二諦)<sup>9)</sup>의 근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유(有)도 아니고 공(空)도 아니기에 중도(中道)의 이치에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잘못 아는 자들은 공(空)을 말하면서

---

邊論頌』 등을 미륵의 저작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여러 논서들과 함께 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또한 미륵의 역사적 실재 여부에 대한 이론도 있다.

- 7) 용수(龍樹)대사: ①Nāgārjuna, 용맹(龍猛)·용승(龍勝)이라고도 함. 인도 대승불교 중관학과(中觀學派)의 창시자. 남인도의 브라만 출신으로 베다 등을 익히다 욕심과 쾌락이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였다. 소승을 배우다가 만족하지 못하여 설산지방으로 가서 대승 경전을 공부하고, 후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대승 경전을 구하였다. 힘써 불법을 전파하고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써서 대승교학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승 반야(般若) 학설을 전 인도에 두루 퍼뜨렸다. 이후 전개된 제 교학에 두루 큰 영향을 미쳐 팔종(八宗)의 조사로 추앙될만큼 대승교학의 중심을 이룬다. 저술로는 『중론(中論)』·『공칠십론(空七十論)』·『회쟁론(迴諍論)』·『대승과유론(大乘破有論)』·『보리자랑론(菩提資糧論)』 등 매우 많아 천 부의 논주[千部論主]로 불리며, 『대지도론(大智度論)』·『십이문론(十二門論)』·『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도 그의 저술로 보지만 논란이 있다.
- 8) 무상(無相): ① 진여(眞如) 법성(法性)은 미혹한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의 모양이 없는 것. ② 생멸 변천하는 모양이 없는 무위법(無爲法). ③ 모든 집착을 여윈 경계. ④ 객관의 속박을 벗어나 만법이 환술(幻術)과 같은 줄을 아는 온갖 무루심(無漏心). ⑤ 초지 이상의 보살이 무루심으로 닦는 공관(空觀).
- 9) 이제(二諦): 진제(眞諦)와 속제(俗諦). 제는 실다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성자가 본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뜻. 진제(眞paramārtha-satya)는 승의제(勝義諦)·제일의제(第一義諦)라고도 한다. 사성제(四聖諦)의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제(四諦)를 말하는데, 이 가르침이 진실되고 둘도 아니기 때문에 진제라고 부른다. 속제(俗saṃvṛti-satya)는 세속제(世俗諦)·세제(世諦)라고도 하며, 세속의 법을 따라 생멸 등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설하는 논리. 즉 세간의 사실과 속지(俗地)의 이치를 가리킨다.

유(有)에 집착하나, 깨달은 사람은 유(有)를 분별하지만 공(空)에 통달함을 알아야 한다.

불법(佛法)은 매우 깊으니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다만 접인(接引)<sup>10)</sup> 하는 방법이 많아서 이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아닐 뿐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삼법륜(三法輪)<sup>11)</sup>을 말씀하셨다. 첫째는 성문승(聲聞乘)<sup>12)</sup>을 일으킨 사람을 위하여 바라나국(波羅奈國)<sup>13)</sup> 시록림(施鹿林)<sup>14)</sup>에서 생사와

10) 접인(接引): 불보살이 중생을 인도하여 거두어들이는 것. 또 스승이 제자를 이끄는 것. 섭인(攝引)·접화(接化)라고도 한다.

11) 삼법륜(三法輪): 전법륜(轉法輪)·조법륜(照法輪)·지법륜(持法輪)을 말한다. 법상종의 교판. 전법륜은 부처님께서 처음 사제법을 설하시어 차별상을 보인 초전법륜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법륜이라 하며, 소승 유교(有敎)가 이에 해당한다. 조법륜은 공을 설하여 진리를 관조하여 증득하게 하므로 조법륜이라 하며, 대승 공교(空敎)가 이에 해당한다. 지법륜은 공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삼성과 진여공성 등을 설하여 삼승이 모두 수지(修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법륜이라 하며, 유식의 중도교(中道敎)가 이에 해당한다. 삼법륜설은 진제삼장(眞諦三藏)이 석존 일대의 불교를 셋으로 분류한 것으로, 원측이 진제의 의견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12) 성문승(聲聞乘): 성문(聲聞) 지위(地位)에 있는 사람이 증과(證果)에 오르기 위하여 닦는 교법. 성문인은 사제(四諦)의 이치를 실천하여 생사를 떠나 열반에 이른다.

13) 바라나국(波羅奈國): 현재 인도 중부 강가(Ganga)강 연안의 바라나시(Vārāṇasī) 지방. 바루나(Varuna)강과 아씨(Assi)강이 강가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두 강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바라나시라 불렀다. 무굴제국 때 베나레스(Benares)로 바뀌기도 했으나 지금은 바라나시로 부른다.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쉬주에 속한다. 석존이 처음 깨달음을 설법한 사르나트(Sārnāth)가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바라나시의 영향권 안에 있으므로 석존 이후 불교가 번성하였다. 지금은 힌두성지로 유명하며 자이나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14) 시록림(施鹿林): 녹야원(鹿野苑, Mṛgadāva)을 말함. 사슴동산이라는 뜻.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 칠칠일(七七日)이 지난 뒤, 처음에 함께 수행하다 자신을 떠났던 콘디니아[橋陳如] 등 다섯 명의 비구를 찾아와 사성제(四聖諦) 등 깨달은 내용을 설한 곳으로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법이 이루어진[初轉法輪] 역사적

열반의 인과를 처음으로 설하셨으니 이것이 첫째의 사제법륜(四諦法輪)이다.<sup>15)</sup> 둘째는 보살승(菩薩乘)<sup>16)</sup>에 나아간 사람을 위하여 취봉산(鷲峯山)<sup>17)</sup> 등에서 16회에 걸쳐 여러 반야를 설하셨으니<sup>18)</sup> 이것이 둘째의 무상법륜(無相法輪)이다. 마지막으로 일체승(一切乘)에 나아간 사람들을 위하여 연화장 등 정토와 예토에서 『해심밀경(解深密經)』 등을 설하셨으니 이것이 셋째의 요의대승(了義大乘)이다.<sup>19)</sup> 이것이 여래께서 가르침을 일으키신 뜻이다.

인 장소이다. 현재 바라나시(Vārāṇasī) 북쪽 10km 거리에 있는 사르나트(Sārṇāth)이다. 탄생지 룸비니, 성도지 보드가야, 열반지 쿠슈나가라와 함께 불교 4대 성지의 하나이다.

- 15) 사제(四諦) : ㉠satya, 네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眞理). 곧 고제(苦諦)·집제(集諦)·멸제(滅諦)·도제(道諦)를 말한다. 고제(苦諦)란 현실이 고(苦)임을 관하는 것, 집제(集諦)란 고(苦)의 원인은 번뇌의 모임임을 관하는 것, 멸제(滅諦)란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이상 곧 열반을 관하는 것, 도제(道諦)란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관하는 것이다.
- 16) 보살승(菩薩乘) : 성불하기를 목적으로 삼는 보살들이 수행하는 6바라밀 등의 법문. 성문(聲聞) 연각(緣覺)과 함께 삼승의 하나. 이 법문은 보살로 하여금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 불교에 이르게 하므로 보살승이라고 한다. 바라밀 수행이 수레[乘]가 되어 중생을 실어 삼계를 넘어 무상의 보리 곧 열반의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으므로 보살승이라 한다. 또 보살의 근기를 가진 부류를 바로 보살승이라고도 한다.
- 17) 취봉산(鷲峯山) : 영취산(靈鷲山, ㉠Gṛdhrakūṭa)의 다른 이름. 음역하여 기사굴산(耆闍崛山)이라고 한다. 인도 마가다국(摩揭陀國) 왕사성(王舍城, Rājagṛha)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산 모양이 독수리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많은 경전을 설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의 성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 18) 『대반야경』 중에서 설법이 행해진 네 장소와 그 횟수를 말함. 왕사성의 영취산에서 제1회부터 제6회까지, 사위국의 급고독원에서 제7회부터 제9회까지, 타화자재천궁에서 제10회, 급고독원에서 제11회부터 제14회까지, 영취산에서 제15회, 왕사성의 죽림정사에서 제16회의 설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 19) 이 소의 본경인 『해심밀경』에는 제1시는 파라닐사 시룩림에서 성문승에 사제상(四諦相)을, 제2시는 대승에게 은밀상(隱密相)을, 제3시는 일체승에게 현료상(顯

第一教興及題目者. 竊以, 眞性甚深, 超衆象而爲象, 圓音秘密, 布群言而不言. 斯乃卽言而言亡, 非象而象著. 理雖寂而可談, 卽言而言亡, 言雖弘而無說. 無說<sup>20)</sup>故嘿不二於丈室, 可談故辨三性於淨宮. 是故慈氏菩薩, 說眞俗而並存, 龍猛大士, 談空有而雙遣. 然則存不違遣, 唯識之義彌彰, 遣不違存, 無相之旨恒立. 亦空亦有, 順成二諦之宗, 非有非空, 契會中道之理. 故知迷謬者說空而執有, 悟解者辨有而達空.

佛法甚源豈不斯矣? 但以接引多方, 入理非一. 是故法王說三法輪. 初爲發起聲聞乘者, 波羅柰國施鹿林中, 創開生死涅槃因果, 此卽第一四諦法輪. 次爲發趣菩薩乘者, 鷲峯山等十六會中, 說諸般若, 此卽第二無相法輪. 後爲發趣一切乘者, 蓮華藏等淨穢土中, 說深密等, 此卽第三了義大乘. 是卽如來教興之意也,

제목에서 『해심밀경(解深密經)』이라고 한 것은 일부(一部)를 한데 모아 부른 이름이다. 서품제일(序品第一)이란 품(品) 안의 개별적인 이름이다. 해(解)는 해석을 말하며, 심(深)은 매우 깊다는 것이고, 밀(密)은 비밀스럽다는 것이다. 이 경의 근본은 경(境)·행(行)·과(果)의 세 가지가 비교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함이니, 이와 같이 매우 깊은 뜻을 해석하였기에 해심밀(解深密), 곧 깊고 비밀스러움을 해석한다 라고 이름하였다. 경(經)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소달람(素怛纜)<sup>21)</sup>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경(經)이라고 한다.

了相)의 정법륜(正法輪)을 각각 굴렀다고 하여 3시를 구분하였다.(『解深密經』 권 2 大16 p.697a23~b9)

20) 원문에는 ‘無說’이 없으나 문맥으로 보아 보충해 넣음(한국불교전서 교감 참조).

21) 소달람(素怛纜): 𑖀sūtra의 음역. 원래 실이나 끈의 의미로서 실로 꿰어서 중생을 보호하고 거두어 지닌다는 뜻을 나타낸다. 부처님께서 설한 교법을 후세에

세속의 책에 의하면, 경(經)은 상(常)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가르침의 뜻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을 가리켜 상(常)이라고 하였다. 혹 연(緦)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사분율(四分律)』<sup>22)</sup>에서 “실[緦]로 꽃을 꿰면 안정되어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sup>23)</sup>라고 하였다. 대당삼장(大唐三藏)<sup>24)</sup>에서는

전하는 문장이나 어구, 즉 경교(經敎)·경법(經法)을 의미하며, 넓게는 경전(經典)을 가리키게 되었다.

- 22) 『사분율(四分律)』: ㉔Dharmagupta-vinaya. 60권. 석가모니 입멸 후 100년경에 담무덕(曇無德 ㉔Dharmagupta, 法護)이 상좌부(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걸쳐 뽑아 엮었다는 율문(律文). 요진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 공역. 사분율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석존 입멸 후 100년 경에 담무덕존자가 상좌부(上座部) 율장 중에서 자신의 견해와 맞는 부분을 모아 네 번에 걸쳐 결집(結集)하여 네 상자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름 붙였다고도 하고,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기에 사분율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또 상좌부에서 전해온 율장이라는 견해도 있고, 대중부에서 설하는 율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당대에 도선(道宣)이 이를 크게 선양하고 이에 바탕하여 계율종이 이루어져 그 근본 전적이 되었고, 『사분율』의 내용은 동아시아 불교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23) 『사분율』에는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구슬이 실에 꿰어 있는 비유는 나오지만, (권53 大22 p.965a11~16.) 실로 꽃을 꿰는 비유는 알 수 없다. 『선견율비바사(善見毘婆沙)』에는 경을 흩어지는 꽃을 실로 꿰어 놓으면 바람이 불더라도 흩어지지 않듯이 경전도 그와 같이 제법상을 꿰어 흩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권1 大24 p.676b1~3. 譬如散花, 以緦貫穿風吹不散. 修多羅者亦復如是, 貫諸法相亦不散.)
- 24) 대당삼장(大唐三藏): 현장(玄奘, 602~664)을 말한다. 629년에 육로로 서역을 통해 인도에 가서 645년에 다시 육로로 돌아오기까지 17년 동안 각 지역을 순례하고 불법을 배웠다. 이를 기록한 가장 방대한 구법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중인도 30개국, 동인도 6개국, 남인도 15개국, 서인도 10개국, 북인도 19개국, 중앙아시아와 기타 58개국을 합쳐 모두 138개국을 순력하며 서술한 불적과 나라 사정이 실려 있다. 현장은 인도에서 귀국하며 불상과 불사리 150과와 함께 산스크리트어 원전 불경을 520상자 분량에 해당하는 657부를 가져왔다. 귀국 후에 태종의 대대적인 후원을 받아 삼장법사(三藏法師)라는 호를 받았다. 본래 경·율·논 삼장에 통달한 고승을 삼장법사라 하지만 이런 유래 때문

계경(契經)이라고 번역하였으니 꼭 들어맞음[契合]을 이른다. 계(契)는 도리(道理)에 맞는 것이고, 합(合)은 중생의 근기에 맞다는 뜻이다.

경(經)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꿰뚫는 것[貫穿]이고, 둘째는 거두어 지니는 것[攝持]이다. 대웅한 바에 따라 설한 뜻을 꿰뚫고 있고, 교화한 중생을 거두어 지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경(契經)이라고 한다.

이름을 밝힌다. 해(解)와 경(經) 두 글자는 설하는 가르침[能詮]이고, 심(深)과 밀(密)이란 말은 설명하는 이치[所詮]를 나타낸다. 능전(能詮)과 소전(所詮)에 따라서 경의 제목을 세웠으니 이것이 심밀지해경(深密之解經)이다. 그래서 여섯 가지 해석 가운데 이것은 의주석(依主釋)<sup>25)</sup>이 된다.

에 삼장법사는 흔히 현장을 가리킨다. 그는 장안에 건립한 역경원(譯經院)을 비롯한 홍복사(弘福寺)·자은사(慈恩寺) 등지에서 19년 동안 이들 원전을 번역해 냈다. 모두 74부 1,335권에 이르는 이들 경전은 당대에 모든 불전을 소개한 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수록 분량의 1/4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주요 역경은 『대반야경』 600권을 비롯하여 『유가사지론』 100권, 『대비바사론』 200권, 『구사론』·『성유식론』·『섭대승론』 등이다. 이런 업적을 기려 현장의 번역을 신역(新譯)이라 하는데, 이는 이전의 번역을 대표하는 구마라집의 구역(舊譯)과 대비된다. 구역이 경전의 뜻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장의 신역은 원전에 충실하고 글자 그대로 직역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정확한 인도불교의 의의 그대로를 전하고자 한 것이었다. 특히 현장은 19부 199권에 달하는 유가계 경론을 새롭게 번역 소개함으로써, 무착·세친에서 호법·계현에 이르는 학설을 정통으로 인도 유식사상을 집약하여 유식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후 대당삼장을 현장삼장이라고 옮기기로 한다.

- 25) 의주석(依主釋) : tat-puruṣa. 범어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방법인 육합석(六合釋)의 하나. 두 개 이상의 낱말이 복합되어 있는 합성어에서 뒷말이 주(主)가 되어 앞말이 그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를 말한다. 규기는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권1 大45 pp.254c24~255c17)에서 지업석(持業釋)·의주석(依主釋)·유재석(有財釋)·상위석(相違釋)·인근석(鄰近釋)·대수석(帶數釋) 등의 여섯 가지 해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서품제일(序品第一)에서 서(序)는 연유와 실마리를 말하니 바른 가르침을 일으키는 연유이다.<sup>26)</sup> 품(品)은 갖가지 종류를 말하거나 혹은 구별한다는 뜻이다. 이미 들은 것 등을 나타내며, 뜻의 종류에 서로 따르거나, 뜻을 거두는 것이 각각 구별되는 것을 가리켜 품이라고 한다. 한 부 안에 여덟가지 품이 있는데, 이 품이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첫번째[第一]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심밀경(解深密經) 서품제일(序品第一)’이라고 한다.

題云解深密經者，一部總名。序品第一者，品內別目。解謂解釋，深卽甚深，密者秘密。此經宗明境行及果三種無等，解釋如是甚深之義，名解深密。經者，梵音名素怛纜，此云經也。若依俗典，經者常也。經古歷今，教義恒定，目之爲常，或翻爲綖。四分律云，“綖貫華定不失落。”大唐三藏，翻爲契經，謂契合，契當道理，合有情機。經亦二義，一者貫穿，二者攝持。貫穿所應說義，攝持所化有情。具斯二義，故名契經。辨得名者，解經兩字，是能詮教，深密之言，顯所詮理。從能所詮，以立經目，此卽深密之解經也。故六釋中，是依主釋。

序品第一者，序謂由序，起正說之由致。品謂品類，或品別義。顯已聞等，義類相從，攝義各別，目之爲品。於一部內，有其八品，此品最初，故名第一。故言解深密經序品第一。

## 2. 경의 종체를 밝힘[辨經宗體]

종체(宗體)를 말한다.

26) 유치(由致)는 불보살(佛菩薩)을 칭할 때 그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것.

체(體)는 능전의 가르침의 체를 총괄적으로 밝힌 것이고, 종(宗)은 모든 가르침의 소전을 따로 나타냄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을 현장삼장(玄奘三藏)께서는 다섯 가지 문으로 나누어 체(體)를 나타냈다.

## 1) 허망한 것을 거두어 진실로 돌아가는 문[攝妄歸眞門]

첫째는 허망한 것을 거두어 진실로 돌아가는 문[攝妄歸眞門]이다.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이란 명(名)·구(句)·문(文)<sup>27)</sup>과 음성[聲]에 이르기까지 여여함을 체(體)로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維摩經)』<sup>28)</sup> 등에서

27) 명(名)·구(句)·문(文): 일체 존재를 5가지로 분류한 오위(五位) 중 색법도, 심법·심소법도, 무위법도 아닌 것을 말하는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에 속하는 것들. 문(文, ㄱvyañjana, 便勝那, 자음)은 개개의 성음을 말하며, 명이나 구의 소의가 될 뿐 그 자체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명(名, nāman, 音譯那摩, 단어)은 문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사물의 명칭이다. 구(句, ㄱpada, 鉢陀, 문장)는 명을 연결하여 완전히 정리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장구(章句)를 말한다. 경론에는 4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중 『유가사지론』의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신(名身)이란 제법의 자성과 자상의 시설에 의지하여 두루 분별하고 언설에 따라 상(想)을 건립하는 것을 말하며, 구신(句身)이란 자상의 시설이 갖는 제법의 차별 시설에 의지하여 공덕의 과실로 잡염되고 청정한 회론을 건립하는 것을 말하며, 문신(文身)이란 명신과 구신이 의지하는 바의 성이 갖는 자신(字身)을 말한다. 또 일체의 아는 것을 설명하는 일 중에서 아주 간략한 것을 문(文), 중간 것을 명(名), 상세한 것을 구(句)라고 한다. 문에만 의존하면 음운(音韻)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뜻을 알 수 없고, 명에만 의존하면 제법의 자성과 자상을 알 수 있고 음운도 알 수 있지만 법의 깊고 넓은 차별을 구별할 수 없으며, 구에 의존하면 일체를 모두 알 수 있다. 이 명·구·문은 오명(五明, 內明·因明·聲明·醫方明·工巧明)에 의지하여 설명한다.(大30 p.587c11~24)

28) 『유마경(維摩經)』: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의 약칭. ㄱVimalakīrti-nirdeśa-sūtra. 『불가사의해탈경(不可思議解脫經)』 또는 『정명경(淨名經)』이라고도 한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문명하여 서로 주고받은 문답을 수록하고 있으며,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성립함, 삼라만상을 불이(不二)의 일

말하기를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여여하고, 일체의 모든 법도 여여하다.”<sup>29)</sup>라고 하였다.

## 2) 상을 거두어 식으로 돌아가는 문[攝相歸識門]

둘째는 상(相)을 거두어 식(識)으로 돌아가는 문[攝相歸識門]이니,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세 가지로 나누어 뜻을 밝힌 것이다. 자증분(自證分)<sup>30)</sup>을 식(識)이라 이름하고, 견분(見分)<sup>31)</sup>과 상분(相分)<sup>32)</sup>의 2분을 합하여 상(相)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성유식론(成唯識論)』<sup>33)</sup> 제1권에서 말하기

---

법(一法) 중에 돌려보내는 법문, 최후에 유마거사가 말없이 있음으로써 불가언 불가설(不可言不可說)을 표현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반야공사상에 바탕하여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드높이고자 하는 경전으로 재가신도가 행해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고, 특히 유마거사가 경전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예로부터 재가 불교의 중심 경전으로 널리 읽혀 왔다.

29) 『유마힐소설경』 권1(大14 542b12. 一切衆生皆如也, 一切法亦如也.)

30) 자증분(自證分): 사분(四分) 가운데 하나. 견분(見分)이 인식한 바를 자각적으로 깨달아 아는 작용을 이른다. 사분은 호법(護法)이 주장한 것으로, 의식 작용을 상분(相分)·견분(見分)·자증분(自證分)·증자증분(證自證分) 등의 4단으로 나눈 것이다. 상분은 사물을 인식할 때에 주관적인 마음에 떠오르는 객관의 형상이다. 견분은 마음이 발동할 적에 상분을 변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는 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증자분은 자증분(自證分)을 깨달아 아는 인식 작용이다.

31) 견분(見分): 사분(四分) 가운데 하나. 마음이 발동할 때 상분을 변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는 작용을 말한다.

32) 상분(相分): 사분(四分) 가운데 하나. 사물을 인식할 때 주관적인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대상인 객관의 형상이다.

33) 『성유식론(成唯識論)』: ㉔ Vijñaptimātratāsiddhi-śāstra, 10권. 세친(世親)의 유심 사상의 대표적인 저술인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당의 현장이 세친 문하의 10대논사들이 해석한 학설을 호법(護法)의 해석을 정통으로 하고 다른 견해를 비판 종합하여 659년에 번역한 책으로 중국 법상종(法相宗)의 중요 전적(典籍)

를, “변한다는 것은 식(識)의 체가 전변(轉變)하여 견분·상분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견분과 상분은 모두 자증분에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34)</sup> 또 제2권에서는 “식이 변한 상은 비록 헤아릴 수 없는 종류가 있지만, 능변하는 식의 종류는 구별하여 세 가지 뿐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만일 이 해석에 의거하면 상이란 모습을 말하니, 견분과 상분은 모두가 자체에서 나뉜 식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견분과 상분으로 뜻을 밝힌 것이다. 견분은 식(識)이라고 하고 상분은 상(相)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말하기를, “혹 다시 내부의 식[견분]이 전변하여 외부의 대상[상분]과 비슷하게 나타난다.”<sup>36)</sup>라고 하였다. 만일 이 해석에 의거하면 상분은 상이라고 하니, 상분이 견분을 의지 않아서 유식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총괄적으로 뜻을 말해보면, 명·구·문과 음성은 식의 형상이기 때문에 유식이라고 한다.

### 3) 거짓으로써 진실을 따르는 문[以假從實門]

셋째는 거짓으로써 진실을 따르는 문[以假從實門]이니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sup>37)</sup> 등에서 “명 등은 거짓된 것이고 음성은 진실된 것이다. 따라

---

이다. 8식(識)을 자세히 말하여 인식의 과정을 명백히 하고, 또 실천적 수행의 5 계위(階位)를 말하였다. 아(我)와 법(法)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제거하여 번뇌(煩惱)·소지(所知)의 두 가지 장애를 끊도록 하고, 모든 법이 유식임을 밝힌 논서이다.

34) 『성유식론』 권1 大31 p.1a29~b1.

35) 『성유식론』 권1 大31 p.7b26.

36) 『성유식론』 권1 大31 p.1b2~3. 이러한 의견은 유식(唯識) 10대 논사(論師)의 한 사람인 난다(難陀, 𑖦Nanda)의 견해이다. 그는 견분을 능변의 식체(識體)로 하고, 이 식 자체, 즉 견분이 전변하여 마음 밖에 대상으로 사현(似現)하는데, 이 변현된 것을 상분이라고 하였다.

서 음성을 여의고 그 밖에 별도의 명 등은 없다.”<sup>38)</sup>고 한 것과 같다.

또 해석한다. 이상의 세 가지 문은 각각 두 개의 문을 연다. 첫째의 두 문에서 첫째는 허망한 것을 거두어 진실로 돌아가는 문[攝妄歸眞門]이니, (교체는) 오직 진실한 것이어서 허망한 것이 아니다. 둘째는 진실된 것과 허망한 것이 차별되는 문[眞妄差別門]이니, (교체는) 허망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 아니다. 명 등 네 가지 법은[名·句·文·聲] 진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의 두 문에서 첫째는 상을 거두어 식으로 돌아가는 문[攝相歸識門]이니, (교체는) 오직 식일 뿐 상이 아니다. 둘째는 식과 상이 차별되는 문[識相差別門]이다. 이 땅의 학설에 의하면 명 등의 네 가지 법은 상일 뿐 식이 아니니, 명 등은 모두 상분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셋째의 두 문에서 첫째는 거짓으로써 진실을 따르는 문[以假從實門]이다. 진실일 뿐 거짓이 아니다. 둘째는 거짓과 진실이 차별된 문[假實差別門]이다. 거짓을 통하여 진실에 이름이니, 명 등은 거짓이고 음성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

37) 『유가론(瑜伽論)』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약칭. ㉔Yogācārabhūmī. 한역(漢譯)에 따르면 미륵(彌勒)이, 저술하고 무착(無着)이 지었다고 한다. 100권. 유가학파의 기본 논서이고, 법상종의 가장 중요한 전적이다. 삼승(三乘)을 행하는 자를 유가사(瑜伽師)라고 하는데, 이 유가사가 의지하고 행하여야 할 삼승사상을 십칠지(十七地)로 자세히 해석하고 있어서 십칠지론(十七地論)이라고도 부른다. 17지 가운데 보살지(菩薩地)를 가장 중요시한다. 한역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장이 번역한 『유가론(瑜伽論)』 100권이 가장 유명하다. 이외에도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0권, 유송(劉宋) 때 구나발마(求那跋摩)가 번역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9권, 양나라 『진제(眞諦)』가 번역한 『결정장론(決定藏論)』 3권이 있다. 주석서로 가장 방대한 것은 신라 도륜(道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 24권이다.

38) 『유가사지론』에는 비슷한 구절을 찾지 못하였고, 『성유식론』에 유사한 취지의 구절이 있다. 『成唯識論』 권2 大31 p.6b5~7. 然依語聲分位差別而假建立名句文身. 名詮自性句詮差別, 文即是字爲二所依, 此三離聲雖無別體, 而假實異亦不即聲.)

#### 4) 세 가지 법으로 결정된 문[三法定體門]

넷째는 세 가지 법으로 결정된 문[三法定體門]이다. 세 가지 법은 온(蘊)<sup>39)</sup>·처(處)<sup>40)</sup>·계(界)<sup>41)</sup>의 삼과(三科)<sup>42)</sup> 법문이다. 『잡집론(雜集論)』<sup>43)</sup>에서는 삼법품(三法品)<sup>44)</sup>이라고 하였다. 살바다중(薩婆多宗)<sup>45)</sup>에서는 정의(正義)의 평가(評家)<sup>46)</sup>들이 음성을 체로 삼았기 때문에 삼과 중에 색은

- 
- 39) 온(蘊): ⑤Skandha. 온(蘊)은 쌓는다, 분류하여 구별한다는 뜻. 많은 것을 분류별로 구별하여 무더기로 모아 놓은 것, 곧 유위법을 말한다. 삼라만상의 일체법을 말하는 세 가지 부류인 온(5온)·처(處, 12처)·계(界, 18계)의 하나. 곧바로 오온(五蘊)을 말하기도 하는데, 오온은 일체 유위법을 모아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을 말한다.
- 40) 처(處): ⑤Āyatana. 처는 길러 성장시킨다는 뜻. 근(根)과 경(境)이 마음[心]과 마음의 작용인 심소(心所)의 작용을 일어나기 위해 의지할 곳이 되어 이를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에 속하는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의 6근과 객관에 속하는 지각되는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의 6경이 있어 12처가 된다.
- 41) 계(界): ⑤Dhātu. 계는 근기나 기초의 뜻과 종류나 종족의 뜻이 있다. 한 몸에 18 종류의 법이 각기 종류를 달리 하며 같은 상태로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의 6근과, 그 지각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의 6경과, 이 감각기관과 대상을 연하여 생긴 인식 주관인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식(識)을 합친 것이 18계이다. 이에 의해 일체법을 설명한다.
- 42) 삼과(三科): 모든 삼라만상을 세 가지로 나눈 것.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구역에서는 온(蘊)·처(處)·계(界) 대신 음(陰)·입(入)·계(界)라 하였다.
- 43) 『잡집론(雜集論)』: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⑤Mahāyānābhidharma-samuccaya-vyākhyā. 무착(無着)이 대승 아비달마의 중요한 부분을 모아 해석한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⑤Mahāyānābhidharma-samuccaya, 7권)의 문장에 따라 안혜(安慧)가 비판 종합한 것을 현장(玄奘)이 번역한 것. 16권. 이 책은 원래 무착의 제자인 각사자(覺師子)가 지은 것이었다고 하는데, 안혜가 이를 종합 개편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법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논서의 하나로 유가십지론(瑜伽十支論)의 하나로 꼽힌다.

(色蘊)<sup>47)</sup>과 성처(聲處)<sup>48)</sup>와 성계(聲界)<sup>49)</sup>에 포섭된다고 하였다. 경부종(經部宗)<sup>50)</sup>에 의하면 거짓과 진실의 두 음성을 가르침의 체로 삼아 오온(五蘊)<sup>51)</sup> 가운데 색온에 포섭되고, 12처와 18계 중에서는 성처(聲處)·법처(法

44) 삼법품(三法品): 『대승아비달마잡집론』의 제1품이 삼법품이다. (大31 p.694b18)

45) 살바다종(薩婆多宗): ㉠Sarvāsti-vādin,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 살바다부(薩婆多部), 설인부(說因部), 유부종(有部宗), 설일체유종(說一切有宗), 유부(有部)라고도 함. 불멸 후 300년경에 근본상좌부(根本上座部)에서 분파된 학파로 소승 20부파의 하나. 개조는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 모든 법을 5위(位) 75법(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세계의 일체법을 실유(實有)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부(有部)라고 한다. 아공법유(我空法有),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 등이 주요 주장이다.

46) 세우(世友)는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을 편집하여 설일체유부의 이론을 총괄 정리하였다. 세우 외에 법구(法救)·묘음(妙音)·각천(覺天) 등을 비바사 4평가(譯家) 혹은 4대 논사라 부른다.

47) 색온(色蘊): ㉠rūpa-skandha, 인간 또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

48) 성처(聲處): 인식을 발생하는 감각기관인 6근(六根)과 인식의 대상인 6경(六境)을 합쳐 12처(十二處)라고 한다. 그중 6경의 하나가 성처이다.

49) 성계(聲界): 감각기관인 6근(六根)과 인식 대상인 6경(六境)과 감각기관이 대상에서 생겨나는 6식(六識)의 18계(十八界) 중의 하나인 성계.

50) 경부종(經部宗): ㉠Sautrāntika 경량부(經量部), 소승 20부파의 하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나온 부파로 근본부(根本部)와 지말부(枝末部)가 있다. 각각 1세기 경의 구마라다(鳩摩羅駄, ㉠Kumāralabdha)와 4세기 경의 실리라다(室利羅多, ㉠śrīlāta)가 시조. 근본부는 정신과 물질이 도와서 생사가 상속유전하는데 색(色)·심(心)이 서로 중자를 혼습(薰習)하여 색·심이 없어질 때는 그 중자를 각각 서로 보존했다가 물질과 정신이 서로 도와 다음 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대해, 지말부에서는 전회전생(轉廻轉生)의 주체인 영겁불명의 세의식(細意識)을 근본으로 하여 이것에 의하여 여타의 오온(五蘊)의 법을 일으킨다고 한다.

51) 오온(五蘊): ㉠pañca-skandha,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 온(蘊)은 쌓는다, 분류하여 구별한다는 뜻으로, 오온은 일체 유위법을 모아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한 것을 말한다. 색은 물질요소로서의 육체를 가리키며, 수는 감정·감각과 같은 고통·쾌락의 감수(感受)작용, 상은 심상(心像)을 취하는 취상작용으로서 표상·개념 등의 작용을 의미한다. 행은 수·상·식 이외의

處)·성계(聲界)·법계(法界)라고 하였으니 법수문 중에서 마땅히 널리 분별해야 한다. 지금 대승에 의하면, 음성과 명 등 네 가지 법을 자성으로 삼으니, 오온 중의 색온과 행온, 12처문과 18계문의 성처와 법처, 성계와 법계에 포섭된다. 명 등의 세 가지 법은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言宗體者，體卽總明能詮教體，宗言別顯諸教所詮。然諸聖教，大唐三藏，五門出體。一攝妄歸真門。謂諸聖教，名句文身，及以音聲，用如爲體。故維摩等云，“一切衆生皆如也，一切諸法亦如也。”

二攝相歸識門。略有二義。一三分明義，自體名識，見相二分通名爲相。故成唯識第一卷云，“變謂識體轉似二分，見相俱依自體起故。”又第二云，“識所變相，雖無量種，而能變識，類別唯三。”若依此釋，相謂相狀，見相皆是自體分識之相狀故。二二分明義，見分名識，相分爲相。故成唯識云，“或復內識轉似外境”若依此釋，相分名相，相不離見，說名唯識。總說意云，名句文身及以音聲識之相故，名爲識也。

三以假從實門。如瑜伽等，“名等是假，聲卽是實，故離聲外無別名等。”

又解，此上三門，各開二門。初二門者，一攝妄歸真門，唯真非妄。二真妄差別門，是妄非真。名等四法非真如故。次二門者，一攝相歸識門，唯識非相。二識相差別門。且依此土，名等四法，唯相非識，名等皆是相分攝故。後二門者，一以假從實門，唯實非假。二假實差別門，通假及實，名等是假，聲卽實故。

---

모든 마음의 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의지작용·잠재적 형성력을 의미한다. 식은 인식판단의 작용, 또는 인식주관으로서의 주체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第四三法定體門. 三法卽是蘊處及界三科法門故. 雜集論名三法品. 薩婆多宗評家正義, 用聲爲體故, 三科中, 色蘊聲處聲界所攝. 依經部宗, 假實二聲以爲教體, 五蘊門中, 色蘊所攝, 處界門中, 聲處法處聲界法界, 法數門中, 當廣分別. 今依大乘, 聲及名等四法爲性, 於五蘊中, 色行二蘊, 處界門中, 聲處法處聲界法界. 名等三法, 意識境故.

## 5) 범수로서 체를 나타내는 문[法數出體門]

다섯 번째는 범수(法數)<sup>52)</sup>로서 체(體)를 나타내는 문[法數出體門]이 네 가지 문으로 나뉜다. 첫째는 범수로서 체를 나타냄[法數出體]이고, 둘째는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本影有無]을 밝힘이며, 셋째는 모아서 명백히 나타내어 모든 마음을 차별함[聚集顯現歷心差別]이고, 넷째는 음성의 같고 다를음을 분별함[辨音一異]이다.

### (1) 범수로서 체를 나타냄[法數出體]

범수(法數)로서 체(體)를 나타냄[法數出體]을 말한다. 우선 샅된 가르침을 분별한다. 수론외도(數論外道)<sup>53)</sup>는 성제(聲諦)를 체로 삼는다. 승론

52) 범수(法數): 범문(法門)의 수. 숫자로 표시한 범문, 곧 3계(界)·5온(蘊)·12처(處)·18계(界)·75법(法)·100법(法)·4제(諦)·6도(度)·12인연(因緣) 등을 말한다.

53) 수론외도(數論外道): 인도 육파철학의 하나. 상카(Saṃkhya, 數論派). 인도 육파철학(六派哲學)은 미망사(Mīmāṃsa, 聲論派)와 베단타(Vedānta, 吠檀多派), 니야야(Nyāya, 正理論派)와 와이 세시카(Vaiśeṣika, 勝論派), 상카(Saṃkhya, 數論派)와 요가(Yoga, 瑜珈派)를 말한다. 상카학파는 6파 중에서 성립이 가장 오래되어 그 개조인 카필라(Kapila)는 서기전 3세기경의 사람이라 한다. 우파니샤드의 학설인 유(有)가 정신적 원리이면서도 물질적 전개의 근원이 된다는 결점을 비판하고,

종(勝論宗)<sup>54)</sup>에 의하면 성덕(聲德)을 성(性)으로 삼는다. 순세외도(順世外道)<sup>55)</sup>는 사대(四大)<sup>56)</sup>를 체로 삼으니 일체가 모두 사대를 그 성(性)으로 삼기 때문이다. 성론(聲論)<sup>57)</sup>의 여러 논자들은 음성을 체(體)로 삼으니, 베다

---

정신과 물질의 이원 곧 신아(神我)와 자성(自性)을 내세운다. 처음에는 이원을 통일하는 범(梵)을 인정하는 유신론적 경향이 강했으나 후에는 범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이원론이 되었다.

- 54) 승론종(勝論宗): 인도 육파철학의 하나. 와이세시카(Vaiśeṣika). 『승론경』(勝論經, Vaiśeṣika-sūtra)을 전거로 하며 카나다(Kanada)를 개조로 한다. 브라만의 영향을 받아 제사를 중시하며 생천(生天)을 주장하여, 이 둘을 합쳐 다르마라고 한다.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참 해탈을 가져오는 것은 6구의(句義)를 아는데 있다고 본다. 6구의는 개념에 대응하는 존재를 모두 실재로 인정하여 이를 실체·속성·운동·보편·특수·내속(內屬)의 6범주로 분류하여 세계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6구의의 올바른 이해와 요가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한다. 니야야학과 유사한 점이 많아 근세에 융합되었다고 한다.
- 55) 순세외도(順世外道): ㉔Lokāyata,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 땅·물·불·바람의 4원소와 이것이 활동하는 장소로서의 허공만을 실재한다고 믿어, 영혼이나 내세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과보(果報)는 없다고 주장한다.
- 56) 사대(四大): ㉔catvāri mahā-bhūtāni, 사대종(四大種) 또는 사계(四界)의 약칭. 지(地)·수(水)·화(火)·풍(風)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 대(大)는 원소라는 뜻이다. 지는 견고한 것을 본질로 하고 그 본질을 보존하며 유지하는 작용, 수는 습성(濕性)을 본질로 하는 작용, 화는 열을 본질로 가져 태우는 작용, 풍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작용.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 물질이 생긴다고 한다.
- 57) 성론(聲論): 소리가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학파. 인도 외도철학의 한 유파. 성상주론(聲常住論)·성론사(聲論師)라고도 한다. 관념 항상성을 주장하며 소리에 그 근거를 둔다. 소리가 우주의 실재(實在)적 존재이며 사람들의 언어는 우주에 실재하는 소리가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 우파니샤드시대의 기도에 기원을 두며, 기도를 좌우하는 신의 작용이 있고, 이로 인해 기도를 구성하는 말은 무한 절대(無限)의 신비한 역량을 나타낸다고 한다. 브라만에서 유행하여 미망사학과나 베단타학과 등이 이 학설에 해당한다고 한다.

[明論]<sup>58)</sup>의 음성은 항상 일정하여 모든 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불교에<sup>59)</sup> 의거하면 여러 설들이 다르다. 살바다종(薩婆多宗)<sup>60)</sup>에는 75가지 법(法)이 있는데<sup>61)</sup> 뜻은 일상적인 해석과 같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체에 대해서는 『잡심론(雜心論)』<sup>62)</sup>과 『구사론(俱舍論)』<sup>63)</sup>과 『대비

58) 베다[明論] : ①Veda. 인도 브라만교 근본 성전. 원래의 뜻은 지식을 말한다. 브라만교의 기본 문헌의 신성한 지식의 보고라는 의미이다. 제사 의식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종교문헌이다. 본래 리그베다(Rg-veda) · 사마베다(Sāma-veda) · 야주르베다(Yajur-veda)의 3종이 있어 이를 삼명(三明)이라 하였다. 여기에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를 더해 4베다가 이루어졌다.

59) 내종(內宗)이란 불교가 아닌 외도(外道)에 대한 불교 내부의 종파를 말한다.

60) 살바다종(薩婆多宗) : 유부(有部). ①Sarvāsti-vādin, 소승 20부중 하나. 음역(音譯)하여 살바제바(薩婆帝婆) · 살바다(薩婆多)라고 하며, 의역(意譯)하여 일체유(一切有) · 유부종(有部宗)이라고 한다. 상좌부(上座部)의 한파로써 모든 법을 5위(位) 75법(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세계의 일체법을 실유(實有)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부(有部)라고 칭한다.

61) 구사(俱舍)에서는 일체법을 75종의 기본적인 요소로 환원하고 다시 물질[色], 마음[心], 심리작용[心所],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및 무위(無爲)라는 5종류로 요약하고, 색 11법, 심 1법, 심소 46법, 불상응행 14법, 무위에 3법을 세워 75법으로 한다. 이것을 오위(五位) 칠십오법(七十五法)이라고 한다. 유식에서는 5위 100법을 세운다.

62) 『잡심론(雜心論)』 : 『잡아비담심론(雜阿毘曇心論)』. ①Samyuktābhidharma-hṛdaya-sāstra, 법구(法救, ②Dharmatrāta)가 짓고 승가발마가 번역한. 11권. 법승(法勝)이 지은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에 대한 주석서. 『아비담심론』은 『대비바사론』 200권으로 집대성한 설일체유부의 교학이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여, 서기 250년 경에 법승이 이를 250계송으로 압축하였다. 법구는 이 『아비담심론』에 서품과 태품 그리고 350여 계송을 추가하여 600여 계송으로 이루어진 주석서를 지어 『아비담심론』을 보충하니 이것이 『잡아비담심론』이다.

63) 『구사론(俱舍論)』 :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의 약칭. 5세기경 인도의 세친(世親)이 짓고 당의 현장이 30권으로 한역(漢譯). 소승 여러 부파 중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아비달마 논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설일체유부의 『대비바사론』의 교리를 조직적 비판적으로 기술하여 9품으로 유루 무루의

바사론(大毘婆沙論)<sup>64)</sup>에 모두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여래께서는 법은(法蘊)<sup>65)</sup>과 색온(色蘊)을 자성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음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행온(行蘊)<sup>66)</sup>인데 명·구·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 논사들의 해석이 같지 않아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는 음성으로 가르침을 바른 뜻으로 삼는 것이다. 음성을 선(善)이라고 하고, 명·구·문의 신(身)이 무기(無記)<sup>67)</sup>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잡심론』에서 “경·율·아비담은 세속의 정법이고, 37도품(三十七道品)<sup>68)</sup>은 제일의(第一義)라고 한다.”<sup>69)</sup>라고 하였다. 장행(長行)<sup>70)</sup>에서는 “세속의 정법은 언어의 정법이다.”<sup>71)</sup>라고 하였다.

법과 무아의 뉘를 설명하였다. 보수적인 카슈미르 유부에 대립하는 진보적 간다라 유부의 학설로 본다. 경량부의 설에 의거하여 유부를 비판한 곳이 보인다. 이는 세친이 자신의 부파에 구애되지 않고 도리에 맞는 것을 비판적으로 취하여 논지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64) 『비바사론(毘婆沙論)』: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의 약칭. ⑤ Abhidharmakośa-sāstra, 설일체유부의 대표적인 논서인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을 토대로 하여 설일체유부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논서이다. 불멸 후 400년 초에 카니슈카왕(Kaniṣka)이 5백 나한을 모아 불경을 결집할 때 『발지론(發智論)』을 해석하게 한 책으로서 설일체유부의 근본 성전이다.

65) 법온(法蘊): ⑤dharma-skandha, 법이 쌓인 것, 곧 8만 4천 법문(法門)이 쌓여 모인 불법을 총괄하여 말함.

66) 행온(行蘊): ⑤saṃskāra-skandha, 일체법을 말하는 오온 중 의지 기타 마음 작용을 말함.

67) 무기(無記): ⑤avyākṛta, 삼성(三性)의 하나. 일체법은 선(善)과 불선(不善)과 무기(無記) 등 삼성(三性)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기는 선도 불선도 아닌 것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라고 한다.

68) 37도품(三十七道品): 열반의 이상경(理想境)에 나아가기 위하여 닦는 도행(道行)의 종류. 4념처(念處)·4정근(正勤)·4여의족(如意足)·5근(根)·5력(力)·7각분(覺分)·8정도분(正道分).

69) 『잡아비담심론』 권10 大28 p.957b22~23, 經律阿毘曇, 是名俗正法, 三十七覺品,

둘째는 명 등을 바른 뜻으로 삼는 것이다. 능진(能詮)으로써 뜻을 설하는 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지론(發智論)』<sup>72)</sup>에서 말하기를 “12부경(十二部經)<sup>73)</sup>은 무엇을 성(性)으로 삼는가? 답한다. 명·구·문의 신이 차례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세히 말했다.

셋째는 음성과 명 등을 두루두루 체(體)로 삼는 것이다. 앞에서 설한 두 종류의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지금 새롭게 번역한 『구사론(俱舍論)』<sup>74)</sup> 제1권에 의하면 양쪽의 해석을 갖추어 말하고 있으니, 음성이라고 설하거나 혹은 명 등이라고 설하면서 따로 구별하여 판정하지 않았다. 『순

---

是說第一義.

70) 장행(長行): 산문체의 경문(經文)

71) 『잡아비담십론』 권10 大28 p.957b24~25. 經律阿毘曇, 是名俗正法者, 修多羅律阿毘曇, 是言說正法.

72) 『발지론(發智論)』: 『아비달마발지론(阿毗達磨發智論)』의 약칭. ⑤Abhidharma-jñāna-prasthāna, 불멸 후 2백년 경의 인물로 보이는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 Katyānīputra)의 저서. 현장이 20권으로 한역. 『집이문족론(集異門足論)』 등의 육족론(六足論)에서 이치를 밝힌 것이 적음을 발에 비유하고, 『발지론』을 몸에 비유하였다. 이 육족론과 『발지론』의 7론을 유부의 근본론이라 한다. 설일체유부의 교학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중요시되는 논서이다.

73) 12부경(十二部經): 12분경(十二分經)·12분교(十二分敎)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일대 교설(敎說)을 그 경문의 성질과 형식으로 구분하여 열두 가지로 나눈 것. ① 수트라(Śūtra, 修多羅, 契經), ② 게야(Śgeya, 祇夜, 重頌), ③ 비야카라나(Śvyākaraṇa, 和迦羅那, 授記), ④ 가타(Śgāthā, 伽陀, 偈頌), ⑤ 우다나(Śudāna, 優陀那, 無問自說), ⑥ 니다나(Śnidāna, 尼陀那, 因緣), ⑦ 아바다나(Śavadāna, 阿波陀那, 比喻), ⑧ 이티비루아카(Śitivṛuaka, 伊帝曰多伽, 如是語), ⑨ 자타카(Śjātaka, 闍陀伽, 本生), ⑩ 바이폴야(Śvaipulya, 毘佛略, 方廣·方等), ⑪ 아부타 다르마(Śadbhuta-dharma, 阿浮陀達摩, 未曾有), ⑫ 우파데샤(Śupadeśa, 優波提舍, 論議).

74) 『구사론(俱舍論)』은 563년에 진제가 번역한 22권본을 구구사라 하고, 651년에 현장이 번역한 30권본을 신구사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번역한 『구사론(俱舍論)』이란 현장역의 신구사를 말한다.

정리론(順正理論)<sup>75)</sup> 제3권의 양쪽 논사의 설도 『구사론』과 동일하니, 아울러 질문과 답이 있다. 『순정리론』에서 말하기를, “말은 교(敎)의 다른 이름이니, 가르침이 말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명(名)과 가르침은 체가 다른데 가르침이 어찌하여 명이겠는가?’ 그가 이렇게 해석하였다. ‘요컨대 명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됨을 설한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체가 곧 이 명이다. 왜 그런가? 뜻을 밝히는 것이 여실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름한다. 명은 뜻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은 곧 명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정코 명을 체(體)로 삼으며, 명을 들어 으뜸으로 삼고, 구와 문을 포섭한다.’”<sup>76)</sup>라고 하였다. 『현종론(顯宗論)』 제3권의 내용도 『순정리론』의 내용과 같다.

현장삼장이 해석하였다.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이렇게 해석하였다고 전해진다. 『구사론』과 『순정리론』 모두에 두 가지 설이 있어 각각 돌아가는 곳이 있다. 왜 그런가? 중생을 기쁘게 하는 데는 음성이 뛰어나며, 법을 밝히는 것으로 보면 명 등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바가 다르지만 각각 준거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바른 뜻이다. 지금 여러 논을 살펴 글에 따라 서로 구별한다.

『순정리론(順正理論)』의 뜻은 명 등을 바른 뜻이라고 여긴다. 그 때문에 그 논 의 결론에서 말하기를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정코 명을 체로 삼는다.”<sup>77)</sup>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구사론』도 『순정리론』과 같다. 그

75) 『정리론(正理論)』: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의 약칭. ㉔ Abhidharma-nyāyānusāra, 세친(世親)이 지은 『구사론』의 체제를 이용하여 중현(衆賢)이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구사론』을 반박한 책. 모두 80권이며,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은 없고, 653~654년 현장이 번역한 한역본만 전한다.

76) 『아비달마순정리론』 권3 大29 p.346c13~18. ‘佛教’를 ‘似敎’라고 했을 뿐 나머지 인용글자는 같다.

것을 논파하지 않고, 뜻에 어긋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혹 후대의 논사들이 스스로 결론 지어 세운 것일 수 있으나, 『순정리론』의 논사들이 옳고 그름을 간정(刊正)<sup>78)</sup>한 것은 아니다. 만약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정의(正義)의 평가(評家)들은 음성을 바르다고 여긴 것이 된다. 그 때문에 『대비바사론』 제126권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묻는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체(體)로 삼는가? 어업(語業)으로 삼는가, 명 등으로 삼는가?’ 답한다. ‘마땅히 어업(語業)으로 체(體)를 삼는다고 말해야 한다.’ 묻는다. ‘만일 그렇다면 다음에 말한 것과 어떻게 회통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 것은 어떠한 법을 말하는가?’ 답한다. ‘명·구·문의 신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차례대로 배열하고 차례대로 합한 것이다. 뒷 글에 답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작용을 나타내려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열어 보이고자 함이 아니다. 차례로 명·구·문의 신을 나열하고 배열하고 합한 것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작용을 말한다. 혹은 말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 등을 체(體)로 삼는다고 한다.’ 묻는다. ‘만일 그렇다면, 『발지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 것과는 어떻게 통할 수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부처님의 언어(言語)·창사(唱詞)·평론(評論)·어음(語音)·어로(語路)·어업(語業)·어표(語表)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서로 서로 인(因)이 되는 것에 의지하므로 이렇게 설한 것이다. 대대로 자손들이 되풀이하여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 명을 일으키고, 명은 뜻을 나타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말은 어업이 체(體)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이 듣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79)</sup> 갖추어 말한다면 저

77) 『아비달마순정리론』 권3 大29 p.346c17. 由是佛教, 定名爲體.

78) 간정(刊正):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문장을 정리함

79)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26(大27 p.659a11~b11.)의 질문과 답을 필요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논서에서 말한 것과 같다.

묻는다. 왜 『순정리론』이 아니고, 『대비바사론』 등을 의지하는가? 무엇 때문에 정의(正義)의 평가(評家)들에게 의지하지 않는가?

답한다. 중현(衆賢)<sup>80)</sup>은 이치가 깊은 것을 뛰어난 것으로 삼기 때문에 따로 이치를 내어 명 등을 바른 뜻으로 삼은 것이다.

해석한다. 저 중에서 음성을 체(體)로 삼는 것은 법수문(法數門) 중에서 오직 음성이라는 한 가지 법만을 체로 삼는 것이다. 명 등을 체로 삼는 것은 명 등 세 가지 법을 체로 삼는 것이다. 만일 합하여 말한다면 합하여 네 가지 법을 체로 삼는 것이니 음성, 명(·구·문) 등을 말한다. 정의의 평가는 음성이라는 한 가지 법만을 체로 삼는다. 경부중에 의하면 음성으로써 체를 삼는다. 그 때문에 『순정리론』 제14권에서는 경부를 논파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은 명·구·문의 신이 곧 음성을 체로 삼는다고 해서는 안된다.”<sup>81)</sup>라고 하였다. 무성(無性)<sup>82)</sup>의 『섭대승론석』 제1권에서도 마찬가지로

---

80) 중현(衆賢): 승가발다라(僧伽跋陀羅, ㉟Samghabhadra). 북인도 카슈미르 출신의 논사. 『대비바사론』을 배웠는데, 세친이 『아비달마구사론』을 지어 경부의 관점에서 비바사 논사들을 논박하자 이를 12년 동안 연구하여 『구사박론(俱舍電論)』을 지어 반박하였다. 학도 여러 명과 세친을 찾아가 반박하려고 하였으나 세친이 미리 떠나버리자 다시 그를 찾아 말저보라국(秣底補羅國)에 이르러 돌연 병이 나서 입적하였다. 이에 문인들이 책을 들고 세친에게 가서 보이자 세친은 자신들도 새로 밝혀낼 것이 있다고 평가하여, 책 이름을 『순정리론(順正理論)』으로 고쳤다고 한다.

81)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명·구·문의 신이 바로 소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아비달마순정리론』 권14 大29 p.414c28. 故不應立名句文身即聲爲體.)

82) 무성(無性): ㉟Asvabhāva, 6세기 경에 활동한 인도 불교사상가. 무착이 지은 『섭대승론』에 대해 세친의 해석과는 다른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10권(현장한역)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성유식론』에 영향을 주었고, 규기가 그의 저술에서 많이 인용하였다.



니, 거기에서 말하기를 “모든 경전이 말을 자성(自性)을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sup>83)</sup>라고 하였다.<sup>84)</sup>

第五法數出體. 四門分別. 一法數出體, 二本影有無, 三聚集顯現歷心差別, 四辨音一異. 言法數出體者. 且辨邪教. 數論外道, 聲諦爲體. 依勝論宗, 聲德爲性. 順世外道, 四大爲體, 一切皆用大爲性故. 聲論諸師, 用聲爲體, 明論聲常能爲定量, 詮諸法故. 今依內宗, 諸說不同. 薩婆多宗總有七十五法, 義如常釋. 然彼教體, 雜心俱舍及毗婆沙, 皆有二說. 一云如來法蘊色蘊爲性, 以是聲故. 一云行蘊, 名句字故.

由斯義故, 此地諸師解不同. 有其三說. 一云音教以爲正義. 以聲是善, 名句文身是無記故. 故雜心云, “經律阿毗曇, 是名俗正法, 三十七道品, 是說第一義.” 長行釋云, “俗正法者, 言說正法.” 一云名等以爲正義, 以能詮表所說義故. 故發智論云, “十二部經, 以何爲性, 答名身句身文身次第住, 乃至廣說.” 一云通用音聲名等爲體, 由前所說二種義故. 今依新翻俱舍第一, 具申兩釋, 謂說音聲, 或說名等, 而無別判. 正理第三, 敘兩師說, 亦同俱舍, 兼有問答. 故彼論云, “語教異名, 教容是語, 名教別體, 教何是名.’ 彼作是釋. ‘要由有名, 乃說爲教. 是故似教體卽是名. 所以者何? 詮義如實, 故名佛教. 名能詮義, 故教是名. 由是佛教定名爲體, 舉名爲首, 以攝句文.’ ” 顯

83) 『섭대승론식』 권1 大31 p.380b12~13.

84) 이는 유부에서 명구문을 실체적 존재로 간주한 것을 유식의 관점에서 실체는 의미를 표현하는 존재일 수 없음을 밝힌 내용이다. 언어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을 거부하고, 인식으로부터 독립된 대상의 실재를 언어적 영역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유식의 관점이다.(이런 관점은 대현의 『성유식론학기』에서도 볼 수 있다. 방인, 1995 「太賢의 唯識哲學研究」, pp.89~96 참조)

宗第三，同順正理。三藏解云，“西方諸師，傳作此釋。俱舍正理，皆有兩說，各有所歸。所以者何？令物歡喜，音聲爲勝，若約詮法，名等卽勝。故知所對不同，各有准據。”由斯兩說，皆是正義。今詳諸論，隨文相判。

正理論意，名等爲正。故彼結云，“是故佛教定名爲體。”准此俱舍亦同正理。以彼不破義不違故。或可後師自結所立，非正理師刊定勝劣。若依婆沙，評家正義，音聲爲正。故大婆沙第一百二十六云。“問，‘如是佛教，以何爲體，爲是語業，爲是名等？’答，‘應作是說語業爲體。’問，‘若爾次後所說，當云何通。如說佛教名何法？’答，‘謂名身句文身，次第行列，次第安布，次第連合。答後文爲顯佛教作用，不欲開示佛教自體。謂次第行列安布連合名句文身，是佛教用。有說佛教名等爲體。’問，‘若爾此文所說，當云何通如說？佛教云何？’答，‘謂佛語言唱詞評論語音語路語業語表，是謂佛教。答依展轉因，故作是說。如世子孫展轉生法，謂語起名，名能顯義。如是說者，語業爲體。佛意所說他所聞故。’”具說如彼。

問，豈不正理依婆沙等？如何不依評家正義？答曰，衆賢理長爲勝，故別生理，名等爲正。

解云，彼宗聲爲體者，法數門中，唯用音聲一法爲體。名等爲體者，卽用名等三法爲體。若合說者，合用四法爲體，謂聲名等。評家正義，用聲一法爲體。依經部宗，以聲爲體。故順正理第十四卷，破經部云，“汝不應說名句文身卽聲爲體。”無性攝論第一亦爾，彼云，“諸契經句，語爲自性，且不應理。”

그러나 그 중에 의하면 세 논사의 설이 있다. 첫째, 12처<sup>85)</sup> 중에 성처(聲

處)<sup>86)</sup>를 성(性)으로 삼는 것이다. 음성을 떠나서 따로 명·구·문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법처(法處)가 서로 이어져 거짓된 소리를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 오직 의식이 인연하는 바의 성(性)이기 때문이다. 셋째, 거짓과 진실된 두 가지 음성을 함께 써서 체로 삼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뜻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경부중에 이러한 세 가지 설이 있는 것인가? 현장 삼장이 해석하여 말했다. “경(經)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뜻을 해석하는 것을 모두 경부(經部)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중에 이 세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의 법수에 대한 여러 설이 같지 않다. 어떤 설은 심왕(心王)을 떠나서 따로 심소법(心所法)이 없다고 하니, 만일 그 설에 의거한다면 19가지의 법이 있다. 색 가운데 14개가 있다 하니, 즉 5근(根)과 5경(境)과 4대종(大種)을 말한다. 심왕은 오직 하나이니, 심소법이 없기 때문이다. 불상응법은 오직 하나의 수만 있는데 무작(無作)을 말한다. 무위는 세 가지가 있으니, 허공(虛空)과 택멸(擇滅)과 비택멸(非擇滅)이다. 이와 같은 19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다만 성처(聲處)를 체로 삼으니, 왜냐하면 서로 이어지는 거짓된 음성은 별도의 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설들에서부터 일체법의 뜻 중에서 구체적인 분별을 해야 한다.”

지금 대승에 의하면 두 가지의 말이 다르다. 첫째, 용맹종(龍猛宗)<sup>87)</sup>은

---

85) 12처(十二處): 불교에서 인식 기관인 6근(六根)과 인식 대상인 6경(六境)을 일컫는 말로, 불교 세계관의 기초를 이룬다. 즉 눈·귀·코·혀·몸의 다섯 감각 기관이 5근(五根)이고 마음의 의근(意根)을 합쳐 6근을 이룬다. 그리고 6근이 인식하는 대상, 즉 눈으로 보는 것[色境], 귀로 듣는 것[聲境], 코로 냄새를 맡는 것[香境], 입으로 맛을 아는 것[味境], 몸으로 부딪혀 아는 것[觸境], 마음으로 느껴 아는 것[法境]을 합해 6경이라 한다.

86) 성처(聲處): 6근과 6경의 12처 중 성경(聲境)이 성처(聲處)이다. 귀로 듣는 것을 말한다.

문자로 바르게 설명한 글은 없다. 법수의 많고 적음을 『대지도론(大智度論)』<sup>88)</sup>에 준하여 밝히면, 모든 법상의 대부분은 살바다종과 같아서 총 761법이 있다. 어떻게 하여 알 수 있는가 하면, 살바다종은 75법을 밝혔고,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sup>89)</sup>은 700개의 불상응법을 세웠다. 그래서 14가지 불상응법을 제외하고 700가지의 불상응법을 더하면, 761법이 있음을 알게 된다.〈다시 다른 논을 헤아릴 것〉이렇기 때문에 11가지 색 중에 음성을 체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대지도론』 권33에서, “육통(六通)<sup>90)</sup>의 아라한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비록 자리에 있지 않지만, 천안통(天眼通)<sup>91)</sup>으로 부처님을 뵈고, 천이통(天耳通)<sup>92)</sup>으로 법을 듣는다. 만일 신통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sup>93)</sup>라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을 체로 삼는다.

둘째, 미륵종은 총 100가지 법이 있으니 『백법론』과 같다. 그러나 가르침의 체를 내는 것에서는 여러 가르침이 같지 않다. 어떤 곳에서는 오직 음

87) 용맹종(龍猛宗): 용수(龍樹)의 학설을 따르는 중관학파를 말함. 원측은 『인왕경소』나 『반야심경찬』에서도 용맹종이라고 부르고 있다.

88) 『대지도론(大智度論)』: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의 주석서. 원시 불경을 처음의 부파불교(部派佛教)의 논저에서 초기 대승경전까지 폭넓게 인용하고 있어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저서이다. 중국과 한국의 화엄종(華嚴宗)과 천태종(天台宗)에 사상적으로 특별히 큰 영향을 미쳤다.

89)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용수(龍樹)가 『화엄경』의 보살이 부처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10단계를 말한 「십주품」을 해설한 저술.

90) 육통(六通): Ṣṣaḍ abhijñāḥ. 6종의 신통력. 천안통(天眼通)·천이통(天耳通)·타심통(他心通)·숙명통(宿命通)·신족통(神足通)·누진통(漏盡通).

91) 천안(天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환히 보는 신통한 마음의 눈.

92) 천이(天耳): 색계(色界)의 천인(天人)이 지닌 귀로, 육도(六道) 중생의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93) 『대지도론』 권33 大25 p.308b7~10.

성이라 하니 『유마경』 등에서 “부처님께서 일음(一音)으로 설법하시면, 중생은 종류에 따라 각각 이해한다.”<sup>94)</sup>고 한 것과 같다. 또 『무량의경』<sup>95)</sup>에서 “능히 일음으로써 두루 중생의 소리에 응한다.”<sup>96)</sup>고 하였으며, 또 『대계경(大界經)』에서 “여래께서 한 가지 말로 설법하시는 중에 헤아릴 수 없는 경전의 바다를 배푸신다.”고 하였다. 또 『해심밀경』 제5권에서는 “여래께서 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경전이고 둘째는 조복(調伏)<sup>97)</sup>이고 셋째는 본모(本母)<sup>98)</sup>이다.”<sup>99)</sup>라고 하였다. 『상속해탈경(相續解脫經)』<sup>100)</sup>과 『심밀해탈경(深密解脫經)』<sup>101)</sup> 두 경에서는 모두 “부처님의 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수다라어(脩多羅語, 경)<sup>102)</sup>이고, 둘째 비니어(毗尼語, 율)<sup>103)</sup>이고, 셋째 마덕룩가어(摩德勒伽語, 논)<sup>104)</sup>이다.”<sup>105)</sup>라고 하였다. 『현

94) 『유마힐소설경』 권1 大14 p.538a2.

95) 『무량의경(無量義經)』: 법화(法華) 3부경의 하나. 481년에 제(齊)의 담마가타야사(曇摩伽陀耶舍)가 번역. 『법화경』의 서설(序說)로서 ‘개경(開經)’이라고 불려왔다. 덕행품(德行品)·설법품(說法品)·십공덕품(十功德品)의 3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96) 『무량의경』 大9 p.386c6.

97) 조복(調伏): 몸·입·뜻의 3업을 조화(調和)하여 모든 악행을 굴복하는 것.

98) 본모(本母): 𑖀mātrkā, 마달리가(摩怛理迦) 등으로 음역. 출생의 뜻. 모든 경의 뜻을 모아 이것을 논의하여 다른 뜻의 이치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99) 『해심밀경』 권5 大16 p.708c12~13.

100) 『상속해탈경(相續解脫經)』: 『상속해탈여래소작수순처요의경(相續解脫如來所作隨順處了義經)』의 약칭.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한역. 『상속해탈지바라밀요의경(相續解脫地波羅蜜了義經)』과 합쳐 『상속해탈경』이라 한다. 현장 번역 『해심밀경』의 부분역으로, 『상속해탈지바라밀요의경』은 제7품, 이 『상속해탈여래소작수순처요의경』은 제8품에 해당한다.

101) 『심밀해탈경(深密解脫經)』: 북위(北魏)시대에 보리유지(菩提流支)가 5권으로 한역. 현장이 5권으로 번역한 『해심밀경』의 동본이역(同本異譯).

102) 수다라어(脩多羅語): 수다라는 𑖀sūtra로 경전이라는 뜻이다. 수다라어는 경전의 말씀.

양성교론(顯揚聖敎論)<sup>106)</sup> 등의 논에서는 성인의 가르침을 성량(聲量)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단지 명 등을 체로 삼는다고 말하였다.<sup>107)</sup> 『인왕경(仁王經)』<sup>108)</sup>에서 “이 경의 명·구는 백천 부처님의 말씀이다.”<sup>109)</sup>라고 말한 것과 같다. 또 『해심밀경』 제4권에서 말하기를 “첫째는 헤아릴 수 없는 설법과 헤아릴 수 없는 법구문(法句文)과 점점 더 지혜롭게 분별하는 다라니의 자재함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다. 둘째는 변재(辨才)<sup>110)</sup>의 자재함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다.”<sup>111)</sup>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헤아릴 수 없는 설법이란 뜻의 장애가 없는 경계이고, 헤아릴 수 없는 법구문은 법의 장애

- 
- 103) 비니어(毗尼語): 비니는 Vinaya로 율(律)의 뜻이다. 비니어는 계율의 가르침.
- 104) 마덕룩가어(摩德勒伽語): 마덕룩가는 Mātrkā로 론(論)이라는 뜻이다. 마덕룩가어는 논장의 말씀.
- 105) 『상속해탈여래소작수순처요의경』 대16 p.718b21~22. 佛告文殊師利, 如來語者, 說修多羅語, 毘尼語, 摩德勒伽語.  
『심밀해탈경』 권5 대16 p.685b8~10. 文殊師利, 如來有三種語, 何等爲三, 謂說修多羅, 毘尼, 摩得勒伽.
- 106) 『현양(顯揚)』: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SPrakaranāryavācā-sāstra. 무착이 짓고 현장이 한역한 법상종의 주요 논서. 유식의 11논의 하나. 『유가사지론』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것을 골라 엮었다. 주석서로는 당의 규기(窺基)의 것 이외에 신라 경흥(憬興)의 『현양론소(顯揚論疏)』 8권이 있다.
- 107) 이와 같은 구절은 『현양성교론』이나 다른 논에 보이지 않는다. 원측은 『인왕경소』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仁王經疏』 권1 韓1 p.16 b18~19. 如是等敎誠證非一, 有處但用名等爲體.)
- 108) 『인왕경(仁王經)』: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의 약칭. 이경과 『법화경(法華經)』, 『금광명경(金光明經)』을 호국(護國) 3부경이라 하였으며,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성행한 인왕백고좌회의 근거가 되었다.
- 109) “대왕이여, 이 경의 명미구(名味句)는 백 부처님·천 부처님·백천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명미구이니라.”(『인왕반야바라밀경』 권1 대8 p.826a24~25. 大王, 是經名味句, 百佛千佛百千萬 佛說名味句.)
- 110) 변재(辨才): 이치를 분명히 판단하여 분별할 수 있는 재주.
- 111) 『해심밀경』 대16 p.704b24~26.

가 없는 경계이고, 점점 더 지혜롭게 분별하는 다라니의 자재함이란 말씀의 장애가 없는 경계이고, 변재의 자재함이란 분별하여 설하는 것[辨說]의 장애가 없는 경계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명 등을 체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유식론』 제2권에서는 “만일 명·구·문이 음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법과 말씀의 장애가 없는 경계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준하여 명 등을 자성으로 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음성과 명 등을 합하여 말한다. 『인왕경』에서 “12부 경의 여여함은 명·구·문·음성이다.”라고 하였다. 또 『유마경』 제3권에서 말하기를 “음성과 말과 글자로 불사를 이룬다.”<sup>112)</sup>고 하였고 이와 같은 것에서 나아가 “모든 부처님의 위의와 거동까지 모든 베풀어 하시는 것이 되어 불사가 아닌 것이 없다.”<sup>113)</sup>라고 하였다.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sup>114)</sup>도 『유마경』과 같다. 또 『십지경론』<sup>115)</sup> 제1권에서 “설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일로써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로써 듣는다.”<sup>116)</sup>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저

112) 『유마힐소설경』 권3 大14 p.553c25~26.

113) 『유마힐소설경』 권3 大14 p.553c28.

114)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유마경』의 세 가지 한역본 중의 하나. 당 현장(玄奘)이 번역한 6권본. 이밖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3권본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과 지겸(支謙)이 번역한 2권본 『불설유마힐경(佛說維摩詰經)』이 있다.

115) 『십지경론(十地經論)』: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을 따로 번역한 『십지경(十地經)』을 해석한 책. 508년 보리유지와 늑나마제가 각각 한역함. 뒤에 혜광(慧光)이 두 본을 대조하여 한 본으로 만들었다. 보살이 수행하는 행상을 말한 것인데, 이 십지에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교법이 포함되어 남음이 없음을 나타냈다. 『십지경론』의 한역에 따라 중국에서 『화엄경』 연구의 열기가 고조되고, 이 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론종(地論宗)이 형성되었다.

116) 『십지경론(十地經論)』 권1 大26 p.129a20~21. 說者以此二事說, 聽者以此二事聞.

것과 같다. 해석하면 두 가지 일이란 음성과 명 등을 이른다.

어떤 곳에서는 문장[文]과 의미[義]를 합하여 체로 삼는다고 말한다. 『유가론(瑜伽論)』 제81권에서 “경전의 체를 논하면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장이고, 둘째는 의미이다. 문장이란 의지되는 것[所依]이고, 의미는 의지하는 것[能依]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합하여 일체의 아는 경계[一切所知境界]라고 한다.”<sup>117)</sup>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가르침에서 가르침의 체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현장 삼장은 해석하여 말했다. “실제에 근거하면 모두 명 등을 체로 삼았으나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은 각각 한 가지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 왜 그런가? 거짓된 것을 실제에 따라 말할 때에는 음성을 체로 삼는다고 한다. 음성을 여의고 따로 명·구 등이 없기 때문이다. 체를 작용에 따라 말할 때에는 명 등을 체로 삼는다고 한다. 능전(能詮)의 모든 법은 자성과 차별 두 가지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이 서로 의지하고 합하여 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반드시 문장과 의미에 따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말이 서로 틀리지 않는다.”

然依彼宗，有三師說。一云，十二處中，聲處爲性。離聲無別名句字故。一云，法處相續假聲以爲自性，唯是意識所緣性故。一云，通用假實二聲爲體。前二義故。如何經部宗有此三說？三藏解云。“以經爲量，釋諸義者，皆名經部。故經部宗有此三說。彼宗法數，諸說不同。一云離心無別心法。若依彼說，有十九法。謂色中有十四，謂五根五境及四大種。心唯是一，無心法故。不相應法唯有一數，謂諸無作。無爲有三，謂虛空，擇滅，

117) 『유가사지론』 권81 대30 p.750a1~3.



非擇滅。如有十九種法，於中但用聲處爲體，相續假聲無別體。故自餘諸說，一切法義中，當具分別。今依大乘，兩說不同。一龍猛宗，無文正判。法數多少，准智度論明，諸法相大分，同於薩婆多宗，總有七百六十一法。何以得知者，薩婆多宗，明七十五法，十住毗婆沙，立有七百不相應法。故知除十四不相應，加七百不相應法，故有七百六十一法。〈更勘餘論〉由斯即用十一色中音聲爲體。故智度論三十三云，“六通阿羅漢，佛說法時，雖不在座，以天眼見佛，天耳聞法。若神通力所不及處，不得見聞。”准此，佛教用名爲體，

二彌勒宗，總有百法，如百法論。然出教體，諸教不同。有處唯聲，如維摩經等，“佛以一音演說法，衆生隨類各得解。”又無量義經云“能以一音，普應衆聲。”又大界經云“如來一語說法中，演說無量契經海。”又此經第五云“如來言音，略有三種，一者契經，二者調伏，三者本母。”相續深密二經皆云，“佛語有三，一脩多羅語，二毗尼語，三摩德勒伽語。”顯揚等論，即說聖教名爲聲量，有處但用名等爲體。如仁王經云，“此經名句百千佛說。”又此經第四云，“一者於無量說法，無量法句文字，後後慧辨陀羅尼自在愚癡。二者辨才自在愚癡。”解云，無量說法者，義無礙境，無量法句文字者，法無礙境，後後慧辨者，辭無礙境，辨才自在者，辨說無礙境。故知聖教名等爲體。故成唯識第二卷云，“若名句文，不異聲者，法辭無礙境應無別。”准知名等以爲自性。

有處合說聲及名等。如仁王經云，“十二部經如，名句文聲。”又維摩經第三卷云，“有以音聲語言文字而作佛事，如是乃至諸佛威儀進止，諸所施爲，無非佛事。”無垢稱經亦同維摩。又十

地論第一卷云, “說者以此二事說, 聞者以此二事聞.” 具如彼說. 解云, 言二事者, 謂聲及名等.

有處文義合說爲體. 如瑜伽論八十一云, “論契經體, 略有二種. 一文, 二義. 文是所依, 義是能依. 如是二種, 總名一切所知境界.”

所以如是諸教異者, 三藏解云. “據實皆用名等爲體, 而諸聖教, 各據一義, 故不相違. 所以者何? 以假從實, 用聲爲體. 離聲無別名句等故. 以體從用, 名等爲體. 能詮諸法自性差別二所依故. 假實相藉合說爲體. 隨闕一種, 說不成故. 生解究竟必由文義. 是故諸說互不相違.”

## (2)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本影有無]

둘째,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本影有無]이다. 두 가지 내용이 있으니, 첫째는 본질과 그림자의 있고 없음이고, 둘째는 법을 설하는데 차등 있게 구별함이다.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을 보자. 여래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네 가지 법을 체로 삼으니 음성·명·구·문이다. 이 네 가지 법은 여래께서 직접 설하신 것으로 본질이라고 하고, 듣는 사람의 식에 의해 전변된 것을 그림자라고 한다. 이처럼 본질과 그림자의 있고 없음의 차별은 여러 종에 따라 총괄하면 네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본질은 있고 그림자는 없다[有本無影]는 것이다. 여러 설들이 다르니, 먼저 여러 부파의 설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살바다종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음성은 유루(有漏)<sup>118)</sup>일 뿐이고, 명 등은 결정코 무기

118) 유루(有漏): 漏 sāsrava. 누(漏)는 흘러나온다는 말로, 6근(六根: 다섯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번뇌이다. 번뇌에 싸여 미혹의 세계에 떠다니는 것을 유루법(有漏法)이라 한다.

(無記)일 뿐이라고 한다. 크게 분별하면 『비바사론』 등과 같다. 둘째 대중부(大衆部)<sup>119)</sup>·일설부(一說部)<sup>120)</sup>·설출세부(說出世部)<sup>121)</sup>·계윤부(雞胤部)<sup>122)</sup>등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모든 부처님 세존은 세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유루법(有漏法)이 없고, 모든 여래의 말씀은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음성으로 모든 법을 말씀하신다고 한다. 셋째 다문부(多聞部)<sup>123)</sup>는 부처님의 다섯 가지 종류의 음성은 출세간(出世間)<sup>124)</sup>의

119) 대중부(大衆部) : ㉠Mahāsaṅghika, 불멸(佛滅) 100여 년 후 계율의 해석문제로 보수적인 상좌부파(上座部派)와 갈라선 분파. 이들은 생사·열반은 모두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현재만을 인정하며 과거·미래를 부정하였다. 9무위(無爲)를 내세워 심성이 본디 깨끗함을 주장하고, 응신(應身) 밖에 보신(報身)을 내세우는 등 뚜렷한 교리의 발전을 보였다. 그 뒤 약 3백년 동안에 일설부(一說部)·설출세부(說出世部)·계윤부(雞胤部)·다문부(多聞部)·설가부(說假部)·제다산부(制多山部)·북산주부(北山住部)의 분파를 내었다 한다.

120) 일설부(一說部) : ㉠Eka-vyavahārika, 불멸 후 2백년 경 대중부에서 나뉜 일파. 대중부에서 모든 법이 현재에만 체(體)가 있고 과거·미래는 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설부는 어떤 것도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가명(假名)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21) 설출세부(說出世部) : ㉠Lokottara-vāda, 불멸 후 2백년 경 대중부에서 갈려 나온 일파. 세간의 번뇌는 전도(顛倒)로부터 일어난다 하며, 이에 의하여 업(業)을 짓고, 업에 의하여 고통의 결과를 받는다 한다. 이와 같이 세간의 온갖 법은 전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가명(假名)뿐이요 실체가 없으나, 출세간법은 이에 반하여 전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도법과 도과(道果)는 모두 실유하다고 한다.

122) 계윤부(雞胤部) : ㉠Kurkutika, Gokulika, 불멸 후 2백년 경 대중부에서 갈려 나온 일파. 이들 시조는 성욕에 못 견딘 선인(仙人)이 닭과 음행하여 낳은 후예라고 하여 계윤부라 한다. 그들의 주장은 경과 율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이고, 논만이 부처님의 정설(正說)이며, 이에 따라 부지런히 수행하여 번뇌를 끊어야 한다고 한다.

123) 다문부(多聞部) : ㉠Bāhuśrutīya, 사피의(祠皮依)라는 아라한이 설산(雪山)에서 좌선하느라고 부처님의 열반하심을 알지 못하였다가, 2백년 후 설산에서 내려와 앙굴다라국에 이르러 대중부의 학설이 천박함을 알고, 따로 한 부를 세워 다

말씀이라고 한다.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열반적정(涅槃寂靜)의 성스러운 길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다른 음성들은 모두 세간(世間)의 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부파에서는 모두 이설을 말한다. 오직 본질만 있고 그림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 종들은 유식의 뜻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림자는 있고 본질은 없다[有影無本]는 것이다. 저 나가서나(那伽犀那)<sup>125)</sup>는 용군(龍軍)이라고 하는데, 구역『삼신론(三身論)』의 논주이다. 그는 불과한 오직 진여(眞如)와 진여지(眞如智)만이 있을 뿐이며, 색과 성 등 거친 모양의 공덕은 없다고 하였다. 견혜 논사(堅慧論師)<sup>126)</sup>와 금강군(金剛軍)<sup>127)</sup>도 모두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견혜 논사는 구역『보성론(寶

---

문부라고 하고 깊은 이치를 꿰다고 한다. 혹은 그 부주(部主)가 다문(多聞)·박학(博學)하였으므로 다문부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석가의 가르침을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으로 나누어, 무상(無常)·고(苦)·공(空)·무아·열반적정(涅槃寂靜) 등을 출세간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 124) 출세간(出世間): 생멸 변화하는 미혹한 세계를 벗어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것. 또는 불법과 관련된 일들.
- 125) 나가서나(那伽犀那): ㉠Nāgasena. ㉡십육나한(十六羅漢)의 하나. 1,200명의 아라한과 함께 반도파산(半度波山)에 거주하면서 정법(正法)과 중생을 수호한다는 성자. ㉢그리스의 메난드로스(Menandros)왕과 문답을 벌여『밀린다왕문경』이 이루어지도록 한 주인공인 나가세나 비구. ㉣대승의 논사. 용군(龍軍)이라고도 하며, 『삼신론(三身論)』을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의 뜻.
- 126) 견혜 논사(堅慧論師): ㉠Sthiramati. 안혜(安慧). 인도 대승불교 유가행파(瑜伽行派)의 학승으로 유식계 10대 논사(十大論師)의 한 사람이다.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는 견혜(堅慧)로 기록되어 있다.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중송론(中頌論)』 등을 주석을 하였으며, 『구사론실의(俱舍論實義)』 등을 저술하여 중현(衆賢)의 『순정리론(順正理論)』을 반박하였다. 그의 학설은 무상유식론파(無相唯識論派)로서, 식(識)의 작용의 궁극적 실유성(實有性)을 부정한 점에서 호법(護法)계통의 유상유식론파(有相唯識論派)와 대립하였다.

性論』<sup>128)</sup>의 논주로서, 다섯 인도<sup>129)</sup> 중 북인도 사람이다.

셋째는 본질과 그림자 모두가 있다[本影俱有]는 것이다. 월장보살(月藏菩薩)<sup>130)</sup>(또는 호월(護月)이라고도 함)과 친광(親光)<sup>131)</sup> 등은 모두 이 설을 말하였다. 일체 여래께서는 모두 세 가지 몸과 색(色)과 성(聲) 등의 덕이 있다고 한다. 『금광명경(金光明經)』<sup>132)</sup>에서는 “여래는 세 가지 종류의 법륜을 굴

- 
- 127) 금강군(金剛軍):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을 주석한 『십지경론(十地經論)』을 지은 이후, 금강군과 견혜(堅慧) 등의 논사들이 또 십지품을 해석하는 저술을 남겼다고 한다. 금강군의 해석은 1만2천송으로써, 30여권으로 번역되었다고 『탐현기』는 전한다.
- 128) 『보성론(寶性論)』: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 ㉔ Rātnagotra-vibhāgo Mahāyānottaratantra-śāstra, 4권 11품. 늑나마제(勒那摩提)역. 여래장 자성청정의 교의를 설하는 경론으로 견혜(堅慧)가 지었다고 한다. 이 책에 인용된 풍부한 경전을 통해 초기의 여래장 사상과 인도 여래장설이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129) 다섯 인도: 고대 인도를 다섯으로 나눈 정치적 구획. 동천축·남천축·서천축·북천축·중천축.
- 130) 월장보살(月藏菩薩): 호월(護月, ㉔ Candra-gupta). 중인도 날란다사에서 활동한 승려. 호법과 동시대의 논사로서 『변중변론(辯中邊論)』에 대한 해석서를 지어 아뢰야연기설과 본유종자설(本有種子說)을 주장하였다고 전한다.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호법(護法)이나 호월(護月)같은 사람은 불타의 유교(遺敎)에 훌륭한 업적을 올렸고, 덕혜(德慧)나 견혜(堅慧)같은 사람은 그 명성이 크게 찬양되었다. 광우(光友)의 청순한 논의나 승우(勝友)의 고아한 담론, 지월(智月)의 명민한 견식, 계현(戒賢)의 적정한 고덕 등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大唐西域記』 권9 大51 p.924a1~4. 物強識多能, 明德哲人聯暉繼軌, 至如護法護月振芳塵於遺敎, 德慧堅慧流雅譽於當時. 光友之清論, 勝友之高談, 智月則風鑒明敏, 戒賢乃至德幽邃.)
- 131) 친광(親光): 호법(護法)의 제자. 중인도 마가다국 날란다사의 학장(學匠). 『불지경론(佛地經論)』을 지었다.
- 132) 『금광명경(金光明經)』: 담무참(曇無讖)이 한역본이 가장 유명하지만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수나라 보귀(寶貴)가 자신과 담무참·진제·사나굴다 등이 번역한 것을 합하여 엮은 『합부금광명경』에서 찾아진다. 원측이 진제의 설을

리시니, 전법륜(轉法輪)·조법륜(照法輪)·지법륜(持法輪)이다.”라고 하였다.<sup>133)</sup> 이와 같은 가르침은 진실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혹 듣는 사람이 식을 저것과 유사하게 전변한다. 따라서 본질과 그림자의 모습이 모두 있다고 아는 것이다.

넷째는 본질과 그림자 모두가 없다[本影俱無]는 것이다. 청변(淸辨)보살<sup>134)</sup>은 승의제(勝義諦)에 의거하여 일체법의 성(性)이 모두 공(空)하다라고 하였다. 혹 호법(護法)<sup>135)</sup>은 승의제를 취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 여래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본질과 그림자 모두가 없으니 승의제 안에는 말 등이 없기 때문이다.

---

수용했던 것을 생각할 때, 진제가 한역했던 『금광명제왕경(金光明帝王經)』에 있는 내용이라고 추측된다.

133) 『합부금광명경』 권2 大16 p.368b10~11.

134) 청변(淸辨) : ㉟Bhāvaviveka, 500~570경. 남인도의 중관학파의 논사. 중인도(中印度)에서 승호(僧護, Saṃgharakṣita)에게 사사(師事)하고 대승경전과 용수(龍樹, Nāgārjuna)의 교설을 익혔다. 후에 남인도로 돌아와 공(空)의 뜻을 선양하였고, 마가다국의 호법(護法, Dharmapāla)과 공유(空有)논쟁을 했다고 전해진다. 청변은 용수를 따라 진유(盡有)의 공을 주장했다. 남인도의 50여 가람에서 활동하며 교법을 널리 설하고 『중론석(中論釋)』을 지어 같은 중관학파인 불호(佛護, Buddhapālita)의 설을 깨트렸다. 만년에 다나갈책가국(駄那羯磔迦國) 남쪽의 산에 은거하여 진언을 염송하면서 입적했다. 주요 저술로는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2권,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 15권 및 『중관심론송(中觀心論頌)』 등이 있다.

135) 호법(護法) : ㉟Dharmapāla, 유식 10대논사 가운데 한 사람. 530~561경. 남인도 드라비다국(Drāviḍa)의 대신(大臣)의 아들로 태어나 왕녀와 혼약을 맺었지만 혼인한 날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대·소승교학에 정통하여 마가다국 날란다사에서 널리 교화하여 학도가 수천 명이었다고 한다. 29세에 대보리사(大菩提寺, Mahābodhi)로 가서 저술에 전념하고 32세에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성유식보생론(成唯識寶生論)』·『관소연론석(觀所緣論釋)』 등이 있다. 현장이 번역한 『성유식론(成唯識論)』 10권은 호법의 석론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9명의 논사들의 저작을 모아 완성한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이 네 가지 말들이 차별이 있지만, 현장삼장과 호법종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진실 되고 바른 가르침에 의거해 보면, 오직 본질만 있고 그림자는 없다. 왜냐하면 본질은 여래께서 바르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바른 가르침과 겹하여 말하면 본질과 그림자가 모두 있다. 모두 여래께서 설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이다.

第二本影有無. 有其二義, 一本影有無, 二說法差別. 本影有無者. 如來聖教, 四法爲體, 所謂音聲名句文身. 如是四法, 如來自說, 名爲本質, 聞者識變名之爲影. 如是本影有無差別, 總約諸宗, 有其四句.

一有本無影. 諸說不同, 且依諸部, 有其三說. 一薩婆多宗, 一切佛聲唯有漏, 亦說名等定唯無記. 若廣分別, 如婆沙等. 二大衆部 一說部 說出世部 雞胤部等, 皆作是說. 諸佛世尊, 皆是出世, 無有漏法, 諸如來語, 皆轉法輪, 佛以一音說一切法. 三多聞部說, 佛五種音是出世間. 所謂苦空無常無我涅槃寂靜, 引聖道故. 所餘諸聲, 皆是世間. 如是等部, 皆作是說. 唯本非影, 彼宗不明唯識義故.

二有影無本者. 諸那伽犀那, 此云龍軍, 卽是舊翻三身論主. 彼說佛果唯有眞如及眞如智, 無色聲等麤相功德. 堅慧論師, 及金剛軍, 皆同此釋. 堅慧論師, 卽是舊翻實性論主, 五印度北也.

三本影俱有者. 月藏菩薩(亦名護月)及親光等, 皆作是說. 一切如來, 具有三身色聲等德. 金光明云, “如來能轉三種法輪, 謂轉照持.” 如是等教, 誠證非一. 或能聞者識變似彼, 故知俱有本質影像.

四本影俱無者. 清辨菩薩依勝義諦, 立一切法其性皆空. 或可護法就勝義諦, 作如是說. 如來聖教, 本影俱無, 勝義諦中, 無



言等故.

雖有如是四句差別, 大唐三藏及護法宗, 有其二義. 一就實正教, 唯本非影. 本卽如來正所說故. 二兼正俱說, 通於本影. 皆由如來說力起故.

묻는다. 만일 바른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면, 『능가경(楞伽經)』<sup>136)</sup> 등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sup>137)</sup>

4권 『능가경』 제3권에서 “나는 어느 날 밤에 최정각(最正覺)<sup>138)</sup>을 얻고서 어느 날 밤에 반열반(般涅槃)에 들기에 이를 때까지 그 동안에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에도 설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설하지 않을 것이니, 설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설법이다.”<sup>139)</sup> 라고 하였다. 또 『대반야경(大般若經)』<sup>140)</sup> 제567권에서 “중생들은 각각 부처님께서는 유독 나를 위해서

---

136)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유송(劉宋)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한역. 부처님이 능가산에서 대혜보살(大慧菩薩)을 위하여 여래장(如來藏) 연기(緣起)의 이치를 설한 경전. 이역본으로 당(唐)나라 때 실차난타(實叉難陀)가 한역한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7권, 보리류지(菩提流支)가 한역한 10권 『입능가경(入楞伽經)』이 있다.

137) 회석(會釋): 불경 어려운 뜻을 잘 통하도록 해석함.

138) 최정각(最正覺): 우주의 구경(究竟)의 진리를 남김없이 깨닫고 모든 현상계의 차별을 두루 아는 부처의 지혜.

139)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권3 大16 p.498c17~19.

140) 『대반야경(大般若經)』: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⑤ Mahā-prajñāpāramitā-sūtra. 당나라 현장이 한역한 600권 390품 4백 6십여 만 자의 『대반야바라밀다경』. 반야경 계통의 경전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경전 성립 순서로 보면 도행반야(道行般若)와 소품반야(小品般若)가 가장 이르고, 그 다음이 대품반야와 금강반야(金剛般若) 등이며 그 후에 대반야경과 나머지 제부 반야가 나왔다고 추정한다. 그 시기는 대승경전 중기로 추정된다. 전체 반야경은 4처 16회 600권이다. 제1회는 79



법을 설하신다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본래 설함도 없고 보이심도 없다.”라고 하였다.<sup>141)</sup> 또 제571권에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sup>142)</sup>

해석한다. 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진여는 언설(言說) 등의 갖가지 상(相)을 떠났기 때문에 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4권 『능가경』 제3권에서는 “‘무엇 때문에 설하지 않은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대혜(大慧)에게 고하셨다. ‘나는 두 가지 법(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두 가지 법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증득하는 법[自得法]과 본래 머무는

품 400권 13만 2600송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 10만송반야(*Sat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2회는 85품 78권으로 대품반야이며 산스크리트본 2만5천송반야(*Pañcaviṃśatisāhasr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3회는 31품 59권으로 산스크리트본 1만8천송에 해당한다. 제4회는 29품 18권으로 소품반야·도행반야에 해당하며 산스크리트본 8천송(*Aṣṭ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5회는 24품 10권으로 4천송반야이다. 제6회는 17품 8권으로 2500송반야이다. 제7회는 만수실리분(曼殊室利分) 2권으로 700송반야(*Saptaśat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8회는 나가실리분(那伽室利分) 1권으로 400송반야에 해당한다. 제9회는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 1권으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에 해당하는 300송분이다. 제10회는 반야이취분(般若理趣分) 1권으로 150송에 해당한다. 제11회는 보시바라밀다분(布施波羅蜜多分) 5권, 제12회는 정계바라밀다분(淨戒波羅蜜多分) 5권, 제13회는 안인바라밀다분(安忍波羅蜜多分) 1권, 제14회는 정진바라밀다분(精進波羅蜜多分) 1권, 제15회는 정려바라밀다분(靜慮波羅蜜多分) 2권, 제16회는 반야바라밀다분(般若波羅蜜多分) 8권으로 2500송에 해당한다.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prajñāpāramitā*)이란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반야경 계통의 경설은 세상의 인식과 일체의 대상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진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야로 세속의 진정함 모습을 보아야 하며, 이렇게 절대진리를 파악하여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한다. 이는 대승불교의 기본 이론이다.

141)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67 大7 p.928b1~2.

142)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71 大7 p.948a9~10.

법[本住法] 그 두 가지에 따르는 것이다.”<sup>143)</sup>라고 하였다. 또 10권 『능가경』 제5권에서는 “첫째는 자신이 안으로 증득한 법[內證法]에 의한 것이고, 둘째는 본래 머무는 법[本住法]에 의한 것이다.”<sup>144)</sup>라고 하였다.<sup>145)</sup> 자세한 것은 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해석한다. 경의 의미는 하나의 진여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안에서 스스로 증득한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계시거나 성(性)과 상(相)이 항상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여는 말을 떠났기 때문에 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저 4권 『능가경』의 계송에서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계송을 설하셨다. 나는 어느 날 밤 성도하고 어느 날 밤 열반에 들 때까지, 그 둘 사이에 나는 설한 것이 전혀 없다. 스스로 증득한 법과 본래 머무는 법에 의거하여 나는 이렇게 설하였으니, 저 부처님과 나는 모두 차별이 없다.”<sup>146)</sup>고 하였다. 10권 『능가경』 제5권의 내용도 대부분 앞의 계송과 같다.〈제5구에서 “안에서 스스로 증득한 법성이다.”<sup>147)</sup>라고 하였다.〉 또 『인왕경』에서 말하기를, “들음도 말함도 없어서 허공과 같으며, 법이 법성과 같고 들음과 설함이 하나여서 일체법이 모두 여여하다.”<sup>148)</sup>라고 하였다. 또 세친보살의 『반야론(波若論)』<sup>149)</sup>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래께서 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

143) 『능가아발다라보경』 권3 大16 p.498c20~23.

144) 『능가아발다라보경』 권3 大16 p.498c20~23.

145) 『입능가경』 권5 大16 p.541c7.

146) 『능가아발다라보경』 권3 大16 p.499a7~10.

147) 『입능가경』 권5 大16 p.541c27.

148) 『인왕반야바라밀경』 권1 大8 p.826b13~14.

149) 『반야론(波若論)』: 파약(波若)은 반야(般若, 𑖀𑖦𑖔𑖨)의 다른 번역어. 『반야론』은 『금강반야바라밀경론(金剛般若波羅蜜經論)』의 약칭. 발심한 보살의 수행법에 대해 설명한다. 무착(無著)이 지은 3권의 책과 세친이 지은 3권의 책 두 가지의 이름이 같다.

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내가 법을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50)</sup>라고 하였다. 이 뜻은 무엇인가? 계송에서 말하기를 “불법도 또한 그러한 것과 같이 두 가지 차별을 말하였다. 법계를 떠나지 않고 자상(自相)이 없는 법을 설하였다.”<sup>151)</sup>라고 하였다. 논에서 스스로 해석하기를, “두 가지 차별이란 말하는 법과 그 뜻이다.”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이 논 의 뜻은 화신(化身) 여래도 진여를 떠나 따로 자상(自相)이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진여를 떠나 따로 자상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교법과 말씀하신 뜻도 또한 그와 같다.

둘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반야론』에서 “수보리여, 여래께서는 법을 말하신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152)</sup>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오직 홀로 여래께서 설하신 외에 한 가지 법도 없으니, 다른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대개 문자에 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4권 『능가경』 제4권에서 “여래께서는 문자에 떨어지는 법을 설하지 않으셨으니, 문자가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래께서 문자에 떨어지는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망한 말이다. 법은 문자를 떠나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으셨고 한 글자도 답하지 않으

150) 『금강반야바라밀경론』 권하 大25 p.793a22~23.

151) 『금강반야바라밀경론』 권하 大25 p.793b1~2.

152) “수보리여,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설하셨다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수보리여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래께서 법을 말하심이 있다는 것인가, 아닌가?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으십니다.”(『금강반야바라밀경론』 권중 大25 p.786c23~25.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則非般若波羅蜜,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不? 須菩提言, 世尊, 如來無所說法.)

섰다.”<sup>153)</sup>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세히 말했다. 또 거기에서 말하기를, “대혜여, 만일 일체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가르침의 법은 무너진다. 가르침의 법이 무너지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연각과 성문이 없어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없다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설하겠느냐?”<sup>154)</sup>라고 하였다. 10권 『능가경』 제6권의 내용도 대개 이 말과 같다. 때문에 번거로이 서술하지 않는다.

이상 경의 글에 준해 보면, 비록 문자에 떨어지는 법은 설하지 않았지만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 삼장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베풀어 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維摩經)』에서 “무릇 법(法)을 설하는 것은 설함도 보여줌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사람은 들음도 얻음도 없다. 비유하자면 요술쟁이가 허깨비 같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이러한 뜻을 세워서 법을 설해야 한다.”<sup>155)</sup>라고 하였다.

問, 若正教佛自說者, 楞伽等說如何會釋?

四卷楞伽第三卷云, “我從某夜得最正覺, 乃至某夜入般涅槃, 於其中間, 不說一字. 亦不已說當說, 不說是佛說.” 又大般若第五百六十七云, “衆生各各謂佛獨爲說法, 而佛本來無說無示.” 又五百七十一云, “諸佛菩薩, 從始至終, 不說一字.”

解云. 不說有其三義. 一依眞如離言說等種種相故, 故言不說. 是故四卷楞伽第三卷云, “何因說言不說是佛說. 佛告大慧, 我因二法故, 作如是說. 云何二法? 謂緣自得法及本住法.” 又十卷楞伽第五卷云, “一者依自身內證法, 二者依本住法.” 廣說如彼. 解云. 經意, 於一眞如, 有其二義. 一內自所證, 二有佛無佛性相常住. 如是眞如, 離言說故, 名爲不說. 故彼四卷頌

153) 『능가아발다라보경』 권4 大16 p.506c2~6.

154) 『능가아발다라보경』 권4 大16 p.506c7~9.

155) 『유마힐소설경』 권1 大14 p.540a18~20.

云,“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偈言,

我某夜成道 至某夜涅槃 於此二中間 我都無所說

緣自得法住 故我作是說 彼佛及與我 悉無有差別”

十卷第五,大同前頌.〈第五句云,內身證法性〉又仁王經云,“無聽無說如虛空,法同法性,聽同說同,一切法皆如也.”又天親菩薩波若論云,“若人言如來說法,則爲謗佛,不能解我所說法故.”此義云何?偈曰,

“如佛法亦然 所說二差別 不離於法界 說法無自相”

論自釋云,“二差別者,所說法及義.”解云.論意,化身如來,離真如外無別自相.如佛離真如外無別自相,所說教法及所說義,亦復如是.

二約諸佛所說無異,故言不說.故波若論云,“如經言,‘須菩提,如來無所說法故.’”此義云何?無有一法唯獨如來說餘佛不說故.

三約墮文字法,故言不說.是故四卷楞伽第四云,“如來不說墮文字法,文字有無不可得故,除不墮文字.若有人言,如來說墮文字法者,此則妄說.法離文字故.是故諸佛及諸菩薩,不說一字,不答一字.”乃至廣說.又彼復云,“大慧,若不說一切法者,教法則壞.教法壞者,則無諸佛菩薩緣覺聲聞.若無者誰說爲誰?”十卷第六,大同此說.故不繁述.

准上經文,雖不能說墮文字法,而能宣說不墮文字三藏聖教.故維摩云,“夫說法者無說無示,其聽法者無聞無得,譬如幻士爲幻人說法,當建是意而爲說法.”

또 묻는다. 올바른 가르침을 겸하여 본질과 그림자에 통한다고 한다면,

무성보살(無性菩薩)의 『섭대승론(攝大乘論)』<sup>156)</sup>의 설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그 글에서는 다만 “듣는 사람의 식에 모여들어 나타난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sup>157)</sup>라고 하였다.

해석한다. 호법은 그 논의를 주장을 정량(定量)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 또 해석한다. 호법은 무성과 동일하게 설한 것이다. 저 무성의 뜻은 삼신 중에도 색과 성 등의 공덕이 있어서 (여래도) 또한 법을 설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논에서 “수용신(受用身)<sup>158)</sup>과 변화신(變化身)<sup>159)</sup>은 바로 후득지(後得智)<sup>160)</sup>의 차별이다.”<sup>161)</sup>라고 하였다.

156) 『섭대승론(攝大乘論)』: ㉔ Mahāyāna-saṃgraha, 인도 무착(無著)의 저술. 섭론(攝論)이라고도 한다. 『해심밀경(解深密經)』·『대승아비달마경(大乘阿毘達磨經)』을 필두로 미륵(彌勒)의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등 유가행파(瑜伽行派)의 입장에서 대승불교를 통일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 만유는 필경 유심(唯心)으로 돌아간다는 이론과 이에 의한 종교적 실천을 말하여 대승의 교리가 소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요점으로 아뢰야식과 삼성(三性)을 말하고, 진망화합식인 아뢰야식의 차별적인 미망의 세계를 일소하는 곳에 진정한 깨달음이 나타난다고 한다. 한역에는 531년 불타선다 역, 563년 진제 역, 647~649년의 현장 역, 달마굽다 역의 4종이 있다. 주석서로는 세친(世親)의 『섭대승론석(Mahāyāna-saṃgraha-bhāṣya)』과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Mahāyāna-saṃgrahopānibandhana)』 10권이 있다. 여기서는 무성의 『섭대승론석』을 말한다.

157) 『섭대승론석』 권1 대31 p.380b9 聞者識上直非直說, 聚集顯現以爲體性.

158) 수용신(受用身): 스스로 얻은 법락(法樂)을 수용하고, 또 다른 보살들에게도 수용하게 하는 부처.

159) 변화신(變化身): 부처가 모든 사람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변화한 몸.

160) 후득지(後得智): ㉔ prapñā-labdha-jñāna, 근본지(根本智)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에 얻는, 세속의 일을 이해하는 얇은 지혜. 부처가 대비(大悲)를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는 것 등을 말한다.

161) 『섭대승론석』 권1 대31 p.381c17~18, 二受用身, 卽後得智.; c21~22, 三變化身, 卽是後得智之差別.

묻는다. 만일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듣는 사람의 식에 모이고 나타난 것을 가르침의 체(體)를 삼는다고 하면서 보는 사람의 식에 나타난 색신(色身)을 화신으로 삼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해석한다. 그림자를 생략하여 서로를 드러낸 것이니, 실상에 의거하면 몸과 가르침은 모두 본질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묻는다. 똑같이 그림자를 생략한 것이라면 어째서 보는 사람은 식상(識相)으로써 이신(二身)을 삼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해석한다. 반드시 통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 논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해석한다. 가르침은 이해를 내는 것이다. 듣는 사람은 식상(識相)이 직접 이해를 낼 수 있는데 몸은 부처님의 몸에서 난다. 이로 말미암아 또한 부처님의 색심(色心)이라고 말한다.

묻는다. 듣는 사람의 식 위에서 변한 가르침의 체는 유루(有漏)인가, 무루(無漏)인가?

현장삼장은 해석하기를 “서방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무루심이 변한 것이니, 결정코 무루일 뿐이다. 유루심이 변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역지로 말하면 유루라고 해야 한다. 유루심이 변한 경계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계를 따라 흐른 것이라는 뜻이라면 무루라고 해야 한다. 『무성론』의 중지는 이 해석에 의거한 바가 많다. 다른 하나는 유루심이 변한 것은 결정코 유루라는 것이다. 만일 무루심이 변화된 상[所變相]이라면 결정코 무루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현장삼장과 호법보살은 뜻이 후자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유식론』 제10권에서 “견분과 상분은 유루와 무루와 결정코 같은 성(性)이다. 선(善) 등 삼성(三性)은 반드시 같은 성(性)은 아니다. 삼성의 인연이 뒤섞여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sup>162)</sup>라고 하였다.

묻는다. 유루가 바른 가르침으로 변하면 올바른 가르침은 유루가 되고,

무루가 변하여 샷된 가르침이 되면 샷된 가르침은 무루가 되는가?

해석한다. 틀리지 않다. 무루가 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묻는다. 가르침에 샷됨과 올바름이 있어서 다르나 모두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에 통한다면, 혹 사람에게도 범부와 성인이 다른데 성인이거나 성인이 아니거나 모두 통하는 것인가?

해석한다. 역시 잘못됨이 없다. 능히 변하는 마음[能變心]은 두 가지 종류에 통하기 때문이다. 법을 설하는데 차별이 있는 것은 본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삼신(三身)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국토[諸土]<sup>163)</sup>에 의한 것이다.

又, 兼正俱說, 通本影者, 如何會釋無性菩薩攝大乘論? 彼文但用“聞者識上聚集顯現, 以爲自性.”

解云, 護法不依彼論以爲定量, 故不成難. 又解, 護法同無性說. 彼無性意, 許有三身色聲等德, 亦能說法. 故彼論云, “受用變化, 卽是後得智之差別.”

問, 若爾如何聞者識上聚集顯現以爲教體, 而不說言見者識上所現色身以爲化身?

解云, 影略互顯, 據實身教皆有本影, 故不相違.

問, 等是影略, 如何不說見者識相以爲二身?

---

162) 『성유식론』 권10 大31 pp.58c27~59a8. 此諸身土若淨若穢 無漏識上所變現者. 同能變識俱善無漏. 純善無漏因緣所生. 是道諦攝非苦集故. 蘊等識相不必皆同. 三法因緣雜引生故. 有漏識上所變現者同能變識皆是有漏. 純從有漏因緣所生是苦集攝. 非滅道故. 善等識相不必皆同. 三性因緣雜引生故. 蘊等同異類此應知. 不爾應無五十二等. 然相分等依識變現. 非如識性依他中實. 不爾唯識理應不成. 許識內境俱實有故. 或識相見等從緣生. 俱依他起虛實如識. 이를 요약 인용하였다.

163) 원문에는 ‘諸知’라 하였으나, 이후 전개되는 논의는 불국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諸土’로 보아야 한다.



解云, 不必須通, 不離難故. 又解, 教爲生解. 聞者識相, 親能生解, 身出佛體. 由斯且說佛色心等.

問, 聞者識上所變教體, 爲是有漏, 爲無漏耶?

大唐三藏釋云, “西方兩釋. 一云無漏心變, 定唯無漏. 有漏心變, 自有二義. 橫剋而言, 名爲有漏. 以有漏心所變境故. 若從法界所流義邊, 名爲無漏. 無性論宗, 多依此釋. 一云有漏心所變者, 定是有漏. 若無漏心所變相者, 定唯無漏.” 雖有兩說, 大唐三藏, 護法菩薩, 意存後說. 故成唯識論第十卷云, “見相二分, 有漏無漏, 定是同性. 善等三性, 不必同性. 三性因緣, 雜引生故.”

問, 有漏變正教, 正教成有漏, 無漏變邪教, 邪教應無漏?

解云, 許亦無失. 無漏變故.

問, 教有邪正殊, 皆通漏無漏, 或可, 人有凡聖異, 皆通聖非聖?

解云, 許亦無失. 以能變心通二種故. 言說法差別者, 自有二種. 一約三身者, 二依諸土<sup>164)</sup>.

묻는다. 어떤 몸에 의하여 법을 설할 수 있는가?

답한다. 살바다중에서는 부처님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생신불(生身佛)로 부모가 낳은 유루의 몸이다. 둘째는 법신불(法身佛)로 오분법신(五分法身)<sup>165)</sup>을 이른다. 생신은 법을 설하지만 법신은 설하지 않는다. 관위(觀位) 가운데 들어가서는 법을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부중에 의하면 역시 두 몸이 있는데 모두 법을 설할 수 있다. 경부중의 무루신은 소리를 낼 수

---

164) 이후 전개된 논의에 따라 諸知를 諸土로 교감함

있어 성스러운 가르침을 설한다.

지금 대승에 의하면, 세 가지 몸이 있다. 설하거나 설하지 않는 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1신은 설하고 2신은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용신은 법락(法樂)을 받기 위해 스스로 설하기 때문이다. 법신이 설하지 않는 것은 언설이 없기 때문이다. 화신도 설하지 않으니 진실로 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은 화신은 설하지만 나머지 2신은 설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법신에는) 언설이 없고, (수용신은) 함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타수용신이 다른 근기에 대해 법을 설해도 실제로는 화신이다.

둘째, 2신은 설하고 1신은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신과 수용신은 안으로 성스러운 행위[聖行]의 경계를 증득했기 때문이며, 법락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혹은 수용신과 변화신은 모두가 법을 설할 수 있지만, 법신은 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신에는) 언설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3신이 모두 법을 설한다는 것이다. 10권 『능가경』 제2권에서는 “법신이 법을 설한다는 것은 안으로 성스러운 행위의 경계를 증득했기 때문이고, 보신불이 법을 설한다는 것은 일체 법의 자상(自相)과 동상(同相)을 설하기 때문이며, 화신불이 법을 설한다는 것은 육바라밀 등을 설하기 때문이다.”<sup>166)</sup>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세히 말했다. 4권 『능가경』 제1권에서 말한

---

165) 오분법신(五分法身): 부처님과 아라한이 갖추어 가진 5종의 공덕. 계신(戒身)·정신(定身)·혜신(慧身)·해탈신(解脫身)·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을 말한다.

166) 『입능가경』 권2 대16 p.525b16~c6. 復次大慧, 法佛報佛說一切法自相同相故, 因自心現見薰習相故, 因虛妄分別戲論相縛故, 如所說法無如是體故. 大慧, 譬如幻師幻作一切種種形像, 諸愚癡人取以爲實, 而彼諸像實不可得. 復次大慧, 虛妄法體依因緣法, 執著有實分別而生. 大慧, 如巧幻師依草木瓦石作種種事, 依於呪術人工之力, 成就一切衆生形色身分之相名幻人像. 衆生見幻種種形色, 執著爲人而

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거의 같다.

넷째, 3신이 모두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진여 법신에는 언설이 없기 때문이고, 지수용신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변화신 등은 진실로 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問, 依何身而能說法?

答, 薩婆多宗, 佛有二種. 一者生身佛, 謂父母所生有漏身. 二法身佛, 謂五分法身. 生身說法, 而非法身. 入觀位中不說法故. 依經部宗, 亦有二身, 皆能說法. 彼宗無漏能發音聲說聖教也. 今依大乘, 具有三身. 說與不說, 有其四句.

一一說二不說. 謂受用身, 爲受法樂, 能自說故. 非法身者, 無言說故. 亦非化身, 非眞說故. 或可化身非餘二身. 無言說故, 無所爲故. 雖他受用對機說法, 而實是化.

二二說一不說. 謂佛法身, 及受用身. 內證聖行境界故, 受用法樂故. 或可受用變化, 皆能說法, 而非法身. 無言說故.

三三皆說法. 如十卷楞伽第二卷說, “法身說法者, 內證聖行境界故, 報佛說法者, 說一切法自相同相故, 化佛說法者, 說六度等.” 乃至廣說. 四卷楞伽第一卷說, 大同前說.

四三皆不說. 所以者何? 眞如法身無言說故, 自受用身無所爲故, 變化身等非眞說故.

---

實無人. 大慧, 衆生雖見以爲是人, 無實人體. 大慧, 因緣法體隨心分別亦復如是, 以見心相種種幻故. 何以故? 以執著虛妄相因分別心熏習故, 大慧, 是名分別虛妄體相. 大慧, 是名報佛說法之相. 大慧, 法佛說法者, 離心相應體故, 內證聖行境界故. 大慧, 是名法佛說法之相. 大慧, 應化佛所作應佛說施戒忍精進禪定智慧故, 陰界入解脫故, 建立識想差別行故, 說諸外道無色三摩跋提次第相. 大慧, 是名應佛所作應佛說法相.

그러나 『불지론(佛地論)』<sup>167)</sup>에서 우선 말하는 뜻을 간략히 차례로 세 가지를 말하였다. 『불지론』 제1권에서 “수용신과 변화신의 두 부처님의 땅 중에 지금 이 정토는 어떠한 땅에 속하고, 이 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어떤 몸이 되는 것인가?<sup>168)</sup> 어떤 사람은 변화토(變化土)에서는 변화신이 법을 설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토(受用土)에서는 수용신이 법을 설한다고 한다.”<sup>169)</sup>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그 논과 같다. 여실한 뜻은 석가모니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 지전대중(地前大衆)<sup>170)</sup>은 변화신을 보고 이 예토에 머물면서 그가 법을 설한다고 여겼으며, 지상대중(地上大衆)<sup>171)</sup>은 수용신을 보고 부처님의 정토에 머물면서 그가 법을 설한다고 여겼다. 듣는 것은 비록 같아도 보는 것은 각각 다르다. 자세한 것은 그것과 같다. 여실한 뜻에 의하면, 3신 중에 2신이 법을 설하였으나 법신이 아니고, 땅의 차별에 의한 것이다.

『능가경』에 의하면 10가지 종류의 법을 설하였으니, 첫째 말하여 법을 설함[語言說法]에서 열째 몸을 움직여 법을 설함[動身說法]까지이다. 그래서 10권 『능가경』 제4권에서는 “대혜가 다시 말하기를, ‘세존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니 마땅히 모든 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법이 없다면 마땅

167) 『불지론(佛地論)』: 『불지경론(佛地經論)』. 호법(護法)의 제자로 알려진 친광(親光)이 저술하고, 당의 현장이 한역하였다. 『불지경』에서 설하는 청정법계(淸淨法界)·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의 다섯 가지 법이 대각지(大覺智)를 포섭하는 의미를 설명한 논서이다.

168) 『불지경론』 권1 大26 p.292c4~5.

169) 『불지경론』 권1 大26 p.292c5~12.

170) 지전대중(地前大衆): 지전은 보살 수행의 계위인 52위에서 10지(地) 이전의 10회향(廻向)·10행(行)·10주(住)·10신(信) 등의 지위의 대중.

171) 지상대중(地上大衆): 보살 수행의 계단인 52위 가운데 10지의 초지(初地) 이상의 십지·등각·묘각 지위의 대중.

히 말쑤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대혜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법이 있거나 없는데 말이 있다면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다. 대혜여, 토끼의 뿔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그러나 말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비판한 이 뜻은 이미 논파된 것이다. 대혜여, 모든 부처님의 땅에서 말로 법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똑 바로 바라보면서 눈을 깜박이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바라봄으로써 법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가리키는 모습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혹은 모습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단지 눈썹을 움직이는 모습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혹은 눈썹을 치켜 올린다.”라고 하였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다만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혹은 눈동자를 움직인다.”라고 하였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찬탄하는<sup>172)</sup>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하품하는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sup>173)</sup>(4권 『능가경』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기침하는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혹은 목이 메거나 기침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염(念)하는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혹은 부처님의 나라를 염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법을 설한다고 한다.(4권 『능가경』에서 “혹은 몸을 흔들어 움직인다.”라고 하였다.)<sup>174)</sup>

172) 『입능가경』에는 찬탄[嘆]이 아니고 웃음[笑]이다.

173) 『입능가경』에는 하품[欠]이 [欠呿]이다.(권4 大16 p.534c2.)

174) 이상 10권 『능가경』의 내용은 『입능가경』 권4 大16 534b19~534c4, 4권 『능가경』의 내용은 『능가야발다라보경』 권2 大16 493a27~493b1에 나오는데, 문구의 차이가 있다.(『입능가경』 권4 大16 534b19~534c4. 大慧復言, 世尊, 有言語說應有諸法.

또 『유마경(維摩經)』 제3권에서 “빛을 비춤으로써 불사(佛事)를 이루고, 혹은 보살로, 혹은 부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혹은 보리수로, 혹은 옷과 침구로, 혹은 먹을 것으로, 혹은 정원과 높고 큰 전각으로, 혹은 서른 두 가지의 모습과 여든 가지의 상서로운 모습으로, 혹은 부처님의 몸으로, 혹은 허공으로, 혹은 꿈의 비유 등으로, 혹은 음성과 언어와 문자로 불사를 이룬다. 혹은 불국토에서는 적막하고, 말이 없고, 설함이 없고, 보임이 없고, 인식이 없고, 지음이 없고, 함이 없음으로 불사를 이룬다. 이와 같이 아난아, 모든 부처님의 위엄 있는 모습[威儀]과 거동과 모든 베풀어 하는 것이 불사가 아닌 것이 없으시다.”<sup>175)</sup>라고 하였다.

자세히 분별한다면, 『무구칭경(無垢稱經)』 제5권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까닭에 모든 가르침이 다른 것이다. 대승종에 의하면,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대략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말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니, 『불지론』에서와 같다. 두 불신은 법을 말하지만, 법신은 말하지 않는다. 둘째, 이해를 내어 법을 말하는 것으로 법신과도 통하니, 『능가경』과 같다. 셋째, 부처님 나라의 다름에 의해 열 가지 종류로 법을 설하는 것이니,

世尊, 若無諸法者應不說言語。世尊, 是故依言說應有諸法。佛告大慧, 亦有無法而說言語, 謂兔角龜毛石女兒等, 於世間中而有言說。大慧, 彼兔角非有非無而說言語。大慧, 汝言以有言說應有諸法者, 此義已破。大慧, 非一切佛國土言語說法。何以故, 以諸言語惟是人心分別說故。是故大慧, 有佛國土直視不瞬口無言語名為說法。有佛國土直爾示相名為說法。有佛國土但動眉相名為說法。有佛國土惟動眼相名為說法。有佛國土笑名說法。有佛國土欠名說法。有佛國土咳名說法。有佛國土念名說法。有佛國土身名說法。) (『유마경(維摩經)』 제3권)

175) 『유마힐소설경』 권3 大14 553c16~28. 世尊, 如此香飯能作佛事。佛言, 如是如是。阿難, 或有佛土以佛光明而作佛事, 有以諸菩薩而作佛事, 有以佛所化人而作佛事, 有以菩提樹而作佛事, 有以佛衣服臥具而作佛事, 有以飯食而作佛事, 有以園林臺觀而作佛事, 有以三十二相八十隨形好而作佛事, 有以佛身而作佛事, 有以虛空而作佛事。衆生應以此緣得入律行, 有以夢幻影響鏡中像水中月熱時炎如是等喩而作佛事, 有以音聲語言文字而作佛事, 或有清淨佛土寂寞無言無說無示無識無作無爲而作佛事。如是阿難, 諸佛威儀進止, 諸所施爲無非佛事。

『능가경』과 같다. 넷째, 모든 부처님의 거동과 베풀어 하심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이룬다는 것이니, 『유마경』 등과 같다. 각각 의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틀리지 않는다. 불사는 이로운 일을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 단지 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묻는다. 위의 여러 가지 말들은 모두 명 등이 있는가, 아니면 일정하지 않은 것인가?

해설한다. 일정하지 않다. 법신이 법을 설하는 것과 허공 등은 이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설한다고 한다. 명이 없는 등의 모든 무위법은 분위(分位)<sup>176)</sup>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말함이 없고, 보임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은 고요한 마음 위에 거것으로 명 등을 세우는 것이니, 이치가 잘못됨이 없다. 유위심(有爲心)<sup>177)</sup> 등은 분위가 있기 때문이다.

然佛地論，且依說義，略敘三說。故佛地論第一卷云，“受用變化二佛土中，今此淨土，何土所攝，說此經佛，爲是何身。”有義，化土化身說法，有說，受用土受用身說法。廣說如彼。如實義者，釋迦牟尼，說此經時，地前大衆，見變化身，居此穢土，爲其說法，地上大衆，見受用身，居佛淨土，爲其說法。所聞雖同，所見各別。具說如彼。准如實義，於三身中，二身說法，而非法身，依土差別者。

依楞伽經，有十種說法。一語言說法，乃至第十動身說法。故十卷經第四卷云，“大慧復言，‘世尊有語言說，應有諸法，若無諸法，應無言說。’佛告大慧，‘亦有無法而有言說，如兔角等。大慧，兔角非有非無，而有言說。故汝所難此義已破。大慧，非一

176) 분위(分位): 차별(差別)한 데에 세워진 위치

177) 유위심(有爲心): 차별 또는 인연을 일으키는 마음

切佛土言語說法. 何以故? 有佛國土, 直親不瞬口無言說, 名爲說法.〈四卷楞伽云瞻視顯法<sup>178)</sup>〉有佛國土, 直示相名爲說法.〈四卷楞伽或有作相〉有佛國土, 但動眉相名爲說法.〈四卷楞伽或有揚眉〉有佛國土, 唯動眼相名爲說法<sup>179)</sup>.〈四卷楞伽或有動精〉有佛土, 嘆名爲說法.〈四卷亦同〉有佛國土, 欠名爲說法.〈四卷亦同〉有佛國土, 咳<sup>179)</sup>名爲說法.〈四卷云或磬咳〉有佛國土, 念名爲說法.〈四卷經云或念刹土〉有佛國土, 動身名爲說法.〈四卷云或動搖〉”又維摩經第三卷云, “有以光明而作佛事, 或以菩薩, 或佛化人, 或菩提樹, 或以衣服臥具, 或以飯食, 或以園林臺觀, 或以三十二相八十隨好, 或以佛身, 或以虛空, 或夢喻等, 或以音聲語言文字, 而作佛事. 或有佛土, 寂漠無言無說無示無識無作無爲而作佛事. 如是阿難, 諸佛威儀進止, 諸所施爲, 無非佛事.”

若廣分別, 如無垢稱第五卷說. 所以如是諸教異者. 依大乘宗, 汎論說法, 略有四義, 一語言說, 如佛地論, 二身說法, 而非法身. 二生解說法, 亦通法身, 如楞伽經, 三依土差別, 十種說法, 如楞伽經, 四諸佛進止諸所施爲, 乃成無量, 如維摩等. 各有所據, 故不相違. 或可佛事顯利益事, 非唯說法.

問, 上諸說皆有名等, 爲不定耶?

解云, 不定, 法身說法及虛空等能生解故, 名爲說法. 而無名等, 諸無爲法, 無分位故. 若其無說無示等者, 寂嘿心上, 假立名等, 於理無失. 有爲心等, 有分位故.

178) 『입능가경』에 의해 法 보완

179) 『입능가경』에 의해 咬를 咳로 교감함



### 3. 글에 의해 바르게 해석함[依文正釋]

#### ○ 삼승과 성불

##### [경]

또한 승의생(勝義生)아, 모든 성문승 중성인 유정도 또한 이러한 도와 이러한 행적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위 없는 편안한 열반을 증득한다. 모든 독각승 중성인 유정과 모든 여래승 중성인 유정도 또한 이러한 행적으로 인하여 위 없는 편안한 열반을 증득한다.

復次勝義生，諸聲聞乘種姓有情，亦由此道此行迹故，證得無上安隱涅槃。諸獨覺乘種姓有情，諸如來乘種姓有情，亦由此道此行迹故，證得無上安隱涅槃。<sup>180)</sup>

##### [소]

풀이한다. 아래는 네 번째 삼무성(三無性)으로 일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중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도(聖道)에 의해 일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남자여’ 이하로 취적성문(趣寂聲聞)<sup>181)</sup>이 결정코 성불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만일 회향한다면’ 이하로 회향성문(迴向聲聞)<sup>182)</sup>이 결정코 성불함을 밝힌 것이다. 총괄적으로 뜻을 풀이하여 말

180) 『해심밀경』 권2 大16 p.695a13~17.

181) 취적성문(趣寂聲聞) :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 회향보리(迴向菩提)성문과 함께 『해밀심경』에서 말하는 2중성문의 하나. 경문에서는 한결같이 고요한 데 빠진 열등한 중성의 성문으로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주 261) 참조.

182) 회향성문(迴向聲聞) : 회향보리성문(迴向菩提聲聞), 일향취적(一向趣寂)성문과 함께 『해밀심경』에서 말하는 2중성문의 하나. 경문에서는 보리로 회향한 성으로 해탈을 얻는 보살이라 하였다. 주 233) 참조. 이들 2중성문에 대한 원측의 해석은 『해밀심경소』 권4에 있다.(韓1 p.263b4~24)

하면, 첫째 단락에서는 세 가지 중성으로 여래께서 방편으로 일승을 위하여 설하시는데 진실된 바른 이치에 의거하면 모든 삼승이 각각 구경의 무여열반(無餘涅槃)<sup>183)</sup>을 증득한다는 것이다. 『승만경(勝鬘經)』<sup>184)</sup>의 뜻도 이러한 말과 같다. 둘째 단락의 뜻은 정성이승(定性二乘)<sup>185)</sup>은 오직 이승의

183) 무여열반(無餘涅槃) : ㉔nirupadhiṣṣa-nirvāṇa 4종열반의 하나. 열반을 얻고도 신체가 남아 있는 것을 유여열반이라 하는데 대해 그 신체까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한편 반열반(般涅槃)의 역어(譯語)로서 완전한 열반의 뜻으로도 쓰인다. 4종열반은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清淨涅槃)·유여열반(有餘涅槃)·무여열반(無餘涅槃)·무주열반(無住涅槃)을 말한다.

184) 『승만경(勝鬘經)』 : ㉔Śrīmālā-siṃha-nāda-sūtra,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廣經)』, 1권. 유송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한역. 『대보적경』 제119 승만부인회와 동본이역. 사위국 파사익왕의 딸로서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10대서원과 3대원을 세워 견해를 여쭙고, 부처님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내용의 경전이다. 여래장계 경전의 대표로 꼽힌다. 삼승의 가르침은 대승 일승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일승을 얻으면 여래법신을 얻는다고 하였다. 중생이 번뇌에 얽매어 있지만 그 본성은 청정무구하여 여래와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 여래장을 갖추고 있다고 설한다. 이 경은 재가 부인이 주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마경』과 함께 재가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다.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계승하고 또한 여래장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185) 정성이승(定性二乘) : 선천적인 자질로 인해 각각 벽지불과와 아라한과만을 얻도록 정해진 연각(緣覺)과 성문(聲聞). 오성(五姓, 五性) 중의 2성과 3성을 말한다. 오성이란 ①보살정성(菩薩定姓, 定性菩薩), ②독각정성(獨覺定姓, 定性緣覺), ③성문정성(聲聞定姓, 定性聲聞), ④삼승부정성(三乘不定姓, 不定種性), ⑤무성유정(無姓有情, 無種性)이다. 정성(定性)은 보살·연각·성문의 삼승에 각각 그렇게 될 유일한 종자를 갖춘 중생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세 종자를 갖추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류를 부정성(不定性)이라 한다. 부정성은 이승의 수행을 한 뒤 대승으로 전향할 수도 있지만 정성은 정해진 과만을 얻을 수 있다. 무종성(無種性)은 영원히 미혹한 세계에 빠져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겨우 오계·십선을 닦아 인간이나 천계에 태어날 수 있는 일천제(一闍提)를 말한다. 법상종에서는 중생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오종의 서로 다른 성질과 본성이 있다고 보고 아뢰야식 중의 본유종자(本有種子)에 의해 결정된 된 것이므로 이를 바꿀 수 없다고 하여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을 주장하였다.

무여열반을 증득하여 반드시 후에 성불한다는 뜻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 “이승이 증득한 무여열반은 단지 진여의 청정한 법계만이 있다.”<sup>186)</sup>라고 하였다. 셋째 단락의 뜻은 정해지지 않은 중성[不定種姓]으로서 회향한 성문은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화경(法華經)』<sup>187)</sup> 「방편품」에서는 이승의 중성을 위하여 이치가 진실하여 결정코 불과(佛果)<sup>188)</sup>를 이룬다는 것을 설하였다. 만일 이 말에 의거한다면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승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시방의 부처님의 나라 안에는 오직 일승법만이 있다. 이승법도 삼승법도 없으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외한다.”<sup>189)</sup>라고 하였다. 『법화경』과 『승만경』은 각각 한 가지 뜻에만 근거한 것이다. 이제 이 한 부에 의미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해심밀경』이 가장 완전한 뜻이다.(뜻은 별장과 같다.)

186) 『유가사지론』 권74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 있다.(大30 p.707a5~18.)

187) 『법화경(法華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㉟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법화경』은 『반야경』으로 시작하여 차례로 등장한 대승불교 경전이 최고로 집대성, 완성된 경전이다. 묘법(妙法)이라는 말은 설한 교법이 미묘하고 위없이 훌륭하다는 것을, 연화경이란 이 경전이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승의 부파 교학이 지나치게 형식을 중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된 뜻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여,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 비유 또는 상징 등 문학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불타의 영원함을 찬탄하였다.[久遠實成]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교의와 문학적으로 불타 교설의 진의를 잘 나타냈다는 점에서 불교사상과 불교문학 상에서 불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이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간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제법실상(諸法實相) 사상이 중심을 이룬다. 한역본으로는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사나굴다와 달마굽다가 공역한 『첨품법화경(添品法華經)』 7권 등이 있다.

188) 불과(佛果): 부처의 지위(地位)

189) 『묘법연화경』 권1 大9 p.8a17~19.

첫째 단락에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삼승이 각각 자승(自乘)의 무여열반을 증득함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성도 방편으로 일승을 말한 것이다. 다음은 이치가 진실한 삼승의 차별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첫째이니 삼승의 중성이 각각 무성의 미묘하고 청정한 도(道)로써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sup>190)</sup>의 세계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성도는 뜻에 통하기 때문에 도(道)라고 이름하니, 곧 그 성도는 모든 성인이 노닐었던 땅이기에 또 행적(行迹)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道)와 행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번뇌와 유루의 괴로운 몸을 떠나 항상 적멸에 머무는 즐거움을 증득한다. 이 때문에 편안한 열반이라고 말한다.

釋曰<sup>191)</sup>, 此下第四約三無性, 辨一乘義衍. 於中有三. 初約聖道辨一乘義. 次善男子下, 明趣寂聲聞定不成佛. 後若迴向下, 明迴向聲聞定得成佛. 總釋意云, 第一段中, 約三種姓, 如來方便, 說爲一乘, 就實正理, 具有三乘, 各證無餘究竟涅槃. 勝鬘經意, 亦同此說. 第二段意, 定性二乘, 唯證二乘無餘涅槃, 必無後時得成佛義. 故瑜伽云“二乘所證無餘涅槃, 唯有真如清淨法界.” 第三段意, 不定種姓, 迴向聲聞必當成佛. 是故法華方便品說, 爲二乘種姓, 理實決定得成佛果. 若依此說, 方便說三, 就實爲一. 故法華云,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無二亦無三, 除佛方便說.” 法華勝鬘, 各據一義. 今此一部義俱有, 故解深密是最了義.〈義如別章〉就初段中復分爲三. 初明三乘各證自乘無餘涅槃. 次約聖道方便說一. 後明理實三乘差別. 此

190)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 nirupadhiśeṣa-nirvāṇa 사중 열반의 하나. 생사의 괴로움을 여윈 진여(眞如). 번뇌장을 끊고 얻는 것. 이숙(異熟)의 고과(苦果)인 현재의 신체까지 멀해 없어진 곳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한다.

191) 이 단락의 원문은 『해심밀경소』 권4 韓1 pp.255b3~257a6.

卽第一，謂三乘種姓，各以無性妙清淨道，證無餘依妙涅槃界。然彼聖道能通義故，名之爲道，卽彼聖道諸聖遊履，亦名行迹。由此道迹，離諸煩惱有漏苦身，證得常住寂滅之樂，是故說爲安隱涅槃。

# [경]

모든 성문과 독각과 보살이 모두 이 하나의 미묘하고 청정한 도(道)를 함께 한다. 모두 이 궁극의 청정함을 함께 하며, 다시 제이승은 없다. 이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뜻은 오직 일승만이 있다고 말한다.

一切聲聞獨覺菩薩，皆共此一妙清淨道。皆同此究竟清淨，更無第二乘。依此故，密意說言唯有一乘。

# [소]

풀이한다. 이것은 두 번째 방편으로 일승을 말한 것이다. 성문이란 모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음성을 가장 으뜸으로 삼기 때문에 스승과 벗을 따라 이 가르침의 음성을 듣고 계속하여 수행하고 증득하여, 영원히 세간을 벗어나는 소행(小行)·소과(小果)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 독각이란 항상 고요한 곳을 좋아하여 쉬어 머무르고자 하지 않으며, 수행하기를 원만히 하고, 스승이나 벗이 없이 자연스럽게 홀로 깨달아 영원히 세간을 벗어나는 중행(中行)·중과(中果)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각이라고 이름 한다. 혹은 인연을 기다리는 것을 관(觀)하여 성스러운 과(果)를 깨닫기에 연각(緣覺)이라고도 한다. 보살이란 큰 깨달음을 바라고 구하며 유정들을 가엾게 여기고 혹은 보리를 구하면서 뜻이 견고하고 용맹하며 오랫동안 수행하고 증득하여 영원히 세간을 벗어나는 대행(大行)·대과(大果)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유가석론(瑜伽釋

論)』<sup>192)</sup>에서 상세히 해석한 것과 같다.

뜻을 총괄적으로 말한다. 저 삼승이 모두 이 하나의 미묘한 무성(無性)의 도(道)를 함께 하니, 이 도(道)를 설하여 구경의 청정이라고 이름한다. 오직 이 도(道)만이 있고 다시 둘째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도(道)라는 점에서 일승이라고 한다. 때문에 『심밀해탈경』에서 “오직 하나의 청정한 도(道)가 있고 다시 둘째가 없으니 따로 구경청정(究竟淸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sup>193)</sup>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청정하다는 것은 미묘하고 청정한 도(道)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말한다. 하나를 말하는 것은 스스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도(道)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둘째는 과(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셋째는 이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지금 이 글에 의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미묘하고 청정한 도(道)는 곧 하나의 도이고, 구경청정은 하나의 과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하나에 의한다면 다시 둘째가 없다. 그래서 『심밀해탈경』의 뜻은 오직 일승만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의 제4권 중에서 이치에 의하면 별도의 것이 없기 때문에 일승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한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런데 일승이란 오직 하나의 불승(佛乘)이다. 때문에 『승만경』에서 말하기를 “성문과 연각은 모두 대승에 들어간다. 대승은 불승이다.”<sup>194)</sup>라고 하였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시방의 부처님의 나라 중에 오직 일승법만이 있고 이승도 삼승도

---

192) 『유가석론(瑜伽釋論)』: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 『유가론석(瑜伽論釋)』이라고도 한다. 최승자(最勝子, ㉔Jinaputra) 등 여러 사람이 지었다고 한다. 현장이 한역하였다. 최승자는 호법(護法) 문하에서 배운 유식 10대논사의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유가사지론』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석서로 『유가사지론』의 대강의 개요와 논을 만든 사정, 이름 등에 대해 해석하였다. 법상종 학습의 필수서로 꼽힌다.

193) 『심밀해탈경』 권2 大16 p.671c18.

194) 『승만경』 大12 p.220c19~20. 聲聞緣覺乘皆入大乘, 大乘者即是佛乘.

없다.”<sup>195)</sup>라고 하였다. 혹은 법신(法身)으로써 일승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론(法華經論)』<sup>196)</sup>에서 “여래의 법신과 성문의 법신은 법신으로서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수기를 준다.”<sup>197)</sup>라고 하였다. 뒤에서 분별해야만 한다. 이것은 여섯 가지 해석 방법 중 대수석(帶數釋)<sup>198)</sup>이다.

체성(體性)을 논하자면 수용신은 사지심품(四智心品)<sup>199)</sup>이 포섭하는 온(蘊) 등으로써 체성을 삼고, 법신은 진여를 체로 삼는다. 총상(總相)으로 체를 나타내면, 일승문(一乘門)에서는 교(敎)·리(理)·행(行)·과(果)를 일승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일승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매우 많고 번역하는 사람도 한명이 아니어서 뜻이 매우 깊고 멀다. 이 때문에 지금도 옛날에도 논쟁이 일어났다.

釋曰，此卽第二方便說一。言聲聞者，諸佛聖敎，聲爲上首，從

195) 『묘법연화경』 권1 大9 p.8a17.

196) 『법화경론(法華經論)』: 『묘법연화경우바제사(妙法蓮華經優波提舍)』, ㉔Saddharmapuṇḍarikasūtra-upadeśa. 세친이 지은 『법화경』의 주석서. 『묘법연화론(法蓮華經論)』·『법화론(法華論)』 등이라고도 한다. 보리류지(菩提流支)와 담림(曇林)이 번역한 것과, 늑나마제(勒那摩提)와 승랑(僧朗) 등이 번역한 것도 있는데, 자구의 차이가 많다.

197) “부처님의 법신과 성문의 법신은 평등하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기를 준다.” (『묘법연화경우바제사』 大26 p.9a1~2. 以佛法身聲聞法身平等無異故與授記.)

198) 대수석(帶數釋): ㉔dvigu, 6합석(六合釋)의 하나. 복합사의 앞부분에 있는 수사(數詞)를 말한다. 수는 1, 10, 100 등의 숫자이고, 대(帶)란 허리에 차고 있다는 뜻으로, 법체가 숫자를 차고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유식이십론(二十唯識論)에서 유식이란 밝혀야 할 법을 말하고, 20이란 승의 숫자를 말하는데 숫자를 차고 있는 것을 이름한 것과 같은 것이다.

199) 사지심품(四智心品): 사지(四智), ㉔catvāri jñānāni. 유식에서 말하는 불과(佛果)의 네 가지 지혜. 유루의 제8식과 7식과 6식과 전5식이 전변하여 이루어지는 네 가지의 무루지(無漏智), 곧 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

師友所, 聞此教聲, 展轉修證, 永出世間, 小行小果, 故名聲聞. 言獨覺者, 常樂寂靜, 不欲雜居, 修加行滿, 無師友教, 自然獨悟, 永出世間, 中行中果, 故名獨覺. 或觀待緣而悟聖果, 亦名緣覺. 言菩薩者, 怖求大覺, 悲愍有情, 或求菩提, 志願堅猛, 長時修證, 永出世間, 大行大果, 故名菩薩. 具如瑜伽釋論廣解. 總說意云, 謂彼三乘皆共此一妙無性道, 卽說此道, 名究竟淨. 唯有此道, 更無第二, 故約一道, 說爲一乘. 故深密云, “唯有一清淨道更無第二, 而不別說究竟清淨.” 故知究竟清淨卽是妙清淨道也. 又云, 一言自有三種. 一道一故名一. 二果一故名一. 三理一故名一.

今依此文, 有其二種. 妙清淨道卽是道一, 究竟清淨卽是果一. 依此二一, 更無第二. 故深密意說唯有一乘, 而不同下第四卷中, 約理無別故說一乘. 然一乘者, 唯一佛乘. 故勝鬘經云, “聲聞緣覺皆入大乘, 大乘卽佛乘也.” 又法華經云,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無二亦無三” 或可法身以明一乘. 故法華論云, “以如來法身與聲聞法身法身無異, 故與授記.” 後當分別, 此卽六中帶數釋也.

論體性者, 若受用身, 四智心品所攝蘊等, 以爲體性, 若就法身, 眞如爲體, 總相出體, 於一乘門教理行果以爲一乘. 然此一乘聖教甚多, 譯者非一, 意趣深遠. 是故新舊競興爭論.

첫째<sup>200)</sup>, 진제(眞諦)<sup>201)</sup> 등의 한 무리의 여러 논사들은 『법화경』 등 여러

200) 이 부분부터 네 가지로 나뉘어 ①일성개성(一性皆成)의 증문(證文) 부분(韓1 p.256a23~257a6), ②일성개성의 관점에서 오성각별(五姓各別)설을 비판한 부분(p.257a6~c7), ③오성각별의 증문 부분(p.257c7~258c17), ④오성각별의 관점에서



경전과 논에 의거해서 모두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열반경(涅槃經)』<sup>202)</sup> 제7권에서 “25유(二十五有)<sup>203)</sup>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아(我)는 여래장(如來藏)이라는 뜻이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으니, 이것이 나라는 뜻이다.’”<sup>204)</sup>라고 하였다. 또 제25권에서 “중생의 불성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모든 부처님께서서는 평등하여 비유하자면 허공과 같아서 모든 중생이 똑같이 그것을 함께 한다.”<sup>205)</sup>〈이 말은 이성(理性)이다.〉라고 하였다. 또 제27권에서는 “사자후(師子吼)는 결정된 말을 말한다.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

일성개성설을 비판한 부분(pp.258c17~260b4)이 된다. (橘川智昭, 2002, p.191) 그리고 이 부분이 원측 유식사상의 특성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어 있는 부분이다.

201) 진제(眞諦): ㉟Paramārtha, 499~569. 중국 섭론종(攝論宗)의 개조(開祖). 대승불교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을 배우고, 546년 중국 양(梁)나라 무제(武帝)의 초청으로 많은 경전을 가지고 바닷길로 남방을 경유하여 남경(南京)으로 갔다. 때마침 국난을 만나 양나라가 멸망하였으므로,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귀국을 피하였으나 폭풍우를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해(南海)에서 죽었다. 그는 한역에 노력하여 그 역본이 70부에 이르렀다 하나, 현존하는 것은 30부뿐이다. 특히 『섭대승론(攝大乘論)』·『금광명경(金光明經)』·『구사론(俱舍論)』·『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은 후대 유식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2) 『열반경(涅槃經)』: ㉟Mahāparinirvāna-sūtra,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한역은 북량 담무참(曇無讖) 번역의 『대반열반경』 40권 18품이 있고, 법현(法顯)의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6권 18품과 이 두 가지 번역본을 송의 혜엄·혜관·사령운 등이 종합한 36권 25품의 『열반경』이 있다. 이를 남본열반경이라 하고 담무참 역본을 북본열반경이라 한다. 여기는 든 것은 북본 40권본이다. 여래의 상주(常住)와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일체제(一闍提)도 성불할 수 있다는 등의 교의가 중심이다. 일체중생 성불의 의의를 분명히 한 경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03) 이십오유(二十五有): 윤회하는 중생이 나고 죽는 세계를 25종으로 나눈 것. 욕계(欲界)에 14소(所), 색계(色界)에 7소, 무색계(無色界)에 4소를 말한다.

204) 『대반열반경』 권7 大12 p.407b7~10.

205) 『대반열반경』 권29 大12 p.539a9~11.

다.”<sup>206)</sup>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집에 우유[乳]와 낙(酪)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묻기를 ‘그대는 소(蘇)가 있습니까?’<sup>207)</sup>라고 하자 답하기를 ‘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하였다. 낙은 소가 아니지만 교묘한 방편으로써 결정코 얻을 것이기 때문에 소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중생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마음이 있으니, 무릇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정코 아늑 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sup>208)</sup>라고 하였다.〈이 말은 행성(行性)이다.〉 또 제33권에서는 “모든 중생은 똑같이 불성이 있고, 모두 같은 승이고, 같은 해탈이고, 같은 인(因)이고, 같은 과(果)이고, 같은 감로(甘露)이다. 모두가 상락아정(常樂我淨)<sup>209)</sup>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한 가지 맛[一味]이라고 한다.”<sup>210)</sup>〈이성과 행

206) 『대반열반경』 권26 大12 p.522c23~24.

207) 우유[乳, ksīra]와 낙(酪, dadhi)과 소(蘇, ghrta)는 불전에서 이치의 열고 깊음을 비유할 때 쓰는 말. 우유·낙·소[생소(生蘇, navaṇīta)·숙소(熟蘇, ghrta)]·제호(醍醐, sarpiṛmaṇḍa)의 순서로 이치가 깊어진다. 『대반열반경』에는 “비유하면 소에서 젖이 나오고, 젖에서 낙이 나오고, 낙에서 생소가 나오고, 생소에서 숙소가 나오고, 숙소에서 제호가 나온다. 제호는 가장 좋아서 먹는 사람은 모든 병이 없어지므로 모든 약에 들어간다.”(『大般涅槃經』 권14 大12 p.449a5~9. 譬如從牛出乳, 從乳出酪, 從酪出生蘇, 從生蘇出熟蘇, 從熟蘇出醍醐. 醍醐最上, 若有服者, 衆病皆除, 所有諸藥, 悉入其中.)라고 하였다. 『장아함경』이나 『사분율』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長阿含經』 권12 大1 p.112b1~5.; 『四分律』 권40 大22 p.854c18~20이나 『大般涅槃經』 권14 大12 p.449a5~9.) 『열반경』은 이 단계에 12부경·수다라·방동경·반야경·열반경을 차례로 대비시켜 경전의 정도를 비유하였다.

208) 『대반열반경』 권27 大12 p.524c5~10.

209) 상락아정(常樂我淨): 대승의 열반이 경지와 여래의 법신이 갖추는 네 가지의 덕. 열반사덕(涅槃四德)이라고도 한다. 열반의 경계에 이른 깨달음은 영원불변하는 깨달음인 것을 상(常)이라 하고, 그 경계에서는 고통이 없고 안락함만 있는 것을 낙(樂)이라 하며, 자유자재로워 조금도 구애됨이 없는 것을 아(我)라고 하고, 번뇌의 오염됨이 없는 것을 정(淨)이라 한다.

210) 『대반열반경』 권32 大12 p.559a21~23.

성을 같이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시방의 부처님의 나라 안에 오직 일승법만이 있다. 이승도 삼승도 없으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외한다.”<sup>211)</sup>라고 하고, 또 “오직 이 한 가지만 사실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진실이 아니다.”<sup>212)</sup>라고 하였다.

또 『승만경』에서는 “성문과 연각 모두 대승에 들어간다.”<sup>213)</sup>라고 하였다.

또 『수진천자소문경(須眞天子所問經)』<sup>214)</sup>에서는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된다.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왜 그런가? 일체 중생은 마땅히 여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15)</sup>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그것과 같다.

또 『입능가경』 제2권에서 오승성(五乘性)<sup>216)</sup>에 대해 밝히면서 말하기를, “천제(闡提)<sup>217)</sup>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모든 선근(善根)을 불

---

211) 『묘법연화경』 권1 大9 p.8a17~18.

212) 『묘법연화경』 권1 大9 p.8a21.

213) 『승만경』 大12 p.220c19~20.

214) 『수진천자소문경(須眞天子所問經)』: 서진(西晉) 시대 축법호(竺法護)가 한역하였다. 수진(須眞) 천자의 청에 의해 부처님이 보살행에 대하여 설법한 것을 다시 문수사리가 해설한 내용이다.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므로 직견(直見)과 사견(邪見)의 구분 없이 평등한 것이 불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215) 『수진천자소문경』 권2 大15 p.104c26~28.

216) 오승성(五乘性):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다섯 가지 교법(教法). 인승(人乘)·천승(天乘)·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보살승(菩薩乘)을 말한다.

217) 천제(闡提): 일천제(一闡提, śicchantika)의 약칭. 일체의 선근을 끊어 성불할 성품이 없는 이를 뜻함. 원래의 뜻은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다. 단선근(斷善根)·신불구족(信不具足)·무종성(無種性) 등으로 번역된다. 『입능가경』에서는 둘로 구분하여 본래 해탈의 인자가 없는 단선천제(斷善闡提)와, 보살이 대비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기 위하여 예토(穢土)에 일부러 태어나

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서원을 다하도록 만든 것이다. 두 가지 가운데 첫째 것을 따르면 성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sup>218)</sup> 구체적인 것은 그것과 같다. 4권 『능가경』 제1권의 말과 다르지만 뜻은 앞의 책과 같다. 이러한 경들에 준해 보면 무성유정(無姓有情)<sup>219)</sup>도 성불할 수 있다.

또 『섭대승론(攝大乘論)』<sup>220)</sup> 제15권에서는 “다섯째 승(乘)을 구제하는 것을<sup>221)</sup> 업으로 삼는다.”라고 하였고<sup>222)</sup> 다음에는 “근성(根性)이 정해지지 않

---

서 활동하므로 열반에 들지 않는 대비천제(大悲闍提) 또는 보살천제(菩薩闍提)로 나눈다. 또 『대장엄론경』에서는 부처님의 힘을 빌어 끝내는 성불하는 유성천제(有性闍提)와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무성천제(無性闍提)의 둘로 나눈다.

- 218) “대혜여, 일천제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모든 선근(善根)을 불사른 것이요, 둘째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중생계(衆生界)를 다 없앨 원을 가진 것이다. 대혜여, 어떤 것을 모든 선근을 불태워 없애는 것이라 하는가? 이는 보살장(菩薩藏)을 비방함이니, 그가 이런 말을 하기를, ‘저 법은 수다라(修多羅)와 비니(毘尼)와 해탈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모든 선근(善根)을 버리니, 이런 까닭에 열반을 얻지 못한다. (『入楞伽經』 권2 大16 p.527b2~7. 大慧, 一闍提者有二種, 何等爲二? 一者焚燒一切善根, 二者憐愍一切衆生, 作盡一切衆生界願, 大慧, 云何焚燒一切善根? 謂謗菩薩藏作如是言, 彼非隨順修多羅毘尼解脫說, 捨諸善根, 是故不得涅槃.)
- 219) 무성유정(無姓有情): 5성(性)의 하나. 불성(佛性)이 온전히 없어서 영원히 불과(佛果)를 얻거나 성문·연각이 되지 못하고, 생사의 세계에 윤회하며 오계·십선을 닦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극과(極果)로 삼는다.
- 220) 『양섭론(梁攝論)』: 『섭대승론(攝大乘論)』. 양(梁)나라 진제가 번역하였으므로 『양섭론』이라고 한다.
- 221) 『섭대승론석』에는 법에는 방편승(方便乘)과 정승(正乘)이 있는데, 방편승을 고쳐 정승이 되게 하므로 승을 구제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15 大31 p.264c25~26. 法有方便乘法有正乘法, 轉方便乘修治正乘故, 名救濟乘.) 『섭대승론』에는 제불의 법계에서 어느 때든 오업(五業)을 짓는다고 하였는데, 그 오업은 ①일체 유정의 재난을 구제하는 업, ②악취를 구제하는 업, ③방편이 아닌 것을 구제하는 업, ④아집이 있는 중생의 신견(身見)을 구제하는 업, ⑤승을 구제하는

은 성문은 거기에 편안히 설 수 있으니, 대승을 수행하기 때문이다.”<sup>223)</sup>라고 하였다.

『섭대승론』에서는, “만일 신(信)등 다섯 가지의 근[五根]<sup>224)</sup>을 얻었다 해도 결정된 근이라고 하지 않으니 아직 성도(聖道)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알지 못하지만 알고자 하는 근[未知欲知根] 등의 세 가지 근[三根]<sup>225)</sup>을 얻었다면 근기가 정해졌다고 하니 성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정위(頂位)<sup>226)</sup>에 이르면 성(性)이 정해졌다고 하지 않으니 네 가지 악도(惡

업이다. ⑤승을 구제한다는 것은 보살도에서 물러나 수행하는 이와 배회하는 대소승의 중성이 정해지지 않은 성문의 두 부류를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222) 『섭대승론』 권3 大31 p.131c27~28.

223) 『섭대승론』 권3 大31 p.131c27~29. 五救濟乘爲業, 諸菩薩欲偏行別乘, 未定根性聲聞能安立彼爲修行大乘故.

224) 오근(五根): 신근(信根)·진근(進根)·염근(念根)·정근(定根)·혜근(慧根) 등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다섯 가지의 근원을 말한다.

225) 삼근(三根): 삼무루근(三無漏根), ① 알지 못한 사제(四諦)를 알려고 하는 근[未知當知根, ⑤anājñātājñāsyām indriya, 未知欲知根이라고도 함], ② 이미 사제를 알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번뇌를 끊기 위해 사제를 익히는 근[已知根, ⑥ājñendriya, 知根이라고도 함], ③ 사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앎을 갖추고 있는 근[具知根, ⑦ājñātāvindriya, 知已根 또는 無知根이라고도 함]을 말한다.

226) 정위(頂位): ① 난위(援位)·정위·인위(忍位)·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의 사선근(四善根)의 둘째, 사제의 이치를 명확히 깨달은 것을 견도(見道)라고 하고, 이 견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가 사선근의 지위이다. 난위(Ṣuṣma-gata)는 햇빛의 따뜻한 성질에 비유하여 번뇌를 태우고 견도의 지혜에 접근하여 선근을 내는 것으로 사제를 관찰하고 16행상을 수행하여 유루의 관혜(觀慧)를 낸다. 이 지위에 이르면 선근을 끊거나 악업을 짓고 악취에 떨어지더라도 끝내는 성도를 얻어 열반에 들게 된다. 정위(Ṣmūrdhāna)는 범부의 지혜로써 사제를 관찰하고 16행상을 닦는 것은 난위와 같으면서도 여기서 다시 한 선근을 일으킨 위이니, 나아가면 다음의 인위에 들어가며, 물러나면 난위에 떨어지는 자리이다. 난위와 정위 둘 중에서 정위가 뛰어난 것이 사람의 머리와 같으므로 정위라 하고, 또 나아가고 물러나는 사이에 있는 것이 산꼭대기와 같다고 하여 정위라고 한다.

道)를 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인위(忍位)<sup>227)</sup>에 이르면 성(性)이 정해졌다고 하니 네 가지 악도를 면했기 때문이다. 만일 소승의 해석에 의하면 근기가 정해지지 않고 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승을 전변시켜 대승을 만들 수 있다. 만일 근성이 정해졌다면 전변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성문은 소승을 고쳐 대승으로 한다는 뜻이 없다. 어떤 것을 일승이라고 하는가? 지금 대승의 해석에 의하면 보살도를 오로지 닦지 않는 것을 모두 근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문이 소승을 전변하여 대승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대승과 소승의 사람을 편안히 세워 대승을 수행하게 한다.”<sup>228)</sup> 라고 하였다.

『대지도론』 권84에서 “네 가지 종류의 도(道)가 있으니 인천도(人天道)<sup>229)</sup>와 삼승도(三乘道)를 합하여 네 가지가 된다. 보살의 법은 중생을 인도하여 대도 가운데 두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대도에 들어간 사람은 삼승 가운데 두고, 만일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인도와 천도의 복된 즐거움 가운데 두어 열반의 인연을 만든다.”<sup>230)</sup> 라고 하였다.

② 유식에서 4선근의 체(體)가 되는 4정(定) 중의 명증정(明増定)에 의하여 상품의 심사관(尋伺觀)을 일으키고, 심사의 대상인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은 모두 자기 마음이 변해 나타난 것이므로 임시로 있는 것임을 미루어 생각하여 완전히 이 명(名) 등의 넷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유식에서는 난위에서는 명득정(明得定), 위에서는 명증정, 인위에서는 인순정(印順定), 세제일법위에서는 무간정(無間定)의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227) 인위(忍位) : 4체의 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 선근이 확실히 정해져서 다시는 동요하지 않아 악취에도 떨어지지 않는 자리. 인순정(印順定)에 의해 하품여실지(下品如實智)를 닦아 소취(所取)가 없는 곳에 정념(定念)을 이루고 능취(能取)가 없는 가운데 또한 정념(定念)을 즐긴다.

228) 『섭대승론석』 권15 大31 p.265a7~16.

229) 인천도(人天道) : 인천승(人天乘). 인간계(人間界)와 천도(天道). 오계를 행하여 인간에 태어나고, 십선을 행하여 천도에 태어나는 것을 설하는 세간의 가르침[世間敎]. 이는 불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의 교설이다.

또 『법화경론』에서 말하기를, “성문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결정성문(決定聲聞)<sup>231)</sup>, 둘째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sup>232)</sup>, 셋째 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sup>233)</sup>, 넷째 응화성문(應化聲聞)<sup>234)</sup>이다. 두 성문은 여래가 수기를 주니 응화성문과 퇴보리성문이다. 결정성문과 증상만성문은 근기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여래께서 수기를 주지 않으신다. 보살에게 수기를 준 것은 방편으로 발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sup>235)</sup>라고 하였다.

一眞諦等一類諸師，依法華等諸經及論，皆作此說。‘一切衆生皆有佛性’。故涅槃經第七卷云，“‘二十五有有我不耶？佛言，‘善男子，我者卽是如來藏義。一切衆生悉有佛性，卽是我

230) 『대지도론』 권84 大25 p.649a6~10.

231) 결정성문(決定聲聞) : 4종성문의 하나. 구습소성문(久習小聲聞)을 『법화경론』에서는 결정성문이라고 한다. 오랜 과거세부터 소승을 익히다가 금세에 도가 성숙하여 소승의 가르침을 듣고 소승의 증과(證果)를 깨달은 이를 말한다. 흔히 결정·증상만·퇴보리심·응화의 4종성문을 말하는데(『妙法蓮華經憂波提舍』 권하 大26 p.9a15~17.), 지의는 『법화문구(法華文句)』에서 1종을 더하여 구습소성문(久習小聲聞)·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응화성문(應化聲聞)·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대승성문(大乘聲聞)의 5종성문을 들었다.(『法華文句』 권4 大34 p.46a24~b14) 원측은 『유가사지론』을 들어 변화·증상만·회향보리(迴向菩提)·일향취적(一向趣寂)의 4종성문을 들고 그 의미를 풀이하였다.(『해심밀경소』 권4 韓1 p.263b4~24)

232)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 : 4종성문의 하나. 소승을 배우고 만족하게 여기며, 또 증득하지 못한 법을 증득하였다고 생각해서 높은 체 하는 성문을 말한다.

233) 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 : 4종성문의 하나. 『법화경론』에서는 퇴보리심성문. 퇴대성문(退大聲聞)이라고도 한다. 본래 대승을 익혀 수행하다가 후에 피로하여 생사를 싫어하고 대승에서 물러나 소승의 증과를 취한 이를 말한다.

234) 응화성문(應化聲聞) : 4종성문의 하나. 결정성문·퇴보리성문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불·보살이 안으로 대승의 덕을 숨기고, 밖으로 성문의 모양을 나타내어 대승의 도로 인도하는 이를 말한다.

235) 『묘법연화경우바제사』 권하 大26 p.9a15~20.

義.’”又第二十五云，“衆生佛性不一不異。諸佛平等 猶如虛空，一切衆生，同共有之。”〈此說理性〉又第二十七云，“師子吼者，名決定說。一切衆生，悉有佛性。”又云，“譬如有人，家有乳酪，有人問言，‘汝有蘇耶？’答言，‘我有。’酪實非蘇，以巧方便，定當得故，故言有蘇。衆生亦爾，悉皆有心，凡有心者，定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以是義故。我定說一切衆生悉有佛性。”〈此說行性〉又三十三云，“一切衆生，同有佛性，皆同一乘，同一解脫，一因一果，同一甘露，一切當得常樂我淨。是名一味。”〈通說理行〉

又法華經云，“十方佛土中，唯有一乘法。無二亦無三，除佛方便說。”又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又勝鬘經，“聲聞緣覺，皆入大乘。”又須眞天子所問經云，“文殊師利言，‘一切皆得審當作佛，卿莫疑也。所以者何？一切當得如來覺故’”廣說如彼。又入楞伽第二，明五乘性云，“闍提二種，一者焚燒一切善根，二者憐愍一切衆生，作盡願。二中從一定不成佛。”具說如彼。四卷楞伽第一卷說，言雖有異，意同前本，准此等經，無姓有情，亦得成佛。

又梁攝論第十五云，“五救濟乘爲業。”乃至彼云，“未定根性聲聞，能安立彼，爲修行大乘故。”釋曰，“乃至若得信等五根，不名定根，以未得聖故。若得未知欲知等三根，則名定根，以得聖故。若至頂位，不名定性，以不免四惡道故。若至忍位，名爲定性，以免四惡道故。若依小乘解，未得定根性，則<sup>236)</sup>轉小爲大，若得定根性，則不可轉。如此聲聞，無有改小爲大義。云何<sup>237)</sup>說

236) 『섭대승론석』에는 ‘可’ 추가(大31 p.265a12)



一乘? 今依大乘解, 未專修菩薩道, 悉名未定根性. 故一切聲聞, 皆有可轉小爲大義. 安立如此大小乘人, 令修行大乘.” 智度論八十四云, “有四種道, 人天道並三乘道爲四. 菩薩法應引導衆生著大道中. 若爾任入大道者, 著三乘中, 若不任入涅槃者, 著人天福樂中, 作涅槃因緣.” 又法華論云, “聲聞有四種, 一者決定, 二者增上慢, 三者退菩提, 四者應化聲聞. 二種聲聞, 如來與授記, 謂應化聲聞, 退已還發菩提心者. 決定增上二種聲聞, 根未熟故, 如來不與授記. 菩薩與授記者, 方便令發心故.”

이러한 글에 의하면<sup>238)</sup> 무성유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고, 성(性)이 정해진 성문과 독각이 반드시 성불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심밀해탈경』과 『유가사지론』 등에서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기가 익지 않은 때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지 반드시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성론(寶性論)』<sup>239)</sup> 제2권에서 말하기를, “‘일천제는 항상 열반에 들지 못하여 열반의 성(性)이 없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대승의 인(因)을 비방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함이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에 의한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다. 그가 실제로 청정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항상 끝내 청정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240)</sup>라고 하였다.

237) 『섭대승론석』에는 ‘得’ 추가(大31 p.265a13)

238) 이 단락의 원문은 『해심밀경소』 권4 韓1 p.257a6~c7.

239) 『보성론(寶性論)』: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의 약칭. 여래장(如來藏) 사상을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논서 중 하나이다. 후위(後魏)의 녹나마제(勒那摩提)가 한역하였다.

240) 『구경일승보성론』 권3 大31 p.831b8~9. 以無餘依涅槃界中, 遠離一切發起事業, 一切功用皆悉止息.

묻는다. 『유가론』 제80권<sup>241)</sup>에 의하면 “무여의(無餘依)열반의 세계 가운데서 향해 가려는 사업을 멀리 떠나 일체의 공용(功用)<sup>242)</sup>이 모두 그쳤다”라고 하였다. 만일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결정성문도 또한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니, 저 『유가론』의 말을 어떻게 합쳐 해석해야 하는가?

답한다. 『법화경』 제3권에 의하면 “내가 멸도한 후에 다시 어떤 제자가 이경을 듣지 않고 보살행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려는 생각을 낼 것이다. ‘마땅히 열반에 들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부처가 되어 다른 이름을 가질 것이다.’ 이 사람은 비록 멸도의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더라도 저 국토에서 부처의 지혜를 구할 것이다.”<sup>243)</sup>라고 하였다.

『대지도론』 제93권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다.

또 『열반경』 제23권에는 “성문과 독각의 8만·6만·4만·2만·1만이 사는 곳을 열반이라 한다. 위없는 법주(法主)인 성왕이 사는 곳이라야 대반열반이라는 이름을 얻는다.”<sup>244)</sup>라고 하였다.

또 『능가경』 제4송에는

“비유하면 바다에 뜬 나무가 파도에 따라 움직이듯이

모든 성문들도 그와 같아 상의 바람에 쓸려다니네

모든 수번뇌(隨煩惱)<sup>245)</sup>와 훈습<sup>246)</sup>과 번뇌의 얽매임 벗어나

241) 『유가사지론』 권80 大30 p.749a5~9.

242) 공용(功用): 신·구·의로 짓는 동작·말·생각 등.

243) 『묘법연화경』 권3 大9 p.25c14~17.

244) 『대반열반경』 권23 大12 p.502b27~29.

245) 수번뇌(隨煩惱): ①Upakleśā. 근본번뇌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번뇌. 수혹(隨惑)·지말혹(枝末惑)이라고도 한다. 『구사론』에는 수번뇌에 2종이 있다고 하여 ①마음에 따라 일어나 유정을 어지럽히는 일체의 번뇌와 ②근본번뇌에 따라 일어나는 기타 번뇌로 나누어 모두 19종을 들어 총괄하여 ①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 ②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 ③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으로 분류한다. 『성유식

삼매의 즐거움에 맛들여 무루 세계에 편히 머무네  
구경의 갈 곳이 없고 또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  
여러 삼매의 몸을 얻어 무량한 겁 동안 깨어나지 않네  
비유하면 술에 가득 취한 사람이 술기운이 사라져야 깨어나듯이  
부처의 위없는 몸을 얻으면 이것이 내 참 법신이니<sup>247)</sup>  
라고 하였다. 제2도 이 뜻과 같다.

또 『법화론(法華論)』에는 “실제는 없으나 있다고 하는 증상만심이다. 세간의 삼마발제(三摩跋提)는 있고 실로 열반은 없는데 열반이라는 생각을 낸다. 이것을 대치하기 위하여 화성의 비유[化城喻]<sup>248)</sup>를 설하였음을 알아

---

론』에서는 수번뇌는 근본번뇌의 6대혹 이외의 20종 법을 들고 이를 셋으로 분류하여 ①소수번뇌(小隨煩惱) ②중수번뇌(中隨煩惱) ③대수번뇌(大隨煩惱)의 3수번뇌를 말한다. 유식에서 일체제법을 분류한 5위100법에 수번뇌 부문이 있다. 제2 심소법(心所法)이 51종인데, 수번뇌는 그중 성냄[忿]·원망[恨]·위선[覆]·괴로움[惱]·시기[嫉]·아낌[慳]·속임[誑]·아첨[諂]·해침[害]·거만함[驕]·부끄러워하지 않음[無慚]·늑우치지 않음[無愧]·들뜸[掉舉]·어지러움[惽沈]·불신(不信)·게으름[懈怠]·멋대로 함[放逸]·기억하지 못함[失念]·산란(散亂)·바르게 알지 못함[不正知]의 20가지를 말한다.

246) 훈습(薰習): ㉔vāsanā. 향기가 사람의 옷에 배듯이, 염정미오(染淨迷悟)의 모든 법, 특히 사람들의 신·구·의 3업의 세력이 우리의 심식 작용에 배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경량부에서는 물질과 마음이 서로 훈습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유식에서는 훈습하는 법을 현행(現行), 훈습을 받는 법을 마음이라 하고, 훈습되는 마음에 훈습하는 작용이 남아 있는 습관 등은 종자라고 한다.

247) 『입능가경』 권4 大16 p.540b1~8.

248) 화성유(化城喻): 『법화경』 권3 「화성유품(化城喻品)」에 나오는 가짜 성의 비유. 사람들이 홀룡한 길잡이를 따라 5백유순의 험난한 길을 지나 보물이 있는 성에 가는데, 도중에 사람들이 지쳐 돌아가려 하자 길잡이가 묘술로 가짜 성을 보여 주고 사람들을 충분히 쉬게 한 다음 길을 떠나 보물성까지 무사히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이다. 길잡이는 부처님, 가짜 성은 방편으로 시설한 삼승, 보물성은 일불승을 의미한다.

야 한다.”<sup>249)</sup>라고 하였다.

또 “네번째 사람이란 방편으로 열반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열반성이란 모든 선삼매성(禪三昧城)이니 저 성을 지나고 나서 대열반성에 들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sup>250)</sup>라고 하였다.

이들 글에 따르면 『유가론』에서 말한 무여열반은 곧 저 『능가경』에서 말한 삼매락정(三昧樂定)이다. 분단생사(分段生死)<sup>251)</sup>를 떠났기 때문에 무여라고 하지만 실은 무여가 아니니 변역생사(變易生死)<sup>252)</sup>가 있기 때문이다. 『승만경』에는 무여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경에서 “이 때문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유여(有餘)이니 생한 법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생함이 있으면 유여이니 범행(梵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순수하지 못한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이 있으며, 피안에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끊을 것이 있으며, 끊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계에서 멀다. 나아가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방편으로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느니라.”<sup>253)</sup>라고 하였다.

---

249) 『묘법연화경우바제사』 권2 大26 p.8b15~17. 四者實無謂有增上慢心. 以有世間三昧三摩跋提, 實無涅槃生涅槃想, 如是倒取, 對治此故爲說化城譬喻應知.

250) 『묘법연화경우바제사』 권2 大26 p.8c3~5. 第四人者, 方便令入涅槃城故. 涅槃城者, 所謂諸禪三昧城故. 過彼城已, 然後令入大涅槃城故.

251) 분단생사(分段生死): 변역생사와 함께 2종생사의 하나. 유위(有爲)생사라고도 함. 욕도에 윤회하는 중생의 생사. 분단은 분한(分限)과 형단(形段)의 의미. 과보의 다름에 따라 형태와 수명 등에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범부의 각자의 업인을 따라 신체가 크고 작은 형단이 있고 목숨에 길고 짧은 분한이 있어 분단이라 한다.

252) 변역생사(變易生死): 분단생사와 함께 2종생사의 하나. 무위(無爲)생사라고도 함. 아라한·벽지불·보살이 세상에 나서 번뇌를 끊고 성불하기까지 받는 생사. 이 과보를 받는 몸은 무루(無漏)의 비원력(悲願力)이 본래의 분단생사의 몸을 고쳐 형태나 수명 등에 정해짐이 없는 세밀하고 신묘한 몸으로 변화시킨 것이므로 변역이라 한다.

253)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大12 p.219c1~9.

이에 의하면 8만 겁 등이 삼매의 즐거움에 든다는 것은 거짓으로 무여라 한 것으로, 실은 몸과 지혜가 모두 무여열반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그러나 수다원(須陀洹)<sup>254</sup> 등은 본래부터 그렇게 이름한 것으로 실은 무학(無學)이다〉

그러므로 이승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경에서 실은 일승을 설하면서 거짓으로 이승을 설한 것이다.

准此等文，決定無有無性有情，亦無定性聲聞獨覺必不成佛。而深密經及瑜伽等，定不成者，約根未熟，時分而說，非謂決定不成佛也。故實性論第二卷云，“‘向說一闍提常不入涅槃，無涅槃性者，此義云何？’爲欲示現謗大乘因故。乃至依無量時，故如是說，以彼實有清淨性故，不得說言彼常畢竟無清淨心。”問，依瑜伽第八十云，“於無餘依涅槃界中，遠離一切發趣事業，一切功用皆悉止息。”若如上說，決定聲聞，亦得成佛，彼瑜伽文，如何會釋？答，依法華第三卷云，我滅度後，復有弟子，不聞是經，不知不覺菩薩所行，自於所得功德，生滅度想，入於涅槃，我於餘國作佛，更有異名，是人雖生滅度之想入於涅槃，而於彼土，求佛智慧，大智論第九十三，亦同此說。又涅槃經二十三云，聲聞獨覺，八萬六萬四萬二萬一萬住處，名爲涅槃，無上法主聖王住處，乃得名爲大般涅槃。又楞伽第四頌云，“譬如海浮木 當隨波浪轉 諸聲聞亦爾 相風所漂蕩 離諸隨煩

---

是故阿羅漢辟支佛，有餘生法不盡故，有生有餘梵行不成故，不純事不究竟故，當有所作，不度彼故，當有所斷，以不斷故，去涅槃界遠，何以故，唯有如來應正等覺得般涅槃，成就一切功德故。阿羅漢辟支佛，不成就一切功德。言得涅槃者，是佛方便，唯有如來得般涅槃，成就無量功德故，阿羅漢辟支佛，成就有量功德。

254) 수다원(須陀洹) : ㉠srota-āpanna, 성문4과(聲聞四果) 중의 최초의 과(果). 구역에서는 입류(入流) 등으로, 신역(新譯)에서는 예류(預流) 등으로 한역한다. 견惑(見惑)을 모두 끊어 처음으로 성위(聖位)에 들어가는 지위이다.

惱薰習煩惱縛 味著三昧樂 安住無漏界

無有究竟趣 亦復不退還 得諸三昧身 無量劫不覺 譬如昏醉人  
酒消然後寤 得佛無上體 是我眞法身”

第二<sup>255)</sup>亦同此意. 又法華論云, “實無而有增上慢人, 以有世間三摩跋提實無涅槃, 而生涅槃想. 對治此故, 說化城譬喻應知.” 又云, “第四人者, 方便令入涅槃城故. 涅槃城者, 諸禪三昧城, 過彼城已, 令入大般涅槃城故.” 准此等文, 瑜伽所說, 無餘涅槃, 卽彼楞伽所說三昧樂定, 離分段故, 名爲無餘, 非實無餘, 有變易故, 勝鬘經說無無餘. 故彼經云, “是故阿羅漢辟支佛有餘, 生法不盡故. 有生有餘, 梵行成故. 不純事, 不究竟故. 當有所作, 不度彼故. 當有所斷, 以不斷故. 去涅槃界遠, 乃至言得涅槃者, 是佛方便, 唯有如來得般涅槃. 准此應知, 八萬劫等, 入三昧樂, 假名無餘, 無實身智俱滅無餘涅槃.〈然須陀洹等者從本爲名實是無學〉是故二乘定得成佛, 由此諸經, 實說一乘, 假說二乘.

둘째<sup>256)</sup>, 현장 삼장 등은 여러 경론에 의거하여 오성(五姓)을 세웠으니, 무성유정(無姓有情)은 열반성이 없고 정성이승은 기필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계경(善戒經)』<sup>257)</sup> 제1권에서 “만약 보살성이 없으면 비록 발

255) 원문의 第二第二는 第二가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되어 第二로 교감함

256) 이 단락의 원문은 『해심밀경소』 권4 韓1 pp.257c7~258c17.

257) 『선계경(善戒經)』: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9권. 유송 구나발마역. 『보살지지경』의 동본이역이라고도 한다. 보살의 종성(種姓)·발심·수행·득과(得果)·본유종자(本有種子)와 신흠종자(新薰種子) 등을 설하였다. 유식 10대논사의 중자

심하여 부지런히 닦아 정진해도 끝내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지 못한다.”<sup>258)</sup>고 하였다.

또 『지지경(地持經)』<sup>259)</sup> 제1권에는 “중성인(種姓人)이 아니면 중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발심하여 부지런히 닦아도 결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구경에 이르지 못한다.”<sup>260)</sup>고 하였다.

『유가론(瑜伽論)』 제35권도 『지지론』과 같은데, 또 이 경에서는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sup>261)</sup> 중성인 보특가라(補特伽羅)<sup>262)</sup>는 비록 여러 부처님께서 만든 갖가지 용명한 가행(加行)<sup>263)</sup> 방편과 교화에 힘입더라도 끝내

설에서 본유와 신熏설을 논할 때 규기는 이 경문으로 해석하였다.

258)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권1 大30 p.962c4~5.

259) 『지지경(地持經)』: ㉔Bodhisattva-bhūmi, 『지지론(地持論)』이라고도 한다. 10권. 북량 담무참 역. 경이라고 이름했지만 논에 속한다. 미륵의 설법을 무착이 기록했다고 전한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본지품(本地分)」 중의 보살지(菩薩地)와 동본이나 그중에 「발정등보리심품(發正等菩提心品)」이 누락되었다. 대승 보살의 수행 방편을 초방편처(初方便處)·차법방편처(次法方便處)·필경방편처(畢竟方便處)의 세 부분으로 상세히 설한 것이다.

260)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권1 大30 p.888a23~25.

261)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 2중성문 또는 4중성문의 하나. 『해심밀경』에서는 일향취적성문과 회향보리(迴向菩提)성문의 2중성문을 들었고, 세친의 『법화경론』에서는 결정(決定)·증상만(增上慢)·퇴보리심(退菩提心)·응화(應化)성문의 4중성문을 들었다. 그 첫째인 결정성문(決定聲聞)이 일향취적성문이다. 오랜 과거세부터 소승을 익히다가 금세에 도가 성숙하여 소승의 가르침을 듣고 소승의 증과(證果)를 깨달은 이를 말한다.

262) 보특가라(補特伽羅): ㉔pudgala, 인(人)·중생(衆生)·수취처(數取趣)·중수자(衆數者) 등으로 번역한다. 태어나서 죽어가는 주체를 말한다. 외도의 16지건 가운데의 하나로 아(我)의 다른 이름이라 한다. 무아(無我)를 말하는 불교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주체로서의 보특가라(승의 보특가라)가 실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편의상 사람을 거짓 보특가라(세속의 보특가라)라고 부르는데 불교하다고 한다. 부파불교의 독자부·정량부·경량부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263) 가행(加行): ㉔prayoga, 구역의 방편(方便), 공용(功用)을 더하여 행한다는 뜻. 정

도량에 앉아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게 하지 못한다.”<sup>264)</sup>라고 하였다.

또 『심밀해탈경(深密解脫經)』 제2권에는 “첫째 가는 적멸을 성취한 성문의 사람은 일체 모든 부처께서 힘을 다해 교화하시더라도 그를 도량에 앉혀 위없는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하니, 나는 그를 적멸(寂滅)성문이라 설하여 이름한다.”<sup>265)</sup>고 하였다.

또 『대보살장경(大菩薩藏經)』 제5권에는 “정정(正定)<sup>266)</sup>의 중생은 정법의 그릇이므로, 여래께서 설법을 하시거나 설법을 하시지 않거나 모두 해탈을 얻는다. 사정(邪定)의 중생은 정법의 그릇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거나 설법하시지 않거나 끝내 해탈을 증득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래께서는 그 유정이 법의 그릇이 아님을 여실히 아시고는 곧 버린다.”<sup>267)</sup>고 하였다.

---

행(正行)에 대한 준비가 되는 수행으로서 선천적으로 구비한 것을 뜻하는 생득(生得)에 대비되어 쓰인다.

264) 『해심밀경』 권2 대16 p.695a22~25. 若一向趣寂聲聞種性補特伽羅，雖蒙諸佛施設種種勇猛加行方便化導，終不能令當坐道場證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265) 『심밀해탈경』 권2 대16 p.671c20~22. 成就第一義，寂滅聲聞性人，一切諸佛盡力教化，不能令其坐於道場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266) 정정(正定) : 중생을 3종으로 구분한 삼취(三聚) 또는 삼정취(三定聚)의 하나. 정성정취(正性定趣) · 사성정취(邪性定趣) · 부정성취(不定性趣), 또는 정정(正定) · 사정(邪定) · 부정(不定). 『구사론』에서는 견도(見道) 이후의 성자는 견혹(見惑) 등을 끊고 택멸 곧 열반이 결정된 것이므로 정성정취이고, 5무간업을 범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성정취이며, 그 이외에는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부정성취라고 한다.

267) 『대보적경』 권38 「보살장회(菩薩藏會)」 대11 p.219c8~11. 舍利子，云何名爲正定之性。謂由因力先世方便，開智利根之所生故，若諸如來爲彼說法，若不說法，如來如實知彼有情前世因果堪任法器，隨應說法令速解脫。；p.219c16~21. 舍利子，云何名爲邪定之性。謂有情性煩惱所蔽不修淨業，識性薄弱愚癡深厚，住邪見網非法器，若使如來爲彼說法，若不說法，終不堪任證於解脫，如來如實知彼有情非法器已而便捨置。 이 두 인용문 사이에 부정성(不定性)의 글이 있다.



『앙굴마라경(央掘摩羅經)』 제3권에는 “삼취(三聚)<sup>268)</sup> 중생의 구별은 곧 성문승이요, 대승은 이취 뿐이니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사정(邪定)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일천제를 말하며, 정정(正定)은 여래와 보살과 이승을 말한다.”<sup>269)</sup> 고 하였다.

또 『선계경(善戒經)』 제3권에는 “중생을 다스림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문성이 있는 자는 성문도를 얻는다. 둘째는 연각성이 있는 자는 연각도를 얻는다. 셋째는 불성이 있는 자는 곧 불도를 얻는다. 넷째는 인천성(人天性)이 있는 자는 인천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를 넷이라 이름한다.”<sup>270)</sup> 고 하였다.

『승만경(勝鬘經)』에는 “또 대지가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다. 무엇이 넷인가? 첫째는 큰 바다요, 둘째는 여러 산이요, 셋째는 초목이요, 넷째는 중생이다. 이와 같이 바른 법을 받은 선남자 선여인이 대지를 건립하여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대지에 비유한 것이니, 무엇이 넷인가? 선지식을 떠나서 들은 것이 없는 범답지 않은 중생은 인천의 선근으로 성취하게 하고, 성문을 구하는 자는 성문승을 주고, 연각을 구하는 자는 연각승을 주고, 대승을 구하는 자는 대승을 준다.”<sup>271)</sup> 고 하였다.

또 『대반야경』 제593권에는 “만일 중생의 무리로서 성문승의 성품이 결

268) 삼취(三聚): 중생의 부류를 셋으로 나눈 정정취(正定聚)·사정취(邪定聚)·부정취(不定聚). 주 266) 참조.

269) 『앙굴마라경』 권2 대2 p.529c7~8. 可治不可治 唯二無有三 若作三分別 亦是聲聞乘.; p.529c11~12. 所言邪定者 謂彼一闍提 正定謂如來 菩薩及二乘.

270) 『보살선계경』 권3 대30 p.974a19~23. 衆生調伏者有四種. 一者有聲聞性得聲聞道. 二者有緣覺性得緣覺道. 三者有佛性得佛道. 四者有人天性得人天樂. 是名爲四. 是名衆生調伏.

271)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대12 p.218b7~14.

정된 자는 이 법을 들으면 빨리 스스로의 무루지(無漏智)를 증득할 것이며, 독각승의 성품이 결정된 자는 이 법을 들으면 빨리 자신의 승(乘)에 의하여 미혹에서 벗어날<sup>272)</sup> 것이며, 무상승(無上乘)<sup>273)</sup>의 성품이 결정된 자는 이 법을 들으면 빨리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며, 만일 중생이 정성이생(定性離生)<sup>274)</sup>에 깨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삼승에서 결정되지 않는 자는 이 법을 들으면 다 위없는 정등각의 마음을 낼 것이다.”<sup>275)</sup>고 하였다.

『십륜경(十輪經)』 제9권의 뜻도 『대반야경』과 같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제2권에 의하면 “사람을 성취시키는 것에 대략 네 가지가 있다. 성문의 종성은 성문승으로 성취시킨다. 연각의 종성은 연각승으로 성취시킨다. 부처의 종성은 위없는 대승으로 성취시킨다. 종성이 없는 사람은 선취(善趣)<sup>276)</sup>로 성취시킨다.”<sup>277)</sup>라고 하였다.

『유가론(瑜伽論)』 제37권도 『보살지지경』과 같다.

또 『유가론(瑜伽論)』 제2권에는 “열반의 법이 없는 자는 곧 삼승의 보리종자가 없다.”<sup>278)</sup>고 하였고, 또 『유가론』 제67권에는 “중성이 없는 데에 머

272) 출리(出離)는 생사의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함.

273) 무상승(無上乘): 위가 없는 최고의 가르침, 곧 대승을 말함.

274) 정성이생(定性離生): 견도위(見道位)를 가리킴. 견도(見道, 見性)를 하면 번뇌를 여의고 열반에 드는 일이 결정되는 정성결정(定性決定)의 지위에 이름을 말함.

275)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93 대7 p.1066a29~b6. 若有情類於聲聞乘性決定者, 聞此法已, 速能證得自無漏地. 若有情類於獨覺乘性決定者, 聞此法已, 速依自乘而得出離. 若有情類於無上乘性決定者, 聞此法已, 速證無上正等菩提. 若有情類雖未入正性離生, 而於三乘性不定者, 聞此法已, 皆發無上正等覺心.

276) 선취(善趣): 좋은 업인(業因)에 의한 과보(果報)로 중생이 태어나는 곳. 천상과 인간의 이취(二趣), 또는 아수라를 더한 삼취(三趣, 三善道)를 말한다.

277) 『보살지지경』 권3 大30 p.900a16~20. 人成熟者, 略說四種. 有聲聞種性, 以聲聞乘而成熟之. 有緣覺種性, 以緣覺乘而成熟之. 有佛種性, 以無上乘而成熟之. 無種性者, 則以善趣而成熟之.

무는 사람은 이를 반열반<sup>279)</sup>법이 없는 필경(畢竟)<sup>280)</sup>이라고 이름한다.”<sup>281)</sup>라고 하고 자세히 설하였다. 또 『유가론』 제52권에는 “만일 진여의 인식 대상[所緣]을 통달한 인연 가운데에 필경의 장애의 종자가 있으면 반열반에 들지 않음을 건립하는 중성의 보특가라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반열반에 드는 법을 건립하는 중성의 보특가라이다.”<sup>282)</sup>라고 하였다.

또 『장엄론(莊嚴論)』 제1권에는 “무성(無性)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시변(時邊)<sup>283)</sup>의 무반열반법이고, 둘째는 필경(畢竟)의 무반열반법이다. 시변의 무반열반법에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한결같이 악행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선법(善法)을 두루 끊는 것이며, 셋째는 해탈분(解脫分)의 선근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선인(善因)이 적어 다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필경의 무열반법이란 인(因)이 없기 때문에 반열반의 성품이 없어 단지 생사만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sup>284)</sup>라고 하였다.

278) 『유가사지론』 권2 大30 p.284b1~2. 不般涅槃法者, 便闕三種菩提種子.

279) 반열반: ①parinirvāṇa. 원적(圓寂). 열반과 같은 뜻. 영원히 일체의 번뇌와 재난을 끊은 경지.

280) 필경(畢竟): ①ātyantika. 아전저가(阿顛底迦)로 음역. 무성유정(無性有情)의 하나. 끝내 성불하지 못하는 성품의 뜻이다. ②icchantika의 동류어로서 일천제의 다른 이름으로도 쓰인다.

281) 『유가사지론』 권67 大30 p.669b9~10. 住無種性補特伽羅, 是名畢竟無般涅槃法.

282) 『유가사지론』 권52 大30 p.589a22~24.

283) 시변(時邊):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주요(成唯識論掌中樞要)』에서 잠시로 해석하였다. (권상 大43 p.610c13~16. 此中時邊應云暫時, 梵云涅槃阿波利囉縛喃達磨涅槃者暫也, 迦羅時也, 阿名無也, 波利圓也, 囉縛喃寂也, 達磨法也, 則暫時無圓寂法.) 정관은 『화엄경소』에서 시변을 잠시의 의미로, 필경을 영원히의 뜻으로 해석하여 무성중성의 두 종류를 풀이하였다.(권2 大35 p.511c17~19. 莊嚴第五, 無性亦有二種. 一是時邊, 二者畢竟時邊, 謂暫時之無, 卽前闍提, 畢竟謂永無, 卽大悲菩薩.)

284)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권1 大31 p.595a24~29. 無般涅槃法者, 是無性位. 此略有二種. 一者時邊般涅槃法, 二者畢竟無涅槃法. 時邊般涅槃法者有四種人.

또 양『섭대승론』 제14권에는 “저 장애는 인을 갖추지 않아 일체 중생 세 계가 두 가지의 결정에 머물러 여러 부처님께서 자재함이 없다.”<sup>285)</sup>라고 하였고, 천천이 이를 해석하여 “중생에게 열반의 성품이 없는 것을 인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러 부처님도 이 지위에서 반열반에 들게 하지 못하며 신통력도 자재하지 못해 사람들은 생사를 탐내고 집착하여 대승을 믿고 좋아하지 않는다.”<sup>286)</sup>라고 하였다.

또 당『섭대승론』<sup>287)</sup>에는 “유정의 세계는 모두 장애를 갖추고 인이 없어서 두 가지 결정으로 전변하여(업을 짓고 과를 받는 두 가지 결정이다) 여러 부처님들은 자재함이 없다.”<sup>288)</sup>라고 하였고,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10권에는 “만일 모든 유정의 세계에 열반법이 없다면 그것을 인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뜻은 그들이 열반의 인이 없고 중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자재함이 없다는 것이다.”<sup>289)</sup>라고 하였다.

또 『대업론(大業論)』<sup>290)</sup>도 이 뜻과 같다.

---

一者一向行惡行, 二者普斷諸善法, 三者無解脫分善根, 四者善根不具足, 畢竟無涅槃法者無因故, 彼無般涅槃性, 此謂但求生死不樂涅槃人.

285) 『섭대승론』 권3 大31 p.131b18~19.

286) 『섭대승론석』 권14 大31 p.261c17~20. 若衆生無涅槃性, 名因不具. 諸佛於此位中, 不能令彼般涅槃, 通慧亦無自在, 無涅槃性, 謂貪著生死不信樂大乘.

287) 당『섭대승론』: 진제가 번역한 『섭대승론』을 양섭론(梁攝論)이라 하는데 비해 현장이 번역한 『섭대승론』을 당섭론(唐攝論)이라 부른다.

288) 『섭대승론본』 권3 大31 p.150c24~25.

289) 『섭대승론석』 권10 大31 p.376b12~14.

290) 『대업론(大業論)』: 수 대업 연간에 달마금다(達摩笈多) 등이 번역한 『섭대승론석』을 말한다. 실제로 달마금다 등은 수 개황 10년(590)에 이를 번역했지만, 같은 수나라인 대업 연간(605~617년)으로 생각한 듯하다. 원측은 양본·대업본·당본을 비교 제시하였다.(『해심밀경소』 권4 韓1 p.259b8~10. 梁攝論…大業大唐二本攝論…) 원측이 인용한 『대업론』의 구절(『해심밀경소』 권6 韓1 p.306a8~9. 大業論云, 無有一法能取餘法.)이 『섭대승론석』의 구절과 같다.(『섭대승론석론』 권4 大

또 무성(無性)보살은 “번뇌의 업은 이숙(異熟)<sup>291)</sup>의 장애를 갖추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추었다고 한 것이고, 열반의 인이 없고 중성이 없기 때문에 인이 없다고 한 것이다. 여러 부처님께서 위에서 말한 유정들이 모두 열반을 얻게 할 자재함이 없다.”<sup>292)</sup>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저 글과 같다.

『불지경론(佛地經論)』에 의하면 다섯 가지 중성이 있는데, 그 뜻은 일반의 설과 같다.<sup>293)</sup>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제5중성은 세간을 벗어날 공덕이 없기 때문에 끝내 멸도(滅度)<sup>294)</sup>할 기약이 없다.”<sup>295)</sup>라고 하였다.

또 『십지경론』 제11권에 “사정취(邪定聚)란 반열반의 성품이 없는 것을 말한다.”<sup>296)</sup>라고 하였다.

二者，大唐三藏，依諸經論，立有五姓。無姓有情無涅槃性，定性二乘必不成佛。故善戒經第一卷云，“若無菩薩性，雖復發心勤修精進，終不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又地持論第一卷云，“非種姓人無種性故，雖復發心勤修精進，必不究竟阿耨菩

31 p.285b24~25. 彌勒，無有一法能取餘法。) 『섭대승론』에는 위본(불타선다역), 양본(진제역), 당본(현장역)의 3종이 있고, 『섭대승론석』은 세친석은 양본(진제), 수본(달마급다 등), 당본(현장)의 3종이 있으며, 무성석은 현장의 번역뿐이다.

291) 이숙(異熟) : vipāka, 과보(果報)라고도 번역한다. 선 또는 악의 업인에 의해 이 오는 성질이 다른 무기(無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의 결과를 내는 것, 또는 그 결과.

292) 『섭대승론석』 권10 대31 p.445b5~8. 有情界周遍具障而闕因者，謂具煩惱業異熟障故名具障。猛利煩惱諸無間業愚癡頑瞋如其次第，無涅槃因無種性故，名爲闕因。

293) 『불지경론』 권2 대26 p.298a13~15. 一聲聞種性，二獨覺種性，三如來種性，四不定種性，五無有出世功德種性。

294) 멸도(滅度) : 열반의 다른 말. 생사를 없애 번뇌의 바다를 건넜다는 의미.

295) 『불지경론』 권2 대26 p.298a17~18. 第五種性無有出世功德因故，畢竟無有得滅度期。

296) 『십지경론』에서 이 구절은 찾을 수 없다. 유사한 내용으로 『십지경론』 권11 대26 p.189a18021. 衆生三聚行稠林差別有五種。一有涅槃法無涅槃法三乘中一向定差別，如經是菩薩如實知衆生三聚正定相邪定相離此二不定相故。 정도를 볼 수 있다.

提。”瑜伽第三十五亦同地持。又此經云，“一向趣寂聲聞<sup>297)</sup>種姓補特伽羅，雖蒙諸佛施設種種勇猛加行方便化導，終不能令當坐道場證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又深密解脫經第二云，“成就第一義寂滅聲聞性人，一切諸佛盡力教化，不能令其坐於道場得無上菩提，我說名爲寂滅聲聞。”又大菩薩藏經第五卷云，“正定衆生，是正法器，如來說法，若不說法，皆得解脫。邪定衆生，非正法器，若使如來爲彼說法，若不說法，終不堪任證於解脫。如來如實知彼有情非法器已，而便棄捨。”央掘摩羅經第三卷云，“三聚衆生別，卽是聲聞乘，大乘唯二聚，可治不可治。所言邪定者謂彼一闍提，正定謂如來菩薩及二乘。”又善戒經第三卷云，“衆生調伏，有其四種。一者有聲聞性，得聲聞道。二緣覺性，得緣覺道。三有佛性，卽得佛道。四者有人天性，得人天樂。是名爲四。”勝鬘經云，又如大地，持四重擔，何等爲四？一者大海，二者諸山，三者草木，四者衆生。如是攝受正法善男子善女人，建立大地，堪能荷負四種重任，喻彼大地。何等爲四？謂離善知識無聞非法衆生，以人天善根而成就之，求聲聞者，授聲聞乘，求緣覺者，授緣覺乘，求大乘者，授以大乘。”又大般若五百九十三云，“若有情類，於聲聞乘性決定者，聞此法已，速能證得自無漏地。於獨覺乘性決定者，聞此法已，速依自乘而得出離。於無上乘性決定者，聞此法已，速證無上正等菩提。若有情類，雖未證入<sup>298)</sup>正性離生，而於三乘不定者，聞此法已，皆發無上正等覺心。”十輪經第九意同大般若。依菩

297) 『해심밀경』에 의해 一向趣寂靜聲聞을 一向趣寂聲聞으로 교감함

298) 『대반야경』에 의해 人을 入으로 교감함

薩地持第二卷云, “人成就者, 略記四種. 有聲聞種性, 以聲聞乘而成就之. 有緣覺種性, 以緣覺乘而成就之. 有佛種性, 以無上大乘而成就之. 無種性者, 則以善趣而成就之.” 瑜伽三十七亦同地持. 又瑜伽論第二卷云, “無涅槃法者, 便闕三乘菩提種子.” 又瑜伽六十七云, “住無種性人, 是名畢竟無般涅槃法.” 乃至廣說. 又五十二云, “若於通達真如所緣緣中, 有畢竟障種子, 建立不般涅槃種性補特伽羅. 若不爾者, 建立爲般涅槃法種性補特伽羅.” 又莊嚴論第一卷云, “無性有二, 一時邊無般涅槃, 二畢竟無般涅槃. 時邊無般涅槃法有四, 一者一向行惡行, 二者普斷諸善法, 三者無解脫分善根, 四者善因少不具足. 畢竟無涅槃法者, 以無因故, 無般涅槃性, 但求生死, 不求涅槃人.” 又梁朝攝論第十四云, “彼障因不具, 一切衆生界, 住二種定中, 諸佛無自在.” 天親釋曰, “衆生無涅槃性名因不具, 諸佛於此位中, 不能令般涅槃, 神通亦無自在, 諸貪著生死, 不信樂大乘.” 又大唐攝論云, “有情界周遍 具障而闕因 二種決定轉〈造業受果二種決定〉諸佛無自在.” 世親釋論第十卷云, “若諸有情界, 無涅槃法, 名爲闕因. 此意說彼無涅槃因無種姓故, 諸佛於彼無有自在.” 又大業論亦同此意. 又無性云, “謂具煩惱業異熟障故, 名具障, 無涅槃因無種姓故, 名爲闕因. 諸佛於上所說有情, 皆無自在令得涅槃.” 廣說如彼. 依佛地論, 有五種姓, 義如常說. 乃至彼云, “第五種姓無有出世功德因故, 畢竟無有減度之期.” 又十地論第十一云, “邪定聚名無般涅槃性.”

이러한 글들에 의하면<sup>299)</sup> 무성유정과 열반의 인이 없는 정성이승은 반드시 성불하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면 왜 일승을 설하며, 또 앞에서 인용한



가르침은 어떻게 합쳐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한다. 『열반경』에는 “선남자여, 아(我)란 곧 여래장이라는 뜻이다.”<sup>300)</sup>라고 하였고, 또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 (여래는)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다.”<sup>301)</sup>라고 하였다.

또 『보성론』 제1권에는 “묻는다. 어떻게 모든 중생에게 여래장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답한다. 일체 제불의 평등한 법성신(法性身)에 의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장을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2)</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글들은 모두 진여 법신이 불성이라는 것이니, 이는 곧 오성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열반경』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내지) 결정코 마땅히 얻기 때문이다.”<sup>303)</sup>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가르침은 모두 행성(行性)으로서 결정코 마땅히 얻기 때문에 부정성(不定姓)의 소분(少分)에 대해 말한 것이다.

또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외하면 시방의 불국토 중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고 둘도 없고 셋도 없다.”<sup>304)</sup>라고 하였는데, 이 경문을 해석 하는데 여러 견해가 다르다. 구마라집 등은 “둘이 없다고 한 것은 성문과 연각이 없다는 것이고, 셋이 없다는 것은 성문과 연각 그리고 대승 중에 육바라밀을 치우쳐 행하는 독선(獨善)보살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

299) 이 단락의 원문은 『해심밀경소』 권4 韓1 p.258c17~260b4.

300) 『대반열반경』 권7 大12 p.407b9.

301) 『대반열반경』 권27 大12 p.522c24. 一切衆生悉有佛性, 如來常住無有變易.

302) 『구경일승보성론』 권1 大31 p.813c23~28. 問曰°云何得知一切衆生有如來藏° 答曰°偈言°一切衆生界 不離諸佛智 以彼淨無垢 性體不二故 依一切諸佛 平等法性身 知一切衆生 皆有如來藏.

303) 『대반열반경』 권27 p.524c5~7. 善男子, 譬如有人家有乳酪, 有人問言, 汝有蘇耶? 答言, 我有酪實非蘇, 以巧方便定當得故. 故言有蘇.

304) 『묘법연화경』 권1 大9 p.8a17~18.



어떤 이는 “둘이 없다고 한 것은 두 번째 곧 연각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셋이 없다고 한 것은 세 번째 곧 성문승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이는 앞의 두 가지 해석은 오직 승(乘)에 의거하여 곧 불승(佛乘)이 극과성(極果性)이 있음을 본 것으로 일부러 깨뜨린 것은 아니다. 지금 이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것을 바로 판단하면 부처의 삼신으로 이 뜻을 드러내야 한다. 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오직 여래의 보신불(報身佛) 일승만 있고 저 성문과 연각의 이승은 없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승만경』에는 “성문과 연각승이 모두 대승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불승이다.”<sup>305)</sup>라고 하였다. 『법화경』에는 “이 하나만 사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sup>306)</sup>라고 하였다. 셋이 없다고 한 것은 오직 여래의 법신 일승만 있고 성문과 연각 그리고 부처의 삼승은 없다는 것이다. 『섭대승론』에는 “보살은 이지(二地)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생각을 낸다. 삼승 사람은 삼행(三行)<sup>307)</sup>의 차별이 있음을 말하니, 일승의 이치에 미혹하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sup>308)</sup>라고 하였다. 『법화경』에는 “오히려 이승이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는가?”<sup>309)</sup>라고 하였다. 『열반경』에는 “여래와 성문과 연각은 동일한 불성이요 동일한 무루(無漏)이다.”<sup>310)</sup>라고 하였는데, 앞은 둘을 깨뜨려 하

305)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 大12 p.222c19~20. 聲聞緣覺乘皆入大乘, 大乘者卽是佛乘.

306) 『묘법연화경』 권1 大9 p.8a21. 唯此一事實, 餘二則非眞.

307) 삼행(三行): ①신·구·의 삼업. ②복행(福行)은 십선 등의 복을 행하여 천상과 인간의 과를 부르는 것. 죄행(罪行)은 비복행(非福行)이라고도 하며 십악 등을 행하여 삼악도의 고통을 부르는 것. 부동행(不動行)은 무동행(無動行)이라고도 하며 유루의 선정을 닦아 색계·무색계의 과를 부르는 것.

308) 『섭대승론석』 권10 大31 p.221b22~24. 菩薩未入二地生如此想, 謂三乘人有三行差別, 迷一乘理故稱無明.

309) 『묘법연화경』 권1 大9 p.7b21~22.

310) 『대반열반경』 권10 大12 p.422c28~423a1. 聲聞緣覺菩薩亦爾, 同一佛性猶如彼

나에 돌아간 것이니 이는 소승을 깨뜨려 대승에 들어간 것이다. 뒤는 셋을 깨뜨려 하나에 돌아간 것이니 이는 사(事)를 없애 이(理)로 돌아간 것이다. 비록 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둘째 것이 바르다. 그래서 『법화경론』 끝에서 “제2 방편품은 둘을 깨뜨려 하나를 밝힘을 보인 것이다.”<sup>311)</sup>라고 하였다.〈혹은 어떤 책에는 셋을 깨뜨려 하나를 밝힌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 책 중에는 많은 책이 둘을 깨뜨려 하나를 밝힌다고 하였다〉

또 『화엄경』 제12권, 제28권, 제60권 등에는 모두 이승의 이름이 없다고 하였다. 또 『법화경』 제3권에는 “세간에는 이승이 멸도를 얻음이 없고, 오직 일불승만이 멸도를 얻는다.”<sup>312)</sup>라고 하였다. 또 “오직 일불승이 있어 식처(息處)이기 때문에 둘을 설한다.”<sup>313)</sup>고 하였다. 양 『섭대승론』에는 “신(信) 등의 5근은 정근(定根)이라고 하지 않는다.”<sup>314)</sup>라고 한 것 등은 대엽본이나 당본 두 가지 『섭대승론』에는 모두 이 말이 없다. 그래서 의거할 수 없다. 『대지도론』에 “만약 임의로 열반에 들지 못하는 자는 인천의 복락 중에 두어 열반 인연을 짓게 한다.”<sup>315)</sup>라고 한 것에서 인천의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끝내 열반성이 없는 것이니 다만 인천으로 성취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잠시 열반성이 없는 것이니 인천이 성취하여 열반의 인을 짓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가 있지만 저 논은 잠시 무성의 한쪽에만 의거하여 말한 것인데, 혹은 저 보살의 비원(悲願)으로 무여열반을 다함을 드러낸 것이지 모두가 열반에 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법화경론』에 “결

---

乳. 所以者何. 同盡漏故.

311) 『묘법연화경우바제사』 권2 大26 p.10b22~23, 第二方便品有五分示現破二明一.

312) 『묘법연화경』 권3 大9 p.25c22~23.

313) 『묘법연화경』 권3 大9 p.27b2.

314) 『섭대승론석』 권15 大31 p.265a7~8, 若得信等五根, 不名定根, 以未得聖故.

315) 『대지도론』 권84 大25 p.649a9~10.

정성문과 증상만성문의 두 가지 성문은 근기가 익지 못했기 때문에 수기를 주지 않음과 같고, 보살에게 수기를 주는 것은 방편으로 발심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sup>316)</sup>라고 한 것에서 보살이 성불의 수기를 주는 것은 그가 대승에서 신심을 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방편이지 실제로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법화경』에는 “이 사람은 비록 멸도의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부처의 지혜를 구한다.”<sup>317)</sup>라고 하였다. 『정법화경』 제4권에는 “모든 뜻은 무위의 생각에 있으니, 장차 멸도하여 당당하게 다른 부처의 세계에 가려는 것이다.”<sup>318)</sup>라고 하였다. 또 제3권에는 “멸도하려 할 때 부처님께서 그 앞에 머물며 중요한 법을 가르쳐 보살의 뜻을 내게 하여 생사에 있지 않고 멸도에 머물지 않고 삼계의 공을 깨닫는다.”<sup>319)</sup>라고 하였다. 제4권의 뜻도 이와 같다. 이 글에서 이미 “멸도하려 할 때”라고 하였으니 이에 준거하여 “무여의에 머문다”는 것이 무여에 들어가려 할 때 보리심을 낸다는 것이지 이미 들어가서 보리심을 낸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지도론』의 해석과 통함을 이에 준거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열반경』에 8만겁 동안 머무는 곳이라는 등의 말이 있는데,<sup>320)</sup> 삼장이 해석하기를, “예류(預流) 등의 지위에서 마음을 돌려 대승으로 향하여 변역의 생을 얻고, 보살행을 행하여 십신위에 이르러 8만겁, 6만겁 등을 머무는 것을 머무는 곳[住處]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진제 삼장은 『구식장(九識章)』<sup>321)</sup>에서 “묻는다. 대본에서 ‘연각은 십천겁에 이른다’<sup>322)</sup>고 하였는데 어

316) 『묘법연화경우바제사』 권2 大26 p.9a18~20.

317) 『묘법연화경』 권3 大9 p.25c17~18.

318) 『정법화경』 권4 大9 p.92b14~15.

319) 『정법화경』 권3 大9 p.85c14~15.

320) 『대반열반경』 권11 大12 p.431c18~20. 是人未來過八萬劫, 便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이를 비롯하여 여러 구절이 나온다.

321) 『구식장(九識章)』: 진제의 저술.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

편 위에 이르며 이는 어떤 중인가? 답한다. 이것은 적중(寂宗)의 뜻이다. 삼계의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돌려 대승을 배워 심신에 들어가 법의 여여함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진제도 또한 심신위가 이르는 곳이 된다고 했음을 이에 준하여 알 수 있다.

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반을 설하는가? 답한다. 부처가 마음을 돌리는 것에 의해 대성문(大聲聞)을 향하여 불로 몸을 태워 열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열반이라고 설했지만 실제로 열반한 것이 아니다. 이는 『유가론』 제80권에서 말한 “그는 이미 이와 같이 수명을 더하는 행을 마치고, 유근신(有根身)<sup>323)</sup>을 남겨 두고 따로 화신을 만들어 법을 함께 하는 이들 앞에서 방편으로 무여열반계에서 열반함을 보이셨다. 이런 인연으로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존자(尊者)라는 이는 무여의열반계에서 이미 열반에 드셨다. 그가 남긴 실제의 유근신은 이 삼부주 세계에서 그 즐거움에 따라 멀리 떠나 머물러 일체의 모든 천(天)들도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나머지 중생들이야 볼 수 있겠는가?”<sup>324)</sup> 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뜻을 설명하면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 법을 함께 하는 이들 앞에서 무여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 것이지 그가 실제로 무여열반에 든 것은 아

총록』에 목록이 올라 있다.(권3 韓4 p.695c18. 九識章三卷 眞諦述.)

322) 『대반열반경』 권21 大12 p.491c3. 辟支佛者十千劫到.

323) 유근신(有根身) : ⑤ sendriya-kāya, 사람의 신체. 유색근신(有色根身). 근은 안·이·비·설·신의 5근을 말하며, 5근을 5색근(五色根)이라고도 하는데, 신체의 다섯 기구와 그 기능을 말한다. 『성유식론』에는 5색근(곧 勝義根)과 그 의지처(곧 扶塵根)를 총괄하여 유근신이라 하였다. (『成唯識論』 권2 大31 p.10a15~16. 有根身者謂諸色根及根依處.)

324) 『유가사지론』 권80 大30 p.749a20~26. 彼既如是增壽行已, 留有根身, 別作化身, 同法者前方便示現, 於無餘依般涅槃界, 而般涅槃. 由此因緣皆作是念. 某名尊者, 於無餘依般涅槃界, 已般涅槃, 彼以所留有根實身, 卽於此界瞻部洲中, 隨其所樂遠離而住, 一切諸天尙不能觀, 何況其餘衆生能見.

니다. 혹은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변화하여 무여열반에 드는 것은 한 부류를 이끌어 포용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두어 그 두 과(果)가 구경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능엄삼매경』에서 “사리불이여, 보살이 이와 같이 벽지불승으로써 열반에 들지만 그것은 영원히 멸하는 것이 아니다.”<sup>325)</sup>라고 하고 내지는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능가경』 제2권<sup>326)</sup>과 제4권<sup>327)</sup>에서 설한 삼매락문(三昧樂門)이란 예류(預流)<sup>328)</sup> 등이 마음을 돌려 대승으로 향하여 몸을 오래 머물게 하고, 변제정(邊際定)<sup>329)</sup>에 의하여 유류업에 힘입어 번역의 생을 받고 8만겁 혹은 6만겁 등을 지나 십신위에 이르면 그 선정을 삼매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무여열반에 머무는 것은 삼매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치의 가르침에 의하면 8만겁 내지 10천겁 머무는 곳이란 이미 무여열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 그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가론』 제80권에 “묻는다. 깨달음으로 회향한 성문은 무여의열반의 세계 가운데 머물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답한다. 오직 유여의열반의 세계 가운데 머문다면

325) 『불설수능엄삼매경』 권2 大15 p.642c13~14.

326)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권2 大16 p.596c10~12. 菩薩摩訶薩雖亦得此聖智境界, 以憐愍衆生故, 本願所持故, 不證寂滅門及三昧樂.

327) 『대승입능가경』 권4 大16 p.607b28~c2. 謂三四五地入於三昧, 離種種心寂然不動, 心海不起轉識波浪, 了境心現皆無所有, 是名入三昧樂意成身.

328) 예류(預流): ㉠srota-āpanna. 수다원(須陀洹)으로 음역한다. 구역에서는 입류(入流)라 번역하였다. 소승 성문 4과의 하나. 번뇌가 없는 성도(聖道)의 과위에 참여하여 들어감을 의미한다. 성문승이 삼계의 견혹을 끊어 생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지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역류과(逆流果)라고도 한다. 유(流)는 성도의 흐름이다. 이는 성문승이 얻는 최초의 성과(聖果)이기 때문에 초과(初果)라고 한다.

329) 변제정(邊際定): 색계 제4선의 가장 상위의 선정. 변(邊)은 넘지 못한다는 뜻이고, 제(際)는 궁극의 끝이라는 뜻이다. 이 선정은 뛰어나서 능히 초월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고, 여러 선정 중에 가장 궁극의 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여의열반의 세계 가운데에서 일체의 향해 가려는 사업을 멀리 떠나 일체의 공용(功用)이 모두 그치기 때문이다.”<sup>330)</sup> 라고 하였다. 또 “묻는다. 무여의열반의 세계 가운데 얻는 전의(轉依)<sup>331)</sup> 는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하는가? 답한다. 희론(戲論)<sup>332)</sup>이 없는 모습이다. 또 선한 청정법계를 모습으로 한다.”<sup>333)</sup> 라고 하였다. 또 『해심밀경』 제3권<sup>334)</sup>과 『심밀해탈경』<sup>335)</sup>에 모두 “무여의열반의 세계 가운데 일체의 모든 수(受)<sup>336)</sup>는 남김 없이 영원히 멸한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准此等文，無性有情無涅槃因，定性二乘必不成佛。若爾如何說爲一乘，前所引教如何會釋？解云。如涅槃云，“善男子，我

330) 『유가사지론』 권80 大30 p.749a5~9.

331) 전의(轉依) : āśraya-parivṛtti, 또는 āśraya-parāvṛtti. 근본을 변화시킨다[所依基體]는 뜻. 열등한 법의 소의를 버리고 수승한 법의 소의를 증득하여 얻는 것. 유식에서는 성도(聖道)를 수행하여 번뇌장과 소지장을 끊어 없애 열반과 보리의 과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열반과 보리를 두 전의과(轉依果)라 하고, 수행하는 가장 뛰어난 경계라 한다.

332) 희론(戲論) : 부질없이 장난 삼아 하여 진리에 어긋나고 잘못되며 아무 뜻도 없어 선법(善法)을 증진하지 못하는 말. 여기에는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의 갖가지 옳지 못한 견해인 애론(愛論)과 갖가지 치우친 소견인 견론(見論)의 두 가지가 있다.

333) 『유가사지론』 권80 大30 p.748b10~13. 問於無餘依涅槃界中，般涅槃已所得轉依，當言是有，當言非有？答當言是有。問當言何相？答無戲論相，又善清淨法界爲相。

334) 『해심밀경』 권3 大16 p.702c24~25.

335) 『심밀해탈경』 권4 大16 p.679c5~6. 如來常說無餘涅槃界中，一切受滅盡無餘。

336) 『해심밀경』은 이어 이런 수(受)에 두 가지가 있어 ①소의추중수(所依龜重受)에는 다시 유색소의수(有色所依受), 무색소의수(無色所依受), 과이성만추중수(果已成滿龜重受), 과미성만추중수(果未成滿龜重受)의 네 가지가 있고, ②과파경계수(彼果境界受)에는 다시 의지수(依持受), 자구수(資具受), 수용수(受用受), 고련수(顧戀受)의 네 가지가 있다고 설한다.(『해심밀경』 권3 大16 p.702c27~a4.)

者卽是如來藏義。”又“一切衆生悉有佛性，常住無有變易。”又寶性論第一卷云，“問，云何得知一切衆生有如來藏？答，依一切諸佛平等法性身知一切衆生皆有如來藏。”如此等文，皆是眞如法身佛性，此卽五性皆有佛性。又涅槃云，“譬如有入，乃至定當得故”者，如此等教，皆是行性，定當得故，約不定姓少分而說。又法華經云，“十方佛土中唯有一乘法無二亦無三除佛方便說。”者，釋此經文，諸說不同。羅什等云，“言無二者，無聲聞緣覺，無三者，無聲聞緣覺及大乘中偏行六度獨善菩薩。”復有人云，“言無二者，謂無第二卽是緣覺，言無三者，謂無第三聲聞乘也。”一云，“此前兩解唯因乘，仍見佛乘有極果性，不故破焉。今者正判無二無三，約佛三身，以顯此義。所言無二，唯有如來報佛一乘，無彼聲聞緣覺二乘。”勝鬘經云，“聲聞緣覺乘皆入大乘者，卽是佛乘。”法華經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眞。”所言無三，唯有如來法身一乘，而無聲聞緣覺及佛三乘。攝大乘云，“菩薩未入二地，生如是想，謂三乘人三行差別，迷一乘理。”法華經云，“尚無二乘，何況有三？”涅槃云，“如來聲聞緣覺，同一佛性，同一無漏。”前破二皈一，是破小入大。後破三皈一，是泯事歸理。雖有三釋，第二爲正。故法華論末云，“第二方便品，示現破二明一。”〈或有本云破三明一，然諸本中多云破二明一。〉又華嚴經第十二十八第六十等，皆云無二乘之名。又法華經第三卷云，“世間無有二乘而得滅度，唯一佛乘得滅度耳。”又云，“唯有一佛乘，息處故說二。”梁攝論云，“信等五根不名定根”等者，大業大唐二本攝論，皆無此言，故不可依。智度論云，“若不任入涅槃者，著人天福樂中，作涅槃因緣”者，人天樂中，自有二種，一者畢竟無涅槃性，但以人天

而成就之，二者暫時無涅槃性，人天成就作涅槃因。雖有二種，彼論且依暫時無性一邊而說，或可彼顯菩薩悲願，欲令盡無餘涅槃，非悉一切皆入涅槃。法華論云，“決定增上二種聲聞，根未熟故，如不與授記。菩薩與授記者，方便令發心故。”者。菩薩與授成佛之記，爲欲令彼於大乘中發信心故。此卽方便，非實成佛。法華經云，“是人雖生滅度之想入於涅槃，而於餘國求佛智慧”者。依正法華第四卷云，“一切志在無爲之想，謂當滅度，甫當往至他佛世界。”又第三云，“臨欲滅度，佛在前住，誨以要法。發菩薩意，不在生死，不住滅度，解三界空。”第四卷文意同此也。此文旣云臨欲滅度，准此應知，住無餘依，臨入無餘，發菩提心，非是已入而能發心。釋通智度，准此應知。又涅槃云，“八萬劫住處”等者，三藏釋云，“預流等位，迴心向大，受變易生，行菩薩行，至十信位，住於八萬六萬劫等，名爲住處。”真諦三藏九識章云，“問，大本云，‘緣覺十千劫到，’到何位，是何宗？答，此是寂<sup>337)</sup>宗意，除三界或，迴心學大乘，入十信，信法如如。”准知真諦亦說，十信爲所到處。問，若爾如何說爲涅槃？答，佛依迴心向大聲聞，以火燒身，示現涅槃，說爲涅槃，非實涅槃。此如瑜伽論第八十云，“彼旣如是，增壽行已，留有根身，別作化身，同法者前方便示現，於無餘涅槃界而涅槃。由此因緣，皆作是念。其名尊者，於無餘依涅槃界，已般涅槃，彼以所留有根實身，卽於此界瞻部洲中，隨其所樂，遠離而住，一切諸天尚不能觀，何況其餘衆生能見？”此意說云，爲除疑情同法者前，示現入於無餘涅槃，故名涅槃，非彼實任

---

337) 『한국불교전서』 교감에 따라 客을 寂으로 함



無餘涅槃. 或可諸佛菩薩化入無餘, 爲引攝一類, 及任持所餘, 顯彼二果非究竟. 如首楞嚴三昧經云, “舍利弗, 菩薩如是, 以辟支佛乘, 入於涅槃, 而不永滅.” 乃至廣說. 楞伽第二第四所說, 三昧樂門者, 謂預流等, 迴心向大, 令身久住, 依邊際定, 資有漏業, 受變易生, 經八萬劫, 或六萬等, 至十信位, 卽說彼定, 名三昧樂. 而非已住無餘涅槃名爲三昧. 由此理教, 言八萬劫, 乃至十千劫住處者, 卽非已入無餘涅槃, 而沒癡趣故. 瑜伽第八十云, “問, 回向菩提聲聞爲住無餘依涅槃界中, 能發趣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爲住有餘依涅槃界耶? 答, 唯住有餘依涅槃界中, 可有此事. 所以者何? 以無餘依涅槃界中, 遠離一切發趣<sup>338)</sup>事業, 一切功用皆悉止息.” 又云, “問, 於無餘依涅槃界中, 所得轉依, 當言何相? 答, 無戲論相. 又善清淨法界爲相.” 又解深密經第三<sup>339)</sup>及深密解脫, 皆云, “於無餘依涅槃界中, 一切諸受無餘永滅.” 廣說如經.

338) 『유가사지론』에는起이나 앞뒤 구절에 모두發趣라 하여 대본의趣를 따름

339) 대본의四는『해심밀경』의내용에 따라三으로 교감함





憬興 경흥

【三彌勒經疏 삼미륵경소】

해제

彌勒上生經料簡記 미륵상생경요간기

彌勒下生經疏 미륵하생경소

佛說彌勒成佛經疏 불설미륵성불경소







## 解題 해제

경흥(憬興)은 통일신라 시대의 유식사상가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독립된 전기가 실려 있으나(권5 感通 憬興遇聖) 구체적인 연대기적 사실은 거의 없다. 이에 따르면 경흥의 성은 수(水)씨이며 웅천주(熊川州, 지금의 충남 공주) 출신이다. 18세에 출가하여 삼장에 통달하여 당대에 명망이 높았다. 681년에 문무왕이 돌아가기 전에 신문왕에게 국사로 추천하여 신문왕이 즉위한 후 국로(國老)로 삼아 삼랑사(三郎寺)에 살게 했다. 이는 삼국통일 후 옛 백제민에 대한 배려로 해석된다. 경흥이 오래도록 병을 앓자 십일면관음보살이 화현하여 재미있는 춤을 추자 이를 보고 웃고 나았다고 한다. 경흥은 또 궁궐에 드나들며 화려하게 장식한 말을 타고 다녔는데, 문수보살이 화현한 거사가 승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부당함을 깨우쳐주어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설화들은 경흥이 신문왕대에 교단의 중심 인물로서 활동했으며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경흥은 40여 종의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 원효와 대현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로 꼽힌다. 『해심밀경소』와 『성유식기』 등 유식 관계 17종을 비롯하여 정토신앙 관계 저



술과 『법화경』과 『열반경』·『금강경』·『아미타경』·『관정경』·『금광명경』 및 『사분율』 등 다양한 경론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주석서를 지었다. 이 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 『삼미륵경소』 1권과 『금광명최승왕경약찬(金光明最勝王經略贊)』 5권,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 3권이다.

미륵신앙은 석가모니불의 교화가 힘을 잃은 말법시대를 지나 먼 훗날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와 중생들을 설법하여 구제할 때 참가하기를 희구하는 하생(下生)신앙과, 현재 도솔천에 머무르고 있는 미륵을 믿어 그의 정토인 도솔천에 나기를 바라는 상생(上生)신앙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유식에서는 미륵이 『유가사지론』 등 유식 5부를 설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미륵신앙을 중시하여 미륵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라 승려 중에서는 원측·원효·경홍·의적·대현 등이 미륵삼부경으로 불리는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성불경』에 대해 주석서를 지었다. 그중에 경홍이 미륵삼부경 모두에 대한 저술을 남겨 그 의의가 크다.<sup>1)</sup>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경홍의 삼미륵경 주석서를 다루기로 하였다.

『삼미륵경소』는 『미륵상생경』에 대한 『미륵상생경요간기』, 『미륵하생경』에 대한 『미륵하생경소』, 『미륵성불경』에 대한 『미륵성불경소』를 묶어 엮은 것이다. 경홍은 이 책에서 75종에 이르는 다양한 경론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였다. 그중에는 『지도론』과 『유가론』·『불지론』이 가장 빈번한 인용 예를 보이며, 승려로는 중국 법상종 승려인 규기(窺基)의 인용이 가장 많아 40여 가까이 되고, 원효의 인용이 5회 있다. 원효는 『미륵상생경종요(彌勒上生經宗要)』를 지어 ①술대의(述大義), ②변중치(辨宗旨), ③이장시비(二藏是非), ④삼경동이(三經同異), ⑤생신처소(生身處所), ⑥출세시절(出世

1) 당의 규기는 『상생경』과 『하생경』에 대한 소를 남겼다. 신라의 대현은 『상생경』·『하생경』·『성불경』에 대한 고적기를 지었으나 남아 있지 않다.

時節), ⑦이세유무(二世有無), ⑧삼회증감(三會增減), ⑨발심구근(發心久近), ⑩중과전후(證果前後)의 10항목에 걸쳐 요지를 서술하였다. 규기는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을 지어 ①불성권실(佛成權實), ②자씨소인(慈氏所因), ③시분유수(時分有殊), ④왕생난이(往生難易), ⑤문답요간(問答料簡)의 5항목으로 전체 대의를 설명하고 난 후 경문의 구절에 따라 단락을 상세히 나누어 해설하였다. 이에 비해 경흥은 ①술교흥연기(述教興緣起), ②광변경종체(廣辨經宗體), ③경본단중(經本單重), ④석제목(釋題目), ⑤수문해석(隨文解釋)의 5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경흥의 『미륵상생경요간기』는 저자 미상의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술찬(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述贊)』<sup>2)</sup>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상생경술찬』 외에 『하생경술찬』도 있다. 그런데 이 『술찬』은 규기의 『상생경찬』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면서 좀더 상세한 해석으로 이루어졌다. 경문을 단락지어 해설하는 구분도 『술찬』과 『상생경찬』이 비슷하다. 그리고 『술찬』은 『삼미륵경소』보다도 내용이 상세하다. 그런데 『술찬』은 규기를 언급하고 있으므로,<sup>3)</sup> 규기의 『찬』을 참조하고 더 상세한 해석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흥의 『삼미륵경소』는 『술찬』과 내용의 상세한 정도나 표

2)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술찬(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述贊)』(叢21 pp.813c1~830a22)은 『미륵상생경』의 앞 부분 약 3분의 1 부분(大14 pp.418a1~419a2)에 대한 내용이 없고 大14 p.419a3의 부분부터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끝 부분 일부(p.828b2 이하)는 『미륵하생경』에 대한 해설이다. 『불설미륵하생경술찬(佛說彌勒下生經述贊)』(叢21 pp.830b1~832c2)은 『미륵하생경』에 대한 해설이다. 두 책 모두 앞뒤가 완전하지 않은 단편들이다. 『하생경술찬』 끝부분에 ‘미륵보살경술찬 권제2(彌勒菩薩經述贊卷第二)’라고 하였으므로 이들 『술찬』을 『미륵보살경술찬』 권1, 권2로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상생경요간기』·『하생경소』라고도 하고 이들을 묶어 『삼미륵경소』라고 한 것과 대응한다.

3) 『상생경술찬』에 ‘규기는 말했다’(基云, 叢21 p.817b8; 818c9; 821c11; 822b20), ‘규기는 이렇게 해석했다’(基作此解, p.819b14)라는 기술이 있다.

현상의 차이 등이 있으나 서술 경향은 일치하는 면이 많다.<sup>4)</sup> 의천의 목록에서 경홍의 『삼미륵경소』를 『미륵경술찬』이라고 신고 있는 것에서 볼 때, 경홍에게는 지금 단간으로 남아 있는 『술찬』의 저술이 있었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삼미륵경소』를 저술하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sup>5)</sup>

경홍은 『삼미륵경소』에서 규기의 『찬』을 비롯한 이들 견해를 인용하여 상호 비교 논증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다른 승려들과 미륵 경전에 대한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다. 경홍은 이 책에서 주로 규기와 원효의 해석을 인용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전의 분과에서 경홍은 규기와 분과의 명칭을 달리하였고, 규기가 서분 중에서 가르침을 받는 근기[敎所被機] 부분을 증신서(證信序)로 넣은 데 비해 경홍은 발기서(發起序)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원효와 같은 견해였다. 또 미륵과 석가의 발심(發心)의 시기 전후 논란에 대해 경홍은 원효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미륵의 출생처와 성장처에 대한 경설 상의 이견에 대해서도 원효설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미륵이 하생하는 시기에 대해서 경전마다 각기 다른 점을 정리하여 규기와 원효가 옳다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해수가 셈법의 차이 때문이라고만 의견을 밝혔다. 도솔천에 상생하기

4)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경홍의 미륵경 주석서에 대해 “『미륵경술찬』 3권. 비록 3경을 해석했으나 모두 1부로 하였다. 『술의문찬』 4권. 이상은 경홍이 지었다.”(『新編諸宗教藏總錄』 권1 韓4 p.688b10~11, 彌勒經述贊三卷, 雖釋三經總爲一部, 遂義述文四卷, 已上 憬興述.)라고 하였다.

5) 『상생경술찬』의 卍21 p.813c1~827b22 부분은 『미륵상생경』에 대한 것으로 『삼미륵경소』의 韓2 p.93a12~102c6에 해당한다. 『상생경술찬』의 p.827b23~828b23 부분은 『삼미륵경소』의 p.95a3~b24, 『상생경술찬』의 p.828b24~829a23 부분은 하생경 해석으로 『삼미륵경소』의 p.103c22~104b4에 해당한다. 『상생경술찬』의 p.829a23~829c12 부분은 다시 상생경 해석으로 『삼미륵경소』의 p.98c5~99a17에 해당하고, p.829c12~830a22 부분은 p.101b2~c10에 해당한다. 『하생경술찬』은 『하생경』의 첫 부분 해석으로 『삼미륵경소』의 p.103a1~104b24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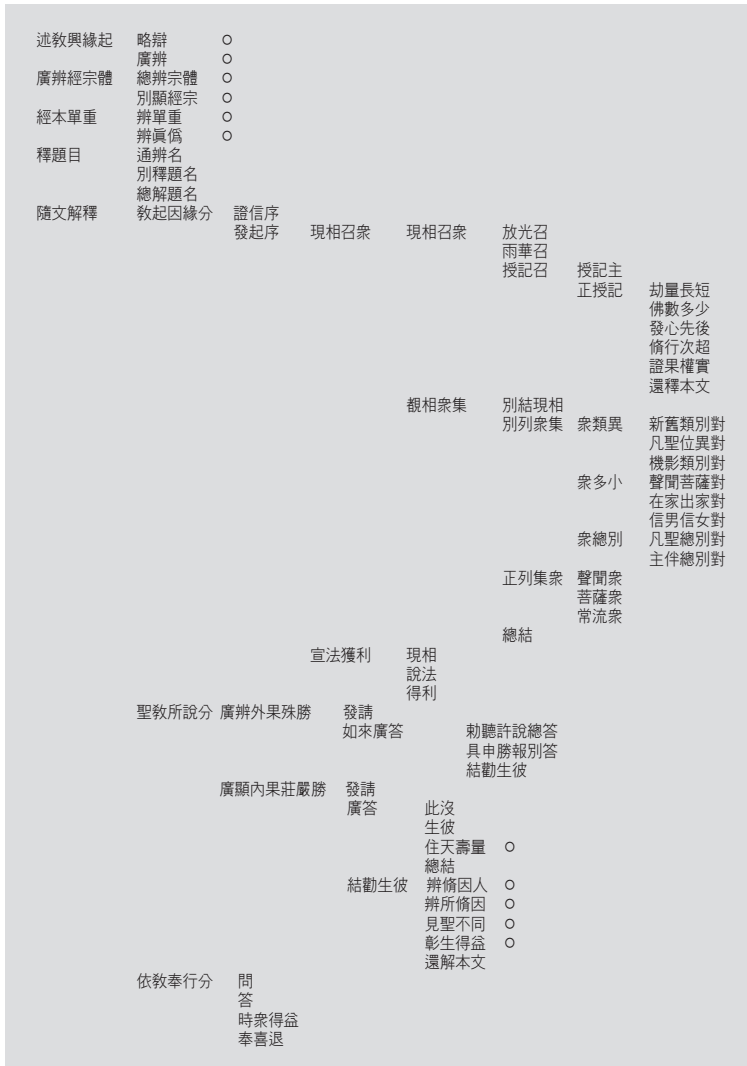


위해서는 미륵의 상호를 만들거나 미륵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그리고 오계·팔계·구족계 등 십선법(十善法)을 갖추어 지키면 상품이 된다. 경홍은 규기와 같이 상생자를 상·중·하 삼품으로 이해하였으나 상품인이 수행해야 할 조건을 나누는 데에서는 규기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비록 번뇌는 완전히 끊지 못했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을 염불 청명한 부류는 도솔천에 상생할 수 있는 중품이며, 계를 범하거나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참회하면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이 하품이다. 용화삼회(龍華三會) 설법으로 구체화하는 하생신앙에서 그 대상을 원효는 소승 아라한이라 하였는데 경홍은 규기와 같이 대소승 제자로 확대 해석하였다. 또한 원효는 『상생경』이 대승이고 『하생경』과 『성불경』은 소승으로 본 데 비해 경홍은 미륵 삼부경이 모두 대소승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륵신앙의 대상을 넓혀 놓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타신앙에 대해서는 원효가 모든 중생의 성불을 인정하여 범부를 위한 견해를 분명히 한 데 비해 경홍은 정성 이승의 성불을 인정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원효가 미타의 극락이 미륵의 도솔천보다 왕생하기 쉽고 더 뛰어나다고 한 데 대해 경홍은 미륵도 서원이 있고 내영(來迎)이 있으며 일념칭불 왕생이 있어 미륵정토가 미타정토보다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경홍은 여러 견해를 인용하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분명히 가졌다는 것을 이 『삼미륵경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홍의 사상 경향은 미타신앙에 대한 저술인 『무량수경연의술문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해원이나 신라의 원효 및 법위(法位)·현일(玄一) 등과 다른 독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문을 신지 못하는 제한으로 여기에서는 경홍의 미륵사상의 전모와 그 특색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골라 번역하였다. 삼부경 각각의 해석 첫 부분은 공통으로 하고, 『미륵상생경요간기』에서는 미륵의 하생 시기와 도솔천 왕생, 『미륵하생경소』에서는 국토의 장엄과 풍요와 안락, 『미륵성불

경소』에서는 미륵의 성불과 삼회설법의 교화 부분을 소개하였다. 전문을 구조화하여 주요 분과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시 부분이 이 책에서 다룬 부분임)



『미륵상생경요간기』의 구조



#### 참고문헌

---

- 安啓賢, 1964 「新羅僧 憬興의 彌勒淨土往生思想」 『震檀學報』 25·26·27(1976 『新羅淨土思想史研究』, 亞細亞文化社 재수록)
- 安啓賢, 1963 「憬興의 彌陀淨土往生思想」 『佛敎學報』 1(1976 『新羅淨土思想史研究』, 亞細亞文化社 재수록)
- 李 萬, 2002 「新羅 憬興의 唯識思想」 『韓國佛敎學』 32, 韓國佛敎學會
- 韓泰植, 1991 「憬興의 生涯에 관한 再考察」 『佛敎學報』 28,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 渡邊顯正, 1978 『新羅憬興師述文贊の研究』, 京都: 永田文昌



## 彌勒上生經料簡記 미륵상생경요간기

1. 가르침을 일으킨 연기를 서술함
  - 1) 간략히 분별함
  - 2) 자세히 분별함
2. 가르침의 종지와 요체를 자세히 분별함
  - 1) 종지와 요체를 총괄하여 분별함
  - 2) 별도로 경의 종지를 드러냄
3. 경전 대본의 단역과 중역
  - 1) 단역본인지 중역본인지를 분별함
  - 2) 진위를 분별함
4. 문장에 따라 해석함





이 경을 해석하는 데 대략 다섯 가지의 문으로 분별한다. 첫째, 가르침을 일으킨 연기(緣起)를 서술한다.[述教興緣起] 둘째, 경의 종지[宗]와 요체[體]를 자세히 분별한다.[廣辨經宗體] 셋째, 경전 대본의 단역과 중역이다.[經本單重] 넷째, 제목을 해석한다.[釋題目] 다섯째, 경문에 따라 해석한다.[隨文解釋]

將釋此經，略以五門分別。一者述教興緣起。二者廣辨經宗體。三者經本單重。四者釋題目。五者隨文解釋。<sup>1)</sup>

## 1. 가르침을 일으킨 연기를 서술함[述教興緣起]

첫 번째 가르침을 일으킨 연기(緣起)를 서술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간략히 분별하는 것[略辨]이고, 둘째는 자세히 분별하는 것[廣辨]이다.

所言述教興緣起中有二，一者略辨，二者廣辨。

### 1) 간략히 분별함[略辨]

간략히 분별하여 말하면, 생각하건데 법성(法性)으로 깊이 본체는 법계(法界)에 두루하고 작용은 우주에 두루함에 이르게 된다. 본체는 법계에 두

1) 이 단락의 원문은 『삼미특경소』 韓2 pp.77b4~80a21.

루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작용은 우주에 두루하기 때문에 공(空)과 유(有)를 헤아리기 어렵다. 진실로 진리는 세속과 같기 때문에 비추는 바도 없고 융통할 바도 없어 진제(眞際)<sup>2)</sup>를 분명히 알게 된다. 비추는 바가 없기 때문에 비추지 않는 것도 없고, 융통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융통하지 않는 것도 없다. 융통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理事)가 모두 일심(一心)의 거울에 나타나며, 비추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원경지(大圓鏡智)<sup>3)</sup>가 일여(一如)<sup>4)</sup>의 바다에 잠긴다. 이는 지극히 성스럽고 원만한 지혜인 방등(方等)<sup>5)</sup>을 헤아려 증명함을 뜻한다. 이 때문에 미륵(彌勒) 대사(大士)는 지위가 묘각(妙覺)<sup>6)</sup>에 올라 자취를 사바세계에 드리운다. 지위가 묘각에 올랐기 때문에 이장(理障)<sup>7)</sup>의 어두움을 사지(四智)<sup>8)</sup>

- 
- 2) 진제(眞際): 진실하여 거짓이나 틀림이 없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이치. 공(空)과 평등의 참된 성질. 삼제(三諦)의 하나. 오온(五蘊)의 제법(諸法)에 대한 미혹(迷惑)한 집착과 오온으로 만들어진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때에 나타나는 진여(眞如).
  - 3) 대원경지(大圓鏡智): 큰 거울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 유식 사지(四智)의 하나.
  - 4) 일여(一如): 진여(眞如)의 이치(理致)가 평등(平等) 무차별(無差別)하여 둘이 아니고 하나임
  - 5) 방등(方等): ㉠vaipulya, 방광(方廣)이라고도 번역한다. 널리 설하고 넓고 크고 깊은 뜻을 가졌다 하여 대승 경전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 대승 경전에 덧붙이는 용어로 쓰였다.
  - 6) 묘각(妙覺):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인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등각(等覺)·묘각의 52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로 온갖 번뇌를 끊어 버린 부처의 경지.
  - 7) 이장(理障): 근본 무명으로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번뇌.
  - 8) 사지(四智): 부처가 갖는 네 가지 지혜. 주로 유식가에서 말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이 거울에 그대로 비추듯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인 대원경지(大圓鏡智), 일체법의 평등한 이성을 관하고 나와 남의 차별심이 없는 자비심으로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는 지혜인 평등성지(平等性智), 모든 법의 상을 불가사의하게 관찰하



의 거울로 밝게 비추시고, 자취를 사바세계에 드리웠으므로(…떨어져 나감) 덕이 높기 때문에 마귀의 무리가 저절로 꺾이고 공이 커서 여러 다른 배움의 무리가 이때 굴복한다. (…떨어져 나감) 열반의 문이 열리고 윤회의 바퀴가 그친다. 그래서 가까이로는 도솔천에 있고 멀리로는 괴겁(壞劫)<sup>9)</sup>에 임한다. (…떨어져 나감) 때문에 이 경을 설한다.

言略辨者，竊以法性，致深體遍法界，用周宇宙。體遍法界故遠近難量，用周宇宙故空有豈測。良眞理同俗，故無所照而無所融，智了眞際。無所照故無所不照，無所融故無所不融。無所不融故理事俱現一心之鏡，無所不照故鏡智同潛一如之海。是義至聖圓智，方等究證，是故彌勒大士，位登妙覺，迹垂娑婆。位登妙覺故二障昏暗，映用四智鏡，迹垂娑婆，□□□□□□□□□□□□□□□□德，所以德高，群魔自摧，功大諸異學類茲伏。是□□□□□路，開涅槃門，爲息苦輪。故近在兜率，遠臨壞劫，□□□□□□□□□□□□名□故說此經。

여 의혹을 끊는 지혜인 묘관찰지(妙觀察智), 불과에 이르러 삼승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을 보여 이익되게 하는 지혜인 성소작지(成所作智)를 말한다.

- 9) 괴겁(壞劫) : 성겁(成劫) · 주겁(住劫) · 괴겁(壞劫) · 공겁(空劫)의 사겁(四劫) 중 하나. 불교의 우주관에서 하나의 세계가 성립하고 지속되고 파괴되어 또 바뀌어 다른 세계가 차례로 성립 변화하는 네 시기. 성겁은 자연 세계인 기세간과 일체 중생들의 중생세간이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 성립하는 시기. 주겁은 세계가 평온하게 지속되는 시기. 이 기간에 사람들의 수명이 8만4천세에서 10세 사이를 줄어두고 늘어나는 중겁을 20회 지난다. 괴겁은 불과 물과 바람으로 세계가 파괴되는 시기. 공겁은 세계가 이미 파괴되어 장기간의 공허에 들어간다. 4겁은 각각 20중겁이 있어 4겁 전체의 80중겁을 1대겁이라 한다.

## 2) 자세히 분별함[廣辨]

두 번째 자세히 분별하는 것[廣辨]은 또한(…떨어져 나감) 깨끗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법(正法)에서 존중심이 생기게 하여 이미 들은바가 나타나 믿음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생을 제도하여 빛을 비추어 중생을 부르고 구름처럼 모이는 모습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법을 설하려 할 때 꽃비가 내리고 땅이 움직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진실한 뜻을 펼쳐 말하고 많이 짓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뜻이란 여러 경전 중에 있는 정종분(正宗分)<sup>10)</sup>으로, 그 기틀에 맞고 마땅히 이익과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진실한 뜻이라고 하니, 뜻은 뜻의 이로움이다. 많이 지은 것은 앞의 진실한 뜻이 말세가 되면 구체함이 끝이 없어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짓는다고 한다. 많이 짓는다는 것은 마땅히 여섯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실한 뜻은 멀리 보내(…떨어져 나감) 때문에 합쳐서 하나로 판단한다.

第二廣辨者，且□□□□□□□□□□□□敬心由□聖□妙□□□□□□□證淨信故。二爲於正法，生尊重心，顯已所聞，令生信故。三爲欲度衆，放光召衆，觀相雲集故。四爲欲叙事，將說法時，雨華動地故。五爲欲宣說眞實義，及多所作故。眞實義者，卽諸經中所有正宗，稱其機，宜獲利樂，故名眞實義，義者義利也。多所作者，前眞實義，多爲末代，拯濟無極，故名多所作。多所作者，應爲第六。然而眞實義，遠送□□機，故合爲一判也。

10) 정종분(正宗分): 한 경전을 대개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정종분은 그중에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로 모름지기 모든 대승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연을 설한다. 대략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신묘한 힘이 만든 것으로, 중생을 포섭하는 것과 여러 보살을 높이는 것의 두 가지이다. 둘째는 여러 가지 지혜가 만든 것으로, 설할 수 있는 것과 진실한 뜻의 두 가지이다. 셋째는 자비가 만든 것으로,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한 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 모습으로 기준해 보면, 『미륵상생경』은 그 다섯 가지 모습을 갖추었고, 『미륵하생경』은 중생을 포섭함과 사실을 기술함 두 가지가 없으며, 『미륵성불경』은 처음과 끝 두 가지만 있다. 그러한 까닭은 여래의 선권방편(善權方便)<sup>11)</sup>이 하나가 아니라 근기에 따른 것이어서 따로 또 다르게 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상(總相)<sup>12)</sup>은 비록 그렇지만 경에 설한 대상에 따라 미루어보면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된다. 첫째는 성자(聖者)이고 둘째는 범부(凡生)<sup>13)</sup>이다. 첫째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이 세상의 보살을 위한 것[爲此方菩薩]이다. 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래께서 한 가지 음성으로 백억 다라니문을 말씀하시면 미륵보살은 바로 증득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14)</sup> 둘째는 다른 세상의 보살을 교화하는 것[化他方菩薩]

11) 선권방편(善權方便) : ㉠upāya-kausālyā.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고도 하며 방편승지(方便勝智)로도 번역한다. 좋은 방법을 써서 중생을 인도한다는 의미로서, 중생을 진실한 가르침으로 이끌기 위해 잠정적으로 마련한 범문을 말한다. 방편(方便) · 선방편(善方便) · 권방편(權方便) · 선교(善巧) · 선권(善權) 등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12) 총상(總相) : 육상(六相)의 하나. 만유(萬有)의 일체법(一切法)이 저마다 한 몸으로서 전체적 ·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모든 유위법에 통하는 무상(無常)이나 무아(無我) 등의 상이다.

13) 이생(異生) : ㉠prthag-jana. 우이생(愚異生)으로 의역하며, 구역의 범부(凡夫)를 말한다. 범부는 육도에 윤회하여 갖가지 다른 과보를 받기 때문에 이생이라 한다. 또 범부는 번이를 일으켜 사건을 만들어 악업을 짓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한다.

14) 경전은 『미륵상생경』을 말함. “이때 세존께서 한 음성으로 백억 다라니문을 설

이다. 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래께서 도솔천의 열 가지 선업의 과보를 설하시자 시방 보살이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sup>15)</sup> 법문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16)</sup> 둘째는 범부의 삼품이 있다.<sup>17)</sup> 상품(上品) 수행은 혹은 관불삼매(觀佛三昧)<sup>18)</sup>를 수행하고 혹은 여러 죄를 참회하여, 곧 부처님께서 몸을 드러내실 때 미륵보살을 뵈는 것인데, 마음의 우열에 따라 형태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방등다라니경(方等陀羅尼經)』<sup>19)</sup>과 『미륵상

하였다. 이 다라니를 다 설하시자 이때 회상 중에 미륵이라는 한 보살이 있어 부처의 설함을 듣고 바로 그때 백만억 다라니문을 얻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의 옆에 섰다.”(『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14 p.418b28~c3. 爾時世尊以一音聲, 說百億陀羅尼門. 說此陀羅尼已, 爾時會中有一菩薩名曰彌勒, 聞佛所說, 應時即得百萬億陀羅尼門, 即從座起整衣服, 叉手合掌住立佛前.)

- 15)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 수행자가 처음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일체의 번뇌와 욕망을 깨뜨리며 집중하고 들어가는 단계
- 16) 경전은 『미륵상생경』을 말함. “부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세상에서 온 십만 보살들이 수능엄삼매를 얻었고 팔만억의 여러 천들은 보리심을 내서 모두 미륵을 따라 하생하기를 원하였다.”(『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14 p.420c18~20. 佛說是語時, 他方來會十萬菩薩, 得首楞嚴三昧, 八萬億諸天發菩提心, 皆願隨從彌勒下生.)
- 17) 이 단락의 내용은 원효의 『미륵상생경중요(彌勒上生經宗要)』(韓1 p.549a7~17)에서 가져다 쓴 것이다. 문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그 취지에 따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 원효의 전거에 따라 『미륵상생경요간기』의 빠진 글자를 추정 복원할 수 있다.(韓1 p.549a7~17. 言所爲同異者, 脩觀行也. 有其三品. 上品之人, 或脩觀佛三昧, 或因懺悔行法, 即於現身, 得見彌勒, 隨心優劣, 見形大小, 此如觀佛三昧海經及大方等陀羅尼經說也. 中品之人, 或脩觀佛三昧, 或因作諸淨業捨此身後, 生兜率天, 得見彌勒, 至不退轉, 是故上生經所說也. 下品之人, 脩施戒等種種善業, 依此發願, 願見彌勒, 捨此身後, 隨業受生, 乃至彌勒成道之時, 要見世尊三會得度, 是如下生成佛經說.)
- 18) 관불삼매(觀佛三昧): 한 마음으로 부처의 모습과 공덕 등을 보고 생각하여 안정을 이루는 상태. 특히 이 삼매는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에서 설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생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중품(中品) 수행은 혹은 관불삼매를 수행하고 혹은 정업(淨業)<sup>20)</sup>을 닦아 몸을 버린 후에 도솔천에 태어나 비로소 미륵을 보고 불퇴전(不退轉)<sup>21)</sup>에 이르는 것이니 역시 『미륵상생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하품(下品) 수행은 보시와 지계 등 갖가지 선을 실천하고 미륵을 보겠다는 큰 서원을 내서 이 몸을 버린 후에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을 받으며, 미륵불이 성도하실 때 미륵의 삼회제도를 만나기에 이르는 것이니, 이는 『미륵상생경』과 『미륵성불경』의 두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미륵상생경』은 중품을 교화하기 위해 설한 것이고, 나머지 두 경은 하품을 교화하기 위해 설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22)</sup> 상품은 바로 『방등경』의 근기이다. 『미륵상생경』이 상품과 중품 두품을 (…떨어져 나감) 만일 상품으로 분류하였는데 상품이 되지 않으니, 만일 그렇다면 곧 『미륵상생경』

- 
- 19) 『방등다라니경(方等陀羅尼經)』: 『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 4권, 북량법중(法衆) 번역. 대정신수대장경 권21에 수록됨.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의 물음에 응하여 갖가지 다라니 공덕을 설하신 경전. 참회 수행하는 것과 죄를 없애고 수명을 늘이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 20) 정업(淨業): 청정한 선업. 발심하여 여러 선행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동. 정토교에서는 부모와 스승을 봉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않는 세복(世福), 삼귀의계를 수지하는 계복(戒福), 보리심을 내어 인과를 밟고 대승을 실천하는 행복(行福)의 세 가지 복업이 중생이 정토에 왕생하는 정인(正因)이며, 보살이 불국토를 정화하는 수인(修因)이기 때문에 정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염불을 하여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21) 불퇴전(不退轉): ①avinivartanīya, 아비발치(阿鞞跋致) 또는 아유월치(阿惟越致)라고 음역하며, 불퇴(不退)·무퇴(無退)라고도 한다. 삼악도나 성문·연각의 이승의 지위로 물러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득한 보살의 지위와 깨달은 법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성불에 이르는 지위이다.
- 22) 이 견해는 원효의 의견이다. 앞에 인용(주 17)에 이어지는 구절이다. “이런즉 상생경의 하는 바는 중품인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두 경은 하품인을 위한 것이다.”(『彌勒上生經宗要』 韓1 p.549a17~18 是卽上生所爲, 爲中品人, 餘二經者, 爲下品人也.)

과 어긋난다. 『미륵상생경』에서 “목숨이 다할 때 미륵께서 대인의 빛을 비추어 이 사람을 맞이한다”<sup>23)</sup>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견해가) 뛰어나다.

將此五相，須諸大乘教，始終宣說因緣。略爲三義。一神力所作，卽攝衆尊諸菩薩二也。二種智所作，卽能說者眞實義二也。三慈悲所作，卽多度脫一也。將此五相准者，上生經備彼五相，下生經無有攝衆叙事二相，成佛經唯有初後二相。所以然者，如來善權方便，非一隨機，可度別異故。總相雖然委所說之經所被，大分爲二種。一者聖者，二異生。初復有二。一爲此方菩薩，如經云“如來一音聲說百億陀羅尼門，彌勒菩薩應時卽得”故。二化他方菩薩，如經云“如來說兜率天十善報應，十方菩薩得首楞嚴三昧法門。”後異生有三品。謂上品脩者，或脩觀佛三昧，或懺衆罪，卽於現身，得見彌勒，隨心優劣見形大小，廣

- 
- 23)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계율을 범하고 많은 죄업을 지었더라도, 이 보살의 대자 대비한 이름을 듣고 오체투지하여 지성으로 참회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지고 속히 청정을 얻느니라. 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이 이 보살의 대자대비한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고 향과 꽃과 비단 덮개와 깃발과 번 등으로 공양 예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목숨을 마칠 때 미륵보살이 눈썹 사이의 백호에서 대인의 광명을 비쳐주며, 모든 하늘 사람들과 함께 만다라꽃을 비 내리고, 이 사람을 와서 맞이할 것이다. 이 사람은 잠간 사이에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을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곧 무상도를 얻어서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아득한 미래세를 지나는 동안 향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느니라.”(『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大14 p.420b6~15. 若善男子善女人，犯諸禁戒造衆惡業，聞是菩薩大悲名字，五體投地誠心懺悔，是諸惡業速得清淨。未來世中諸衆生等，聞是菩薩大悲名稱，造立形像香花衣服繪蓋幢幡禮拜繫念，此人命欲終時，彌勒菩薩放眉間白毫大人相光，與諸天子雨曼陀羅花，來迎此人。此人須臾卽得往生，值遇彌勒頭面禮敬，未舉頭頃便得聞法，卽於無上道得不退轉，於未來世得值恒河沙等諸佛如來.)

如方等陀羅尼經及上生經說。中品脩者，或脩觀佛三昧，或脩淨業，捨身之後，生於彼天，始見彌勒，至不退轉，亦如上生經說。下品脩者，脩施戒等種種善，發弘誓願，願見彌勒，捨此身後，隨業受生，乃至彌勒成道時，得值彌勒三會蒙度，是卽如下生成佛二經說。

有說 上生經爲化中品，餘二經爲化下品。其上品者，正是方等經所被機，上□上生經□□上中二品，若科爲上品而不爲上品，若爾便違上生經。經云“命終時，彌勒放大人相光，迎此人故。”故初□爲勝。

묻는다. 팔상(八相)<sup>24)</sup>이 비록 달라도 다만 미륵께서 한 가지 모습으로 몸을 이으셨으니 몸이 원래 다르지 않은데 여래께서 무엇 때문에 따로 세 가지 경을 설하셨겠는가?

답한다. 진실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대략 14가지가 있다. 첫째, 여러 중생이 선근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근을 심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이미 선근이 심어져 있다면 해탈하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sup>25)</sup>을 설한다. 둘째, 여러 중생이 수행하여 큰 인연을 이루게 하고자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작은 결과를 얻게 하고자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셋째, 여러 중

24) 팔상(八相): 부처 일생의 중요한 여덟 장면. ①도솔천에서 내려오심[兜率來儀], ②룸비니에서 탄생하심[毘藍降生], ③카필라성에서 관찰하심[四門遊觀], ④성을 넘어 출가하심[踰城出家], ⑤설산에서 수도하심[雪山修道], ⑥보드가야에서 성도하심[樹下降魔], ⑦사르나트에서 설법하심[初轉法輪], ⑧쿠쉬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심[雙林涅槃]의 팔상이 후세 동아시아불교의 것인데, 전승에 따라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25) 미륵삼부경 중 『미륵상생경』을 제외한 『미륵하생경』과 『미륵성불경』을 말함

생이 보살의 공덕을 듣고 찬탄하여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부처가 되는 것을 듣고 찬탄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자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넷째, 여러 중생이 (…떨어져 나감) 선근을 심어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이 오랫동안 선근을 심어 이익을 얻게 하고자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다섯째, 여러 중생이 멀리서 부처님을 보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가까이서 부처님을 보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여섯째, 여러 중생들이 도솔천(兜率天)<sup>26)</sup>에서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염부제(閼浮提)<sup>27)</sup>에서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일곱째, 여러 중생이 도솔천궁에 대해 듣고 그곳에 태어나기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이 보배로운 누각이 파괴된 것을 보고 무(無)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여덟째, 여러 중생이 많은 부처님을 보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하나의 부처님을 보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26) 도솔천(兜率天) : ㉔Tusita, 의역하여 지족천(知足天)·희락천(喜樂天) 등으로 번역한다. 육계 6천의 네 번째 천으로 야마천과 낙변화천 사이에 있다. 이곳에 두원이 있는데 내원(內院)은 장차 성불할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현재 미륵보살이 이곳에서 불법을 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 만년)를 살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지금 해설하고 있는 미륵계통 경전의 무대가 된다.

27) 염부제(閼浮提) : ㉔Jambu-dvīpa, 섬부제(瞻部提)라고도 한다. 잠부(jambu)는 나무 이름이고 드비파(dvīpa)는 대륙의 뜻으로, 염부나무가 자라는 대륙이라는 뜻이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인간 세상을 동·서·남·북의 사대주(四大洲)로 나눌 때 남쪽의 땅을 말한다. 여기에 16 대국, 500 중국, 10만 소국이 있다고 하며, 부처가 출현하는 것은 오직 이 남염부제 뿐이라 한다.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흔히 남섬부주(南瞻部洲)라고도 한다. 본래 인도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뒤에 흔히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경을 설한다. 아홉째, 여러 중생이 도솔천에서 몸을 얻는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염부제에서 출가하여 이로움을 얻게 하고자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열째, 여러 중생이 석가가 미륵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미륵이 석가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열한째 여러 중생이 미륵이 처음에 한 가지 모습인 것을 듣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이후 일곱 가지 모습을 듣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열두째, 여러 중생이 우마리(優婆離)존자<sup>28)</sup>가 설해주기를 청하는 것을 듣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때문에 『미륵상생경』을 설하고, 중생들이 사리불(舍利弗)존자<sup>29)</sup>가 설해주기를 청하는 것을 듣고 이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나머지 두 경을 설한다. 열세째, 상품 하품이 태어나는 곳의 의보(依報)<sup>30)</sup>가 좋기도 하고 나

28) 원문의 근집(近執)은 우마리(優婆離, ㉔Upāli)존자를 말함. 근취(近取) 또는 근집(近執)이라 번역한다. 가장 낮은 신분인 수드라 출신으로 석가족 궁정의 이발사였는데 아난 등이 출가할 때 함께 출가하였다. 부처가 사성 평등의 기치 아래 출가의 문호를 크게 연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평생 계율을 잘 지켜 부처님 십대제자중의 지계제일(持戒第一)로 꼽힌다. 부처님 입멸 후 경전을 편찬할 때 경 편찬의 주역이었던 아난에 이어 계율 편찬의 주역이 되었다.

29) 원문의 추마(鵞馬)는 사리불(舍利弗, ㉔Śāriputra)존자. 추로자(鵞鷲子)·구육자(鵬鴿子) 또는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한다. 외모가 단정하고 베다에 통달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논리로 제압했다고 한다. 목건련(目犍連)과 벗이 되어 함께 출가하여 산자야(Saṅjayavairatīputra)에게 배워 250인중의 제일가는 자가 되었으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해 아쉬워 하던 중 부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오셨을 때 목건련과 함께 250 제자를 데리고 귀의하였다. 항상 부처를 모시고 교화를 도와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 지혜제일(智慧第一)로 꼽혔으나 부처보다 먼저 입적하였다.

30) 의보(依報):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받는 2종의 과보 중 하나. 의보란 오온(五蘊)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신체가 의지하여 사는 산하대지와 국토, 의복과 음식 등을 말한다.

뻘기도 하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을 설한다. 열네째, 상품 하품이 정보(正報)<sup>31)</sup>의 인과(因果) 등이 다르게 헤아려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세 가지 경을 설한다.

問. 八相雖異, 但是彌勒一相續身, 身既不殊, 何須如來別說三經. 答. 良由衆生, 機悟不同. 不同者何. 略有十四種. 一爲諸衆生, 未種善根, 故令種善根, 說上生經, 已種善根, 令得解脫, 故說餘二經. 二爲諸衆生, 脩成大因,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說得小果, 故說餘二經. 三爲諸衆生, 聞讚菩薩功德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聞讚成佛獲益, 故說餘二經. 四爲諸衆生, □□種善根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久種善根得益, 故說餘二經. 五爲諸衆生, 遠見佛,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近見佛, 故說餘二經. 六爲諸衆生, 於兜率天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於閻浮提得益, 故說餘二經. 七爲諸衆生, 聞於兜率天宮祈生彼,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見寶樓閣, 破壞得解無, 故說餘二經. 八爲諸衆生, 見多佛身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見一佛身得益, 故說餘二經. 九爲諸衆生, 於兜率天身得益, 故說上生經, 於閻浮提出家得益, 故說餘二經. 十爲諸衆生, 聞釋迦歎彌勒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聞彌勒歎釋迦得益, 故說餘二經. 十一爲諸衆生, 聞彌勒初一相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聞後七相得益, 故說餘二經. 十二爲諸衆生, 應聞近執請說得益, 故說上生經, 爲令衆生, 應聞驚馬請說得益, 故說餘二經. 十三爲知上下生處, 依果勝降差別, 故說三經. 十四爲知上

31) 정보(正報): 과거의 업인(業因)에 따라 그 과보로 받는 중생의 몸. 이에 비해 의보(依報)는 그 몸이 의지하고 있는 환경인 국토를 말한다. 이 둘 다 과거의 업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報)라 한다.

下二, 正報因果等量異, 故說三經.

## 2. 가르침의 종지와 요체를 자세히 분별함[廣辨教宗體]

둘째 가르침의 종지와 요체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교법의 종지[宗]와 요체[體]를 총괄하여 분별하는 것[總辨宗體]과 나중에 따로 경전의 종지를 나타내는 것[別顯經宗]이다.

第二教宗體者, 有二. 初總辨宗體, 後別顯經宗.

### 1) 종지와 요체를 총괄하여 분별함[總辨宗體]

앞으로 총괄하여 분별함을 말하니, 두 사람의 설이 있다. 강남의 여러 논자들은 이 설을 많이 남겼다. 뜻을 헤아리는 것에 준하여 종지와 요체를 분별하면, 종지가 요체이고 요체가 종지여서 종지와 요체는 구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나라의 여러 논자들이 교(敎)는 요체이고 의(義)는 종지이기 때문에 종지와 요체는 같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설들은 각각 옳고 그름이 있다. 만일 처음에 설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면 법과 뜻 두 가지가 결립이 없는 경지이니 응당 같은 것이기 때문에 논에서 “법은 명(名) 등에 인연하여 결립이 없고 뜻은 밝히는 바에 인연하여 결립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sup>32)</sup> 만일 후자의 설과 같다면 경전<sup>33)</sup>

32) 여기서 말하는 논은 『구사론(俱舍論)』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비달마구사론』 권27 大29 p.142a22~28. 論曰, 諸無礙解總說有四. 一法無礙解, 二義無礙解, 三詞無礙解, 四辯無礙解, 此四總說如其次第以緣名義言及說道不可退轉智爲自性, 謂無退智緣詮詮法名句文身立爲第一, 緣所詮義立爲第二, 緣方言詞立爲第三, 緣應正理無滯

의 요체의 본성은 응당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곧 논(論)의 글과 뜻(意)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처음의 뜻은 뜻 가운데에 구경문(究竟門)을 이해함이 생겨나고, 뒤의 뜻은 가르침과 뜻 가운데 차별문(差別門)을 만들게 하므로 역시 함께 얻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가르침의 종지와 요체를 분별하면 저절로 두 가지 문이 있는 것이 된다. 첫째는 가르침과 뜻이 다른 본성이라는 것이니 종지와 요체가 같지 않아 가르침을 요체라 하고 뜻을 종지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글과 뜻을 같이 쓴다는 것으로 종지와 요체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니 뜻이 또한 가르침이요 가르침은 종지와 요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론(對法論)』<sup>34)</sup>에서 말하기를, “법이 인연하는 바란 명구문(名句文)<sup>35)</sup>의 신(身)이다”<sup>36)</sup>고 하니 종지는 곧 요체이기 때문이다. 옛 『중변론

---

礙說及緣自在定慧二道立爲第四.)

33) 계경(契經)은 경전을 말한다. 경문은 위로는 진리에 계합하고 아래로는 중생의 뜻에 맞으며, 의리를 꿰어 중생을 거둔다는 뜻을 가졌다.

34) 『대법론(對法論)』: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㉔Mahāyānā bhidharma-samuccaya-vyākhyā, 16권. 안혜(安慧)가 모아 엮은 것을 현장이 번역. 대정신수대장경 제31권 수록. 무착(無著)이 지은 『대승아비달마잡논(大乘阿毘達磨集論)』에 대한 해석서. 본래 무착의 제자인 각사자(覺師子)가 지은 것을 안혜가 종합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서, 법상종에서 중요한 논서로 여기는 책이다. 유가십지론(瑜伽十支論)의 하나로 꼽힌다.

35) 명구문(名句文): 일체 존재를 5가지로 분류한 오위(五位) 중 색법도, 심법·심소법도, 무위법도 아닌 것을 말하는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종에 속하는 것들. 문(文, ㉔vyañjana, 便膳那, 자음)은 개개의 성음을 말하며, 명이나 구의 소의가 될 뿐 그 자체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명(名, ㉔nāman, 那摩, 단어)은 문의 연속으로 구성되는 사물의 명칭이다. 구(句, ㉔pada, 鉢陀, 문장)는 명을 연결하여 완전히 정리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장구(章句)를 말한다.

36) “열아홉째, 법이 인연하는 바이니, 성인의 가르침의 명구문의 신이다.”(『大乘阿

(中邊論)<sup>37)</sup>에서 이르기를, “요체를 드러내는 부분은 곧 열 가지 뜻을 밝히는 것이니 요체가 곧 중지여서 (중략) 말하기를, 경의 요체에 두 가지가 있으니 글[文]과 뜻[義]이다.

云 總辨卽二家說. 謂江南諸師, 多作是說. 約所詮義辨宗體云, 宗卽體 體卽宗, 宗體無別故. 今唐世諸師云, 教名爲體, 義名爲宗, 故宗體不同. 此說各有得失. 謂若如初說者, 法義二無礙境, 應同故, 謂論云 法無礙緣名等, 義無礙緣所詮故. 若如後說者, 契經體性, 應非義故, 若爾者 便違論文及義故. 初義義中生解究竟門, 後義教義中令差別門故, 亦名共得.

然則今辨教宗體, 自有二門. 一教義別性, 卽宗體不同, 謂教名體, 義名宗. 二文義同用門, 卽宗體無異, 謂義亦教, 教以宗體無異故. 對法論云, 法所緣者, 謂名句文身, 宗卽體故. 舊中邊論云, 顯體分卽所詮十義, 體卽宗以□□□ 云 經體有二, 一文二義.

毘達磨雜集論』 권5 大T31 p.715b3. 十九法所緣, 謂聖教名句文身.)

- 37) 『중변론(中邊論)』: ㉔Madhyānta-vibhāga-tīkā. 미륵(彌勒)이 지은 『변중변론송(辯中邊論頌)』에 대해 세친(世親)이 주석한 책. 진의 진제(眞諦)가 번역한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2권과 당 현장(玄奘)이 번역한 『변중변론(辯中邊論)』 3권이 있는데, 두 가지 번역의 전승이 같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다. 모두 대정신수대장경 제31권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구중변론(舊中邊論)’이라 하였으므로 진제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 대립하는 2변(邊)을 지양한 중도(中道)의 의미를 분별해서 논한다. 중변이란 2변의 중간이라는 뜻이다. 모든 법은 자성이 없지만 무(無)라고는 할 수 없다. 이를 유변(有邊)이라고 한다. 또 모든 법은 무자성이므로 모두 공이다. 이를 무변(無邊)이라고 한다. 변중변이란 이 2변에 대해서 중도를 설하는 것이다.

## 2) 별도로 경의 종지를 드러냄[別顯經宗]

다음에 별도로 경의 종지를 드러내는 것[別顯經宗]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이 경이 삼매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도솔천에 나서 미륵을 보기를 원하는데 삼매가 아니면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비록 선정을 수행하였어도 관심(觀心)이 없으면 성취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관심(觀心)을 설하여 종지로 삼아야 하니, 『미륵상생경』의 끝 글에서 “이러한 관(觀)하는 것을 바른 관[正觀]이라 하고 다른 관은 삿된 관[邪觀]이라고 한다.”<sup>38)</sup>라고 하였다. 또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곧 제목에서 ‘관’이라고 한 뜻과 어긋난다. 마지막 하나는 앞의 의견이 모두 이치를 다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定)은 욕계(欲界)의 인(因)이 아니고 관(觀)은 구하는 바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땅히 바른 인과를 종지로 삼아야 하니 후자의 설이 낫다.

그런데 이 중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미륵께서 도솔천에 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바르게 드러낸 것으로 『미륵상생경』의 본 뜻을 볼 수 있

---

38)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와 일체 대중이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하늘에 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무상의 보리심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이니, 미륵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 관법을 배울지니라. 이 관법을 짓는 자는 마땅히 오계와 팔계, 구족계를 받아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여 번뇌 끊기를 구하지 않고 열 가지 선한 법을 닦아 도솔천상의 최상으로 미묘한 쾌락을 일일이 사유할지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다르게 관하는 것을 사관이라 이름하느니라.’” (『佛說觀彌勒上生兜率天經』 大14 p.419c04~10. 佛告優波離, 若有比丘及一切大眾, 不厭生死, 樂生天者, 愛敬無上菩提心者, 欲爲彌勒作弟子者, 當作是觀. 作是觀者, 應持五戒八齋具足戒, 身心精進, 不求斷結, 修十善法, 一一思惟兜率陀天上妙快樂. 作是觀者, 名爲正觀, 若他觀者, 名爲邪觀.)

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살과 중생이 바른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을 중지로 삼았다. 『미륵상생경』에서 “이를 도솔천이라고 하니, 열 가지 선한 응보의 뛰어나고 미묘한 복을 누리는 곳이다.”<sup>39)</sup> 라고 한 것은 보살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 다음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여섯 가지 일<sup>40)</sup>을 수행하면 그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sup>41)</sup> 라고 한 것은 중생의 원인과 결과를

39)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도솔천이라 이름한다. 열 가지 선한 응보의 뛰어나고 미묘한 복을 누리는 곳이다. 만약 내가 한 소집 동안 세상에 머물러서 널리 일생보처보살의 응보와 열 가지 착한 과보를 설할지라도 다 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간략히 해설하여 주노라.’”(『佛說觀彌勒上生兜率天經』大14 p.419c01~04. 佛告優波離, 此名兜率陀天, 十善報應, 勝妙福處, 若我住世一小劫中, 廣說一生補處菩薩, 報應及十善果者, 不能窮盡. 今爲汝等, 略而解說.)

40) 여섯 가지 일: 『미륵상생경』에서 말하는 도솔천에 태어나기 위해 닦아야 하는 공덕 중 상품(上品) 왕생자가 닦아야 하는 여섯 가지 이행. 규기는 공덕을 부지런히 닦음[勤修功德], 위의를 빠뜨리지 않음[威儀不缺], 탐을 청소하고 땅을 쓸[掃塔塗地], 향화를 공양함[香花供養], 삼매를 바로 받음[三昧正受], 경전을 독송함[讀誦經典]의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 (『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 권하 大38 p.295b22~c3. 六事法者, 一精勤修福敬恩悲田中所作業等, 二威儀不缺堅守諸戒行自住軌則等, 三拂塔塗地修飾道場正理制多等, 四香花供養四事什物隨給濟等, 五凡夫行三昧聞思等定, 聖人入正受, 隨所得禪或凡三昧非六行定, 六行定者必上生, 故深住聞思亦名三昧, 六讀誦經典演說修習十法行等, 且舉偏勝易行, 上首有此六事, 其中一一具攝衆業, 若具修六或能修五上上品生, 若修三四上中品生, 若修一二上下品生.) 경홍은 이와는 다르게 첫째의 공덕을 닦는 것은 나머지 전체에 해당하는 총론으로 보고 여섯째 독송을 독(讀)과 송(誦)으로 나누어 여섯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상품상생자는 5~6가지, 상품중생자는 3~4가지, 상품하생자는 1~2가지를 닦아야 한다고 한다. (『三彌勒經疏』 韓2 p.99a12~23.) 이에 비해 중품 왕생자는 환희심·공경하는 말·예배신 등의 세 가지 행업(行業)을 닦고, 하품 왕생자는 참회·명칭을 들음·형상을 만듦·향 공양·꽃 공양·의복 공양·화개 공양·깃발 공양·번 공양·몸은 항상 예배함·마음과 입으로 생각을 한곳에 집중함의 열한 가지를 닦는다.

41)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름하여 미륵보살이 염부제에서 생을 마치고 도솔천에 태어나는 인연이라 하느니라. 부처가 열반에 든 뒤에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제목 중에 ‘관’은 중생의 원인을, ‘생’은 보살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대략 비추어 서로 나타낸 것이다. 『미륵상생경』의 중지를 분별함은 이로써 마친다.

다음으로 두 가지 경의 중지를 분별한 것으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의보(依報)와 정보(正報)의 수인(脩因)을 생기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널리 구분하는 것으로 『미륵하생경』의 중지가 된다. (또 하나는) 국토와 아울러 부처님의 신묘한 덕과 중생이 부처님을 뵈는 인연을 널리 드러내는 것으로 『미륵성불경』의 중지가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의보와 정보 이보는 중생이 부처님을 보는 것은 두 경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마땅히 두 경이 모두 미륵이 일곱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교화한 것이라고 해야 하니, 그에 따라 지금 스스로 버린 과보를 얻는 것을 중지로 삼아야 한다.

次後別顯經宗者，三說。一云 此經以三昧爲宗，謂願生兜率得見彌勒，自非三昧不成就故。一云 不然，若雖脩定，而若無觀心，都無所就故，應說以觀心爲宗。故經下文云，若作是觀，名

---

내 제자들이여 만약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위의를 빠뜨리지 않고, 탐을 청소하고 땅을 쓸고, 여러 좋은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여러 삼매를 수행하여 깊이 선정에 들어가고, 경전을 독송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지극한 마음 이어서 비록 번뇌를 끊지 못했더라도 육신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리라.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미륵보살을 부르며, 이들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여덟 가지 재계를 받아 깨끗한 수행을 하고, 큰 서원을 일으킨다면, 목숨을 마친 후에 마치 장사가 팔을 한번 펴는 짧은 순간에 곧 도솔천에 왕생하리라.”(『佛說觀彌勒上生兜率天經』大14 p.420a08~17. 佛告優波離，是名彌勒菩薩，於閻浮提沒，生兜率陀天因緣。佛滅度後，我諸弟子，若有精勤修諸功德，威儀不缺，掃塔塗地，以衆名香妙花供養，行衆三昧深入正受，讀誦經典，如是等人，應當至心，雖不斷結，如得六通。應當繫念佛形像，稱彌勒名，如是等輩，若一念頃受八戒齋，修諸淨業，發弘誓願，命終之後，譬如壯士屈伸臂頃，即得往生兜率陀天。)



爲正觀，若他觀者，名爲耶觀。又若不許，便違題目云觀義故。一云 前說皆未悉理，謂定非欲界因故，觀非正所求故。應說卽以依正因果爲宗，後說爲勝。

然此中三說，一云 唯以衆生生天，見聖因果爲宗，謂人生天，天得不退轉，是經大意故。一云 正顯彌勒生兜率令益衆生，乃見經本意故。一云 卽以菩薩及衆生，依正因果爲宗，謂經云 是名兜率陀天，十善報應勝妙福處者，卽顯菩薩因果也。又下云 佛諸弟子，脩行六事，卽生彼天者，顯衆生因果，然題目中，觀言衆生因之，生言表菩薩果者，影略互顯也。上生經辨宗已竟。次辨二經宗者，有二說。一云 廣辨依正報及欲生脩因，以下生經爲宗，廣顯國土并佛神德，及以衆生見佛因緣，成佛經爲宗。今云不然。謂依正二報，衆生見佛，二經皆同故。應說二經，皆以彌勒七相，教化衆生，隨其所應，今得自棄之果爲宗。

### 3. 경전 대본의 단역과 중역[經本單重]

세 번째 경전 대본의 단역(單譯)과 중역(重譯)이다. 이중에 먼저 단역본인지 중역본인지를 분별하고[辨單重], 다음에 그 진위를 분별한다.[辨眞僞]

第三經本單重者. 此中先辨單重, 後辨眞僞.

#### 1) 단역본인지 중역본인지를 분별함[辨單重]

단역본인지 중역본인지에 관해서는 『미륵상생경』은 8장 분량으로 북량(北凉)<sup>42)</sup> 저거사(沮渠叒) 안양후(安陽侯)<sup>43)</sup>가 번역하였다. 『미륵하생경』은

9장 분량으로 진(晉)<sup>44)</sup> 승성(承聖) 3년에(554) 구마라집(鳩摩羅什)<sup>45)</sup>이 예장(豫章) 보인사(寶因寺)에서 번역하였다.<sup>46)</sup> 『미륵성불경』은 17장 분량으

42) 북량(北凉): 397년에 흉노(匈奴)의 저거몽손(沮渠蒙遜)이 후량(後凉)의 단업(段業)을 웅립하여 감숙(甘肅)에 세운 나라. 중국의 오호 십육국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단업을 죽이고 독립하였으나 439년에 북위(北魏)에 멸망하였다.

43) 안양후(安陽侯): ?~464. 북량의 왕 저거몽손의 사촌 아우. 흉노 사람으로 안양후(安陽侯)에 봉해졌다. 어렸을 때 승려들과 교유했고 우전국에 가서 구마제대사(嚧摩帝大寺)에서 불타사나(佛陀斯那)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안양후는 그에게 『선요비밀치병경(禪要祕密治病經)』을 받았고 뒤에 하서(河西)로 돌아왔다. 번역한 경전은 『선요비밀치병경』·『팔관재경(八關齋經)』·『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등 16부 17권이다.

44) 승성 연간은 진이 아닌 양(梁)의 연호이다.

45)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 ㉔Kumārajīva. 동수(童壽)라고 의역한다. 쿠차국(龜茲國) 출신으로 동진에 와서 활동한 고승으로 중국 역경상 현장과 쌍벽을 이루는 2대 역경가의 한 사람이다. 7세에 불교 공부를 시작하여 인도에 가서 여러 스승에게 배웠다. 고국에 돌아와 왕사가 되어 활동하자 전진왕의 부견(苻堅)이 그 명성을 듣고 여광(呂光)을 보내 초빙하게 하였는데, 도중에 부견이 패망하자 여광이 나라를 세워 구마라집은 양주(涼州)에서 16,7년 동안 지냈다. 후진의 요흥(姚興)이 여광을 물리쳐 구마라집은 401년에 동진의 장안에 들어와 국사의 대접을 받으며 역경 활동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중론』·『백론』·『십이문론』의 삼론을 번역한 이래 『반야경』·『법화경』·『대지도론』·『아미타경』·『유마경』·『십송률』 등 수많은 경론을 번역하였다. 그 수는 『개원석교록』에는 74부 384권이라 하였다. 구마라집은 산스크리트와 중국어 등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여 경론의 내용을 간결한 문체에 유창하게 옮겨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녀 그의 번역서는 후세에 널리 애용되어 읽혔다. 용수 계통의 중관학파의 학설을 소개하고 이를 제자들이 남방에 전파하여 삼론종의 원천이 되는 등 중국불교의 사상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그가 한역한 경론들은 천태종이나 정토 계통 그리고 미륵신앙이나 대승계율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하에는 4성으로 불리는 승조(僧肇), 도생(道生), 도융(道融), 승예(僧叡) 등 많은 명승들이 나와 활동하였다.

46) 이 기사는 진제(眞諦)가 번역한 『미륵하생경』을 구마라집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 승성은 양나라의 연호이므로 구마라집과 연대도 맞지 않는다. 보인사는 보

로 서진(西晉)<sup>47)</sup> 축법호(竺法護)<sup>48)</sup>가 번역하였다. 후진(後秦) 홍시(弘始)년 간에 구마라집이 『미륵하생경』 6장 분량을 번역하였으나 『미륵수결(彌勒受決)』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번역하고 『미륵성시경(彌勒成時經)』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3장 짜리 경으로서 문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의 본에 의존한다. 17장 분량인 『미륵성불경』과 6장 분량인 『미륵하생경』과 3장 분량인 『미륵성시경』은 홍시 4년(402)에 번역되었다.

두 번째로 송의 경전 목록에서 17장 분량인 『미륵성불경』과 6장 분량인 『미륵하생경』과 3장 분량인 『미륵성시경(彌勒成時經)』<sup>49)</sup>은 같은 원본을 다르게 번역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홍시경(弘始經)<sup>50)</sup>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

전사(寶田寺)라고 기록되기도 한다.(『大唐內典錄』 권4 大55 p.266a23. 彌勒下生經〈承聖三年於豫章寶田寺出是第二譯〉; 『大周刊定衆經目錄』 권4 大55 p.396a22 등)

47) 서진(西晉): 진(晉)나라 무제(武帝)로부터 민제(愍帝)에 이르는 52년간의 국호. 도읍인 낙양(洛陽)이 동진(東晉)의 도읍지인 건강(建康)에서 서쪽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는 데에서 나온 말임. 후한(後漢)이 202년에 멸망한 후 위(魏)·오(吳)·촉(蜀)의 삼국시대가 전개되고, 위의 장군 출신인 사마염(司馬炎)이 265년에 진을 건국하여 280년에 삼국을 통일하였다. 316년 북방의 유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48) 원문의 입(竺)은 축(竺)의 오자. 축법호(竺法護): 231~308? 대월지국(大月氏國) 출신. 범명(梵名) 다르마라사(Dharmarakśa). 8세에 출가하여 외국의 훌륭한 사문들을 스승으로 하였으며, 여러 나라를 편력하여 36개 국어에 통하였다. 서진(西晉) 시대에 범어로 된 불전을 가지고 장안·낙양으로 와서, 266~308년에 걸쳐 그 한역(漢譯)에 몰두하는 한편, 교화에도 힘을 기울여 둔황보살(敦煌菩薩)로 불리며 이름을 떨쳤다. 『출삼장기집』에 의거하면 대승경전 154부, 309권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49) 『미륵성시경(彌勒成時經)』은 『미륵래시경(彌勒來時經)』의 잘못된 표기이다. 이 내용은 『중경목록』에 나온다. (靜泰, 『衆經目錄』 권2 大55 p.191c7~11. 彌勒成佛經一卷(十七紙) 晉世竺法護譯, 彌勒下生經一卷(一名彌勒授決經 六紙) 後秦弘始年羅什譯, 彌勒來時經一卷(三紙 闕本訪得), 右三經同本異譯.)

50) 홍시경(弘始經): 후진 홍시 연간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미륵성불경』. 미륵 관계 경전의 번역 목록을 보면, 수(隋) 법경(法經)의 『중경목록(衆經目錄)』

17장, 6장, 3장 분량의 것은 축법호의 번역(『미륵성불경』)과 대동소이하다. 『이진록(二秦錄)』<sup>51)</sup>을 보면 장안의 승려 도표(道標)가 『미륵성불경』을 번역하였는데, 이는 세 번째 번역이다. 제(齊)나라 강주(江州)<sup>52)</sup>의 사문 도정(道政)은 그 뒤 다시 앞뒤를 잘라 『미륵성불경』이라고 이름하고 또 『미륵하생경』이라고 하였는데 그 경의 앞에 ‘대지사리불(大智舍利弗)’이라는 구절이 있다. 있다. 규기(窺基)대사가 말하기를 “『미륵하생경』은 2가지 본이 있다. 대본에는 ‘여시아문(如是我聞)’의 구절이 있으니 이는 진나라 때의 축법호의 번역이다. 소본은 ‘대지사리불’의 구절이 있으니<sup>53)</sup> 이는 진나라<sup>54)</sup>의 구마라집의 번역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번역자가 다르다.’라고 하였다.”<sup>55)</sup> 규기대사가 말하기를 “대본은 3 분과가 있으나 서분(序分)이 없는

에는 4중(大55 p.119a14~18. 彌勒成佛經一卷 晉世竺法護譯, 彌勒成佛經一卷 後秦弘始年羅什譯, 彌勒受決經一卷(一名彌勒下生經) 後秦弘始年羅什譯, 彌勒當來生經一卷. 右四經同本異譯), 수 연중(彦琮)의 『중경목록』에 2중(大55 p.156c28~157a2. 彌勒成佛經一卷 晉世竺法護譯, 彌勒下生成佛經一卷(一名彌勒受決經) 後秦弘始年羅什譯, 右二經同本異譯.), 당 정태(靜泰)의 『중경목록』에 3중(大55 p.191c7~11 彌勒成佛經一卷(十七紙) 晉世竺法護譯, 彌勒下生經一卷(一名彌勒授決經六紙) 後秦弘始年羅什譯, 彌勒來時經一卷(三紙闕本訪得), 右三經同本異譯.) 등이 수록되었다.

- 51) 『이진록(二秦錄)』: 구마라집의 제자인 승예(僧叡)가 편찬한 경전 목록.
- 52) 강주(江州): 진(東晉)이 설치했던 지방 고을.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남창현(南昌縣)이 두었다가 호북성(湖北省) 무창현(武昌縣)으로 옮기고 다시 강서성 구강현(九江縣)으로 옮겼다.
- 53) 구마라집 번역의 『불설미륵하생성불경』이 대지사리불로 시작한다. “대지사리불은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는 것을 능히 수행하는 불법의 대장이라” (『佛說彌勒下生成佛經』 大14 p.423c8. 大智舍利弗, 能隨佛轉法輪, 佛法之大將.)
- 54) 경흥은 규기가 진(晉)이라고 잘못 기술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구마라집은 후진(後秦)이므로 진(秦)이 맞다.
- 55)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 권상 大38 p.278b3~7. 下生經中大卷有如是我聞者, 晉時竺法護所翻. 小卷云大智舍利弗無如是我聞者, 是晉時羅什所譯. 古人解云, 小卷者阿含中出, 大者別坐所說. 又解, 翻者有異其實一本.

것은 송(頌)을 줄인 것일 뿐이다.”<sup>56)</sup>라고 하였다.

총괄하여 말하면, 처음의 하나(『미륵상생경』)는 단행본이고 뒤의 두 가지(『미륵하생경』과 『미륵성불경』)는 중역본이다. 『미륵하생경』은 두 번 번역되었고, 『미륵성불경』은 세 번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言單重者，上生經八紙者，北凉沮渠舍安陽侯譯，下生經九紙者，晋承聖三年羅什於豫章寶因寺譯，成佛經十七紙者，西晋竺法護譯。後秦弘始年羅什，譯下生經六紙，然名彌勒受決，又別人譯名彌勒成時經。然三紙，詞謂不備，故存前本。此云十七紙成佛經，六紙下生經，三紙成時經者，弘始四年譯。第二出宋錄云，十七紙成佛經，六紙下生經，三紙成時經，同本異譯，然不言弘始經。此十七紙六紙三紙者，與法護譯大同小異。見二秦錄，長安釋道標，譯成佛經，是第三譯也。齊世江州沙門道政，更後復斷首尾，名成佛經，又謂下生經，而其經首有大智舍利弗也。基師云 下生經自有二本，大卽有如是我聞，是晋時竺法護譯，小卽有大智舍利弗，是晋時羅什譯也。古云 翻人有異。基師云 大卽其三分，然無序分者，是略頌耳。總而言，初一卽單本，後二卽重本，謂下生經再譯故，成佛經三譯故。

## 2) 진위를 분별함[辨眞僞]

뒤는 진위를 판별하는 것[辨眞僞]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은 모두 진짜이고 위경(僞經)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문의 판별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지금 논란의 이유와 논란이 발생한 것을 적는 것은 다시 관련된 뜻을 말하

56)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 권상 大38 p.278b7~9. 今大師云，大者有三分無結集本，其小卷無序分者，是略偈頌，卽二藏中菩薩藏攝，非聲聞也。

려는 것이다.

묻는다. 이 세 가지 경은 대승에 속하는가 소승의 가르침인가?

답한다.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이 세가지 경이 모두 『아함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 소승에 속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범부의 모습을 갖추고 여러 가지 번뇌를 끊지 못했다는 등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륵상생경』은 대승에 속한다는 것이다. 경에서(『미륵상생경』에서) “몸에 두루 빛이 있는 가운데 수능엄삼매가 있다”<sup>57)</sup>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경은 모두 소승에 속하니 『미륵하생경』은 『증일아함경』에서 나왔고 『미륵성불경』은 『장아함경』에서 나와서 글의 뜻이 천박하여 작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셋째는 앞의 견해들은 모두 이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 세 가지 경이 모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륵상생경』에서 먼저 발타파라(跋陀婆羅)나 문수(文殊) 등을 설하였고<sup>58)</sup> 또 육시(六時)<sup>59)</sup>에 항상 물리남이 없는 행동을 설하였고,<sup>60)</sup> 5백억 천인이 위 없는 깨달음에서 물리나지 않는다고 설하였기 때문이다.<sup>61)</sup> 우바리

57) 『불설관미륵상생도솔천경』 大14 p.419c19

58)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빛을 비추시자 여러 존자들이 부처님께로 온다는 내용 중에 “다시 이름이 발타바라이신 대보살이 있었으니 그 권속 16보살과 함께였고, 문수사리범왕자가 있었으니 그 권속 5백보살과 함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14 p.418b20~21. 復有菩薩摩訶薩, 名跋陀婆羅, 與其眷屬十六菩薩俱, 文殊師利法王子, 與其眷屬五百菩薩俱.)

59) 육시(六時): 하루 밤낮을 여섯 시간대로 나눈 것. 새벽 아침[晨朝], 한낮[日中], 해질녘[日沒]의 낮 삼시와, 초저녁[初夜], 한밤중[中夜], 후야(後夜)의 밤 삼시를 합쳐 하루가 된다.

60) 부처님께서 미륵에 관하여 우바리존자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미륵은 “주야육시로 항상 물리남이 없는 범륜의 실천을 설하느니라”고 하였다.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14 p.420a3~4. 晝夜六時, 常說不退轉地法輪之行.)

61) “한 때를 지나가는 가운데 오백억이나 되는 천자로 하여금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리나지 아니하게 하나니.”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14

의 몸이 하위에 처해 있어 이해한 것이 국한되어 자기가 안 바로 물음을 내어 범부신을 갖추었다.

『미륵하생경』은 상등(常等)의 덕(德)을 밝히는데, 상등의 뜻은 열반경과 같기 때문이다. 또 『증일아함경』은 전진(前秦) 건원(建元) 연간에 담마난제(曇摩難提)가 번역했고, 『미륵하생경』은 후진 홍시연간에 구마라집이 번역했으므로 『증일아함경』에서 나올 수 없다.

또 『미륵대성불경』에서 “세 번 법을 설하여 이승의 불과를 얻어 위 없는 바른 깨달음[無上正等正覺]<sup>62)</sup>의 마음을 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살의 무리는 생략하여 나열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세 가지 경이 모두 대승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묻는다. 돈교(頓敎)와 점교(漸敎)의 뜻은 어떠한가?

답한다.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미륵상생경』이 돈교에 속한다는 것으로, 불가사의한 여러 다라니와 수능엄삼매 등은 이승(二乘)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 경(『미륵상생경』)이 점교에 속한다는 것으로, 사람과 천인과 팔부중이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보니 후자의 설이 낫다. 여러 비구 등이 모두 교화의 이로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경의 뜻도 같다고 할 수 있다.

p.420a4~6. 經一時中, 成就五百億天子, 令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62) 위 없는 바른 깨달음[無上正等正覺]: 부처가 증득한 깨달음. ⑤anuttara-samyak-sambodhi, 아녹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소리나는 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각(覺)·정각(正覺)·정등각(正等覺)·무상각(無上覺)·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구경각(究竟覺)·정변지(正遍知) 등으로 쓰기도 한다. 부처가 사체의 진리를 모두 깨달아 일체 제법실상의 도리를 알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래를 부르는 십대 명호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녹다라’라는 말은 ‘위 없는’의 뜻이며, ‘삼막삼보리’는 ‘바르게 두루 아는’라는 뜻이다. 부처가 깨달은 지혜는 평등하고 원만하며 지극히 높기 때문에 ‘위 없는’이라고 하며, 그 도는 두루하여 포용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두루 아는’이라고 한다.

後辨眞僞者，如是三經，皆眞而非僞。此辨第三門已竟，然今置因論生論，更談傍義。

問 此三經爲大乘攝，爲小乘教？

答 有三解。一云，此三經皆出阿含，故皆小承攝。若不爾，便違具凡夫身未斷諸漏等義故。一云，上生經大乘攝，經云 身圓光中有首楞嚴三昧故，餘二經，皆小乘攝，謂下生經從增一出，成佛經從長阿含出，文義淺薄，得小果故。一云，前說皆未盡理，三經皆有大小異故。謂上生經中，先說謂跋陀婆羅文殊等，亦得六時常說不退轉行，五百億天人不退於無上覺故。優波離身處下位，所解局路，以己所知作此問具凡夫身等。下生經辨常等德，辨常等義，同大涅槃故。又增一阿含經，前秦建元年曇摩難提譯，下生經，後秦弘始年羅什譯，必不可出之增一經故。又大成佛經云，三會說法，皆得二乘果，發無上正等覺心故。故菩薩衆，略不列耳。是故當知，三經皆大乘理不疑。

問 頓漸其義云何？

答 二說。一云 上生經頓教攝，以不思議諸陀羅尼首楞嚴定等，非二乘所得故。一云 此經漸教攝，以人天八部，願生彼天故。今且後說爲勝，以諸比丘等皆蒙化益故。餘二經義，亦可同也。

#### 4. 문장에 따라 해석함[隨文解釋]

##### ○ 미륵의 하생 시기

[경]

(미륵보살이) 여러 천자와 함께 각자 꽃자리에 앉아 밤낮으로 항상 물리



남이 없는 법륜의 실천을 설하여, 한 때에 5백억 천자들이 아녹다라삼막삼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셨다. 이와 같이 도솔천에 계시면서 주야로 항상 이 법문을 설하시어 여러 천자들을 제도하셨다. 염부제의 햇수로 56 억만 세가 되면 그 때 염부제에 내려와 태어날지니 이는 『미륵하생경』에 설한 것과 같다.<sup>63)</sup>

與諸天子各坐花座，晝夜六時常說不退轉地法輪之行，經一時中成就五百億天子，令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如是處兜率陀天，晝夜恒說此法，度諸天子。閻浮提歲數五十六億萬歲，爾乃下生於閻浮提。如彌勒下生經說。

[요간기]

경전에서 말한 “염부제의 햇수로” 이하는 셋째<sup>64)</sup> 하늘에 머무는 수명[住天壽量]이다.

염부제(閻浮提)는 잘못된 것이니 지금 말하면 섭부(贍部)인데, 이 나무 이름을 따른 것이다. 이 염부제 세상에서 400세는 도솔천의 하루 낮 하루 밤에 해당한다. 30일이 한 달이 되고 열 두달이 1년이 되며, 도솔천에서는 수명이 4000세이다. 미륵<sup>65)</sup>이 천수를 다하고 하생하여 일찍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sup>66)</sup> “염부제 햇수로 하면 56억 7천만세가 된다”<sup>67)</sup> 고 하

63)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大14 p.420a3~8.

64) 여기서 말하는 셋째는 수문해석(隨文解釋)의 제2 성교소설분(聖敎所說分) 중 제2 광현내과장엄승(廣顯內果莊嚴勝)에서 첫째 발청(發請)에 이은 둘째 광답(廣答)의 4분과 중 첫째 차몰(此沒)과 둘째 생피(生彼)에 이은 셋째이다. 해제의 구조도 참조.

65) 원문의 자씨(慈氏)는 미륵을 말함.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보살로 부른다.

66) 중국 법상종의 완성자인 규기(窺基)는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觀彌勒上生兜率

였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sup>68)</sup> 제4권과 『입세경(立世經)』<sup>69)</sup> 제7권, 『비바사론(毗婆娑論)』<sup>70)</sup> 등에서 이 세상의 4백년이 저 도솔천의 하루가 된다고

天經贊)에서 경전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이 세상에서 4백세는 도솔천에서는 1일1야와 같다. 도솔천은 30일이 한 달이고, 12달이 1년이며, 도솔천의 수명은 4천세이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의 수명을 다 하고 그때 하생하셔서 중간에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마땅히 염부제의 56억만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 권하 大38 p.294c21~24. 此間四百歲, 當彼天中一日一夜類. 彼三十日爲一月, 十二月爲一年, 彼天壽四千歲. 慈氏窮彼天壽, 而方下生, 不中夭. 故此經云, 當閻浮提五十六億萬歲者.) 경홍의 이 부분은 규기의 이 글을 인용한 것이다.

- 67) 위에 제시한 경문에서 보는 것처럼 『미륵상생경』 경문은 56억만세이다.
- 68)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미륵(彌勒)이 강술하고 무착(無着)이 기록하였다고 하는 논서. ㉔Yogacārabūmī, 300~350년 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유가학파의 기본 논서로서 법상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논서이다. 대정신수대장경 제30권에 수록. 『유가론(瑜伽論)』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기록자인 무착이 강술한 자인 미륵이 도솔천에서 중천축 아유타국의 강당에 내려와 설법한 사정과 거기서 설한 유가행관법, 근본 심식인 아뢰야식, 그리고 중도에 깨달아 들어가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불교사상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 논에서는 유가행자들이 실천하는 17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십칠지론(十七地論)』이라고도 부른다. 당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100권본이 가장 저명하며, 이밖에 북량 담무잡이 번역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0권본, 송 구나발마가 번역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9권본, 양 진제가 번역한 『결정장론(決定藏論)』 3권본 등은 일부 번역본들이다.
- 69) 『입세아비담론(立世阿毘曇論)』: 진(陳) 진제(真諦)가 번역한 소승 논부 경전의 하나. 10권으로 대정신수대장경 제32책에 수록. 불교의 우주관을 해설한 논서로 수미산(須彌山, ㉔Sumeruvāda)을 말하고, 세계의 성립과 세간의 모습을 설명한다. 대승과 공통되는 법문도 포함하고 있으며 제천과 지옥 및 겁의 수량 등을 말하고 있다. 『장아함경』의 세기경(世記經)이나 『구사론(俱舍論)』세간품 등의 내용과 비슷하다.
- 70)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㉔Abhidharma-mahāvibhāṣā-śāstra, 200권으로 당 현장(玄奘)이 번역함. 대정신수대장

하였으니, 이 계산으로 하면 도솔천의 4천년은 마땅히 이 세상의 5,760억세가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경과 다른가?<sup>71)</sup>

규기(窺基)<sup>72)</sup>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치로 미루어 살펴보니, 인간 세상

경 제27책에 수록.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의 내용을 크게 밝힌 것으로 서기 100년~150년 경에 카슈미르지방에서 편집된 것으로 추정한다. 부파불교 교리를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카니쉬카왕 시대에 협존자(脅尊者, Pārśva)가 5백 아라한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파불교의 교의를 광범위하게 모아 대승불교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 71) 규기도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에서 똑같은 경론을 들고 있다. “『유가사지론』 제4와 『입세경(立世經)』 및 『비바사(毗婆娑)』 등에 의해 계산하면 이 세상의 400년이 저 도솔천의 하루가 되고 이곳의 4000년은 도솔천의 10일, 이곳의 4만년은 도솔천의 100일이 되니, 도솔천의 1년은 마땅히 이곳의 14만 4천세가 되어야 하며, 도솔천의 10년은 이곳의 144만세가 되어야 하고, 도솔천의 100년은 이곳의 144억세가 되어야 하고, 도솔천의 천년은 이곳의 1440억세가 되어야 하고, 도솔천의 4천세는 이곳의 5760억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문과 같지 않다.” (『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 권하 大38 p.294c24~295a2. 依瑜伽論第四及立世經毘婆沙等計, 此間四百歲爲彼一日, 此四千歲爲彼十日, 此間四萬歲爲彼百日, 彼天一年當此一十四萬四千歲, 彼天十年當此一百四十四萬歲, 彼天百年當此一百四十四億歲, 彼天千年當此一千四百四十億歲, 彼天四千歲當此五千七百六十億歲, 卽與經文不同.)

- 72) 규기(窺基): 632~682. 현장에 이어 중국 법상종(法相宗)을 완성한 이. 장안(長安) 출신으로 성은 율지(尉遲)씨이고 자는 홍도(洪道)이다. 그냥 기법사(基法師)라고도 불리웠고, 자은종(慈恩宗)의 조사라는 뜻에서 자은(慈恩)대사로도 불리웠다. 17세에 출가하여 현장의 제자가 되어 자은사(慈恩寺)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현장에게서 산스크리트어와 경론을 배웠다. 25세부터 역경에 참여하여 659년에 현장을 도와 『성유식론(成唯識論)』을 번역해 내고, 현장은 그를 위해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과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을 설해 주었다. 이후 규기는 현장이 번역한 『변중변론(辯中邊論)』 등 다수의 경론에 주석서를 썼다. 저술이 매우 많아 백본(百本)의 소주(疏主)라고 불리웠다. 저술로는 『법원의림장(法苑義林章)』, 『유가론찬석(瑜伽論略纂)』 등 유가 저술이 많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륵 경전에 대해서도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 2권을 지었다.

의 4백세는 저곳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니, 헤아려보면 도솔천의 4천세는 인간 세상의 5억 6만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방의 억(億)에 두 종류가 있으니<sup>73)</sup> 첫째는 십만이 억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백만이 억인 것이니, 계산하면 서로 맞다. 그렇다면 이 경에서 ‘억’자 위에 ‘7’자를 더해야하고, 그 앞의 ‘6’자는 ‘만’자 위에 두어야 이치가 바르게 된다. 아마도 범본(梵本)에서 차이가 있거나, 또는 번역가들 스스로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1억5만세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해를 세는 것은 네가지 글이 같지 않다. 『현겁경(賢劫經)』<sup>74)</sup>에서 ‘미륵은 5억 76만세에 하생하여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해석하면, 5억이라고 한 것은 50억이니, 천만을 억으로 하면 50억이 되고, 만만을 억으로 하면 5억이 되기 때문이다.<sup>75)</sup> 70만이라고 한 것은 7억이니, 십만을 억으로 하기 때문이다. 6만의 수도 마찬가지이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권본 『반니원경(般泥洹經)』에서 ‘1억 4천세다’라고 하였는데<sup>76)</sup> 지금 이 경전과 서로 맞지 않는다. 『일

73) 규기의 원문은 세 가지를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외의 다른 하나는 천만을 억으로 하는 것이다.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 권하 大38 p.295a9~11.)

74) 『현겁경(賢劫經)』: ㉔Bhadrakalpika-sūtra, 8권으로 대정신수대장경 제14권에 수록되어 있다. 서진 축법호가 300년에 모두 24장으로 한역하였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희왕(喜王)보살의 물음에 대해 여러 삼매와 그 공덕을 비롯하여 8만 4천 대승덕목과 부처의 뛰어난 공덕을 설하고, 현재 현겁에 출현하시는 천불의 명칭과 사시는 성읍과 부모, 제자와 수량 등을 설한 것이다. 부처의 명칭을 설한 여러 가지 불명경(佛名經) 중에서 가장 오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구마라집이 번역한 본도 있었다고 한다.

75) 이 구절에서 규기는 억에 대한 여러 견해 중 네 가지를 보여준다. ①십만이 억, ②백만이 억, ③천만이 억, ④만만이 억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경홍은 두 가지만 인용)에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말했는데, 천만설이 중복된다. 혹시 경홍은 이 중복을 의식하여 앞서 인용에서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조정하여 인용하였는지 모르겠다.

76)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여도 다시 보는 것은 어렵다. 도리어 1억 4000천 여세 이

체지광선인자심경(一切智光仙人慈心經)<sup>77)</sup>에서 ‘56억만세에 용화수 아래에 내려와 불도(佛道)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78)</sup> 뜻은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보살처태경(菩薩處胎經)<sup>79)</sup>과 『현우경(賢愚經)』에서는 ‘56억7천만세다’라고 하였는데,<sup>80)</sup> 6자를 없애고 7이라고 하고, 7자는 6이라

후에 마땅히 다시 미륵불이 계실 것이다.”(『般泥洹經』大1 p.188b13~15. 觀佛儀容, 難復得睹, 卻後一億四千餘歲, 乃當復有彌勒佛耳.)

77) 『일체지광선인자심경(一切智光仙人慈心經)』: 『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 분량 1권. 대정신수대장경 제3책에 수록. 가파리 바라문의 아들인 미륵의 본생담을 설한 경전이다. 옛날 미륵불이 모습을 나타내시어 승화부세계(勝花數世界)에 계시면서 『자삼매광대비해운경(慈三昧光大悲海雲經)』을 설하시고, 일체지광명바라문이 이 경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을 지송하기를 서원하면서 미래에도 성불하여 미륵으로 불리기를 원하였다. 후에 출가하여 8천년간 일심으로 이 경을 지송하였는데 연일 큰 비가 와서 숲속에서 탁발을 나가지 못하였다. 두 모자(母子)가 선인이 7일 동안 먹지 못한 것을 보고 법이 영구히 머물도록 불 속에 몸을 던져 소신공양(燒身供養)하자, 선인이 이를 보고 생생세세토록 살생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발원하며 역시 불에 투신하였다. 송경하던 선인이 곧 바라문의 아들인 미륵인데, 56억 7천만년 후에 미륵이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을 예언하였다는 내용이다.

78) “지금 이 무리 가운데 바라문의 아들인 미륵보살마하살이 그이다. 내가 열반한 후 56억만세에 상가전륜성왕의 국토의 화림원 가운데의 금강좌에 머무르며 용화 보리수 아래에서 불도를 이루고 미묘한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大3 p.458c16~19. 今此衆中, 婆羅門子彌勒菩薩摩訶薩是. 我涅槃後五十六億萬歲, 當於穰佉轉輪聖王國土華林園中, 金剛座處, 龍華菩提樹下, 得成佛道, 轉妙法輪.) 경홍은 50억만세라고 하였으나 경문은 56억만세라고 하였다.

79) 『보살처태경(菩薩處胎經)』: 『보살중도솔천강신모태설광보경(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을 말한다. “미륵이여 마땅히 알라. 너는 다시 수기를 받아 56억 7천만세에 이 나무 아래서 무상정등각을 이룰 것이다.”(『菩薩從兜術天降神母胎說廣普經』大12 p.1025c15~16. 彌勒當知, 汝復受記五十六億七千萬歲, 於此樹王下, 成無上等正覺.)

80) “인천에서 무궁한 복을 받고 미륵세존은 56억 7천만세가 되지 않아 이곳에 와

고 해야 한다. 천만은 백만을 1억으로 했기 때문에 6천만을 계산하면 60억이 된다. 뜻은 다르지 않아서 이와 같이 구명하면 잘못이 없다. 보살이 도리천에 있는 수명을 헤아리니 일찍이 중간에 빨리 죽지 않고 인간세계에 살고 있다.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에서는 ‘수명이 6만억세이다’라고 하였다.<sup>81)</sup> 하늘에서 그 수명을 다하고 인간에서 장수하는 것은 때에 적절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석가와 같지 않으니, 하늘에서 수명을 다하고 인간에서 일찍 입멸하니 교화의 공이 다했기 때문이다. 『보살처태경』에서 ‘미륵은 인간 세상에서 수명이 8만4천세이다.’라고 하였으니,<sup>82)</sup> 만약 그 글에 의하면 미륵으로 하여금 하생하고 성불하여 만물을 이익되게 하는 뜻이 있을 수 없다. 『미륵하생경』에서 ‘하늘의 이로움이 다하고 사람의 기쁨이 다시 여물기 때문에 하생한다.’고 한 것과 같다.”<sup>83)</sup>〈규기는 이와 같은 설을 말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sup>84)</sup> “『잡심론(雜心論)』에서는 ‘미륵보살이 인간

---

서 성불할 것이다.”(『賢愚經』大4 p.376a27~29. 當於人天, 受無窮福, 彌勒世尊 不久五十六億七千萬歲, 來此成佛.)

81) “미륵불은 세상에 6만억세 머문다.”(『佛說彌勒大成佛經』大14 p.434a16. 彌勒佛住世六萬億歲)

82) “미륵이여 마땅히 알라. 너는 다시 수기를 받아 56억 7천만세에 이 나무 아래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나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날 것이며 너 미륵은 정수리에서 태어날 것이니, 나의 수명 100세와 같고 미륵은 8만 4천세 일 것이다”(『菩薩處胎經』大12 p.1025c15~18. 彌勒當知, 汝復受記五十六億七千萬歲, 於此樹王下, 成無上等正覺. 我以右脅生, 汝彌勒從頂生, 如我壽百歲, 彌勒壽八萬四千歲.)

83)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 권하 大38 p.295a2~b3의 글을 적절하게 축약 인용하였다. 그런데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술찬(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述贊)』 卍21 p.819a11~b14의 부분이 이 『삼미륵경소』의 서술과 거의 같다.

84) 이 어떤 이(‘一云’)는 원효이다. 원효의 『미륵상생경종요』에서 역시 자신의 의도대로 필요한 부분만(雜心論云~彼四千耶) 인용하였다.(『彌勒上生經宗要』 韓1 p.550b1~c14.)

세의 57억 6백만세가 된 후에 염부제에 내려와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다.<sup>85)</sup> 『현우경』이나 『보살처태경』 또는 『일체지광선인자심경(一切智光仙人慈心經)』은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또 『정의경(定意經)』<sup>86)</sup>에서는 ‘미륵은 5억 76만세에 불도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천만으로 억을 삼는다면 57억 6백만세가 되니 『잡심론』의 내용에 해당한다. 만약 만만으로 억을 삼는다면 5억 7천 6백만세이니 『정의경』에 의거해서 말하면 76만세이다. 아래 계산은 단위가 잘못되었다. 7천이 7십이 되고 6백이 6이<sup>87)</sup>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3경에서 모두 5십여 억 등이라고 한 것은 천만을 억으로 한 것이다. 단지 번역가들이 번거로워서 늘이고 줄였을 뿐이다.

비록 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치에 다 맞지 못하여 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이성(二聖, 미륵과 석가)이 같지 않은 어려움이다. 만약 미륵이 백세 때에 도솔천에 올랐다가 8만세에서 줄어들 때 하생하면 중겁(中劫)<sup>88)</sup>에서 겨우 반겁(半劫)을 지난 것이다. 만약 석가가 사람의 수명이 1천

85) “인간 세상의 4백세는 도솔천상의 1일 1야가 된다. 이와 같이 날과 달과 해를 헤아리면 도솔천의 수명 4천세는 인간의 57억 6백만세가 된다.”(『雜阿毘曇心論』 권2 大28 p.887c2~4. 人間四百歲，爲兜率陀天上一日一夜。如是日月歲數，兜率陀天壽四千歲，人間五十七億六百萬歲.)

86) 『정의경(定意經)』: 『현겁정의경(賢劫定意經)』. 흔히 『현겁경(賢劫經)』이라 한다. ㉔Bhadrakalpika-sūtra, 서진 축법호(竺法護)가 한역.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희왕(喜王)보살의 물음에 답하여 설하신 것으로, 먼저 여러 삼매와 그 공덕을 설하고, 다음에 8만 4천 대승의 덕목과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설한 후 현재 주겁인 현겁 기간에 출현하는 천불의 이름과 사는 곳, 가족과 제자 등을 설하였다. 불명경(佛名經) 중에 가장 먼저 한역된 경으로 고형을 보여준다.

87) 원문은 ‘六百六十故’인데, 원효의 원문과 같이 ‘六百六故’라야 맞는다.

88) 중겁(中劫): 겁(劫, kalpa)은 무한히 긴 시간을 비유해서 말한다. 소겁과 중겁과 대겁이 있는데, 사람의 수명이 한번 늘어나고 한번 줄어드는 것을 1소겁(小劫)이라 한다. 경론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흔히 『대지도론』에 따라 8만세에서 백년에 1세씩 줄어들어 10세가 되고, 다시 10세에서 백년에 1세씩 증가하



2백세 때 상생하였다가 점점 줄어들어 10세에 이르렀다가 증가하여 8만세에 이르고 다시 줄어들어 1백세에 이르러 하생한다면 1겁을 지나게 된다. 이는 지위가 앞보다 높지만 모두 도리천에서 4천세가 인간에서 50여 억 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같다고 하겠는가? 둘째는 성교(聖敎)가 다른 어려움이다. 석가가 많은 죽음과 태어남을 지났고, 미륵이 거기에서 적은 죽음과 태어남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그 4천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또 세 가지의 억<sup>89)</sup>에 대해서 어떻게 회통할 것인가는 『불본행경(佛本行經)』<sup>90)</sup> 제38에서 “이라발용왕(伊羅鉢龍王)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어느 때에 이 용의 몸을 벗고 인간의 몸을 얻겠습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부터 몇 년, 몇 억년이 지난 후에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오분율(五分律)』<sup>91)</sup> 제15권에서 “같

---

여 8만세에 이르는 시간을 1소겁이라 한다. 20소겁을 1중겁이라 하는데 이 시간을 3만 3천6백만년이라고 헤아리기도 한다. 세계가 성립하고 지속되고 파괴되어 공허에 들어가고 다시 다른 세계가 차례로 성립 변화하는 성겁(成劫)·주겁(住劫)·괴겁(壞劫)·공겁(空劫)의 사겁(四劫)마다 각각 20중겁을 거친다고 하며, 이들 전체 80중겁을 1대겁(大劫)이라 한다.

89) 경홍의 이 해석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앞에 인용된 규기의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억에 대한 설명은 십만, 백만, 천만을 각각 억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규기는 천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 권하 大38 p.295a9~11. 西方有三億數, 一十萬爲億, 二百萬爲億, 三千萬爲億. 以理推排, 以千萬爲一億, 計之卽相當矣.)

90) “세존이시여 저의 이 인연으로 지금 다시 불세존께 여쭙나이다. 저는 어느 때에 이 용의 몸을 벗고 다시 어느 때 인간의 몸을 얻겠습니까?” 이때 세존께서 이라발용왕에게 말씀하셨다. “너 대용왕은 지금부터 몇 년을 지나고, 또 전과 같이 몇 억년이 지나면 그후에 미륵 다탈아가도아라가삼막삼불타라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너는 그때 사람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佛本行集經』 大3 p.829b19~25. 世尊, 我以是緣, 今復問佛世尊. 我何時得脫此龍身, 更何時得復於人身. 爾時世尊告伊羅鉢大龍王言, 汝大龍王, 從今已去, 過若干年, 乃至如前, 若干億年, 於後當有佛出於世, 名曰彌勒多陀阿伽度阿羅呵三藐三佛陀. 汝於彼時, 當得人身.)



은 부처님께서 이 용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억만 세가 지나면 미륵불이 태어나실 것이니, 너는 그때 용의 몸을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92)</sup> 이미 말한 나머지 세 가지 역 외에 다시 어떤 역이 이 가르침에 맞는 것인가? 이 때문에 지금 다시 한 가지 설을 세운다. 미륵이 교화하는 바는 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이는 미륵이 늦게 하생한다고 듣고서 믿는 마음이 생겨나고, 어떤 이는 미륵이 빨리 하생한다고 듣고 믿는 마음이 생기며, 어떤 이는 미륵이 빨리 하생한다고 듣고 선근을 심는다. 이 때문에 하생하는 때의 해의 멀고 가까운 분별이 있는 것이다. 중생들은 그 실재를 정할 수 없다.

經曰 閻浮提歲以下，第三住天壽量。

閻浮提者訛，今云瞻部，從此樹名。此間四百歲，當彼天一日一夜。數三十日爲一月，十二月爲一歲，彼天壽四千歲。慈氏窮天壽而下生，不中天。故此經云“當閻浮提歲數五十六億七千萬歲。”若瑜伽論第四 立世經第七卷 毗婆娑等云，此四百年爲彼一日，以此乘則彼天四千年，當此五千七百六十億歲，何故與此經相違者？

基師云，“以理推尋，人間四百歲爲彼一日一夜，乘則彼天四千年，當人間五十七億六萬歲。然而西方億有二種，一十萬爲

91)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천억만 세를 지나면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너는 그때 용의 몸을 벗고 출가하여 계를 받고 널리 범행을 닦아 고통의 근원을 모두 없애면 부처님께서 곧 용을 위하여 삼귀의를 주시고 우바새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彌沙塞部和醯五分律』 권15 大22 p.106c28~107a2. 佛言, ‘當來過百千億萬歲, 有彌勒佛出現於世. 汝於爾時得脫龍身, 出家受戒, 廣修梵行, 得盡苦源, 佛便爲龍, 受三自歸, 爲優婆塞.’)

92) 『미사색부화해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에서는 백억만세를 백천억만세라 하여 인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億，二百萬億門，計則相當。然於經，億字上應加七字，其前六字置萬上，以理定應爾。恐梵本誦有差，又譯家自算處謬，不爾小一億五萬歲故。然此歲數，四文不同。謂賢劫經云‘彌勒五億七十六萬歲，當下作佛。’解云言五億者，卽五十億，以千萬爲億門，成五十億故，以萬萬爲億門，成五億故。言七十萬者，卽七億，以十萬爲億門故。六萬數同故，更不須釋也。雙卷泥洹經云‘一億四千歲’今不相當此經也。一切智光仙人慈心經云‘五十億萬歲，當於龍華樹下，得成佛道。’義如前已說。菩薩處胎經及賢愚經云‘五十六億七千萬歲’，除其六字應云七，其七字應云六，其千萬者，以百萬爲一億門故，算六千萬者，六十億也。義則不違，如是推究，無謬失。菩薩在天壽量，曾無中天，生在人間也。大成佛經云‘壽六萬億歲。’天盡其年，人間長者，時宜現故。不同釋迦，天盡其年，人間早滅，化功竟故也。處胎經云‘彌勒人間壽八萬四千歲。’若依彼文，無可令彌勒下生及成佛益物義。如下生經云，‘天利盡畢，人機復熟，故乃下生。’”〈基師作如是說〉

一云。“雜心論云‘彌勒菩薩人間五十七億六百萬歲，然後下閻浮提，成正覺。’賢愚處胎仙人經，如前所引。又定意經云‘彌勒五億七十六萬歲，作佛道故。’若依千萬爲億門，則爲五十七億六百萬歲，當於雜心文。若依萬萬爲億門，則五億七千六百萬歲，依定意經而言七十六萬歲，下算位誤也。謂七千爲七十，六百萬<sup>93)</sup>故。其餘三經，皆云五十餘億等者，並依千萬億門，但譯家煩有增減而已也。雖有三解，未盡理故，且

---

93) 원문의 六十은 六이라야 함

作二難. 一二聖不齊難. 若彌勒百歲時上生, 至八萬減時下生者, 卽於中劫纔過至半劫也. 若釋迦人壽千二百歲時上生, 稍減至十, 增至八萬, 還減至百歲乃下生, 則過一劫. 是則位長於前, 而皆彼天四千歲, 人間五十餘億等, 云何相當. 二聖教相違難. 謂若釋迦遲多死生, 彌勒於彼受小死生者, 非俱受彼四千耶.”

又以三億敢會通者, 佛本行經第三十八云, “伊羅鉢龍王白佛言, 我何時脫此龍身得人身. 爾時佛告, ‘汝從今已去, 過若干年若干億後, 當有佛出, 名曰彌勒.’” 又五分律第十五云, “同佛告此龍王言, ‘當來過百億萬歲, 有彌勒佛出生, 汝爾時得脫龍身,’” 旣爾餘三億外, 更有何億, 會此教也? 是故今更作一說. 謂彌勒所化, 機宜不定, 謂或有聞彌勒遲下生生信心, 有聞慈氏疾下生生信心, 或有聞慈氏疾下生種善根. 是故下生時年, 久近分別, 不可凡情卽定其實也.<sup>94)</sup>

규기대사가 말했다. “『현겁경』에서 ‘인간 수명 1천 2백세에 석가모니께서 비로소 도솔천에 태어나 인간 수명 100세에 하생하시어 부처가 되실 것이다. 도솔천수 4천세는 인간의 56억 7천만세이다. 인간 수명 1백세에 미륵이 하늘에 나시고 인간 수명 8만 4천세에 하생하시어 성불하시니 인간의 56억 7천만세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다.”<sup>95)</sup> 이 글로써 추정해보면 겁이 감해질 때 늘어나고 겁이 증가할 때 줄어든다.”<sup>96)</sup> 그래서 석가는 겁이 늘어나고

94) 이 단락의 원문은 『삼미륵경소』 韓2 p.96c5~98a10.

95) 현재 전하는 축법호 한역의 『현겁경』에는 이런 구절이 없다. 이 외에 구마라집의 한역본이 있었다 하니 그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96) 규기(窺基), 『관미륵보살상도솔천경찬(觀彌勒菩薩上兜率天經贊)』 大38

줄어드는 것을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은데, 무슨 까닭에 미륵은 반겁만 늘어났는데 그 햇수는 도솔천의 4천세와 같은 것인가? 왜냐 하면 석가는 겁이 감하여 1천2백세가 되었을 때 상생하고 점차(줄어) 백세에 이르렀을 때 하생하며, 미륵은 1백세 때 상생하여 증가하여 8만세에 이르러 비로소 하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보살이 하늘에 있는 때는 같다.

이제 말한다. 이것도 적절하게 이 설을 말한 것이다. 때가 비록 아주 멀다고 말한 것은 중생들이 깊이 불도에 목말라함<sup>97)</sup>을 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도리천에서 나는 것은 비록 많은 죽음과 남을 지나지만 마지막으로 태어남을 받는 것을 기약한다. 또 인간의 56억7천만세에 해당한다고 설한다. 그래서 알 수 있다. 『유가론(瑜伽論)』 제4권에서 “사천왕천(四天王天)<sup>98)</sup>의 가득 찬 수명은 등활(等活)지옥<sup>99)</sup>의 하루 낮과 하루 밤이니, 이 30일을 한 달로 삼고, 열 두달을 한해로 삼아서 그 수명은 5백세이다. 이와 같이 삼십삼천(三十三天)<sup>100)</sup>의 수명은 흑승(黑繩)지옥<sup>101)</sup>의 수명이고

---

p.276b12~14. 賢劫經云, 人壽一千二百歲釋迦始生都史, 人壽一百歲出世作佛, 都史天壽四千歲人間當五十六億七千萬歲.; p.276b24~26. 人壽百歲慈氏生天, 人壽八萬四千, 方始下生成佛, 當人間五十六億七千萬歲. 以此而推, 劫滅時長, 劫增時短.

97) 갈양(渴仰)은 깊이 불도(佛道)를 숭상하여 목말라 함을 말한다.

98) 원문의 ‘네 대왕의 무리의 하늘[四大王衆天]’은 사천왕천(四天王天)을 말한다.

99) 등활(等活)지옥: 대나락가(大那落迦)는 지옥(地獄)을 말한다. 나락가는 ㉔naraka의 음역이다. 지옥에는 고통이 극심한 팔열지옥(八熱地獄)이 있다고 하는데, 등활(等活)·흑승(黑繩)·중합(衆合)·규환(叫喚)·대규환(大叫喚)·초열(焦熱)·대초열(大焦熱)·무간(無間) 등의 지옥을 말한다. 등활지옥(等活地獄)은 ㉔Saṃjīva로서, 팔열지옥 중의 하나이다. 살생을 지은 자가 가는 곳이라 한다. 철봉이나 칼을 맞아 몸이 파괴되는 고통을 받고 의식을 잃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살아나고 다시 고통을 되풀이해야 하므로 등활이라 한다.

100) 삼십삼천(三十三天): 도리천(忉利天). ㉔Trāyastriṃśa, 육계 6천의 제2천. 제석천(帝釋天)이 주인이 되어 사방에 8천을 거느리고 있어 삼십삼천이라고도 한다.

시분천(時分天)<sup>102)</sup>의 수명은 중합(衆合)지옥<sup>103)</sup>의 수명을 이루며, 지족천(知足天)<sup>104)</sup>의 수명은 호규(號叫)지옥<sup>105)</sup>의 수명을 이룬다. 극소열(極燒熱)

원래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산이었는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須彌山)이 우뚝 솟아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주위에 여덟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 싸고 있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한다. 일곱 번째의 산 바깥으로 짙 바다가 있고 그 바깥으로 철위산(鐵圍山)이 있어 수미산의 사대주를 이루는데 그 중의 남쪽인 염부제주(閼浮提洲)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위 곧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 101) 흑승(黑繩)지옥 : ㉠Kāla-sūtra, 팔열지옥의 하나.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한 자가 떨어지는데, 뜨거운 쇠사슬로 엮어매고 뜨겁게 단 도끼나 톱·칼로 몸을 베고 끊는다는 지옥이다.
- 102) 시분천(時分天) : 야마천(夜摩天). ㉠Yāma, 욕계(欲界) 6천의 제3천.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에 따르면 야마천은 불교의 28천 중 하나로 도리천 위에 있는 하늘이다. 수미산 중턱에 첫 번째 하늘인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으니 그 위의 야마천은 공거천(空居天)의 첫 번째가 된다. 그 주인이 수야마천(須夜摩天 ㉠Suyāma-devarāja)이다.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계의 2백년에 해당하고 신들의 수명은 2천살이라 한다. 지하세계의 야마는 흔히 염마(閼魔)로 표기하는데 뒤에 도교의 영향을 받아 죽은 이를 심판하는 염라대왕이 되었다.
- 103) 중합(衆合)지옥 : ㉠saṃghāta, 팔열 지옥의 하나. 온갖 고통을 합쳐 주는데, 살생한 자, 도적질한 자[偷盜], 샛된 음행을 한 자[邪淫]가 떨어진다는 지옥이다. 수많은 고통을 모두 합쳐 몸을 꺾박하여 상해를 주기 때문에 중합이라 한다. 두 개의 대철위산 사이에 끼워 넣고 산을 합하여 누르는 등의 고통을 받게 한다고 한다.
- 104) 지족천(知足天) : 도솔천(兜率天). ㉠Tuṣita, 욕계 6천의 제4천. 야마천의 위, 낙변화천(樂變化天)의 아래에 위치해 있다. 가로세로가 16만유순이라 하며 이곳 천인의 수명은 4천세인데 이곳의 1주야는 인간세상의 4백년에 해당한다고 한다. 욕정에 잠겨 있지도 않고 들뜬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오욕락에 만족하는 마음을 낸다 하여 지족이라는 뜻의 도솔천이라 부른다고 한다. 미륵보살이 일생보처(一生補處)보살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하생하여 성불할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105) 호규(號叫)지옥 : ㉠raurava, 팔열 지옥의 하나.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거

지옥<sup>106)</sup>의 수명은 반중겁(半中劫)이고, 무간(無間)지옥<sup>107)</sup>의 수명은 일중겁(一中劫)임에 이른다.”<sup>108)</sup> 이 때문에 미륵은 지축천에 있으면서 반겁 여

나, 사악한 음행(淫行)을 저지르거나 술을 많이 먹고 나쁜 짓을 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이다. 철퇴로 입을 찢기우고, 필필 끓어 불타는 구리물[銅汁]을 마시고, 쇠술에 거꾸로 매달려 끓는 불[湯火]로 찌는 등 극한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괴로움 때문에 모두가 울부짖으므로 호규지옥이라 하며 규환(叫喚)지옥이라고도 한다.

106) 극소열(極燒熱)지옥: ㉔Pratāpana. 팔열 지옥의 하나. 대초열(大焦熱)지옥·대극열(大極熱)지옥이라고도 한다. 청정한 비구니를 욕보인 자가 가는 지옥으로, 죄인은 지옥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불에 달군 쇠톱으로 죄인을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당한다. 비구를 유혹해서 파계하게 만든 여인도 이곳에 떨어지는데, 철관 위에 눕혀놓고 쇠방망이로 다듬이질하는 고통을 당한다. 죄인이 죽으면 바람을 타고 지옥으로 내려가 죄인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필필 끓는 구리 용액을 먹이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빨강게 달군 쇠덩어리를 먹여서 오장육부를 태워버린다고 한다.

107) 무간(無間)지옥: ㉕Avīci. 팔열 지옥의 하나. 오역죄(五逆罪)를 범하거나, 사탑(寺塔)을 파괴하거나 성중을 비방하고 시주한 재물을 함부로 허비하는 이가 가는 지옥이다. 괴로움을 받는 것이 끝이 없으므로[無間] 생긴 이름이다. 죄인의 가족을 버리고 그 버겨낸 가족으로 죄인의 몸을 묶어 불수레에 실어, 뿔뿔 타는 불 속에 죄인을 집어 넣어 몸을 태우며, 야차들이 큰 쇠창을 달구어 죄인의 몸을 꿰거나 입, 코, 배 등을 꿰어 공중에 던진다고 한다.

108) “또 사천왕천의 만족하는 수명은 등활지옥의 하루 낮과 하루 밤이니, 이 30일을 한 달로 삼고, 열 두달을 한해로 삼으면 저 지옥의 수명은 5백세이다. 사천왕천의 수명은 등활지옥의 수명을 이룬다. 이와 같이 삼십삼천의 수명은 흑승지옥의 수명을 이루고, 시분천의 수명은 중합지옥의 수명을 이루며, 지축천의 수명은 호규지옥의 수명을 이룬다. 낙변화천의 수명은 대호규지옥의 수명을 이루고, 타화자재천의 수명은 소열지옥의 수명을 이룬다. 또한 그렇다는 것을 마땅히 알라. 극소열지옥 중생의 수명은 반중겁이고, 무간지옥 중생의 수명은 1중겁이다.”(『瑜伽師地論』 권4 大30 p.295b14~25. 又四大王衆天滿足壽量, 是等活大那落迦一日一夜。卽以此三十日夜爲一月, 十二月爲一歲, 彼大那落迦壽五百歲。以四大王衆天壽量, 成等活大那落迦壽量。如是以三十三天壽量, 成黑繩大那落迦壽量, 以時分天壽量, 成衆合大那落迦壽量, 以知足天壽量, 成號叫大那落迦壽量。以樂化天壽量, 成大

를 지나고, 석가는 도솔천에 있으면서 일곱 여를 지난다. 때문에 호규지옥의 수명을 지날 때 이미 도솔천의 무수한 죽음과 태어남을 지났으니 하물며 반겁 등의 가운데는 어떠하겠는가?<sup>109)</sup> 어찌 단지 한 생에 오직 사천세의 수명만을 받겠는가?<sup>110)</sup>

基師云, “賢劫經云 ‘人壽千二百歲, 釋迦始生觀史, 人壽一百歲, 下生作佛. 觀史天壽四千歲, 人間當五十六億七千萬歲, 人壽百歲, 慈氏生天, 人壽八萬四千歲, 下生成佛, 當人間五十六億七千萬歲.’ 以此文推, 劫減時長, 劫增時短.” 故不

號叫大那落迦壽量, 以他化自在天壽量, 成燒熱大那落迦壽量. 應知亦爾. 極燒熱大那落迦有情壽半中劫, 無間大那落迦有情壽一中劫.)

109) 선업을 쌓으면 그 정도에 따라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하늘에 태어나 더욱 오랜 수명을 누리고, 반대로 악업을 쌓으면 그 정도에 따라 고통이 더욱 극심해지는 지옥에 태어나 더욱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가사지론』을 인용하여 대비시켜 설명한 부분이다.

110) 경전에 따라 미륵이 인간세에 하생하는 햇수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경홍은 러 경론을 들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56억만세를 말한 『미륵상생경』, 56억 7천만세를 말한 『보살처태경』과 『현우경』, 57억 6만세 계통이라 할 수 있는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과 『잡심론』, 5760억세를 말한 『유가론』과 『입세경』과 『비바사론』, 5억 76만세라고 한 『현겁정의경』 기타 여러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전에서 설하는 도솔천과 엄부제의 햇수를 계산해 보면 5억 7600만세에 하생한

경전명	미륵 내세 햇수
반나원경	1억 4천세
현겁정의경	5억 76만세
일체지광선인자심경	50억만세
미륵상생경	56억만세
보살처태경 현우경	56억 7천만세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	57억 6만세
잡심론	57억 6백만세
유가론 입세경 비바사론	5760억세
미륵대성불경	6만억세

표1) 경론별 미륵 내세 햇수

다고 해야 한다. (360일 × 4,000세 × 400세 = 576,000,000년) 이에 견주어 보면 『정의경』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경홍이 여러 가지 든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셈법에 따라 57억 6천만년 또는 이와 유사한 햇수가 가장 널리 쓰였고, 그보다는 56억 7천만년이 더 널리 쓰여 관행이 되었다.

可難言釋迦逕增減劫，何故彌勒唯增半劫，其歲數等彼天四千歲？何以故釋迦劫減千二百歲時上生，漸至百歲時下生，彌勒百歲時上生，增至八萬歲始下生故。故二菩薩在天時等也。

今云 此亦隨宜作是說。謂時雖久遠，欲令衆生生渴仰故。菩薩生彼天，雖逕多死生，而約最後所受生。且說當人間五十六億七千萬歲也。所以得知瑜伽論第四云，“四大王衆天滿足壽，是等活大那落迦一日一夜，卽以此三十日爲月，十二月爲一年，彼壽五百歲。如是三十三天壽是黑繩壽量，以時分壽量成衆合壽量，以知足壽量成號叫壽量。乃至極燒熱壽半中劫，無間壽量一中劫。”是故彌勒在知足天，逕半劫餘，釋迦在彼天，逕一劫餘故。故逕號叫壽量時，已逕彼天無數死生，況亦半劫等中間？何唯受一生四千壽量耶？

## ○ 도솔천 왕생

[경]

부처가 열반에 든 뒤에 내 제자들이여 만약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고, 위의를 빠뜨리지 않고, 탑을 청소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탑을) 흙으로 보수하고<sup>111)</sup>, 여러 좋은 향과 아름다운 꽃으로 공양하고, 여러 삼매를 수행하여 깊이 선정에 들어가고, 경전을 독송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지극한 마음에 해당하여 비록 번뇌를 끊지 못했더라도 육신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리라. 마땅히 마음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미륵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이들이 한 생각 동안이라도 여덟 가지 재계를 받아 깨끗한 수행을 하고, 큰 서원을 일으킨다면, 목숨을 마친 후에 마치

111) 원문의 도지(塗地)는 흙을 붙인다는 뜻이다. 흙으로 탑을 만드는 인도에서는 도량 청소와 함께 도량을 보수한다는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



장사가 팔을 한번 펴는 짧은 순간에 곧 도솔천에 왕생하리라.

佛滅度後，我諸弟子，若有精勤修諸功德，威儀不缺，掃塔塗地，以衆名香妙花供養，行衆三昧深入正受，讀誦經典。如是等人，應當至心，雖不斷結，如得六通。應當繫念，念佛形像，稱彌勒名，如是等輩，若一念頃受八戒齋，修諸淨業，發弘誓願，命終之後，譬如壯士屈伸臂頃，即得往生兜率陀天。<sup>112)</sup>

### [요간기]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가 열반에 든 뒤에” 이하는 셋째<sup>113)</sup>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권함이다. 수행과 도솔천에 나는 것을 말하고자 하니, 대략 다섯 가지 문이 있다. 첫째 사람에게 따라 수행하는 것을 분별함[辨脩因人], 둘째 수행한 인연을 분별함[辨所脩因], 셋째 부처가 같지 않은 것을 봄[見聖不同], 넷째 왕생하여 이익을 얻음을 나타냄[彰生得益], 다섯째 다시 본문을 해석함[還解本文]이다.<sup>114)</sup>

첫 번째 사람에게 따라 수행하는 것[脩因人]을 말하면 세 종류가 있으니 보살(菩薩)과 이승(二乘)<sup>115)</sup>과 범인(凡人)이다.

112)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大14 p.420a10~17.

113) 이 셋째는 수문해석(隨文解釋)의 제2 성교소설분(聖敎所說分) 중 제2 광현내과장엄승(廣顯內果莊嚴勝)에서 첫째 발청(發請), 둘째 광답(廣答)에 이은 셋째이다. 해제의 구조도 참조.

114) 이 부분의 해석에서 경홍은 규기와 크게 다르다. 규기는 이 권생어피(勸生於彼)를 권생괴행(勸生彼行)과 중발희원(衆發希願)과 결성정관(結成正觀)의 셋으로 나누고 삼품 왕생을 등을 설명하였다.(『관미특보살상도솔천경찬』 권하 大38 p.295b10~12)

115) 이승(二乘): 바로 앞에 든 보살과 함께 삼승(三乘)을 이루는 중의 나머지 둘인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대승의 보살에 대비되는 소승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부처의 교설을 직접 듣고 사제(四諦)의 이치를 알아 깨달음을 얻는다

첫째 보살은 혹은 초발심(初發心)<sup>116)</sup>으로부터 법운지(法雲地)<sup>117)</sup>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그렇지 않다. 팔지(八地, 부동지) 이상은 영원히 분단생사(分段生死)<sup>118)</sup>를 떠나서 도솔천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해석하면, 승해행지(勝解行地)로부터<sup>119)</sup> 원

는 성문과, 부처의 교설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고 스스로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연각으로 나눈다.

- 116) 초발심(初發心) : 처음 보리심을 일으킴.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일으켜 겹겹의 수행 공덕을 쌓아 불교에 이르는 동안 거치는 수행 단계를 구분하여 삼현(三賢) 십지(十地)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십주의 처음이 이 초발심주(初發心住)이다. 이 보살은 십신의 마음을 내어 삼보를 신봉하고 항상 반야바라밀에 머물며 일체행과 법문을 닦고 사건을 짓지 않고 계율을 범하지 않는 수행의 길을 걷는다.
- 117) 법운지(法雲地) : 보살 수행의 가장 높은 계위인 십지 중 마지막 제10지. 지(地)는 주처의 뜻으로 그 자리에 살고 그 자리에서 법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과를 남으므로 지라 한다. 보살이 이 지위에 오르면 번뇌가 없는 지혜를 이루고 성자가 되어 일체중생을 보호하기 때문에 십성이라 부른다. 십지는 ①환희지(歡喜地), ②이구지(離垢地), ③발광지(發光地), ④염혜지(焰慧地), ⑤난승지(難勝地), ⑥현전지(現前地), ⑦원행지(遠行地), ⑧부동지(不動地), ⑨선혜지(善慧地), ⑩법운지(法雲地)이다. 법운지는 십지의 마지막 단계로, 대법신을 얻어 자재력을 갖춘 자리로서 구경지(究竟地) 또는 최상주(最上住)라고도 한다.
- 118) 분단생사(分段生死) : 변역(變易)생사와 함께 2종 생사의 하나. 육도에 윤회하는 범부들의 생사. 업인(業因)에 따라 목숨이 길고 짧은 분한(分限)과 몸이 크고 작은 형단(形段)의 제한을 받아 생사하므로 분단생사라 한다. 이에 비해 아라한·벽지불·보살은 수명도 육체도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 변역신을 받으므로 변역생사라 한다.
- 119) 승해행지(勝解行地) :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7종 보살지의 두 번째(『瑜伽師地論』 권49 大30 p.565a1~3). 『유가론기』에서는 십신 이전으로 사위(師位)에 들지 못하는 중성지(種性地)를 제외하고 이 승해행지를 첫째로 풀이하여 지전(地前) 40심이라 하고, 이어 정승의락지(淨勝意樂地)는 초지, 행정행지(行正行地)는 2지에서 7지, 결정지(決定地)는 8지, 결정행지(決定行地)는 9지, 도구경지(到究竟地)는 10지라고 하였다. (道論, 『瑜伽論記』 권9 大42 p.521c10~19) 곧 승해행지는 수행의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단계로, 십지 이전에

행지(遠行地)<sup>120)</sup>까지는 일생보살(一生菩薩)<sup>121)</sup>을 공양하기 때문이며, 법을 듣고 선근을 심기 때문에 도솔천에 태어난다. 다음으로 이승은 발심하여 이승도(二乘道)를 구하지만 자량(資糧)<sup>122)</sup>이 갖추어지지 않아 몸을 드러낸 중에 도솔천이 매우 아름답고 편안하다는 것을 듣고 또 미륵의 이름을 듣고서 우리르며 기뻐하기 때문에 회향심(廻向心)<sup>123)</sup>으로 발원하여 왕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부는 중생이 비록 금계(禁戒)<sup>124)</sup>를 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업을 만들지만 미륵의 이름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발원하여 왕생하게 된다.

欲辨脩行生兜率天，略作五門．一辨脩因人，二辨所脩因，三見聖不同，四彰生得益，五還解本文．言第一脩因人者，有三

해당한다. 이 지위에서는 아직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여 분별과 이해로써 수행하는 단계이므로 해행지라 한다.

- 120) 원행지(遠行地) : 십지 중의 제7지. 무상행(無相行)을 수행하여 몸과 마음의 작용이 세간을 뛰어 넘은 자리.
- 121) 일생보살(一生菩薩) : ㉠eka-jāti-pratibaddha. 원어는 마지막으로 윤회한다는 뜻. 이 생을 지나면 내생에는 세간에서 성불하는 보살의 최고의 지위로서 등각보살(等覺菩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성불하는 미륵보살을 말한다.
- 122) 자량(資糧) : 도움이 될 양식이라는 글자 뜻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준비하여 모은 것 등의 뜻으로 쓰임.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여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에 하듯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근공덕을 양식으로 자신의 몸을 도와야 하므로 이런 말이 생겨났다. 자량에는 보시와 지계 등의 복덕(福德)자량과 반야를 수행하는 지혜 등의 지덕(智德)자량의 두 가지 구분 외에 여러 구분이 있다.
- 123) 회향심(廻向心) : 대미심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보살의 마음. 보살의 수행 계위 중에서는 십지 이전 삼현위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
- 124) 금계(禁戒) : ㉠samvara. 부처가 제자들이 짓는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계율. 율의(律儀)라고도 한다. 경전에는 수행자의 성격에 따라 일반인에게 해당하는 5계와 8계, 출가자에게 해당하는 사미계(沙彌戒)와 구족계(具足戒) 등으로 구분지어 말하였다.

類, 一菩薩, 二二乘, 三凡人. 初菩薩者, 一云 從初發心乃至法雲, 此義不然. 以八地已上, 永離分段, 定不生兜率天故. 故今解, 從勝解行地至遠行地, 爲供一生菩薩故, 爲聞法種善根, 故生彼天. 次二乘者, 發心求二乘道, 而資糧未備, 現身中聞兜率天極妙樂事, 及聞彌勒號仰喜, 故迴向心發願, 得往生. 後凡夫者, 有衆生雖受禁戒, 不能護持, 造衆惡業, 聞彌勒名, 悔過發願, 得往生也.<sup>125)</sup>

둘째 수행한 인연을 말함[辦所修因]은 여러 경에서 인연을 논한 것이 많은데, 지금 다시 이 경에 의거해서 그 인연이 없음을 분별하면 대략 5가지가 있다. 첫째 회사하고 보시하는 인연[捨施因]은 보살의 이름을 듣고서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탑을 청소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탑을) 흙으로 보수하고[掃塔塗地] 향과 꽃과 번 등 여러 가지 공양을 하며 왕생하고자 발원하여 곧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잘못을 예방하는 인연[防非因]은 일념(一念)으로 반드시 팔계재(八戒齋)<sup>126)</sup>를 받고 여러 가지 선업을 닦아서 1일 내지 7일 사이에 발원하여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흩어지는 인연[離散因]은 생각을 집중하여 여러 삼매<sup>127)</sup>를 실천하고 부처의 형상을 생각하고

125) 이 단락의 원문은 『삼미륵경소』 韓2 p.98a14~98c5.

126) 팔계재(八戒齋): 재가자인 우바새와 우바이가 하루 밤낮동안 받아 지키는 여덟 가지 계율. 중생을 죽이지 말 것[不殺生], 훔치지 말 것[不偷盜], 음행하지 말 것[不婬], 거짓말하지 말 것[不妄語], 술 마시지 말 것[不飲酒],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고 노래하고 춤추거나 구경하지 말 것[不以華鬘裝飾自身 不歌舞觀聽], 높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 것[不坐臥高廣華麗床座], 때가 아닐 때 먹지 말 것[不非時食] 이다.

127) 원문의 등지(等持)는 삼매(三昧)를 번역한 말. ⑤samādhi.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음을 떠나 평등하고 편안하며[等]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머물게 하므로[持] 등지라 한다.

발원하여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잘못을 가려내는 인연[簡擇非因]은 경전을 독송하고 미륵의 명호를 부르며 발원하여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중업을 정화하는 인연[淨重因]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사부제자(四部弟子)<sup>128)</sup>가 미륵의 이름을 듣고 발원하고 예배하여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아주 짧은 시간[彈指頃]<sup>129)</sup>에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논(論)<sup>130)</sup>에 의거하면 5문이 있다. 첫째 예배하는 문[禮拜門]은 일생보살을 예배하여 도솔천에 나기를 바라는 것을 따라 이름 붙인 것이다. 둘째 찬탄하는 문[讚歎門]은 지극한 마음으로 일생보살의 지혜의 광명[智慧光]<sup>131)</sup>을 칭송하고 찬탄하여 도솔천에 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셋째

128) 사부제자(四部弟子): 불교 교단을 이루는 네 종류의 제자 집단. 흔히 사부대중(四部大衆)이라 하며 사배(四輩)라고도 한다. 출가한 남녀 제자인 비구(比丘)와 비구니(比丘尼), 출가하지 않은 남녀 제자인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를 말한다.

129) 탄지경(彈指頃)은 손가락을 튕기는 동안, 즉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한다. 1탄지를 65찰나 또는 60념(念)이라 하고, 1만 2천 탄지를 1 주야(晝夜)라고도 한다.

130) 『무량수경론(無量壽經論)』: 세친(世親, 320~400년경)이 저술하고, 529년에 보리유지(菩提流支)가 한역하였다. 원제는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이고, 『정토론』 또는 『왕생론』이라고도 한다. 개송 부분은 서두에서 안락국(安樂國)에 태어나 길 바란 뒤 정토에 대하여 서술하고, 회향의 내용으로 끝맺는다. 산문편에서는 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5염문(五念門)을 제시하고 안락국에 태어나게 되는 5과문(果門)을 밝혔는데, 5염문은 예배문(禮拜門)·찬탄문(讚嘆門)·작원문(作願門)·관찰문(觀察門)·회향문(迴向門)을 말하고, 5과문은 근문(近門)·대회중문(大會衆門)·택문(宅門)·옥문(屋門)·원림유희지문(園林遊戲地門)이다. 이 중 중요한 것은 관찰문으로 관찰 대상인 정토를 17종의 국토장엄과 8종의 불장엄, 4종의 보살장엄 등 모두 29종 3장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정토에 이르는 수행을 대승의 보살도로 파악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131) 지혜광(智慧光): 불보살의 지혜가 비추어 내는 광명. 지광(智光) 또는 내광(內光)이라고도 하며, 신광(身光)과 외광(外光)에 대비하여 쓰인다.

원을 짓는 문[作願門]은 발원하여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까닭에 그  
가 보살이 행한 것과 이룬 것을 닮는 것을 말한다.<sup>132)</sup> 넷째 관찰하는 문[觀  
察門]은 도솔천상의 공덕과 장엄, 그곳의 보살의 공덕과 장엄, 그리고 하늘  
의 무리의 공덕과 장엄을 관(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회향하는 문[廻  
向門]은 중생을 버리지 않고 지은 공덕을 중생에게로 돌려 함께 도솔천에  
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다섯 가지 문으로 앞의 다섯 가지 인  
연을 돕는다면 반드시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第二辨所修因者，諸經論因雖多，今且依此經，辨彼無因，略有  
五種。一捨施因，謂聞是菩薩名，造立形像，掃塔塗地，香華幡  
等種種供養，發願欲生，則得往生。二防非因，謂一念須受八戒  
齋，及脩諸善業，一日乃至七日，發願得往生。三離散因，謂當  
繫念行衆等持，念佛形像，發願得往生。四簡擇非因，謂讀誦經  
典，稱彌勒名，發願得往生也。五淨重因，謂佛滅度後，四部弟  
子聞彌勒名，發願禮拜，此人命終，彈指頃則往生也。

若准<sup>133)</sup>論有五門。一禮拜門，依名禮拜一生菩薩求生天。二讚  
歎門，謂至心稱歎一生菩薩，智慧光求生天。三作願門，謂發願  
願生彼天故，彼修菩薩所行所成也。四觀察門，謂觀彼天上功  
德莊嚴，及彼菩薩功德莊嚴，并天衆功德莊嚴。五廻向門，謂不  
捨衆生，所作功德，廻向群生，共生天上故。若以此五門，資前  
五因，必生彼天。

132) 작원문(作願門): 자신의 성불과 중생 제도의 원을 세워서 부처의 가르침대로 수  
행하여 정도에 나기를 원하는 일

133) 대본의唯는 准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불설관미륵보살상  
생도솔천경술찬(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述贊)』에서도 “經文因雖有此五，准  
論必有五門”이라고 하였다.(근21 p.822b11.)

셋째 부처가 갖지 않은 것을 봄[見聖不同]인데, 부처는 세 개의 몸<sup>134)</sup>이 있다. 첫째 진신(眞身)은 법신(法身)과 보신(報身)이다. 둘째 응신(應身)은 팔상성도(八相成道)<sup>135)</sup>이다. 셋째 화신(化身)은 때에 따라 문득 있는 것이다. 이 중 진신은 항상 고요하여 오고 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도솔천에 태어나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며, 단지 보살의 응신과 화신의 두 가지 몸을 본다.

第三見聖不同者，聖有三身。一眞身則法報。二應身則八相成道。三化身隨時忽有。此中眞身，常寂無往來相，故生天者非所見，唯見菩薩應化二身。

134) 삼신(三身): ㉔trayaḥ kāyāḥ 불신을 셋으로 나눈 것, 삼신불(三身佛)·삼불(三佛)이라고도 한다. 첫째 제법을 모아 몸을 이루므로 이법(理法)이 모인 것을 법신(法身)이라 한다. 색과 형상이 없는 영원불멸한 만유의 본체이다. 둘째 인연에 따라 나타난 것을 보신(報身)이라 한다. 아미타불과 같이 보살의 수행 결과로 얻은 장엄한 상호의 불신이다. 셋째 보신불을 친견하지 못한 이를 제도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상응하여 나타난 응신(應身)이다. 역사적인 존재인 석가모니 불과 같은 불신이다. 경전에 따라 『금광명경』처럼 법신·응신·화신(化身)의 삼신을 말하기도 한다. 여래가 과거 갖가지 수행을 이룩하여 자재롭게 중생에 따라 여러 형태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화신, 여래가 생사열반을 체득하고 불법을 근본으로 32상 80종호의 몸을 드러낸 것을 응신, 일체 번뇌를 없애고 일체 선법을 구축하여 여여지를 가진 것을 법신이라 한다.

135) 八相成道(팔상성도):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인 생애에서 중요한 여덟 장면. 대승 불교에서는 중도솔천퇴상(從兜率天退相)·입태상(入胎相)·주태상(住胎相)·출태상(出胎相)·출가상(出家相)·성도상(成道相)·전법륜상(轉法輪相)·입열반상(入涅槃相)을 이른다. 후세 동아시아불교에서는 ①도솔천에서 내려오심[兜率來儀], ②룸비니에서 탄생하심[毘藍降生], ③카필라성에서 관찰하심[四門遊觀], ④성을 넘어 출가하심[離城出家], ⑤설산에서 수도하심[雪山修道], ⑥보드가야에서 성도하심[樹下降魔], ⑦사르나트에서 설법하심[初轉法輪], ⑧쿠쉬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심[雙林涅槃]의 팔상이 정착되었다.







# 彌勒下生經疏 미륵하생경소

1. 설한 뜻
2. 이름을 해석함
3. 글을 풀이함





이 경을 해석하는 데 3문이 있으니 첫째 설한 뜻[來意], 둘째 이름을 해석함[釋名], 셋째 글을 풀이함[講文]이다.

## 1. 설한 뜻[來意]

설한 뜻[來意]을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품(下品)<sup>136)</sup>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미륵이 도리천에 나서 비록 상품(上品)과 중품(中品)의 사람은 이롭게 하였으나, 하품인은 아직 부처의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 가르치고 이끌기 위함이다. 도리천 위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데 비록 먼저 널리 나타나서 인간 세상에서 일곱

---

136) 하품(下品): 도솔천에 왕생하는 이들을 수행의 정도에 따라 나눈 상품·중품·하품의 마지막 지위. 왕생하는데 이 세 지위가 있고, 세분하면 각 품마다 세 가지 있어 모두 9품이 된다. 상품왕생자는 공덕을 닦고 위의를 빠뜨리지 않고 탑을 청소하고 향화를 공양하고 삼매를 닦으며 경전을 독송하는 등의 여섯가지 일[六事]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중 5~6가지를 수행하면 상품 상생(上生), 3~4가지는 중생(中生), 1~2가지는 하생(下生)이 된다. 중품 수행자는 환희심과 공경하는 말과 예배신 등의 세 가지 수행을 쌓아야 하는데, 중품 상생은 3가지, 중생은 2가지, 하생은 1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하품 왕생자는 하품 왕생자는 참회·명칭을 들음·형상을 만듦·향 공양·꽃 공양·의복 공양·화개 공양·깃발 공양·번 공양·몸은 항상 예배함·마음과 입으로 생각을 한곳에 집중함의 열한 가지를 닦는다. 하품 상생자는 이를 모두 행하고, 중생자는 조상·공양·예배를, 하생자는 조상과 공양을 행한 이이다.

가지 모습으로서 중생을 교화해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생의 다음에 하생을 말한다.

## 2. 이름을 해석함[釋名]

둘째 이름을 해석함에는 세 가지 상대가 있다. 첫째는 설하는 것[能說]과 설해진 것[所說]의 상대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설하는 것이라고 하고 『미륵하생경』은 설해진 것이라고 한다. 둘째는 주는 자[能受]와 받는 자[所受]의 상대이다. 미륵이 주는 자이고 하생이 받는 자이다. 셋째는 설명된 것[所詮]과 설명하는 것[能詮]의 상대이다. 미륵이 하생한 것이 설명된 것이고 경전이 설명하는 것이다.

대개 말하기를 비록 팔상(八相)이 있다고 하는데, 뒷부분의 일곱 가지 모습은 모두 인간 세상에서의 일이어서 도리천에 상대되기 때문에 모두 하생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생하여 성스럽게 교화한 일을 널리 말했기 때문에 『미륵하생경』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의주석(依主釋)<sup>137)</sup>이다.

將釋此經，略有三門，一來意，二釋名，三講文。言來意，有二。一爲化下品衆生故，謂彌勒生天雖得上品中品人利，而下品人未得聖益故。二爲顯人間教導故，謂天上教導雖先廣顯，而人間以七相教化衆生，猶未唱故，故上生後辨下生。第二釋名者，有三對。一能說所說對，謂佛說者爲能說，彌勒下生經者爲所說。二能受所受對，謂彌勒爲能受，下生爲所受。三所詮能詮

137) 의주석(依主釋) : ①tat-puruṣa. 산스크리트어의 복합사를 해석하는 방법인 육합석(六合釋, ②ṣat-samāśaḥ)의 하나. 두 개 이상의 명사로 성립된 합성어에서 앞 말이 뒤의 말을 제한하여 주(主)와 반(伴)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

對, 謂彌勒下生爲所詮, 經爲能詮也. 都言雖有八相, 而復後七相, 皆在人間, 對天故皆言下生. 廣談下生聖化之事故, 名下生經, 則依主釋也.<sup>138)</sup>

### 3. 글을 풀이함[講文]

#### ○ 국토의 장엄과 풍요와 안락

[경]

이 때 부처님께서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나라 경계에 계두성(鷄頭城)이라는 성곽이 있게 될 것이다. 동서의 길이는 12 유순(由旬)<sup>139)</sup>이고 남북의 길이는 7유순인데, 그 나라는 땅이 기름지고 풍족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닐 것이다. 그 때 성 안에 수광(水光)이라는 용왕이 있어서 밤이면 항상 향수를 비처럼 내리고, 낮에는 온 성안을 맑고 온화하게 하리라. 이때 계두성 안에는엽화(葉華)라는 나팔 귀신이 있어 법에 따라 행동하고 바른 가르침을 어기지 않으며 항상 사람들이 잠든 후를 틔타 온갖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치우고, 향즙을 땅 위에 뿌려서 매우 향기롭고 깨끗하게 하느니라.”<sup>140)141)</sup>

爾時世尊 告阿難曰, 將來久遠, 於此國界, 當有城郭, 名曰鷄頭<sup>142)</sup>. 東西十二由旬, 南北七由旬, 土地豐熟, 人民熾盛, 街巷

138) 『삼미륵경소』 韓2 p.103a2~b3.

139) 유순(由旬): 𑖀yojana의 음역. 유사나(踰闍那)·유선나(踰繕那)·유연(由延) 등으로도 번역한다. 인도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 소가 멍을 걸고 하루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는 제왕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로서 40리라고 하였다. 실제 길이에 대해서는 19.5km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成行. 爾時城中 有龍王, 名曰水光, 夜雨香澤, 晝則清和. 是時  
鷄頭<sup>143)</sup>城中, 有羅刹鬼, 名曰葉華, 所行順法, 不違正教, (常)  
伺<sup>144)</sup>人民寢寐之後, 除去穢惡諸不淨者, 又以香汁, 而灑其地,  
極爲香淨.

## [소]

경문에서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하는 네 번째<sup>145)</sup> 여래께서 바르게 답하신 것[如來正答]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바른 물음과 답[正問答]이고, 둘째는 인연을 닦을 것을 권함[勸修因]이다. 처음 바른 물음과 답에 4가지가 있으니 그 땅의 풍요롭고 편안함을 답한 것[答境豐樂], 부처님을 답한 것[答佛], 사람의 무리를 답한 것[答徒衆], 멸하는 때를 답한 것[答滅時]이다. 신묘한 변화[神變]는 사람의 무리에서 답하였는데, 제자 가운데 겸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답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 그 땅의 풍요롭고 편안함을 답함에 또 네 가지가 있는데 나라의 장엄[國邑莊嚴],

140) 이 서술은 『미륵하생경』에 대한 주석인 『미륵하생경소』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홍의 해석을 보면 현행 『미륵하생경』의 구절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같은 구절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증일아함경』(권44 十不善品 제48 大2 p.787c2~789c27)에 나온다. 따라서 경홍이 현행 『미륵하생경』과 다른 역본을 대상으로 주석한 것인지, 아니면 『증일아함경』을 보고 해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는 경홍의 해석과 맞추기 위해 『증일아함경』의 구절을 제시하고, 이와 다른 『미륵하생경』의 구절을 각주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141) 『증일아함경』 권44 大2 p.787c13~20;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1a17~25.

142) 『미륵하생경』은 翹頭

143) 『미륵하생경』은 翹頭

144) 『미륵하생경』은 每向

145) 여기서의 네 번째는 강문(講文) 중 첫째 약변하인화익중생(略辨下人化益衆生)에서 둘째 문답광설분(問答廣說分)의 첫째 아난진청(阿難陳請), 둘째 여래허설(如來許說), 셋째 아난영지(阿難領旨)에 이은 넷째이다. 해제의 구조도 참조.

땅의 넓고 아름다움[地土廣美], 사람들이 서로 화목함[人民相和], 왕과 신하가 매우 선함[王臣勝善]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오랜 옛날’이란 이 경을 설한 시기를 말한 것으로, 미륵이 세상에 나실 때를 바라기를 56억만세가 지난 것이다. ‘계두성’이란 현장 법사께서 “서방에서 왕사성(王舍城)을 말하는데 이는 향방성(香芳城)이다. 미래에 이름이 사구(飼佉)인 왕이 있어 계두말(雞頭末)이라 하는 큰 성을 도읍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자로는 혜당(慧幢)이다”라고 하였다. 그런즉 계두말은 이 왕사성국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혹은 염부제국의 경계라고 하는데, 뜻 또한 틀림이 없다. 『미륵성불경』에서 시두말(翅頭末)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머무른다는 뜻으로서, 백성들이 사는 곳은 곽(郭)이라고 한다. 성이 닭의 머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계두말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12유순’이란 비록 수승한 과보를 받았으나 12인연<sup>146)</sup>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7유순’이란 7가지 수면(隨眠)<sup>147)</sup>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거리’는 『미륵성불경』에서 “큰 힘을 가진 용왕을 다라시기(多羅尸棄)<sup>148)</sup>”라고 이름한다”<sup>149)</sup>고 하였는데 즉 이것

146) 12인연 : dvādaśāṅga-pratītya-samutpāda. 인연하여 일어나는 12가지. 12지연기(十二支緣起·12연기(十二緣起)라고 한다.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6처(六處),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 각각 앞의 것이 뒤의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앞의 것이 멀하면 뒤의 것도 따라서 멀하게 된다. 이런 상호 의지하는 관계를 통해 일체 사물이 인연으로 생겨난다는 상의성(相依性)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무상함을 설명한다.

147) 수면(隨眠) : ānuśaya, 번뇌의 다른 이름. 번뇌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 넣어 신심을 잠들게 하면 그 활동 상태가 아주 미세하여 알기 어려우며 대상과 서로 영향을 가지며 더욱 강하게 된다. 사람을 번뇌로 묶어 버리므로[隨縛] 수면이라 한다. 탐냄[貪]·성냄[瞋]·어리석음[癡]·게으름[慢]·의심[疑]·악견[見] 등 여섯 가지가 있다.

148) 원문에는 라시기(羅尸棄)이나 경문에는 다라시기(多羅尸棄)라고 하였다.

이 서로 드러난 것이다. 나찰 귀신이란 한자로는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이다. 『미륵성불경』에서 “대야차신(大夜叉神)”이라 말한 것<sup>150)</sup>이 서로 드러난 것으로, 그 성에 야차와 나찰 두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잠든 후에 더러운 것을 없앤다’란 그 귀신이 사람이 잠든 후에 나타나 더러운 것에 이르러 다투어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經曰“爾時世尊告”以下，第四如來正答。此中二，初正問答，後勸修因。初中四，一答境豐樂，二答佛，三答徒衆，四答滅時。神變者，答徒衆，弟子中兼故，不別答也。初中亦四，一國邑莊嚴，二地土廣美，三人民相和，四王臣勝善。是初也，久遠者，說此經時，望彌勒出世時，逕五十六億萬歲故。雞頭者，奘法師云，西方說王舍城，是香芳城，未來有王名餉佉，所都大城名

149) “마을의 길은 넓이가 12리로 먼지를 쓸고 물을 뿌려서 청정하다. 힘이 센 용왕이 있어 이름을 다라시기라고 하는데, 그 연못 근처에 있는 성이 용왕의 궁전이다. 이 연못 가운데 항상 깊은 밤중에 가는 비를 내려 먼지 쌓인 땅을 젖게 하여 그 땅이 윤택하게 하니 비유하자면 기름칠한 길 같아서 사람들이 왕래하여도 먼지가 없다. 그때 사람들의 복덕이 이랬다.”(『佛說彌勒下生成佛經』大14 p.423c25~29. 街街道陌廣十二里，掃灑清淨，有大力龍王，名曰多羅尸棄，其池近城龍王宮殿，在此池中，常於夜半，降微細雨，用淹塵土，其地潤澤，譬若油塗，行人來往，無有塵坌，時世人民福德所致.)

150) “대야차신이 있어 이름을 발타파라사새가라고 하는데, 항상 이 성을 수호하고 청소하여 청정하게 한다. 만약 용변을 보고 청정하지 않으면 땅이 갈라져 받아들이고 이내 다시 합쳐진다.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려 때는 저절로 무덤 사이에 가서 죽는다. 그때 세상은 안락하고 도적에게 빼앗길 일이 없으며 성읍과 마을은 문을 닫아 거는 이가 없고 노쇠하거나 물과 불, 전쟁이나 굶주림과 같은 재해와 위난이 없다. 사람들은 항상 자비롭고 공경하고 화목하며 육근을 잘 조절하여 말이 겸손하다.”(『佛說彌勒下生成佛經』大14 p.424a4~10. 有大夜叉神，名跋陀波羅賒塞迦(秦言善教)，常護此城，掃除清淨。若有便利不淨，地裂受之，受已還合。人命將終，自然行詣塚間而死。時世安樂，無有怨賊劫竊之患，城邑聚落，無閉門者，亦無衰惱水火刀兵及諸饑饉毒害之難。人常慈心，恭敬和順，調伏諸根，語言謙遜.)



雞頭末, 此云慧幢. 然卽知雞頭末卽是王舍城國界, 一云閻浮提國界, 義亦無失. 成佛經云“翅頭末”, 卽是也. 言城者, 王居義, 人民所居, 名爲郭也. 城似雞頭, 故因爲名雞頭末也. 十二由旬者, 雖受勝報而不出十二因緣故, 七由旬者, 不離<sup>151)</sup>七睡眠故也. 街巷(音上桂下弘實上離下加尸於彌也), 成佛經云“有大力龍王, 名爲羅尸棄”, 卽是互顯也. 羅刹鬼者, 此云可畏也. 成佛經云“大夜叉神”者, 互顯. 以彼城有夜叉羅刹二神故. 寐後除穢者, 其鬼者, 人眠後乃現, 詣惡穢爭令淨故.<sup>152)</sup>

# [경]

아난이여 마땅히 알라! 그 때 염부제의 땅은 동서남북이 10만 유순이다. 모든 산과 강과 석벽(石壁)은 모두 저절로 무너져서 없어지고, 4대해의 물은 각각 한쪽을 차지한다. 그때 염부제의 땅은 지극히 평탄하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 모든 염부제 땅 안은 곡식이 풍족하고 사람들이 번창하며 갖가지 보배가 많고, 여러 마을과 마을은 서로 가깝고 닭 우는 소리가 서로 이어진다. 이때 좋지 못한 꽃과 과일과 나무는 말라 붙고 더러워져 저절로 없어지고, 그밖에 감미로운 과일 나무와 향기가 특히 빼어난 것들이 모두 그땅에서 자란다.

阿難當知, 爾時閻浮地, 東西南北十<sup>153)</sup>萬由旬. 諸山河石壁, 皆自消滅, 四大海水, 各據<sup>154)</sup>一方. 時閻浮地, 極爲平整, 如鏡

151) 대본의 雖는 離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술찬(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述贊)』에서도 “不離七有七睡眠, 故七由旬.”이라고 하였다.(卍21 p.831c14~15.)

152) 이 단락의 원문은 『미륵하생경소』 韓2 p.104a13~105c19.

153) 『미륵하생경』은 千

清明. 舉閭浮地內, 穀食豐賤, 人民熾盛, 多諸珍寶, 諸村落相近,<sup>155)</sup> 鷄鳴相接. 是時幣華果樹, 枯渴穢惡, 亦自消滅, 其餘甘美果樹, 香氣殊好者, 皆生乎<sup>156)</sup> 地.<sup>157)</sup>

## [소]

경문에서 “아난이여 마땅히 알라!” 이하는 둘째 땅의 넓고 아름다움[地土廣美]에 관한 것이다. ‘10만유순’이란 『미륵성불경』에서 “이때 염부제 땅은 길이가 10천유순, 넓이가 8천유순이다”<sup>158)</sup>라고 하였고, 『금광명경』 제6권에서는 “염부제 땅은 가로세로가 7천유순이다”<sup>159)</sup>라고 하였다. 지금 말하는 것은 미륵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 사해의 물이 많이 줄고 땅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만유순이라고 하였다. 이후 점차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바닷물이 다시 증가하여 땅은 좁아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10천 또는 7천과

154) 『미륵하생경』은 減

155) 『미륵하생경』은 諸村聚落

156) 『미륵하생경』은 于

157) 『증일아함경』 권44 大2 p.787c20~26 ;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1a25~b2.

158) “사리불이여, 사대 바닷물은 점점 줄어들어 3천유순이 된다. 이때 염부제 땅은 길이는 10천유순, 넓이는 8천유순이다. 평탄하기가 거울과 같고 이름난 꽃과 부드러운 풀들이 땅을 덮으며, 갖가지 나무와 꽃과 과일이 무성하여 나무 높이는 모두 30리나 된다. 마을들이 즐비하고 닭들은 나란히 난다. 사람의 수명은 8만 4천세이고, 지혜와 위덕의 힘이 갖추어지며 안온하고 쾌락하다.”(『佛說彌勒下生成佛經』 大14 p.423c14~17. 舍利弗, 四大海水, 以漸減少三千由旬, 是時閻浮提地, 長十千由旬, 廣八千由旬. 平坦如鏡, 名華軟草, 遍覆其地. 種種樹木, 華果茂盛, 其樹悉皆高三十里. 城邑次比鷄飛相及. 人壽八萬四千歲, 智慧威德色力具足, 安隱快樂.)

159) 『금광명경(金光明經)』은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을 말함. “세존이시여, 저는 더 좋은 맛이 없는 감로를 마셨습니다. 염부제 땅은 가로세로가 7천유순으로 흙의 풍성함이 보통의 배나 됩니다.”(『合部金光明經』 제6 大16 p.389a12~18 世尊. 我服甘露無上味已. 閻浮提地, 縱廣七千由旬, 豐壤倍常.)

다르지 않다. 만일 다른 글이 있다면 이것에 근거해서 알 수 있다. ‘각각 한 쪽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닷물이 각각 한쪽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모든 산이 없어져 거울과 같이 평평해지는 것은 이치에 보아 실제로 말해보면, 그 때에도 산과 돌 등이 있었으나 지금에 비교하기 때문에 없을 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래 글에서 “대가섭이 이 산에 머물고 있다”<sup>160)</sup>라고 한 것과 어긋난다.

經曰“阿難當知”以下，第二地土廣美。十萬由旬者，成佛經云“是時閻浮提地，長十千由旬，廣八千由旬，”金光明經第六云“閻浮提地，縱廣七千由旬”者。今云 彌勒初出時，四海水多減而地多增，故云十萬由旬，後漸久遠時，海水還增，地狹短故，十千及七千不違。若有違文，准此可解也。各據一方者，海水各退縮，一方故。諸山消滅及平正如鏡者，約理實言，其時亦有山石等，而對今<sup>161)</sup>故無耳。若不爾，違下文云“大迦葉住此山”故。

[경]

이때 시절 기운이 온화하고 적절하여 사계절이 절기를 따른다. 사람의 몸에는 백 여덟 가지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근심이 없어서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이 화평하고 고르니 모두 같은 뜻을 지

160) 『미륵하생경』의 후반부에 “대가섭 또한 반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이 세간에 출현하시기를 기다린다. 왜 그런가 하면 미륵이 교화할 제자는 모두 석가문불의 제자로서 나의 교화로 말미암아 번뇌를 다 없앨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다국 비제촌 가운데에 대가섭이 저 산중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였다.(『佛說彌勒下生經』大14 p.422b18~22. 大迦葉，亦不應般涅槃，要須彌勒出現世間。所以然者，彌勒所化弟子，盡是釋迦文弟子，由我遺化得盡有漏。摩竭國界毘提村中，大迦葉於彼山中住.)

161) 원문의 습은 스이라야 뜻이 통한다.

났고, 서로 만나면 즐거워하고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말도 한 종류라 차별이 없으니, 저 우단월(優單越)<sup>162)</sup> 사람들과 같아 닮이 없다. 이때 염부제 땅 안의 사람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모두 한가지여서 조금의 차별도 없다. 이때 남자와 여자의 무리들이 크고 작은 용변을 보고자 하면 땅이 저절로 열리고, 일을 마친 후에는 땅이 다시 합쳐진다. 이때 염부제 땅 안에서는 저절로 땀샘이 나는데, 껌질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맛있으며, 먹어도 병이 없다. 또 이른바 금·은과 진귀한 보배인 거거<sup>163)</sup>·마노·진주·호박이 땅 위에 흩어져 있어도 살펴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때 사람들은 손에 이 보배를 들고 서로 이렇게 말한다. “옛 사람들은 이 보배 때문에 서로 해치고 해를 입혀 옥에 갇혀 무수한 고통을 받았다. 금이나 이 보배와 같은 것은 흙이나 돌과 마찬가지로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

爾時時氣和適，四時順節。人身之中，無有百八之患，貪慾瞋恚愚痴，不大殷勤。<sup>164)</sup> 人心平均，<sup>165)</sup> 皆同一意，相見歡悅，善言相向，言辭一類，無有差別，如彼鬱單曰<sup>166)</sup>人，而無有異。是時間閻浮地內，人民大小，皆同一響，<sup>167)</sup> 無有若干之差別也。<sup>168)</sup> 彼時

162) 우단월(優單越) : ㉔ Uttara-kuru. 울단월(鬱單越). 수미산에 있는 네 세계의 하나. 남쪽에 있는 염부제에 대하여 북쪽에 있으며, 구로주(俱盧洲)라고도 한다. 『기세경(起世經)』 권1에 “수미산왕은 북쪽으로 대륙이 있으니 울단월이라고 한다. 그 땅은 가로세로가 10천유순으로 사방이 반듯하고 그곳 사람들의 얼굴은 그 땅의 모양과 비슷하다.”(大1 p.311b7~8. 須彌山王，北面有洲，名鬱單越。其地縱廣，十千由旬，四方正等。彼洲人面，還似地形。)라고 하였다.

163) 거거(車磑)는 거거(磑磑)로도 쓰며, 바닷가에서 나는 표면이 옥과 같이 흰 광택이 나는 조개를 말한다. 칠보의 하나이다.

164) 『미륵하생경』은 慍懃

165) 『미륵하생경』은 均平

166) 『미륵하생경』은 優單越

167) 『미륵하생경』은 向

男女之類，意欲大小便<sup>169)</sup>，地自然開，事訖之後，地復<sup>170)</sup>還合。爾時閻浮地內，自然生粳米，亦無皮裹，極爲香美，食無患苦。所謂金銀珍寶車磑馬瑙眞珠琥珀，各散在地，無人省錄。是時人民，手執此寶，自相謂言，“昔者之人，由此寶故，各<sup>171)</sup>相傷害，繫閉在獄，受無數苦惱。如金<sup>172)</sup>此寶，與瓦石同流，無人守護。”<sup>173)</sup>

## [소]

경문에서 “이때 시절 기운이 온화하고 적절하여” 이하는 셋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함[人民相和]에 관한 것이다. ‘사시’는 봄과 가을 등 사계절이다. ‘절기에 따름’은 여덟 절기이니 사계절에 두 절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입춘(立春)과 춘분(春分), 입하(立夏)와 하분(夏分), 입추(立秋)와 추분(秋分), 입동(立冬)과 동분(冬分)이다. 크게는 『정도삼매경(淨度三昧經)』<sup>174)</sup>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일 백성이 하늘과 땅과 달리 행동한다면 사계절의 기

168) 『미륵하생경』은 無若干差別異也

169) 『미륵하생경』은 大小便時

170) 『미륵하생경』은 便

171) 『미륵하생경』은 更

172) 『미륵하생경』은 今

173) 『증일아함경』 권44 大2 p.787c20~788a9 ;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1b2~14.

174) 『정도삼매경(淨度三昧經)』: 의위경(疑僞經)으로 분류된 경전. 현재는 일부분만 만족장경(已續藏經) 제87책에 수록되어 있다. 염라대왕이 그 휘하에 있는 부용(扶容)왕과 관리들을 파견하여 사람의 공과 죄를 조사해 오도록 하여 그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람들의 수명을 더하거나 줄인 여러 가지 사실과, 매월 육재일이나 팔왕일에 재제하는 자는 선신의 수호를 받는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경률이상(經律異相)』(권49)이나 『법원주림(法苑珠林)』(권7·62·97) 등에 내용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경록(經錄)에는 이 경의 번역자와 권수 등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복위 담요(曇曜) 번역의 1권본 등이 올라 있다.

운이 때와 절기를 따르지 않는다. 지금의 그 시절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 때문이다. ‘백팔 근심’은 혹은 백팔 번뇌라고 하는데 지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대승경론에서 일찍이 백팔 번뇌를 설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근심은 몸의 병이다. 백팔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苦], 즐거움[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捨]<sup>175)</sup>이 육경(六境)<sup>176)</sup>에 통하면 18가지가 되고, 18가지가 인연의 더러움[染]과 깨끗함[淨]에 통하면 36가지이고, 36가지가 삼세(三世)<sup>177)</sup>를 지나기 때문에 (108가지)이다.<sup>178)</sup> 또 말하기를 『유가사지론』에서는 110종의 고통이라고 하였으니<sup>179)</sup> 그렇다면 이 경에서 말하는 백팔 근심과는 숫자의 출입이 다를 뿐이니 이 논을 인용

- 
- 175) 사(捨)는 사수(捨受). 삼수(三受)의 하나로서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를 말한다.
- 176) 육경(六境): 기본 감각기관인 눈·귀·코 등 육근(六根)이 인식하는 여섯 가지의 인식 대상인 경계. 색(色)·소리(聲)·향기(香)·맛(味)·촉감(觸)·법(法). 이 육근은 번뇌에 접촉하여 사람의 식을 오염시키므로 육진(六塵)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미망으로 이끌므로 육망(六妄)이라고도 하며, 일체의 선법을 없애므로 육적(六賊)이라고도 한다.
- 177) 삼세(三世): 과거 현재 미래의 총칭. 한 개인이 현재 생존해 있는 현세(現世)를 중심으로 출생 이전의 과거세인 전생(前生)과 죽은 이후의 미래세인 내세(來世)를 말한다.
- 178) 번뇌를 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팔번뇌이다. 여기서 말한 것은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 권5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59에 나오는 『명도오십교계경(明度五十校計經)』이나 『지관보행전홍결』의 다른 부분에는 이런 구분도 있다.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근(六根)이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육경(六境)을 대상으로 할 때 각기 惡·중지도 싫지도 않음[平]의 3종의 구분이 있어 18종이 되고, 고, 그 하나하나마다 각각 더럽고[염]·깨끗함[淨] 구분이 있어 36종이 되며, 이를 다시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배당하면 108이 된다.
- 179) 『유가사지론』에서는 110고통은 말하지만(권44 大30 p.536c21. 總有一百一十種苦) 110번뇌는 없으며 대신 128번뇌를 말하기는 한다.(권8 大30 p.313b15 或分一百二十八煩惱)

할 수 있다. ‘탐욕’ 이하는 마음 안의 걱정을 드러내려는 뜻이다.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慙)은 여러 차례를 말하며, 은(慇)<sup>180)</sup>은 무거움을 말하니, 그때 번뇌가 가볍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화평하고 고르다’는 것은 삼독(三毒)<sup>181)</sup>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 같은 마을이어서’<sup>182)</sup>라는 것은 비록 한 마을은 아니지만 왕의 도성 바깥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서 “마을과 마을이 잇달아 있어 닭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리느니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질투가 없기 때문이다. ‘일을 마친 후에는 땅이 다시 합쳐진다’는 『미륵성불경』에서는 “이때 세 가지 병이 있으니 용변의 편리함과 음식과 노쇠함이다.”<sup>183)</sup>라고 하였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석가부처님 시대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을 말한다. ‘벼’는 『증일아함경』 제49권에서 “그때 계두성에서는 저절로 멍쌀이 나는데 길이가 세 치이고 매우 향기롭고 맛있으며, 배고 나면 조금 뒤에 다시 나서 벤 흔적을 볼 수 없다.”<sup>184)</sup>고 하였다. 묻는다. 그때 날로 먹는가, 익혀 먹는가? 답한다. 『장아함경』 제21권에서<sup>185)</sup> “저절로 난 멍쌀은 거

180) 원문의 慇은 慇이라야 한다.

181) 삼독(三毒): 탐욕[貪]·성냄[瞋恚]·어리석음[愚癡]. 이는 불도를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세 가지 근본수행인 계(戒)·정(定)·혜(慧)라는 삼학(三學)의 상대가 되는 것으로, 삼혹(三惑)이라고도 한다. 불도 수행에 장애가 되므로 독이라고 한다.

182) 원문은 ‘皆同一鄉’이라 하였는데, 이 글자는 판본에 따라 다르다. 문맥으로 보면 ‘皆同一響’이 맞지만 경홍의 해석을 풀이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원문의 ‘皆同一鄉’에 따라 해석한다.

183) 『佛說彌勒下生成佛經』大14 p.423c19~20. 唯有三病, 一者便利, 二者飲食, 三者衰老.

184) “그때 계두성 안에서는 저절로 멍쌀이 나는데 길이가 모두 세 치이고 매우 향기롭고 맛있어 어느 맛보다 뛰어나며, 배고 나면 조금 뒤에 다시 나서 벤 흔적을 볼 수 없다.”(『增一阿含經』大2 p.819a3~5. 爾時, 雞頭城中, 生自然粳米, 皆長三寸, 極爲香美, 出衆味上, 尋取尋生, 皆不見所取之處.)

185) 현행 판본에서는 『장아함경』 제21이 아닌 제22에 나온다. “그 뒤에는 다시 자연

가 없어 조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중생들이 곧 먹었으니, 이 때문에 날로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금과 은 등은 문맥상 이 경을 설할 때 중생들은 자연산 뭍쌀을 듣고 칠보(七寶)<sup>186)</sup>가 저절로 나지 않는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칠보도 저절로 난다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다.

經曰“爾時時氣和適”以下，第三人民相和。四時者，春秋等四時，順節者八節，謂四時有二日故，即立春春分，立夏夏分，立秋秋分，立冬冬分，廣如淨度三昧經也。若人民行違天地，即四時氣不順時節，今其時人民相和故。百八患者，一云百八煩惱，今云不然，諸大乘經論，曾無說百八煩惱故。故今云患即身病。謂百八者，苦樂捨，通六境中即十八，十八通緣染淨即三十六，三十六逕三世故。又云 瑜伽論云 百十種苦。即此經百八患，開合異耳，可引論也。貪欲以下，意顯心內患也。不大慍懃者，懃者即數數，慍<sup>187)</sup>者即重，謂彼時煩惱薄輕也。人心平均者，無三毒故。皆同一鄉者，雖非一鄉，而無王都外異故。故上云‘村落相近，雞鳴相接，’是即無嫉妬故。事訖還合者，成佛經云，

---

산 뭍쌀이 있는데, 등거나 뉘가 없고 조리를 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맛을 갖추었다.”『長阿含經』 권22 大1 p.148a16~18. 其後復有自然粳米，無有糠粃，不加調和，備衆美味.)

186) 가장 좋은 보배 일곱 가지.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미륵하생경』의 해당 구절에서는 금·은·거거·마노·진주·호박을 말하였고, 다른 경전에서는 금·은·유리·거거·산호·마노·파리를 들기도 한다. 『미륵하생경』의 다음 구절에는 전륜성왕의 칠보인 금륜(金輪)·코끼리[象]·말[馬]·구슬[珠]·옥녀[玉女]·군대[典兵]·창고[守藏]을 들었고(『佛說彌勒下生經』 大14 p.421b16~17), 『미륵성불경』에는 전병(典兵)과 수장(守藏)을 주장(主藏)과 주병(主兵)으로 표현하였다.(『佛說彌勒下生成佛經』 大14 p.424a23~24)

187) 원문의 慍을 문맥에 따라 慍으로 교감함.



“爾時有三病，一便利，二飲食，三衰老”故。有疑人，若爾應同釋迦時，是故今須此說也。粳米者，增一阿含經第四十九云，“爾時雞頭城，生自然粳米，長三寸，極爲香美，尋取尋生，皆不見所取處。”問。彼時生喰熟喰？答。長阿含經第二十一云，“自然粳米無有粳糲，不加調和。”其衆生便取食，故知生卽喰也。所謂金銀等，文意云，說此經時，衆聞自然粳米，而疑七寶自然不故，故佛說意七寶亦自然也。

[경]

그때 상거라는 범왕이 출현하여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칠보를 이룰 것이다. 칠보란 금륜 보배, 코끼리 보배, 말 보배, 구슬 보배, 옥녀 보배, 군대 보배, 창고 보배로서, 이것을 칠보라 한다. 염부제 땅 안을 진압할 때 칼이나 무기로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항복받으니, 지금 아난의 네 개의 보배 창고와 같다. (첫째는) 건타월국의 이라발 보배 창고인데, 온갖 진기하고 보물과 기이한 물건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미제라국의 주라 큰 창고인데, 역시 진기한 보배가 많을 것이다. 셋째는 수뢰타대국의 큰 보배 창고인데, 역시 진기한 보배가 많을 것이다. 넷째는 바라나국 상거에게 큰 창고가 있는데, 역시 진기한 보물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이 네 개의 큰 창고는 저절로 생긴 것인데, 창고를 지키는 책임자들이 각자 왕에게 말할 것이다. “원하옵건대 대왕이시여! 이 보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소서.” 그 때 상거왕은 보물들을 얻고 나서도 그것을 살펴 기록하지도 않고, 끝까지 재물과 보배에 대한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 때 염부제에는 저절로 나무에서 옷이 생기는데, 매우 얇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가져다 그것을 입는다. 지금 울단월 사람들이 저절로 나무에서 옷이 생겨나는 것과 같아서 다름이 없다.

爾時法王出現，名曰蟻<sup>188)</sup>佉，正法治化，七寶成就。所謂七寶者，輪寶·象寶·馬寶·珠寶·玉女寶·典兵寶·守藏之寶，<sup>189)</sup>是謂七寶。領<sup>190)</sup>此閻浮地內，不以刀杖，自然靡伏，如今阿難四珍之藏。乾陀越國 伊羅鉢寶藏，多諸珍琦異物，不可稱計。第二彌梯羅國 般綢<sup>191)</sup>大藏，亦多珍寶。第三須賴吒大國 有寶藏，<sup>192)</sup>亦多珍寶。第四波羅奈蟻<sup>193)</sup>佉有大藏，<sup>194)</sup>多諸珍寶，不可稱計。此四大藏，自然應現，諸守藏人，各來白王，“唯願大王，以此寶藏之物，惠施貧窮。”爾時蟻<sup>195)</sup>佉大王，得此寶已，亦復不省錄之，竟無財物<sup>196)</sup>之想。時閻浮地內，自然樹上生衣，極細柔軟，人取著之。如今鬱單曰<sup>197)</sup>人，自然樹上生衣，而無有異。<sup>198)</sup>

## [소]

경문에서 “그때 법왕이 출현하여” 이하는 넷째 왕과 신하가 매우 선함[王臣勝善]에 관한 것이다. 이 중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왕이 매우 선한 것

188) 『미륵하생경』은 僊

189) 『미륵하생경』은 守藏寶

190) 『미륵하생경』은 鎮

191) 『미륵하생경』은 綢羅

192) 『미륵하생경』은 有大寶藏

193) 『미륵하생경』은 僊

194) 『미륵하생경』은 有大寶藏

195) 『미륵하생경』은 僊

196) 『미륵하생경』은 寶

197) 『미륵하생경』은 優單越

198) 『증일아함경』권44 大2 p.788a9~23 ;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1b14~28.

이고, 다음은 신하가 매우 선한 것이다. 처음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정보의 수승함을 분별함[辨正報勝]이고, 다음은 의보의 수승함을 분별함[依報勝]이니 이에 준한다.

철보는 전륜성왕(轉輪聖王)<sup>199)</sup>이 산선(散善)<sup>200)</sup>으로 교화하고 이끌기 때문에 얻게 하는 과보이다. 인도(人道)와 육욕천(六欲天)<sup>201)</sup>에 있기 때문에

199) 전륜성왕(轉輪聖王): ㉔cakra-vartī-rājan, 지금의 전차에 해당하는 윤보(輪寶)를 굴리는 왕이란 뜻으로, 정법으로 온 세상을 통일하여 다스린다는 이상적인 제왕을 말한다. 전륜성왕은 수레·코끼리·말·구슬·여인·거사·군대의 철보를 가지고 장수와 질병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며 보배를 충분히 가진 사덕(四德)을 갖추고 세상을 다스려 그 국토는 풍족하고 백성들은 평화롭고 즐거운 나라를 이끈다. 전륜성왕은 부처와 비유되기도 하여 부처가 설법하는 것을 법의 윤보를 굴리는 것이라 하여 전법륜(轉法輪)으로 표현하였다. 미래불인 미륵불이 출현할 때 상거 전륜성왕도 함께 출현한다고 한다. 전륜성왕에 네 가지가 있어 금륜(金輪)성왕은 전 세계인 수미 사대주를 통치하고, 은륜(銀輪)성왕은 3대주, 동륜(銅輪)성왕은 2대주, 철륜(鐵輪)성왕은 1대주를 통치한다고 한다. 또 4종 전륜성왕을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의 수행 계위에 비유하기도 한다.

200) 산선(散善): 정토 수행의 두 가지 중의 하나. 정선(定善)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여 정토의 과보를 관찰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산선은 신구의 세 가지로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을 말한다. 당의 선도(善導)가 『관무량수경』에서 말하는 16관법을 정선과 산선으로 나눈 데서 비롯되었다.

201) 육욕천(六欲天): 욕계(欲界)의 여섯 하늘 세계. 욕계는 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와 함께 삼계의 하나로서 유정이사는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의 유정에게는 식욕과 음욕과 수면욕의 욕락이 있기 때문에 욕계라고 한다. 육욕천은 ①사천왕천(四大王天)은 지국천(持國天)·증장천(增長天)·광목천(廣目天)·다문천(多聞天)의 사천왕과 그에 딸린 천중들이 산다. ②삼십삼천(三十三天)은 도리천(忉利天)이라고도 하며, 중앙의 제석천(帝釋天)이 사방에 8천을 데리고 있어 33천이 된다. ③야마천(夜摩天)은 시분천(時分天)이라고도 하며, 때에 따라 쾌락을 받는다. ④도솔천(兜率天)은 지족천(知足天)이라고도 하며, 자기가 받는 오욕락에 만족한 마음을 낸다. ⑤화락천(化樂天)은 낙변화천(樂變化天)이라고 하며, 신통력으로 오욕의 경계를 스스로 변화하여 즐긴다. ⑥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7보를 이루는 것이고 6보나 8보가 아니다. ‘바퀴 보배’는 금륜(金輪)을 말한다. 『미륵성불경』에서 “금륜보”라고 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증일아함경』에서 “천 개의 바퀴를 갖추고 동방에서 와서 옹한다.”<sup>202)</sup>라고 하였다. ‘코끼리 보배’는 『증일아함경』에서 “이 때 코끼리 보배가 남쪽에서 오는데, 여섯 개의 어금니가 있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다.”<sup>203)</sup>라고 하였다. ‘말 보배’는 『증일아함경』에서 “이 때 말 보배가 서쪽에서 오는데, 털은 파랗고 꼬리털은 붉으며, 걸어서 이동하지 않고 허공을 날아다닐 수 있다.”<sup>204)</sup>라고 하였다. ‘구슬 보배’는 여의주(如意珠)<sup>205)</sup>이다. 『증일아함경』에서 “동쪽에서 오는데, 팔각형이며 네 면에는 불꽃 같은 빛이 있으며 길이는 1자 6치이다. 밤중에 그 나라 경계의 12유순을 비춘다.”<sup>206)</sup>라

---

다른 사람들이 자재롭게 오욕락의 경계를 변화하게 한다. 이중 사천왕천은 수미산의 허리에 있고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어 지거천(地居天)이라 하며 야마천 위로는 천상 공간에 있어 공거천(空居天)이라 한다.

202) “운보에는 천개 바퀴살이 갖추어져 있고 동쪽에서 와서 전당 앞에 이른다.”(『增一阿含經』大2 p.731c26~27. 輪寶千輻具足, 從東方來, 而在殿前.)

203) “이때 코끼리 보배가 남쪽에서 오는데, 여섯 개의 어금니가 있고 털이 매우 희며 일곱 곳이 가지런하고, 모두 금은의 진귀한 보배로 장식하고 능히 허공을 난다.”(『增一阿含經』大2 p.732a20~22. 是時 象寶從南方來, 而有六牙, 衣毛極白, 七處齊整, 皆以金銀珍寶而校飾之, 能飛行虛空.)

204) “이때 말 보배가 서쪽에서 오는데, 털이 매우 파랗고 꼬리털은 붉은 빛이며, 가는데 걸지 않고 능히 허공을 난다.”(『增一阿含經』大2 p.732a28~b1. 是時馬寶從西方來, 毛衣極青, 尾毛朱光, 行不移動, 能飛在虛空.)

205) 여의주(如意珠): 여의보주(如意寶珠)라고도 하며 소리나는 대로 마니주(摩尼珠)라고도 한다. Cintā-maṇi. 자신의 뜻대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보주를 말한다. 이 보주에는 병을 없애고 고통을 없애는 공덕이 있다고 하여 불법이나 불덕의 비유로 쓰이며 경전의 공덕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의보주는 용왕의 뇌 속에서 나온다고 하며 부처의 사리가 변한 것으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도 한다. 지장보살이나 여의륜관음 등이 여의보주를 가지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

고 하였다. 『미륵대성불경』에서는 “길이가 3주(肘)<sup>207)</sup>이다” 라고 하였다.<sup>208)</sup> 풀이하여 말하면 이것도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으로, 그래서 틀린 것은 없다. ‘옥녀 보배’는 『증일아함경』에서 “옥녀(玉女)는 얼굴이 단정하고 얼굴 빛이 복사꽃과 같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다. 입에서는 우담발화(憂曇鉢華)<sup>209)</sup>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梅檀)<sup>210)</sup> 향

206) “이 때(전륜성왕이 세상에 출현할 때) 주보가 동방에서 오는데, 8각형에 네 면에는 불꽃같은 빛이 있으며 길이는 1척 6촌이다. 전륜성왕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주보는 훌륭하고 묘하다. 내가 이제 시험해 보리라. 그 때 전륜성왕은 한밤중에 네 종류의 군사를 모두 모아 이 마니보를 높은 깃대 꼭대기에 다는데, 그 때 그 광명은 그 나라 안의 12유순을 비춘다.”(『增一阿含經』大2 p.732b07~12 是時珠寶從東方來 而有八角 四面有火光 長一尺六寸 轉輪聖王見已便作是念 此珠寶極爲殊妙 吾今當試之 是時轉輪聖王夜半悉集四部之兵 以此摩尼寶舉著高幢頭 是時光明照彼國界十二由旬)

207) 주(肘)는 길이의 단위로, 팔꿈치 길이를 말한다. 인도의 길이 단위의 하나이다. 손가락 3마디가 1손가락[指], 24지가 1팔꿈치[肘], 4주가 1궁(弓), 500궁이 1크로사(拘盧舍), 8구로사가 1요자나(踰繕那, 由旬)이라고 한다.

208) 『미륵대성불경』에는 “사신의 구슬 보물은 밝고 드러나서 불만한테, 길이가 2주이고 광명이 비오듯하여 중생들의 바람에 잘 맞는다.”(『佛說彌勒大成佛經』大14 p.430a2~3. 四神珠寶, 明顯可觀, 長於二肘, 光明雨寶, 適衆生願.) 라고 하여 3주가 아니라 2주라고 하였다.

209) 우담발화(憂曇鉢華): ㉠udumbara 또는 udumbara, 우담발라화(憂曇鉢羅花) 등으로도 쓰며 영서화(靈瑞花) 등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꽃이 핀다고 하는 상상의 꽃으로, 3천년에 한번 꽃이 핀다고 하여 매우 드문 경우를 상징할 때 쓰인다. 뽕나무과의 교목인 무화과속에 속하는 나무로 학명은 *Ficus glomerata*이며, 히말라야 산기슭과 대칸 고원지대 그리고 스리랑카 등지에서 자라며 키는 3m정도까지 자란다. 불교에서는 특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극히 드문 일에 비유하여 쓰인다.

210) 전단(梅檀): 전단(旃檀), 전단수(梅檀樹)라고도 쓰며 여약(與藥)으로 의역한다. ㉠candana,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백단(白檀)·단향(檀香)이라 하였다. 인도에서 자생하는 상록수인 향나무이다. 단향(檀香)과 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높이는 몇 미터나 되는데 줄기는 향기가 있어 치병 재료로 쓰이며 조각의 재료

기가 난다. 왕의 좌우에서 그 때를 어기지 않는다고 말한다.”<sup>211)</sup> 라고 하였다. ‘주장보(主藏寶)’는 수장보(守藏寶)이다. 『증일아함경』에서 “전륜성왕이 세상에 출현할 때 곧 거사보(居士寶)가 있는데, 몸은 붉은빛이며 천안통(天眼通)<sup>212)</sup>을 얻는다. 이 거사가 왕에게 아뢰기를, ‘오직 바라건대 성왕이 시여! 수명이 무궁하소서.’ 라고 하였다.”<sup>213)</sup> 라고 하였다. ‘군대 보배’는 주병보(主兵寶)이다. 『증일아함경』에서 “전륜성왕이 세상에 출현할 때 네 군대가 스스로 와서 응한다.”<sup>214)</sup> 라고 하였다.

로도 이용된다. 뿌리는 갈아서 단향을 만들며 향유로 쓰기도 한다. 인도 데칸 고원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백색과 적색 중 적색을 상품으로 친다. 백단은 열병 치료에 쓰이고 적단은 풍증을 없애는 데 쓰여 ‘여약’이라고 번역하였다. 불전에서 세존이 돌아가신 모친을 뵈러 도리천에 올라가자 그 사이에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우전왕이 전단향으로 부처님 형상을 만든 것이 불상의 시초라고 전해온다.

- 211) “전륜성왕이 세상에 출현할 때 저절로 이 옥녀보가 나타난다. 그녀는 얼굴이 단정하고 얼굴빛이 복숭아꽃 같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으며, 성질이 부드러워 사납지 않다. 입에서는 우담발라화 향기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 냄새가 난다. 그녀는 항상 성왕의 좌우에서 시중들며 그 때를 어기지 않는다.” (『增一阿含經』 大2 p.732b19~23. 若轉輪聖王出現世時, 自然有此玉女寶現, 顏貌端政, 面如桃華色, 不長不短, 不白不黑, 體性柔和, 不行卒暴, 口氣作憂鉢華香, 身作栴檀香. 恒侍從聖王左右, 不失時節.)
- 212) 천안통(天眼通): 선정을 수행하여 얻는 여섯神通의 하나. 천안(天眼)으로 요계의 모든 곳을 꿰뚫어 보는 능력. 지상과 지하의 육도 중의 멀고 가까운 것들과 크고 작은 것들을 모두 비추어 보고, 육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들을 통달하여 아는 능력.
- 213) “몸은 붉은빛에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는 통달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또 천안통(天眼通)을 얻은 자이다. 그 거사는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아뢴다. ‘성왕께서는 만수무강 하소서.’” (『增一阿含經』 大2 p.732b28~c1. 身體紅色, 高才智達, 無事不開, 又得天眼通. 是時 居士來至王所, 而白王言, ‘唯願聖王, 延壽無窮.’)
- 214) “전륜성왕이 세상에 출현할 때 다시 이 병보가 저절로 와서 응한다.” (『增一阿含經』 大2 732c13~732c14. 轉輪聖王出現世時 便有此寶 自然來應)

묻는다. 전륜성왕과 그 칠보가 일시에 없어지고 죽는가?

답한다. 『장아함경』에서 “선견왕이 갑자기 죽은 것이 장사가 밥 한 번 먹는 것 같았다. 왕이 죽은 지 7일 만에 바퀴 보배[輪寶]와 구슬 보배[珠寶]가 보이지 않았다. 남은 다섯 보배도 날마다 없어져갔다. 성과 누각과 저택 등도 모두 흙과 나무로 변했다.”<sup>215)</sup>라고 하였다. 전륜성왕이 죽자 보배도 상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장아함경』에서 “금륜보가 허공에서 갑자기 본래 자리를 떠났다. 윤보가 돌아오자 곧바로 가서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듣고서 ‘왕의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구나’라고 말하였다.”<sup>216)</sup>라고 하였다. 『증일아함경』에서 “전륜성왕은 죽은 후에 삼십삼천(三十三天)에 태어난다.”<sup>217)</sup>라고 하였다.

經曰 “爾時法王出現” 以下，第四王臣勝善。此中二，先王勝善，後臣勝善。初中亦二，初辨正報勝，後依報勝，可准也。七寶者，輪王

---

215) “이때 선견왕이 갑자기 죽은 것이 장사가 밥 한 번 먹는 것 같아 고뇌가 없었다. 혼이 하늘에 올라 제7 범천에 태어나고 그 선견왕이 죽은지 7일 만에 윤보(輪寶)와 주보(珠寶)가 저절로 보이지 않았다. 상보와 마보와 옥녀보와 거사보와 주병보도 같은 날 없어졌다. 성곽과 전각과 누각과 저택과 보배로 장식된 금다린원도 모두 흙과 나무로 변했다.”(『長阿含經』大1 p.24b14~18. 時善見王忽然命終，猶如壯士美飯一餐，無有苦惱，魂神上生第七梵天，其王善見死七日後，輪寶珠寶自然不現，象寶馬寶玉女寶居士寶主兵寶，同日命終。城池法殿，樓觀寶飾金多鄰園，皆變爲土木.)

216) “금륜보가 허공에서 갑자기 본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윤보 담당자가 곧바로 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아소서. 지금 윤보가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견고왕이 듣고서 생각하여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장로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만일 전륜성왕의 윤보가 움직였다면 왕의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구나.’”(『長阿含經』大1 p.39b10~b14. 金輪寶即於虛空，忽離本處，時典輪者，速往白王。‘大王當知，今者輪寶，離於本處。’時堅固王，聞已念言，‘我曾於先宿耆舊所聞，若轉輪聖王輪寶移者，王壽未幾。’)

217) “전륜성왕은 죽은 후에 삼십삼천에 난다.”(『增一阿含經』大2 p.733a8~9. 轉輪聖王命終之後，生三十三天.)

但以散善所化導，故令所得果報，人<sup>218)</sup>六欲天，是故成七寶而非六八也。言輪寶者，金輪，謂成佛經曰“金輪寶”故。增一經云“具足千輪，東方來應。”象寶者，增一經云“是時象寶，從南方來，有六牙，金銀校飭，能飛虛空。”馬寶者，增一經云“是時馬寶，從西方來，毛青尾朱，行不移動，能飛虛空。”珠寶者，如意珠也。增一經云“東方來，有八角，四面有火光，長一尺六寸，夜半照彼國界十二由旬。”大成佛經云“長三肘。”解云此亦有大小故，故無失也。女寶者，增一經云“玉女顏貌端正，面如桃華，不長不短，不白不黑，口優鉢華香，身栴檀香，謂王左右，不失時節也。”主藏寶者，即守藏寶，增一經云“輪王出世時，便有居士寶，身體紅色，得天眼通，此居士白王言，‘唯願聖王，壽延無窮。’”兵寶者，即主兵寶，增一經云“輪王出時，四兵自然來應。”問。輪王及其七寶，一時滅死？答。長阿含經云“善見王忽然命終，如壯士一食飯。其王死七日，輪寶珠寶不現，所餘五寶日日命終，城樓觀等皆變爲土<sup>219)</sup>木也。”輪王命終，寶有瑞相。謂長阿含經云“金輪寶於虛空，忽離本處，輪迴速往白王，王聞已言，王壽未滅。”增一經云“輪王命終後，生三十三天。”

‘지금과 같다’란 혹은 여(如)는 대저[夫]이고 금(今)은 현재라고 한다. 혹은 지금 석가는 네 개의 큰 창고가 있는데, 미륵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다고 한다고 한다. 건타월(乾陀越)<sup>220)</sup>이란 한자로는 타지(他持)인데, 북

218) 대자로도 쓰였는데, 의미상 人자로 보인다.

219) 원문의 七은 토라야 맞는다.

220) 건타월(乾陀越): Gandhāra, 건타라(健駄邏). 고대 인도 16대국 가운데 하나. 푸르샤푸라(Puruṣapura)에 도성이 있다. 현재는 파키스탄 북서변경주(North-West Frontier Province)의 페샤와르(Peshwar)현에 속하며, 인더스강의 지류인 카불강



천축에 있다. 이라발(伊羅鉢)이란 나무 이름으로 비구가 가지를 쪼개어 용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업으로 스스로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이란 네 개의 큰 창고가 각각 4억 개의 작은 창고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미제라(彌梯羅)’<sup>221)</sup>는 한자로는 등공(等共)인데, 남천축에 있다. ‘계주(係綯)’는 한자로는 황색 머리인데, 용의 이름이다. ‘수뢰타(須賴託)’는 한자로는 검은색인데, 동천축에 있다. ‘보장(寶藏)’이란 빈가라 큰 창고로 한자로는 황색 눈인데, 이것도 용의 이름이다. ‘계주바라나(係綯波羅捺)’는 한자로는 붉은 물줄기인데, 물로 인하여 이름 지은 것으로 서천축에 있다. ‘상거(蟻法)’<sup>222)</sup>는 『증일아함경』에서 “상거(蟻法) 큰 창고는 바

---

하류 평원지대에 위치한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고대 중앙아시아와 서부아시아의 여러 문화가 교류하였다. 이민족이 서쪽에서 인도로 오는 통로이기도 했으며, 북쪽으로 서역을 지나 중국에 이어졌고, 불교와 같은 인도문화가 동쪽에서 와서 다른 세계로 전파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특히 서기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Alexandros)대왕이 침입한 이후 헬레니즘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기 1세기 쿠산왕조 때부터 인도 불교미술과 서방 문화가 결합한 독특한 간다라 불교문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는 2세기 카니슈카(Kaṇiṣka)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간다라식 불상과 불탑 그리고 불교사원이 간다라 중심지 페샤와르를 중심으로 스와트르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지금도 수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다.

221) 미제라(彌梯羅) : Mithilā, 중인도의 옛 성으로 비데하(Videha)의 수도였다. 무이성(無夷城)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이곳의 대천내림(大天捺林)에서 대천왕(大天王) 본생(本生)을 설하셨다 한다. 지금의 자낙푸르(Janakpur) 지방이 이곳으로 보기도 한다.

222) 상거(蟻法) : 𑖀𑖦𑖔𑖪𑖤, 미륵불이 하생할 때 세계를 다스린다는 전륜성왕. 상거왕은 염부제에 사는데 칠보를 다 갖추었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국토가 풍요롭고 안락하고 사람들은 번영하였다. 왕의 대신 중에 수범마라는 이가 있어 부인이 범마월이었는데, 미륵은 범마월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 마침내 출가하여 성불하였다. 그후 왕은 미륵의 설법을 듣고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출가하여 수도하였다.

라날(波羅捺)국<sup>223)</sup>에 있다.”<sup>224)</sup>라고 하였다. ‘이 네 보물 창고’란 『증일아함경』에서 “옛날 장자에게 네 아이가 있었는데 삼보에 귀의하기를 권하였으나 명을 따르지 않자 그때 아버지는 황금을 주었다. 이때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이르러 여쭙었다. ‘이 아이들을 띄어 귀의하게 하였는데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역시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미륵이 세상에 출현할 때 마땅히 보물을 지키는 네 명의 용왕이 될 것이다.”<sup>225)</sup>라고 하였다. ‘여러 창고 지키는 사람’이란 『증일아함경』에서 “이때 창고지기의 이름은 선보(善寶)인데, 이때 이라발 등 네 용왕이 선보가 있는 곳에 가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서로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네 용왕이 네 창고의 보물을 바치자 선보는 네 창고를 받아 보물은 상거왕에게 바쳤다.”<sup>226)</sup>라고 하였다.

223) 바라날(波羅捺)국 : 바라나시(Vārāṇasī), 바루나(Varuna)강과 아씨(Assi)강이 강가 강과 만나는 지점으로, 두 강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바라나시라 불렀다.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브(Aurangzeb) 황제에 의해 베나레스(Benare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바라나시로 부른다.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쉬주에 속한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설법한 사르나트(Sarnāth)가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석존 이후 불교가 번성하였다. 지금은 힌두성지로 유명하며 자이교의 성지이기도 하여 ‘신성한 도시’, ‘종교의 수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명한 종교가, 철학자, 예술가 등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224) “다시 상거 큰 창고는 바라나국에 있다.”(『增一阿含經』大2 p.818c9~10, 復有蟻佉大藏, 在婆羅奈國.)

225) 『증일아함경』(大2 p.818b6~15)의 장자와 네 명의 아들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226) “그 때 선보라고 하는 창고지기가 있는데, 덕이 높고 지혜로우며 천안이 제일일 것이다. 보배가 간직된 곳을 잘 알아 주인이 있는 창고는 잘 보호해주고 주인이 없는 창고는 왕에게 바칠 것이다. 그 때 이라발 용왕·반조 용왕·빈가라 용왕·상거 용왕, 이 네 용왕들이 보배 창고를 맡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선보라는 창고지기에게 가서 말할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들이 모두 공급할 것이다.’ 그 때 네 용왕이 말한다. ‘네 개의 창고에 있는 보배를 바치리니 그것으로 일을 경영하기 바랍니다.’ 그 때 창고지기 선보는 네 창고의 보배를 받아 금으로

묻는다. 어째서 미륵의 때에 칠보가 곳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 가난하고 궁색한 이들에게 베푼다고 하는가?

답한다. 보물이 풍족하여도 전륜성왕에 비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다.

‘나무에서 옷이 난다’란 『장아함경』에서 “울단월(鬱單越)의 땅에 또한 옷나무가 있는데 과실이 익을 때 저절로 여러 가지 옷이 생겨난다.”<sup>227)</sup>라고 하였다. 지금 그것을 인용하여 예로 든다.

如今者，一云如者夫也，今者現也。一云今釋迦有四大藏，彌勒亦爾，故云如今也。乾陀越者，此云他持，在北天竺也。伊羅鉢者，是樹名，謂比丘析樹枝，以受龍身，是故以業自樹也。諸珍物者，此四大藏，各有四億小藏圍遶故。彌梯羅者，此云等共，在南天竺也。係綢者，此云黃頭，是龍名也。須賴託者，此云黑色，在東天竺也。寶藏者，卽賓伽羅大藏，此云黃眼，是亦龍名。係綢波羅捺者，此云紅澆，因水目名，在西天竺也。蟻佉者，增一經云，“蟻佉大藏在波羅捺國。”此四寶藏者，增一經云，“昔有長者有四兒，勸令歸三寶矣，不從命，卽時父雇黃金，爾時父將兒詣佛問云，‘此兒雇受歸依，得福不？’佛答亦得。”謂未來彌勒出世時，當守護寶爲四龍王也。諸守藏人者，增一經云，“爾時典藏人，名善寶，爾時伊羅鉢等四龍王，往至善寶所，語

---

된 것 수레와 함께 상거왕에게 바칠 것이다.”(『增一阿含經』大2 p.819a6~14. 爾時典藏人名爲善寶，高德智慧，天眼第一，皆能知寶藏處所，有主之藏，自然擁護，無主之藏，便奉上王，爾時伊羅鉢龍王 般稠龍王 賓伽羅龍王 蟻佉龍王，是時四龍王主典寶藏，皆往至善寶典藏所，而語之曰，‘欲所須者，我等相給’，時四龍王，‘唯願奉上，四藏之寶，以自營己’時善寶典主，卽取四藏之寶，奉上蟻佉王，金寶羽車.)

227) “다시 옷나무가 있는데 꽃과 과일이 무성하고 과실이 익을 때 겹질이 저절로 벗겨져 여러 가지 옷이 생겨난다.”(『長阿含經』大1 p.121a5~7. 復有衣樹，花果茂盛，其果熟時，皮殼自裂，出種種衣.)

曰‘欲所須者，我等相給.’則四龍王，以四藏寶奉上，善寶取四藏也，寶卽奉上蟻佉王也。問何故彌勒時其七寶處處有，何今云惠施貧窮？答約寶豐足，而對輪王，故云貧窮也。樹上生衣者，長阿含經云，“單越土，復有衣樹，謂果熟時，自然出種種衣。”今引彼爲例也。

## ○ 삼회설법

[경]

또 미륵여래께서 수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앞뒤로 둘러싸고 저 산중에 이르시니 마침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 귀신들이 문을 열어 주어 가섭이 선정에 들어 있는 굴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때 미륵께서는 오른 쪽 손을 펴서 가섭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오랜 옛날의 석가 모니 부처님의 제자로 이름이 가섭이다. 오늘 현재 두타 고행에 가장 뛰어나 제일이니라.”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며 무수한 백천의 중생들은 번뇌의 때를 없애고, 진리의 눈의 청정함을 얻으며 또 어떤 중생은 가섭의 몸을 보기도 하느니라. 이를 이름하여 첫 번째 법회라 하는데, 96억 인이 모두 아라한을 얻으리라. 이들은 다 내 제자들이니, (아라한을 이룬) 까닭은 모두 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또 은혜를 베풀고, 자애롭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었던 사사(四事)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又彌勒如來將無數千人衆，前後圍遶，往至此山中，遂蒙佛恩，諸鬼神當與開門，使得見迦葉禪窟。是時彌勒，申右手指示迦葉，告諸人民，“過去久遠釋迦文佛弟子，名曰迦葉。今日現在頭陀苦行最爲第一。”是時諸人民見已<sup>228)</sup>歎未曾有，無數百千衆生，諸塵垢盡，得法眼淨，或復有衆生，見迦葉身已。此名爲

最初之會，九十六億人皆得阿羅漢。斯等之人皆是我弟子，所以然者，悉由受我教訓<sup>229)</sup>之所致也。亦由四事因緣惠施仁愛利人等利。<sup>230)</sup>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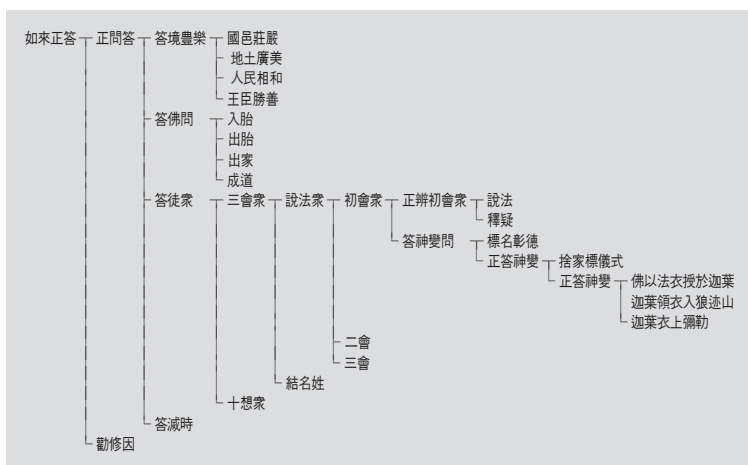
경전에서 “또 미륵여래” 이하는 셋째<sup>231)</sup> 가섭이 옷을 미륵불께 올림[迦葉衣上彌勒]이니, 이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미륵께서 드러내 보이심[彌

228) 『미륵하생경』은 諸人見是事已

229) 『미륵하생경』은 我訓

230) 『증일아함경』 권44 大2 p.789a10~20. ;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2b22~c3.

231) 여기서 말하는 셋째는 앞서 단락과 같이 여래정답 중에서 정문답의 셋째가 담도중(答徒衆)이다. 담도중은 제1 삼회중(三會衆), 제2 십상중(十想衆)이다. 삼회중은 제1 설법중(說法衆), 제2 결명성(結名姓)이다. 설법중은 제1 초회중(初會衆), 제2 이회(二會), 제3 삼회(三會)이다. 초회중은 제1 정변초회중(正辨初會衆), 제2 답신변문(答神變問)이다. 제2 답신변문은 제1 표명창덕(標名彰德), 제2 정답신변(正答神變)이다. 이 정답신변에 셋이 있어 그중 셋째가 이 가섭상의미륵이다. 해제의 구조도 참조.



勒示彰]이고, 다음은 미륵께서 옷을 받으심[彌勒受衣]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귀신이 문을 연다’는 것은 『지도론』에서 “미륵불께서 발가락으로 기사 굴산을 두드려 여셨다. 그때 가섭의 골신이 승가리를 입고 나와 미륵의 발에 경례하고 허공에 올라 이전처럼 변화를 나타내고 곧 공중에서 몸을 없앴다.”<sup>232)</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 중에서는 귀신이 열었는데, 귀신이 부처님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틀리지 않다. 석가의 선굴(禪窟)이란 『아함경』에서는 가섭의 정굴(靜窟)<sup>233)</sup>이라 하였다. 풀이하면 해로 들자면 옛날 석가모니부처님의 선실이기 때문이다. 또 경의 잘못된 수도 있다. ‘진리의 눈의 청정함을 얻는다’는 것은 선근이 이미 성숙한 것이다. 혹은 중생이 아직 선근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성스러운 과보를 얻을 수 없고 오직 가섭의 골신(骨身)만 보게 된다. 또 ‘사사인연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석가의 4섭법(四攝法)<sup>234)</sup>이 성숙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첫째 은혜를 베푸[惠施]은 곧 미륵의 보시이다. 둘째 사랑스러운 말[愛語]은 곧 미륵의 자애롭게 사랑함[仁愛]이다. 셋째 이로운 행동[利行]은 미륵의 사람을 이롭게 함[利人]이다. 넷째 같이 이롭게 함[等利]은 곧 미륵도 같다. 『선생경(善生經)』에 이와 같이 설하였다.<sup>235)</sup>

經曰 又彌勒如來以下, 第三迦葉衣上彌勒. 此中二, 初彌勒示

232) 『대지도론(大智度論)』 권3 大25 p.79a14~17. 彌勒佛見衆人如是, 以足指扣開者闍崛山. 是時 長老摩訶迦葉骨身, 著僧伽梨而出, 禮彌勒足. 上昇虛空, 現變如前, 卽於空中滅身而般涅槃.

233) 『장아함경』 권18에 정굴이란 말이 나오지만 가섭과는 연관이 없다.(大1 p.114b14~15. 爾時世尊於靜窟起, 詣講堂坐, 知而故問, 問諸比丘.)

234) 4섭법(四攝法): [catvāri saṃgraha-vastūni. 보살이 중생을 거두어 들여 친애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네 가지 방법.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

235) 『장아함경』 권33 『선생경(善生經)』 大1 p.641c13~15. 居士子, 有四攝事, 云何爲四, 一者惠施, 二者愛言, 三者行利, 四者等利.

彰，後彌勒受衣。是初也。鬼神開門者，智度論云，“彌勒佛以足指扣開耆闍崛山。時迦葉骨身著僧伽梨而出，禮彌勒足。上昇虛空，現變如前，即於空滅身。”然此經中鬼開者，鬼神從佛行故，故不違也。釋迦禪窟者，阿含經云 迦葉靜窟。解云 年舉者古時釋迦禪室故。又可此經誤也。得法眼淨者，善根已熟者也。或有衆生者，未熟善根，故不得聖果，唯見迦葉骨身也。亦由四事因緣者，由釋迦四攝事所成熟。謂一惠施，即此施也。二愛語，即此仁愛也。三利行，則此利人。四等利，即此亦同。善生經如是說。<sup>236)</sup>

[경]

아난이여, 마땅히 알라. 미륵부처님이 두 번째 설법할 때 94억인이 모두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들도 모두 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니 사사공양을 행하여 잘 마친 이들이다.

阿難當知. 彌勒佛第二會時, 有九十四億人, 皆是阿羅漢. 亦復是我遺教弟子, 行四事供養之所致也.<sup>237)</sup>

[소]

경전에서 “아난이여 마땅히 알라” 이하는 두 번째 설법이다. ‘공양을 행사했다’는 것은 『미륵대성불경』에서 “사사공양을 행하였다.”<sup>238)</sup>라고 한 것이니, 앞의 보시와 인애 등을 말한다.

經曰 阿難當知以下, 第二會也. 行事供養者, 大成佛經云, 行

236) 『삼미륵경소』 韓2 p.108c7~109a1

237) 『증일아함경』 권44 大2 p.789a25~27.;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2c8~10.

238) 『불설미륵대성불경』 大14 p.432a08. 以施僧常食, 起立僧房四事供養.

四事供養, 謂前施仁等也.<sup>239)</sup>

[경]

또 미륵부처님의 세 번째 설법에도 92억인이 모두 아라한이 될 것이니, 이들도 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니라.

又彌勒第三之會,<sup>240)</sup> 九十二億人, 皆是阿羅漢, 亦復是我遺教弟子.<sup>241)</sup>

[소]

경전에서 “또 미륵” 이하는 세 번째 설법[三會]에 관한 것이다. 『지도론』에서 “첫번째 법회[初會]에서 99억, 두 번째 법회[第二會]에서 96억, 세 번째 법회[第三會]에서 93억을 교화하였다.”<sup>242)</sup>라고 하였고, 『현우경』에서 “첫번째 법회에서 93억, 두 번째에서 96억, 마지막에 99억을 교화하였다.”<sup>243)</sup>라고 하였다. 해석하여 말하면, 듣는 이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이

239) 『삼미륵경소』 韓2 p.109a12~14.

240) 『미륵하생경』은 第三會之時

241) 『증일아함경』 권44 大2 p.789a27~28.; 『불설미륵하생경』 大14 p.422c10~12.

242)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면서 처음 설법하실 때 99억인이 아라한도를 얻어 육신통을 갖추었다. 두 번째 법회에서 96억인이 아라한도를 얻었고, 세 번째 법회에서 93억인이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을 제도하였다.”(『大智度論』 권3 大25 p.79a10~13. 佛在大衆中, 初說法時, 九十九億人得阿羅漢道, 六通具足. 第二大會, 九十六億人得阿羅漢道. 第三大會, 九十三億人得阿羅漢道. 自是已後, 度無數人.)

243) “그때 바라문 집안에 한 남자가 태어나 자를 미륵이라 하였는데 몸은 자금색이고 32상을 갖추었으며 온갖 상호를 다 갖추어 광명이 특히 빛났다.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위하여 높은 법륜을 굴렀다. 그 첫번째 법회에서 93억의 중생류를 제도하고, 두 번째 법회에서 96억을 제도하고, 세 번째 법회에서 99억을 제도하였다.”(『賢愚經』 권12 大4 p.435c18~24. 彼時當有婆羅門家



다. 또 먼저 제도된 성문(聲聞)제자들은 근기가 큰데, 비록 이전 부처님들  
께서 교화한 것이지만 모두 세 번의 설법 이후 무생인(無生忍)<sup>244)</sup>을 얻었  
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經曰“又彌勒”以下，第三會也。智度論云“初會九十九億，第  
二會九十六億，第三會九十三億。”賢愚經云“初九十三億，次  
九十六億，後九十九億。”解云，聞機不同故。又是先所度聲聞弟子，  
其大根性，雖前佛所化，皆三會後得無生忍故，無爾許也。<sup>245)</sup>

---

生一男兒，字曰彌勒，身色紫金，三十二相，衆好畢滿，光明殊赫，出家學道，成最正覺，  
廣爲衆生，轉尊法輪。其第一大會，度九十三億衆生之類，第二大會，度九十六億，第三  
大會，度九十九億。)

244) 무생인(無生忍) : 진리(眞理)의 세계(世界)를 깨달아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지위(地位).

245) 『삼미륵경소』 韓2 p.109a15~22.





# 佛說彌勒成佛經疏 불설미륵성불경소

1. 설한 뜻을 분별함
2. 제목을 해석함
3. 본문을 바르게 풀이함





이 경을 해석할 때 대략 3문으로 한다. 첫째는 설한 뜻을 분별하는 것[辨來意], 둘째는 제목을 해석하는 것[釋題目], 셋째는 본문을 바르게 풀이하는 것[正解本文]이다.

## 1. 설한 뜻을 분별함[辨來意]

설한 뜻[來意]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미륵이 인간을 교화함을 널리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는 아래로 늦게 온 이들을 교화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앞에서 대략 비록 미륵불께서 하생하여 사람을 교화하여 상품과 중품 사람들이 선한 근본을 심게 함을 보였지만, 미륵의 위력이 가장 낮은 근기 사람들이 성심(聖心)을 빌게 하는 것을 널리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뜻 때문에 『미륵하생경』 다음으로 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此經將釋，略作三門。一辨來意，二釋題目，三正解本文。言來意有二，一爲廣顯彌勒人間弘化故，二爲化下下遲晚流令得度脫故。何以故，前略雖示慈氏如來，下人教化，令上中人殖善本，而未廣辨慈氏威力，令最下根智祈聖心故，以此二義，下生經次說此經也。<sup>246)</sup>

246) 이 단락의 원문은 『삼미륵경소』 韓2 p.110b2~c1.

## 2. 제목을 해석함[釋題目]

두 번째 제목을 해석하는 것[釋題目]이다.

별본에 의거하면 7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 일체 중생이 오역(五逆)<sup>247)</sup>을 끊고 업장(業障)과 보장(報障)과 번뇌장(煩惱障)<sup>248)</sup>을 없애고 자애로운 마음을 배워 익히고, 미륵과 함께 수행하는 경[一切衆生斷五逆業障報障煩惱障修習慈心與彌勒共行經]이고, 둘째는 일체 중생이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반드시 오탁악세(五濁惡世)<sup>249)</sup>를 면하고 악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경[一切衆生聞彌勒佛名必免五濁世不隨惡道經]이고, 셋째는 악업과 나쁜 마음을 깨트리고 연화와 같은 마음으로 미륵불을 고정하여 보는 경[破惡惡業心如蓮華定見彌勒佛經]이고, 넷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육식하지 않는 경[慈心不食肉經]이고, 다섯째는 석가모니불의 옷을 믿음으로 삼는 경[釋迦牟尼以衣爲信經]이고, 여섯째는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자는 반드시 여덟 가지 어려움<sup>250)</sup>에서 벗어나는 경[有聞佛名者決定得免八難經]이고, 일곱째는 『미

247) 오역(五逆): 다섯 가지의 악행(惡行). 곧, 아버지를 죽이는 일, 어머니를 죽이는 일,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일, 중의 화합(和合)을 깨뜨리는 일, 부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일컫는데 이 다섯 가지 죄를 범하면 매우 무거운 죄로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248) 삼장(三障): ⑤trīṇy āvaranāni. 불도를 이루거나 선근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 번뇌장(煩惱障), 업장(業障), 이숙장(異熟障) 또는 보장(報障)을 통칭하는 말.

249) 오탁악세(五濁惡世): 오탁으로 가득 찬 세상. 오탁이란 세상의 다섯 가지 더러움으로 명탁(命濁)·중생탁(衆生濁)·번뇌탁(煩惱濁)·견탁(見濁)·겁탁(劫濁)을 말한다.

250) 여덟가지 어려움[八難]: 부처를 볼 수 없고, 가르침도 들을 수 없는 여덟 가지 경계. ①지옥·②아귀·③축생의 셋은 삼악도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④장수천(長壽天)은 장수를 즐겨 구도심이 생기지 않고, ⑤변지(邊地)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⑥눈 멀고 귀 먹고 병어리[盲聾音啞]는 감각기관의 결함 때문에, ⑦세상의 지혜와 언변과 총명[世智辯聰]은 세상의 지혜 뿐이라 정리를 따르지 못

특성불경』(彌勒成佛經)이다. 비록 일곱 가지 이름이 있으나, 일곱 번째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에서는 일곱 번째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 중 미륵보살께서 용화수 아래에 앉아서 그 보배로 된 대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무상상(無常想)<sup>251)</sup>을 닦고 올바른 깨달음[正覺]을 얻음을 보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었다[成佛]고 이름한다. 성불의 경이기 때문에 의주석(依主釋)을 하였으니, 외람되게 천(天) 등이 설한 것이라고 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이름한 것이다.

第二釋題目. 若依別本, 其七名. 一名一切衆生斷五逆業障報障煩惱障修習慈心與彌勒共行經, 二名一切衆生聞彌勒佛名必免<sup>252)</sup>五濁世不隨惡道經, 三名破惡惡業心如蓮華定見彌勒佛經, 四名慈心不食肉經, 五名釋迦牟尼以衣爲信經, 六名有聞佛名者決定得免<sup>253)</sup>八難經, 七名彌勒成佛經. 雖有七名, 而第七爲本, 故今此經用第七名. 此中彌勒菩薩坐龍華下, 見其實臺毀壞,<sup>254)</sup> 卽修無常想, 示得正覺, 故名成佛. 成佛之經, 故

하기 때문에, ⑧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佛前佛後] 불법을 들을 수 없는 팔난이 된다.

251) 무상상(無常想): 『大品般若經(대품반야경)』에서는 열 가지 관상(觀想)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무상상(無常想)으로, 인연에 의하여 생겨나고 없어지는 만유일체의 법인 유위법(有爲法)이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변화하여 잠시라도 멈추는 일이 없음을 명상하는 것이다.

252) 원문의 免은 免의 잘못으로 생각됨, (참고 如惺, 『得遇龍華修證懺儀』 권4 卍74 p.616a21~24. 此法之要, 名一切衆生斷五逆罪, 淨除業障 報障 煩惱障, 修習慈心, 與彌勒共行. 亦名一切衆生得聞彌勒佛名, 必免五濁世墮惡道經. 亦名破惡口業, 心如蓮華, 定見彌勒佛經. 亦名慈心不殺不食肉經. 亦名一切釋迦牟尼佛, 以衣爲信經. 亦名若有聞佛名者, 決定得免八難經. 亦名彌勒成佛經.)

253) 위의 주와 같음

254) 원문의 懷는 壞의 잘못으로 생각됨.

依主釋，恐濫天等所說故，故名佛說也。

### 3. 본문을 바르게 풀이함[正解本文]

셋째 본문을 바르게 풀이하는 것[正解本文]이다. 『미륵대성불경』에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摩伽他國)<sup>255)</sup> 바사산(波沙山)에 머무시면서 하안거(夏安居)<sup>256)</sup>를 하시던 중 사리불의 청에 따라 설하셨다”<sup>257)</sup>고 하였다. 지금

255) 마가다국(摩伽他國) : Magadha. 인도 동북부의 비하르(Bihar)주 남부를 중심으로 변형했던 왕국으로 석존 재세시에 인도 16대국의 하나로 고대 중인도의 최강국이였다. 불교와 자이나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초기 교화 활동의 대부분은 마가다국에서 이루어져, 영취산(靈鷲山)과 최초의 가람인 죽림정사(竹林精舍)가 왕사성에 있다. 서기전 6세기에 빔비사라(Bimbisāra, 頻毘娑羅)왕이 왕사성(王舍城, Rājagṛha)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인도 서부의 여러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한편 무력으로 동방의 앙가왕국을 정복하였다. 그의 아들 아자타샤트루(Ajātaśatru, 阿闍世)는 부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라, 코살라(Kosala)국과 카시(Kāśī)국을 합치고 부왕 이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바이살리(Vaiśālī)국을 정복하였다. 이후 난다(Nanda)왕조, 마우리아(Maurya)왕조를 거치면서 파टना(Patna)를 중심으로 북인도 통일제국을 건설하고 수세기 동안 북인도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서기 4세기에 굽타(Gupta)왕조가 마가다에서 일어나 북인도를 통일하고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번영을 누렸으나, 6세기 중엽에 굽타왕조가 멸망하면서 마가다의 지위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7세기 전반 하르샤바르다나(Harṣavardhana)왕조를 창설한 하르샤(Harṣya)왕이 수도를 카나우지(Kanauj)로 정하자 북인도의 정치 중심도 이전의 파탈리푸트라에서 카나우지로 옮겨졌다.

256) 하안거(夏安居) : 안거(安居)라고도 하며 한국·중국·일본 등 북방불교에서만 실시하는 동안거(冬安居)에 대응하는 말이다. 음력 4월 보름 다음날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한곳에 머물면서 좌선과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이른다. 원래 인도에서는 우계인 몬순기에 3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이 때 치러지는 불교 교단의 특수한 연중행사를 안거라 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바깥에서 수행하기에



이 경에서는 생략하여 설하지 않았지만, 세 가지 부분이 있으니 첫째 사리불<sup>258)</sup>이 청을 내는 것[鶩子發請分], 둘째 와서 물음에 답하는 것[來酬答分], 셋째 대중이 받들어 행하는 것[大衆奉行分]이다. 첫째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덕을 청하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고, 다음은 청하는 말을 서술한 것이다. 이것은 첫째(덕을 청하는 것을 찬탄함)이다.

第三解本文者. 大成佛經云“佛住摩伽他國波沙山中夏安居, 因舍利弗請而說.” 今此經中略而不說, 然猶有三分, 一鶩子發請分, 二來酬答分, 三大衆奉行分. 初中二, 初讚請德, 後述請辭. 是初也.

## ○ 미륵의 성불과 교화

[경]

용화보리수 아래에 앉아계셨는데,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잎의 높이가 50리나 되었다. 곧 출가한 날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坐於龍華菩提樹下, 樹莖枝葉高五十里. 卽以出家日,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sup>259)</sup>

어려움이 따르고, 나아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초목과 벌레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외출을 삼가고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과 참선에 힘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지방마다 우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前)·중(中)·후(後) 3종의 안거 기간을 정하였다.

257)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과거 제불이 항상 마귀를 항복받던 곳인 마가다국 바사산에 머무시면서 하안거를 하시던 중 사리불과 함께 산 꼭대기에 경행하셔서 계를 설하셨다.”(『佛說彌勒大成佛經』 大14 p.428b27~29. 如是我聞. 一時佛住摩伽他國波沙山(孤絕山也)過去諸佛常降魔處, 夏安居中, 與舍利弗, 經行山頂, 而說偈言.)

258) 원문의 추자(鶩子)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한명인 사리불(舍利弗)을 말한다. 사리불은 𑖀𑖦𑖔𑖨𑖔𑖨𑖔𑖨의 음역(音譯)이고 의역하여 추자(鶩子)라 한다.

[소]

경전에서 “용화보리수에 앉아” 이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成菩提]<sup>260)</sup>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 깨달음을 이루는 것[成道], 둘째 천룡이 꽃비를 내리는 것[天龍雨華], 셋째 세계를 움직여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動世界怖魔], 넷째 빛을 비추어 제도할 수 있게 이끄는 것[放光引可度], 다섯째 범음(梵音)<sup>261)</sup>을 연설하여 중생이 이익을 얻게 하는 것[演梵音衆得益]이 그것이다.

이것은 처음을 말한다. 나무 가지는 보배와 같아서 용이 백가지 보배로운 꽃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용화수(龍華樹)라고 하고, 이 나무 아래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보리수(菩提樹)라고 한다. 『미륵대성불경』에서 “일찍 출가하여 그날 첫밤에 마귀를 항복시키고 보리를 이루셨다.”<sup>262)</sup>고 하였고, 『미륵작불경(彌勒作佛經)』<sup>263)</sup>에서 “나무 아래 이르러 앉아서 4월 8일 새벽이 뜰 때 부처가 되셨다”<sup>264)</sup>라고 하였다. 해석하여 말하면, 분명히 저 출가한 첫날 밤 부처가 되신 것이다.

經曰 “坐於龍華”以下，第二成菩提。此中，五 一成道，二天龍雨華，三動世界怖魔，四放光引可度，五演梵音衆得益。是初

259) 『佛說彌勒下生成佛經』大14 p.424b25~27.

260) 보리(菩提)는 깨달음을 말함. bodhi의 음역이 보리(菩提)이고, 그 뜻이 깨달음[覺]임. 수행에 따라 얻는 깨달음의 지혜.

261) 범음(梵音): 맑고 깨끗한 음성, 곧 불·보살의 음성을 찬탄하는 말. 불보살의 교법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임.

262) “일찍 일어나 출가하여 그날 이른 밤 네 종류의 마귀를 항복시키고 아늑다라삼 막삼보리를 이루셨다.”(『佛說彌勒大成佛經』大14 p.430c2~4. 早起出家，卽於是日初夜，降四種魔，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263) 구절로 확인하면 『미륵래시경(彌勒來時經)』이 맞음. 다음 주 참조.

264) “미륵이 나무 아래에 이르러 앉아 4월 8일 새벽이 뜰 때 불도를 이루었다.”(『佛說彌勒來時經』大14 p.434c21~22. 彌勒到樹下坐，用四月八日明星出時得佛道.)

也, 謂樹枝如寶龍坐百寶華 故名龍華樹, 依此樹下成菩提, 故名菩提樹也. 大成佛經云 “早趣出家, 卽是日初夜, 降魔成菩提也.” 彌勒作佛經云 “到樹下坐, 用四月八日明星時得佛.” 解云, 清且出家, 初夜成佛也.<sup>265)</sup>

[경]

이때 여러 천신과 용과 신왕들이 그 몸을 나타내지 않고 꽃과 향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爾時諸天龍神王, 不現其身, 而雨華香, 供養於佛.<sup>266)</sup>

[소]

경전에서 “이때 여러 천신이” 이하는 둘째 천룡이 꽃비를 내리는 것[天龍雨華]에 관한 것이다. 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용의 몸은 두려워할 만하기 때문이다.

經曰 “爾時諸天”以下 第二雨華也. 不現身者, 龍身可怖故.

[경]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크게 진동하였다.

三千大千世界, 皆大震動.<sup>267)</sup>

[소]

경문에서 “삼천대천” 이하는 셋째 세계를 움직여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

---

265) 이 단락의 원문은 『삼미륵경소』 韓2 p.112b15~c16.

266) 『불설미륵하생성불경』 大14 p.424b27~28.

267) 『불설미륵하생성불경』 大14 p.424b28~29.

[動地怖魔]에 관한 것이다. 중생이 생사에 영원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긴 것을 말한다. 때문에 모름지기 움직여야 한다.

經曰 “三千大千”以下, 第三動地怖魔. 謂衆生長眠生死故, 不動者不悟長, 故須動也.

[경]

부처님의 몸이 빛을 내어 무량한 나라를 비추시니 마땅히 득도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佛身出光, 照無量國, 應可度者, 皆得見佛.<sup>268)</sup>

[소]

경전에서 “부처님의 몸이 빛을 내어” 이하는 넷째 빛을 비추어 중생을 거두는 것[放光攝生]에 관한 것이다.

經曰 “佛身出光”以下, 第四放光攝生.

[경]

이때 사람들은 각각 이렇게 생각한다. “비록 다시 천만억세 동안 다섯 가지의 얻고자 하는 즐거움<sup>269)</sup>을 받는다고 해도 3악도의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이나 재산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은 무상하고 목

---

268) 『불설미륵하생성불경』 大14 p.424b29~c1.

269) 다섯 가지의 얻고자 하는 즐거움[五欲樂]: ①오락(五樂) 또는 오욕(五欲)이라 함.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빛[色]·소리[聲]·향기[香]·맛[味]·촉감[觸]의 다섯 대상에 대해 일으키는 정욕. ②재물[財欲]·연정[色欲]·음식[飲食欲]·명예[名欲]·수면[睡眠欲]의 다섯가지 욕망.

숨도 오래도록 지키기 어렵다. 우리들은 지금 마땅히 부처님의 법 안에서 수행하고 깨끗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출가하여 가르침을 배운다. 이때 상거왕도 8만 4천의 대신들과 함께 공경하며 (부처님을) 둘러싸고 출가하여 불도를 배울 것이다. 또 8만 4천명의 총명하고 큰 지혜를 가진 바라문들도 불법 중에서 역시 함께 출가할 것이다. 또 수달나라는 장자가 있었으니 지금의 수달 장자가 그 사람이다. 이 사람도 8만 4천명의 사람과 함께 출가할 것이다. 또 이사달다와 부란나 형제도 8만 4천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출가할 것이다. 또 2명의 대신이 있어 한 사람은 전단이고 다른 사람은 수만으로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도 8만 4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불법에 출가할 것이다. 상거왕의 보녀는 사미과제인데 지금의 비사구가 그 사람으로 그도 또한 8만 4천명의 채녀들과 함께 출가할 것이다. 상거왕의 태자는 이름이 천색인데 지금의 제바사나가 그로서 그도 또한 8만 4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출가할 것이다. 미륵불의 친족인 바라문의 아들은 수마제인데 예리한 근기와 지혜를 지녔으니 지금의 울다라가 그로서 그도 또한 8만 4천명의 사람들과 함께 불법중에 출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천만억의 무리들이 세상의 고통과 번뇌를 보고 모두 미륵불의 법 가운데로 출가할 것이다.

爾時人民各作是念. “雖復千萬億歲, 受五欲樂, 不能得免三惡道苦, 妻子財產所不能救, 世間無常命難久保. 我等今者, 宜於佛法, 修行梵行.” 作是念已, 出家學道. 時蠟王亦共八萬四千大臣, 恭敬圍繞, 出家學道. 復有八萬四千諸婆羅門聰明大智, 於佛法中, 亦共出家. 復有長者名須達那, 今須達長者是, 是人亦與八萬四千人俱, 共出家. 復有梨師達多富蘭那兄弟, 亦與八萬四千人出家. 復有二大臣 一名旃檀二名須曼, 王所愛重, 亦與八萬四千人俱, 於佛法中出家. 蠟法王寶女名舍彌婆

帝, 今之毘舍佉是也, 亦與八萬四千婁女俱, 共出家. 蟻佉王太子名曰天色, 今提婆娑那是, 亦與八萬四千人俱, 共出家. 彌勒佛親族婆羅門子名須摩提, 利根智慧, 今鬱多羅是, 亦與八萬四千人俱, 於佛法中出家. 如是等無量千萬億衆, 見世苦惱, 皆於彌勒佛法中出家.<sup>270)</sup>

# [소]

경전에서 “이때 사람들은” 이하는 다섯째 범음을 펼쳐 중생이 이익을 얻는 것[演梵音衆得益]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꽃 숲에 있는 것이고, 다음은 성음의 이익이고, 마지막은 영산의 이익이다. 처음에 아홉가지가 있으니 첫째 무리를 포용함[攝衆], 둘째 욕망을 관함[觀欲], 셋째 원인을 찾음[尋因], 넷째 스승을 드러냄[彰師], 다섯째 올바른 배움[義學], 여섯째 힘에 돌아감[歸力], 일곱째 함께 받들[合奉], 여덟째 도를 받음[授道], 아홉째 이익을 얻음[得益]이다. 처음에 10가지 무리가 있으니 첫째 백성의 무리, 둘째 왕과 재상의 무리, 셋째 청정한 지혜의 무리, 넷째 장자의 무리, 다섯째 의도의 무리, 여섯째 대신의 무리, 일곱째 천궁의 무리, 여덟째 태자의 무리, 아홉째 미륵의 친족들의 무리, 열째 이름 없는 이들의 무리이다. 이에 준하여 알 수 있다.

經曰 “爾時人民” 以下, 第五演梵音衆得益. 此中三, 初在華林, 次城邑益, 後靈山益. 初中九, 一攝衆, 二觀欲, 三尋因, 四彰師, 五義學, 六歸力, 七合奉, 八授道, 九得益. 初有十類衆, 一人民衆, 二王宰衆, 三淨智衆, 四長者衆, 五外道衆, 六大臣衆, 七天宮衆, 八太子衆, 九彌勒親族衆, 十無名衆. 准可知也.

270) 『불설미륵하생성불경』大14 p.424c2~20.

[경]

이때 미륵불께서 화림원(華林園)에 계셨으니, 화림원은 가로세로가 100 유순이나 되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첫번째 설법에 96억의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었고 두 번째 설법에 94억의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었고 세 번째 설법에 92억의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었다.

爾時彌勒佛於華林園，其園縱廣一百由旬，大滿中。初會說法，九十六億人得阿羅漢，第二大會說法，九十四億人得阿羅漢，第三大會說法，九十二億人得阿羅漢。<sup>271)</sup>

[소]

경전에서 “이때 미륵불께서” 이하는 아홉번째<sup>272)</sup> 이로움을 얻는 것[得益]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대하여 논하면 여러 부처님께서 만물을 교화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혹 1회, 혹은 2회, 혹은 10회, 혹은 셀 수 없이 많은 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3회라는 것은 한번의 교화로 이전 부처님의 남은 제자를 모두 교화하여 마친 것이다. 그런데 『장아함경(長阿含經)』에서 “비바시불(毗婆尸佛)<sup>273)</sup>께서는 세 번 법을 설하셨으니 처음에 제

271) 『불설미륵하생성불경』 大14 p.425a29~b3.

272) 아홉 번째는 윗 단락인 5연범음중득익(演梵音衆得益)의 제1 재화림(在華林)의 아홉 가지 중 아홉 번째 내용을 말한다.

273) 비바시불(毘婆尸佛) : 𑖀𑖦 Vipaśyin-buddha 석가모니불을 포함하여 과거에 이미 성불한 일곱 부처 중의 첫 번째 부처님. 의역하여 승관불(勝觀佛)·정관불(淨觀佛)·변견불(遍見佛)이라고도 한다. 연등불을 필두로 24불 중 19불에 해당한다. 『장아함경』에 따르면, 과거 91겁에 반두마티성의 왕족으로 태어났으며, 그때 인간 수명은 8만세였다. 성은 구리약(拘利若), 부친은 반두마(槃頭), 모친은 반두마티(槃頭婆提)이다. 파파라(波波羅) 나무 아래에서 성불하여 세 번 설법하였는데, 첫번째 설법에서 16만 8천 명, 두번째 설법에서 10만 명, 세번째 설법에서 8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건타(鞞陀)와 제사(提舍)를 상수제자로

자가 16만 8천명이고, 다음에 10만명이고, 마지막에 8만명이었다. 시기불(尸棄佛)<sup>274)</sup>께서는 세 번 법을 설하셨으니 처음에 제자가 10만 명이고, 다음에 8만명이고, 마지막에 7만명이었다. 비사바불(毗舍婆佛)<sup>275)</sup>께서는 두 번 법을 설하셨으니 처음에 제자가 7만 명, 다음에 6만 명이었다. 구루손불(拘樓孫佛)<sup>276)</sup>께서는 한번 법을 설하시어 제자가 4만 명이었고,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sup>277)</sup>께서는 한번 법을 설하시어 제자가 3만 명이었다.

삼고, 아소카(無憂)를 집사제자로 두었다.

- 274) 시기불(尸棄佛) : ㉠Śikhi-buddha 과거 7불 중 두 번째 부처님. 『장아함경』에 의하면, 시기불은 과거 31겁에 출현하였으며, 당시 인간의 수명은 7만세였다. 성은 구리약(拘利若)으로 왕족인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부왕의 왕성인 아루나바티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아루나(㉠Aruṇa), 모친은 파트하바티(㉠Pathāvatī)이다. 분타리(分陀利)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였는데, 첫번째 설법에서 비구 10만 명을 제도하고, 두 번째 설법에서 8만, 세 번째 설법에서는 7만의 비구를 제도하였다. 제자로는 아비부(阿毘浮)와 삼바바(三婆婆)가 있고 집사제자는 인행(忍行)이다.
- 275) 비사바불(毗舍婆佛) : 비사부불(毘舍浮佛)·수엽불(隨葉佛)이라고도 한다. ㉠Viśvabhū-buddha 과거 7불의 세 번째 부처님. 과거 장엄겁(莊嚴劫) 천불 중에 최후에 출현한 부처님이다. 『장아함경』에 따르면 과거 31겁 중에 인간 수명 6만 세에 출현한다고 한다. 부친은 크샤트리아 출신의 선등(善燈)으로 성은 구리약(拘利若)이며, 모친은 칭계(稱戒)이다. 사라수(娑羅樹) 아래서 성도하여 처음 설법에 7만, 다음 설법에 6만 대중을 제도하였다. 제자로는 부유(扶遊)와 울다마(鬱多)의상수제자와 집사제자 적멸(寂滅)이 있다.
- 276) 구루손불(拘樓孫佛) : ㉠Krakucchandha-buddha, 구류손불(俱留孫佛)이라고도 한다. 과거 7불 중의 네 번째 부처님. 현재 현겁(賢劫) 천불 중의 첫 번째 부처님이다. 『장아함경』에 따르면 현겁 중에 인간 수명 4만세에 출현하며, 브라만종으로 성은 가섭(迦葉)이다. 부친은 기득(記得), 모친은 선지(善枝)이고 아들은 상승(上勝)이다. 그때 왕은 안화(安和)왕이며, 시리사(尸利沙) 나무 아래서 성도하여 한번 설법에 4만 제자를 제도하였다. 제자로는 살니(薩尼)와 비루(毘樓)가 있고, 집사제자는 선각(善覺)이다.
- 277)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 ㉠Kanakamuni-buddha, 과거 7불 중의 다섯 번째 부처님. 가락가모니(迦諾迦牟尼)·금색선(金色仙)이라고도 한다. 『장아함경』에



가섭불(迦葉佛)<sup>278)</sup>께서는 한번 법을 설하시어 제자가 2만 명이었다. 나도 지금 한번 법을 설하여 제자가 1,250명이다.”<sup>279)</sup>라고 하였다.

만일 『무연청불경(無延請佛經)』<sup>280)</sup>에 의거하면 “유위불(維衛佛)<sup>281)</sup>이 경

따르면 인간 수명 3만세에 출현하니 청정성(淸淨城)에서 브라만으로 태어나 성은 가섭(迦葉)이며 부친은 대덕(大德), 모친은 선승(善勝)이다. 우담바라[烏暫婆羅] 나무 아래서 성도하여 한 번의 설법에 제자 3만인을 제도하였다. 제자로는 서반나다(舒槃那多)와 울다라(鬱多羅)가 있고, 집사제자는 안화(安和)이다.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따르면 슈라바스티 인근에 그 사리를 모신 탑이 있고 아쇼카왕이 세운 석주가 있다고 할만큼 실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278) 가섭불(迦葉佛) : ㉔ Kāśyapa-buddha, 음광불(飲光佛)이라고도 한다. 과거 7불 중의 여섯 번째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불 직전의 부처이다. 석가모니불 전생의 스승으로 석가가 장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는 것을 예언하였다. 『장아함경』에 따르면 인간 수명 2만세에 출현하니 브라만으로 성은 가섭(迦葉)이며 부친은 범덕(梵德), 모친은 재주(財主)이다. 그때 왕은 급비(汲毘)이며 도성은 바라나시[波羅捺]이고, 니그로다[尼拘律] 나무 아래서 성도하여 제자가 2만인이었다. 제자로는 제사(提舍)와 바라바(婆羅婆)가 있고, 집사제자는 선우(善友)이다.

279) “비바시불께서는 3회(會)의 설법을 하셨느니라. 제1회 때에는 제자의 수가 16만 8천 명이었고, 제2회 때에는 제자의 수가 10만 명이었으며, 제3회 때에는 제자의 수가 8만 명이었다. 시기여래께서도 3회의 설법을 하셨느니라. 제1회 때 제자들의 수는 10만 명이었고, 제 2회 때 제자의 수는 8만 명이었으며, 제3회 때 제자의 수는 7만 명이었다. 비사바여래께서는 2회의 설법을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제자의 수가 7만 명이었고, 다음 번에는 제자의 수가 6만 명이었다. 구루손여래께서는 1회의 설법을 하셨는데 그 제자의 수는 4만 명이었으며, 구나함여래께서도 1회의 설법을 하셨는데 그 제자의 수는 3만 명이었다. 가섭여래께서는 1회의 설법을 하셨는데 그 제자의 수는 2만 명이었고, 지금 나도 1회의 설법에 제자의 수는 1,250명이니라.”(『長阿含經』 大1 p.2b22~c1. 毘婆尸如來三會說法 初會弟子有十六萬八千人 二會弟子有十萬人 三會弟子有八萬人 尸棄如來亦三會說法 初會弟子有十萬人 二會弟子有八萬人 三會弟子有七萬人 毘舍婆如來二會說法 初會弟子有七萬人 次會弟子有六萬人 拘樓孫如來一會說法 弟子四萬人 拘那含如來一會說法 弟子三萬人 迦葉如來一會說法 弟子二萬人 我今一會說法 弟子千二百五十人)

280) 법경(法經), 『중경목록(衆經目錄)』 권3(大55 p.130b09 七佛父母姓字經一卷(一名婦人無延請佛經))

을 설하여 처음에 10만명이, 다음에 9만명이, 마지막에 8만명이 아라한을 얻었다. 식불(式佛, 시기불)이 경을 설하여 처음에 9만명이, 다음에 8만명이, 마지막에 7만명이 아라한을 얻었다. 수엽불(隨葉佛)이 경을 설하여 처음에 7만명이, 마지막에 6만명이 아라한을 얻었다. 구루존불이 1회 경을 설하여 4만명이 아라한을 얻었다. 구나함모니불이 1회 경을 설하여 3만명이 아라한을 얻었다. 가섭불이 1회 경을 설하여 2만명이 아라한을 얻었다. 나 석가불은 1회 경을 설하여 1,250명이 아라한을 얻었다.”<sup>282)</sup>라고 하였다. 이는 그

281) “모두 들어라. 제1불의 이름은 유위불(維衛佛)이요, 열반하신 지 91겁이다. 제2불의 이름은 식불(式佛)이요, 열반하신 지 31겁이다. 제3불의 이름은 수엽불(隨葉佛)이요, 열반하신 지 또한 31겁이다. 이 피지라겁(披地羅劫) 중에 마땅히 두 5백 불이 있었다. 제1은 구루존불(拘樓秦佛)이요, 제2는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이요, 제3은 가섭불(迦葉佛)이요, 제4는 나로서 이름은 석가문니불(釋迦文尼佛)이다.”(『七佛父母姓字經』) 大1 p.159b11~17. 皆聽 第一佛字維衛佛 般泥洹已來九十一劫 第二佛字式佛 般泥洹已來三十一劫 第三佛字隨葉佛 般泥洹已來同三十一劫是披地羅劫中 當有兩五百佛 第一者拘樓秦佛 第二佛者拘那含牟尼佛 第三者迦葉佛 第四者我字釋迦文尼佛) 여기에서 유위불이 비바시불임을 알 수 있다.

282) “유위불께서는 전후 3회 여러 비구들에게 경을 설하시어 제1회 설법에 10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제2회 설법에 9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제3회 설법에 8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다. 식불께서도 3회 경을 설하시어 제1회 설법에 9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제2회 설법에 8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제3회 설법에 7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다. 수엽불께서는 2회 경을 설하시어 제1회 설법에 7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제2회 설법에 6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다. 구루존불께서는 1회 경을 설하시어 4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구나함모니불께서는 1회 경을 설하시어 3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다. 가섭불께서는 1회 경을 설하시어 2만 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고, 지금 나는 석가문니불이 되어 1회 경을 설하여 1,250비구가 모두 아라한을 얻었다.”(『七佛父母姓字經』) 大1 p.160a10~23. 維衛佛前後三會諸比丘說經, 第一會說經有十萬比丘皆得阿羅漢, 第二會說經有九萬比丘皆得阿羅漢, 第三會說經有八萬比丘皆得阿羅漢. 式佛亦三會說經, 第一會說經有九萬比丘皆得阿羅漢, 第二會說經有八萬比丘皆得阿羅漢, 第三會說經有七萬比丘皆得阿羅漢. 隨葉佛再會說經, 第一會說經有七萬比丘皆得阿羅漢, 第二會說經有六萬比丘皆得阿羅漢. 拘樓秦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따로 설한 것이다.

經曰“爾時彌勒佛”以下，第九得益。約實爲論，諸佛化物不定，或一會或二會乃至十會無量會。然而三會者，約一化，終前佛殘弟子。然長阿含經云，“毗婆尸佛三會說法，初會十六萬八千人，次會十萬人，後會八萬人。尸棄佛三會，初會十萬人，次會八萬人，後會七萬人。毗舍婆佛二會說法，初會七萬，後會六萬。樓孫佛一會說法，卽四萬，含牟尼佛一會說法，卽三萬。迦葉佛一會說法，卽二萬，我今一會說法，卽弟子千二百五十。”若依無延<sup>283)</sup>請佛經云，“惟衛佛初會十萬，次會九萬，後會八萬。式佛初會九萬，次會八萬，後會七萬。隨葉佛初會七萬，後會六萬。樓孫佛一會四萬，含牟尼佛一會三萬。迦葉佛一會二萬，我釋迦佛一會千二百五十。”是其機宜不同，故如是別說。<sup>284)</sup>

---

佛一會說經，有四萬比丘皆得阿羅漢。拘那含牟尼佛一會說經，有三萬比丘皆得阿羅漢。迦葉佛一會說經，有二萬比丘皆得阿羅漢。今我作釋迦牟尼佛一會說經，有千二百五十比丘皆得阿羅漢。）

283) 원문의 近은 延의 잘못. 『부인무연청불경(婦人無延請佛經)』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칠불부모성자경(七佛父母姓字經)』의 다른 이름임.

284) 이 단락의 원문은 『삼미륵경소』 韓2 p.113a16~b10.





大賢 대현

## ◀ 成唯識論學記 성유식론학기 ▶

해제

1. 종지를 드러내어 체를 나타냄 \_\_\_\_\_
2. 문장의 뜻을 해석함 \_\_\_\_\_
  - 1) 가르침을 일으키는 인연에 관한 부분
  - 2) 성인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한 부분







## 解題 해제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는 8세기 중반에 활동한 신라 대현(大賢)이 지은 유식사상서이다.

대현은 자세한 전기는 전하지 않지만 『삼국유사』에 전기가 수록될 정도로 큰 역할을 하였던 승려이다. 신라 불교 교학의 융성기인 8세기 중반에 남산의 용장사(茸長寺)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미륵 신앙에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명확한 연대 자료로는 753년(경덕왕 12년)에 궁궐에 들어가 심한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 우물물을 치솟게 하는 효험을 보았다는 것 뿐이다.(『三國遺事』 권4 義解 賢瑜伽海華嚴) 이 기록에서 대현을 유가조(瑜伽祖)로 평가한 데서 보듯이 대현은 신라 유식교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식사상가이다.

대현은 일체의 논과 종을 편력하였다고 기록될만큼 불교학의 전 분야를 두루 수학하였다. 원효·경홍과 더불어 신라 3대 저술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모두 50여 부의 저술을 남겼다.<sup>1)</sup> 화엄·법화·열

---

1) 蔡仁奐, 1983 「新羅 太賢法師研究」 1, 『佛教學報』 20,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pp.3~20



반·반야·여래장·중관·계율·정토 등 제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유식 관계 저술이 20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초기유식을 비롯하여 호법의 유식과 인명 등 현장의 신역 논서에 대한 주석서들이다. 대현은 그의 저술에 주로 고적기(古迹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자신의 경론 주석이 선학들이 주석한 바를 계승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대현은 원측(圓測)의 유식학을 계승한 도증(道證)의 제자로서 유식은 원측-도증을 따르고 화엄은 법장과 원효를 계승하여 유식과 중관에 대해 각기 그 진리성을 인정하는 공정한 입장에서 학설을 비판하고 계승하여 종합하였다고 평가된다. 처음에는 화엄이나 기신과 같은 성종(性宗) 문헌에 관심을 가졌다는 전승이 있어, 성종에서 점차 유식에 몰두하여 사상을 형성하였으며 원효를 계승한 화쟁의 정신은 유식과 다른 이론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조화적인 관계로 해석하려 했다고 보기도 한다.<sup>2)</sup> 또 대현은 이 『성유식론학기』에서 원측과 도증을 비판한 혜소(惠沼)의 견해를 무시하고 전편에 걸쳐 규기(窺基)와 원측을 병렬적으로 인용하며 양자의 일체화를 의도하였고, 이는 일본 선주(善珠)의 유식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sup>3)</sup> 대현은 『기신론내의약탐기』에서는 법장과 원효의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지만, 이 책에서는 원효의 견해를 비판하는 면도 보여 독자적 이해 방향을 가졌던 것임을 말해 준다.

신라 중대 이래 활발하게 계승되었던 유식학승들의 저술 활동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현의 사상과 신앙이 중심이 되어 경덕왕대에 법상종이 형성되었다. 대현은 유식중도설의 입장에서 성상의 대립을 지양하고 독실한 미륵신앙을 실천하여 교학 연구를 계승하는 유식학승들을 이끄는 법상종의 조

2) 方仁, 1995 「太賢의 唯識哲學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6~41

3) 吉津宜英, 1993 「太賢의 『成唯識論學記』 「顯宗」段의 註釋的研究」 『韓基斗博士華甲紀念 韓國宗教思想의 再照明』 상, 圓光大學校出版部, pp.9~13



사로 추앙받았다. 대현의 저서로는 55종이 꼽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종으로서 이 『성유식론학기』 10권 외에 『약사본원경고적기(藥師本願經古迹記)』 2권,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3권, 『범망경보살계본종요(梵網經菩薩戒本宗要)』 1권, 『기신론내의약탐기(起信論內義略探記)』 1권이 있다.<sup>4)</sup>

대현의 유식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성유식론학기』이다.<sup>5)</sup> 대현은 이 책에서 현종출체문(顯宗出體門)과 제명분별문(題名分別門)과 해석문의문(解釋文義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유식학의 주요 대본인 『성유식론』을 해석하였다. 『성유식론』은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문하 10대 논사들의 해석 중 호법(護法)의 학설을 정통으로 하고 다른 이들의 학설을 비판 종합하여 현장(玄奘)이 번역한 책이다. 제8식을 상세히 설하여 인식 과정을 명백히 하고 실천 수행의 5계위를 밝힌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현의 『성유식론학기』는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유식론』 주석서라는 의의가 있다. 대현은 원측 계통의 서명학과 유식을 수용하였지만 이와 대비되는 규기의 학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대현은 서명학과를 계승하면서도 원측과 도종의 견해를 비판하기도 하며 규기의 견해도 수용하는 등 균형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책에서 인용한 학설은 규기의 학설이 565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원측의 439회, 도종의 146회를 보이고 있는데,<sup>6)</sup> 이는 대현이 규기와 원측의

4) 李萬, 1989 『新羅 太賢의 唯識思想研究-成唯識論學記를 中心으로』, 동쪽나라, pp.26~35

5) 『성유식론학기』 역시 고적기라는 이름으로 묶여 전승되었다. 『성유식론학기』에는 “보살장아비달마고적기 권제삼(菩薩藏阿毘達摩古迹記 卷第三)”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백법론』·『잡집론』·『성유식론』·『유가론』 등 대현의 17종 논서에 대한 저술을 모은 보살장론합집(菩薩藏論合集)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성유식론학기』만 남았음을 알려 준다.(金煥泰, 1994 『韓國佛教古典名著의 世界』, p.139)

학설 사이에서 이론적 종합을 시도하였던 것을 말해 준다.

『성유식론학기』는 자신이 지은 『성유식론본모송(成唯識論本母頌)』 1백행과 이에 대한 해석인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을 토대로 지은 것이다. 『성유식론학기』의 구성 중 첫째 현종출체문에서 대현은 공유 논쟁의 전말을 상세히 서술하며 그 중지를 밝히고, 이어 규기와 원측의 견해를 비교하며 출체를 서술하였다. 다음 제명분별문에서는 논 의 이름과 지은이인 세친과 호법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셋째 해석문의문은 귀경송의 송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서분에 관한 주해인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과, 다음 유식 30송을 풀이하는 정중분에 대한 주해인 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에서 유식의 경계와 행(行)과 과(果)를 해설하였고, 마지막 회향송의 유통분에 대한 주해인 결명회시분(結名廻施分)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sup>7)</sup> 이 책에서 현종출체문(顯宗出體門)과 해석문의문(解釋文義門) 중의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과 성교정설분(聖敎定說分) 중의 처음 1송과 2송 전반의 내용을 해석한 현종출체문(顯宗出體門) 부분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였다.

1. 顯宗出體門	1) 顯宗	○
	2) 出體	
2. 題名分別門		
3. 解釋文義門	1) 敎起因緣分	○
	2) 聖敎正說分	
	(1) 唯識境 1~25송	◇
	(2) 唯識行 26~29송	
	(3) 唯識果 30송	
	3) 結名廻施分	

『성유식론학기』의 구조

(○표시 부분이 이 책에서 다룬 부분임)

6) 吉津宜英, 1992 「太賢의 『成唯識論學記』를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 41-1, 日本印度學佛敎學會, pp.118~119

7) 李萬, 앞의 책, pp.104~145

해석문의분 중에서 이 책에서 다룬 부분만을 분과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뉜다.

3. 문장의 뜻을 해석함[解釋文義]	
1) 가르침을 일으키는 인연에 관한 부분[敎起因緣分]	
(1) 標造釋意	○
(2) 明世親造論意	爲令生解斷障得果
	斷執證空悟唯識相
	破諸邪執生如實解
	出四計
	廣結異執
2) 성인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한 부분[聖敎正說分]	
(1) 唯識境 1~25송	
顯宗出體門 1.5송	○
以問徵起	○
頌正答	頌 釋難顯宗
	略出體性
	釋 通難標宗
	出能變相
廣釋唯識門	
明三能變	
明唯識義	
釋通外難	
結釋外難門	
(2) 唯識行 26~29송	
(3) 唯識果 30송	
3) 결론적으로 이름붙여 회향하여 베푸는 부분[結名廻施分]	

대현이 『성유식론학기』에서 보인 『성유식론』의 구조적인 해석은 가장 널리 알려진 규기의 것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유식 30송의 분과에서 규기는 상(相)·성(性)·위(位)로 나누었으나 대현은 경(境)·행(行)·과(果)로 나누어 다르다.<sup>8)</sup> 이어 식능변(識能變)의 세 단계에 대한 해석에서는 처음 능변식(能變識)에 대해 규기는 8단 10의로 해석하였는데 대현은 7단 10의로 하여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명칭은 거의 같다. 다음 종자의(種子義)에서 두 사람은 모두 10문으로 분별하였으나 그 명칭에는 여러 차이가 있다. 제2 마나식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모두 8단 10문으로 분별하였으나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제3 능변인 제6식의 과분에 대해 두 사람은 9

문과 7문으로 나누어 차이가 있다.<sup>9)</sup>

대현의 『성유식론학기』에 인용된 여러 신라 유식학승들의 저술은 신라 유식사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의의를 지닌다. 또 이 책은 견등(見登)의 『대승기신론동이약탐기(大乘起信論同異略探記)』에 많은 부분이 인용되어 당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유식론학기』에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는 원측의 『성유식론소』 등 관련 저술이 5종이나 인용되어 그 일부 모습을 전하고 있으며, 도종의 학설 또한 상당수 인용하고 있다. 이밖에 의적(義寂)·순경(順璟) 등 여러 신라 유식학승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어 이들 자료의 복원을 통해 신라 유식사상의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다. 대현은 이 책에서 청변과 호법 사이에 전개되었다고 하는 공유(空有)의 논쟁에 대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논쟁을 서술하고 있

8) 대현과 규기의 성유식론 분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현	규기
1. 敎起因緣分	1. 序分(宗前敬敎分) 歸敬頌
1) 標造釋意	2. 正宗分(依敎廣成分)
2) 明世親造論意	1) 唯識相 1~24승
2. 聖敎正說分	(1) 略標識相 1.5승
1) 唯識境 1~25승	① 釋難破執
(1) 顯宗出體門 1.5승	② 標宗歸識
① 以問徵起	③ 彰能變體
② 頌正答 頌 釋難顯宗/ 略出體性	(2) 廣釋識相 22.5승
釋 通難標宗/ 出能變相	① 明三能變 14.5승
(2) 廣釋唯識門 22.5승	解異熟識 2.5승
① 明三能變 14.5승	解思量識 3승
② 明唯識義 1승	解了境識 9승
③ 釋通外難 7승	② 正辨唯識 1승
(3) 結釋外難門 1승	③ 釋諸妨難 7승
2) 唯識行 26~29승	2) 唯識性 25승
3) 唯識果 30승	3) 唯識位 26~30승
3. 結名迴施分	3. 流通分(釋結施願分) 迴向頌

9) 李萬, 앞의 책, pp.131~145

다. 대현은 중관불교와 유식불교의 논쟁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는, 신라불교에서 유식이 갖는 위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고 평가된다. 대현은 공과 유는 언어상으로는 다투지만 그 근본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서, 논쟁의 의도는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현이 『성유식론학기』를 서술하는 중심 입장은 유식 중도를 근본 중지라고 본 호법의 『성유식론』에 근거한 신유식사상이었지만, 대현은 원측의 사상적 경향이 그랬듯이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공유화쟁의 성상화해적인 사상 경향을 가졌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원효에게서도 볼 수 있는 관점이며, 신라불교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金南允, 1984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 11, 서울대 國史學科
- 金煥泰, 1975 「太賢의 菩薩藏阿毘達摩古迹合集과 成唯識論古迹記에 대하여」 『동국사상』 8, 東國大學校佛教大學
- 方仁, 1992 「新羅 佛教思想史에서의 太賢 唯識學의 意義」 『白蓮佛教論集』 2, 海印寺 白蓮佛教文化財團
- 방인, 1993 「成唯識論學記를 통해 본 太賢의 勝論哲學 이해」 『哲學』 39, 한국철학회
- 方仁, 1995 「太賢의 唯識哲學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萬, 1986 「日本 法相關係 諸疏에 引用된 太賢法師의 唯識思想」 『佛教學報』 23,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 李萬, 1986 「成唯識論學記에 引用된 本母釋의 內容」 『韓國佛教學』 11, 韓國佛教學會
- 李萬, 1986 「見登의 『大乘起信論同異略探記』에 인용된 太賢의 唯識思想」 『韓國佛教學』 12, 韓國佛教學會
- 李萬, 1989 「新羅 太賢의 唯識思想研究-成唯識論學記를 中心으로」, 동쪽나라
- 蔡仁幻, 1983·1984·1985 「新羅 太賢法師研究」 1·2·3, 『佛教學報』 20·21·22,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院
- 허남진 외,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吉津宜英, 1992 「太賢의 『成唯識論學記』를めぐって」 『印度學佛教學研究』 41-1, 日本印度學佛教學會
- 吉津宜英, 1993 「太賢의 『成唯識論學記』 「顯宗」段의 註釋의 研究」 『韓基斗博士華甲紀念 韓國宗教思想의 再照明』 상, 圓光大學校出版部



# 성유식론학기

## 成唯識論學記

청구사문(靑丘沙門) 대현(大賢)<sup>1)</sup> 집(集)

이 논(論)은 대략 3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종지(宗旨)를 드러내어 체(體)를 나타내는 문[顯宗出體門]이고, 두 번째는 제명을 분별하는 문[題名分別門]이고, 세 번째는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문[解釋文義門]이다.

此論略以三門分別，一顯宗出體門，二題名分別門，三解釋文義門.<sup>2)</sup>

## 1. 종지를 드러내어 체를 나타냄[顯宗出體]

종지를 드러냄[顯宗]에는 또 두 가지 으뜸되는 것이 있다.

### ○ 공유논쟁

첫째로 청변(淸辨)<sup>3)</sup> 등이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sup>4)</sup>을 저술하여 “유위

- 
- 1) 대현(大賢) : 대(大)와 태(太)는 통하는 글자이다. 일본의 전승은 대개 태현(太賢)이지만 신라와 고려의 전승은 대현이 많아, 이 책에서는 대현으로 하기로 한다.
- 2) 이 앞 단락의 원문은 『성유식론학기』 韓3 p.483b4~484a20.
- 3) 청변(淸辨) : ㉔Bhāvaviveka, 500~570경. 6세기 남인도의 중관학파의 논사. 중인

(有爲)<sup>5)</sup>와 무위(無爲)<sup>6)</sup>는 속제(俗諦)<sup>7)</sup>에서는 유(有)이고 진제(眞諦)<sup>8)</sup>에서

도에서 승호(僧護, Saṃgharakṣita)에게 사사하고 대승경전과 용수(龍樹, Nāgārjuna)의 교설을 익혔다. 후에 남인도로 돌아와 공(空)의 뜻을 선양하였고, 마가다국의 호법(護法, Dharmapāla)과 공유(空有)논쟁을 했다고 전해진다. 청변은 용수를 따라 진유(盡有)의 공을 주장했다. 남인도의 50여 가람에서 활동하며 교법을 널리 설하고 『중론석(中論釋)』을 지어 같은 중관학파인 불호(佛護, Buddhapaṭita)의 설을 깨트렸다. 만년에 다나갈책가국(駄那羯磔迦國) 남쪽의 산에 은거하여 진언을 염송하면서 입적했다. 주요 저술로는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2권,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 15권 및 『중관심론송(中觀心論頌)』 등이 있다.

- 4)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 15권. 『반야등론(般若燈論)』·『반야등(般若燈)』이라고도 한다. 청변(淸辨)이 저술하고, 당나라 바라반가라밀다라(波羅頗迦羅蜜多羅)가 한역하였다. 내용은 청변이 중관자립파(中觀自立派, Madhyamaka-svāntantrika)의 관점으로 용수의 중론(中論) 각 장에 대해 주석을 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의 사상적 특징은 용수 이래 중관학자들에게 전승되어온 본위(本位)를 엄수하여 외도와 소승 각파의 사견(邪見)을 논파하였다. 또 같은 중관파인 불호(佛護)의 학설도 비판하였다. 또 유가파(瑜伽派)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주장은 역대 중관학자의 관점과 달라서 세속제(世俗諦)와 승의제(勝義諦)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 이밖에도 인명론(因明論)의 이론을 운용하여 논식과 결구가 세밀하고 오묘해서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격파했다. 이 책은 범본은 전하지 않고 한역본만 일부 전하며 티벳본은 『반야등근본중론송(般若燈根本中論頌)』(『Prajñā-pradīpa-mūlamadhyamaka-vṛtti』)이란 이름으로 남아 있다. 주석서로는 관서(觀誓, Avalokitavṛata)의 『반야등소(般若燈疏)』(『Prajñāpradīpa-tīkā』)가 있다.
- 5) 유위(有爲): ㉔saṃskṛta, 인연에 의해 생긴 온갖 현상. 직접 원인인 인(因)과 간접 원인인 연(緣)의 화합에 의해 조작되어 생멸 변화하는 것으로, 인과 관계에 의해 생멸하는 온갖 현상의 모습을 말한다. 무위(無爲)의 대칭.
- 6) 무위(無爲): ㉔asaṃskṛta, 다양한 원인과 조건인 인연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며, 인과 관계를 떠나 있는 존재로서,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상주하는 절대 존재, 무한정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는 열반(涅槃)의 다른 이름이었으나, 후에 열반 외에 여러 가지의 무위가 만들어졌다. 대승에서는 진여 자체와 동일시되고, 특히 유식학에서는 공과 동일시한다.
- 7) 속제(俗諦): ㉔saṃvṛti-satya, 세속의 법을 따라 생멸 등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설



는 공(空)이다.”라고 한 것이다.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sup>9)</sup>의 계송(偈頌)에서 “진성(眞性)에서 유위법(有爲法)은 공하니 마치 허깨비 인연이 생겨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네. 무위법(無爲法)은 실체가 없으니 허공의 꽃[空華]<sup>10)</sup>처럼 실제로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네.”<sup>11)</sup>라고 한 것과 같다.

둘째로 호법(護法)<sup>12)</sup> 등이 『해심밀경(解深密經)』<sup>13)</sup>에 의거하여 “일체법

하는 논리. 즉 세간의 사실과 속지(俗地)의 이치를 가리킨다. 진제(眞諦)와 대칭되는 말로 세속제(世俗諦)·세제(世諦)·유제(有諦) 등으로 불린다.

- 8) 진제(眞諦) : ㉔Paramārtha-satya, 승의제(勝義諦)·제일의제(第一義諦), 사진제(四眞諦)·사성제(四聖諦)의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제(四諦)로 이 가르침이 진실되고 둘도 아니기 때문에 진제라고 부른다. 제1 고제(苦諦)란 미혹의 세계는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이다. 제2 집제(集諦)란 고통의 원인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즉 갈애(渴愛)라고 하는 진리이다. 제3 멸제(滅諦)란 갈애를 없앤 상태가 구극의 이상 상태라고 하는 진리이다. 제4 도제(道諦)란 구극의 이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의 바른 행위 즉 팔정도(八正道)를 닦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 9)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2권. 『장진론(掌珍論)』. 인도의 청변(淸辨, Bhāvaviveka)이 저술하고 당나라 현장(玄奘)이 한역하였다. 내용은 공의(空義)에 대해 논술한 것으로, 인명의 논법에 의해 외도와 소승 그리고 대승유종(大乘有宗)의 견해를 논박하고 대승공종(大乘空宗)의 진실한 의의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와 무의 분별을 떠난 공지(空智)를 완성하는 8정도와 6바라밀을 역설하였다. 이 책에서 주장한 “眞性有爲空, 如幻緣生故. 無爲無有實, 不起似空華.”의 구절을 장진비량(掌珍比量) 또는 청변비량(淸辨比量)이라는 논식으로 부른다. 법상종의 규기는 이 구절을 인명의 논증식으로 불충분한 사비량(似比量)으로 평가하였고, 불성에 근거한 이 『장진론』의 잘못을 규정한 규기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삼론종의 반박이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전개되었다.
- 10) 허공의 꽃[空華] : ㉔khaṇuṣpa. 공중의 꽃, 허공화(虛空華), 안화(眼華)라고도 함.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는데 눈에 질병이 있어 눈이 어른거리는 사람은 허공 중에서 환상처럼 꽃이 있다고 잘못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경계에 잘못된 견해로 착각을 일으켜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 11)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권상 大30 p.268b21~22.

(一切法)에는 공(空)과 불공(不空)이 있다”<sup>14)</sup>고 한 것이다. 『변중변론(辯中邊論)』<sup>15)</sup>의 계송에서 “허망분별(虛妄分別)이 존재하니 이것에는 (능취와 소취) 두 가지가 모두 없다. 이 가운데 오직 공만이 있으니, 저것(공)에서도

- 
- 12) 호법(護法) : ㉔Dharmapāla, 유식 10대논사 가운데 한 사람. 530~561경. 6세기에 남인도 드라비다국(Drāviḍa)의 대신의 아들로 태어나 왕녀와 혼약을 맺었지만 혼인한 날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대·소승교학에 정통하여 마가다국 날란다사에서 널리 교화하여 학도가 수천 명이었다고 한다. 29세에 대보리사(大菩提寺, Mahābodhi)로 가서 저술에 전념하고 32세에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성유식보생론(成唯識寶生論)』·『관소연론석(觀所緣論釋)』 등이 있다. 또 현장에 의해 번역된 『성유식론(成唯識論)』 10권은 호법의 석론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9명의 논사들의 저작을 모아 완성한 것이다.
- 13) 『해심밀경(解深密經)』 : ㉔Samdhinirmocana-sūtra, 중기 대승경전으로 범상종의 근본 경전. 당나라 현장 번역본으로 5권. 이외 진제(眞諦)·보리유지(菩提流支)·구나발타라의 한역이 있다. 이 경에 대한 주석서를 신라시대 유식학자인 원측(圓測)·원효(元曉)·경흥(憬興)이 저술하였으나 이 중 유일하게 원측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10권이 현존하여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14) 『해심밀경』에는 ‘일체법유공불공(一切法有空不空)’이라는 구절이 없으나, 후대의 논저에서 그 중요(宗要)를 간추려 이와 같이 표현하였다. 원측(圓測)의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에 “세속제의 의하면 공과 불공이 있으나 승의제에 의하면 법과 불공이 없다.”(『解深密經疏』 권5 大21 p.279a17~18. 依世俗諦, 有空不空, 依勝義 無法不空.)고 하였다.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 권1 총료간장(總料簡章)에는 “『해심밀경』 등의 경전에서는 ‘진제와 속제에 의거해 일체법에 공과 불공이 있다’고 설하였다.”(『大乘法苑義林章』 권1 大45 p.251a4. 深密等經, 依眞俗諦, 說一切法有空不空.)고 하였고, 『법화경현찬요집(法華經玄贊要集)』에는 “『해심밀경』과 유가 등에 의하면 ‘일체법에 공과 불공이 있다’고 설한다.”(『法華經玄贊要集』 권제5 大34 p.272a21~22. 依深密瑜伽等, 說一切法有空不空.)고 하였다.
- 15) 『변중변론(辯中邊論)』 : ㉔Madhyānta-vibhāga-ṭīkā, 2권. 계송(偈頌) 부분은 미륵(彌勒)이 지었고, 장행(長行) 부분은 세친(世親)이 지었다. 진(陳) 무제(武帝) 영가(永定) 2년(558)에 진제(眞諦)가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으로 번역하였는데, 현장에 의해 다시 번역하여 『변중변론(辯中邊論)』이라 하였다. 주석서로는 당 규기(窺基)의 『변중변론술기(辯中邊論述記)』와 원효의 『중변분별론소(中邊分別論疏)』가 있다.

또한 이것(허망분별)이 존재한다.”<sup>16)</sup>라고 한 것과 같다.

言顯宗者，且有二宗。一清辨等，述般若言，“有爲無爲，俗有真空。”如掌珍頌，“眞性有爲空，如幻緣生故。無爲無有實，不起似空華。”二護法等，依解深密言，“一切法有空不空。”如中邊頌，“虛妄分別有，於此二都無。此中唯有空，於彼亦有此。”

이 둘이 실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불지론(佛地論)』<sup>17)</sup>에서 말하는 것처럼 “(석존 입멸후) 천년 이후에 대승 가운데 공과유의 논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논쟁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유위(有爲)에 대해, 『성유식론(成唯識論)』<sup>18)</sup>에서 “아(我)와 법(法)은 유(有)가 아니고, 공(空)과 식(識)은 무(無)가 아니다.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

---

16) 『변증변론』 권上 大31 p.464b16~17.

17) 『불지론(佛地論)』: ㉟Buddhabhūṇi-sūtra-śāstra, 7권. 불지경론(佛地經論). 호법(護法)의 제자인 친광(親光)이 지었고 당나라의 현장이 한역하면서 『불지론』이라고 약칭하였다. 『불지경』에 대한 논석(論釋)으로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성교소설분(聖敎所說分)·의교봉행분(依敎奉行分)의 3부분으로 나누어 풀이하였고, 아울러 『불지경』에서 설한 청정법계(淸淨法界)·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 등의 오종법을 서술하여 대각지(大覺地)에 포섭하였다. 많은 부분을 호법계통의 유식사상으로 해석하였고, 그 가운데 사지심품(四智心品)의 설명은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로 해석하여 유명하다.

18) 『성유식론(成唯識論)』: ㉟Vijñaptimātratāsiddhi-śāstra, 10권. 세친(世親)의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저술인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당의 현장이 세친 문하의 10대논사들이 해석한 학설을 호법(護法)의 해석을 정통으로 하고 다른 견해를 비판 종합하여 659년에 번역한 책으로 중국 법상종(法相宗)의 중요 전적(典籍)이다. 8식(識)을 자세히 말하여 인식의 과정을 명백히 하고, 또 실천적 수행의 5계위(階位)를 말하였다. 아(我)와 법(法)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제거하여 번뇌(煩惱)·소지(所知)의 두 가지 장애를 끊도록 하고, 모든 법이 유식임을 밝힌 논서이다.

야 중도(中道)에 합치된다.”<sup>19)</sup>고 하였다. 이는 변계소집성을 버리고 나머지 두 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에서 “항상 불변하다는 견해[常邊]에 떨어지는 잘못을 버리기 위해 저것[我法]을 무라고 말하고, 또 끊어져 없다는 견해[斷邊]<sup>20)</sup>에 떨어지는 잘못을 버리기 위해 이것[空識]을 유라고 말한다. 인연의 힘에 의해 생겨난 눈 등이 세속제(世俗諦)<sup>21)</sup>에 포섭되는 것을 일러 자성(自性)이 유라고 하니, 허공의 꽃이 전혀 형체가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다만 진성(眞性)으로 나아가 그것을 세워 공으로 삼는다.”<sup>22)</sup>고 하였다. 이는 세속제(世俗諦)를 두고 승의제(勝義諦)<sup>23)</sup>는 모두 공으로 한 것이다.

또 무위(無爲)에서도 두 설은 같지 않다. 호법보살은 청변종의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의 이공(二空)이 곧 참된 것이다’라는 설을 반박하면서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 “성(性)은 이공(二空)이 원성실성(圓成實性)<sup>24)</sup>

19) 『성유식론(成唯識論)』에는 “아와 법은 유가 아니고 공과 식은 무가 아니다. 유와 무를 떠났기 때문에 중도에 들어맞는다.”(『成唯識論』 권7 大31 p.39b1~2. 我法非有, 空識非無, 離有離無, 故契中道.)라고 하였다.

20) 단변(斷邊): 상(常)에 대한 단(斷)으로 상(常)을 영원한 유(有)라고 본다면, 단(斷)은 무(無)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끊어져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

21) 세속제(世俗諦): 주8) 속제(俗諦) 참조

22)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권상 大30 p.272c2~6.

23) 승의제(勝義諦): 주9) 진제(眞諦) 참조

24) 원성실성(圓成實性): ㉠Pariniṣpanna-svabhāva, 유식 3성설(三性說) 가운데 하나. 진실성(眞實性)이라고도 하며,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식(識)으로부터 허망한分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의타기성 이외에 특별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으로 의타기성의 진실을 각성하는 것이다. 즉 의타기성의 세계를 의타기성의 세계라고 그대로 자각하는 것이다. 실체를 그대로 자각하는 것, 존재의 진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즉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은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이다.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인 주체가 원성실성의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 진여(眞如)<sup>25)</sup>는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난 성이기 때문이다.”<sup>26)</sup>라고 하였다. 청변보살은 호법종의 ‘이공(二空)이 드러난 바이다’라는 설을 반박하였다. 그는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에서 “오직 일체의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을 세워 진여로 삼는다.”<sup>27)</sup>라고 하였다. 단지 체를 나타내는 것에서만 두 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승의제의 유와 무에서도 서로 논쟁을 한다. 『성유식론』에서는 “이 식이 만약 없다면 바로 속제가 없다. 속제가 없기 때문에 진제 또한 없다. 따라서 이제(二諦)를 뽑아 없애면 이는 악취공(惡取空)<sup>28)</sup>이다.”<sup>29)</sup>라고 하였다. 『대승장진론』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속제의 입장에서 열반(涅槃)<sup>30)</sup>이 있다고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화생(化生)<sup>31)</sup>하는 유정(有情)<sup>32)</sup>이 있다고 설하신 것과 같다. 이 유를 인정

---

원성실성의 경지에서도 의타기성의 상(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미망에 싸여있는 것은 변계소집성이며, 자기를 깨닫는 것은 원성실성이다.

25) 진여(眞如) : ㉠tathatā. 대승 불교의 이상개념의 하나. 우주 만유(萬有)의 보편적인 상주 불변하는 본체. 진여는 여여(如如)·여실(如實)·법계(法界)·법성(法性)·실제(實際)·실상(實相)·여래장(如來藏)·법신(法身)·불성(佛性)·자성청정신(自性淸淨身)·일심(一心)·불사의계(不思議界) 등으로 불린다.

26) 『성유식론』 권8 大31 p.46b17~18.

27) 『대승장진론』 권하 大30 p.274b10~11.

28) 악취공(惡取空) : 벽취공(僻取空)이라고도 하며 만유가 실재하다는 상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 잘못된 소견을 없애기 위하여 공(空)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공무(空無)하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여 불교의 본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29) 『성유식론』 권7 大31 p.39b17~18.

30) 열반(涅槃) : ㉠nirvāṇa.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궁극적 경지. 열반의 본래 뜻은 ‘소멸’ 또는 ‘불어 꿈’인데, 여기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멸진(滅盡)하여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菩提)를 완성한 경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열반은 생사(生死)의 윤회와 미혹의 세계에서 해탈한 깨달음의 세계로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목적이다. 대승과 소승은 열반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

하기 때문에 중지에 어긋나는 잘못은 없고, 다만 진성(眞性)의 입장에서 택멸(擇滅)<sup>33)</sup>을 막아 없앤 것이다.”<sup>34)</sup>라고 하였다. 이를 증거로 하여 원측(圓測)<sup>35)</sup> 등은 실제로 논쟁이 있었다는 설을 전한다.

有說此二實有諍論. 如佛地論, “千年已後, 大乘之中空有諍論,” 卽此謂故. 其諍云何? 且有爲中, 唯識云, “我法非有, 空識非無, 離有離無, 契於中道.” 此遣所執, 存餘二性. 掌珍論

- 
- 31) 화생(化生): ☞upapādukā-yoni, 4생(四生)의 하나. 다른 것에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 갑자기 변화하여 만들어지는 것. 제천과 지옥의 중유(中有)의 유정 등.
- 32) 유정(有情): ☞sattva,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중생(衆生)의 뜻으로, 현장 이후의 새로운 번역에서는 유정이라고 하였다.
- 33) 택멸(擇滅): ☞pratisamkhyā-nirodha. 무위법(無爲法)의 일종. 진리간택(眞理簡擇)에 의한 번뇌소멸(煩惱消滅)의 줄인 말로, 열반을 의미한다. 택멸의 경지에 도달하면 번뇌를 모두 끊고 버려서 영원히 윤회하지 않게 된다.
- 34) 『대승장진론』에는 “세속제의 입장에서 택멸이 있어 열반의 적정하고 미묘함을 떠난 것이라고 설하였다. 부처님이 화생하는 유정이 있다고 설하신 것과 같다. 무위열반 또한 그러함이 있다고 설하니, 유를 인정하여도 중지에 어긋나는 잘못은 없다. 다만 진성의 입장에서 택멸을 막아 없앤 것이다.”(『大乘掌珍論』 권下 大30 p.274a22~24. 就世俗說有擇滅, 出離涅槃寂靜微妙, 如佛說有化生有情, 說有無爲涅槃亦爾, 許此有故無違宗過, 但就眞性遮破擇滅.)라고 하였다.
- 35) 원측(圓測): 613~696. 신라의 왕족으로 전하며 어려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627년(진평왕 49) 당나라에 건너갔다. 법상(法常)과 승변(僧辨)에게 유식론(唯識論)을 배우고, 원법사(元法寺)에서 『비담론(毘曇論)』, 『성실론(成實論)』, 『구사론(俱舍論)』 등을 익혔다.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하여 현장 문화에서 경전 번역에 참여하였다. 당시 현장을 계승한 규기(窺基)의 자은파(慈恩派) 등과 견해의 차이가 있어 원측을 계승하는 이들을 서명학파(西明學派)라고 구분하였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현장이 규기를 위해 설한 『성유식론(成唯識論)』을 원측이 몰래 엿듣고는 먼저 강의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서 규기보다 앞섰던 원측의 실력을 반증하고 있다. 저서에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인왕경소(仁王經疏)』,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 『유식이십론소(唯識二十論疏)』 등이 있다.

云, “如爲棄捨墮常邊過, 說彼爲無, 亦爲棄捨墮斷邊過, 說此爲有. 謂因緣力所生眼等, 世俗諦攝, 自性是有, 不同空華全無有物. 但就眞性, 立之爲空.” 此存世俗, 勝義皆空. 又無爲中二說不同. 護法菩薩對, 清辨宗二空卽眞. 唯識論云, “性顯二空, 非圓成實, 眞如離有離無性故.” 清辨菩薩對, 護法宗二空所顯. 掌珍論云, “於唯無有一切所執, 立爲眞如.” 非但出體二說不同, 勝義有無, 亦爲乖諍. 如唯識云, “此識若無, 便無俗諦, 俗諦無故, 眞諦亦無, 撥無二諦, 是惡取空.” 掌珍論云, “佛就世俗說有涅槃, 如佛說有化生有情. 許此有故, 無違宗失, 但就眞性遮破擇滅.” 以此爲證, 測等傳說實有諍論.

두 논사 사이에 전혀 논쟁이 없었다는 설이 있다. 청변이 승의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승장진론』에서는 “이것[승의제]이 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性)이 있음을 부정할 뿐이다. 공능(功能)이 다했다고 해서 다시 무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세간에서 ‘하얀 비단이 아니라는 말이 반드시 그 말이 곧 검은 것임을 밝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sup>36)</sup> 라고 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진성을 따르면 일체의 유위는 전혀 존재하는 바가 없다. 이는 중지의 뜻을 세우는 것이니 곧 일체를 비방하여 모두 사견(邪見)을 따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중지의 뜻은 공의 무성을 말하고 허망이 문의 차

36) 『대승장진론』에는 “이것이 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이 있음을 막을 뿐이다. 공능이 다하면 세력이 없다. 다시 남은 뜻을 밝힌다면 세간에서 ‘하얀 비단이 아니라는 말은 이 말이 검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大乘掌珍論』 권上 大30 p270c11~13. 此非有言, 唯遮有性. 功能斯盡, 無有勢力. 更詮餘義, 如世間說, 非白絹言, 不可卽執, 此言詮黑.)라고 하였다.



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일체 중중(種種)이 모두 무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sup>37)</sup>라고 하였다.

호법의 승의제 또한 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sup>38)</sup>에서는 “드러나 있는 것도 또한 승의제는 유가 아니니, 인연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이며 환사(幻事) 등과 같다.”<sup>39)</sup>라고 하였고, “또 공을 말하면 이는 막는 것이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 오직 유만 공한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도 공하다는 것이다.”<sup>40)</sup>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세히 말했다.

『대승장진론』에서 논파한 상대 논사는 호법이 아니다. 호법보살이 『대승광백론석론』 중에서 논파한 상대 논사 또한 저와 입장이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로 순경(順憬)<sup>41)</sup> 스님 등은 논쟁이 없었다고 전한다.

37) 『대승장진론』에는 “만약 진성을 따르면 일체의 유위는 전혀 존재하는 바가 없다. 이는 중지의 뜻을 세우는 것이니 즉 일체를 비방하여 모두 존재하는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세운 것은 사견에 떨어진 것이다. 이 가운데 중지의 뜻은 앞에서 널리 설한 것과 같이 공의 무성을 말한다. 허망이 문의 차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일체 종이 모두 무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난(難)을 짓는데 불응하였다.”(『大乘掌珍論』 권상 大30 p.270c1~5. 若就眞性, 一切有爲都無所有. 是立宗義, 卽謗一切皆無所有. 如是所立, 墮邪見者. 此中宗義, 如前廣說, 謂空無性. 虛妄顯現門之差別, 非一切種皆謗爲無. 故汝不應作如是難.)라고 하였다.

38)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 10권. 호법(護法)이 짓고 당나라 현장(玄奘)이 한역하였다. 중관파(中觀派)인 성천(聖天)이 지었다고 하는 『광백론(廣百論)』에 반대하는 주석서이다. 전체 8품으로 각 품마다 계송 25수가 있어서 전체 2백 개의 계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도와 소승의 제법실유(諸法實有) 등을 깨트리고, 진공무아(眞空無我)의 중도를 열어 보였다. 중관파 유식의 교법에서의 공과 유의 차별을 보여주고, 두 계통에서 교법이 서로 보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39) 『대승광백론석론』 권4 大30 p.206c12~13.

40) “또 이 공을 말하면 이는 막는 것이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 오직 공의 유만이 아니라 또한 공의 공도 그렇다.”(『大乘廣百論釋論』 권6 大30 p.219b27~28. 又此空言, 是遮非表, 非唯空有, 亦復空空.)



有說二師，都無諍論。清辯不許勝義無故。如掌珍云，“此非有言，唯遮有性。功能斯盡，更不詮無。如世間說，非白<sup>42)</sup>絹言，未必彼言即詮黑故。”又通難言，又彼所言，“若就真性，一切有爲，都無所有。是立宗義，即謗一切隨邪見者。此中宗義，謂空無性，虛妄顯現門之差別，非一切種皆謗爲無。”護法勝義，亦不許有。如廣百云，“現在亦非勝義諦有，從緣生故，如幻事等。”“又說空言，是遮非表，非唯空有，亦復空空。”乃至廣說。掌珍所破相應論師，非爲護法。護法菩薩，廣百釋中破相應師，亦同彼故。爲以此證，順憬師等，傳無諍論。

둘이 말로는 논쟁했지만 뜻은 같았다는 설이 있다. 탑(塔)<sup>43)</sup>이 아래는 거칠고 위는 세밀하다고 논쟁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상대를 인정해야 자신

---

41) 순경(順憬): 신라 문무왕 때의 승려. 당나라 현장(玄奘)이 신역(新譯)한 『유식론』과 『유가론』을 전해 듣고, 현장의 진유식량(眞唯識量)을 기초로 독자적인 결정상위부정량(決定相違不定量)의 이론을 정립했다. 667년(문무왕 7)경 현장에게 자신의 이론을 소개하고자 하여 당에 들어가는 사신 편에 「결정상위부정량」을 써 보냈으나 이미 2년 전에 현장이 죽었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중국에 유학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중국에 떨친 법상학의 대덕이었다. 일설에는 순경이 만년에 『화엄경』에 대하여 이견을 품고, 이를 비방하다가 산 채로 지옥에 빠졌다고 한다. 저서로 『법화경요간(法華經料簡)』·『대비바사심론초(大毘婆沙心論抄)』·『성유식론요간(成唯識論料簡)』·『인명입정이론초(因明入正理論抄)』 등이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42) 원문의 자는 『대승장진론』에 의해 白으로 교감함

43) 부도(浮圖)는 탑(塔)을 말한다. 부도는 부도(浮屠)·불도(佛圖)·휴도(休屠) 등으로도 음역된 말로써 흔히 불타(佛陀)로 번역하는 𑖀buddha의 또다른 음역이다. 한편으로는 𑖀buddha-stūpa를 번역한 말로써 불탑(佛塔)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아래는 크고 거칠고 위는 세밀하다는 표현으로 보아 탑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비로소 성립되기 때문이다. 호법중에서는 반드시 변계소집성을 들어서 4구(四句)<sup>44)</sup>를 드러내거나 떠남이 없다고 했는데, 공과 유 등의 본성은 모두 변계소집이기 때문에 두 본성이 미묘하게 존재해 있어 완전한 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두 공은 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공은 한 측면만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길이 끊어진 것을 진여라고 이름한다. 청변보살이 세속의 유를 들어서 모든 무를 떠나고, 모든 참된 무를 가려내는 것은 속(俗)도 또한 무이기 때문이다. 두 본성이 미묘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얻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오로지 유만 버리면 곧 무를 얻겠지만, 무도 버리기 때문에 얻는 바가 없다고 말한다. 얻는 바가 없다는 것은 4구(四句)의 뜻을 떠나 있다. 무착(無著)<sup>45)</sup>의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sup>46)</sup>에서 “4구는 모두 이 법집(法執)에 포섭되는 것이다.”<sup>47)</sup>라고 하였다.

44) 4구(四句): ㉔cātuskoṭika. 불교의 판단 및 논의의 형식·사물의 존재방식을 분류하는 4종의 범주. 유·무·역유역무(亦有亦無)·비유비무(非有非無)의 형식을 취하며 이와 같이 넷으로 분류하는 것을 4구분별(四句分別)이라고 하며, 진리는 이러한 4구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구부정이다.

45) 무착(無著): ㉔Asaṅga, 310~390경. 4~5세기경에 활동한 인도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승려. 북인도 간다라국 프루샤프라(Puruṣapura)의 바라문출신이다. 형제 3명이 모두 바수반두(Vasubandhu)로 불렸다. 처음에는 소승 설일체유부로 출가했으나 공의(空義)를 사유하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신통력으로 도솔천의 미륵보살(彌勒菩薩)에게 몇 번이나 왕래하며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의 대승의 깊은 뜻을 배우고는 대승 유가의 법문을 널리 선양하였다. 동생인 세친(世親, Vasubandhu)도 본래는 소승을 배웠는데 후에 무착의 영향으로 대승으로 귀의하였다. 저술로는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순중론(順中論)』·『섭대승론(攝大乘論)』·『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현양성교론송(顯揚聖教論頌)』·『육문교수습정론송(六門教授習定論頌)』 등이 있다.

46)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 2권. 무착(無著)이 저술한 책으로 수(隋) 나라 때 다르마굽다(Dharmagupta)가 한역하였다.

47) 『금강반야론』에는 “곧 그가 가진 언설 법신은 여래의 복된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바른 이치로 말미암아 원효(元曉)스님 등이 말로는 논쟁이 있지만 뜻은 같다고 하였다. 말대(末代)의 근기가 둔한 무리들을 위해 이 논쟁에 의거하여 교묘히 이해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호법이 서술한 유식의 중도는 경(境)·행(行)·과(果)<sup>48)</sup> 셋을 이 논 의 중지로 삼으니, 즉 『보살장아비달마논의경(菩薩藏阿毗達摩論議經)』이 말하는 것이다.

有說此二，語諍意同。如諍浮圖下麤上細，必由許他，自始成故。護法宗必舉所執，無表離四句，空有等性，皆所執故，二性妙有，不全無故。由此說言，二空非眞，空謂一邊，亦不空有，路絕名眞如故。清辨菩薩舉世俗有，離諸無，簡諸眞無，俗亦無故，二性妙無，無所得故。若唯遣有，便可得無，亦遣無故，言無所得。無所得者，離四句義。無著般若論云，“四句皆是法執攝故。”由此正理，元曉師等，語諍意同。爲末代鈍根之徒，依此諍論，巧生解故。今以護法所述唯識中道，境行果三爲此論宗，卽菩薩藏阿毗達摩論議經攝。

## 2. 문장의 뜻을 해석함[解釋文義]

세 번째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문[解釋文義門]은 논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는 가르침을 일으키는 인연에 관한 부분[教起因緣分]이고, 둘째는

---

법신을 그에게서 얻기에 이르러 이에 일사구계를 설하여 복을 만듭니 매우 많다.”(권상 大25 p.761b6~8. 卽彼所有言說法身，出生如來福相，至得法身於彼，乃至說一四句偈，生福甚多.)라는 구절은 나온다.

- 48) 경(境)·행(行)·과(果): 경은 관조(觀照)를 가리키며 믿거나 이해하는 대상을 말한다. 행은 경을 관하여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는 그 수행으로 얻어지는 증과를 말한다.

성인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한 부분[聖敎正說分]이고, 셋째는 결론적으로 이름붙여 회향하여 베푸는 부분[結名廻施分]이다.

### 1) 가르침을 일으키는 인연에 관한 부분[敎起因緣分]

처음에 두 문이 있는데 송(頌)과 장행(長行)이다. 송에 두 문이 있으니 처음 절반은 귀의(歸依)이고, 나중 절반은 소위(所爲)이다.

‘머리를 조아린다[稽首]’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모습이고, ‘유식(唯識)’ 등의 말은 귀의의 대상인 본체(本體)이다. 머리가 땅에 닿기 때문에 계수(稽首)라고 하고, 몸을 (바닥에) 붙이고 머리가 땅에 닿게 하여 삼업(三業)<sup>49)</sup>으로 공경(恭敬)을 나타낸다. 체(體)는 곧 덕이 있는 곳에서 믿고 참회하는 것이니 청정행(淸淨行)으로써 높이고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第三解釋文義門者，論有三分。一敎起因緣分，二聖敎正說分，三結名廻施分。初有二門，謂頌長行。頌有二門，初半歸依，後半所爲。言稽首者，能敬之相，唯識等言，所歸之體。以首至地，故名稽首，藉身稽首，申三業敬。體卽信慙於有德所，以淸淨行而崇重故。<sup>50)</sup>

공경하는 대상의 체(體)에 대해 『성유식론장중추요(成唯識論掌中樞

49) 삼업(三業): ① trīni-karmāni, 불교의 기본교리로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행위. 몸으로 짓는 것은 신업(身業), 말로 짓는 것은 구업(口業), 생각으로 짓는 것은 의업(意業)이라고 한다. 이 업은 다시 그 행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선업(善業)과 악업(惡業), 선에도 악에도 속하지 않는 무기업(無記業)으로 구별된다.

50) 이 두 번째 단락과 제1송 해석 단락의 원문은 『성유식론학기』 권상본 韓3 p.485 b9~490a7.

要)』<sup>51)</sup>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오직 열반만을 공경한다고 한다. 자성이 영원불변한 것을 수증하게 여기기 때문이니, 4열반(四涅槃)<sup>52)</sup>의 체가 모두 진여의 바르게 귀의한 과위(果位)라고 한다. 원만히 청정함[滿淨]<sup>53)</sup>과 부분적으로 청정함[分淨]<sup>54)</sup>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이다. 유식성(唯

51) 『성유식론장중주요(成唯識論掌中樞要)』: 4권. 당(唐) 나라 규기(窺基)의 찬술. 『성유식론주요(成唯識論樞要)』·『유식론주요(唯識論樞要)』·『유식주요(唯識樞要)』·『주요(樞要)』로 불린다. 『성유식론연비(成唯識論演秘)』·『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과 함께 유식의 3종 소(疏)로 불린다. 처음에는 『성유식론』의 성립과 전래, 번역 등의 인연을 서술하고, 다음에는 제목 및 관련된 근기를 풀이하고 『성유식론』을 해석하였다. 특별히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의 과단(科段), 오종성(五種姓)의 뜻, 삼류경(三類境)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 논의에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체로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와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석서로는 당 지주(智周)의 『성유학론주요기(成唯識論樞要記)』 2권과 경흥(憬興)의 『성유식론주요기(成唯識論樞要記)』 2권 등이 있다.

52) 4열반(四涅槃): 4종열반(四種涅槃). 법상종(法相宗)에서 성립된 열반이다. 본래 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清淨涅槃)·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의 4가지이다. ①본래자성청정열반은 만유와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인 진여이다. 그 진여의 성품이 청정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생멸이 없이 적정한 열반을 가리킨다. ②유여의열반은 유여열반(有餘涅槃)이라도 하는데, 번뇌장(煩惱障)을 끊어 없애고 현현되는 진여의 상태이다. 번뇌장은 소멸되었어도 욕계(欲界) 오음(五陰)의 몸이 남아서 의지하는 바가 되기에 유여열반이라고 한다. ③무여의열반은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고 한다.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현현되는 진리의 상태이다. 즉 번뇌장이 다 끊어지고 오음의 몸 또한 없어져 일체의 유의법(有爲法)이 의지하는 바를 잃어서 자연히 멸진(滅盡)에 들어가 모든 고통이 영원히 적멸한 상태이다. ④무주처열반은 번뇌장뿐만 아니라 소지장(所知障)을 끊고 얻는 열반이다. 소지장마저 끊었으므로 생사와 열반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깊은 지혜를 얻게 되고, 대비(大悲)가 있으므로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생사계의 중생을 교화하며, 대지(大智)가 있어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미계(迷界)를 여의었으므로 무주처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주처열반은 대승보살 정신에 입각한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53) 원만히 청정함[滿淨]: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에 “여래가 증득한 유식의

識性)<sup>55)</sup>이란 성정열반(性淨涅槃)<sup>56)</sup>으로 남은 것이 없어서 원만히 청정한 자라고 한다. 요컨대 과(果)가 원만한 때에 바야흐로 증득(證得)하기 때문이다.(10지(十地)<sup>57)</sup>는 번뇌와 고통의 모습을 다 없앴이 없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청정한 자란 머무름 없는 열반[無住涅槃]<sup>58)</sup>으로 십지의 지위에서 증득하기 때문이다.<sup>59)</sup>〈이미 유가 이변(二邊)<sup>60)</sup>의 작용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무착의 『금강

---

진리가 원만한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만히 청정한 분이라고 이름한다.”(『成唯識論述記』 권1 大43 p.232c3. 如來證唯識理, 究竟圓極, 名滿淨者.)라고 하였다. 즉 만정자(滿淨者)는 부처님을 말한다.

54) 부분적으로 청정함(分淨): 『성유식론술기』에 “여러 보살이 나누어 증득한 유식의 진여 자성인데 깨달음이 원만한 밝음이 아니어서 부분적으로 청정한 분이라고 이름한다.”(『成唯識論述記』 권1 大43 p.232c5~6. 諸菩薩分證唯識眞如自性, 覺未圓明, 名分淨者.)라고 하였다. 즉 분정자(分淨者)는 보살을 말한다.

55) 유식성(唯識性): ㉔vijñaptimātratā, 유식의 궁극적인 진리.

56) 성정열반(性淨涅槃): 4종열반(四種涅槃) 가운데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清淨涅槃)을 말한다. 이는 곧 진여로써 4종 가운데 유일하게 택멸(擇滅)에 포섭되지 않는다.

57) 10지(十地): ㉔bhūmi, 불교 보살의 10가지 수행단계. 지(地)는 주처(住處)·주지(住持)·생성(生成)의 뜻이다. 경·론에 따라 10지의 명칭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엄경(華嚴經)』은 보살이 수행하여 성불하기까지 41단계를 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영락경』에 의하여 총 52단계의 수행 중에서 제41부터 제50 단계까지를 10지라 한다. 10지는 차례대로 초지(初地), 2지, 3지 10지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제1 환희지(歡喜地), 제2 이구지(離垢地), 제3 명지(明地), 제4焰地, 제5 난승지(難勝地), 제6 현전지(現前地), 제7 원행지(遠行地), 제8 부동지(不動地), 제9 선혜지(善慧地), 제10 법운지(法雲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0지에 이르러서야 보살은 비로소 불성(佛性)을 보며 중생을 구제하고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10성(聖)이라 하며 성인의 칭호를 받는다. 제41단계에 오르기 전의 보살은 지전(地前)의 보살이라 하며, 마침내 제41단계에 오른 보살은 등지(等地)의 보살, 10지에 있는 보살은 지상(地上)의 보살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58) 무주열반(無住涅槃): ㉔apratīṣṭhita-nirvāṇa, 4종열반(四種涅槃) 가운데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을 말한다.

59) 『成唯識論掌中樞要』 권상 大43 613a14~17. 唯識性者自性清淨涅槃. 滿清淨者,

반야론(金剛般若論)』 가운데 논증이 있다.) 또 이승열반(二乘涅槃)<sup>61)</sup>은 오직 택멸(擇滅)을 빌어 오직 하나의 해탈만을 얻는다. 대반열반(大般涅槃)<sup>62)</sup>은 세 가지 일[三事]이 원만하다. 세 가지 일에는 둘이 있으니, 첫째는 체삼명(體三名)<sup>63)</sup>의 세 가지 일이고, 둘째는 의삼명(義三名)의 세 가지 일이다. 관하

有餘無餘二種涅槃, 要果圓時方證得故. 分清淨者, 即無住處涅槃, 許十地位已證得故. 涅槃雖四體總眞如.

- 60) 이번(二邊): 중도(中道)에서 떠난 양 극단. 『중론(中論)』에서는 유(有)·무(無) 또는 상(常)·무상(無常)이라고 했고, 『순중론(順中論)』에서는 상(常)·단(斷)이라고 했다.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는 증익(增益)·손감(損減), 『지관보행(止觀輔行)』에서는 공(空)·가(假)를 양 끝[二邊]으로 보는 등 다양하다.
- 61) 이승열반(二乘涅槃): 여래의 대반열반(大般涅槃)에 미치지 못하는 이승(二乘)의 열반이다. 관정(灌頂)의 『대반열반경소(大般涅槃經疏)』에 “실제로 이승 열반은 없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았을 때 이승만이 있어 2열반(二涅槃)을 얻었기 때문이다.”(『大般涅槃經疏』 권12 大38 p.117c5~7. 是故實無二乘涅槃, 佛不出世即有二乘得二涅槃.)라고 하였고, 원효(元曉)의 『열반종요(涅槃宗要)』에서는 “이승 열반은 유여열반이라 하고, 여래가 증득한 것은 무여열반이라 한다.”(『涅槃宗要』 大38 p.244a16~17. 二乘涅槃名爲有餘, 如來所證名曰無餘)라고 하였다.
- 62) 대반열반(大般涅槃): mahā-parinirvāṇa. 대멸도(大滅度)·대원적(大圓寂)의 뜻. 부처가 완전한 해탈의 경지로 되는 열반(涅槃).
- 63) 체삼명(體三名)과 의삼명(義三名): 체(體)와 의(義)의 세 가지 뜻에 대해 『인명입정리론소(因明入正理論疏)』에 정리되어 있다. “일체법을 간략히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체이고 둘째는 의이다. 오온(五蘊)의 색(色)과 같은 것이 체이고, 이 위에 유루(有漏)·무루(無漏) 등의 뜻을 의라고 한다. 체와 의에는 각각 세 개의 이름이 있다. 체의 세 가지 이름이란, 첫째는 자성(自性)으로, 『유가론』 등의 옛 스님들이 설한 자성이 이것이다. 둘째는 유법(有法)으로, 즉 여기[인명론]에서 설한 존재의 법이 이것이다. 셋째는 소별(所別)로, 아래의 종(宗)이 지나친 것 가운데 구별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의의 세 가지 이름이란, 첫째는 차별(差別)로, 『유가론』 등의 옛 논사들이 설한 차별이 이것이다. 둘째는 위법(爲法)으로, 아래의 다른 것 가운데서 말한 법자상상위인 등이 이것이다. 셋째는 능별(能別)로, 이중에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因明入正理論疏』 권1 大44 p.98b3~11. 一切法中略有二種, 一體, 二義. 且如五蘊, 色等是體, 此上有漏無漏等義, 名之爲義. 體之與義, 各有三名. 體三名者, 一



는 주체인 지혜와, 관해지는 대상인 법신(法身)<sup>64)</sup>과, 얽매임을 떠난 택멸을 체의 세 가지 일이라고 한다. 하나의 진여 위에 있는 지혜의 본성을 반야(般若)<sup>65)</sup>라 하고, 덕(德)의 작용을 법신이라 하고, 속박을 여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의(義)의 세 가지 일이라고 한다.<sup>66)</sup>〈이에 따라 남은 두 가

名自性, 瑜伽等中古師所說自性是也, 二名有法, 卽此所說有法者是, 三名所別, 如下宗過中名所別不成是. 義三名者, 一名差別, 瑜伽論等古師所說差別是也, 二名爲法, 下相違中云, 法自相相違因等是, 三名能別, 則如此中名能別是.)라고 하였다. 각각의 논사에 따라 체삼명(體三名)은 자성(自性)·유법(有法)·소별(所別)을, 의삼명(義三名)은 차별·위법(爲法)·능별(能別)을 말한다.

64) 법신(法身): ①dharma-kāya. 부처님이 설한 정법(正法), 부처님이 얻은 무루법(無漏法), 부처님의 자성인 진여 여래장을 말한다. 법신은 법불(法佛)·이불(理佛)·법신불(法身佛)·자성신(自性身)·법성신(法性身)·여여불(如如佛)·실불(實佛)·제일신(第一身) 등이라고도 한다.

65) 반야(般若): ①prajñā. 바야(波若)·반라야(般羅若)·발라야(鉢刺若)로도 쓰고, 혜(慧)·지혜(智慧)·명(明)으로 번역된다. 법의 진실한 이치에 계합한 최상의 지혜로 반야를 얻은 이가 부처님이므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 또는 어머니라 불린다. 보살의 수행을 위한 육바라밀(六波羅蜜) 가운데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지혜바라밀)이 있다.

66) 규기(窺基)의 『성유식론장중추요』에서는 “이승열반은 오직 택멸만을 빌리고 대반열반은 세 가지 일[三事]이 원만하다. 세 가지 일에는 두 개가 있다. 첫째는 체삼명의 세 가지 일이요, 두 번째는 의삼명의 세 가지 일이다. 관하는 지혜와 관해지는 법신, 모든 묶여있는 것을 떠나 택멸을 빌리는 것 등을 해탈이라고 하고 체의 세 가지 일이라고 한다. 하나의 진여 위에서 혜(惠)의 본성을 마하반야(摩訶般若)라고 하고, 묶여있는 자리를 떠난 공덕의 법 본성을 법신이라고 하고, 성(性)이 생사의 결박을 떠난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하나의 체 위에서 의(義)는 세 가지가 있으므로 의의 세 가지 일이라고 한다. 그 옹한 바를 따라 이승은 오직 하나의 해탈만을 얻기 때문이다.”(『成唯識論掌中樞要』 권상 大43 613a20~27. 又二乘涅槃唯假擇滅, 大般涅槃三事圓滿. 三事有二, 一體三名三事, 二義三名三事. 能觀智惠, 所觀法身, 離諸繫縛, 假擇滅等, 名爲解脫, 名體三事. 一眞如上, 惠本性故名摩訶般若, 出纏之位功德法本, 名曰法身, 性離生死縛, 名曰解脫. 一體之上, 義有三, 故名義三事. 隨其所應, 二乘唯得一解脫故.)라고 하였다.



지도 의(義)의 세 가지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혜가 체에 들어맞는 것을 반야라 하고, 이미 두 장애를 여윈 것을 해탈이라고 하며, 여러 덕(德)이 모인 것을 범신이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지(智)의 법신을 설하기 때문이다. 택멸이 체에 해당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고, 해가 과(果)를 얻은 것을 반야라고 부르며, 두 가지를 끊는 두 가지의 지혜를 보리(菩提)<sup>67)</sup>라고 부른다. 때문에 여러 덕을 담고 있고, 그래서 범신이라고 한다. 『유가론』의 해석과 같이 여래의 일체의 유위공덕(有爲功德)<sup>68)</sup>은 섭수(攝受)<sup>69)</sup>가 남아 있고, 무위공덕(無爲功德)<sup>70)</sup>은 섭수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머무름 없는 법성만이 항상 원만하고 적멸하여<sup>71)</sup> 체의 세 가지 일을 갖추어서 대열반(大涅槃)이라고 한다. 『불림열반기법주경(佛臨涅槃記法住經)』<sup>72)</sup>에서 말한 것과 같다<sup>73)</sup>

하나는 오직 보리만을 공경하는 것이다. 보살이 구하는 지혜가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묘관찰지(妙觀察智)와 평등성지(平等性智)는 인지(因地)에서 이미 얻었다.<sup>74)</sup> 공경하는 과(果)의 4지(四智)<sup>75)</sup>는 원만한 청정과 부분적인 청정을 말한다. 혹 부분적인 청정을 얻으면 인지의 2지(二智)<sup>76)</sup>를 겸한

67) 보리(菩提): ①bodhi, 각(覺)·지(智)·지(知)·도(道)로 번역. 세간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한 지혜. 깨달음. 부처·연각(緣覺)·성문(聲聞)이 각각 그 과위에 따라 얻은 지혜가 다른데, 부처님의 보리인 무상구경(無上究竟)을 아득다라삼삼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하고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무상정변지(無上正遍智)·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무상보리(無上菩提)라고 번역한다.

68) 유위공덕(有爲功德): 세간의 일체 인연에 의해 생기는 공덕.

69) 섭수(攝受): 거두어 받아들임. 중생의 선(善)을 받아들이고, 거두어 중생을 가르쳐 이끄는 방법을 말한다.

70) 무위공덕(無爲功德): 열반의 제1 의제(義諦).

71) 원적(圓寂)은 열반과 같은 말. 부처의 죽음은 미혹한 세계의 변화를 거두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므로 이미 여러 덕을 원만하게 하고 여러 악을 적멸하게 하여 원적이라 한다. 원만 적정(寂靜)의 뜻으로도 쓰인다.

72) 열반기(涅槃記)는 『불림열반기법주경(佛臨涅槃記法住經)』을 말한다. 당나라 사리(師利)가 찬한 『시소범자유가법경경(示所犯者瑜伽法鏡經)』의 제1품을 현장이 고치면서 늘리고 줄여서 번역한 불경. 대정신수대장경 권12에 수록되어 있다.

다. 유식성이란 증득하는 대상인 경계를 들어 뜻에 저 증득한 보리를 공경 하니,<sup>77)</sup> 공력(功力)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보리와 열반을 함께 공경한다. 유식성은 열반이다. 본성의 체가 청정하여 원만과 부분으로 말하지 않는다. 원만하거나 부분적으로 청정한 자란 보리이다. 인위(因位)<sup>78)</sup>에서 2지를 얻고 과위에서 4지가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성유식론』 제9권에서 “유식의 뜻을 이루어 유정이 보리와 열반

73) 체(體)의 삼사와 의(義)의 삼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體三名三事	義三名三事	
能觀智慧	慧	慧性名般若
		德作名法身
		離縛名解脫
	如如智法身	慧當體名般若
所觀法身		已離二障名解脫
		衆德所集名法身
		擇滅當體名解脫
離繫擇滅		慧所得果名般若
		二斷二智名菩提

74)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추요(成唯識論掌中樞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이 있다.(권상 大43 p.613a28~b1. 菩提即是四智品法, 二智在因得, 謂妙觀平等, 二智果中得. 總而言者, 菩提因已得.)

75) 4지(四智) : ㉔catvāri jñānāni, 4종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유루(有漏)의 제8식·제7식·제6식과 전5식을 전변(轉變)한 4종류의 무루지(無漏智). 대원경지(大圓鏡智)·평등성지(平等性智)·묘관찰지(妙觀察智)·성소작지(成所作智)를 말함.

76) 2지(二智) : 인(因)에서 얻었다는 묘관찰지와 평등성지의 두 지혜.

77)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추요(成唯識論掌中樞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 있다.(권상 大43 p.613b8~11. 今論所言唯識性者, 此是菩提事唯識性. 又即眞如, 顯是菩提所證體性, 而意取彼能證菩提.)

78) 인위(因位) : 과위(果位)에 대칭되는 말로, 인지(因地)라고도 한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과정으로 불과(佛果)에 이르기 이전의 수행의 과정. 주로 부처가 되기 이전의 구도자인 보살의 단계를 가리킴.

두 전의(轉依)<sup>79)</sup>를 얻었기 때문이다.”<sup>80)</sup>라고 한 것과 같다.<sup>81)</sup>

所敬之體，樞要三釋。

一云 唯敬涅槃。以自性常最爲勝故。謂四涅槃體，皆眞如正歸果位。言滿分淨分者，位也。唯識性者，性淨涅槃，其餘無餘。名滿淨者，要果滿時方證得故(十地未有已盡煩惱及苦相故)。分清淨者，無住涅槃，許十地位已證得故(已有不住二邊用故。無著般若論中有證)。又二乘涅槃，唯假擇滅，唯得一解。大般涅槃，三事圓滿。三事有二，一體三名三事，二義三名三事。能觀智慧，所觀法身，離繫擇滅，名體三事。一眞如上慧性名般若，德作名法身，離縛名解脫，名義三事。(准知餘二，有義三事。謂慧當體名般若，已離二障名解脫，衆德所集名法身。說如如智法身故。擇滅當體名解脫，慧所得果名般若，二斷二智名菩提。故含衆德，故名法身。如瑜伽釋，如來一切有爲功德有餘攝，無爲功德無餘攝故。然唯無住性常圓寂，具體三事名大涅槃，如涅槃記)

一云 唯敬菩提。菩薩求智，非圓寂故，妙觀平等，雖因已得。敬果四智，言滿分淨。或得分淨，兼因二智。唯識性者，舉所證境，而意敬彼能證菩提，有功力故。

一云 雙敬菩提涅槃。唯識性是涅槃。本性體淨，不言滿分。滿

79) 전의(轉依) : āśraya-parivṛtti 또는 āśraya-parāvṛtti. 소의(所依)의 전(轉). 전(轉)은 바꾸어 버리는 것[轉捨]·바꾸어 얻는 것[轉得]을 뜻하고, 소의(所依)란 모든 종자를 소유하는 알라야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의는 줄렬한 범의 소의(所依)를 바꾸어 버리고 수승하고 청정한 범의 소의(所依)를 증득하는 것이다. 유식에 서는 성도(聖道)를 닦아서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끊어 없애고 열반과 보리의 과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개의 과를 이전의과(二轉依果)라고 한다.

80) 『성유식론(成唯識論)』 권9(大31 p.51a8~9. 成立唯識意，爲有情證得如斯二轉依果.)

81)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주요(成唯識論掌中樞要)』의 취지와 유사하다.(권상 大43 p.613b12~19.)

分淨者菩提。因位得二，果圓四故。如第九云，“成唯識意，有情得菩提涅槃二轉依故”。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sup>82)</sup>에는 4가지 해석이 있다.<sup>83)</sup>

첫째는 법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부처님이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이른바 법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람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sup>84)</sup> 제64권에서 “만약

82)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 『성유식론』에 대한 주석서.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규기(窺基)의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20권·『성유식론장중주요(成唯識論掌中樞要)』 4권·『성유식론별초(成唯識論別抄)』 10권, 혜소(慧沼)의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 13권, 지주(智周)의 『성유식론연비(成唯識論演秘)』 14권, 대현의 『성유식론학기』 10권 등이 있다. 여기서의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는 규기의 『성유식론술기』를 의미한다.

83) 『성유식론술기』에 “공경에 귀의하는 바에는 합해서 7가지 해석이 있다. 3가지는 『성유식론장중주요』에 있고, 지금은 진리로써 네 가지 뜻에 준거하는데 다르다. 첫째는 오직 법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 둘째는 다만 사람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지 않는다. 셋째는 법과 사람을 함께 공경한다. 넷째는 불·법·승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다.”(『成唯識論述記』 권1, 大43 p.232c7~p.233a9. 於所歸敬合有七釋. 三如樞要, 今以理准四義不同. 一者唯敬法而非人, (중략) 二者但敬人而非法, (중략) 三者雙敬法之與人, (중략) 四者歸敬佛法僧寶.)라고 하였다.

84)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㉔Yogacārabūmī, 『한역(漢譯)』에 따르면 미륵(彌勒)이, 저술하고 무착(無著)이 지었다고 한다. 100권. 유가학파의 기본 논서이고, 법상종의 가장 중요한 전적이다. 삼승(三乘)을 행하는 자를 유가사(瑜伽師)라고 하는데, 이 유가사가 의지하고 행하여야 할 삼승사상을 17지(十七地)로 자세히 해석하고 있어서 17지론(十七地論)이라고도 부른다. 17지 가운데 보살지(菩薩地)를 가장 중요시한다. 한역본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장이 번역한 『유가론(瑜伽論)』 100권이 가장 유명하다. 이외에도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0권, 유송(劉宋) 때 구나발마(求那跋摩)가 번역한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9권, 양나라 『진제(眞諦)』가 번역한 『결정장론(決定藏論)』 3권이 있다. 주석서로 가장 방대한 것은 신라 둔륜(遁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 24권이다.

논을 지으려면 먼저 두 스승을 공경하라. 법을 공경하기 때문에 본래의 논의 스승(부처님이다)을 공경하는 것이고, 의(義)를 공경하기 때문에 널리 전파시킨 스승(보살이다)에게 예배하는 것이다.”<sup>85)</sup>라고 하였다. 유식성에서 원만한 청정은 본사이고 부분적인 청정은 보살이다. 셋째는 사람과 법을 함께 공경하는 것이다. 법은 지킬 만한 궤범이 되고, 사람은 도를 펴기 때문이다. 넷째는 불·법·승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유식론』이 의지한 바이기 때문이니, 유식성은 법이고, 원만한 청정은 불보(佛寶)이고, 부분적 청정은 승보(僧寶)이다.

아울러 『유식삼십송』의 논사가 능히 일으켰기 때문에 비록 7가지의 해석<sup>86)</sup>이 있으나 삼장(三藏)<sup>87)</sup>은 오직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수승하다고 상세히 말하였으니 성(聲)에 의거하여 법을 논한 것이다. 7전성(七轉聲)<sup>88)</sup>가

85)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는 “다시 만일 이 논을 만든다면 마땅히 먼저 두 공경하는 스승에게 귀의 예배해야 논을 만들 수 있다. 법을 공경하기 때문에 먼저 마땅히 논의 본래 대사에게 귀의 예배하고, 의를 공경하기 때문에 다시 마땅히 뜻을 널리 전파한 스승에게 귀의 예배한다.”(『瑜伽師地論』 권64 大30 p.658a9~11. 復次若欲造論, 當先歸禮二所敬師, 方可造論. 恭敬法故, 先應歸禮論本大師, 恭敬義故, 復應歸禮開闡義師.)라고 하였다.

86) 7가지의 해석: 공경하는 바의 체[所敬之體]에 대한 『성유식론장중추요』의 3가지 해석과 『성유식론술기』의 4가지 해석을 합한 것이다. 이 중 ①唯敬涅槃 ②唯敬菩提 ③雙敬菩提涅槃은 『성유식론장중추요』, ④敬法非人 ⑤敬人非法 ⑥雙敬人法 ⑦敬佛法僧은 『성유식론술기』의 해석이다.

87) 삼장(三藏): 불교의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에 모두 능한 사람을 일컫는 말. 여기서는 『성유식론』을 번역하여 유식종을 창립한 중국의 현장 삼장을 말한다.

88) 7전성(七轉聲): 산스크리트어에서 명사·대명사·형용사의 어미 변화의 8종을 8전성(八轉聲, ṣaṣṭa vibhaktayah) 또는 8전(八轉)·8성(八聲)·8례(八例)라 한다. ① 체격(體格)은 체성(體聲)이라고도 하는데, 주격이다. ② 업격(業格)은 소작업성(所作業聲)이라고도 하는데, 수용격으로서 ‘파(把)……’의 뜻이다. ③ 구격(具格)은 능작구성(能作具聲)이라고도 하는데 작격(作格)으로 ‘의(依……)’의 뜻이다. ④ 위격

운데 일체가 공경하는 대상은 모두 제4성인 위성(爲聲)의 설로 한다. 그러나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제7성의 설로 한다.<sup>89)</sup> 유식성은 오직 차별하는 주체이고, 원만하거나 부분적인 청정이란 차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오직 유식성 가운데 원만하거나 부분적으로 청정한 자를 공경하는 것은 이미 유식성이 제7성의 설로 하였기 때문이다.

『성유식론』 제9권에 의거하면 대략 두 개의 성이 있다. 첫째는 허망성(虛妄性)이니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sup>90)</sup>〈즉 청정함을 보낸 바이다〉을 말하고, 둘째는 진실성(眞實性)이니 원성실성(圓成實性)〈즉 청정함을 증득한 바이다〉을 말한다. 다시 두 성이 있으니, 첫째는 세속제(世俗諦)로 의타기성(依他起性)<sup>91)</sup>〈즉 청정함을 끊은 바이다〉을 말하고, 둘째는 승의제(勝義諦)로 원성실

---

(爲格)은 소위성(所爲聲)이라고도 하는데 여격(與格)으로 ‘위(爲……)’라는 뜻이다. ⑤종격(從格)은 소인성(所因聲)이라고도 하는데 탈격(奪格)으로 ‘중(從……)’의 뜻이다. ⑥속격(屬格)은 소유격으로 ‘……적(的)’의 뜻이다. ⑦어격(於格)은 소의성(所依聲)이라고도 하는데 의격(依格)으로 ‘어(於)……’의 뜻이다. ⑧호격(呼格)은 호소성(呼召聲)이라고 하는데 ‘……아(啊)’의 뜻이다. ⑧의 호격을 제외한 7성을 7전성·7예구(七例句)·7례(七例)·7언논구(七言論句) 등으로 부른다.

89) 규기도 『성유식론장중주요』에서 유사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권상 대43 p.613b27~c3. 以唯識性第七轉聲中說所於聲也, 非所依聲, 以第七聲通根境故, 此爲能差別, 滿分淨者爲所差別, 第四轉中說, 以一切所敬皆以第四所爲聲說, 若唯識性亦所敬者, 應第四攝, 然依蘇漫多聲說, 卽是八轉也.)

90)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 ⑤parikalpita-svabhāva, 유식 3성(三性) 가운데 하나. 변계(遍計)는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서 시비선악의 차별적 집착을 일으켜서 일체 사물에 대해 주관적 색채를 띠고 보는 것이고, 소집(所執)은 변계에 의해 잘못 보이는 대상. 곧 변계소집이란 망정(妄情)으로 아(我)가 아니고 법(法)이 아닌 것을 실아(實我)·실법(實法)이라고 집착하여 보는 상태.

91) 의타기성(依他起性) : ⑤para-tantra-svabhāva, 유식 3성(三性) 가운데 하나. 다른 인연에 의존해서 생기는 상태. 일체의 현상은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모든 법도 사라져 없어진다. 즉 일체의 법은 유(有)이면서 비유(非有)이고 무(無)이면서 비무(非無)이다. 유식설에서 말하는 백법(百法) 가운데 욕무위법

성(즉 청정함을 얻은 바이다)을 말한다.<sup>92)</sup> 『성유식론장중추요』에는 삼성(三性)이제(二諦)가 많은 구절에서 나뉘어 나와 번잡하고 요약되어 있지 않다.<sup>93)</sup> 이 가운데 청정한 자란 공경받는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의 중심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어떤 설에서는 다만 법이 머물러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니, 뜻이 법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설에서는 다만 사람을 이롭게 하니, 비록 『유식삼십송』을 해석하나 뜻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실 그대로의 뜻은 사람[人]과 법(法)을 함께 위한 것으로, 스스로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한다. ‘저 설을 풀이한다[釋彼說]’는 것은 법이 머물게 하는 것이니, 법이 머물러 남을 이롭게 함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sup>94)</sup>에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법이

(六無爲法)을 제외한 나머지 유위법(有爲法)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의타기성은 허망분별(虛妄分別)의 연(緣)으로 생긴 잡염(雜染)의 법인 염분의타(染分依他)와 성지(聖智)의 연에 의해 생긴 무루지(無漏智)의 순정(純淨)한 법인 정분의타(淨分依他)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정분의타는 원성실성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92) 『성유식론』 권9 大31 p.48a28~b3. 謂唯識性略有二種, 一者虛妄, 謂遍計所執, 二者眞實, 謂圓成實性. 爲簡虛妄說實性言. 復有二性, 一者世俗, 謂依他起, 二者勝義, 謂圓成實. 爲簡世俗故說實性.

93)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추요』의 내용도 같다.(권1 大43 p.614a6~11. 唯識性言, 既境第七, 略有二解. 一依三性, 二依二諦, 依三性者, 唯識第九云, 謂唯識性略有二種, 一虛妄, 謂計所執, 二眞實, 謂圓成實性. 復有二種, 一世俗, 謂依他起, 二勝義, 謂圓成實. 故知三性並名唯識性.)

94) 대현은 『섭대승론』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의 구절이다. 『섭대승론(攝大乘論)』은 ㉔Mahāyāna-saṃgraha-sāstra. 인도의 승려 무착(無著)이 저술. 섭론(攝論)이라고도 한다. 『해심밀경(解深密經)』 『대승아비달마경(大乘阿毘達磨經)』을 필두로 미륵(彌勒)의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등 유가행파(瑜伽行派)의 입장에서 대승불교를 통일하기 위하여 저술한 책. 한역(漢譯)에는 531년 부다산타(Buddhaśānta) 역, 563년 파라마르타(Paramārtha, 眞諦) 역, 647~649년의 현장(玄奘) 역, 다르마굽다



오랫동안 머무니, 그래서 나는 섭대승론을 해석한다”<sup>95)</sup>라고 한 것과 같다. ‘나’란 가아(假我)이니, 규기(窺基)는 안혜(安慧)<sup>96)</sup>라고 했고, 원측은 호법이라고 했다. 『유식삼십송』은 곧 원만하고 부분적으로 청정한 분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에서 해석하여 만든 것들은 모두 『성유식론』에 포함된다. ‘이익과 안락을 준다’는 의미는 『불지론』과 『유가사지론』에서 상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疏有四解，一敬法非人．諸佛所師所謂法故．二敬人非法．如瑜伽六十四云，“若欲造論，先敬二師．恭敬法故，敬本論師(佛也)，恭敬義故，禮開闡師(菩薩也)”．於唯識性，滿淨本師，分淨菩薩．三雙敬人法．法可軌持，人弘道故．四敬佛法僧．論所依故，唯識性法，滿淨佛寶，分淨僧寶．兼本頌師，以能起故，雖有七解，三藏詳言，唯敬人勝，准聲論法．七轉聲中，一切所敬，皆以第四爲聲說．然梵本以第七境聲說．唯識性，唯能差別，滿分淨者，爲所差別故．今唯敬唯識性中滿分淨者，旣唯識性境

---

(Dharmagupta) 역의 4종이 있다. 주석서로는 세친(世親)의 『섭대승론석(Mahāyāna-saṃgraha-bhāṣya)』과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Mahāyāna-saṃgrahopanibandhana)』 10권이 있다.

- 95)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1 大31 p.380a27. 爲利自他法久住 故我略釋攝大乘.
- 96) 안혜(安慧): 因Sthiramati, 유가행파(瑜伽行派)의 학승(學僧)으로 유식계(唯識系) 10대 논사(十大論師)의 한 사람. 스승은 덕혜(德慧)이고 제자는 진제(真諦)이다. 인명학(因明學)에 정통하였다. 호법(護法)과 동시대인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심식(心識)의 작용에 있어서 자증분(自證分)을 인정하고 견분(見分)·상분(相分)의 유자체분(唯自體分)을 성립하여 1분가(一分家)라고 불렸다. 호법은 상분(相分)·견분(見分)·자증분(自證分)·증자증분(證自證分)으로 4분하여서 4분가(四分家)라고 불렸다. 세척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과 용수의 『중송론(中頌論)』 등에 주석을 달았으며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16권 · 『대승광오온론(大乘廣五蘊論)』 1권 · 『대승중관석론(大乘中觀釋論)』 9권 · 『구사론실의(俱舍論實義)』 5권 등을 저술하였다.



第七故. 依論第九, 略有二性. 一虛妄性, 謂遍計所執(即所遣淨), 二眞實性, 謂圓成實性(即所證淨). 復有二性, 一世俗, 謂依他起(即所斷淨). 二勝義, 謂圓成實(即所得淨). 樞要三性二諦, 分出多句, 繁而不要. 於中淨者, 所敬應知所爲之中.

有說, 但爲法住, 利樂有情, 意住法故. 有說, 但爲利人, 雖釋彼說, 意利他故. 如實義者, 雙爲人法, 自利利他, 謂‘釋彼說’, 而令法住, 法住利他, 爲自利故. 如攝大乘, “爲利自他法久住, 故我解釋攝大乘.” ‘我’謂假者, 基云安慧, 測云護法. 彼說即滿分淨者之教. 然瑜伽釋造所爲, 皆應於此論. 所爲攝利樂義, 別如佛地論瑜伽廣說.

#### 논본 권제일(論本卷第一)<sup>97)</sup>

[론]

유식의 성품이 원만히 또는 부분적으로 청정한 분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지금 저 설(說)을 풀이하여 여러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을 짓는 것은 두 가지 공[二空]<sup>98)</sup>에 대해 미혹하고 그릇된 자들이 바른 이해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稽首唯識性 滿分清淨者

我今釋彼說 利樂諸有情

97) 대현의 이 『성유식론학기』는 상·중·하에 각각 본과 말이 있어 모두 6권이다. 그런데 여기처럼 논본권제1에서 10까지 10권으로 분권하기도 한다. (한국불교전서에는 두 가지 구분이 다 표시되어 있다.) 『성유식론』의 내용에서 시작하므로 『성유식론학기』의 첫머리가 아닌 이 귀경송 부분에서 논본을 시작하고 있다.

98) 두 가지 공[二空]: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말한다.

今造此論，爲於二空有迷謬者，生正解故。

[학기]

설명한다. 위는 송으로써 해석을 지은 뜻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세친(世親)<sup>99)</sup>이 지은 논의를 밝힌 글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안혜(安慧) 등이 이해를 내어 장애를 끊고 증과(證果)를 얻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원측은 난다(難陀)<sup>100)</sup>라고 하고, 규기는 화변(火辨)<sup>101)</sup>이라고 말한 것들로, 장애를

- 
- 99) 세친(世親) : 320?~400?. ㉔ Vasubandhu, 바수반두(婆數槃豆)·벌소반도(伐蘇畔度) 등으로 음역하며, 천친(天親)이라고도 한다. 간다라국(國)의 정통 브라만 출신. 형인 무착(無著 : Asaṅga)과 동생 사자각(師子覺)도 유명한 불교학자이다. 처음에는 소승불교 가운데의 최대학과였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와 경량부(經量部)의 사상을 공부하여, 하루에 한 계송(偈頌)씩 600계를 지었다는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소승불교의 특징 있는 여러 사상(불교철학)을 잘 간주려 엮은 것으로서, 인도·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널리 읽혔다. 뒤에 형 무착의 권유로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미륵(彌勒)·무착을 이어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과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결집하여 유식학(唯識學)을 완성시켰다. 무착과 세친의 대승불교는 유가행파(瑜伽行派)로 불리어, 용수(龍樹) 등의 중관파(中觀派)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주류를 이루었다. 저서로 『대승성업론(大乘成業論)』 『불성론(佛性論)』 『변중변론(辨中邊論)』 등이 있다.
- 100) 난다(難陀) : ㉔ Nanda, 유식 10대논사(十大論師) 가운데 한 사람. 안혜(安慧)·정월(淨月)과 동시대인이다. 안혜와는 달리 정월과 함께 견분(見分)·상분(相分)의 이분설을 주장하여 이분가(二分家)로 불렸다. 후에 신훈종자(新薰種子)의 1설로 종자본유설(種子本有說)을 부정하고 종자는 모두 현행의 훈습(薰習)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과 미륵(彌勒)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에 주석하였다.
- 101) 화변(火辨) : ㉔ Citrabhāṇa, 유식 10대논사(十大論師) 가운데 한 사람. 세친과 동시대인으로, 4세기 말기에 활동했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있으면서 불도에 대해 승려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주석하였다.

끊고 공을 증득하여 유식(唯識)의 상(相)을 깨닫는 것이다. 셋째는 호법(護法) 등이 모든 잘못된 집착을 깨트리고 유식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다. 처음에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지(地)<sup>102)</sup> 앞에서 이해를 내고, 지(地) 위에서 장애를 끊으며, 불과(佛果)를 얻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이다.

‘지금’이란 바로 세친이 『유식삼십송』을 지을 때를 나타낸다. ‘두 가지 공’이란 생공(生空)<sup>103)</sup>과 법공(法空)<sup>104)</sup>이니, 다음과 같은 여러 집착이 모두 미혹되고 그릇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법과 아가 없는 데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그릇됨(謬)이라 하고, 무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미혹됨(迷)이라 한다.

述曰，上以頌，標造釋之意。今明世親造論之意，文有三節。一安慧等，爲令生解斷障得果。二測云難陀，基云火辨等，斷障證空，悟唯識相。三護法等，破諸邪執，顯唯識理。初亦有三，地前生解，地上斷障，得佛果故，此初也。言今者，正顯世親造頌時也。言二空者，生空法空，如下諸執，皆言迷謬。生法我無執有名謬，不悟無我名爲迷故。

## [론]

바른 이해를 내는 것은 두 가지 무거운 장애를 끊기 위함이다. 아집(我執)<sup>105)</sup>과 법집(法執)<sup>106)</sup>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장애가 함께 일어난다. 만약

102) 지(地): 보살의 10가지 수행단계인 10지(十地)를 말함. 주57) 참조.

103) 생공(生空): ㉠ātma-sūnyatā, 중생공(衆生空)의 약칭으로, 아공(我空), 인공(人空)이라고도 함. 중생은 오온(五蘊)이 임시로 화합한 것이므로 자아와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함. 인무아(人無我)와 같음.

104) 법공(法空): ㉠dharma-sūnyatā, 법무아(法無我)와 같음. 일체(一切)의 존재는 모두 인연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다는 뜻.

105) 아집(我執): ㉠ātma-grāha, 인집(人執)·생집(生執)이라고도 함. 모든 중생의 체

두 가지 공을 증득하면 그 장애도 따라서 끊어진다.

生解爲斷二重障故。由我法執，二障具生。若證二空，彼障隨斷。

### [학기]

설명한다. 둘째는 장애를 끊는 것이다. 무거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말이다. 두 가지 장애는 각각 가볍고 무거운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판이 잠복되어 있는 말이다. 오직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 바로 두 가지 공을 장애한다. 어떻게 두 가지 공을 증득하여 남은 장애를 모두 끊을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이 설을 쓴 것이다.

아집과 법집의 두 집착이 근본이 되어 탐하는 등의 마음이 모두 생겨난다. 따라서 공을 증득하면 남은 장애는 모두 끊어진다.(원측의 말이다) 법집이 비록 두루하지만 지금 상(相)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번뇌장(煩惱障)<sup>107)</sup>의 설이다.(규기의 『성유식론장중추요』의 말이다) 안혜종(安慧宗)에서는 전5식(前五識)<sup>108)</sup>과 제8식(第八識)<sup>109)</sup>에 여러 생집(生執)<sup>110)</sup>이 있다고 말하지 않

는 원래 오온이 임시로 화합한 것인데 고정된 실체의 아(我, ātman)가 있다고 집착하여 분별하는 것.

106) 법집(法執) : 법아집(法我執) · 법아견(法我見). 모든 존재(법)에 그 자체의 본질로서 고정되어 불변의 실체가 있다(法我)고 생각하는 것. 아집(我執)과 함께 미혹의 견해로 여겨짐.

107) 번뇌장(煩惱障) : ᳚kleśāvaraṇa. 해탈을 얻는 데 장애가 되는 번뇌라고 하는 장애. 소지장이 인식적 방해라면, 이것은 도덕적 방해. 유식학에서는 아견(我見)에 의한 모든 근본번뇌와 수번뇌를 이것에 포함시킨다. 혹장(惑障).

108) 전5식(前五識) : ᳚pañca vijñānāni, 눈·귀·코·혀·몸의 5개의 감각기관에 의해 생겨나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이라는 5개의 대상에 상응하는 감각작용으로 즉 안식(眼識, ᳚cakṣur-vijñāna) · 이식(耳識, ᳚śrotra-vijñāna) · 비식(鼻識, ᳚ghrāṇa-vijñāna) · 설식(舌識, ᳚jihvā-vijñāna) · 신식(身識, ᳚kāya-vijñāna) 임. 6식(六識) 가운데 앞의 5식이기 때문에 항상 전5식(前五識)이라고 부름.

109) 제8식(第八識) : ᳚ālaya-vijñāna. 아뢰야식(阿賴耶識) · 아라야식(阿羅耶識) · 아려

고, 제7식(第七識)<sup>111)</sup>만이 생집이 있다고 말한다. 제6식(第六識)<sup>112)</sup>과 제7식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무겁다고 하는데 계탁(計度)<sup>113)</sup>하여 집착한 것이 깊기 때문이고, 전5식은 그중 가볍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와서 생집이 없기 때문이다. 소지장(所知障)<sup>114)</sup>은 제6식에서 일어나는

야식(阿黎耶識)·아리아식(阿梨耶識) 등으로 음역됨. 구역에서는 무물식(無沒識)으로, 신역에서는 장식(藏識)으로 번역됨. 식에서 8번째에 있기 때문에 제8식(第八識), 모든 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식(本識), 모든 식 작용의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식주(識主), 우주 만유의 근본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존재하지만 잃지 않기 때문에 장식(藏識), 성장하는 만유의 종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식(種子識)이라고 함. 유식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식의 작용.

- 110) 생집(生執): 아집(我執). 모든 중생의 체는 원래 오온이 임시로 화합한 것인데 고정된 실체의 아(我: ātman)가 있다고 집착하여 분별하는 것.
- 111) 제7식(第七識): ㉔mano-vijñāna, 말나식(末那識)으로 음역되고, 의(意), 사랑(思量)으로 번역됨. 유식설의 식(識) 가운데 7번째의 식이라서 제7식(第七識)이라고 함. 사랑(思量)을 본질로 하지만 제6 의식(意識)과는 구별됨. 의식적으로는 사로잡히지 않는 의식적 결정에 모순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영역의 마음을 말함. 의식을 초월한 영역인 아리아식과의 관계에서 미혹의 근원이기 때문에 염오의(染汚意)라고 일컫고,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의 네 가지 번뇌와 관련됨. 아집(我執)의 근본으로 집착·미혹·망상 등 모든 악업(惡業)을 짓는데 반대로 번뇌의 악업을 끊고 인(人)·법(法)의 두 공(空)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염오식(染淨識)이라고 하고 사랑식(思量識)·사랑능변식(思量能變識)이라고도 함.
- 112) 제6식(第六識): ㉕mano-vijñāna, 유식설의 식(識) 가운데 제 6번째인 의식(意識)을 말함. 제육의식(第六意識)으로 부름. 전오식이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감각·지각인 것에 대해, 지각 이후의 분별판단 내지 의식을 총칭함. 단 제7·제8에 들어가는 무의식의식과는 구별됨.
- 113) 계탁(計度): 의식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
- 114) 소지장(所知障): ㉖ñeyāvaraṇa, 알려져야 할 모든 대상에 대한 지적인 장애. 바른 지혜를 낳게 하지 않고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 그릇된 지식과 가르침과 사유에 의해 일어나는 분별기(分別起)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구생기(俱生起)로 구분된다. 지장(知障).

것을 무겁다고 하는데 이해가 심오하고 넓기 때문이고, 전5식과 제8식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볍다고 하는데 계탁한 집착이 얇기 때문이다. 이는 곧 무겁고 가벼운 장애가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공을 증득하여 무거운 장애를 끊으면 나머지 가벼운 장애도 따라서 없어진다.(여러 학자들의 많은 해석이 모두 이 뜻으로 귀결된다.)

어떤 이는 현행(現行)<sup>115)</sup>은 가볍고 종자(種子)<sup>116)</sup>와 습기(習氣)<sup>117)</sup>는 무겁다고 설한다.<sup>118)</sup> 무거움을 따라 생기고 끊어짐은 앞에 의거해 알 수 있는데, 앞의 말이 옳다. 집착과 장애는 모두 현행과 종자가 있는데, 어떻게 종자와 습기는 무겁고 현행은 가볍다고 하는가? 때문에 앞의 말이 훌륭하다.

또 이르기를, “비관이 있는데 이승(二乘)<sup>119)</sup>의 9품(九品)<sup>120)</sup>은 앞의 8품

115) 현행(現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 감각이나 지각의 대상으로서 실제로 나타남. 아뢰야식에 일체의 현상을 낳는 능력이 있음을 종자(種子)라고 일컫는데, 이 종자로부터 물질이나 정신의 온갖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뢰야식 속의 종자로부터 현상 세계의 사물이 출현하는 것.

116) 종자(種子): 아뢰야식에 일체의 현상을 낳는 능력이 있음을 식물의 씨앗에 비유한 것.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세력을 남겨 다시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원인. 아뢰야식이 발휘하는 힘으로서 생과(生果)의 공능(功能), 즉 결과를 낳는 능력.

117) 습기(習氣): 행위가 마음에 남긴 잠재적 여력(餘力). 무슨 행위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층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

118) 『성유식론장중추요』에서 이런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成唯識論掌中樞要』 권상 大43 p.616a3~5. 若說現行名輕, 種習名重. 由無種習, 現行俱斷. 障通攝三, 重唯種習. 由我法執由有種習, 二障具生.)라고 하였다.

119) 이승(二乘): ①대승(大乘)과 소승(小乘), ②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③일승(一乘)과 삼승(三乘) 등 두 종류의 승(乘). 여기서는 두 번째 성문승과 연각승을 말함.

120) 9품(九品): ①정토교에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9등급의 계위(階位). ②9계위(九界位). 10계(十界) 가운데 불계(佛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즉 지옥계에서

(八品)<sup>121)</sup>이 장애가 되어서 아견(我見)<sup>122)</sup>을 아직 끊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집착을 따라 남은 장애가 생겨나고 끊어진다고 말하는가?” 또 다른 비판은 “안혜가 제7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범집이라고 하였는데, 5지(五地)<sup>123)</sup>는 어찌 해반(害伴)<sup>124)</sup>을 없앤다고 하고, 6지(六地)<sup>125)</sup>·7지(七地)<sup>126)</sup> 등은 이열(羸劣)<sup>127)</sup>이라고 말하는가?”<sup>128)</sup>

보살계에 이르기까지의 9개를 말함. ③9지(九地). 중생이 거처하는 곳을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삼계(三界)로 나누는데, 욕계는 1지(一地)로 하고, 색계와 무색계에 각각 4지(四地)가 있으므로 9개가 됨. 여기서의 9품은 세 번째 9지(九地)를 말함.

- 121) 8지(八地): 중생이 거처하는 9지(九地) 가운데 여덟 번째인 무색계(無色界)의 제 3천(第三天)에 해당하는 무소유처지(無所有處地). 여섯 번째인 공무변처지(空無邊處地)와 일곱 번째인 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의 동성(動性)을 없애고 “아무 것도 없다.”는 적정상(寂靜想)에 침잠하는 경지.
- 122) 아견(我見): ātma-dṛṣṭi. 실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 인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가 있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여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는 인아견(人我見)과 법아견(法我見)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함.
- 123) 5지(五地): 중생이 거처하는 9지(九地) 가운데 다섯 번째인 색계(色界) 제4선천(第四禪天)에 해당하는 사념청정지(捨念清淨地). 이는 세 번째인 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의 희(喜)와 네 번째인 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의 락(樂)을 버리고 마음이 안정평등하고 자각적인 청정을 얻는 경지.
- 124) 해반(害伴): 유식가에서 말하는 세가지 번뇌인 해반(害伴)·이열(羸劣)·미세(微細) 중의 하나. 해반은 전5지에서 현행번뇌는 함께 생겨나지 않고 함께 생겨나는 번뇌는 현행을 도와 영원히 다시 있지 않는다. 이열은 6지와 7지에서 미세하게 현행하여 수행하면 조복되어 현행하지 않는다. 미세는 8지 이상에서 일체의 번뇌가 다시 현행하지 않아 오직 소지장에 의하여 있게 된다.
- 125) 6지(六地): 중생이 거처하는 9지(九地) 가운데 여섯 번째인 무색계(無色界)의 제 1천(第一天)에 해당하는 공무변처지(空無邊處地). 색계의 물질성을 여의고 허공의 무변자재성(無邊自在性)을 증득한 경지.
- 126) 7지(七地): 중생이 거처하는 9지(九地) 가운데 일곱 번째인 무색계(無色界)의 제 2천(第二天)에 해당하는 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 식의 무한활달성(無限闢達性)

풀이한다. 처음에 다만 장애는 집착 때문에 생겨서 집착이 끊어지면 장애도 없어진다고 말한 것이지, 지말적인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모두 근본 집착이 끊어지는 것을 따른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나중의 비판을 풀이하여 말한다. 비록 모두 법집이어도 본말이 있기 때문에, 4지(四地)의 집착이 함께 (끊어지고), 가까운 데서 끌어오면 해반이라 하고, 먼 것은 이열이라고 하는데 잘못이다.<sup>129)</sup> 해반을 가볍다고 하는 등은 오직 번뇌를 밝히는 것이니 지(智)의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삼전의(三轉依)에 짝이 되는 것은 번거롭고 중요하지 않다.<sup>130)</sup>

을 얻은 경지.

- 127) 이열(羸劣) : 유식에서 말하는 해반(害伴) · 이열(羸劣) · 미세(微細)의 세 가지 번뇌 중의 두 번째. 6지와 7지에서 미세하게 현행하여 수행하면 조복되어 현행하지 않음을 말한다.
- 128) 『성유식론장중주요』에서 세 개의 비판을 말한 것을 여기서는 두 개로 말하고 이에 대해 해석을 붙였다. (권상 大43 p.616b15~26. 是凡夫位伏斷修行, 斷重障下, 是聖人眞斷得, 眞斷得中分見修別. 修中由我法執等有三難生. 一難 安惠論師煩惱障中有非執者, 二乘斷修惑九品斷前八品猶未斷我見, 云何已斷餘障, 明知餘障不從我執等生. 二難, 安惠論師除第七識說有二取皆是所執, 證二空位, 若由執滅障隨斷者, 一切皆執, 五地云何方除害伴, 應輕執隨生我執四地斷故. 三若一切障皆從執生, 何故六七地等所斷之障 不名害伴名羸劣等, 皆是執起故. 答有三解, 一云此依究竟盡處爲論, 不說中間. 二云但言障由執生執斷障滅, 不言末障滅皆隨本執斷, 二乘九品其義可知. 三雖有漏心皆有法執, 菩薩執生有三時斷, 未執隨本, 第六識執有三位斷.)
- 129) 이 구절은 제6식의 집착을 끊는 세 가지를 말한 것이다. (『成唯識論掌中樞要』 권상 大43 p.616b22~c2. 若由執滅障隨斷者, 一切皆執, 五地云何方除害伴, 應輕執隨生我執四地斷故. 若一切障皆從執生, 何故六七地等所斷之障, 不名害伴名羸劣等, 皆是執起故. 答有三解, 一云此依究竟盡處爲論, 不說中間. 二云但言障由執生執斷障滅, 不言末障滅皆隨本執斷, 二乘九品其義可知. 三雖有漏心皆有法執, 菩薩執生有三時斷, 未執隨本, 第六識執有三位斷. ; p.616c1~4. 第六識執有三位斷, 一俱時, 二隣近引生, 三勢力疎遠. 俱起者四地執俱斷, 隣近引生者名害伴, 疎遠勢生者名羸劣等, 故障與執斷有前後.)
- 130) 삼전의(三轉依)에 대해서는 『성유식론장중주요』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成唯識論掌中樞要』 권상 大43 p.616a10~12. 因位



述曰, 第二斷障. 言重障者, 呵責之言. 二障各有輕重品故, 有伏難言. 唯我法執, 正障二空. 何證二空, 通斷餘障? 故作是說. 二執爲本, 貪等具生. 故隨證空, 餘障通斷.〈測云〉法執雖遍, 今約相別, 煩惱障說.〈樞要云〉安慧宗不說五八有衆生執, 及說第七唯有生執. 若第六七煩惱名重, 計執深故, 五識中輕, 由他引故, 無生執故. 若所知障, 第六名重, 解深廣故, 五八名輕, 計執淺故. 是則由重輕障具生, 證空斷重, 餘輕隨滅.〈諸家繁釋, 皆歸此義.〉或說現行名輕, 種習名重. 隨重生斷, 准前應知, 前說爲<sup>131)</sup>善. 執障俱有現種, 如何種習名重, 現行名輕? 故前爲勝. 又云, “有難, 二乘九品, 前八唯障, 未斷我見, 云何隨執餘障生斷?” 又難, “安慧除第七識, 餘皆法執, 五地云何方除害伴, 六七地等名羸劣等?” 解云, 初者, 但言障由執生, 執斷障滅, 不言末障滅, 皆隨本執斷. 解後難言, 雖皆法執, 有本末故, 四地執俱 近引名害伴, 疎遠名羸劣, 非也. 經害伴等, 唯明煩惱, 非智障故. 配三轉依等, 繁而不要.

## [론]

장애를 끊는 것은 두 가지 뛰어난 증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삶을 잇는 번뇌장(煩惱障)을 끊기 때문에 진정한 해탈을 증득한다. 바른 이해에 장애되는 소지장(所知障)을 끊음으로써 대보리를 얻는다.

斷障爲得二勝果故. 由斷續生煩惱障, 故證眞解脫. 由斷礙解所知障, 故得大菩提.

有三轉依, 謂心道僂重. 二空是心, 法性心故. 正解是道, 斷二重障, 名僂重轉.)

131) 원문은 前說爲爲善으로 爲가 중복해 들어가 있어 문맥에 의해 삭제함.

[학기]

설명한다. 셋째는 증과를 얻는 것이다. 해석하여 마땅히 알아야 함을 나타낸다. ‘뛰어난 증과’라고 하는 것은〈원축이 말한다〉 네 개의 구절이 있다. 첫째 뛰어나지만 증과가 아닌 것이니, 보살의 지혜로 끊는 것이다. 둘째 증과이지만 뛰어나지 않은 것이니, 아라한의 지혜로 끊는 것이다. 셋째 뛰어나고 증과도 있는 것이니, 부처의 이과(二果)이다. 넷째 뛰어나지도 증과도 아닌 것이니, 이생(異生)<sup>132)</sup>과 유학(有學)<sup>133)</sup>이다. 나머지 세 구를 가려냈기 때문에 뛰어난 증과라고 말한다.

저 부처의 이과(二果)가 모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해심밀경(解深密經)』에서는 “삼승의 해탈이 같다.”고 하였고,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sup>134)</sup>에서는 “금강(金剛)<sup>135)</sup>을 등각(等覺)<sup>136)</sup>이라 하고

132) 이생(異生) : ṣpṛthag-jana, 가지가지의 견해와 번뇌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과(果)를 받고 여러 세계에 나는 중생이란 뜻. 또는 성자와 다른 생류(生類)의 뜻. 범부의 다른 이름.

133) 유학(有學) : ṣsaikṣa, 학인(學人)이라고도 한다. 일체의 번뇌를 끊고 무루의 계·정·혜와 택멸의 이치를 수학하는 이. 곧 불제자를 가리킨다. 소승의 4향4과(四向四果) 중에서 앞의 4향3과를 유학이라 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자는 수학할 법이 없다 하여 무학(無學)이라 한다.

134)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2권. 축불념(竺佛念)이 요진(姚秦)의 376~378년에 한역. 『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영락보살경(瓔珞本業經)』·『영락경(瓔珞經)』·『본업경(本業經)』등으로 불림. 보살의 계위(階位)와 삼취정계(三聚淨戒) 등의 인행(因行)을 설함. 화엄의 교상과 서로 합쳐지는 곳이 많으며 특히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십지(十地)·무구지(無垢地)·묘각(妙覺) 등 52위(位)를 보살의 행위(行位)로 하여 유명함.

135) 금강(金剛) : ṣvajra, 쇠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뜻. 금강은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지만, 이 금강은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경론(經論) 가운데서는 금강견고(金剛堅固)·금강불괴(金剛不壞) 등으로 부르고 견고의 비유로 씀. 그래서 금강심(金剛心)·금강신(金剛身)·금강견고의 신심(信心) 등의 이름으로 쓰임.

택멸(擇滅)의 체와 같다고 해석한다.”고 하였다. 뛰어난을 증득함으로써 머무르지 않는 도가 머무름 없는 뛰어난을 드러낸 것과 같다. 이승(二乘)의 유여열반(有餘涅槃)<sup>137)</sup>은 현재의 고통을 여의지 않았으나, 무여열반(無餘涅槃)<sup>138)</sup>은 영원히 버려서 능히 지를 증득했기 때문이다. 대승론으로 들어가면 여래의 해탈은 이승보다 뛰어나니, 습기를 끊었기 때문이다.

등각(等覺)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 뜻이 같은 것이다. 등각 가운데에는 진지등불(眞智等佛)이 있는데 (이런 이름이 생긴 이유는) 속제의 지혜가 낮기 때문이다. 삼장은 “무간도(無間道)<sup>139)</sup>와 해탈도(解脫道)<sup>140)</sup>는 똑같이 하나의 장애를 끊는다. 그러므로 등(等)이라고 하는 것이니 해탈과 같은

136) 등각(等覺) : ①부처님의 깨달음. 평등일여(平等一如)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등정각(等正覺)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열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도 됨. ②보살이 수행하는 52위 가운데 하나로 삼기백겁(三祇百劫, 삼아승기 백대겁)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수행을 완성하고, 지금부터 묘각(妙覺)의 불과(佛果)를 얻으려는 지위.

137) 유여열반(有餘涅槃) : 사열반(四涅槃) 가운데 하나로 번뇌장을 끊어 없애고 현현되는 진여의 상태. 주53) 참조.

138) 무여열반(無餘涅槃) : 사열반(四涅槃) 가운데 하나로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현현되는 진리의 상태. 주53) 참조.

139) 무간도(無間道) : ㉔ānantarya-mārga,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네 가지 과정인 가행도(加行道)·무간도·해탈도(解脫道)·승진도(勝進道) 중의 하나. 번뇌를 끊는 것을 시작하여 번뇌에 장애되지 않는 수행으로 간격을 두지 않고 해탈도에 진입할 수 있음을 말한다. 무애도(無礙道)라고도 한다. 번뇌는 모두 이 무간도에서 끊게 된다. 무간도는 번뇌의 종자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해탈도는 진리를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간도의 번뇌를 끊음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지만 해탈도에 이르면 이를 버리고 적멸의 이치를 증득하게 된다.

140) 해탈도(解脫道) : ㉕vimukti-mārga, 가행도·무간도·해탈도·승진도의 사도의 하나. 무간도에서 번뇌를 끊은 후에 일념의 바른 지혜를 내서, 이 바른 지혜로 진리를 깨달아 증득하는 지위이다. 이 바른 지혜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해탈도라 한다.

뜻은 아니다.”<sup>141)</sup>라고 하였다.

『열반경(涅槃經)』 제25권의 끝에서 이르기를, “부처란 불성을 밝게 본 것을 이름하고, 십주보살(十住菩薩)은 불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sup>142)</sup>고 하였다. 『유가사지론』 제50권에서는 “등각과 묘각(妙覺)<sup>143)</sup>은 우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끊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작용인데 무엇을 등각이라고 하는가? 여실하다의 의미는 본모(本母)<sup>144)</sup>의 해석과 같다.>

진정한 해탈(眞解脫)을 보자. 해탈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것이 아닌 것이 있다. 피분열반(彼分涅槃)<sup>145)</sup>은 (번뇌를) 굴복시켜 얻은 것이기 때문이

---

141) 혜소(惠沼)의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에서도 이런 취지를 볼 수 있다. (『成唯識論了義燈』 권1 大43 p.673b5~7. 西明云, 三藏解, 等覺者, 無間解脫同斷一障, 故言等覺, 非謂解齊, 名之爲等, 今又助解.)

142) 『대반열반경』 권25 大12 p.527b20~b27. 諸佛世尊斷因果故見則了了, 一切覺者名爲佛性, 十住菩薩不得名爲一切覺故, 是故雖見而不了了. 善男, 子 見有二種, 一者眼見, 二者聞見. 諸佛世尊眼見佛性 如於掌中觀阿摩勒, 十住菩薩聞見佛性故不了了, 十住菩薩唯能自知定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而不能知一切衆生悉有佛性.

143) 묘각(妙覺): ①부처님의 불가사의 절묘한 무상(無上)의 깨달음. 깨달음 그 자체. ②보살의 52위(位)·42지(地) 가운데 보살수행 최후의 위(位)로 번뇌를 단절하여 지혜가 원만하게 갖추어진 위를 말함. 등각 위의 위. 여기서는 ②를 말함.

144) 본모(本母): 마달리가(摩呬理迦, 𑖀mātrkā). 경론 중에서 제법의 성상을 반복하여 살펴보아 부처의 진정한 교의를 천명하는 것을 말함. 경전의 형식인 12부경에서 우바제사와 함께 삼장 중에서 아비달마장을 총칭하여 쓰인다.

145) 피분열반(彼分涅槃): 진정한 열반을 차분(此分)열반이라고 하는데 비해 번뇌의 일부는 끊었으나 그 종자는 아직 끊지 못한 가(假)열반을 피분열반이라 한다. 『유가사지론』에서는 “혹은 다시 이름하여 피분열반이라 하고, 또 설하여 차별열반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의 한 부분을 끊었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분열반이라고 한다. 구경의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열반이라고 한다.”(권11, 大30 p.331a16~19. 是故爲說應入彼定非爲樂住, 或復名爲彼分涅槃, 亦得說名差別涅槃. 由諸煩惱一分斷故, 非決定故, 名彼分涅槃. 非究竟涅槃故, 名差別涅槃.)라고 하였다. 규기는 진열반이 차분열반임에 비해 가열반이 피분열반이라 하고, 현행 번뇌의 일부를 끊었으나 종자는 아직 끊지 못하여 후에 다시 생을 받으므로

다. 진정하기는 하지만 해탈이 아닌 것이 있다. 이공(二空)의 진여(眞如)<sup>146)</sup>는 도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하면서도 해탈인 것이 있다. 삼승의 열반은 영원히 속박을 떠나기 때문이다. 둘 다 아닌 것이 있다. 앞의 세 가지 모습을 제외한 것이니, 나머지 세 구에서 말한 진정한 해탈과는 구별된다. 큰 깨달음[大菩提]을 보자. 크지만 보리가 아닌 것이 있다. 평범한 성인의 보살지혜이다. 보리이지만 크지 않은 것이 있다. 아라한 성위의 지혜이다. 크기도 하고 보리인 것이 있다. 여래의 지혜이다. 두 가지가 모두 아닌 것이 있다.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승의 지혜이다. 실제로 두 개의 장애에 의거하면 두루 지단(智斷)<sup>147)</sup>을 장애하지만 지금 수승함을 취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단(智斷)을 장애한다.<sup>148)</sup>

述曰 第三得果. 標釋應知. 言勝果者(測云) 四句. 一勝而非果, 菩薩智斷. 二果而非勝, 羅漢智斷. 三亦勝亦果, 卽佛二果. 四非勝非果, 異生有學. 簡餘三句, 故言勝果. 若佛二果, 皆名勝者何故? 解深密云, “三乘解脫同”. 本業經云, “金剛名等覺, 解擇滅體同.” 以能證勝, 如不住道顯無住勝. 二乘有餘, 未離現苦, 無餘永失, 能證智故. 如入大乘論, 如來解脫勝於二乘,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분열반이라 한다 하였다.(『瑜伽師地論略纂』 권5 大43 p.69b11~12. 眞涅槃名此分涅槃, 假涅槃名彼分. ; p.69b4~6. 現行煩惱一分斷故, 種子未斷, 後還退生, 非決定故, 名彼分涅槃. ; b8~9. 又一分斷故, 淨定及一分無漏, 折伏煩惱, 名彼分涅槃.)

146) 이공진여(二空眞如) : 인무아(人無我)의 진리를 인공진여(人空眞如), 법무아(法無我)의 진리를 법공진여(法空眞如)라고 하며 이 둘을 합하여 이공진여라고 함. 이승(二乘)은 인공진여만을 깨닫지만 보살은 이공진여를 깨닫는다고 함.

147) 지단(智斷) : 지덕(智德)과 단덕(斷德)을 가리킴. 진리를 비추어 보는 것을 지덕, 번뇌를 끊어 버리는 것을 단덕이라고 함. 곧 보리와 열반을 가리킴.

148) 『유마경소』 권6, 大85 p405a13~16. 問, 所知障亦障涅槃, 云何但說障菩提也. 答, 依唯識論, 理實二障通障, 卽就勝而言, 煩惱障涅槃 所知障菩提也.

斷習氣故. 言等覺者, 一邊義等, 於中有言. 眞智等佛, 俗智劣故. 三藏云, “無間解脫, 同斷一障, 故說等言, 非謂解齊.” 涅槃經第二十五末云, “佛名明見佛性, 十住菩薩未見佛性, 故不了了.” 瑜伽五十 “等覺妙覺有優劣故.” 〈斷是傍用, 何名等覺? 如實之義, 如本母釋〉

眞解脫者. 有解脫而非眞, 彼分涅槃伏所得故. 有眞而非解脫, 二空眞如, 非道果故. 有眞亦解脫, 三乘涅槃 永離縛故. 有二俱非, 除三上相. 簡餘三句, 言眞解脫. 大菩提者. 有大非菩提, 凡聖菩薩智. 有菩提非大, 羅漢聖智. 有大亦菩提, 如來智慧. 有二俱非, 謂凡學聖二乘之智. 據實二障, 通障智斷, 今就勝故, 別障智斷.

#### [론]

또 그릇되게 아(我)와 법(法)에 집착하여 유식에 미혹된 자에게 열어 보여서, 두 가지 공(空)에 통달하여 유식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하고자 함이다.

又爲開示謬執我法, 迷唯識者, 令達二空, 於唯識理, 知實知故.

#### [학기]

설명한다. 즉 두 번째 단락이다. 집착을 끊고 공을 증득하여 유식의 상을 깨닫는 것을 앞에서는 세 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두 가지 뜻으로 설명하였는데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두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규기가 말했다.〉 최초의 업(業)을 열어 주고, 오래된 업(業)을 보여준 것이다. 또 외도(外道) 가운데 특별히 자아에 계탁(計度)한다는 것은 수론(數論) 등이 모두 오온(五蘊)<sup>149)</sup>을 떠나서 계탁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법에 계탁

한다는 것은 25제(二十五諦)<sup>150)</sup>, 6구의(六句義)<sup>151)</sup> 등을 말한다.<즉 오온을 계  
탁한다는 것 등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 불도<sup>152)</sup> 가운데 특별히 자아에 계탁  
한다는 것은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sup>153)</sup>에 의하면 “독자부(犢子部)<sup>154)</sup>와

149) 오온(五蘊): ⑤pañca-skandha, 오온(五陰)·오중(五衆)·오취(五聚)라고 함. 온  
(蘊)은 모인다는 뜻.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 유위법(有爲法)을  
모아 다섯가지 종류로 구별한 색온(色蘊, ⑤rūpa-skandha), 수온(受蘊, ⑤vedanā-  
skandha), 상온(想蘊, ⑤saṃjñā-skandha), 행온(行蘊, ⑤saṃskāra-skandha), 식온(識  
蘊, ⑤vijñāna-skandha)의 총칭.

150) 25제(二十五諦): 인도 수론파(數論派)의 철학. 우주만유(宇宙萬有)를 신아(神我,  
⑤puruṣa)라는 정신적 원리와 자성(自性, ⑤prakṛti)이라는 물질적 원리의 이원  
(二元)으로 나누며, 세계 전개를 25수로 요약한 것. 이것이 진실한 진리라고 하  
여 제(諦)라고 함. 자성(自性)으로부터 각(覺, 대(大)라고도 하며 신체 안에 있는  
지각기관, 곧 결지(決智)을 내고 각으로부터 자의식[我執]인 아만(我慢)을 냄.  
다시 이 아만으로부터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의 오대(五大)를 내  
는데, 이상의 8요소는 다른 것을 출생하므로 근본자성(根本自性)이라고 함. 오  
대로부터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의 오유(五唯)와 안(眼)·이  
(耳)·비(鼻)·설(舌)·신(身)의 오지근(五知根)과 말[語]·수(手)·족(足)·생식기  
(生殖器)·배설기(排泄器)의 오작근(五作根)과 의식에 해당하는 의근(意根)이 나  
타나고, 각·아만이 더해져 23종이 되며 자성과 신아가 더해져서 25제가 됨.

151) 6구의(六句義): 인도 6파철학의 하나인 승론학파(勝論學派)에서 세운 교의. 일  
체법을 여섯 가지 범주인 실(實)·덕(德)·업(業)·동(同)·이(異)·화합(和合)으  
로 구별한 것. 유물적 다원론으로서 실의 본체[實句義, ⑤dravya-padārtha], 덕의  
속성[德句義, ⑤guṇa-padārtha], 업의 작용[業句義, ⑤karma-padārtha], 동(同)의 공  
통성[同句義, ⑤sāmānya-padārtha], 이의 개체적 고유성[異句義, ⑤viśeṣa-  
padārtha], 화합의 화동성[和同性, 和合句義 ⑤samavāya-padārtha]을 말함. 10구  
의(十句義)에 속함.

152) 내도(內道)는 불교 이외의 것을 외도라 하는데 대해 불교 내부를 말함.

153)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 1권. ⑤Samayabhedoparacanacakra, 인도의 세우(世  
友, ⑤Vasumitra)가 찬하고 당의 현장이 번역. 소승불교(小乘佛教)의 20부파가 나  
타난 경과와 교의(教義)를 기록한 책.

154) 독자부(犢子部): ⑤Vāṁśī-putrīyāh. 소승 20부파의 하나. 발사불저리여부(跋私弗  
底梨與部)·바추부라부(婆耨富羅部)·가주자제자부(可住子弟子部)라 함. 만유를



근본경부(根本經部)<sup>155)</sup>, 정량부(正量部)<sup>156)</sup> 등은 모두 아가 있다고 집착한다.”고 한다. 특별히 법에 집착한다는 것은 살바다부(薩婆多部)<sup>157)</sup>, 화지부(化地部)<sup>158)</sup> 등이다.(악취공(惡趣空)<sup>159)</sup> 등은 이 가운데에 포함된다.) 이 불도와 외

유위(有爲)의 삼세(三世)와 무위(無爲)와 불가설(不可說)의 오장(五藏)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중생에게는 실아(實我)가 있다고 주장. 이것은 불교의 진무아(眞無我)의 이치에 어긋나므로, 이 학파를 불법 가운데 외도(外道)라고 규정함.

155) 근본경부(根本經部) : 경량부(經量部) · 경부(經部). ⑤Sautrāntika. 소승 20부파의 하나.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나온 부파로 근본부(根本部)와 지말부(枝末部)가 있음. 각각 1세기 경의 구마라타(鳩摩羅駄, ⑤Kumārabdha)와 4세기 경의 실리라다(室利羅多, ⑤śrīlāta)가 시조. 근본부는 정신과 물질이 도와서 생사가 상속유전하는데 색(色) · 심(心)이 서로 종자를 훈습(薰習)하여 색 · 심이 없어질 때는 그 종자를 각각 서로 보존했다가 물질과 정신이 서로 도와 다음 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대해, 지말부에서는 전회전생(轉廻轉生)의 주체인 영점불명의 세의식(細意識)을 근본으로 하여 이것에 의하여 여타의 오온(五蘊)의 법을 일으킨다고 함.

156) 정량부(正量部) : ⑤Sammatīya 또는 Sammitīya. 소승 20부파의 하나. 정량제자부(正量弟子部) · 삼미저부(三彌底部) · 일체소귀부(一切所貴部)라고도 함. 불멸 후 300년에 독자부로부터 법상부(法上部) · 현주부(賢冑部) · 밀림산부(密林山部)와 동시에 나온 학파. 시비를 판정하는 것을 량(量)이라고 하고 이 량에 그릇됨이 없다는 뜻으로 정량이라고 함. 독자부와 비슷하나, 생멸론에서 사상(四相)의 생멸인 주인(主因)과 여러 가지의 인연인 객인(客因)을 세우고, 생활 때는 반드시 그 인(因)을 필요로 하나, 멸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함.

157) 살바다부(薩婆多部) : ⑤Sarvāsti-vādin. 근본설일체유부(根本說一切有部). 살바다부(薩婆多部), 설인부(說因部), 유부종(有部宗), 설일체유종(說一切有宗). 유부(有部)라고도 함. 불멸 후 300년경에 근본상좌부(根本上座部)에서 분파된 학파로 소승 20부파의 하나. 개조는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 모든 법을 5위(位) 75법(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세계의 일체법을 실유(實有)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부(有部)라고 칭한다. 아공법유(我空法有),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 등이 주요 주장임.

158) 화지부(化地部) : ⑤Mahīśāsaka. 소승 20부파의 하나. 정지부(正地部) · 교지부(敎地部) · 대불가기부(大不可棄部)라고 함. 불멸 후 300년경에 설일체유부에서 분파된 학파. 이 파의 조사인 불가기(不可棄)는 본래 국왕이었는데 왕위를 버리



도는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의 본성에 미혹되었으니 외도들에게 열어 주었고, 불도를 위해 보여주어 진지(眞智)로 진정한 유식성(唯識性)을 통달하게 하였으니, 유식상(唯識相)에서는 뒤의 지(智)로 알기 때문이다.

묻는다. 독자부의 아라한은 무엇 때문에 아견(我見)을 일으키는가?

원측스님이 말했다. “현장삼장께서 해석하시기를, ‘아라한은 아직 이 계탁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논쟁을 물리치기 전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저 (독자)부에서 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경부(經部) 등에서 설하고 있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본래 외도인 까닭이다. 혹은 저 부파의 제자(弟子)들이 계탁하는 것은 외도가 아닌 때의 일이라고 하니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sup>160)</sup>과 같다. 저 부파들이 구하기를 ‘우리 부파는 『파아경(破我經)』을 독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화상이 말하기를, ‘비록 아라한의 경지는 얻었지만, 예전에 아견(我見)과 함께 동체인 법집

---

고 출가하여 유부중에 들어가서 불법을 넓히다가 뒤에 화지부를 세움. 국토인지(地)를 교화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화지라고 이름함. 교리는 대중부(大衆部)와 거의 같으며, 현재유체과미무체설(現在有體過未無體說)을 세우고, 견도(見道)에서 공무아(空無我)와 행상(行相)으로써 사제(四諦)를 일시에 현관(現觀)함을 말하며, 또 중유(中有)를 부정하고, 오식(五識)에 잡염(雜染)의 힘이 있다고 하며, 9무위(九無爲)를 세워서 예류과퇴(預流果退)·나한과불퇴(羅漢果不退)를 말함.

159) 악취공(惡取空) : ㉔dur-grhītā śūnyatā, 벽취공(僻取空). 현상계의 만유(萬有)는 실유(實有)하는 실체가 없이 공(空)하다는 하는 법을 듣고는 공무(空無)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중도를 모르는 편공(偏空)을 말함.

160)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 ㉔Abhidharmakośa-śāstra. 30권. 450년 경에 인도의 세친(世親)이 저술. 563년 진제(眞諦)가 『아비달마구사석(阿毘達磨俱舍釋)』 22권으로, 651년에 현장(玄奘)이 『아비달마구사론』 30권으로 한역함. 『구사론(俱舍論)』으로 줄여서 부름. 세친은 설일체유부의 교학을 표준으로 하여 경량부와 대중부 등의 학설을 비판한 일면이 있지만, 대승경전과 대승논서가 유부교학(有部敎學)을 기초로 하여 유부를 깨트릴 수 있도록 함.

(法執)을 일으켜 그 습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述曰, 卽第二節. 斷執證空, 悟唯識相, 前以三意, 今以二意, 令得眞俗二智慧故, 〈基云〉爲初業開, 爲久業示, 且外道中別計我者, 謂數論等諸離蘊計, 別計法者, 二十五諦六句等也. 〈卽蘊計等應於此攝〉內道之中別計我者, 宗輪論云, “犢子部并根本經部正量部等, 皆執有我.” 別執法者, 如薩婆多化地部等. 〈惡取空等應此中攝〉此內外道, 迷眞俗性, 爲外道開, 爲內道示. 令眞智達眞唯識性, 於唯識相, 後智知故.

問, 犢子羅漢何起我見? 測云, “三藏解云, ‘未得羅漢起此計故, 却談前故.’” 說彼部計, 經部等亦爾, 本外道故. 或說彼部弟子所計, 非外道時, 如俱舍論. 彼部救云, ‘我部不誦破我經故.’ 和上云, ‘雖得羅漢, 昔與我見同體法執, 由習氣強, 起如是執.’”

### [론]

또한 유식의 이치에 미혹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혹은 외부 대상[外境]이 식처럼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집착한다.

復有迷謬唯識理者, 或執外境如識非無.

### [학>]

설명한다. 즉 셋째 단락이다. 모든 샅된 집착을 깨뜨려 있는 여실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 것은 네 가지 계탁을 일으키고, 나중 것은 다르게 집착하는 것을 매듭짓는 것이다. 네 가지 계탁이란 첫째 살바다부(薩婆多部) 등이 마음 밖에 있는 대상 경계가 마음

처럼 실유(實有)<sup>161)</sup>한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규기 스님이 해아려 말했다. “나는 마음을 떠나 있는 경계가 결정적으로 실유한다고 생각한다. 그밖의 다른 경계는 제외해서 없다고 인정한다. 마음과 대상의 두 가지 법은 하나를 따라서 포섭되기 때문이다. 마치 심법(心法)<sup>162)</sup>과 심소법(心所法)<sup>163)</sup>의 경우와 같다.”<sup>164)</sup>〈부정과(不定過)<sup>165)</sup>가 있다. 경

161) 실유(實有): 항상 불변하는 실체. 즉 그 자체로 실재하는 것. 진여법성(眞如法性)을 실유라고 하고, 실재하지 않고 인연화합(因緣和合)으로 생겨나는 것을 가유(假有)라고 함.

162) 심법(心法): ①citta. 존재하는 것을 포착하여 사유하는 작용을 갖는 것. ①심왕(心王) 및 심소법(心所法)의 총칭. 색(色: 물질)·신(身: 육체)에 대한 것으로 오온 가운데 수(受)·상(想)·행(行)·식(識)의 4온(四蘊)이 여기에 해당. ②심왕(心王). 오위(五位)의 하나로 오온 가운데 식온(識蘊)을 지칭함. 마음의 통일적 주체로 6식(六識) 또는 8식(八識)을 말함. ③유식종(唯識宗)에서 심(心)을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으로 봄. 여기서는 두 번째 심왕을 뜻함.

163) 심소법(心所法): ①caitta 또는 caitasika. 심수(心數)·심소유법(心所有法)·심수법(心數法)이라고 함. 5위의 하나. 심왕(心王)에 종속되어 심과 상응하고 동시에 존재하며 갖가지의 복잡한 정신작용을 일으킴. 심소는 심을 따라다니므로 심소에 대해 심을 심왕이라고 함. 심왕과 심소사이에는 5의평등(五義平等)의 의미가 있어 상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소를 상응법(相應法)·심상응법(心相應法)이라고 부름. 심왕이 대상의 전체를 취하는 총상(總相)이라면 심소는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취하는 별상(別相)이라고 함.

164)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36b25~c2. 述曰, 自下別敘邪執有二, 初別敘四計, 後例破除. 此第一計. 薩婆多等, 依說十二處密意言教, 諸部同執離心之境如識非無. 彼立量云, 其我所說離心之境, 決定實有, 許除畢竟無心. 境二法隨一攝故. 如心心所, 此皆依經說有色等, 不能繁引.

165) 부정과(不定過): 인명 33과(過) 중의 한 부류. 논증의 주장 명제인 종(宗), 이 입론자가 자기의 종을 상대방에게 승인시키는 논증의 근거인 인(因), 그 실례인 유(有)의 종·인·유 삼지작법(三支作法)이 인명의 논식이다. 이 입론이 오류가 없는 진정한 것일 경우 이를 진능립(眞能立)이라 하고, 잘못을 포함하여 바른 것 같으면서도 그릇된 것이 있으면 사능립(似能立)이라고 한다. 이 사능립에 논리적 과실이 33가지가 있어, 종9과(宗九過), 인14과(因十四過), 유10과(喻十過)가

계가 없다고 하는 것과 하나를 따라서 포섭되는 마음은 제외된다. 심과 심소 등은 결정적으로 실유하는 것인가? 병(瓶) 등과 같은 것처럼 실유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는) 부정과가 쓰이지 않는다.)

원측 스님이 해아려 말했다. “외부 대상은 없는 것이 아니다. 능취(能取)<sup>166)</sup>와 소취(所取)<sup>167)</sup> 가운데에서 하나를 따라 포섭되기 때문이다. 『성유식론』과 같은 경우는 식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비량(比量)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자비량(自比量)<sup>168)</sup>과 타비량(他比量)<sup>169)</sup>의 혼란이다. 법 밖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곧 자비량이고, 『성유식론』의 주장과 같은 비유는 타비량이다. 하나의 비량도 불가한

---

있다. 다시 인14과에 4불성과(四不成過), 6부정과(六不定過), 4상위과(四相違過)가 있다. 이중 6부정과는 인의 3원리 중 제2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제3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의 어느 하나를 결하고 있기 때문에 중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못하는 과실이다. 6부정과는 ①공부정과(共不定過) ②불공부정과(不共不定過) ③동품일분전이품변전부정과(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過) ④이품일분전동품변전부정과(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過) ⑤구품일분전부정과(俱品一分轉不定過, 俱分不定過) ⑥상위결정과(相違決定過, 相違不定過)이다.

166) 능취(能取) : ㉠grāhaka, 능동적으로 파악한다는 뜻으로 인식대상(認識對象)의 주체를 말함.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이나 의식과 심법 등.

167) 소취(所取) : ㉠grāhya, 피동적으로 파악되는 대상. 인식 대상인 색 등의 외경(外境).

168) 자비량(自比量) : ㉠svārthya-anumāna, 불교의 논리학이라 할 수 있는 인명론(因明論)에서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한 방법. 예를 들어 연기가 나는 곳을 보고 불이 있는 것을 미루어 아는 것을 비량(比量, ㉠anumāna-pramāṇa)이라고 한다. 비량에 세 가지가 있으니 자비량과 타비량(他比量)과 공비량(共比量)이다. 자비량은 다른 사람의 사고와는 관계없이 자기만이 허락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이유나 근거 아래 이루어진 비량. 타비량은 자기는 허락할 수 없고 다른 사람만이 허락하는 이유나 근거를 가지는 비량. 자타(自他)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가진 비량이 공비량이다.

169) 타비량(他比量) : ㉠parārthā-anumāna, 타비(他比), 인명론의 삼비량(三比量) 가운데 하나. 자기는 허락할 수 없고 다른 사람만이 허락하는 이유·근거를 가지는 비량

데, 혹은 자비량이고 혹은 타비량이니 어떤 것이 순수한 타비량법과 같겠는가? 원래 자비량이 없는 곳에는 동유과(同喻過)가 없다. 그러므로 비유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논주는 이것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둘째는 부정과이다. 살바다부에 대해서 비록 이는 잘못이 없지만, 모든 부파들이 일어남 없는 마음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혜관이 말했다. “이 내식의 비유를 자기 부파의 종으로 하는 경우 대상 경계 밖에 있는 내식은 논주가 인정되지 않았다. 저것은 하나의 비유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비량(共比量)<sup>170)</sup>은 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동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별상사과(分別相似過)<sup>171)</sup>의 부류와는 대론(對論)할 수 없다. 이후에는 이러한 종류의 번거로운 해석은 취하지 않는다.>

도증 스님이 헤아려 말했다. “내가 설하는 것은 외부 대상이 없지 않다. 법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능취와 소취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포섭된다고 헤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유식론』의 논주가 내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지금 비량은 부정과는 없지만, 앞의 경우처럼 자비량과 타비량을 뒤섞는 잘

170) 공비량(共比量) : 인명론의 삼비량(三比量) 가운데 하나. 자타(自他)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가진 비량.

171) 상사과(相似過)는 인명의 용어로 14과류(十四過類)·14종상사과류(十四種相似過類)라고도 한다. 인명의 비조로 불리는 족목(足目)선인이 분류하여 모은 과실을 논파함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진실로 논파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논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상사(相似)라고 한다. 논증의 주장 명제인 종(宗), 이 입론자가 자기의 종을 상대방에게 승인시키는 논증의 근거인 인(因), 그 실체인 유(有)의 종·인·유 삼지작법(三支作法)이 인명의 논식이다. 이 입론이 오류가 없는 진정한 것일 경우 이를 진능립(眞能立)이라 하고, 잘못을 포함하여 바른 것 같으면서도 그릇된 것이 있으면 사능립(似能立)이라고 하며, 상대의 입론을 반박 공격하는 바른 입론을 진능파(眞能破), 상대의 바른 입론을 잘못된 것이라고 논박 공격하는 것을 사능파(似能破)라 한다. 이 사능파에 입량파(立量破)와 현과파(顯過破)가 있는데, 이 현과파의 잘못에 14상사과가 있다. 그중 세 번째가 분별상사과(分別相似過)이다. 분별상사과는 입론자(立論者)가 세우는 정당한 동유(同喻)에 대해 여러 가지 차별을 마련하여 동유가 아니라고 비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못이 있다. 공비량이 내부의 식을 허용하는데 이미 체의 법이 있어 다만 저 대상에 밖이 있다 없다면을 논쟁하니 어찌 수고롭게 내부의 식이 자비량과 타비량을 분별하겠는가?)

묻는다. “논주의 주장을 제외하면 타비량이 성립되는데 대승에서는 어찌 하여 저 사된 집착을 버리려 하는가?”

도증이 말하기를, “법차별상위(法差別相違)<sup>172)</sup>가 있고, 안의 잘못의 상위가 있다.”고 하였다.

헤아려 말한다. “그대가 말하는 외부대상은 식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능법을 제외하고 능취와 소취 가운데에서 하나를 따라 포섭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내식이 저 법 중의 의미와 어긋나므로 차별을 인정한다 해도 명제[宗] 가운데에서 식(識)이라고 말하는 것도 심소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부정과가 없다.”(또한 유법자상상위(有法自相相違)<sup>173)</sup>

172) 법차별상위(法差別相違) : ㉔dharma-viśeṣa-viruddha, 인명에서 말하는 과오의 하나. 인(因)이 종(宗, 논증되어야 할 주장)의 빈사(賓辭, 논리적 내용을 이루는 술어, 後說·能依·差別) 혹은 주사(主辭, 논리적 내용을 이루는 주어, 前說·所依·自法)와 모순되어서 종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불성립의 인을 인으로 세우는 잘못에 4가지가 있어 이를 4상상위(四相相違)라고 한다. 4가지는 ①법자상상위(法自相相違) ②법차별상위(法差別相違) ③유법자상상위(有法自相相違) ④유법차별상위(有法差別相違)이다. (『因明入正理論』 大32 p.12a15~29.) 법차별상위는 인(因)이 종(宗)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이를 意許 또는 差別이라고 한다)와 모순되는 과실이다. 상위(相違)는 인명의 용어로서, 두 현상이 대립하여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괴로움과 즐거움, 밝음과 어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등이다. 4상상위는 인명 33과(過) 중의 하나이다. 종(宗)·인(因)·유(有) 삼지작법(三支作法)의 인명 논식에서 사능립(似能立)에 논리적 과실이 33가지가 있으니, 종9과(宗九過), 인14과(因十四過), 유10과(喻十過)이다. 이중 인14과에 4불성과(四不成過), 6부정과(六不定過), 4상위과(四相違過)가 있다.

173) 유법자상상위(有法自相相違) : ㉔dharmi-svarūpa-viruddha, 4상위과(四相違過)의 하나. 인(因)이 종(宗)의 주사(主辭)의 표면에 개진한 언론 자체와 모순되는 과실. 위의 주 172) 참조.

가 있다. 저 또한 외부 대상의 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에는 이러한 부류만 취한다. 해석하기를 좋아하여 논쟁하는 것은 거짓 해석이 되고 번거롭고 부질없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述曰, 卽第三節. 破諸邪執, 生如實解. 於中有二, 初出四計, 後結異執. 四類計者, 一薩婆多等, 執心外境如心實有. 基師量云, “我離心境決定實有, 許除異竟無, 心境二法隨一攝, 故如心心所.”〈有不定過. 除無心境隨一攝故. 爲如心心等, 定實有耶? 爲如瓶等, 非實有餘耶? 過不用.〉測師量云, “外境非無, 能所取中隨一攝故. 如論主內識.”〈比<sup>174)</sup>量二過. 一自他亂. 有法外境, 卽自比量, 同喻論主, 卽他比量. 不可一量, 或自或他, 何者若純他法? 卽自所無自比量中, 無同喻過. 故喻中言論主無用. 二不定過. 對薩婆多, 雖此無過, 全部等許緣無生心故.〉觀云, “此內識喻, 若以自宗, 境外內識, 論主不許. 因他隨一喻, 無俱不成.”〈共許識有, 同喻得成. 然分別相似過類, 不足對論, 已後不取此等繁釋.〉證師量云, “如我所說, 外境非無, 計除無法, 能所取中隨一攝故. 如論主內識.”〈今謂比<sup>175)</sup>量雖無不定, 然有如前自他亂失. 共許內識, 既有體法, 但諍彼境有外無外, 何勞內識分別自他.〉問, “除論主言, 得成他比. 大乘如何遣彼邪執?” 證云, “與法差別相違, 內過相違.” 量云, “汝外境非離識非無, 許除能法, 能所取中隨一攝故. 猶如內識違彼法中意, 許差別, 宗中識言亦攝心所, 故無不定.”〈亦有有法自相相違. 彼亦不成外境性故. 後唯取此類, 好釋遂論僞釋, 繁空語故.〉

174) 문맥에 의해 此를 比로 교감함

175) 문맥에 의해 此를 比로 교감함

[론]

혹은 내부의 식이 외부대상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착한다.

或執內識如境非有.

[학기]

설명한다. 이것은 두 번째 계탁(計度)이다.

규기가 말했다. “청변 등의 논사가 제법은 공하다고 설하여 곧 마음의 체[心體]를 부정하였다.”<sup>176)</sup>

헤아려 말한다. “그대가 내식이 외부 대상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한 것은 소지(所知)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주장하는 외부대상과 같다.”〈타비랑이기 때문에 법과 비유가 있고, 아울러 그대라고 하였다. 명제는 외부 대상과 같다고 하고, 헤아림은 쓸모가 없다고 한다. 다만 가능한 명제는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중이 말했다. “이유[因]는 자(自), 타(他), 구(俱)의 세 가지가 모두 정해져 있지 않다. 나의 진여와 같은 경우 타비랑에서는 부정되고, 그대의 세속의 마음 경계는 자비랑에서는 부정된다. 그대가 주장하는 속제의 경우 진여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구비랑에서는 부정된다.”〈이미 타비랑이기 때문에 오직 타비랑만 부정된다. 반드시 타비랑이 없어야 자비랑도 부정하게 된다. 또 속제는 진제에서 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비랑이 부정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승의제(勝義諦)에 대해서 공인지 불공인지를 의심한 것이므로 부정과가 된다. 세속문(世俗門)의 유(有)는 진유(眞有)가 아니어서 유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

---

176) 『성유식론술기』 권1 대43 p.236c3~9. 述曰, 此第二計. 卽學中百清辨等師, 依密意教說諸法空, 便亦撥心體非實有. 彼立量云, 汝之內識, 如境非有, 許所知故. 如汝心外境, 清辨俗諦外境許有, 今就中道無自違失. 又掌珍中依勝義諦, 說有爲無爲並是空等, 皆如彼說.



다. 또 논파해서 말한다. “소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외부 대상의 경우 승의제에서는 공인가? 마음과 외부 대상의 경우 세속제에서는 유인가?” 그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속제의 마음과 대상은 승의제에서는 공일 뿐이다. 부정과가 없기 때문이다.”

원즉 스님이 해아려 말했다. “내식은 있지 않다. 능취와 소취 가운데에서 하나를 따라 포섭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외부 대상과 같다.”〈종의(宗義)<sup>177)</sup>는 무엇인가? 만약 공이 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서로 어긋난다. 『반야경』에서 설한 것은 요의(了義)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이 무가 아니라면 이미 과실이 성립된다. 이것은 타비량과 같은데, 진여가 있다는 것은 타비량에서는 부정되기 때문이다. 공비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말하기를 공비량에서는 자법이 모두 부정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삼장(三藏)이 또 풀이하었다. “청변은 상분(相分)<sup>178)</sup>을 세우고 견분(見分)<sup>179)</sup>을 세우지 않았다. 또 안식(眼識)이 푸른색 등을 반연하는 그 때의 마음과 같아서 즉 이것은 푸른색 등을 떠나 바깥에 반연하는 주체가 따로 없어서 진정한 공(空)의 바깥에 지(智)가 없음을 증득하기에 이른다. 비록 세속제의 마음대상이라도 대상의 실제 마음이 허망하여 실재를 따르면 오직 대상뿐임을 갖추게 된다. 유식 논사가 상분을 포섭하여 마음으로 돌려보냈

177) 종의(宗義) : 한 종파에서 세운 교의(敎義). 그 종파의 주장과 신앙의 방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신앙 경험의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 조직한 것을 말한다. 실천 수행하는데 반드시 준수해야할 교리조직이다. 또 한 종파가 다른 의견에 대해 자신을 상징하는 경통의 교의를 말하기도 한다.

178) 상분(相分) : 사중심법(四種心法)의 첫 번째 종류. 심식(心識)이 인식작용을 일으킬 때, 동시에 인지할 그림자를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여 대상을 삼는 것. 즉 외부의 사물이 마음의 영상으로 비추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79) 견분(見分) : 사중심법(四種心法)의 두 번째 종류. 객관의 형상을 보는 작용. 능비상분(能比相分)을 아는데 쓰이는 것으로, 사물을 안다 해도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없다면 다투밖에 알지 못하므로 심체(心體)가 전변(轉變)을 하여 사물을 잘 아는 공능(功能)을 일으켜서 잘 알게 하는 작용이다.

다.〈저 뜻은 진정한 지(智)가 진여를 증득할 때 지(智)의 허망이 대상에 돌아가고, 나머지 마음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마음이 외부 대상과 비슷하게 현행하지만 외부 대상은 마음과 같지 않다. 마음의 허망함이 대상을 따라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마음으로 결박을 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음과 대상은 근본은 마음이 아니고 지혜로 말미암아 묶이고 풀어지니, 지혜가 왕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지 않다 해도 이로움이 능히 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세속제에 의거한다고 이름한다. 오식(五識)은 존재하지 않고 세간의 상분은 남은 과오로 인한 수고로움이 없다.〉

述曰, 此第二計. 基云, “淸辨等師, 說諸法空, 便撥心體.” 量云, “汝說內識如境非有, 許所知故. 如汝外境. 〈他比量故, 有法及喻, 並云汝也. 宗言如境, 量言無用, 但可宗言識非有.〉 證云, “因有自他俱三不定. 如我真如, 則他不定. 如汝俗心境, 卽自不定. 如汝俗諦, 許有眞如, 我亦許有, 則俱不定.” 〈既他比故, 唯他不定. 必無他比, 作自不定. 又俗於眞不能不定, 故共不定. 亦不應理, 謂就勝義, 疑空不空, 方成不定. 世俗門有旣非眞有, 有不相關故. 謂且破云, “許所知故. 爲如外境勝義空耶? 爲如心境世俗有耶?” 彼必答言, “如俗心境勝義唯空, 無不定故.”〉 測師量云, “內識非有, 能所取中隨一攝故. 猶如外境.” 〈宗義云何? 若空無者, 聖教相違. 般若說無不了義故. 若空非無, 立已成過. 此若他比, 亦以眞如有他不定. 若共亦爾. 前<sup>180)</sup>說共比, 自法皆不定故.〉 三藏又解, “淸辨立相, 而不立見. 且如眼識緣青等時心, 卽是離青等, 外無別能緣, 乃至證眞空外無智. 雖於世俗心境, 俱有境實心虛, 從實唯境. 如唯識師攝相歸心.” 〈彼意眞智證眞如時, 智虛歸境, 餘心亦然. 心行似境, 境不似心, 明知心虛隨境改轉, 不可說言由心縛解. 心與境本, 勿心由慧亦縛亦脫, 慧爲王故. 雖未而利能引道故, 名依世俗. 五識非有, 世間相無勞餘過.〉

180) 문맥에 따라 傳을 前으로 교감함

[론]

혹은 모든 식의 작용[用]은 다르지만 체(體)는 같다고 집착한다.

或執諸識, 用別體同.

[학기]

설명한다. 세 번째의 계탁이다.<sup>181)</sup>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sup>182)</sup>에 의하면 “일부의 논사는 하나의 의식(意識)만을 설한다. 저것들이 전변함에 의해 저들의 이름을 얻으니 의사업(意思業)과 같다.”<sup>183)</sup> 고 하였다.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sup>184)</sup>에서 이르기를, “일부의 보살은 세 가지 경(經)으로 중

181) 대승 중에서 일부 보살들이 주장한 팔식체일설(八識體一說)을 말한다.(『成唯識論述記』 권1 大43 p.236c10~19. 述曰, 此第三計. 即大乘中一類菩薩, 依相似教說識體一. 攝論第四說一意識菩薩計. 一依遠行, 及獨行教. 遊歷諸境故說遠行, 復言獨行無第二故. 二依五根所行境界, 意各能受教. 三依六識身皆名意處教. 四又解深密瑜伽等, 說如依一鏡上有多影像教, 五如依一水中有多波喻教, 此恐違至教故說有一識. 有云 一意識, 但說前六識爲一意識, 理必不然, 此說八識體是一故.)

182)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무착(無著)이 저술한 『섭대승론(攝大乘論)』을 당의 현장이 한역하고 붙인 이름.

183) 무착(無著)의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에는 “또 그 가운데에는 일부의 논사가 있어서 하나의 의식(意識)을 설한다. 저것들은 전변함에 의해서 저들의 이름을 얻고, 의(意)의 사업(思業)과 같아서 신(身)의 어업(語業)이라고 부른다.”(『攝大乘論本』 권중, 大31 p.138c24~25. 又於此中有一類師說一意識, 彼彼依轉得彼彼名, 如意思業名身語業.)고 하였다.

184) 『섭대승론석론(攝大乘論釋論)』은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을 말함. 무착(無著)이 저술한 『섭대승론(攝大乘論)』의 주석서. 두 종류가 있음. ① 세친의 주석서. ⑤ Mahāyāna-saṃgraha-bhāṣya. 한역본은 먼저 진(陳) 나라 진제(眞諦)가 563년 12권으로 번역하였고, 『섭론석(攝論釋)』·『양석론(梁釋論)』등으로 불림. 두 번째는 수나라 대에 달마금다(達摩笈多)가 행거(行矩)와 함께 590년에 번역한 10권. 『섭대승론석론(攝大乘論釋論)』·『수역세친섭론(隋譯世親攝論)』으로 불림. 세 번째는 당나라 현장이 647~649년에 번역한 10권. 『당역세친섭론(唐譯世親攝論)』으로 불림. 세친의 문하에서 논에 첨삭을 더했기 때문에 구본과 신본의 원본에

명한다. 첫째는 『법족경(法足經)』으로 마음이 멀리 홀로 현행하기 때문이다.<sup>185)</sup> 둘째는 『오근생식경(五根生識經)』으로 5근(五根)<sup>186)</sup>은 현행되는 경계이고, 의근(意根)은 각각 수혜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sup>187)</sup> 셋째는 『십이처경(十二處經)』으로 제6식을 총섭(總攝)하여 의식으로 삼기 때문이다.”<sup>188)</sup>

원측이 말했다. “다만 제6식이 하나의 의식이 된다고 설하고 제7식과 제8식을 설하지 않은 것은 또한 별도의 체가 없어서이다.”

세친의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에서 “의식을 떠나 따로 남은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별도로 아뢰야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외하기 때문이다.”<sup>189)</sup>라고 하였다. 이에 준거하면 제7식 또한 별도의 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8식이 5근의 집수에 의지하여 6식과 섞일까봐 염

---

차이가 있어서 진제의 한역본은 수·당대의 한역본과 서로 다름. ② 무성(無性)의 주석서. 10권. ㉔Mahāyāna-saṃgrahopaniṣandhana. 당나라 현장이 한역본이 있음. 여기서는 세친의 주석서임.

185) 세친 『섭대승론석론』 권4, 大31 p286c19~24. 論曰, 此中有偈, 遠去及獨行, 無身住空窟, 能伏難伏心, 我說爲梵行. 釋曰, 彼諸菩薩成就所說, 故引諸阿含偈, 言遠去者攀緣一切境界故, 獨行者更無第二故)

186) 5근(五根) : ㉔pañcendriyāni. 다섯 종류의 감각을 일으키는 기관. 안근(眼根, cakṣurindriya) · 이근(耳根, śrotrendriya) · 비근(鼻根, ghrāṇendriya) · 설근(舌根, jīhvendriya) · 신근(身根, kāyendriya). 여기에 의근(意根, 心)을 더하여 육근(六根)이라 한다. 외계(外界)의 대상을 취하고, 또 마음속에 오식(五識)의 인식작용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뛰어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根)이라고 하고, 또 이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색근(五色根)이라 한다.

187) 『섭대승론석론』 권4, 大31 p286c27~p287a1. 論曰, 又如經說, 此五根等所行境界, 皆意能受用, 彼等亦依止於意. 釋曰, 復有阿含說, 此等五根所行境界意能受用者, 若根所行處名爲境界, 此意能分別一切法故.

188) 『섭대승론석론』 권4, 大31 p287a5~8. 論曰, 又如經說十二入中, 說六識身爲意入. 釋曰, 復有阿含說六識身說名爲意, 無別餘識名故. 佛說六識身名爲意入, 是故得知唯獨有意.

189) 『섭대승론석』 권4, 大31 p339c28~29. 非離意識別有餘識, 唯除別有阿賴耶識.

려하여 따로 가려 취한다.

도증이 말했다. “『해심밀경』 심의식상품(心意識相品) 제3 중에서 ‘오직 제6식과 아타나식(阿陀那識)<sup>190)</sup>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였다. 스님은 본래 말나식(末那識)<sup>191)</sup>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제8식만을 간별하였다. 이 글은 『성실론(成實論)』<sup>192)</sup>의 주장을 아울

---

190) 아타나식(阿陀那識): ādāna. 집지(執持)·집아(執我)라고 번역. ① 제8식(第八識)의 다른 이름. 집지식(執持識)이라고 함. 감관과 신체를 집지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근본적인 식이며, 제법의 종자를 집지하기 때문에 잃지 않고, 자신을 집지하여 결생상속(結生相續)시키기 때문에 집지식이라고 함. 범상종에서는 아뢰야식의 다른 이름으로 쓰고, 이 식이 선악의 업의 세력과 우리를 유정한 신체를 유지, 집지하여 부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② 제7(第七) 말나식(末那識)의 다른 이름으로도 봄. 아뢰야식의 유복무기(有覆無記)한 점을 말함. 지론종(地論宗)·섭론종(攝論宗)·천태종(天台宗)의 구역가(舊譯家)에서 제7식이라고 함. 제8식이 진여식(眞如識)인 것에 반해 이 식을 망식무명(妄識無明)으로 봄. 이들의 차이점의 근거는 식을 8종류로 나누는지 9종류로 하는지의 차이점에 있음. 여기서는 첫 번째 제8식을 가리킴.

191) 말나식(末那識): manas. 유식설의 8식의 제7식에 해당하며 의(意)라고 하는 식 작용을 의미하여 사랑을 본질로 하지만 제6식(第六識)과는 구별하기 위해 말나식이라고 함. 의식적으로는 사로잡히지 않는 의식적 결정에 모순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영역의 마음을 말함.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의 네 번뇌와 상응하여, 영원히 선악의 축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을 초월한 영역인 아뢰야식과의 관련에 있어서 미혹의 근원이이고, 제8(第八) 아뢰야식(阿賴耶識)의 견분(見分)을 항상 살펴서 아(我)·아소(我所)라 하고 집착하여 아집(我執)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염오식(染污識)이라 함.

192) 『성실론(成實論)』: Satyasiddhi-śāstra, 16권 혹은 20권. 아리발마(詞梨跋摩, Harivarman)가 짓고 구마라집(鳩摩羅什)이 411년~412년에 한역함. 성실종(成實宗)의 근본 경전으로, 성실이란 사제(四諦)의 실다운 이치를 성취하더라는 뜻임. 우주의 모든 현상은 가(假)로 존재한 것이므로 결국 공(空)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이 관(觀)으로 말미암아 사제(四諦)의 실다운 이치를 체달한다하며, 팔성도(八聖道)에 의하여 온갖 번뇌를 멸하고 무여열반(無餘涅槃)의 경지에 이

러 논파하였다. 저 제5권<sup>193)</sup>에서 ‘오근[五門]의 동굴 가운데 원숭이가 움직여 일어난다.’<sup>194)</sup>고 하였다.”

述曰, 第三計也. 攝大乘云, “有一類師說一意識, 彼彼依轉, 得彼彼名, 如意思業.” 釋論云, “一類菩薩, 三經爲證. 一法足經, 心遠獨行故. 二五根生識經, 五根所行境, 意各能受故. 三十二處經, 總攝六識爲意識故.” 測云, “但說六識爲一意識, 不說七八, 亦無別體.” 世親釋云, “非離意識, 別有餘識. 唯除別有阿賴耶故. 准知七亦有別體. 然第八識, 依執五根, 恐濫六識, 故別簡取.” 證云, “解深密經心意識相品中, ‘唯明六識及阿陀那一意識.’ 師本未信有末那識故, 唯簡第八. 此文兼破成實論主. 彼第八云, ‘五門窟中, 獼猴動發.’”

## [론]

혹은 심왕(心王)<sup>195)</sup>을 떠나 다른 심소(心所)가 없다고 집착한다.<sup>196)</sup>

른다고 말함. 양나라의 법운(法雲)·지장(智藏)·혜민(慧敏)은 대승론이라고 하고, 지의(智義)·길장(吉藏)은 소승론이라고 하고, 도준(道璿)·원조(元照)는 분통대승론(分通大乘論)이라고 함.

193) 원문은 제8권인데, 『성실론』 권5에 나오는 내용이다.

194) 『성실론』 권5 大32 p.278c16.

195) 심왕(心王): 마음에 작용하는 주체. 마음의 개별적인 작용에 대하여 마음이 인식대상의 전부를 통괄하는 작용을 하는 점에서, 마음을 왕에 비유한 것. 심왕과 같이 작용하는 종속적인 심의 작용을 심소(心所)라 함. 심왕은 대상의 전체(總相)를 포착하고, 심소는 대상의 전체 밑 부분에 대해서 작용함. 그래서 양자는 반드시 상응해서 일어나고 그 상응의 관계를 구사종(俱舍宗)에선 오의평등(五義平等)을 가지고 설명함. 심왕은 육식·팔식 등의 자신을, 심소는 대지법(大地法) 등으로 나눔.

196) 이 견해는 경량부, 설일체유부의 각천(覺天) 등의 주장으로서, 다만 수(受)·상(相)·사(思)의 세 가지 심소를 인정한다.

或執離心，無別心所.

[학기]

설명한다. 네 번째 계탁이다.

원측이 말했다. “각천(覺天)<sup>197)</sup>의 뜻을 논파한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sup>198)</sup> 제142권에서 ‘존자(尊者) 각천(覺天)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모든 유위법(有爲法)에는 두 개의 자성(自性)이 있으니, 첫째는 대중(大種)<sup>199)</sup>이고, 둘째는 심(心)이다. 이른바 대중을 떠나서 만들어지는 색이 없으며, 심왕(心王)을 떠나 별도의 심소가 없다. 모든 색은 모두 이 대중의 차별이고, 무색(無色)은 모두 심왕의 차별이다.’<sup>200)</sup>라고 한 것과 같

197) 각천(覺天) : ㉟Buddhadeva, 불타제바(佛陀提婆)·발타제바(勃陀提婆)로 음역됨.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파사(婆沙) 4대논사 가운데 하나. 1세기경 사람으로, 물심이원론(物心二元論)을 세우고 색(色)을 만드는 것은 대중(大種)의 차별이며 심소는 심왕의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여 다른 논사들에 비해 진보적인 면을 보임.

198)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 ㉟Abhidharmamahāvibhāṣā-śāstra. 200권.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이라 약칭함. 5백아라한이 편저. 659년 현장(玄奘)이 한역. 불멸 후 400년 초에 가니색가왕(迦膩色迦王)이 오백나한을 모아 불경을 결집할 때 『발지론(發智論)』을 해석하게 한 책으로 설일체유부의 근본경전. 현장의 번역 전에 북량(北凉)의 부타발마(浮陀跋摩)와 도태(道泰)가 함께 한역한 아비담비바사론(阿毘曇毘婆沙論) 60권도 있음.

199) 대중(大種) : ㉟mahābhūta. 색법(色法)을 구성하는 지(地)·수(水)·화(火)·풍(風)의 4대요소. 사대중(四大種)·사대(四大)라고 함. 지대(地大)는 굳는 것(堅性, khakkhaṭvaṃ), 수대(水大)는 축축한 것(濕性, dravatvaṃ), 화대(火大)는 뜨거운 것(暖性, uṣṇatvaṃ), 풍대(風大)는 움직이는 것(動性, laghu-samudrāṇatvaṃ)을 본질로 하고, 보존해 간직하다[持]·거두어 온다[攝]·성숙시킨다[熟]·성장시킨다[長]을 그 작용으로 하여, 사대에 의해 만들어진 색법을 소조(所造)·소조색(所造色)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사대는 능조(能造)라 함.

200)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42 大27 p730b25~29. 尊8.5pt8.5pt覺天作如是說, 名

다. 혹은 경부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sup>201)</sup> 제11권에서 ‘비유하면 오직 심왕이 있고 별도의 심소가 없다고 설하였다.’<sup>202)</sup> 고 한 것과 같다.〈각천의 뜻과 같이 사람들[士夫]에게 육계(六界)를 설하였기 때문이고, 오염되고 청정한 것은 심왕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sup>203)</sup> 심소가 있다고 집착하여 쟁론이 많이 일어났다. 혹은 오직 세 가지만을 설하여 수(受)·상(相)·사(思)를 말한다.〈경에서 5온을 설했기 때문이다.〉 혹은 네 가지가 있다고 설하여 촉(觸)을 더한다. 혹은 열 가지가 있다고 설하는데 십대지(十大地)이다. 혹은 열네 가지가 있다고 설하여 탐(貪)·진(瞋)·치(癡)·만(慢)을 더한다. 지금 경우에 따라 저들의 있는 바와 없는 바를 논파해야 한다.

述曰，第四計也。測云，“破覺天義。如毗婆娑百四十二云，‘尊者覺天作如是說。諸有爲法，有二自性，一大種，二心。謂離大種無所造色，離心無別心所。諸色皆是大種差別，無色皆是心之差別。’或經部宗有二，如正理十一云，‘有譬喻者，說唯有心，無別心所。’”〈同覺天義，說士夫六界<sup>204)</sup>故，染淨由心故。〉執有心所，多興諍

二十二，實體唯一，所謂意根。彼作是說，諸有爲法有二自性，一大種，二心。離大種無所造色，離心無心所，諸色皆是大種差別，無色皆是心之差別)

201)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㉔Abhidharma-nyāyānusāra, 80권. 인도의 중현(衆賢)이 짓고, 현장이 한역함. 순정리론(順正理論)·정리론(正理論)으로 약칭함. 2만 5천 계송을 8품으로 나누어서 설일체유부의 입장에서 세친의 구사론(俱舍論)을 논파한 논서.

202) 『아비달마순정리론』 권11 大29 p.395a1~2

203) 『성유식론』 권7 大31 p.36c25~26. 又如何說心遠獨行，染淨由心，士夫六界.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36c23~25. 覺天所執亦依經故，經說三法和合名觸，乃至廣說. 又說士夫六界，染淨由心，故無心所. 4대의 공식(空識)이 유정을 생성하며 색(色)·동(動)·심(心)이 가장 수승한 소의(所依)가 되니, 색의 소의는 사대, 동의 소의는 공(空), 심의 소의는 식(識)이라고 한다. (『성유식론술기』 권7 大43 p.473c27~29)

204) 원문의 分은 『성유식론술기』등에 의해 界로 교감함.



論. 或說唯三, 謂受相思. 〈經說五蘊故〉或說有四, 加觸. 或說有十, 謂十大地. 或說十四, 加貪瞋癡慢. 今隨應破彼彼所無.

# [론]

이러한 갖가지 집착을 막고 유식의 심오하고 묘한 이치 가운데에서 여실한 이해를 얻게 하고자 이 논을 짓는다.

爲遮此等種種異執, 令於唯識深妙理中, 得如實解, 故作斯論.

# [학기]

설명한다. 두 번째로 다르게 집착하는 것을 널리 매듭짓는 것은 앞에서 4가지 계략으로 보았다. 또 차례대로 소승·대승·대승·소승의 순서로 말했다.

그런데 『성유식론장중주요』에서 이르기를, “아울러 대·소승을 통괄한다. 첫째는 대승으로, 청변종이 세속제에 의거하여 마음 밖에 대상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소승의 설일체유부로, 일체의 모든 법은 거짓 이름이 있을 뿐이라고 집착한다. 셋째는 소승의 『성실론』의 주장으로, 즉 『섭대승론』에서 ‘심의식은 하나다.’라고 하였다. 넷째는 대승으로, 『장엄론』에 의하면 오직 마음이 욕심과 같거나 믿음과 같다는 등에 집착한다. 모두 순서와 같이 대상에 집착하고 마음에 집착하여,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며, 심왕에 집착하고 심소에 집착하여,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sup>205)</sup>라고 하였다.

205) 『성유식론장중주요』 권상 大43 p.617a14~24. 第三爲破邪執造論之中, 又解各有小乘大乘師執, 第一清辨, 依世俗諦心外有境, 二俱非無. 第二小乘中一說部, 執一切法唯有假名都無心境, 外道空見亦復如是. 第三小乘, 執心意識義一文異, 攝大乘說心意識體一者是. 第四上古大乘, 亦有依莊嚴論執諸心所離心無體, 如下心所問答中辨, 故四各通大小二執, 由此總應九句分別. 第一解云, 第一第二小乘大乘, 執境執心非空非有, 第三第四大乘小乘, 執心執所非多非異.

『성유식론술기』에서는 대상과 마음에 집착하는 것을 4가지 구문으로 분별하였으니, “청변과 순세외도는 대상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고 한다.〈순세외도는 “범은 모두 대중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중도 대승은 마음은 있지만 대상은 없다고 한다. 살바다부 등은 대상도 있고 마음도 있다고 한다. 샛된 견해의 한 학설에서는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한다.”<sup>206)</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등의 외도의 여러 견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집착한다고 말한 것이다.

처음에 “지금 이 논을 짓는다”고 말하고, 끝에서 “그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하나하나가 모두 세 단락의 서분과 통한다.

述曰, 第二廣結異執, 前示四計. 且如次第小乘大乘 大乘小乘. 然樞要云, “並通大小. 第一大乘, 謂清辨宗 依世俗諦心外有境. 第二小乘一說部, 執一切諸法, 唯有假名. 第三小乘成實論主, 即攝論云, ‘心意識一.’ 第四大乘, 依莊嚴論, 執唯心似貪等似信等. 皆如次第, 執境執心, 非空非有, 執心執所, 非多非異. 疏執境心, 四句分別, “清辨順世, 有境無心.〈順世云 “法皆大種”故.〉中道大乘, 有心無境. 薩婆多等, 有境有心. 邪見一說, 無境無心.” 舉此等取外道諸見, 故言此等種種異執. 初言今造此論, 末云故作斯論, 一一皆通三節序也.

## 2) 성인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한 부분[聖教正說分]

[론]

만약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면 어찌하여 세간과 여러 성인의 가르침에서

206) 『성유식론술기』의 내용도 같다.(권1 大43 p.237a4~6. 若依此義四句分別, 清辨順世有境無心, 中道大乘有心無境, 小乘多部有境有心, 邪見一說都無心境.)

아와 법이 존재한다고 설하는가?

若唯有識, 云何世間及諸聖教, 說有我法?

[학기]

설명한다. 두 번째 바른 말씀이다. 본문이 있고 해석이 있는데, 해석은 본문을 따른다.

본문에는 3문(門)이 있다.<sup>207)</sup> 처음 25개의 계송은 유식의 대상을 밝힌 것이고, 그 다음의 4개의 계송은 유식의 현행을 밝힌 것이며, 끝의 1개의 계송은 유식의 과를 밝힌 것이다.

처음에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처음 1송과 반송은 종지를 드러내 체를 나타낸 문[顯宗出體門]이고, 둘째는 널리 유식을 해석한 문[廣釋唯識門]이고, 셋째는 외도의 비판을 결론지어 풀이한 문[結釋外難門]이다.

처음에 또 둘이 있다. 처음은 질문하여 비판을 일으킨 것[以問徵起]이고, 다음은 계송을 들어 바로 답한 것[舉頌正答]이다. 이것은 처음[以問徵起]이다.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sup>208)</sup>에 의하면 “다섯 가지 물음 가운데 다섯 번째 중생들을 이롭고 즐겁게 하는 문[利樂有情問]이 있다.”<sup>209)</sup> 고 하였다.

207) 유식30송의 분과를 규기는 ①유식상(唯識相) 1~24송, ②유식성(唯識性) 25송, ③유식위(唯識位) 26~30송으로 구분한데 비해, 대현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①유식경(唯識境) 1~25송, ②유식행(唯識行) 26~29송, ③유식과(唯識果) 30송으로 다르게 구분하였다.

208)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 1권. 『유가론석(瑜伽論釋)』이라고도 한다. 최승자(最勝子, ㄱJinaputra) 등 여러 사람이 지었다고 한다. 현장이 한역하였다. 최승자는 호법(護法) 문하에서 배운 유식 10대논사의 한 사람이다. 이 책은 『유가사지론』에 대한 가장 오래된 주석서로 『유가사지론』의 대강의 개요와 논을 만든 사정, 이름 등에 대해 해석하였다. 법상종 학습의 필수서로 꼽힌다.

209) 『유가사지론석』 권1 大30 p.885b2~5. 又發問者, 略有五種. 一不解故問, 二疑惑故問, 三試驗故問, 四輕觸故問, 五爲欲利樂有情故問. 今是第五, 專爲利樂諸有情類 造斯論.

규기가 말했다. “이 『성유식론』은 이미 유식으로써 중지를 삼으니,<sup>210)</sup> 어찌 세간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서로 어그러짐이 없겠는가? 아와 법은 본래 없으니 토끼의 뿔과 같아,<sup>211)</sup> 응당 인이 없이 여러 가지 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述曰, 第二正說. 有本有釋, 釋可隨本. 本有三門, 初二十五頌, 明唯識境, 次有四頌, 明唯識行, 後有一頌, 明唯識果. 初亦有三. 初一頌半, 顯宗出體門, 二廣釋唯識門, 三結釋外難門. 初亦有二, 初以問徵起, 後舉頌正答. 此初也. 依瑜伽釋, “有五問中第五利樂有情問也.” 基云, “此論旣以唯識爲宗, 豈無世間聖教相違? 我法本無, 如兔角等, 應無因起種種說故.”

#### ○ 유식30송의 제1송과 제 2송 전반

[송]

허망된 것에 의거해서 아와 법이 있다고 말하니

(아와 법의)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그것들은 식이 전변된 것에 의지하니

이 능변(能變)<sup>212)</sup>은 오직 세 종류이다.

이숙식(異熟識)<sup>213)</sup>과 사랑식(思量識)<sup>214)</sup>

210)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30b5. 故此卽以唯識爲宗)

211)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37c21~25. 云何諸世間說有我法, 此則世間相違, 違理之失, 及諸聖教中亦說有我法, 此則聖教相違, 違教之失, 非彼兔角等可說爲青等. 以本性無不可說故, 我法本無云何起說.

212) 능변(能變): 유식종의 8식(八識)을 가리킴. 변화시키는 주체, 변화시키는 자. 식(識)은 상분(相分)·견분(見分)을 변하여 나타내는 것이므로 능변이라 함. 이숙식(異熟識)·사랑식(思量識)·요별식(了別識)의 3가지가 있음.

그리고 요별경식(了別境識)<sup>215)</sup>을 말한다.

頌曰

由假說我法 有種種相轉 彼依識所變 此能變唯三  
謂異熟思量 及了別境識

[학기]

설명한다. 둘째는 송을 들어 바로 답한 것[學頌正答]이다. 이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송(頌)이고 (다음은) 해석이다. 이것은 처음의 송이다. 송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있는 세 구절은 어려운 것을 해석하여 중지를 드러낸 것이고, 뒤의 세 구절은 체성(體性)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것들[彼]’은 아와 범이고, ‘식(識)’은 자체(自體)이며, ‘전변된 것[所

---

213) 이숙식(異熟識) : ㉠vipāka-vijñāna, 아뢰야식(阿賴耶識)의 다른 이름. 인과 과보의 주체. 선악의 업으로 말미암아 훈습(薰習)되는데 업의 종자로써 뛰어난 연(緣)으로 삼아 이숙과(異熟果)를 불러 느끼기 때문에 이숙식(異熟識)이라고 부르고 아뢰야식의 과상(果相)이 됨. 전6식(前六識)과 상대적으로 유정(有情)의 모든 업보의 과(果) 자체이기 때문에 진이숙(眞異熟)이 되며 그것으로써 온전히 업과의(業果義)·불간단의(不間斷義)·편삼계의(遍三界義)의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숙식이라고 함. 그리고 구경의 불과(佛果)의 앞에 이르러 찰나지간에 그 이름을 버리는데 즉 이숙식의 이름은 겨우 선악 업보의 과위(果位)에서만 존재하고 불과를 완성했을 때 이숙의 인과(因果)는 물론이라고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면 이름은 없어짐. 또 식의 3능변(三能變) 가운데 초능변(初能變)이기 때문에 이숙능변(異熟能變)이라고 함.

214) 사랑식(思量識) : ㉠manas, 사랑능변식(思量能變識). 유식중에서 세운 제7 말나식(末那識)의 다른 이름. 사랑은 의역(意譯). 이 식은 소연(所緣)의 대상에 상대하여 공(恆)·심(審)의 두 가지 뜻을 모두 갖는다. 삼능변(三能變) 가운데 제2능변(第二能變)이라 함. 이 식은 그 자신을 건분과 상분으로 변현(變現)하고, 제8식의 건분에 연하여 항상 이것을 아(我)라고 집착하여 사고작용을 이룬다.

215) 요별경식(了別境識) : 유식중의 전6식(前六識). 대상을 요별(了別, 인식)하는 식의 의미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주로 하는 기능이므로 이렇게 말함.

變]’은 상분(相分)과 견분(見分)이다. ‘이 능변[此能變]’이란 이 상분과 견분의 능변이라는 것과, 이 자체(自體)가 능변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함께 갖는다. ‘오직 세 종류[唯三]’란 다음에 나오는 전변된 것은 비록 종류를 헤아릴 수 없지만 능히 전변하는 종류는 세 가지임을 말한다.

述曰，第二舉頌正答．中有二，頌故釋故．此初也．頌中有二．初有三句，釋難顯宗，後之三句，略出體性．彼謂我法，識即自體，所變即相見．此能變者，此相見之能變，此自體即能變，二釋俱得．言唯三者，如下所變，雖無量種，能變類三．

### [론]

논한다. 세간과 성인의 가르침에서 아와 법이 있다고 설한 것은 다만 허망된 것[假]에 의거해서 건립된 것이지, 실제로 체성(體性)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는 주재(主宰)<sup>216)</sup>하는 것을 말하고, 법은 궤지(軌持)<sup>217)</sup>를 의미한다.

論曰，世間聖教說有我法，但由假立，非實有性．我謂主宰，法謂軌持．

### [학>]]

설명한다. 송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위의 세 구절을 해석하여 비판을 소통시켜 중지를 나타낸 것이고, 뒤는 식이 전변된 상이 비록

216) 주재(主宰) : 중심이 되어 책임지고 맡아 처리함. 또는 그 사람.

217) 궤지(軌持) : 불교에서 법(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말. 궤(軌)란 궤칙(軌則)·궤범(軌範)의 의미로 법이 궤범에 되어 사람의 마음속에 이해를 생성시키는 의미이다. 지(持)는 임지(任持)·유지(維持)의 의미로 법의 원어 dharma는 ‘보유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법이 그 본질을 유지하여 그 외의 법과 섞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무량한 갖가지의 것이지만 아래의 세 구절을 해석하여 능변의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송의 글을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이고, 널리 외집(外執)<sup>218)</sup>을 논파했기 때문이다. 바른 해석에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 두 구절을 해석하고, 다음으로 셋째 구절을 해석하고, 마지막은 여러 문(門)을 해석했다. 이것은 첫 구절이다.

‘허망된 것에 의거해서 설한다[由假說]’는 것은 집착의 대상인 아와 법이 없기 때문에 외집이 아니고, 아에도 비슷하고 법에도 비슷하지만 식이기 때문에 외집이 아니다. 식을 떠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자유자재로 끊어내는 것이다.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주(主)라고 하고, 끊어내기 때문에 재(宰)라고 한다. 법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바른 이해를 내어 체성을 지니는 것이다. 만물에 대해 이해를 내게 하므로 궤(軌)라고 하고, 능히 자성을 지녀서 지(持)라고 한다. 하나나는 모두 일체의 아와 법에 통한다.

원측이 말했다. “『유가사지론』 제52권에서는 ‘지(持)가 있으면 뜻이 있고, 지가 없으면 뜻이 없다.’<sup>219)</sup>고 하였다. 아울러 능히 마음을 낳는 것을 모두 법으로 삼는다[爲法]고 하니, 일체가 궤와 지의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을 밝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규기가 말했다. “궤는 오직 유(有)의 법이고, 지는 무(無)의 법에 통한다.”<sup>220)</sup> 이렇게 말한 것들은 모두 아니니, 역시 능히 마음의

218) 외집(外執) : 외도가 집착하는 사건. 불교의 입장에서 일체 불법이외의 교설과 주장은 무릇 치우친 집착으로 외집의 사건에 속한다고 본다. 그 망집된 견해에는 ①제법의 일(一)·이(異) 설, ②세간의 상(常)·무상(無常) 설, ③아(我)와 온(蘊)의 즉(卽)·리(離) 설, ④인과의 유·무설 ⑤고의 자작(自作)·타작(他作) 설 등이 있다.

219) 『유가사지론』 권52 大30 p.584c28~29. 又有性者安立有義能持有義, 若無性者安立無義能持無義, 故皆名法.

220) 『성유식론별초』 권1 大48 p.819a18~20. 法謂軌持, 軌者卽生解, 持者持自性. 名不

이해를 낳기 때문이다.

혜관(慧觀)스님이 지지해서 말했다. “만약 친히 이해를 한다면 오직 그림자일 뿐이다.”<sup>221)</sup> 무를 이루는 것은 궤가 아니다. 무에 반영하는 깨달음은 근본을 따라 이해를 일으키고 그림자를 따르지 않는다. 유의 이해를 낳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나의 뛰어난 제자들아! 유는 여실하게 유임을 알고, 무는 여실하게 무임을 알아라.’<sup>222)</sup>라고 하신 것과 같다.”

述曰, 釋頌有二. 初釋上三句, 通難標宗, 後識所變相雖無量種下, 釋下三句, 出能變相. 初亦有二, 正釋頌文故, 廣破外執故. 正釋有三, 先釋二句, 次釋第三, 後諸門故. 此初句也. 由假說者, 所執我法, 無故非外, 似我似法, 識故非外. 離識無實, 故言假說. 我有二義, 自在割斷. 自在故名主, 割斷故名宰. 法有二義, 生解持. 令生物解名軌, 能持自性名持. 一一皆通一切我法. 測云, “瑜伽五十二, ‘有持有義, 無持無義.’ 並能生心, 皆名爲法, 明知一切具軌持義.” 基云, “軌唯有法, 持通無法.” 云云非也, 亦能生心解故. 觀師救云, “若親生解 唯影像故. 質無非軌也. 緣無之覺, 從本生解, 不從影像. 生有解故. 如世尊言, ‘我聖弟子, 有如實知有, 無如實知無.’ ”

## [론]

저 둘은 모두 갖가지 모습들로 생겨남[轉起]이 있다. 아의 갖가지 모습은

---

捨自性, 四對分別, 一無法有法體. <軌唯有法持且通無>

221) 규기, 『유식론요간』 권하 대48 p.377a5. 意識心親能生者唯影像故聚集教唯在意識由此.

222) 『대보적경』 권36 대11 p.207c20~22. 是舍利子, 是諸菩薩摩訶薩既不放逸, 能勤修習如理作意, 若法是有如實知有, 若法は無如實知無.



유정(有情)·명자(命者)<sup>223)</sup> 등과 예류(預流)·일래(一來) 등을 말한다.<sup>224)</sup> 법의 갖가지 모습은 실체[實]·속성[德]·행위[業]<sup>225)</sup> 등과 온(蘊)·처(處)·계(界)<sup>226)</sup> 등을 말한다. 생겨난다[轉]는 것은 조건[緣]에 따라 시설(施設)함에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sup>227)</sup>

彼二俱有種種相轉. 我種種相, 謂有情命者等, 預流一來等. 法種種相, 謂實德業等, 蘊處界等. 轉謂隨緣施設有異.

223) 명자(命者): 살아 있는 자. 즉 유정(有情)이라는 뜻. 색심(色心)이 상속하는 것에 이름 붙인 것.

224)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40a9~21. 述曰, 聖敎我種種相, 預流一來不還無學, 二十七賢, 十三住聖, 三乘, 十地. 皆聖敎中我種種相, 此舉二果等餘賢聖, 前預流向亦此所攝, 不別簡別向及果故. 預者言入, 流謂流類, 入聖之類故名預流. 舊云流謂生死, 此逆生死說名逆流, 義乃非也. 一於人天往來, 便得極果名爲一來. 決定已斷三界見所斷惑, 或修至五品立預流果, 決定已斷三界見惑, 修道六品或七八品, 立一來果. 二向不定, 如瑜伽論第二十六 對法十三 顯揚第三等 廣說彼相, 此即聖敎我種種相, 世間聖敎俱有我相, 此二雖殊, 而皆是我種種相也.

225) 실체[實]·속성[德]·행위[業]: 세간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하는 것 중의 일부. 외도의 승론(勝論, 5 Vāiśeṣika) 학파에서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①실(實) ②덕(德) ③업(業) ④유(有) ⑤동이(同異) ⑥화합(和合)을 말하였다. 실이란 제 법체의 실제 덕과 업의 이름붙인 바를 실이라 하고, 덕이란 도덕을 말하며, 업은 작용이나 동작을 말한다. (『成唯識論述記』 권1 大43 p.240a22~b1. 참조)

226) 온(蘊)·처(處)·계(界): 일체법을 분류하여 말하는 5온(五蘊)·12처(十二處)·18계(十八界)의 3과(三科).

227)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40b12~26. 述曰, 釋第二句中我法二種種相轉言. 言隨緣者, 隨諸世間種種分別橫計等緣, 隨諸聖敎施設安立證得等緣, 即施設爲世間. 聖敎我法別相異者別也. 言施設者, 安立異名即假說義. 此意顯示隨諸世間橫計種種我法等緣施設我法, 隨諸聖敎證得種種無爲等緣即施設爲聖敎我法. 轉者起義, 隨彼彼緣起彼種種我法相故. 問世說我法率已妄情, 聖說我法有何益用? 答由四緣故, 一言說易故, 二順世間故, 三者能除無我怖故, 四有自他染淨信解事業等故. 如瑜伽第六 顯揚第十說. 此上即解頌上二句, 將釋第三句寄問徵起.

[학기]

설명한다. 둘째 구절을 해석한 것이다. 유정·명자 등은 세간의 아의 상이고, 예류·일래 등은 성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아의 상이다. 실체·속성·행위 등은 세간의 법이고, 온·처·계 등은 성스러운 가르침의 법이다. 이른바 샅되거나 바른 생각은 저들의 문에 따라 차별하는 조건이 되니, 유정을 세우는 것 등은 문의 차별과 다르다. 또 신아(神我)<sup>228)</sup>와 같은 경우는 유정의 식이기 때문이고 수명이 있기 때문이다. 또 허망한 것이 같이 성스러운 부류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남은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샅되거나 바른 뜻의 문으로써 조건을 삼아 아와 법의 갖가지 모습을 시설한다.

述曰，釋第二句也。有情命者等，世間我相也，預流一來等，聖教我相也。實德業等，世間法也，蘊處界等，聖教法也。謂邪正思，隨彼彼門，差別爲緣，立有情等異門差別。且如神我，有情識故，有壽命故。又如假者，入聖類故，餘一有故。以此邪正義門爲緣，施設我法種種相也。

[론]

이와 같은 여러 모습을 만약 허망한 것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무엇에 의지해 성립되는가? 그 모습들은 모두 식이 전변한 것에 의지해서 임시로 시설된다.

228) 신아(神我): ☞puruṣa, 인간의 정신 본체. 간단하게 신(神)·아(我)라고 부르는 데, 인도 수론학파(數論學派)에서 세운 25제(二十五諦)의 25번째, 영원히 독존(獨存)한다고 하는 실아(實我)로 불교에서는 이온(離蘊)의 아(我)라고 하여 비난함. 정신적 원리인 신아는 물질적 원리인 자성에 작용하므로 이 현상세계를 전개시킨다고 함.

如是諸相，若由假說，依何得成？彼相皆依識所轉變，而假施設。

[학기]

설명한다. 셋째 구절을 해석한 것이다. 먼저 묻고 뒤에 답했다. 만약 모든 아와 법이 모두 허망하다고 말하였다면 허망한 것은 반드시 실체에 의지하는데 무엇에 의거해서 질문하는가? 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로 총체적으로 답한 것이다.

원측은 “식의 전변된 상분과 견분에 의해 세웠다”고 하였고, 규기는 “전체적으로 종종의 전변된 자체에 의지해 나누어 세웠다.”고 하였다.

述曰，釋第三句．先問後答．若諸我法皆是假說，假必依實，依何而立問也？答中有二，此初總答．測云，“依識所變相見而立．”基云，“通依種所轉變自體分立．”

[론]

식이란 요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식이라는 말은 또한 심소도 포함한다.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다.

識謂了別．此中識言，亦攝心所，定相應故．

[학기]

설명한다. 둘째는 나누어서 답한 것인데, 그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식이기 때문이고 능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요(了)란 8식(八識)의 대상을 요별하는 작용을 말한다.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sup>229)</sup>에서 “심

229)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 ㉔Vimśatikā vijñapti-mātratā-siddhiḥ, 1권. 세친의 저

(心)과 의(意)와 요별(了別)은 이름의 차별이다.”<sup>230)</sup>라고 한 것과 같다.<sup>231)</sup>

외도의 비판에서는 심소는 식의 전변한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색과 같은 것이 또한 유식인가? 이유를 풀이하면, 저 능변의 성과 식은 포섭되는 대상을 말하니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다. 모든 심소는 각자 대상을 전변하여 열등한 것을 숨기고 뛰어난 것을 드러낸다고 하니 오직 심소 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述曰, 後別答, 中有二. 識故變故. 此初也. 了謂八識了境用也. 如二十唯識, “心意了, 名之差別.” 外難, 心所非識所變, 如何如色亦唯識? 所以解云, 彼能變性識言所攝, 定相應故. 謂諸心所各自變境, 隱劣顯勝, 不言唯所.

#### [론]

변(變)이란 식 자체가 전변하여 두 가지 심분(心分)으로 사현(似現)하는 것을 이른다.<sup>232)</sup> 상분과 견분은 모두 자증분에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분에 의지해서 아와 법을 시설한다. 저 두 가지[아·법]는 이것[상분·견분]을 떠나서 의지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sup>233)</sup>

---

서. 당 현장이 한역. 유식의 교리를 말하여 외도와 소승의 치우친 소견을 깨뜨리고 유식의 정의를 나타낸 논서. 다른 번역으로는 진제 역의 『대승유식론』 1권, 보리유지 역의 『대승능가경유식론』 1권이 있음.

230) 『유식이심론』에서는 심, 의, 식, 요별의 넷에 대해 말한다.(권1 大31 p.74b27~28. 安立大乘三界唯識,, 以契經說三界唯心, 心意識了名之差別.)

231) 『유식이심론술기』 권1 大43 p.981b14~16. 心意識及了別, 此之四名其體無異, 但名差別. 心積集義, 意思量義, 識了別義, 了識達義應言了別.

232)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41a1~24. 述曰, 此釋變義, 此論一宗總有二釋, 此即初釋. 護法等云, 謂諸識體即自證分, 轉似相見二分而生, 此說識體是依他性, 轉似相見, 二分非無亦依他起, 依此二分執實二取, 聖說爲無, 非依他中無此二分, 論說唯二依他性故.

變謂識體轉似二分。相見俱依自證起故，依斯二分，施設我法。  
彼二離此無所依故。

[학기]

설명한다. 다음은 전변을 해석한 것으로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분위[三分]와 두 가지 분위[二分]이다. 이것은 처음이다.

삼장이 “안혜(安慧)는 오직 하나의 자증분을 세웠고, 화변(火辨)과 친승(親勝)<sup>234)</sup>은 오직 상분과 견분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는 저 세 논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논사들이 함께 해석한 것이다. 호법(護法)과 친광(親光)은 비록 네 가지 분위[四分]를 세웠지만 또한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진나(陳那)의 세 가지 분위는 셋째 분위 안에 넷째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규기가 말했다. “상분과 견분의 중중상을 설하는데 혹은 같고 혹은 다르다. 만약 같은 종류라면 즉 하나의 식 자체가 전변하여 상분과 견분의 두 심분에 사현하여 생기하니, 하나의 달팽이에서 두 개의 뿔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sup>235)</sup> 만약 다른 종류라면 체의 전변이 견분을 사현하고, 전변한 상분의 중자가 또한 사현해서 함께 일어난다. 계탁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현한 이름을 세운다. 상분은 나누어 종류가 있는데 어찌 식의 전변이라고 이름하는가? 심의 분별로 말미암아 상분이 바야흐로 일어나기 때문이

233)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41b2~242a16. 述曰, 依止依他相見二分, 施設遍計所執我法二實分也. 依起執故, 若離於此依他二分, 彼無所依, 故說依他爲執依止. 染分依故, 此世間我法. 聖教我法, 義依於體亦復如是.

234) 친승(親勝): ㉔Bandhuśrī. 세친의 「유식삼십송」에 주석한 유식 10대 논사의 한 사람. 호법은 사분설을 주장한데 비해 화변은 진나와 함께 삼분설을 주장하고, 친승과 덕혜는 이분설, 안혜는 일분설을 주장하여 서로 차이가 있었다.

235)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41a10~12. 說相見種或同或異, 若同種者, 卽一識體轉似二分相用而生, 如一蝸牛變生二角.

다.<sup>236)</sup>〈이미 둘은 자증분에 의지하는 것을 상분의 체로 알았다. 부분적으로 증득하는 것에 의지해서 일으킨 형상의 모습이 전분에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의 종류이다. 『성유식론장중주요』에서 “호법은 질(質)·현(顯)·견분의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삼성의 중자가 매여 있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마땅한 바를 따르기 때문이다.”<sup>237)</sup> 라고 하였다.

述曰，次釋變，中有二。三分故，二分故。此初也。三藏云，“安慧唯立一自證分，火辨親勝唯立相見。”此除彼三，餘師共釋。護法親光雖立四分，且依共許。陳那三分，第三分內攝第四故。基云，“說相見種或同或異。若同種者，卽一識體轉似相見二分而生，如一蝸牛變生二角。若別種者，體轉似見，轉相分種，亦似相起。計非實故立似名。相別有種，何名識變？由心分別，相方生故。”〈旣二依自證，明知相分體。依分證，起相狀現於見。〉然三法種。樞要云，“護法正義質顯見三，三性種子繫未必同。隨所應故。”

236) 『성유식론술기』 권1 大43 p.241a15~22. 卽一識體轉似見分別用而生，識爲所依轉相分種似相而起。以作用別性各不同，故相別種。於理爲勝，故言識體轉似二分。此依他起非有似有，實非二分似計所執二分見相故立似名，相別有種何名識變，不離識故。由識變時相方生故。如大造色，由分別心相境生故，非境分別心方得生，故非唯境但言唯識。

237) 『성유식론장중주요』 권상 大43 p.620a16~17. 護法正義質影二相與見分三，此三三性種子界繫等未要皆同，隨所應故。



## 【天台四教儀 천태사교의】

해제

- 사교송(四敎頌)
- 사교의연기(四敎儀緣起)
- 천태사교의를 새기고(刻天台四敎儀引)

1. 총설(總說) —————

2. 화의사교(化儀四敎)와 오시(五時) —————

【前四時】 1) 돈교(頓敎) … ① 화엄시(華嚴時)

2) 점교(漸敎) … ② 녹원시(鹿苑時)

③ 방등시(方等時)

④ 반야시(般若時)

3) 비밀교(秘密敎)

4) 부정교(不定敎)

【五時】 ⑤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3. 화법사교(化法四敎) —————

1) 삼장교(三藏敎)

2) 통교(通敎)

3) 별교(別敎)

4) 원교(圓敎)

4. 관심(觀心)

1)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2) 십승관법(十乘觀法)









## 解題 해제

『천태사교의』는 고려 전기의 천태사상가인 제관이 지은 천태교학의 기본 교리서이다.

제관(諦觀, ?~970)은 고려 광종 때 활동한 승려인데, 전기는 상세하지 않다. 중국 불교계는 회창폐불과 당말오대의 전란을 겪으며 경전에 바탕한 교학불교가 위축되었다. 오대에 오월(吳越)의 충의왕(忠懿王) 전홍숙(錢弘俶)은 돈독한 불심과 학구열로 불교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 천태학에서는 나계의적(螺溪義寂)의 교학 재흥을 지원하였다. 오월왕은 불전을 보다가 『영가집(永嘉集)』에 나오는 ‘동제사주(同除四住)’라는 말을 보고 덕소(德韶)에게 그 뜻을 묻자 덕소는 의적(義寂)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의적은 이것이 지의(智顗)가 지은 『법화현의(法華玄義)』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면서, 당말에 전적들이 모두 해외로 유출되고 중국에는 없으니 고려에서 구해올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오월왕은 해외 전적을 수집하게 되었고, 960년에 고려로 사신을 보내 전적을 구해오게 하였다. 고려에서는 961년(광종 12)에 광종의 명으로 제관이 전적을 가지고 가게 하되, 만약 중국에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문답하여 보고 대답하지 못하거든



그 전적들을 모두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다만 전적 중에서 『지론소(智論疏)』·『인왕소(仁王疏)』·『화엄골목(華嚴骨目)』·『오백문론(五百門論)』은 유출을 금지하였다. 961년에 중국에 도착한 제관은(『佛祖統紀』 권23 大49 p.249b08~12 建隆元年 吳越王錢俶, 遣使往高麗日本, 求遺逸教乘論疏. 建隆二年 高麗國遣沙門諦觀, 持天台論疏至螺溪.) 나계사(螺溪寺)의 의적(義寂, 919~987)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10여 년 동안 천태학을 연구하다 970년에 입적하였다. 그런데 제관이 입적한 후 상사에서 방광(放光)하여 열어 보았더니 『사교의』가 있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한다.(『佛祖統紀』 권10 大49 p.206a18~b2) 이에 대해 바로 뒤에 활동한 고려의 의천(義天)은 여러 경론에 대한 주석을 모아 간행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이를 제관의 저술로 실었고(권3 韓4 p.696b13. 四教儀一卷 諦觀述), 제관이 천태대사의 교관을 강연하고 해외로 유통시켰다고 그를 기렸다(『大覺國師文集』 권14 大宋天台塔下親參發願疏, 韓4 p.551c18~552a8).

제관 외에 의통(義通, 927~988)은 구산원 석종에게 출가하여 화엄과 기신을 수학하다가 943년 경 중국에 건너가 덕소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의적의 제자가 되었다. 천태교관을 닦아 명성이 높아 고려에 귀국하려다가 사명 지방의 태수 전유치(錢惟治)의 만류로 귀국을 포기하고 보운원(寶雲院)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의적에 이은 천태종 제16조가 되어 이를 중흥시켰다. 고려인들의 중국 천태종에서의 활동은 이처럼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제관의 『천태사교의』는 총설에 이어 먼저 교문(敎門)으로 5시와 8교를 밝히고 다음에 관문을 밝혔다. 5시 8교는 처음에 5시(時)와 5미(味) 및 교화 방식(化儀)의 4교에 관해 그 해당 경전과 명칭, 근거 및 교설 등을 들고, 이를 『화엄경』의 삼조(三照)와 『열반경』의 오미(五味) 및 『법화경』의 가난한 아들[窮子] 비유에 건주어 설명하였다. 다음에 교화 내용

[化法]에 따른 4교의 명칭과 교설, 수행인[行人]과 수행 계위[行位], 증과(證果) 등을 서술하였다. 다음의 관문(觀門)에서는 4교에 각각 방편과 바른 수행[正修]이 각기 다르므로 총괄하여 밝히고, 관문의 선행 방편인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具五緣]·다섯 가지 욕망을 경책함[訶五欲] 등의 25방편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원교의 바른 수행인 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과 진정발보리심(眞正發菩提心) 등의 십승관법(十乘觀法)을 서

1. 총설(總說)
2. 화의사교(化儀四教)와 오시(五時)
  - 〈前四時〉 1) 돈교(頓教)      ① 화엄시(華嚴時)
  - 2) 점교(漸教)      ② 녹원시(鹿苑時)
  - ③ 방등시(方等時)
  - ④ 반야시(般若時)
  - 3) 비밀교(秘密教)
  - 4) 부정교(不定教)
  - ⑤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 〈五時〉
3. 화법사교(化法四教)
  - 1) 삼장교(三藏教)
    - (1) 성문(聲聞)
    - (2) 연각(緣覺)
    - (3) 보살(菩薩)
  - 2) 통교(通教)
  - 3) 별교(別教)
    - (1) 십신위(十信位)
    - (2) 십주위(十住位)
    - (3) 십행위(十行位)
    - (4) 십회향위(十迴向位)
    - (5) 십지위(十地位)
    - (6) 등각위(等覺位)·묘각위(妙覺位)
  - 4) 원교(圓教)
    - (1) 오품위(五品位)
    - (2) 십신위(十信位)
    - (3) 십주위(十住位)
    - (4) 십행위(十行位)·십회향위(十迴向位)·십지위(十地位)
    - (5) 등각위(等覺位)·묘각위(妙覺位)
4. 관심(觀心)
  - 1)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 (1) 구오연(具五緣)
    - (2) 가오욕(訶五欲)
    - (3) 기오개(棄五蓋)
    - (4) 조오사(調五事)
    - (5) 행오법(行五法)
  - 2) 십승관법(十乘觀法)

『천태사교의』의 구조

술하였다. 하권은 여러 고승의 교상판석(敎相判釋)과 중지(宗旨)를 밝힌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천태사교의』는 중국불교의 두드러진 특색인 교판(敎判)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인도에서 제각기 전해진 경론의 의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경론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조직화한 가장 대표적인 교판이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의 4교(四敎)이다. 지의는 남북조 시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교판론을 종합하여 교학의 수준에 따라 장교(藏敎)·통교(通敎)·별교(別敎)·원교(圓敎)의 4교 교판을 확립하여 이후의 교판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화엄종에서 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의 5교(五敎)를 세워 4교와 병립하게 되었다. 천태종을 부흥한 당 중기의 형계잠연(荊溪湛然, 711~782)은 오시팔교(五時八敎)를 주장하여 천태종의 교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천태사교의』에 앞서 지의가 지은 『사교의(四敎義)』가 있다. 12권 분량으로 대부(大部) 사교의 또는大本(大本) 사교의로 불린다. 지의는 이 『사교의』에서 석사교명(釋四敎名), 변소전(辨所詮), 명사문입리(明四門入理), 명판위부동(明判位不同), 명권실(明權實), 약관심(約觀心), 통경론(通經論)의 7과로 나누어 사교의 명칭과 교의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본 사교의 이모저모를 서술하여, 사교에 따라 불교 교학을 전체를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원래 이 『사교의』는 『유마경』에 대한 주석서인 『정명현의(淨名玄義)』의 일부였는데, 10권의 이 책을 셋으로 나누어 6권은 『사교의』(현재는 권을 나누어 12권), 2권은 『사실단의(四悉檀義)』(지금은 남아 있지 않음), 2권은 『삼관의(三觀義)』로 분리하였다고 한다.(湛然, 『法華文句記』 권1중 大34 p.159b13~16) 지의는 이밖에 천태삼대부라 불리는 『법화문구(法華文句)』와 『법화현의(法華玄義)』와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 장·통·별·원의 사

교와 돈·점·비밀·부정교 그리고 5시와 5미에 대해 여러 차례 서술하였다. 지의의 제자 장안관정(章安灌頂, 561~632)은 『천태팔교대의(天台八敎大意)』를 써서 화의4교와 화법4교에 대해 논술하여 지의의 교판을 천명하였고, 당 중기의 잠연은 5시8교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지반(志磐)은 『불조통기』에서 『팔교대의』를 제관이 간략하게 손질하여 『천태사교의』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5시8교는 지의의 교판이 아니라 제관의 교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關口眞大, 1978 『天台敎學の研究』)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태사교의』가 지의가 확립한 천태 교의와 교판에 바탕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제관 자신은 천태의 광부 저술들을 바탕으로 저술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관이 5시와 8교의 명확한 분류와 개관을 간명하게 정리해낸 의의는 크다. 제관은 지의에게서 아직 통일되지 못한 교판 체계를 5시8교로 명확히 조직하고 그 구성 관계를 단일하게 정비하였다. 그리고 교판 일치를 표방하는 천태종의 논지에 따라 교문과 관문의 양문으로 조직하여 교판조직을 복원하였다. 나아가 제관은 5시8교의 체계를 불교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내보였다. 이런 위상 때문에 후대에 널리 읽히게 되었고, 심지어는 후대에 학인들이 『천태사교의』만 읽고 그에 의존하여 나머지 광본이나 교판을 공부하는데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나올 정도였다.

『천태사교의』에 대한 주석서로는 가장 대표적인 송 종의(從義)의 집해(集解) 3권, 송 원수(元粹)의 비석(備釋) 2권, 원 몽윤(蒙潤)의 집주 3권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73종에 이르는 주석서가 나왔고, 이에 대한 소기는 130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주석서들은 『천태사교의』가 광범위하게 읽혔던 사정을 대변해 준다. 이는 『천태사교의』가 4교를 중심으로 교판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천태종뿐만 아니라 불교 개론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천태사교의』는 간명적절한 만큼 상세한 이해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자인 제관 자신도 이 책의 끝부분에서 “삼가 천태교의 광본(廣本)을 참고하여 5시8교로 초록하니 대략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이는 청컨대 『법화현의』 10권을 보기 바란다. 시방삼세제불의 설법의식을 자세히 판별하여 마치 밝은 거울과 같을 것이다.”(韓4 p.527c3~6)라고 하여 지의의 저술을 읽기를 권하였다.

#### 참고문헌

- 姜南錫, 2001 「諦觀의 天台四敎儀와 天台思想」 『한국종교사연구』 9
- 金煥泰, 2003 「天台四敎儀의 思想史의 意義」 『天台學研究』 5, 천태불교문화연구원
- 李永子, 1986 「天台四敎儀의 成立背景과 그 特徵」 『佛敎學報』 23
- 李永子, 1988 『한국 천태사상의 전개』, 民族社
- 李永子, 1988 『天台四敎儀』(譯註), 경서원
- 池昌圭, 1996 「天台四敎儀의 五時八敎 研究: 종래 학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蔡印幻, 1983 「諦觀의 天台四敎儀」 『韓國天台思想研究』,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 天台佛敎文化研究院, 2002 『天台四敎儀의 종합적 高査』, 大韓佛敎天台宗總務院
- 韓鍾萬, 1988 「『法華玄義』와 『天台四敎儀』의 比較研究」 『東洋學』 1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關口眞大, 1978 『天台敎學の研究』, 大東出版社

## ■ 사교송(四敎頌)

七賢七位藏初機	칠현 칠위는 장교의 첫 근기이고
通敎位中一二齊	통교 계위 중 제1, 2위와 같다.
別信并圓五品位	별교의 10신위와 원교의 5품위는
見思初伏在凡居	견혹과 사혹이 처음으로 조복되어 범부위가 된다.
果位須陀預聖流	증과 계위인 수다원과·예류과·성류과는
與通三四地齊儔	통교 제3, 4지와 나란히 짝한다.
并連別住圓初信	이어지는 별교의 10주위와 원교의 10신위 중
八十八使正方休	88사가 바르게 그치게 된다.
圓別信住二之七	원교·별교의 10신위와 10주위의 제2위부터 7위는
藏通極果皆同級	장교·통교의 마지막 과위와 모두 같은 급이다.
同除四住證偏眞	함께 4주를 없애 치우친 진리를 증득하고
內外塵沙分斷伏	안팎의 진사혹도 끊어 조복한다.
八之十信二惑空	10신위의 제8위부터 10위는 이혹과 사혹이 공해지고
假成俗備理方通	임시로 이룬 속(俗)이 갖추어져 이치가 바로 통한다.
齊前別住後三位	앞의 별교 10주위는 뒤의 3위와 같아지고
并連行向位相同	이어지는 10행위 10회향위도 서로 같다.
別地全齊圓住平	별교의 10지위는 온전히 원교의 10주위와 같고
無明分斷證眞因	무명이 끊어져 참된 인(因)을 증득한다.
等妙一覺初二行	등각위와 묘각위는 같은 깨달음의 처음의 2행으로
進聞三位不知名	나아가 삼위를 들어도 이름을 알지 못한다.

## ■ 사교의연기(四教儀緣起)

중국 송나라 때 승사(僧史)<sup>1)</sup>를 편찬한 승통(僧統)<sup>2)</sup> 찬녕(贊寧)<sup>3)</sup>의 『통혜록(通惠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sup>4)</sup>

“당나라 말기 오월(吳越)<sup>5)</sup>의 전(錢)씨 충의왕(忠懿王)<sup>6)</sup>은 나라를 다스리

- 1) 승사(僧史) : 『대송승사략(大宋僧史略)』을 일컫는다. 송의 찬녕(贊寧)이 기존의 불교 사서와는 다르게 교단제도, 의례 계율 참법 등의 교단사를 서술한 책. 권상에는 불타 탄생연대와 불교의 동진, 가람의 창조, 삼장의 번역, 추가와 수계, 참회, 경론 강의, 선법의 중국 도입과 경과를, 권중에는 승정 승통 등의 교단사와 불교사의 주요 자료를, 권하에는 계단, 결사, 재회, 도승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찬녕은 불교를 중흥하고 정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 2) 승통(僧統) : 승려들을 통솔하는 최고위 승관. 중국 요진(姚秦) 때 처음으로 승정(僧正)으로 최고 직책으로 하였고, 북위(北魏) 때 법과(法果)를 사문통(沙門統)으로 삼았다가 승통(僧統)으로 고쳐 사현(師賢)을 처음으로 승통으로 삼았다. 이후 소현통(昭賢統)으로 바뀌어 북제 때는 소현대통을 두었으며, 수나라 때는 대통(大統)을 두었다. 당나라 때 승록(僧錄)을 승관기구로 삼은 이래 송나라 때 도승록제도가 시행되었다.
- 3) 찬녕(贊寧) : 919~1001. 북송(北宋) 때의 불교사가. 절강 덕청인(德清人)으로 속성은 고(高)씨이다. 항주 상부사(祥符寺)에서 출가하여 삼장과 남산율에 정통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이론으로 굴복시키는데 뛰어나 율호(律虎)라고 불렸다고 한다. 유교와 도교의 전적에도 밝고 문장이 훌륭하여 당대 명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오월왕 전홍숙(錢弘俶)이 흠모하여 양절승통(兩浙僧統)에 임명하고 송의 태조도 예우하였다. 한림사관편수(翰林史館編修)를 역임하였고 우가승록(右街僧錄) 등을 지냈다. 저작이 매우 많아 『송고승전(宋高僧傳)』과 『대송승사략(大宋僧史略)』 등의 저술을 남겼다.
- 4) 『통혜록』은 지금 찾을 수 없으나, 유사한 기록이 지반(志磐)의 『불조통기(佛祖統紀)』 권10 제관편에 실려 있다.(大49 p.206a18~b2)
- 5) 오월(吳越) : 중국 오대십국 중 하나. 907년에 당나라 절도사였던 전유(錢鏐)가 항주(杭州)에 도읍하고 세운 나라. 강남(江南)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였으나, 978년에 송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던틈틈이 마음으로 내전(內典)<sup>7)</sup>을 연구하였다. 때마침 『영가집(永嘉集)』<sup>8)</sup>을 보다가 ‘함께 사주(四住)<sup>9)</sup>를 없애는 점에서는 같지만 무명(無明)을 억누르는 데에는 삼장교(三藏敎)가 열등하다’<sup>10)</sup>는 구절에 이르러 분명하게 알지 못하므로 운거산(雲居山) 덕소(德韶)<sup>11)</sup> 국사에게 물었다. 이에 국사가 말하기를 ‘천태산(天台山)<sup>12)</sup> 국청사(國淸寺)<sup>13)</sup>의 의적(義寂)<sup>14)</sup> 법사는 교법

- 
- 6) 충의왕(忠懿王) : 948~978재위. 오월의 마지막 왕. 이름은 전홍숙(錢弘俶, 929~988). 항주 임안(臨安)인으로 오월국 문목왕(文穆王) 전원관(錢元瓘)의 아홉째 아들이다. 천성이 진실되고 불교를 숭상하여 20세에 왕위를 계승한 후 천태덕소(天台德韶)를 국사로 삼고 도잠(道潛)에게서 보살계를 받았으며, 955년에 아육왕탑(阿育王塔) 건립을 발원하여 8만 4천 보탑을 만들고 안에 보협인다라니를 넣어 널리 해외에까지 전해지게 하니 이를 전홍숙탑이라 부른다. 960년에 항주 영은사(靈隱寺)를 부흥하고 지각연수(智覺延壽)를 초청하였으며 나계의적(螺溪義寂)을 맞아다 『법화경』을 강의하게 하였다. 고려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천태 전적을 구하여 천태교학이 크게 일어나게 하였다. 978년에 나라를 송에 합쳐 오월국은 사라지게 되었다.
- 7) 내전(內典) : 불교의 전적. 이에 비해 불교 이외의 전적은 외전(外典)이라 함.
- 8) 『영가집(永嘉集)』 : 당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 지음.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이라고도 한다. 1권. 대정신수대장경 48책에 수록. 현각은 어려서는 천태를 배우고 나중에 혜능(慧能)의 남종선을 배워 깨달음을 얻고 선종에 입문하였다. 이 책은 천태지관의 취지로 선종의 선을 해석하여 선종의 마음 씀과 수행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모두 10편으로 이루어져 제1 모도지의(慕道志儀)에서 제10 발원문(發願文)에 이른다. 천태와 선의 융합을 모색한 초기 저작으로 의미가 크다.
- 9) 사주(四住) : 사주지(四住地)의 줄임말. 견혹(見惑, 見道位에서 4제의 이치를 볼 때 끊는 번뇌)인 견일체처주지(見一切處住地)와 사혹(思惑, 개별 사물의 진상을 알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번뇌)인 욕애주지(欲愛住地, 욕계의 9품 사혹)·색애주지(色愛住地, 색계 4지의 각 9품 사혹)·유애주지(有愛住地, 무색계 4지의 각 9품 사혹)를 일컫는 말이다.
- 10)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大48 p.392c21~22
- 11) 『사명존자교행록(四明尊者教行錄)』 “훗날 충의왕이 교상으로써 덕소국사에게 자문하였다.”(권7 大46 p.929b13 後時忠懿王以教相 咨問德韶國師)
- 12) 천태산(天台山) : 중국 절강성 천태현(天台縣)에 있는 산 이름. 575년에 지의(智

을 잘 아니 반드시 이 말을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법사를 불러 그에게 물었다. 법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천태지자(天台智者)대사<sup>15)</sup>가

顓)가 이 산에 들어가 교의를 펼치자, 수 양제가 지의의 입적 후 그를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 조정이 되게 하였다. 산은 위가 여덟겹인데 아래서 보면 하나의 돛처럼 1만 8천 길이나 우뚝 솟아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의 나뉘고 같고 위로는 삼태성(三台星)에 상응하여 천태산이라 하였다 한다. 성인이 노닐고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명소가 많고 수행처가 곳곳에 세워졌다.

- 13) 국청사(國淸寺) : 중국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불롱봉(佛隴峰) 남쪽에 있는 절. 598년 진왕(晉王) 광(廣, 뒤의 수 양제)이 지의를 위해 창건하였다. 지의의 제자인 관정(灌頂)이 주석하면서부터 천태종의 근본도량으로 변형하였다. 처음에는 천태산사라 부르다가 605년(대업1)에 국청사로 사액되었다. 851년에 중건되었고 1005년에 경덕국청사(景德國淸寺)로 절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의 전각들은 대부분 청나라 옹정 연간(1723~1735)에 건립된 것이다.
- 14) 의적(義寂) : 919~987. 중국 천태종의 중흥조. 속성은 호(胡)씨, 호는 나계(螺溪). 12세에 출가하였고, 19세부터 회계의 청율사(淸律師)에게 3년간 『남산초(南山鈔)』를 배우고 천태산에 들어가 청송(淸竦)에게 천태교관을 이어받았다. 안록산의 난과 회창폐불로 천태 전적이 거의 유실되었음을 안타까워 하다가 덕소를 통해 오월왕 전홍숙에게 고려와 일본에서 전적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오월왕의 명으로 『법화경』을 강의하여 정광대사(淨光大師)란 호와 자의(紫衣)를 하사받았고, 955년 전교원(傳敎院)의 개산조가 되었다.
- 15) 천태지자(天台智者)대사 : 538~597. 중국 수나라 때 스님, 천태종의 개조. 자는 덕안(德安), 속성은 진(陳)씨. 휘는 지의(智顗). 591년 진왕 양광(楊廣)으로부터 ‘지자대사’라는 호를 하사받음. 18세 때 과원사 법서(法緒)를 은사로 출가하였고 혜광(惠曠)에게 율학과 대승교를 배우고 560년 혜사(慧思)로부터 심관(心觀)을 전수받았다. 32세 때 와관사에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38세 때 천태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하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의 중지를 완성하였다. 585년에 금릉으로 가서 태극전에서 『지도론』과 『법화경』을 강설하였고, 말년에는 당양현에 옥천사를 창건하고 『법화현의(法華玄義)』와 『마하지관(摩訶止觀)』을 강하였으며 597년에 천태산 석성사에서 입적하였다. 법을 전한 제자는 32명이며 그 중 장안관정(章安灌頂)이 상수제자이다. 저서로는 『법화현의』·『법화문구』·『마하지관』·『관음현의(觀音玄義)』·『관음의소(觀音義疏)』·『금광명현의(金光明玄義)』·『금광명문구(金光明文句)』·『관무량수경소(觀無量壽經疏)』 등이 있다.

지는 『묘현(妙玄)<sup>16)</sup>』 중에 나오는 문구<sup>17)</sup>인데, 안사(安史)의 난<sup>18)</sup>을 만났을 때 없어지고 근래 회창(會昌)폐불<sup>19)</sup>로 불탔으므로 중국의 교장(敎藏)은 부서지거나 빠져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오직 해동의 고려만이 교법을 펼쳐 바야흐로 융성하며 모든 책이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서는 개탄하고 곧 국서와 폐백을 전하는 사신을 보내어 고려에서 일가의 장소(章疏)를 구해오도록 하였다. 고려 임금이 이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제관은 천태 관련 책을 가지고 가서 답례[報聘]<sup>20)</sup>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제관이 도착한 후에 의적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고 나계(螺溪)<sup>21)</sup>에서 입적하였다. 큰 가르침이 이로부터 다시 왕성해졌다.”

- 
- 16) 『묘현(妙玄)』: 천태지의가 지은 『묘법연화경현의(妙法蓮華經玄義)』를 말한다. 지의가 593년에 형주(荊州) 옥천사(玉泉寺)에서 강의한 것을 제자인 관정(灌頂)이 기록하였다. 천태종의 핵심 전적인 법화 3대부의 하나로 ‘묘법연화경’ 제목을 상세히 해석하고 『법화경』의 깊은 뜻을 설명하였다.
- 17) 『묘법연화경현의』(大33 p.737a15)에 『선종영가집』의 4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18) 안사(安史)의 난: 755년부터 763년까지 9년 동안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일으킨 반란. 이 난을 계기로 당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무너지고 지방의 절도사(節度使)들이 세력을 얻어 지방 할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 19) 회창폐불(會昌廢佛): 당나라 무종(武宗)의 회창 연간에 일어난 대대적인 폐불 사건. 본래 도교를 숭상하던 무종이 즉위하여 도교를 크게 신봉하면서 도사들의 건의로 불교 공격을 시작하여 845년(회창5)에 천하의 사원 4만4600여개소와 승니 26만 5천인 중 양도의 절 4개소에 승려 각 30인씩, 주군에 사원 1개소씩 승려 각 20내지 5인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환속하게 하였다. 또 천하 사원의 종과 불상을 거두어 녹여 동전과 농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846년에 무종이 죽음으로써 폐불은 끝이 나고, 선종(宣宗)이 즉위하여 847년에 복불령을 내려 사원이 복구되었다. 이 일로 인해 수많은 불교 전적이 사라져 이후 당말송초에 전적에 대한 의존이 적은 선종이 불교계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 20) 보빙(報聘)은 이웃나라 사신의 방문을 받은 일에 대하여 답례하는 것.
- 21) 나계(螺溪): 지명. 의적이 지명을 따 호로 삼았다.

제관은 능히 대본(大本)<sup>22)</sup>을 탐색하여 『사교의』의 문장을 기록하여 2권으로 만들었으니, 상권은 일가의 판교(判敎)<sup>23)</sup>와 입의(立義)<sup>24)</sup>를 밝혔고 하권은 남북 여러 종사들의 으뜸으로 여기는 도리(宗途)<sup>25)</sup>와 서로 달리 이해하는 의견(異計)<sup>26)</sup>을 밝혔다. 후에 고산지원(孤山智圓)<sup>27)</sup>법사가 교감하여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지금 세상에 유통되는 상권의 문장은 대개 단어와 구절이 간명하고 긴요하며 뜻이 쉽고 분명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는다면 부처님 일대의 교화[一化]<sup>28)</sup>의 대강을 밝게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작은 보탬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권에서는 남북의 옛 종사들을 분석하고 지적하였는데 문장의 뜻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하기엔 시간이 걸린다. 이와 같이 문장 끝에서 “이 아

22) 대본(大本): 천태지의(天台智顗)가 지은 『사교의(四敎義)』, 12권으로 대부사교의(大部四敎義) 또는 대본사교의(大本四敎義)라고 일컬어진다.

23) 판교(判敎): 가르침을 판가름하여 구별함.

24) 입의(立義): 내세우는 뜻 또는 중지(宗旨).

25) 종도(宗途)는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도리.

26) 이계(異計)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논의.

27) 고산지원(孤山智圓): 976~1022. 천태종 산외파에 속하는 승려. 자 무외(無外), 자호 중옹자(中庸子) 또는 잠부(潛夫). 전당(錢唐) 출신으로 속성은 서(徐)씨. 부모의 명에 따라 출가하여 8세에 구족계를 받고 21세에 봉선사 원청(源淸)으로부터 천태삼관(天台三觀)의 요지를 전수받았다. 스승이 입적한 후 홀로 조용히 경론을 탐구하여 동문인 경소(慶昭)·오은(晤恩) 등과 함께 산외파(山外派) 학설을 세워 산가파를 대표하는 사명지례(四明知禮)와 논변을 전개하였다. 후에 항주 서호 고산(孤山)에 머물자 제자들이 많이 모여 고산지원으로 불리웠다. 스스로 유학으로 몸을 닦고 불교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만큼 유 불 도 삼교에 통달하였다. 저서로는 『반야경』·『유교경(遺敎經)』·『서응경(瑞應經)』·『부사의법문경(不思議法門經)』·『무량의경(無量義經)』·『보현행법경(普賢行法經)』·『미타경』·『수능엄경』등 10종에 대한 소가 있어 ‘십본소주(十本疏主)’라고 불리웠다 하며, 『한거편(閑居編)』 60권을 비롯하여 모두 170여권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28) 부처님 일대의 교화[一化]: 부처님 일대시교(一代時敎)의 가르침.

래로는 여러 학자들이 교학을 판별한 방법을 간략히 밝히겠다”라고 지적하였으니 뒷 권의 대략을 알 만하다.

왕이 의적스님을 위해 나계 가에 절을 지어 정혜원(定慧院)이라 하고 정광대사(淨光大師)라는 호를 바치고 9조<sup>29)</sup>로 추증하였다. 아울러 동쪽에서 교장을 되찾아와 모두 스님에게 주었으니 교문의 중흥이 진실로 여기에 기반한다. 덕소(德韶)스님은 마침 지자대사와 성씨가 같고 이에 또 중문의 상승을 도왔고 게다가 인근의 불룡산(佛隴山)<sup>30)</sup>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의적이 지자대사의 후신인가 하고 의아해 했다고 한다.

사명(四明)<sup>31)</sup> 출신인 초암(草庵)법사 도인(道因)<sup>32)</sup>의 『교원유사(敎苑遺

29) 9조: 천태종 기준에 따르면 그는 15대 조사이다. 『송고승전』의 의적전에는 제9 대조와 관련한 이야기가 없다. 이러한 칭호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1237년의 『석문정통(釋門正統)』이고, 『십국춘추(十國春秋)』에서 반복되었다. 존 요르젠슨, 『『천태사교의』의 역사』(『천태학연구』 제5집 p.167) 참조.

30) 불룡산(佛隴山): 천태산의 천태종 전당인 국청사(國淸寺)가 있는 산. 지의가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천태 승려들이 많이 이곳에서 수행하였다. 산에서 불상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룡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31) 사명(四明): 지금의 절강성 은현(鄞縣) 서남쪽. 천태산 북쪽의 산기슭 일대를 사명산(四明山)이라 한다. 자계현(慈谿縣)·은현·봉화현(奉化縣)·신창현(新昌縣)·승현(嵊縣)·사명현(四明縣)·상우현(上虞縣)·여요현(餘姚縣) 등의 경계에 걸쳐 있다. 280여 개의 봉우리가 수백리에 이르는데, 그중에서도 부용 오봉의 정상에 있는 네 구멍이 날씨가 좋으면 방의 사방 창에 해와 달이 비치듯 밝다고 하여 사명이라 하였다고 한다.

32) 도인(道因): 1090~1167. 북송 때 천태종 스님. 사명(四明: 절강성 鄞縣) 출신. 속성은 설(薛)씨. 자는 덕고(德固), 또는 칭종(稱宗). 호는 초암(草庵) 또는 안주(安住). 어려서 태평흥국사(太平興國寺)로 출가하여 17세 때 구족계를 받았다. 일찍이 연경사(延慶寺)에서 하안거를 지내고 보운사(寶雲寺)로 가서 덕소(德韶) 문하에 들어가 천태교관을 배웠다. 강당과 선당을 돌아다니다가 지례(知禮)의 『십불이문지요초(十不二門指要鈔)』를 읽고 깨달아 멀리 지례를 스승으로 삼아 그 학풍을 배웠다. 영명사·보운사·광수사(廣壽寺)·치평사(治平寺) 등에 주석하다가 만년에 연경사로 돌아오니 학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일찍이 『관정

事)』에서 말하였다. “예전에 지자선사가 바닷가 절벽에 방생지(放生池)를 만들어 방생할 때마다 반드시 귀계(歸戒)<sup>33)</sup>를 주고 대법(大法)을 설한 후에 바다 속으로 놓아 주었다. 지자대사가 입적한 후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중국의 천태 교학이 가라앉아 그치게 되었으나 해동의 고려와 신라 등 여러 나라에서 이 가르침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부종계충(扶宗繼忠)<sup>34)</sup> 법사가

---

론(關政論)』을 저술하고 선사들의 목은 폐단을 바로잡았으며, 「관경보정해(觀經輔正解)」를 저술하고 원조(元照)율사의 『관경소(觀經疏)』를 논박하였다. 1146년에 성 남쪽의 초암(草菴)으로 물러나 평생 동안 깨달은 것을 『초암록』 10권으로 완성하고 입적하였다. 그 밖의 저술로는 『낙방문류(樂邦文類)』에 수록된 「정토여설(淨土餘說)」·「염불심요송(念佛心要頌)」·「경찬예불회소(慶讚禮佛會疏)」·「유문(遺文)」 등이 있다.

33) 귀계(歸戒): 삼귀의(三歸依)와 오계(五戒). 삼귀의는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것으로 불교도가 반드시 치르는 의식이다. 귀의는 구호한다, 향한다는 뜻을 내포하는데, 삼보에 귀의하여 구호를 바랍으로써 영원히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삼귀의에는 생사를 멀리 떠나고, 세간을 벗어나는 열반을 구하며,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세 가지 사된 것을 없애고 삼도에서 구제하며 삼승에 접하여 삼유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오계는 재가신도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불살생을 비롯한 계율이다. 오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삼귀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삼귀오계는 재가신도 집단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문수회나 관경회 등 불교 행사에서 삼귀오계를 행하고 이를 설한 경전이 많다.

34) 부종계충(扶宗繼忠): 1012~1082. 북송 때 천태종 산가파 스님. 절강성 영가 출신. 속성은 구(丘)씨. 자는 법신(法臣), 호는 부종(扶宗). 8세 때 개원사(開元寺)로 가서 삭발하였고 조금 자라서는 경률을 익혔다. 훗날 병을 얻었는데 관음참(觀音懺)을 닦아 병이 나았다. 그후 남호(南湖) 연경사(延慶寺)로 가서 광지상현(廣智尙賢)에게 법을 받았다. 항주 천축사에 가서 관음에 예배한 후 활연히 마음의 문이 열려 배운 것을 흰히 깨달았으며 이곳에서 『법화경』을 강설하였다. 개원사·묘과사(妙果寺)·혜안사(慧安寺) 등에 주석하다가 감심사(江心寺)로 물러나 선관(禪觀)을 닦았다. 매년 정월 8일 보살계(菩薩戒)를 주었으며 항상 모든 삼매를 게을리 하지 않고 닦았다. 제자 수백인 가운데 종의(從義)와 처원(處元)이 유명하다. 저술로는 『부종집(扶宗集)』 50권, 『이사구의를(二師口義)』 15권이 있고 「십

이르기를 ‘지자대사의 인연이 이 나라에 있어서 가르침이 해동에 널리 퍼진 것이니, 이는 반드시 방생지 속의 모든 물고기들이 가르침을 듣고 계를 받은 과보로 탄생한 것이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못 나무라며 허황되다고 하니 특별히 교리에 전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유수장자(流水長者)<sup>35)</sup>의 만 명의 아들들이 곧 물고기의 과보를 벗어났으니 어찌 이것을 도외시 할 수 있겠는가?

명나라 만력(萬曆) 9년(1581, 조선 선조14) 겨울에 사문 지각(智覺)이 정업당(淨業堂)에서 교정하여 판에 올린다.

宋修僧史僧統贊寧通惠錄云. “唐末吳越錢忠懿王, 治國之暇, 究心內典. 因閱永嘉集, 有 ‘同除四住, 此處爲齊, 若伏無明, 三藏則劣’ 之句, 不曉, 問于雲<sup>36)</sup>居韶國師. 乃云 ‘天台國清寺, 有寂法師, 善弘教法, 必解此語.’ 王召法師, 至詰焉. 法師曰,

간서(十諫書)·「지미(指迷)」·「결모(抉膜)」·「부종기(扶宗記)」·「십문석난(十門析難)」·「해방서(解謗書)」 등을 지었다.

- 35) 유수장자(流水長者): 『금광명경(金光明經)』 권4 「유수장자자품(流水長者子品)」. 유수장자의 아들이 물이 말라가는 연못에서 괴로워하는 물고기를 보고 나뭇가지로 덮어준 후 물을 길어다가 부어 주어 물고기들이 살아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음식을 주고 다시 부처님의 명호와 법을 들려주었다. 그 후 장자의 아들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때 땅이 돌던 진동하더니 일만의 물고기들이 죽어서 모두 도리천에 태어났다. 이때 장자의 아들이 술취해 누각 위에서 자고 있는데 십천의 천자들이 와서 무수한 진주와 영광을 주변을 장식하고 다시 천화를 뿌리며 은혜에 보답하였다.
- 36) 원문의 ‘雪’은 ‘雲’이 맞다. 『불조통기』에 “천태운거(덕소국사가 머물던 곳)에 이르러 홀연히 계합하여 깨달았다.”(大49 p.191b15 至天台雲居(韶國師所居)忽有契悟)고 하였고, 『대명고승전』에 “당나라 천보연간에 사액을 내려 운거산이라 하였으며, 안국사라고도 한다. 오대 때 덕소국사가 중흥하여 제2도량으로 삼았다.”(권4 大50 p.914b11 唐天寶賜額曰雲居山, 曰安國, 五代德韶國師, 中興爲第二道場.)라고 하였다.



‘此天台智者大師妙玄中文，時遭安史兵殘，近則會昌焚毀，中國教藏，殘闕殆盡。今惟海東高麗，闡教方盛，全書在彼’。王聞之慨然，卽爲遣國書贊弊使，高麗求取一家章疏，高麗國君，乃勅僧曰諦觀者，報聘以天台教部，還歸于我。觀旣至，就稟學寂公，于螺溪終焉，大教至是重昌矣。”

觀能探索大本，錄出四教儀之文，成二卷，其上卷明一家判教立義，下卷明南北諸師宗途異計。後至孤山圓法師，校勘刊板，但行今上卷之文者，蓋由辭句簡要，義旨易明，學者誠資之，可了其一化大綱，豈曰小補之哉！下卷則破斥南北古師，文義浩漫故，得以緩之如此，文末指云“自從此下，略明諸家判教儀式”，抑可見後卷之大略也。王爲寂師，建伽藍螺溪之上，曰定慧院，進號淨光大師，追謚九祖，并東還教藏，悉付於師，教門中興，實基於此。而詔公適與智者同姓，乃又毘贊宗乘，且居隣佛隴，人咸疑其爲智者後身云。

四明草菴法師道因教苑遺事云。“昔智者禪師，初放生池於海涯，其放之也，必爲授歸戒，說大法，然後縱之海中。智者滅後，至唐末，中國天台之道浸息，而海東高麗新羅諸國，盛弘此教，扶宗繼忠法師云‘智者緣在此方，而教敷于海東者，此必放生池中，諸魚聞教稟戒報生者，爾然。’聞此說者，頗譏以爲誕，殊不知教理有憑也。流水十千天子，卽脫魚報，豈外此乎？”。

明萬曆九年冬，沙門智覺，於淨業堂，校梓。



## ■ 천태사교의를 새기고[刻天台四教儀引]

지난 해 나의 정원이 완성되어 정업당(淨業堂)이라 이름하였다. 계속된 와병으로 누워 앓던 어느 날, 서너 명의 청정한 벗을 따라 빗장을 닫아걸고 하안거(夏安居)<sup>37)</sup>를 맺었다. 안거 중에는 매일 세 차례 예참(禮懺)하는 일과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였으며, 편안히 앉아 향을 사르고 장경(藏經)과 전적(典籍)을 정밀하게 연구하였고, 종과 경쇠를 간간이 울리니 흰 구름도 잠시 머물고, 새들은 낮게 날아 사람들을 친하게 여겼으며, 덩굴 풀이 자라나 좁은 길을 덮었다. 궁궐을 뒤로하고 한수<sup>38)</sup> 남쪽<sup>39)</sup>에서 숨을 돌리니 마음이 흡족하여 매우 한가로웠다. 진각(眞覺)스님이 무림(武林)<sup>40)</sup>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천태의 학문을 올려 내가 받아들였다. 열흘 동안 머물며 천태 교관(敎觀)의 큰 뜻을 분석하였다. 내가 만약 깨달아 아는 것이 있으면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영원히 천태종을 받들어 올리고 청정한 불

37) 하안거(夏安居): 안거는 ㉠vārṣika 또는 varṣa, ㉡vassa이다. 우기(雨期)라고 의역한다. 수행제도의 하나. 우안거(雨安居)·좌하(坐夏)·결하(結夏)·결제(結制)라고도 한다. 인도에서 여름 우기 석달간 출가자들이 외출을 금지하고 한 곳에 모여 수행에만 힘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기 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땅에 사는 벌레나 풀의 새싹들을 잘못 밟아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므로 모여 수행하며 외출을 금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여름 우기에만 시행하여 안거는 곧 하안거로 생각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안거를 시행하여 동안거(冬安居)도 있다.

38) 한수(漢水): 물 이름. 중국 섬서성 영강현에서 발원하여 호북성을 관통하여 흐르는 양자강의 지류.

39) 음(陰): 풍수에서 산의 남쪽 방향을 일컫는 말.

40) 무림(武林): 중국 절강성 항주에 있는 지명. 항주 영은사(靈隱寺)를 ‘무림 영은사’라고도 한다.

국토에 나기를 발원하였다. 대개 청정한 벗들도 동시에 발심하여 영원히 벗이 되기로 하였다.

천태교의 원류는 사명지반(四明智磐)<sup>41)</sup>이 지은 『불조통기(佛祖統紀)』<sup>42)</sup>에 갖추어져 있다. 『사교의』는 고려 사문 제관이 『법화현문(法華玄文)』<sup>43)</sup>을 바탕으로 하여 기록해낸 것이다. 책은 모두 2권이며 상권은 천태지의 일가의 교상(敎相)을 판별하는 뜻을 밝혔고, 하권은 남북 모든 스님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도리(宗途)와 서로 달리 이해하는 의견(異計)을 밝혔는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상권뿐이다. 언어는 간략하지만 뜻이 해박하여 진실로 천태교의 빗장과 자물쇠(關鑰)<sup>44)</sup>이니 학자들이 이것을 모두 알게 된다면 부처님 일대의 교화의 대강의 과반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남천축산(南天竺山)<sup>45)</sup> 사문 몽윤(蒙潤)<sup>46)</sup>이 『집주(集註)』<sup>47)</sup> 3권을 남겼는데, 또한 정밀

41) 사명지반(四明智磐): 남송 때 스님. 생물연대 미상. 호는 대석(大石), 사명산(四明山) 복천사(福泉寺)에 주석하며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종감(宗鑑)의 『석문정통(釋門正統)』을 중수하여 『불조통기(佛祖統紀)』를 편찬하고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례(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6권도 지었다.

42) 『불조통기(佛祖統紀)』: 54권. 남송의 지반(志磐) 지음. 줄여서 『통기(統紀)』라고도 한다. 대정신수대장경 권49에 수록되어 있다. 경천(景遷)의 『종원록(宗源錄)』·종감(宗鑑)의 『석문정통(釋門正統)』을 모범으로 삼고 역사서의 기전체(紀傳體)와 편년체(編年體)를 함께 따라 천태종의 역사를 종합 기술한 것이다. 본기(本紀) 8권·세가(世家) 2권·열전(列傳) 12권·표(表) 2권·지(志)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태종의 정통을 밝혔는데, 비록 천태종에 치우쳐 있으나 사료를 채택한 것이 풍부하고 서술도 세밀하여 중국불교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3) 『법화현문(法華玄文)』: 천태지의가 찬술한 『법화현의』 10권을 지칭한다.

44) 빗장과 자물쇠(關鑰): 문의 빗장과 자물쇠. 사물의 아주 중요한 요체라는 뜻.

45) 남천축(南天竺):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강성 항주 천축산(天竺山)을 말함.

46) 몽윤(蒙潤): 1275~1342. 원(元)나라 때 스님. 절강성 가흥(嘉興) 출신. 속성은 고(顧), 호는 옥강(玉岡)이다. 14세 때 백련화사(白蓮華寺)에서 고원영청(古源永淸)을 은사로 출가하였으며 그에게 지관(止觀)과 『금강비론(金剛毘論)』과 『십불이

하고 해박하여 기뻐할 만하다. 가까운 오(吳) 지방에 각본이 남아 있다.

빋장을 단아걸고 2개월간 있다가 나오자마자 다시 세속의 그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 마침내 청정한 계(戒)를 보전하지 못하고 술과 고기를 먹고 처자를 가까이 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어떤 객이 홀려서 타향을 떠도는데 어느날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 부형·종족·분묘·전택 등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만 할 것이오”하고 말해주었다. 그 사람은 계속 머물면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어찌 타향사람이 되겠는가?

금년(1582년) 봄 나는 또 하나의 명을 받아 청산을 버리고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따라서 전에 가졌던 뜻을 생각해내고는 비용을 내어 『사교의』 1권과 과문(科文)을 관각하여 세상에 유통되도록 하니 동지들은 자물쇠를 잡고 빋장을 꿰뚫어 바다처럼 무수한 부처님의 말씀[海藏]<sup>48)</sup> 궁구하기를 완수하여, 일가의 교관이 마치 태양이 정오에 당도하고 시냇물이 골짜기로 나아가듯이 된다면 내가 타향에 머물러 있더라도 밀천으로 삼아 참회할 수 있으리라. 힘쓰고 힘쓸지어다.

---

문론(十不二門論)』 등을 배웠다. 영청이 입적한 후에는 죽당전공(竹堂傳公)을 모셨다. 그후 남천축(南天竺) 연복사(演福寺)에서 크게 종풍을 날리며 6년간 주석하다가 떠나 용정(龍井) 풍황령(風篁嶺) 백련암(白蓮庵)에서 염불삼매를 닦았는데 제자들이 몰려들어 지관(止觀)의 묘지(妙旨)를 강설하기도 하였다. 후에 선정원(宣政院)의 명에 따라 천축영산사(天竺靈山寺)에 주석하여 3년간 지낸 후 다시 백련암으로 돌아와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사교의집주(四教儀集註)』 3권, 『사교의집주과문』 1권이 있다.

47) 집주(集註): 『사교의집주』를 말함.

48) 해장(海藏): 부처님의 설법을 비유하는 말. 부처님 법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아름답고 추한 차별이 없고 또한 유정(有情)과 비정(非情)의 차별도 논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그 속에 포용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해장(海藏)으로 비유한다. 8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 참조.

임오년(1582, 만력10) 봄 불환희일(정월 15일)<sup>49)</sup>에 병든 거사 풍몽정(馮夢禎)<sup>50)</sup>이 짓는다.

客歲拙園成，名其堂曰淨業。屬臥病餘日，因從三四淨侶，掩關結夏。其中三時禮課，求生西方，宴坐焚香，研精藏典，鐘磬間發，白雲乍留，鳥低飛而親人，草蔓生而沒徑，裊遺巍闢，機息漢陰，意欣欣甚適也已。僧真覺者，自武林來，進余以天台之學，余首肯焉。爲留旬日，剖析教觀大旨，余若有悟入者，遂合掌佛前，願世世奉揚台宗淨佛國土。蓋淨侶同時發心，永爲主伴矣。

台教源流，具四明磐公所撰佛祖統紀，而四教儀者，則高麗沙門諦觀，稟法華玄文，而錄出者也。書凡二卷，上卷明一家判教之義，下卷明南北諸師宗途異計，今所傳者，上卷耳。言約義該，實爲台教之關鑰，學者了此，則一化大綱，思過半矣。南天竺沙門蒙潤，有集註三卷，亦精核可喜，近吳中有刻本焉。

49) 불환희일(佛歡喜日):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승가 대중이 하안거를 마친 음력 7월 15일을 말함. 이 날은 모든 비구가 안거(安居)를 마쳐 증과(證果)를 얻으므로 부처님께서 환희심을 내는 날이어서 불환희일이라 한다. 인도에서는 하안거만을 지내므로 음력 7월 15일이 불환희일에 해당하나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동안거도 지내므로 동안거의 마지막 날인 음력 정월 15일도 불환희일이라 한다.

50) 풍몽정(馮夢禎): 1548~1595. 명나라 때 절강성 가흥 출신. 자는 개지(開之). 만력 연간(1573~1620)에 회시(會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관직이 국자감주(國子監祭酒)에 이르렀다. 평소 불법을 좋아하여 선승(禪僧)을 가까이 하였으며 운서주굉(雲棲株宏)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아 삼가 지키는데 게을리함이 없었다. 또 자백진가(紫柏眞可)와 더불어 염불삼매(念佛三昧)를 닦고 피를 내어 사경(寫經)하고 대장경을 관각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장간(莊簡),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역대공거지(歷代貢舉誌)』·『쾌운당집(快雪堂集)』·『쾌운당만록(快雪堂漫錄)』 등이 있다.

掩關凡兩月，旣出則復濫世罔，遂不能保淨戒，啖酒肉近妻子如曩時。客有幻迷於他鄉者，一旦人告之曰“子之家在某所，父兄宗族墳墓田宅，種種可念也。”其人卽留滯，不能遽返，豈作他鄉人哉？今歲春，余且以一命，棄青山行有日矣。因追前志捨貲，刻四教儀一卷并科文，行于世，同志者，其遂執鑰洞關，以窮海藏，令一家教觀，如日輪當午，川流赴壑，卽余留滯他鄉，可藉以懺悔矣。其勉之哉，其勉之哉。

壬午春，佛歡喜日，病居士，馮夢禎譔。



# 천태사교의 天台四教儀

고려의 사문 제관(諦觀)이 기록하다

## 1. 총설(總說)

진(陳)씨 성의 중국 수(隋)나라<sup>1)</sup>의 국사(國師)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sup>2)</sup>는 오시팔교(五時八教)<sup>3)</sup>로써 동쪽으로 전해진 부처님 일대의 성스러

---

1) 수(隋)나라: 중국의 통일 왕조(581~618). 3백년간의 남북조 분열시대를 마감하고 다시 통일한 왕조이다. 북위의 패망 이후 서위(西魏)와 북주(北周)에서 세력을 쌓은 양견(楊堅)이 수를 건국하여 589년에 남조 진(陳)나라를 패망시켜 통일하였다. 간소한 율령과 과거제도 등을 시행하여 이후 당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의 바탕이 되었다. 문제에 이어 양제가 즉위하여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의 실패 등 실정이 겹쳐 반란이 일어나 짧은 기간에 멸망하고 당(唐)이 들어섰다.

2)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 천태종의 개조. 휘는 지의(智顗). p.364 참조.

3) 오시팔교(五時八教): 천태종의 교판. 부처님 일대의 설법을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설하기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다섯 가지 시(時)와 여덟 가지 교(教)로 설명한 것을 말한다. 5시란 부처님 50년간의 설법을 시간적으로 판단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인데, 최초 화엄시(華嚴時)로부터 아함시(阿含時)·방등시(方等時)·반야시(般若時)를 거쳐 최종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로 구분하는 것이다. 8교란 가르침을 교화하는 형식에 따라 구분한 화의사교(化儀四教)와 교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화법사교(化法四教)로 나뉜다. 화의사교란 둔교(頓教)·점교(漸教)·비밀교(秘密教)·부정교(不定教)이며, 화법사교란 장교(藏教)·통교(通教)·별교(別教)·원교(圓教)이다.

운 가르침[一代聖敎]을 판별하고 풀이하여[判釋]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포함시켰다.

오시(五時)는 첫째 화엄시(華嚴時)<sup>4)</sup>, 둘째 녹원시(鹿苑時)〈4아함(阿含)<sup>5)</sup>을 설함<sup>6)</sup>, 셋째 방등시(方等時)<sup>7)</sup>〈『유마경(維摩經)』<sup>8)</sup>·『사익경(思益經)』<sup>9)</sup>·『능가경(楞

4) 화엄시(華嚴時): 5시 중 제1시. 부처님이 성도한 후 최초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한 때를 말한다.

5) 4아함(阿含): 북방불교에 전해진 4종의 아함경. 아함은 ㉠āgama로서 법본(法本)·법장(法藏)·교법(敎法)·전교(傳敎)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전승되어온 교설이란 뜻을 갖는 말로써 전승된 부처 교법의 성전을 말하기도 하여 때로는 법(法)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자로는 아함(阿含)으로 음역하여 사용하였다. 초기불교시대에 불제자와 신자들이 들은 부처의 교법을 시나 짧은 산문 형식으로 구전으로 전해 오던 것을 교단이 확립되자 불타의 교설로 정리하였고, 점차 발전하여 특정한 문학 형식이 되어 성전을 이루게 된 것이 아함의 유래이다. 이 때문에 전승에 따라 여러 가지가 성립되게 되었다. 비교적 긴 형태의 것을 장아함(長阿含, ㉠Dirghāgama), 길지도 짧지도 않은 것을 중아함(中阿含, ㉠Madhyamāgama), 법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숫자가 커지는 것으로 분류하여 모은 증일아함(增一阿含, ㉠Ekottarikāgama), 여러 가지가 모인 잡아함(雜阿含, ㉠Saṃyuktāgama)의 4아함으로 나눈다. 이 북전에 비해 남방불교의 전승은 5부의 니카야가 있다. 대체로 장아함에 해당하는 것이 장부(長部, ㉠Dīgha-nikāya)이고, 중아함에 해당하는 중부(中部, ㉠Majjhima-nikāya), 증일아함에 해당하는 증지부(增支部, ㉠Anguttara-nikāya), 잡아함에 해당하는 상응부(相應部, ㉠Saṃyutta-nikāya) 외에 소부(小部, ㉠Khuddaka-nikāya)가 있다.

6) 녹원시(鹿苑時): 5시 중 제2시. 최초 설법 이후 두 번째로 녹야원에서 『장아함경』·『중아함경』·『잡아함경』·『증일아함경』의 네 가지 아함경을 설한 때를 말한다. 제2시에 대하여 가르침을 설한 장소로 이름할 경우 녹원시라 하고 설한 내용으로 이름할 경우 아함시(阿含時)라 한다.

7) 방등시(方等時): 5시 중 제3시. 부처님께서 성도 후 13년부터 20년까지의 8년 동안 『유마경』·『금광명경』·『능가경』·『승만경』·『무량수경』 등 방등부(方等部)에 포함되는 경전을 설한 때를 말한다. 방등부란 대승경전 가운데 『화엄경』·『반야경』·『법화경』·『열반경』 등 4부 경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전을 일컫는다.



伽經』<sup>10)</sup>. 『능엄삼매경(楞嚴三昧經)』<sup>11)</sup>. 『금광명경(金光明經)』<sup>12)</sup>. 『승만경(勝鬘經)』<sup>13)</sup> 등

- 8) 『유마경(維摩經)』: ㉔ Vimalakīrti-nirdeśa,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또는 『유마힐경(維摩詰經)』이라 하고, 『불가사의해탈경(不可思議解脫經)』 또는 『정명경(淨名經)』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7회 한역되었는데 그중 ①3권 405년(후진 홍치8년) 구마라집 한역, ②2권 오나라 지검 한역, ③6권 당나라 현장 한역본 등이 대표적이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문병하여 서로 주고받은 문답을 수록하고 있으며, 무주(無住)의 근본으로부터 일체법이 성립함, 삼라만상을 불이(不二)의 일법(一法) 중에 돌려보내는 법문, 최후에 유마거사가 말없이 있음으로써 불가언불가설(不可言不可說)을 표현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반야공사상에 바탕하여 대승보살의 실천도를 드높이고자 하는 경전으로 재가신도가 행해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고, 특히 유마거사가 경전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예로부터 재가불교의 중심 경전으로 널리 읽혀 왔다.
- 9) 『사익경(思益經)』: ㉔ Viśeṣacintābrahma-paripṛcchā, 『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 4권. 구마라집 한역. 망명(網明)과 사익범천 등을 위해 만유제법이 공적한(空寂)한 이유를 설한 경전이다.
- 10) 『능가경(楞伽經)』: ㉔ Lāṅkāvatāra-sūtra, ①4권 송나라 구나발다라 한역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②7권 당나라 실차난타 한역 『능가경』, ③10권 위나라 보리유지 한역 『입릉가경(入楞伽經)』 등이 있다. 부처님이 능가산에서 대혜(大慧)보살을 위하여 여래장(如來藏) 연기의 이치를 설한 경전이다. 세 계만유가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들의 인식작용의 대상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설한다. 서기 400년경의 인도 대승불교 후기 경전으로 꼽힌다. 여래장사상과 유식의 아뢰야식사상을 결합한 사상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대승기신론』 사상의 선구를 보이며, 선을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관찰의선(觀察義禪)·반연여선(攀緣如禪)·여래선(如來禪)의 4종으로 분류하여 선조요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후기 유익사상 특히 호법(護法)의 유익사상에 미친 영향이 크다.
- 11) 『능엄삼매경(楞嚴三昧經)』: ㉔ Śūraṅgama-mahā-sūtra,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수릉엄경(首楞嚴經)』이라고 한다. 후진 구마라집 한역의 『수능엄삼매경』 2권이 있다.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견(堅意)보살이 보리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삼매를 묻자 수릉엄삼매를 설하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삼매로 마경(魔境)을 여윌 수 있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 광명을 내어 일체의 마경을 드러내 수릉엄삼매로 물리쳤음을 설한 경전이다. 별본으로 당나라 반라미제 한역의 『대불정수릉엄경(大佛頂首楞嚴經)』 10권이 있는데, 이는 수선(修禪)·이근원통(耳根圓

을 설함), 넷째 반야시(般若時)<sup>14)</sup>〈『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sup>15)</sup>. 『광찬반야경(光讚般

通)·오음마경(五陰魔境)에 대하여 선법(禪法)의 요지를 말한 경전이다.

- 12) 『금광명경(金光明經)』: ㉔Suvāṇaprabhāsottama-sūtra, 4권. 북량 담무참 한역. 부처님이 기사굴산에서 신상(信相)보살이 부처님의 수명을 걱정하자 사방에서 사 불이 현신하여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설하였다. 금교광명(金鼓光明)의 교법과 금광명참법(金光明懺法)의 공덕을 설하였다. 그리고 사천왕이 국가를 지켜주고 세상에 이익을 주는 내용을 설하였다. 사천왕 숭배와 금광명참법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경전이다. 『法華經』·『仁王經』과 함께 국가불교의 3대 경전으로 꼽힌다. 그것은 이 경전을 독송하면 사천왕이 국가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 13) 『승만경(勝鬘經)』: ㉔Śrīmālā-siṃha-nāda-sūtra,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廣經)』, 1권. 유송 구나발마 한역. 『대보적경』 제119 승만 부인회와 동본이역. 사위국 파사익왕의 딸로서 아유사국으로 시집간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10대서원과 3대원을 세워 견해를 여쭙고, 부처님이 이를 기쁘게 받아 들인 내용의 경전이다. 여래장계 경전의 대표로 꼽힌다. 삼승의 가르침은 대승 일승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일승을 얻으면 여래법신을 얻는다고 하였다. 중생이 번뇌에 얽매어 있지만 그 본성은 청정무구하여 여래와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 여래장을 갖추고 있다고 설한다. 이 경은 재가 부인이 주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마경』과 함께 재가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다.
- 14) 반야시(般若時): 5시 중 제4시. 부처님이 방등시 다음으로 21년 동안 반야부의 모든 경전을 설하신 때를 말한다.
- 15)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 ㉔Mahā-prajñāpāramitā-sūtra, 당나라 현장이 한역한 600권의 『대반야바라밀다경』, 일반적으로 『대반야경(大般若經)』이라 한다. 반야경 계통의 경전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경전 성립 순서로 보면 도행반야(道行般若)와 소품반야(小品般若)가 가장 이르고, 그 다음이 대품반야와 금강반야(金剛般若) 등이며 그 후에 대반야경과 나머지 제부 반야가 나왔다. 그 시기는 대승경전 중기로 추정된다. 전체 반야경은 4처 16회 600권이다. 제1회는 79품 400권 13만 2600송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 10만송반야(Śat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2회는 85품 78권으로 대품반야이며 산스크리트본 2만5천송반야(Pañcaviṃśatisāhasr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3회는 31품 59권으로 산스크리트본 1만8천송에 해당한다. 제4회는 29품 18권으로 소품반야·도행반야에 해당하며 한다. 산스크리트본 8천송(Aṣṭ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5회는 24품 10권으로 4천송반야이다. 제6회는 17

若經』<sup>16)</sup>.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sup>17)</sup>.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sup>18)</sup> 등의 모든 반야경전을 설함, 다섯째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sup>19)</sup>이니, 이것이 오시이고 또한 5미(五味)<sup>20)</sup>라고도 이름한다.

품 8권으로 2500송반야이다. 제7회는 만수실리분(曼殊室利分) 2권으로 700송반야(Saptasatikā-prajñāpāramitā)에 해당한다. 제8회는 나가실리분(那伽室利分) 1권으로 400송반야에 해당한다. 제9회는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 1권으로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에 해당하는 300송분이다. 제10회는 반야이취분(般若理趣分) 1권으로 150송에 해당한다. 제11회는 보시바라밀다분(布施波羅蜜多分) 5권, 제12회는 정계바라밀다분(淨戒波羅蜜多分) 5권, 제13회는 안인바라밀다분(安忍波羅蜜多分) 1권, 제14회는 정진바라밀다분(精進波羅蜜多分) 1권, 제15회는 정려바라밀다분(靜慮波羅蜜多分) 2권, 제16회는 반야바라밀다분(般若波羅蜜多分) 8권으로 2500송에 해당한다.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란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뜻이다. 반야경 계통의 경설은 세상의 인식과 일체의 대상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진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야로 세속의 진정함 모습을 보아야 하며, 이렇게 절대진리를 파악하여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승불교의 기본 이론이다.

- 16) 『광찬반야경(光讚般若經)』: 10권. 서진 축법호 한역. 부처님의 혀에서 광명을 발하여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니 그 빛 속에서 연꽃이 나고, 연꽃 위마다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여 반야를 칭찬하므로 『광찬반야경』이라 한다. 대품반야의 초역본이라 한다.
- 17)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 ㉔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 1권. 후진 구마라집 한역. 부처님이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해 경계가 공(空)함, 지혜가 공함, 보살이 공함을 밝힌 경전이다.
- 18)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㉔ Pañcaviṃśati-sāhasikā-prajñāpāramitā 27권. 후진 구마라집 한역. 『대반야경』의 제2분(권401~478)을 따로 번역한 것이다. 축법호 역의 광찬반야(光讚般若) 10권, 무라차 역의 방광반야(放光般若) 20권이 동본이역이다.
- 19)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5시 중 제5시. 부처님 일대 중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한 최후의 8년간의 때를 말한다.
- 20) 5미(五味): 5시를 각각 다섯 가지 맛에 비유한 것. ①화엄시-유미(乳味), ②녹원시-낙미(酪味), ③방등시-생소미(生酥味), ④반야시-숙소미(熟酥味), ⑤법화열반시-제호미(醍醐味)이다.

팔교(八敎)라는 것은, 돈교(頓敎)<sup>21)</sup> · 점교(漸敎)<sup>22)</sup> · 비밀교(秘密敎)<sup>23)</sup> · 부정교(不定敎)<sup>24)</sup>, 장교(藏敎)<sup>25)</sup> · 통교(通敎)<sup>26)</sup> · 별교(別敎)<sup>27)</sup> · 원교(圓

- 
- 21) 돈교(頓敎): 천태종 화의사교 중 하나. 소승·대승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대승 일불승(一佛乘)의 법을 설하는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제일 먼저 『화엄경』을 설하여 가르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22) 점교(漸敎): 천태종 화의사교 중 하나. 소승에서 대승으로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설해주는 가르침. 즉 녹원(아함) · 방등 · 반야 · 법화열반의 순서대로 설하여 가르친 것이 이에 해당한다.
- 23) 비밀교(秘密敎): 천태종 화의사교 중 하나. 부처님께서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돈교(頓敎) 또는 점교(漸敎)를 설하지만, 다른 이가 들은 교법이나 그 이익됨을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 24) 부정교(不定敎): 천태종 화의사교 중 하나. 부처님께서 일음(一音)으로 설하지만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돈설(頓說)에서 점익(漸益)을 얻고 점설(漸說)에서 돈익(頓益)을 얻는 등 일정하지 않은 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 25) 장교(藏敎): 천태종 화법사교 중 제1교. 삼장교(三藏敎)라고도 한다. 경·율·논 삼장으로 설한 소승의 가르침이다. 지의는 “삼장교는 인연 생멸하는 사성제의 이치를 밝힌다. 바르게는 소승을 교화하고 부가적으로 보살을 교화한다. 삼장교란 첫째는 수다라장이요, 둘째는 비니장이요, 셋째는 아비담장이다.……지금 말하는 세가지 법의 이름은 각자 한 구절이며 세가지 이름은 각자 일체의 문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藏)이라고 한다. 아함은 정장(定藏)이니 4아함은 수행법을 많이 밝힌다. 비니는 계장(戒藏)이니 사로 인한 계를 제정하여 신업 구업의 악법을 방지함을 밝힌다. 아비담장은 혜장(慧藏)이니 무루의 지혜법은 비교할 수 없음을 분별한다.”(『四敎義』 권1 大46 p.721a29~b2; b13~17 第一釋三藏敎名者, 此敎明因緣生滅四聖諦理, 正敎小乘傍化菩薩. 所言三藏敎者, 一修多羅藏 二毘尼藏 三阿毘曇藏. ……今言三法之名各是一句, 三名各含一切文理, 故名藏也. 阿含卽是定藏, 四阿含多明修行法也. 毘尼卽是戒藏, 正明因事制戒防止身口之惡法也. 阿毘曇卽是慧藏, 分別無漏慧法不可比也.)라고 하였다.
- 26) 통교(通敎): 천태종 화법사교 중 제2교. 성문·연각·보살의 3승이 함께 받는 법. 부처님은 얕고 깊은 법을 함께 말하여 듣는 이의 근기가 낮으면 장교(藏敎)의 결과를 낮고, 근기가 수승하면 별교(別敎)와 원교(圓敎)의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교에, 뒤로는 별교와 원교에 통하는 가르침이다. 지의는 “통이란 같다는 뜻이다. 삼승이 같이 주기 때문에 통이라 한다. 이 가르침은 인연이

敎)<sup>28)</sup>이니 이것을 8교라 이름한다. 돈교 등 4교는 화의(化儀)<sup>29)</sup>이니 세간의 약의 처방<sup>30)</sup>과 같고,<sup>31)</sup> 장교 등 4교는 화법(化法)<sup>32)</sup>이라 이름하니 약의 맛

곧 공이며 무생인 네 가지 진제의 이치를 밝히니 대승의 초문이다. 바르게는 보살이 되고 부가적으로 이승에 통한다.”(四敎義 권1 大46 p.721c23~722a1 二釋通敎名者, 通者同也. 三乘同稟故名爲通. 此敎明因緣卽空無生四眞諦理, 是摩訶衍之初門也. 正爲菩薩傍通二乘.)라고 하였다.

27) 별교(別敎): 천태종 화법사교 중 제3교. 앞의 장교·통교가 삼계(三界) 안에 제한된 것이라면 별교는 삼계 밖의 세계에서 차별된 사상(事象)을 평등한 이체(理體)에 돌려보내어 사·리(事理)의 상즉(相卽)을 말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원교(圓敎)의 원융무애함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원교와 다르고 장교·통교와도 다르다는 의미에서 별교라 한다. 지의는 “별이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름이다. 이 가르침은 이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별교라고 한다. 이 가르침은 인연 가명으로 이루어진 무량한 사성제의 이치를 밝힌다. 요점은 보살을 교화하는데 있고 이승은 다루지 않으니 성문이 그곳에 있으면 귀머거리나 병어리와 같다.”(『四敎義』 권1 大46 p.722a17~20 三釋別敎名者, 別者不共之名也. 此敎不共二乘人說, 故名別敎. 此敎正明因緣假名, 無量四聖諦理, 的化菩薩不涉二乘, 故聲聞在座如聾如啞.)라고 하였다.

28) 원교(圓敎): 천태종 화법사교 중 제4교. 원융무애한 교법. 지의는 “원은 편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가르침은 부사의한 인연을 밝히니 이체의 중도가 사리에 귀속하여 치우치거나 별다른 것이 없다. 다만 최상의 예리한 근기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원교라 한다.”(四敎義 권1 大46 p.721b10~12 四釋圓敎名者, 圓以不偏爲義. 此敎明不思議因緣, 二諦中道事理具足不偏不別, 但化最上利根之人, 故名圓敎也.)라고 하였다.

29) 화의사교(化儀四敎): 부처님 일대의 교설을 설법한 형식[化儀]에 따라 4종으로 구별한 것. 돈교·점교·부정교·비밀교.

30) 약의 처방: 약제의 약 이름과 분량 등을 적은 것. 부처님 교설을 설법 형식으로 구별한 화의사교는, 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효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이름과 분량만을 기록한 약방문과 같다는 의미이다.

31) 관정(灌頂)은 『천태팔교대의(天台八敎大意)』에서 “돈교·점교·비밀교·부정교는 교화의 의식이니 비유하면 약의 처방과 같다”(『天台八敎大意』 大46 p.769a14 頓漸祕密不定, 化之儀式, 譬如藥方.)고 하였다.

32) 화법사교(化法四敎): 부처님 일대의 교설을 설법한 내용[化法]에 따라 4종으로

을 구별해내는<sup>33)</sup> 것과 같다.<sup>34)</sup> 이와 같은 의미들이 광문(廣文)<sup>35)</sup>에 산재해 있는데, 이제 대본(大本)<sup>36)</sup>에 의거하여 간략히纲要(綱要)를 초록한다.

陳隋國師天台智者大師，以五時八教，判釋東流一代聖教，罄無不盡。言五時者，一華嚴時，二鹿苑時(說四阿含)，三方等時(說維摩·思益·楞伽·楞嚴三昧·金光明·勝鬘等經)，四般若時(說摩訶般若·光讚般若·金剛般若·大品般若等諸般若經)，五法華涅槃時。是爲五時，亦名五味。言八教者，頓·漸·秘密·不定，藏·通·別·圓，是名八教。頓等四教，是化儀，如世藥方。藏等四教，名化法，

구별한 것. 장교·통교·별교·원교.

- 33) 약의 맛을 판별해내는: 약의 맛을 분별해 내는 것.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설법 내용으로 구별한 화법사교는, 구체적으로 약의 맛과 효능 등을 따져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 34) 관정(灌頂)은 『천태팔교대의(天台八教大意)』에서 “장교·통교·별교·원교는 교화한 바의 법이니 비유하면 약의 맛과 같다”(『天台八教大意』大46 p.769a15 藏通別圓, 所化之法, 譬如藥味.)고 하였다.
- 35) 광문(廣文): 천태종의 교리를 서술한 여러 가지 글. 특히 천태지의가 강설하고 장안관정이 필록한 법화 3대부 5소부를 일컫는다. 3대부는 『법화현의』 20권·『법화문구』 20권·『마하지관』 20권을 말하고, 5소부는 『관무량수경소』·『금광명경현의』·『금광명경문구』·『관음현의』·『관음경소』를 말한다.
- 36) 대본(大本): 천태지의가 지은 『사교의(四教義)』. 원래 6권인데 12권으로 통용됨. 제관의 『천태사교의』에 건주어 『대본사교의(大本四教義)』라고 한다. 지의가 지은 『정명현의(淨名玄義)』의 전반부를 나누어 사교의 6권, 사실단의(四悉檀義) 2권, 삼관의(三觀義) 2권의 3부분으로 나누었는데, (湛然, 『法華文句記』 권1중 大34 p.159b13~16 又淨名前玄總有十卷, 因爲晉王著淨名疏, 別製略玄. 乃離前玄分爲三部, 別立題目, 謂四教六卷, 四悉兩卷, 三觀兩卷.) 이 『사교의』는 그중의 하나이며, 별도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석사교명(釋四教名)·변소전(辨所詮)·명사문입리(明四門入理)·명판위부동(明判位不同)·명권실(明權實)·약관심(約觀心)·통경론(通經論) 등의 7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장·통·별·원 사교의 명칭과 교의를 분별하여 밝히고 여러 관점에 따라 사교의 같고 다를 것을 해설하였으며 사교에 의해 부처님 일대의 가르침을 논술하였다.

如辨藥味。如是等義，散在廣文，今依大本，略錄綱要。<sup>37)</sup>

## 2. 화의사교(化儀四教)와 오시(五時)

처음에 다섯 가지 때[五時]·다섯 가지 맛[五味]과 교화의 형식에 따른 네 가지 가르침[化儀四教]을 분별하고, 뒤에 장교·통교·별교·원교를 설명한다.

初辨五時五味及化儀四教，然後，出藏通別圖。

### 1) 돈교(頓教)

첫 번째 돈교란 곧 『화엄경(華嚴經)』<sup>38)</sup>이다. 경전의 내용[部]<sup>39)</sup>·때

37) 『천태사교의』 원문은 韓4 p.517b1~527c21.

38) 『화엄경(華嚴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⑤ Buddhāvataṃsaka-mahāvaiṣṭhāna-sūtra,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 중의 하나.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으로 석존이 깨달은 지 이칠일제에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자나불을 설주로 문수와 보현보살이 깨달은 내용을 설한 것이라 한다. 내용은 부처가 되는 인행(因行)과 과덕(果德)을 설한 것으로 십지(十地)를 비롯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의 보살 수행 계위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부인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보살행을 묻고자 53선지식을 찾아 구도 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듭되며 끝없이 전개되는 걸림 없는 연기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엄과 법장과 징관을 거치며 중국 화엄종이 형성되고 발전하여 화엄사상은 중국 교학불교의 가장 빼어난 사상이 되었다. 현재 산스크리트어본은 십지품과 입법계품 등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전체적인 경전의 구성은 대체로 서역지방에서 종합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번역한 60화엄, 당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 반야(般若)가 번역한 40화엄 등 세 가지가 있다.



[時]<sup>40)</sup>·맛[味]<sup>41)</sup>에 따라 돈(頓)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1) 화엄시(華嚴時)

이른바 여래(如來)<sup>42)</sup>께서 처음에 바른 깨달음[正覺]을 이루시어 적멸도량(寂滅道場)<sup>43)</sup>에 계시니 41위(位)<sup>44)</sup>의 법신대사(法身大士)<sup>45)</sup>와 과거세로

39) 부(部): 부(部)란 경부(經部)이니 경전의 내용이란 뜻이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正覺)을 이루신 후 바로 『화엄경』을 설한 것을 말한다.

40) 시(時): 가르침의 순서에 따른 시간의 구분. 『화엄경』에서는 해가 비추는 시간적인 순서에 다른 3조(三照) 곧 높은 산, 골짜기, 평지의 순으로 비추는 비유로써 경전의 내용을 구분하였다.

41) 미(味): 가르침의 내용을 맛으로 비유한 것. 『열반경』의 다섯 가지 맛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유미(乳味)·낙미(酪味)·생소미(生酥味)·숙소미(熟酥味)·제호미(醍醐味)의 비유이다. 소, 양, 말 등에서 나오는 우유와 우유로 만든 제품이 점차 양질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비교 구분하는 것이다. 불전에서는 이치의 열고 깊음을 비유할 때 젖[乳, kṣīra], 타락[酪, dadhi], 생소(生酥, navanīta), 숙소(熟酥, ghrta), 제호(醍醐, sarpīrmaṇḍa)에 비유하였다. 『열반경』 이전에 『장아함경』에도 이 비유가 나온다(권12 대1 p.112b1~5).

42) 여래(如來): ㉠tathāgata 여실(如實)한 진리로부터 와서 정각(正覺)을 이루신 존귀한 분. 여거(如去)라고도 번역한다.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는 tathā-gata(如去)와 tathā-āgata(如來)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여의 도를 타고 불과의 열반에 가기 때문에 여거(如去)라고 하고, 진리로부터 여실하게 와서 정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래(如來)라고 한다. 부처님은 진리를 타고 와서 진여로 인해 현실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여래라고 한다.

43) 적멸도량(寂滅道場): 석가모니가 깨달음[보리菩提 곧 적멸寂滅]을 얻은 장소인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金剛座). 역사적으로는 마가다국 가야성 남쪽의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 보통 『화엄경』을 설한 자리를 가리킴.

44) 사십일위(四十一位): 『화엄경』의 10주(十住)·10행(十行)·10회향(十回向)·10지(十地)·등각(等覺)의 41위 보살.

45) 법신대사(法身大士): 수행을 통해 중도법성(中道法性)을 체득하여 자유자재로 열반의 경지를 누리는 성불(成佛)한 대보살(大菩薩). 법신이란 법성을 체득한 몸이란 의미의 법성신(法性身)이며 법(法)·보(報)·응(應) 3신중의 법신과는 다



부터의 근기가 성숙한 천룡팔부(天龍八部)<sup>46)</sup>가 한꺼번에 둘러싸서 마치 구름이 달을 감싸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여래께서 노사나불(盧舍那佛)<sup>47)</sup>의 몸을 나타내어 원만한 경<sup>48)</sup>을 설하였으므로 돈교(頓敎)라고 말한다. 근기나 가르침의 내용으로 보면 방편을 겸한(兼權) 가르침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는데,<sup>49)</sup> “처음 마음을 일으켰을 때에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sup>50)</sup>와 같은 문장은 원만한 근기를 위하여 원교(圓敎)를 설한 것이고, 곳곳에서 수행의 차례를 설한 것은<sup>51)</sup> 방편을 필요로 하는 근기[權機]를 위하여 별교를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 내용으로 보면 돈(頓)이 되지만, 가르침으로 보면 겸(兼)이라 이름한다.

『화엄경』에서는 “마치 해가 떠서 먼저 높은 산을 비추는 때”<sup>52)</sup>〈제1시〉와

르다. 대사는 마하사트바(Ṣ mahāsattva)의 한역어로 보살과 같은 뜻이다.

46) 천룡팔부(天龍八部) :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 곧 팔부중(八部衆)을 말한다. 팔부중은 천(天, deva) · 용(龍, nāga) · 약차[夜叉, yakṣa] · 간다르바[乾闥婆, gandharva] · 이수라(阿修羅, asura) · 가루다[迦樓羅, garuḍa] · 긴나라(緊那羅, kimnara) · 마호라가[摩睺羅迦, mahoraga]이다.

47) 노사나불(盧舍那佛) : Ṣ Vairocana, 비로자나(毘盧遮那)라고도 번역한다. 『화엄경』을 설하는 교주. 구역 60권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로, 신역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로 번역하였다. 『화엄경』에 따르면 노사나불은 한량 없는 겁 동안 공덕을 수행하여 정각을 이루고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에 머물면서 대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며 털구멍에서 화신의 구름을 내어 끝없는 경전의 바다를 연출한다고 한다.

48) 원만한 경 : 수다라(修多羅)는 Ṣ sūtra의 음사어로서 경(經)으로 한역한다. 원만한 진리를 설한 경이니 『화엄경』을 일컫는다.

49) 방편을 겸한 가르침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한다[未免兼權]는 것은 원교(圓敎)의 진리와 별교(別敎)의 뜻을 모두 겸한 것으로 『화엄경』의 주된 내용은 원교이지만 여러 곳에서 별교를 겸하여 설하고 있으므로 겸권(兼權)이란 평가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50) 『화엄경』(60권본) 권8 大9 p.449c14

51) 『화엄경』에서 수행의 단계를 52위(位)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같다고 설하고, 『열반경』에서는 “비유컨대 소에서 우유가 나오는 것과 같다”<sup>53)</sup>고 하였으니, 이는 부처님으로부터 12부경<sup>54)</sup>(5미 중 첫 번째인 우유 맛)

- 52) 『화엄경』(60권본) 권34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에 나오는 4조유(照喻). “해가 뜨는 것과 같으니 먼저 일체 제대산왕을 비추고, 다음에 일체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금강보산을 비추고, 그런 다음에 일체 대지를 널리 비춘다.”(『華嚴經』 권34 大9 p.616b14~16 譬如日出, 先照一切諸大山王, 次照一切大山, 次照金剛寶山, 然後普照一切大地.) 이 구절을 가지고 해가 뜨면 ①제일 먼저 높고 큰 산의 꼭대기를 비추고, ②다음으로 모든 큰 산을 비추고, ③그 다음으로 모든 작은 산을 비추고, ④그런 후에 대지(大地)를 두루 비추는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하였다. 『화엄경』의 4조(照)를 천태지지는 3조(照)로 묶었다.

『화엄경』 4照	對機	천태 3照		五味	五時
① 先照諸大山王	- 普賢菩薩等	- ① 高山		- 乳	- 華嚴
② 次照一切大山	- 緣覺	- ② 幽谷		- 酪	- 鹿苑(阿含)
③ 次照金剛寶山	- 聲聞				
④ 然後普照大地	- 決定善根衆生	- ③ 平地	- 食時	- 生酥	- 方等
	- 一切衆生		- 禺中	- 熟酥	- 般若
				- 正中	- 醍醐

- 53) 『열반경』 성행품(聖行品)에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소에서 우유가 나오고, 우유에서 타락이 나오고, 타락에서 생소가 나오고, 생소에서 숙소가 나오고, 숙소에서 제호가 나오는 것과 같다. 제호는 최상이어서 이를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 모든 약이 모두 그 안에 들어간다. 선남자여. 부처님도 그와 같으시다. 부처님으로부터 12부경이 나오고, 12부경으로부터 수트라가 나오고, 수트라에서 방등경이 나오고, 방등경에서 반야바라밀이 나오고, 반야바라밀에서 대열반이 나온다. 이는 제호와 같으니, 제호는 불성에 비유할 수 있는데, 불성이란 곧 여래이다.”(『大般涅槃經』 권14 大12 p.449a6~13 譬如從牛出乳, 從乳出酪, 從酪出生酥, 從生酥出熟酥, 從熟酥出醍醐. 醍醐最上, 若有服者衆病皆除, 所有諸藥悉入其中. 善男子. 佛亦是. 從佛出生十二部經, 從十二部經出修多羅, 從修多羅出方等經, 從方等經出般若波羅蜜, 從般若波羅蜜出大涅槃. 猶如醍醐, 言醍醐者, 喻於佛性, 佛性者即是如來.)

- 54) 12부경(部經): 부처님 일대의 교설을 그 경문의 성질과 형식에 따라 12가지로 구분한 것. 12분경(分經) 또는 12분교(分敎)라고 한다. ① 수트라(Ṣ sūtra, 修多羅, 契經), ② 계야(Ṣ geya, 祇夜, 重頌), ③ 비야카라나(Ṣ vyākaraṇa, 和迦羅那, 授記), ④ 가타(Ṣ gāthā, 伽陀, 偈頌), ⑤ 우다나(Ṣ udāna, 優陀那, 無問自說), ⑥ 니다나(Ṣ

이 나온 것이다.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에 “곧 곁의 사람을 보내어 급히 뒤따라가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가난한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원망하며 크게 소리쳤다”<sup>55)</sup>고 한 것 등은 어떤 뜻을 가지는가?

답한다. “모든 성문(聲聞)<sup>56)</sup>들이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귀머거리나 병어리와 같았다”<sup>57)</sup>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第一頓教者，卽華嚴經也。從部時味等，得名爲頓。所謂如來初成正覺，在寂滅道場，四十一位法身大士，及宿世根熟天龍八部，一時圍繞，如雲籠月。爾時如來，現盧舍那身，說圓滿修多羅，故言頓教。若約機約教，未免兼權，謂“初發心時便成正覺”等文，爲圓機，說圓教，處處說行布次第，則爲權機，說別教。故約部爲頓，約教名兼。此經中云，“譬如日出，先照高山”〈第一時〉，涅槃云，“譬如從牛出乳”，此從佛出十二部經〈一乳味〉。法華信解品云，“卽遣傍人，急追將還，窮子驚愕，稱怨大喚”等，

---

nidāna, 尼陀那, 因緣), ⑦ 아바다나(Ṣavadāna, 阿波陀那, 比喻), ⑧ 이티비루아카(Ṣitivrūaka, 伊帝曰多伽, 如是語), ⑨ 자타카(Ṣjātaka, Ṣ陀伽, 本生), ⑩ 바이폴야(Ṣvaipulya, 毘佛略, 方廣·方等), ⑪ 아부타다르마(Ṣadbhuta-dharma, 阿浮陀達摩, 未曾有), ⑫ 우파데사(Ṣupadeśa, 優波提舍, 論議).

- 55) 『법화경』에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 데려오게 하였다. 이때 사자가 빨리 달려가서 붙잡으니 가난한 아들이 놀라서 원망하며 소리쳤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붙잡습니까?’”(『妙法蓮華經』 권2 大9 p.16c25~27 卽遣傍人, 急追將還. 爾時使者, 疾走往捉, 窮子驚愕, 稱怨大喚. ‘我不相犯, 何爲見捉?’)
- 56) 성문(聲聞) : Ṣśrāvaka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출가제자. 제자(弟子)라고 의역한다. 원래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제자를 말했는데, 후에 연각(緣覺)·보살(菩薩)과 대비되어 2승이나 3승의 하나로 불리게 되었다.
- 57) 소승의 성문(聲聞)은 원돈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화엄경』이 설해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귀머거리와 병어리처럼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此領何義? 答 “諸聲聞在座, 如聾若啞”等, 是也.

## 2) 점교(漸敎)

두 번째 점교(이 아래로 세 가지 때[三時]<sup>58)</sup>와 세 가지 맛[三味]<sup>59)</sup>을 모두 총괄하여 ‘점’이라 함)이다.

### (2) 녹원시(鹿苑時)

다음으로 삼승(三乘)<sup>60)</sup>의 근기와 성품을 지닌 이들이 돈교에서는 이익됨이 없었기 때문에 적멸도량[寂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녹야원[鹿苑]<sup>61)</sup>으로 유행(遊行)하셨다. 노사나의 보배 두른 옷을 벗어버리고 장륙

---

58) 여기의 삼시(三時)는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를 말한다.

59) 세 가지 맛[三味]은 우유 제품으로 비유한 낙(酪), 생소(生酥), 숙소(熟酥)를 말한다.

60) 삼승(三乘): 성문·연각·보살. 승(乘)은 중생을 생사를 건너 열반의 피안에 이르게 하는 태우는 도구와 같이 생각하여 하는 말로서, 성불에 이르는 가르침을 뜻한다. 그 근기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이 삼승이다. 성문(聲聞, ㉠śrāvaka)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이를 말한다. 연각(緣覺, 벽지불辟支佛, ㉡pratyeka-buddha)은 부처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 불법이 이미 없어졌으나 전생에 닦은 인연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은 독각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터득한 연각을 말한다. 보살(菩薩, ㉢bodhi-sattva)은 위로는 지혜로써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유정으로 6바라밀(波羅蜜)을 수행하고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원만하게 갖추어 용맹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의 이상적인 수행자이다. 이 삼승에 비해 불교의 가르침은 유일한 진리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불하게 한다는 일승(一乘)의 개념을 세워, 삼승은 방편이고 일승은 진실이라고 본다.

61) 녹야원[鹿苑]: 녹야원(鹿野苑).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7일 후에 처음으로 법륜(法輪)을 굴려 아야교진여(阿若憍陳如) 등 다섯 비구를 제도한 곳이다. 지금의 인도

(丈六)<sup>62)</sup>의 헤지고 더러운 옷<sup>63)</sup>을 입으셨다.

도솔천(兜率天)<sup>64)</sup>으로부터 내려와 마야부인의 태에 의탁하여 태 속에 머물다가 태에서 나와 탄생하셨고, 부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고, 출가하여 고행하다가 6년이 지난 후에 나무 보리수 아래로 가서 풀로 자리를 만 들고 앉아 열응신(劣應身)<sup>65)</sup>을 이루었다. 처음에 녹야원에서 먼저 다섯 사람<sup>66)</sup>을 위하여 네 가지 진리[四諦]<sup>67)</sup>, 열두 가지 인연법[十二因緣]<sup>68)</sup>, 여섯

바라나시의 북쪽에 있는 사르나트(Sarnath) 유적이 곧 녹야원의 터이다.

62) 장륙(丈六) : 1장 6척, 부처님을 말함. 부처님 재세시 일반인들의 키는 8척이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두배인 1장 6척이었다고 한다.

63) 헤지고 더러운 옷 :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화현함을 의미한다.

64) 도솔천(兜率天) : ⑤ Tusita, 욕계(欲界) 6천 중 네 번째 하늘, 지족천(知足天)·희족천(喜足天) 등으로 한역한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생활도구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팔정도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닳는 곳이다. 도솔천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으며 내원은 다음 생에 마지막으로 태어나서 성불할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이 머무는 곳으로 미륵이 여기에 머물며, 석가모니도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

65) 열응신(劣應身) : 삼장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 곧 보리수 아래에서 길상초를 깔고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삼장교의 근기를 위하여 사제(四諦)와 십이연기(十二緣起)를 설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일컬음. 불신을 법(法)·보(報)·응(應) 삼신으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둘로 나누어 말할 때 법신은 이(理)와 지(智)법신, 응신은 자수용신(自受用身)과 타수용신(他受用身), 응신은 승응신(勝應身)과 열응신으로 나누는데, 이 열응신은 2승과 범부에 대한 장륙의 화신을 말한다. 천태에서는 삼장교는 열응신, 통교는 승응신, 별교는 원만보신(圓滿報身), 원교는 청정법신(淸淨法身)으로 말한다.

66) 다섯 사람 :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할 때 부왕의 명으로 태자를 모시고 함께 수행한 다섯 사람. 태자가 고행을 그만두고 선정에 들자 태자를 떠나 녹야원에 가서 머물렀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으로 가서 처음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출가한 다섯 비구로서, 아야교진여(阿若橋陳如)·아습비·마하마남(摩男)·발제(跋提)·바부이다. 알비(頹鞞)·구리(俱利)

67) 네 가지 진리[四諦] : 고통(苦)·집(集)·멸(滅)·도(道)의 네 가지 진리. 사성제(四

가지 바라밀[六度]<sup>69)</sup>을 실천하는 것 등의 가르침을 설하였다.<sup>70)</sup>

만약 시간으로 보면 해가 깊은 골짜기를 비추는 때이고(제2시), 맛으로 보면 우유에서 낙(酪)<sup>71)</sup>이 나오는 것이니, 이는 12부경으로부터 9부경<sup>72)</sup>이 나오는 것이다(5미 중 두 번째인 낙(酪)의 맛).

『법화경』 신해품에서 “방편으로 은밀히 모습이 수척하고 파리하며 위엄과 덕망이 없는<sup>73)</sup> 두 사람(성문과 연각)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저기에 가서 가난한 내 아들에게, 너를 고용하여 똥을 치우게 하겠다고 천천히 말하라.’”<sup>74)</sup> 라고 한 것의 요지는 무슨 뜻인가?

---

聖諦)라고도 한다. 고제(苦諦)란 현실이 고(苦)임을 관하는 것, 집제(集諦)란 고(苦)의 원인은 번뇌의 모임임을 관하는 것, 멸제(滅諦)란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이상 곧 열반을 관하는 것, 도제(道諦)란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관하는 것이다.

68) 열두 가지 인연법[十二因緣]: 삼계에 대한 미혹(迷惑)의 인과를 12가지로 나눈 것.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처(六處)·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69) 여섯 가지 바라밀[六度]: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닦는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인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般若)이다. 앞의 4제·12인연과 달리 6바라밀은 실천법이므로 ‘행한다’는 의미의 ‘事’를 덧붙였다.

70) 여기서는 4제 12인연 6바라밀을 녹원시의 삼장교법으로 말하였다. 『법화경』에는 성문에게는 4제법, 연각(벽지불)에게는 12인연법, 보살에게는 6바라밀을 설한다고 하였다.(『妙法蓮華經』 권1 大9 p.3c22~26 爲求聲聞者, 說應四諦法, 度生老病死, 究竟涅槃. 爲求辟支佛者, 說應十二因緣法. 爲諸菩薩, 說應六波羅蜜, 令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成一切種智.)

71) 낙(酪): 우유를 처음 가공하여 만든 것. 응고된 우유나 크림을 말한다.

72) 9부경(部經): 대승 12부경 중 인연·비유·논의 3부를 제외한 것. 또는 소승 12부경 중에서 방광·수기·무문자설을 제외한 것.

73) 모습이 수척하고 파리하며 위엄과 덕망이 없는 이: 성문과 연각을 비유하는 말. 4제와 12인연을 깨달았지만 아직 대승의 도리는 알지 못하므로 모습이 마르고 초라하며 위엄과 덕망이 없는 이라고 한 것이다.

74) “이때 장자가 아들을 유인하고자 방편을 써서 형색이 초췌하고 위덕이 없는 두

답한다. 이는 다음으로 돈교 후에 삼장교(三藏敎)를 설하여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우게 함으로써 곧 견번뇌(見煩惱)<sup>75)</sup>와 사번뇌(思煩惱)<sup>76)</sup> 등을 깨뜨리도록 한다는 뜻이다.

### (3) 방등시(方等時)

다음으로 방등부(方等部)<sup>77)</sup>를 밝히니, 『정명경(淨名經)』<sup>78)</sup> 등의 경전이다. 치우친 것을 물리치고 작은 것[소승]을 꺾으며, 큰 것[대승]을 찬탄하고 원만한 것을 기리는 것이다.<sup>79)</sup> 장교·통교·별교·원교의 4교를 함께 설

사람을 몰래 보냈다. ‘그대들은 그곳에 가서 천천히 가난한 아들에게 말하시오. 「이곳에 일자리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것보다 배를 주겠다」고. 가난한 아들이 만일 허락하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시오. 만일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곧 말하기를 「당신을 고용해서 똥을 치우겠소. 우리들 두 사람이 당신과 함께 일을 할 것이오.»라고 하시오.’ 그때 두 사람이 가난한 아들을 구하여 데리고 와서 그 일을 모두 말하였다.” (『妙法蓮華經』 권2 大9 p.17a7~12 爾時長者將欲誘引其子, 而設方便, 密遣二人, 形色憔悴, 無威德者. “汝可詣彼, 徐語窮子. ‘此有作處, 倍與汝直.’ 窮子若許, 將來使作. 若言欲何所作, 便可語之, ‘雇汝除糞. 我等二人, 亦共汝作.’” 時二人使人即求窮子, 既已得之, 具陳上事.)

- 75) 견번뇌(見煩惱): 견혹(見惑)이라고도 한다. 사제의 이치에 미혹하여 일어나는 번뇌이다.
- 76) 사번뇌(思煩惱): 사혹(思惑)이라고도 한다. 낱낱 사물의 진상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번뇌이다.
- 77) 방등부(方等部): ⑤vaipulya 본래는 광대하고 깊은 뜻을 널리 설한다는 의미에서 대승을 뜻한다. 여기서는 대승경전 중에서도 화엄·반야·열반·법화 등의 4부를 제외한 모든 경전을 말한다.
- 78) 『정명경(淨名經)』: 『유마경(維摩經)』을 말함. 주57) 참조
- 79) 이는 방등부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곧 아함시에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이 궁극적 진리인 줄로만 알고 그것에 만족하려는 사람들에게 소승은 치우치고 작은 방편일 뿐이며 대승이야말로 크고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설하는 부류의 경전이 방등부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데 장교는 반자교(半字敎)<sup>80)</sup>라 하며, 통교·별교·원교는 만자교(滿字敎)<sup>81)</sup>라고 하니, 반(半)에 대하여 만(滿)을 설하기 때문에 대교(對敎)<sup>82)</sup>라고 한다.

만약 시간으로 보면 식사할 때이고〈제3시〉, 맛으로 보면 낙(酪)에서 생소(生酥)<sup>83)</sup>가 나오는 것이니, 이는 9부로부터 방등이 나오는 것이다(5미 중 세 번째 생소의 맛).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에 “이 일을 하며 보낸 이후로는<sup>84)</sup>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미덥게 하여 출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sup>85)</sup>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다<sup>86)</sup>”<sup>87)</sup>라고 한 것의 요지는 무슨 뜻인가?

답한다. 삼장교 이후에 다음으로 방등을 설한 것이다. 이미 도과(道果)<sup>88)</sup>

80) 반자교(半字敎): 궁극적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가르침이니 방편적인 소승의 가르침을 말한다.

81) 만자교(滿字敎): 원만하고 완전한 가르침이니 곧 대승의 가르침을 말한다.

82) 대교(對敎): 천태 5시 8교 중 제3 방등시에 해당하는 경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 소승의 가르침이 대승을 받아들이기 위한 초보적인 가르침일 뿐 결코 완전한 가르침이 아님을 밝혀 소승을 멸시하고 대승을 받드는 마음을 일으켜 소승으로부터 대승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83) 생소(生酥): 소(酥)는 연유(煉乳)이니 우유를 진공상태에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농축한 것이다. 생소는 연유 그대로인 상태이고 숙소는 생소를 숙성시킨 것.

84) 이 일을 하며 보낸 이후로: 궁자(窮子)가 장자의 집에서 똥 치우는 일을 하며 20년을 보낸 이후, 즉 대승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승을 익히는 시기를 보낸 이후라는 의미이다.

85) 대승의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비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86) 대승을 비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승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87) “이런 까닭에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우도록 하였다. 이 일을 하며 보낸 이후로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미덥게 하여 출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다.”(『妙法蓮華經』 권2 大9 p.17a27~29 由是之故, 於二十年中常令除糞. 過是已後, 心相體信, 入出無難, 然其所止, 猶在本處.)



를 얻어서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미덥게 하여 꾸밈음을 들어도 화내지 않으며 안으로 (소승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어서 (대승을 향한) 마음이 점점 순박하고 맑아졌다는 것이다.

#### (4) 반야시(般若時)

다음으로 『반야경(般若經)』을 설한다. 가르침을 굴리고 재물을 주어 원용하여 통하게 하고 (간극은) 도태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반야부 경전에서는 장교를 설하지 않고 통교와 별교를 겹하여 바르게 원교를 설한다. 시간으로 보면 웅중(禺中)<sup>89)</sup>이고〈제4시〉, 맛으로 보면 생소로부터 숙소(熟酥)<sup>90)</sup>가 나오는 것이니, 이는 방등 이후에 마하반야가 나오는 것이다〈5미 중 네 번째 숙소의 맛〉.

『법화경』 신해품에 이르기를 “이때에 장자가 병들어 스스로 오래지 않아 죽으리란 것을 알고 가난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많은 금은보배를 가져서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친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sup>91)</sup> 이것의 요지는 무슨 뜻인가?

답한다. 방등 다음으로 반야를 말씀하신 것을 밝힘이니, 반야관혜(般若觀慧)<sup>92)</sup>는 곧 가업이며 수보리(須菩提)<sup>93)</sup>와 사리불(舍利弗)<sup>94)</sup>이 명을 받아

88) 도과(道果): 소승의 아라한과(阿羅漢果)를 말한다.

89) 웅중(禺中):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90) 숙소(熟酥): 우유를 가공할 때 낙(酪)과 생소에 이어 만들어지는 것. 버터와 같은 것을 말한다.

91) “이때 장자가 병이 나서 스스로 머지 않아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가난한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많은 금은 보화를 창고에 가득 가지고 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다 알아야 한다.’”(『妙法蓮華經』 권2 大9 p.17a29~b2 爾時長者有疾, 自知將死不久, 語窮子言. ‘我今多有金銀珍寶, 倉庫盈溢. 其中多少, 所應取與, 汝悉知之.’)

가르침을 굴렸던 것이다. 곧 이것이 가장 요긴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맛은 화엄돈교에 대하여 모두 점교라고 한다.

第二 漸教者(此下三時三味, 總名爲漸). 次爲三乘根性, 於頓無益故, 不動寂場, 而游鹿苑. 脫舍那珍御之服, 著丈六弊垢之衣. 示從兜率降下, 託摩耶胎, 住胎, 出胎, 納妃生子, 出家苦行, 六年已後, 木菩提樹下, 以草爲座, 成劣應身. 初在鹿苑, 先爲五人, 說四諦 十二因緣 事六度等教. 若約時則日照幽谷(第二時), 若約味則從乳出酪, 此從十二部經, 出九部修多羅(二酪味). 信解品云, “而以方便, 密遣二人(聲聞 緣覺), 形色憔悴, 無威德者, ‘汝可詣彼, 徐語窮子, 雇汝除糞,’” 此領何義?

答 次頓之後, 說三藏教, 二十年中, 常令除糞, 卽破見思煩惱等義也.

---

92) 반야관혜(般若觀慧): 반야를 관상하는 지혜

93) 수보리(須菩提): 원문의 공생(空生)은 수보리를 말함. ㉔Subhūti,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 선업(善業)·공생(空生) 등으로 번역함. 브라만 출신으로 지혜가 뛰어났지만 화를 잘 내서 친구들이 그를 싫어하자 집을 나가 산림에 들어가 산신의 인도로 부처님께 이르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성내는 잘못을 설하시자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여 아라한과를 얻어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공의 이치를 아는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 해공제일(解空第一)로 꼽혔다.

94) 사리불(舍利弗): 원문의 신자(身子)는 사리불을 말함. ㉕Śāriputra, 부처님 10대 제자 중의 한 사람. 추로자(鶻鷲子)·사리자(舍利子) 또는 신자(身子)로 번역함. 외모가 단정하고 기예와 배다에 통달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두 논의에서 굴복시켰다. 어려서부터 이웃 마을의 목건련(目犍連)과 친하게 지냈는데 제전에서 사람들이 혼잡하게 노는 것으로 보고 무상을 느껴 출가하였다. 처음에는 외도 산자야 문하에서 배워 250인 제자 중의 으뜸이 되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얼마 안되어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 걸식 나온 제자 아설시(阿說示) 비구의 단정한 위의를 보고 목건련과 제자들과 함께 출가하여 지혜제일(智慧第一)로 꼽히게 되었다.

次明方等部, 淨名等經. 彈偏折小, 歎大褒圓. 四教俱說, 藏爲半字教, 通別圓爲滿字教, 對半說滿, 故言對教. 若約時則食時〈第三時〉, 若約味則從酪出生酥, 此從九部出方等〈三生酥味〉.

信解品云, “過是已後, 心相體信, 出入無難, 然其所止, 猶在本處,” 此傾何義?

答 三藏之後, 次說方等. 已得道果, 心相體信, 聞罵不瞋, 內懷漸愧, 心漸淳淑.

次說般若. 轉教付財, 融通淘汰. 此諸部般若中, 不說藏教, 帶通別二, 正說圓教. 約時則禺中時〈第四時〉, 約味則從生酥出熟酥, 此從方等之後, 出摩訶般若〈四熟酥味〉.

信解品云 “是時長者有疾, 自知將死不久, 語窮子言, ‘我今多有金銀珍寶, 倉庫盈溢, 其中多少, 所應取與, 汝悉知之.’”, 此傾何義?

答 明方等之後, 次說般若, 般若觀慧, 卽是家業, 空生身子, 受勅轉教, 卽是領知等也.

已上 三味對華嚴頓故, 總名爲漸.

### 3) 비밀교(秘密敎)

셋째 비밀교이다. 앞서 화엄시·녹원시·방등시·반야시의 사시(四時)를 설하는 중에 여래의 세 가지 바퀴[三輪]<sup>95)</sup>가 부사의(不思議)<sup>96)</sup>하기 때문에

95) 세 가지 바퀴[三輪]: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윤보(輪寶)를 여래의 신(身)·구(口)·의(意) 3업(業)의 뛰어난 작용에 비유한 것. 첫째는 신변륜(神變輪) 또는 신통륜(神通輪)이라 하니, 신통력을 나타내어 훌륭한 경지를 변화시켜 중생들이 발심하여 믿음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교계륜(敎誡論) 또는 설법륜

혹은 이 사람을 위해 돈교(頓敎)를 설하고 혹은 저 사람을 위해 점교(漸敎)를 설하여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서로 알지 못하지만 능히 이로움을 얻게 되므로 비밀교라 말한다.

第三 秘密敎者. 如前四時中, 如來三輪, 不思議故, 或爲此人說頓, 或爲彼人說漸, 彼此互不相知, 能令得益, 故言秘密敎.

#### 4) 부정교(不定敎)

넷째 부정교이다. 또한 앞서 우유의 맛[乳味]·낙의 맛[酪味]·생소의 맛[生酥味]·숙소의 맛[熟酥味]이라는 네 가지 맛으로부터 “부처님은 한 음성[一音]<sup>97)</sup>으로 설법하시지만 중생은 부류에 따라 각기 알아듣는다.”<sup>98)</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여래의 부사의한 힘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점교를 설하는 중에 돈교의 이익을 얻도록 하고, 돈교를 설하는 중에 점교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얻는 이익이 같지 않으므로 부정교라 말한다. 그런데 비밀교와 부정교 두 가르침, 그 속의 뜻과 이치가 다만 장교·통교·

---

(說法輪)이라 하니, 법문을 설하여 중생들이 사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에 들어가 발심하여 믿음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기심륜(記心輪) 또는 억념륜(憶念輪)이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먼저 마음으로 중생들의 근기 정도를 알아 적절하게 설법하시는데 차질이 없는 것을 말한다.

96) 부사의(不思議): 사유나 언어로도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일컫는 말.

97) 한 음성[一音]: 부처님은 항상 한 가지 음성으로 설법하므로 일음교(一音敎)라 한다. 대승·소승, 돈교·점교의 차별이 있는 것은 오직 중생 근기의 우열에 따른 것일 뿐 부처님은 늘 한 음성으로 중생교화를 펼친다는 뜻이다.

98) 여러 경전에 나오는 말. 『유마경』 권1(大14 p.538a2), 『대보적경(大寶積經)』 권62(大11 p.361b10),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권79(大27 p.410a16) 등에 나온다.

별교·원교일 뿐이다.<sup>99)</sup>

第四 不定教者. 亦由前四味中, “佛以一音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 此則如來不思議力, 能令衆生, 於漸說中, 得頓益, 於頓說中, 得漸益. 如是得益不同故, 言不定教也. 然秘密不定二教, 教下義理, 只是藏通別圓.

교화의 방식[化儀]인 네 가지 가르침은 이와 같다.<sup>100)</sup>

化儀四教齊此.

#### (5)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 ① 법화시

다음으로 『법화경(法華經)』<sup>101)</sup>을 설한다. 앞에서 돈교와 점교를 열어

- 
- 99) 비밀교와 부정교는 교화의 방식[儀]이지만, 방식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네 가지 가르침의 내용[法]인 장교·통교·별교·원교라는 말이다.
- 100) 교화의 방식인 네 가지 가르침은 이와 같다: 돈교·점교·비밀교·부정교인 화의사교는 이상의 내용과 같다는 말.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법화·열반시를 앞의 화엄시·녹원시·방등시·반야시 4시와는 확연히 구분함으로써, 법화·열반시가 화의사교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곧 앞의 4시[前四時]가 돈교·점교·비밀교·부정교, 장교·통교·별교·원교라는 여덟 가지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어, 뒤에 이어질 제5시는 비돈(非頓)·비점(非漸)·비비밀(非秘密)·비부정(非不定)이며 겸단대대(兼但對帶)가 없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밝힌 것이다.
- 101) 『법화경(法華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㉔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법화경』은 『반야경』으로 시작하여 차례로 등장한 대승불교 경전이 최고로 집대성, 완성된 경전이다. 묘법(妙法)이라는 말은 설한 교법이 미묘하고 위없이 훌륭하다는 것을, 연화경이란 이 경전이 결백이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승의 부파 교학이 지나치게 형식을 중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된 뜻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여,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나 비유 또는 상징 등 문학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불타의 영원함을 찬탄하였다.[久遠

[開]<sup>102)</sup> 돈교도 아니고 점교도 아닌 것으로 회통(會通)하여 들어가게[會入]<sup>103)</sup> 하기 때문에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開權顯實]<sup>104)</sup> 고 말하고, 또 방편을 없애고 진실을 세운다[廢權立實]<sup>105)</sup> 고 하며 또는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會三歸一]<sup>106)</sup> 고도 말한다. 방편과 진실이란 그 명칭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모두 통하지만<sup>107)</sup> 의미는 같지 않으니, 법화 이전의 가

實成]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교의와 문학적으로 불타 교설의 진의를 잘 나타냈다는 점에서 불교사상과 불교문학 상에서 불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이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간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사상이 중심을 이룬다. 한역본으로는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사나굴다와 달마굽다가 공역한 『첨품법화경(添品法華經)』 7권 등이 있다

- 102) 열어[開]: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의 법문을 열어 보임으로써 방편을 없애도록 하는 것. 곧 가려진 장애를 열어서 보이게 한다는 뜻으로, 중생의 무명을 깨뜨려 진리를 보는 것을 말한다.
- 103) 회통(會通)하여 들어가게[會入]: 방편이 그대로 진실한 법이라고 회통시켜서 진실한 법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 104)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開權顯實]: 개(開)란 열다, 권(權)이란 방편으로서 삼승교(三乘敎), 현(顯)이란 드러냄, 실(實)이란 진실로서 일승교(一乘敎)를 말한다. 곧 부처님 성도 후 진실한 가르침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중생의 근기가 미숙하여 알아듣기 어려움을 보고, 중생을 진실한 가르침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삼승교를 펼쳐 진실한 것처럼 말하고, 40여 년 후 중생의 근기가 성숙해졌을 때 『법화경』을 설하여 삼승은 그 본성에 있어 다르지 않아 그대로 일승에 포섭되며 삼승교는 일승의 진실한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교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 105) 방편을 없애고 진실을 세운다[廢權立實]: 법화시에 이르러 이전의 삼승교가 방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편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일승의 진실만을 나타내어 성립시킨다는 뜻이다.
- 106)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會三歸一]: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이라는 삼승의 세 가지 차별이 없어져서 삼승이 다함께 하나의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가 성불하게 된다는 뜻이다.

르침에서는 방편과 진실이 같지 않고 대승과 소승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sup>108)</sup>

가령 화엄시(華嚴時)에 한편으로 방편을 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원교는 진실이고 별교는 방편이다<sup>109)</sup>〉을 설하였으므로 각기 서로에게 나아가지 [相卽] 않아 대승이 소승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승이 비록 자리에 있어도 귀머거리나 병어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法門)이 비록 광대하고 원만하지만 (모든) 근기를 포섭하는 것은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여래가 세상에 출현한 본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처음의 돈부(頓部)<sup>110)</sup>에는 하나의 거침〈별교〉과 하나의 묘함〈원교〉이 있는데, 하나의 묘함은 법화와 더불어 둘도 아니고 서로 다르지도 않지만, 이와 같은 하나의 거침인 (별교는) 모름지기 법화를 기다려 (방편을) 열어 (일승으로) 모이게 하여 (방편을) 없애는 것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묘(妙)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녹원시(鹿苑時)은 오직 거침만 있을 뿐 묘함이 없고 〈장교〉, 다음 방등시(方等時)는 세 가지 거침〈장교·통교·별교〉과 하나의 묘함〈원교〉이 있으며, 다음 반야시는 두 가지 거침〈통교·별교〉과 하나의 묘함〈원교〉이 있다.

법화 회상에 이르러 앞의 네 가지 맛의 거침을 모두 열고 모으고 없애어

107) 명칭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모두 통하지만: 명자(名字) 상으로는 이전의 아함시·녹원시·방등시·반야시의 4시나 지금의 법화시에 모두 통한다는 뜻이다.

108) 이전의 4시에서 방편과 진실은 각기 구분되어 있고 대승의 보살이나 소승의 성문과 연각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 제각각일 뿐이란 뜻이다. 따라서 방편이 곧 진실이고 대승과 소승이 구별 없이 하나의 일불승으로 귀입(歸入)되는 법화시와는 의미상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109) 『화엄경』은 원교(圓敎)를 설한 경전이지만 별교(別敎)도 함께 설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방편이라고 한다.

110) 돈부(頓部): 돈교에 해당하는 경전이니 여기서는 『화엄경』을 말한다.

일승의 묘함을 이루도록 한다. 모든 맛 가운데 원교는 다시 열지 않아도 본래부터 저절로 원용하므로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이들 경전에서는 겸하여 설하고 단지 장교만 설하며 상대하여 설하고 끼워 설하였으므로[兼但對帶]<sup>111)</sup> 법화의 순박하고 한결같아 잡되지 않음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화가) 홀로 ‘묘(妙)’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문(經文)에 이르기를<sup>112)</sup> “시방의 부처님 국토에는 오직 일승 법만 있으며 이승(二乘)도 없고 또한 삼승(三乘)도 없다”<sup>113)</sup>〈가르침은 하나[教一]<sup>114)</sup>〉고 하고, “바르고 곧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위없는 도(道)를 설할 뿐이다”<sup>115)</sup>〈수행은 동일함[行一]〉고 하며, “다만 보살을 위할 뿐 소승은 위하지 않으며”<sup>116)</sup>〈수행하는 이는 동일함[人一]〉 “세간의 모습은 영원히 머무른다”<sup>117)</sup>

111) 겸하여 설하고 단지 장교만 설하며 상대하여 설하고 끼워 설하였으므로[兼但對帶]: 겸(兼)은 제1화엄시에 원교의 곁으로 별교를 겸하여 설하였다는 것. 단(但)은 제2아함시에 장교만을 설하였다는 것. 대(對)는 제3방등시에 장·통·별·원의 4교를 함께 설하여 그 우열을 비교하되, 대승에 대하여 소승을 깨뜨리고 원교에 대하여 별교를 깨뜨린다는 것. 대(帶)는 제4반야시에 별교·원교에 통교를 끼워 설하였다는 것.

112) 경문(經文)에 이르기를: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113) 『법화경』 권1(大9 p.8a17~18 十方佛土中, 唯一乘法, 無二亦無三, 除佛方便說.)

114) 가르침은 하나[教一]: 『법화현의(法華玄義)』에 나오는 사일(四一) 중 하나. 사일이란 일불승을 드러냄에 교(教)·행(行)·인(人)·이(理)의 네 가지에 나아가 그 뜻을 밝힌 것. 교일(教一)은 모든 수행인에 대하여 교법(教法)은 하나뿐인 것, 행일(行一)은 모든 수행은 동일한 것, 인일(人一)은 수행하는 이의 근본은 동일하여 성문·연각·보살 등의 차별이 없다는 것, 이일(理一)은 깨달은 진리는 오로지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115) 『법화경』 권1(大9 p.10a19)

116) 『법화경』에는 동일한 문장은 없으며 “제보살을 교화하여 성문제자는 없다”(권1 大9 p.10b06 教化諸菩薩, 無聲聞弟子.)는 구절 정도가 의미가 같은 부분이다. 계승



〈진리는 하나(理一)〉라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아직 법화의 오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다만 경전 속에 있는 ‘세 가지 수레[三車]’<sup>118)</sup>, ‘가난한 아들[窮子]’<sup>119)</sup>, ‘가짜 성[化城]’<sup>120)</sup> 등의 비유만을 보며 다른 경전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시(四時)의 방편을 거듭 들어, 유독 큰 수레만을 드러내고,

---

이 아닌 이런 취지의 문장은 “제불여래께서는 단지 보살만을 교화하셨으니 모든 지은 바는 항상 한 가지 일이어서 오직 부처의 지견으로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셨다. 사리불이여! 여래께서는 단지 일승법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어 2승이나 삼승같은 나머지 승이 없다.”(『妙法蓮華經』 권1 大9 p.a29~b3 諸佛如來但教化菩薩, 諸有所作, 常爲一事, 唯以佛之知見示悟衆生, 舍利弗! 如來但以一佛乘故, 爲衆生說法, 無有餘乘, 若二若三.) 같은데서 찾아볼 수 있다.

- 117) 『법화경』 권1(大9 p.9b10 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
- 118) 세 가지 수레[三車]: 『법화경』 비유품(比喻品)에 나오는 세 수레[三車]와 한 수레[一車]의 비유. 불타는 집에서 자식들을 끌어내기 위해 방편으로 양·사슴·소가 끄는 세 가지 수레가 있다고 말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모든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양·사슴·소가 끄는 수레는 각기 성문·연각·보살을 비유한 것으로서 방편의 가르침에 속하며,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일불승(一佛乘)을 비유한 것으로서 진실의 가르침에 속한다. 자식들에게 모두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를 일불승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 119) 가난한 아들[窮子]: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에 나오는 가난한 아들의 비유. 장자(長者)의 아들이 집을 국토를 떠돌다가 50여 년이 지나 거지 신세로 장자의 마을로 왔으나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도망가자 아버지가 방편을 써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에게 재물과 보배를 물려주고 가업을 맡겼다는 이야기이다. 가난한 아들은 소승, 재물과 보배는 대승의 가르침, 장자는 부처님에 비유한 것이다.
- 120) 가짜 성[化城]: 『법화경』 화성유품(化城喻品)에 나오는 가짜 성의 비유. 사람들이 홀륭한 길잡이를 따라 5백유순의 험난한 길을 지나 보물이 있는 성에 가는데, 도중에 사람들이 지쳐 돌아가려 하자 길잡이가 묘술로 가짜 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충분히 쉬게 한 다음 길을 떠나 보물성까지 무사히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이다. 길잡이는 부처님, 가짜 성은 방편으로 시설한 삼승, 보물성은 일불승을 의미한다.

단지 가업을 맡기며, 오직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허물을 짓기에 이른다.

시간으로 보면 동근 해가 정오(正午: 낮 12시)에 이르러 곁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sup>121)</sup>〈제5시〉. 맛으로 보면 숙소(熟酥)로부터 제호(醍醐)<sup>122)</sup>가 나오는 것이니, 이는 마하반야(摩訶般若)로부터 법화(法華)가 나오는 것이다<sup>123)</sup>〈다섯 째 제호의 맛〉.

『법화경』 신해품에 이르기를 “친족들을 불러 모아 곧 스스로 선언하기를, ‘이 아이는 실로 나의 아들이며 나는 실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내 아들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가업을 물려주니 가난한 아들이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것을 터득하였다”<sup>124)</sup>라고 하였으니 이 말

121) 한 낮의 해가 정 중앙에 떠서 모든 만물을 두루 비추는 것이 마치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받아 모든 중생이 성불함을 비유한 것이다.

122) 제호(醍醐):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가장 훌륭한 맛의 제품. 정제된 버터와 같은 것을 말한다. 우유가 크림과 같은 낙이 되고, 낙이 신선한 버터와 같은 생소가 되고, 생소가 버터와 같은 숙소가 되고, 숙소가 정제된 버터와 같은 제호가 된다고 하여 이를 불법의 이치의 심화에 비유한다.

123) 『법화현의』나 『법화문구』에는 “마하반야로부터 대열반이 나왔다.”(『妙法蓮華經玄義』 권10 大33 p.808b1~2 故云從摩訶般若, 出大涅槃. : 『妙法蓮華經文句』 권6 大34 p.86c9~10 是從摩訶般若, 出大涅槃, 卽第五味也.)고 하였다.

124) “임종하려 할 때 그 아들과 친족과 국왕 대신 귀족 거사 등을 모두 다 모이게 하고 선언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로 저의 소생입니다. 아무개 성에서 저를 떠나 도망갔는데 오십년 동안이나 고생하였습니다. 아이의 원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옛날에 원래 성에 있을 때 걱정하여 내내 찾았는데 홀연히 이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실로 저의 자식이며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일체의 재물은 모두 아들의 것입니다. 들고 나가 하는 것은 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곧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것을 터득하였습니다.’”(『妙法蓮華經』 권2 大9 p.17b8~16 臨欲終時, 而命其子并會親族 國王 大臣 剎利 居士, 皆悉已集, 卽自宣言. “諸君當知. 此是我子, 我之所

의 요지는 무슨 뜻인가?

답한다. 즉 반야를 설한 뒤에 다음으로 법화를 설한 것이니, 먼저 창고에 보관한 모든 물건을 알게 한 후 임종할 때에 곧바로 가업을 전해준 것일 뿐이다.<sup>125)</sup> 앞서 가르침을 펼쳐 법문을 다 알게 하였으므로 법화시를 설하여 부처님의 지견[佛之知見]<sup>126)</sup>을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고 [開示悟入]<sup>127)</sup> 수기(授記)<sup>128)</sup>하여 부처가 됨을 비유한 것이다.

---

生. 於某城中, 捨吾逃走, 伶俜辛苦五十餘年. 其本字某, 我名某甲. 昔在本城, 懷憂推覓, 忽於此間遇會得之. 此實我子, 我實其父. 今我所有一切財物, 皆是子有, 先所出內, 是子所知.” “世尊! 是時窮子聞父此言, 即大歡喜, 得未曾有.)

125) 『법화경』 신래품 궁자유(窮子喻)의 전개를 5시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거지 아들이 놀라 달아난 것은 화엄시에 속함[窮子驚愕華嚴時], ②돈을 받고 인분을 치우게 된 일은 아함시에 속함[除糞定價阿含時], ③익숙해져 출입에 자유로움은 방등시에 속함[出入自在方等時], ④보물을 알게 함은 반야시에 속함[令知寶物般若時], ⑤가업을 전해준 법화시에 속함[傳付家業法華時]이다.

126) 부처님의 지견[佛之知見]: 제법실상의 이치를 깨닫고, 비취보는 부처님의 지혜.

127)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고[開示悟入]: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하기 위한 차례. 개(開)는 개발(開發)의 뜻으로 중생의 무명을 없애고 여래장(如來藏)을 열어 실상의 이치를 드러남을 말한다. 시(示)는 현시(顯示)한다는 뜻으로, 미혹의 장애가 이미 제거되면 지견의 체가 드러나고 법계의 만덕(萬德)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말한다. 오(悟)는 증오(證悟)의 뜻으로 장애가 제거되고 체가 드러난 후에 사(事: 현상)와 이(理: 본체)가 융섭하여 깨달음이 있게 됨을 말한다. 입(入)은 증입(證入)의 뜻으로 사리(事理)가 이미 융섭하여 지혜의 바다를 증득하여 들어감을 말한다.

128) 수기(授記): ㉠vyākaraṇa 기별(記別)을 받음. 수기나 기별은 본래 교설을 분석하거나 문답방식으로 교리를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는 12부경의 하나를 말한다. 이후 문답방식으로 제자가 증득한 것·사후(死後)의 생처 등을 예언하는 것으로 변하였고, 특히 미래세의 증과(證果)와 성불하였을 때의 명호(名號)를 예언하는 말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별을 받는 수기(授記)는 부처가 될 것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 ② 열반시(涅槃時)

다음으로 『대열반경(大涅槃經)』<sup>129)</sup>을 설한다.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미숙한 이를 위해 다시 네 가지 가르침을 설하는데, 불성(佛性)을 갖추어 말해주며 진실로 상주함(眞常)<sup>130)</sup>을 갖추어 대열반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가르침[拈捨教]<sup>131)</sup>이라 이름한다.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하는 시기[末代]<sup>132)</sup>의 둔한 근기를 가진 중생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모든 인과는) 끊어져 (몸과 마음) 사라진다는 견해[斷滅

129) 『대열반경(大涅槃經)』: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㉔ Mahā-parinirvāṇa-sūtra. 한역은 북량 담무참(曇無讖) 번역의 『대반열반경』 40권 18품이 있고, 법현(法顯)의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6권 18품과 이 두가지 번역본을 송의 혜엄·혜관·사령운 등이 중합한 36권 25품의 『열반경』이 있다. 이를 남본열반경이라 하고, 이에 대비하여 담무참 역본을 북본열반경이라 한다. 여래의 상주(常住)와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일천제(一闍提)도 성불할 수 있다는 등의 교의가 중심이다. 일체중생 성불의 의의를 분명히 한 경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30) 진실로 상주함(眞常): 대승의 대열반에 갖추어진 네 가지 덕(德)인 상(常)·락(樂)·아(我)·정(淨) 중 하나인 상(常)을 말한다. 상(常)은 상주(常住)이며, 대열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멸변화가 없는 덕이라는 뜻이다.

131)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가르침[拈捨教]: 천대중에서 『법화경』을 대수교(大收教: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길러 가을에 모두 거두어들이는 가르침.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켜 마침내 삼승을 일불승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비유)라 하는 데 대하여 『열반경』을 일컫는 말. 석존은 『법화경』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였으나 그 래도 빠진 이를 위하여 『열반경』을 말하였으므로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열반경』을 군습교(拈捨教)라 부른다.

132)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하는 시기[末代]: 불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기에 따라 변천하는 모습을 정법시대(正法時代)·상법(像法)시대·말법(末法)시대 등 셋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말법시대를 말대(末代) 또는 말세(末世)라고도 한다. 이 때는 교법이 쇠퇴하여 오직 교(敎)만 있고 교에 따르는 행(行)이나 그 행을 인(因)으로 하여 얻어지는 과(果)로서의 깨달음[證]은 없다고 한다. 시간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은데 대체로 석가입멸 후 500년을 정법 시대로, 그 다음 1000년을 상법 시대, 그 뒤의 1만년을 말법의 시대로 구분한다.

見]<sup>133)</sup>를 일으켜서 지혜의 명[慧命]을 빨리 손상시키고 법신(法身)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 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하나의 원만한 진실을 잡도록 하므로 계율(戒律)을 붙들고 (불성의) 상주(常住)하는 이치를 설한 가르침[扶律談常教]<sup>134)</sup>라 이름한다.

그러나 때와 맛으로 논한다면 『법화경』과 같지만, 그 경전으로 논한다면 순수하고 잡됨이 조금 다르다.<sup>135)</sup> 그러므로 경문에 “마하반야로부터 대열반이 나온다”<sup>136)</sup>고 하였고, 앞의 『법화경』과 이 경을 합하여 제5시라고 한다.

묻는다. 이 『열반경』이 4교를 갖춘 것이 앞의 방등부(方等部)에서 4교를 갖추어 설한 것과 같은가, 다른가?

답한다. 이름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방등의 4교에서 원교(圓敎)는 처음부터 끝까지<sup>137)</sup> 모두 (불성의) 영원함을 알고, 별교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133) (모든 인과는) 끊어져 (몸과 마음이) 사라진다는 견해[斷滅見]: 인과(因果)의 도리를 부정하고 업(業)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목숨이 다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사라져 공무(空無)로 돌아간다고 하는 허무주의적 견해이다.

134) 계율(戒律)을 붙들고 (불성의) 상주(常住)하는 이치를 설한 가르침[扶律談常敎]: 부처님께서 불멸 후 중생들이 ‘부처님 또한 입멸하여 영원히 상주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다시 외도의 경전을 읽고 계(戒)와 가르침의 수레[乘]을 버리고 해명을 손상시킬 일이 생길까 염려하여, 『열반경』에서 계율을 설하여 계문을 수행함을 돕고 또한 불성의 상주하는 이치를 설하여 승문(乘門)을 붙드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따라서 『열반경』의 가르침을 ‘부울담상교’라 하고, 또한 『열반경』은 말대중생이 법신의 해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말대속명열반(末代贖命涅槃)’이라 한다.

135) 법화는 순박하고 항상되며 잡됨이 없는 원교(圓敎)로서 묘한 가르침인데 반하여 열반은 방편으로서의 네 가지 가르침을 다시 설하므로 순수하고 잡됨이 조금 다르다고 한 것이다.

136) 『법화현의』 권10(大33 p.808b1~2)와 『법화문구』 권6(大34 p.86c9~10)

137) 52위 수행계위 중 진여(眞如)를 보기 이전의 범부위(凡夫位)부터 진여를 본 이후부터 묘각위(妙覺位) 까지를 말한다.

끝에 가서야 알며,<sup>138)</sup> 장교와 통교는 처음이나 끝이나 모두 모른다.<sup>139)</sup> (하지만) 열반의 4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안다.<sup>140)</sup>

묻는다. 5미(五味)를 가지고 5시(五時)의 가르침에 대응시키는 그 뜻은 무엇인가?

답한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만 서로 생겨나는 차례만을 취한 것이니, 소[牛]를 부처에 비유하고 다섯 가지 맛을 가르침에 비유하여, 우유가 소로부터 나오고 낙(酪)이 우유로부터 생기며, 두 가지의 소(酥, 생소와 숙소)와 제호(醍醐)도 차례대로 나와 순서가 뒤섞이지 않으므로 다섯 가지 때를 서로 생겨나는 순서에 비유한다. 둘째는 진하고 열음을 취한 것이니, 이는 첫 번째로 낮은 근성(根性)을 취한다. 이른바 성문·연각 2승의 근성이 화엄시의 자리에 있었지만 믿지도 알아듣지도 못하여 범부의 성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그 우유에 비유한다. 다음으로 녹원시에 이르러 경·율·론 삼장(三藏)의 가르침을 듣고 성문·연각 2승의 근성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범부의 근기를 변화시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우유가 변화하여 낙이 되는 것에 비유한다. 다음으로 방등시에 이르러 성문을 배척하는 말을 듣더라도 대승을 흠모하고 소승을 부끄러워하여 통교의 이익을 얻으므로 마치 낙이 변화하여 생소(生酥)가 되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반야시에 이르러 칙명을 받들어 가르침을 굴러 마음이 점점 통하고 커져서 별교의 이익을 얻으므로 마치 생소가 변화하여 숙소(熟酥)가 되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법화시에 이르러 삼주설법(三周說法)<sup>141)</sup>을 듣고 수기(授記)를 얻어

138) 별교에서 처음이란 10회향위(廻向位)까지, 끝이란 초지(初地) 이상을 말한다.

139) 장교와 통교에서는 공(空)의 이치를 깨달음을 목적으로 할 뿐이므로 아직 불성의 상주함을 깨닫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140) 열반은 법화를 설하고 난 이후이므로 열반에서 설하는 4교는 모두 불성의 상주를 안다.

부처가 되니 마치 숙소가 변화하여 제호(醍醐)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가장 둔한 근기를 말한 것으로, 다섯 가지 맛을 모두 거쳐야만 된다. 그 다음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거친다. 최상으로 통달한 근성은 맛 마다 법계의 실상으로 들어가는데 어찌 반드시 법화의 열어 없애고 모아 들어가는[開會]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次說法華. 開前頓漸, 會入非頓非漸, 故言開權顯實, 又言廢權立實, 又言會三歸一. 言權實者, 名通今昔, 義意不同, 謂法華已前, 權實不同, 大小相隔. 如華嚴時, 一權一實(圓實別權), 各不相即, 大不納小, 故小雖在座, 如聾若瘡. 是故所說法門, 雖廣大圓滿, 攝機不盡, 不暢如來出世本懷. 所以者何? 初頓部, 有一麤(別教)一妙(圓教), 一妙則與法華, 無二無別, 若是一麤, 須待法華, 開會廢了, 方始稱妙. 次鹿苑, 但麤無妙(藏教), 次方等, 三麤(藏通別)一妙(圓教), 次般若, 二麤(通別)一妙(圓教). 來至法華會上, 總開會廢前四味麤, 令成一乘妙. 諸味圓教, 更不須開, 本自圓融, 不待開也. 但是部內, 兼但對帶, 故不及法華淳一無雜, 獨得妙名, 良有所以也. 故文云“唯十方佛土中, 有一乘法, 無二亦無三”(教一), “正直捨方便, 但說無上道”(行一), “但爲菩薩, 不爲小乘”(人一), “世間相常住”(理一). 時人未得法

141) 삼주설법(三周說法):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본문(本門)과 적문(迹門)으로 나누어 해석하는데, 적문 설법의 중심부분을 셋으로 구분하여 상 중 하 근기에게 반복 설법하였다는 것. 제일근기에게 삼승과 일승의 법을 설하는 법설주(法說周)로 방편품(方便品)을 말하며, 다음 근기에게 세 수례의 비유 등 비유로써 설하는 비유설주(比喩說周)로 비유품(譬喩品)을 말하며, 최하의 근기를 위해 속세의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 회상의 일승 근기들에게 과거 구원겁 동안의 기연을 알서 깨닫게 한다는 부분인 인연설주(因緣說周)로 화성유품(化城喩品)을 말한다.



華妙旨，但見部內，有三車·窮子·化城等譬，乃謂不及餘經。蓋不知重舉前四時權，獨顯大車，但付家業，唯至寶所，故致誹謗之咎也。約時則日輪當午，罄無側影(第五時)。約味則從熟酥出醍醐，此從摩訶般若，出法華(五醍醐味)。

信解品云，“聚會親族，即自宣言，‘此實我子，我實其父，今吾所有，皆是子有，’付與家業，窮子歡喜，得未曾有，”此領何義？答 即般若之後，次說法華，先已領知庫藏諸物，臨命終時，直付家業而已，譬前轉教，皆知法門，說法華時，開示悟入佛之知見，授記作佛而已。

次說大涅槃者。有二義，一爲未熟者，更說四教，具談佛性，令具眞常，入大涅槃，故名拈捨教。二爲末代鈍根，於佛法中，起斷滅見，夭傷慧命，亡失法身，設三種權，扶一圓實，故名扶律談常教。然若論時味，與法華同，論其部內，純雜小異。故文云“從摩訶般若，出大涅槃。”前法華合此經，爲第五時也。

問 此經具四教，與前方等部，具說四教，爲同爲異？

答 名同義異，方等中四，圓則初後俱知常，別則初不知後方知，藏通則初後俱不知，涅槃中四，初後俱知。

問 將五味，對五時教，其意如何？

答 有二。一者，但取相生次第，所謂牛譬於佛，五味譬教，乳從牛出，酪從乳生，二酥醍醐，次第不亂，故譬五時相生次第。二者，取其濃淡，此則取一番下劣根性，所謂二乘根性，在華嚴座，不信不解，不變凡情故，譬其乳。次至鹿苑，聞三藏教，二乘根性，依教修行，轉凡成聖故，譬轉乳成酪。次至方等，聞彈斥聲聞，慕大恥小，得通教益，如轉酪成生酥。次至般若，奉勅轉教，心漸通泰，得別教益，如轉生酥成熟酥。次至法華，聞三



周說法，得記作佛，如轉熟酥成醍醐。此約最鈍根，具經五味。其次者，或經一二三四。其上達根性，味味得入法界實相，何必須待法華開會？

이제까지 5미, 5시, 화의4교를 기록하니 대강 이와 같다.

上來已錄，五味 五時 化儀四教，大綱如此。

### 3. 화법사교(化法四教)

이 아래로는 화법사교<sup>142)</sup>를 밝힌다.

自下，明化法四教。

#### 1) 삼장교(三藏教)

첫 번째 삼장교란, 첫째 수다라장(修多羅藏)<sup>143)</sup>〈네 가지 아함<sup>144)</sup> 등의 경전〉, 둘째 아비담장(阿毘曇藏)<sup>145)</sup>〈『구사론(俱舍論)』<sup>146)</sup>과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sup>147)</sup>

142) 부처님의 교설을 내용에 따라 장교·통교·별교·원교의 네 가지로 분류한 것.

143) 수다라장(修多羅藏): 경·율·론 삼장 중 하나. 수다라(修多羅)는 ㉠sūtra의 음사어이며 ‘경(經)’으로 한역하니, 수다라장은 곧 경장(經藏)이다.

144) 네 가지 아함: 앞의 총설(總說) 각주 5) 참조.

145) 아비담장(阿毘曇藏): 경·율·론 삼장 중의 하나. 아비담(阿毘曇)은 ㉠abhidharma의 음역이며 논(論)으로 한역한다. 곧 아비담장은 논장(論藏)이다.

146) 『구사론(俱舍論)』: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의 약칭. ㉠Abhidharmaśāstra. 인도의 세친(世親 ㉠Vasubandhu)이 지었고 651년에 당(唐)의 현장(玄奘)이 30권으로 한역하였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견해를 바탕으로 경

등의 논서), 셋째 비니장(毘尼藏)<sup>148)</sup>〈다섯 부파의 율장[五部律]<sup>149)</sup>〉이다. 이러한 삼장(三藏)의 명칭은 대승과 소승에 두루 통하지만 여기서는 소승의 삼장만을 취한다. 『대지도론(大智度論)』<sup>150)</sup>에서 “가전연자(迦旃延子)<sup>151)</sup>는 본래 총명하고 예리한 근기를 가져서 『대비바사론』 중에서 삼장의 뜻을 밝혔

량부(經量部)와 대중부(大眾部) 등의 교설에 대한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유부 교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소승 학자의 이론을 널리 수용하고 『대비바사론』의 교리를 많이 수용하였다.

- 147)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의 약칭. ㉔Abhidharmamahāvibhāṣā-śāstra. 부처님 입멸 후 4백년 경 카니쉬카왕이 카슈미르지방에 5백 아라한을 불러 모아 삼장을 주석토록 하였는데 그 중 논장으로 『대비바사론』을 지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본문 내용의 연구를 통해 현재는 카니쉬카왕 이후 나가르주나 이전 시기인 서기 100년에서 150년 경 카슈미르지방에서 편찬되었다고 추정한다. 당의 현장이 200권으로 한역하였다. 가전연(迦旃延)이 지은 『발지론(發地論)』에 대한 여러 논사의 주석을 배경으로 하여 설일체유부의 교학을 비판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다. 주 논점은 삼세실유(三世實有)와 법체항유론(法體恆有論)이다. 이 『대비바사론』의 편집에 의해 부파불교의 교의가 크게 선양되었고, 대승불교의 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48) 비니장(毘尼藏): 경·율·론 삼장 중 하나. 비니(毘尼)란 ㉔vinaya의 음역으로 율(律)로 한역하니, 비니장은 곧 율장(律藏)이다.
- 149) 다섯 부파의 율장[五部律]: 부파불교시대의 다섯 부파(部派)의 율장. 오부율이란, 법장부(法藏部)의 『사분율(四分律)』, 유부(有部)의 『십송율(十誦律)』, 화지부(化地部)의 『오분율(五分律)』, 음광부(飲光部)의 『해탈율(解脫律)』, 대중부(大眾部)의 『마하승가율(摩訶僧祇律)』이다.
- 150) 『대지도론(大智度論)』: Mahāprajñāpāramita-śāstra. 인도의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가 짓고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100권으로 한역하였다. 『지론(智論)』·『지도론(智度論)』·『대론(大論)』·『석론(釋論)』·『마하반야석론(摩訶般若釋論)』·『대지석론(大智釋論)』이라고도 한다.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자세히 풀이한 책이다. 학설·사상·용례·전설·역사·지리·실천규정·승가의 해설 등이 매우 상세하고 인용 경론이 원시성전을 포함하여 부파의 제 논서와 대승 경전 그리고 승론 등 인도사상에까지 광범위하여 당시 교학의 백과사전이라 불려도 좋을 대승불교 이해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는데, 대승의 경전<sup>152)</sup>을 읽지 않았다면 대보살(大菩薩)이 아니다”<sup>153)</sup> 라고 말하였고, 또 『법화경』에서는 “소승에 탐착하여 삼장을 배우는 이”<sup>154)</sup>라 하였다. 이와 같은 문장에 의거하여 지자(智者) 대사는 소승만을 일컬어 삼장교라 한 것이다. 이 삼장교에는 삼승의 근성이 있다.

먼저, 성문인(聲聞人)은 태어나고 사라지는 네 가지 진리[生滅四諦]<sup>155)</sup>의 가르침에 의지한다. 네 가지 진리[四諦]란, 첫째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진리[苦諦]<sup>156)</sup>이다. 25가지의 세계[二十五有]<sup>157)</sup>의 의보(依報)<sup>158)</sup>와 정

151) 가전연자(迦旃延子): ㉔ Kātyāyanī-putra. 서기전 150년~50년 경에 활동한 설일체유부의 논사.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라고도 한다. 설일체유부의 학설을 바탕으로 당시 부파불교 간에 논쟁이 벌어졌던 문제들을 여덟 가지로 분류 논술한 『발지론(發智論)』을 저술하였다.

152) 대승의 경전: 연경(衍經)이란 마하연경(摩訶衍經)의 줄임말. 마하연(摩訶衍, ㉔ mahā-yāna)은 대승(大乘)이라 번역한다. 따라서 연경 곧 마하연경은 대승경전을 말한다.

153) 이 구절은 『대지도론』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절은 관정(灌頂)의 『천태팔교대의』에 그대로 실려 있다.(大46 p.769b26~27 論云, 迦旃延子自以聰明利根, 於婆沙中明三藏義, 不讀衍經非大菩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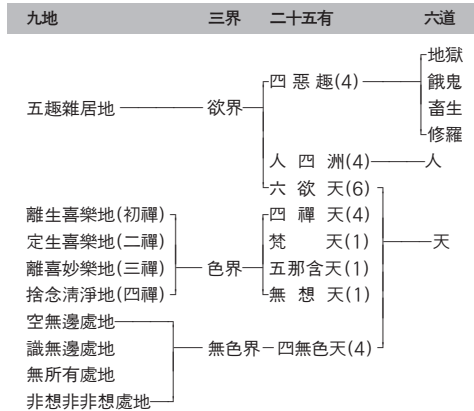
154) 『법화경』 권5(大9 p.37b23~24)

155) 태어나고 사라지는 네 가지 진리[生滅四諦]: 천태종에서 『열반경』의 교설에 따라 세운 네 가지 사제(四諦)인 생멸(生滅)사제·무생(無生)사제·무량(無量)사제·무작(無作)사제의 하나. 지의는 이 4종 사제를 장교·통교·별교·원교의 사교에 배당하여 설명하였다.

156)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진리[苦諦]: 사성제(四聖諦) 중 하나.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三界)에서 태어나고 죽는 과보는 안락한 것이 아니라 곧 괴로움이라는 것을 바르게 관찰하여 오류가 없게 하는 것으로, 오직 불보살과 성인들의 지혜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제(聖諦)라 한다.

157) 25가지의 세계[二十五有]: 유(有)란 보유한다는 뜻으로서 생사윤회하는 세계를 말한다. 어떤 과보(果報)에는 반드시 그럴만한 원인[因]이 있으며, 현재의 업(業)이 또한 미래의 과보를 초래하므로 그 과보를 유(有)라 한다.

보(正報)<sup>159)</sup>라는 두 가지 과보가 바로 이것이다. 25가지의 세계란 사주(四洲)<sup>160)</sup>, 사악취(四惡趣)<sup>161)</sup>, 육욕천(六欲天)<sup>162)</sup>과 범천(梵天)<sup>163)</sup>, 사천



158) 의보(依報) : 전세(前世)의 업에 따라 얻은 2종의 과보 중 하나. 의보란 오온(五蘊)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신체가 의지하여 사는 산하대지와 국토, 의복과 음식 등을 일컬음.

159) 정보(正報) : 의보(依報)의 상대어. 과거의 선하고 악한 업에 따라 감득하는 과보의 바른 몸체. 정보는 중생[衆生世間]을, 의보는 중생이 의지하는 곳인 세계[國土世間]를 말한다.

160) 사주(四洲) : 수미산의 사방에 있는 네 개의 대주(大洲)이니, 남쪽의 엄부제(閼浮提 ㉔ Jambu-dvīpa, 섬부瞻部洲), 동쪽의 불바제(弗婆提 ㉕ Pūrva-vidēha, 승신주勝身洲), 서쪽의 구야니(嚧耶尼 ㉖ Aparā-godānīya, 우화주牛貨洲), 북쪽의 울단월(鬱單越 ㉗ Uttara-kuru, 구로주俱盧洲)이다.

161) 사악취(四惡趣) : 육도중생(六道衆生) 중 악취(惡趣)에 해당하는 네 가지 중생. 곧 이수라, 축생, 아귀, 지옥을 말한다.

162) 육욕천(六欲天) :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삼계 중 욕계에 속하는 여섯 하늘. 곧 아래로부터 사천왕천(四天王天), 도리천(忉利天), 야마천(夜摩天), 도솔천(兜率天), 화락천(化樂天),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다.

163) 범천(梵天) : 색계의 제1천인 초선천(初禪天)이다. 범왕천(梵王天)이라고도 한다. 범천에 다시 세 하늘이 있으니 대범천(大梵天), 범보천(梵輔天), 범중천(梵衆天)이다. 세 하늘 모두 대범천이 주재하거나 교화하거나 그를 돕는 하늘이므로 이들 셋을 대범천이 사는 범계(梵界)라고 한다.

천(四禪天)<sup>164</sup>과 사공처천(四空處天)<sup>165</sup>, 무상(無想)<sup>166</sup>과 오나함천(五那含天)<sup>167</sup>이다. <사주와 사취가 8이 되고, 여기에 욕욕천과 범왕천(梵王天)<sup>168</sup>을 더하면 15가 되고, 사선천과 사공처천을 더하면 23이 되며, 무상천과 나함천을 합하면 25가 된다.<sup>169</sup> 나누어보면 25가지의 세계이지만 총괄하면 육도(六道)<sup>170</sup>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지옥도(地獄道)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날락가(捺洛迦 śnaraka)<sup>171</sup> 또는 니려(泥梨 śniraya)<sup>172</sup>라고 하며 ‘고통을 주는 도구[苦具]<sup>173</sup>’라고 번

- 
- 164) 사선천(四禪天) : 색계의 제1선천(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이다. 제1·2·3천에 각각 3천, 4천에 8천이 있어 모두 17천이 된다. 앞에서 초선천인 범천을 언급했으니 이 부분은 중복된다.
- 165) 사공처천(四空處天) : 무색계(無色界)의 네 천이니, 공무변처천(空無邊處天), 식무변처천(識無邊處天), 무소유처천(無所有處天),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天)이다.
- 166) 무상천(無想天) : 색계 제4선천 중 8천이 있는데 그 중 제3 광과천(廣果天) 가운데에 있는 하늘. 이 하늘에 태어나면 모든 생각이 없으므로 무상천이라 한다. 윤투부와 경량부에서는 광과천 중의 것으로 따로 말하지 않으나, 상좌부에서는 광과천 위에 별도로 세운다.
- 167) 오나함천(五那含天) : 소승 4과(果) 중 아나함과(阿那含果 : 不還果)를 증득함으로 써 머물게 되므로 나함천이라고 한다. 색계 제4선천에 8천이 있는데 제4 무변천(無煩天)부터 제5 무열천(無熱天), 제6 선견천(善見天), 제7 선현천(善現天), 제8 색구경천(色究竟天)까지의 다섯 하늘이다.
- 168) 범왕천(梵王天) : 범천(梵天). 주 206) 참조
- 169) 이 범주에 의하면 25유의 숫자가 맞다. 욕계에 14유, 색계에 7유, 무색계에 4유가 된다. 그러나 인간계를 4구분하고, 천 중에서 범천과 무상천 및 나함천이 중복되고, 사선천은 17천을 4개 범주로 보았으므로 다른 천의 범주와 비중이 맞지 않아 철저한 구분에 따른 헤아림과는 차이가 있다.
- 170) 육도(六道) : 중생이 그 지은 업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 즉 지옥도·아귀도·축생도·아수라도·인간도·천도이다.
- 171) 날락가(捺洛迦 śnaraka) : 지옥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음역어 중 하나.
- 172) 니려(泥梨 śniraya) : 지옥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음역어 중 하나.

역한다.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이 땅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 한다. 팔한지옥(八寒地獄)<sup>174)</sup>과 팔열지옥(八熱地獄)<sup>175)</sup> 등의 큰 지옥은 각기 권속을 두는데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지은 업(業)에 따라 각기 가볍고 무거우며 오랜 세월(劫數)<sup>176)</sup>을 지내는 수량 등의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심한 곳은 하루 동안에 8만4천 번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겁(劫)을 지낸다. 상품(上品)<sup>177)</sup>의 다섯 가지 역행[五逆]<sup>178)</sup>과 열 가지 악행[十惡]<sup>179)</sup>을 지은 중생이 지옥도의 몸을 받는다.

둘째는 축생도(畜生道)<sup>180)</sup>이다. 또한 방생(旁生)<sup>181)</sup>이라고도 한다. 이 축

173) 고통을 주는 도구[苦具]: 지옥(地獄)을 산스크리트어 뜻대로 번역한 말. 고기(苦器)라고도 한다.

174) 팔한지옥(八寒地獄): 매우 차가운 추위로 고통 받는 여덟 지옥. 알부타(頻浮陀)·이랄부타(尼剌部陀)·알찰타(頻嘶陀)·학학파(隲隲婆)·호호파(虎虎婆)·울발라(唵鉢羅)·발특마(鉢特摩)·마하발특마(摩訶鉢特摩) 지옥이다.

175) 팔열지옥(八熱地獄): 매우 뜨거운 열기로 고통 받는 여덟 지옥. 등활(等活)·흑승(黑繩)·중합(衆合)·규환(叫喚)·대규환(大叫喚)·초열(焦熱)·대초열(大焦熱)·무간(無間) 지옥이다.

176) 오랜 세월[劫數]: 겁(劫)은 1kalpa의 음역어인 겁파(劫波)의 줄인 말. 겁은 인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가장 긴 시간을 말한다.

177) 상품(上品): 악업을 상·중·하품으로 나눌 때 가장 나쁜 상품.

178) 다섯 가지 역행[五逆]: 가장 나쁜 다섯 가지 중죄.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화합승가를 깨뜨리는 것이다.

179) 열 가지 악행[十惡]: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나쁜 행동 열 가지. 생명을 해치는 것[殺生], 훔치는 것[偷盜], 나쁜 음행을 하는 것[邪淫], 두 말하는 것[兩舌], 나쁜 말 하는 것[惡口], 기이한 말 하는 것[綺語], 거짓말하는 것[妄語],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痴].

180) 축생도(畜生道): 12tirayagyonigati, 업에 의해 윤회하는 6도의 하나. 도적질하고 살생하는 등의 악업을 지은 이가 나게 되는 곳. 고통이 많고 즐거움은 적으며 식욕

생도는 모든 곳[諸處]<sup>182)</sup>에 두루 있는데<sup>183)</sup> 몸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돋으며, 비늘이나 딱딱한 등껍질로 덮여 있거나 날개가 있고, 발이 네 개이거나 많고, 발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물로 물으로 하늘로 다니며 서로 삼키고 씹으며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중품(中品)의 다섯 가지 역행과 열 가지 악행을 지은 중생이 이 축생도의 몸을 받는다.

셋째는 아귀도(餓鬼道)<sup>184)</sup>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사려치(閻黎哆)<sup>185)</sup>라고 하는데, 이 아귀도 역시 모든 취[諸趣]<sup>186)</sup>에 두루 있다. 복덕이 있는 아귀는 산림이나 무덤 또는 사당의 신이 되고, 복덕이 없는 아귀는 깨끗하지 않은 곳에 사는데, 음식을 얻지 못하고 항상 채찍질을 당하며 강을 메우고 바다를 막으며 무량한 고통을 받는다. 아첨하고 속여 하품(下品)의 다섯 가지 역행과 열 가지 악행을 지으면 이 아귀도의 몸을 받는다.

---

만 강하고 지혜가 없어 부자 형제의 윤리가 없어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산다.

181) 방생(旁生): 업에 의해 가게 되는 삼악도의 하나인 축생(畜生)을 일컫는 말. 인천(人天)의 정도(正道)가 아니므로 방생이라고 한다. 방생(傍生)이라고도 하는데, 태(胎)가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방생이라고 한다. 『구사론기』에 “방생이란 그 취에 난 대부분의 중생이 몸을 눕혀서 살기 때문이요, 또는 그 취의 중생 중 조금은 옆으로 기어다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류가 많기 때문이요, 대부분 어리석으므로 방생이라 한다.”(권8 大41 p.151b19 言傍生者, 彼趣多分身橫住故, 或彼趣中容有少分傍行者故, 又類多故, 多愚癡故, 名曰傍生.)고 하였다.

182) 모든 곳[諸處]: 중생계인 육도(六道)의 모든 곳.

183) 모든 곳에 두루 있으며: 축생은 지옥·아귀·아수라·인간·천상 등 모든 곳에 두루 있다는 말.

184) 아귀도(餓鬼道): ⑤pretagati, 업에 의해 윤회하는 6도의 하나. 간탐, 질투 등의 악업을 지은 이가 나게 되는 곳. 아무 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도 있고, 사람이 남긴 물건이나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아귀도 있다.

185) 사려치(閻黎哆): ⑤preta 벽려다(薛荔多)·폐려다(閔戾多) 등으로 음역하고, 아귀도(餓鬼道)·귀도(鬼道) 등으로 번역한다. 육도의 하나.

186) 모든 취[諸趣]: 중생계인 육도(六道)에 태어나는 모든 곳.

넛째는 아수라도(阿修羅道)<sup>187)</sup>이다. 무주(無酒)<sup>188)</sup>, 또는 무단정(無端正)<sup>189)</sup>, 또는 무천(無天)<sup>190)</sup> 등으로 한역한다. 간혹 바닷가나 바다 밑에 있고, 궁전은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항상 싸우는 것을 좋아하며 끝없이 무섭고 두렵다. 과거 인위(因位)에 있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서, 비록 오상(五常)<sup>191)</sup>을 실천했지만 남을 이기려 하였기 때문에 하품(下品)의 열 가지 선행[十善]<sup>192)</sup>을 실천하면 아수라도의 몸을 받는다.

다섯째는 인도(人道)이다. 사주(四洲)<sup>193)</sup>가 다르니, 동쪽은 불바제(弗婆提)〈오백세<sup>194)</sup>를 누린다〉, 남쪽은 염부제(閼浮提)〈백세<sup>195)</sup>를 누린다〉, 서쪽은 구

187) 아수라도(阿修羅道) : ㉠ asura. 업에 의해 태어나는 욕도의 하나. 아수라는 본래 인도의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흔히 악신으로 간주되었다. 그가 인드라신인 제석천(帝釋天)과 싸워 싸움을 그치지 않아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출현하는 곳이 아수라장(阿修羅場)이라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이다.

188) 무주(無酒) : 아수라의 한역어 중 하나. 산스크리트어 아수라(Asura)에서 아(A)는 무(無), 수라(sura)는 주(酒)로 한역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아수라가 사천하의 꽃을 따서 술을 빚으려 하였으나 술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른다.

189) 무단정(無端正) : 아수라의 한역어 중 하나. 아수라의 용모가 대부분 단정하지 않은 것에 근거한 말이다.

190) 무천(無天) : 아수라의 한역어 중 하나. 비천(非天)이라고도 한다. 아수라에게는 하늘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른다.

191) 오상(五常) :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192) 열 가지 선행[十善] : 열 가지 악행[十惡]의 반대말. 십선도(十善道)라고도 한다. 십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십선이라 한다. 살생하지 않음[不殺生], 도둑질하지 않음[不偷盜], 사된 음행을 하지 않음[不邪淫], 두 말하지 않음[不兩舌], 나쁜 말을 하지 않음[不惡口], 기이한 말을 하지 않음[不綺語], 거짓말하지 않음[不妄語], 탐욕하지 않음[不貪慾], 성내지 않음[不瞋恚], 사된 견해를 갖지 않음[不邪見].

193) 사주(四洲) :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네 곳의 섬.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동쪽은 불바제(弗婆提), 남쪽은 염부제(閼浮提), 서쪽은 구야니(瞿耶尼), 북쪽은 울단월(鬱單越)이다.

194) 여기에 소개한 사주의 수명은 대체로 『기세경(起世經)』과 비슷한데, 약간 수정하면 『구사론(俱舍論)』의 것이 더 비슷하다. 『기세경』에는 “여러 비구들이



야니(瞿耶尼)<일백 오십세<sup>196)</sup>를 누린다>, 북쪽은 울단월(鬱單越)<일천세를 누린다. 중간에 요절하는 것이 없지만 성인이 그 가운데에서 태어나지 않으므로 즉 팔난(八難)<sup>197)</sup> 중 하나이다>로, 모두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다. 과거 인위에 있을 때 오상(五常)과 오계(五戒)를 실천하였다. 오상이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고, 오계는 살생하지 않음[不殺]·도둑질하지 않음[不盜]·삿된 음행을 하지 않음[不邪淫]·망령된 말을 하지 않음[不妄語]·술을 마시지 않음[不飲酒]이다. 중품의 열 가지 선한 일을 지으면 이 인도의 몸을 받는다.

여섯째는 천도(天道)이다. 28천(天)이 같지 않다<육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우선 육계 6천이란 첫째는 사천왕천(四天王天)<수미산 허리에 산다>이고, 둘째는 도리천(忉利天)<수미산 꼭대기에 살며 33천이 있다. 이상 사천왕천과 도리천

여. 염부제 사람은 수명이 1백년이고 중간에 요절한다. 구다니 사람은 수명이 2백년이고 역시 요절한다. 불바제 사람은 수명이 3백년이고 역시 요절한다. 울단월 사람은 수명이 1천년이고 요절하지 않는다.”(권7 대1 p.344b23~26 諸比丘, 閻浮提人, 壽命百年, 中有夭逝. 瞿陀尼人, 壽命二百, 亦有夭逝, 弗婆提人, 壽命三百, 亦有中夭. 鬱單越人, 定壽千年, 無有夭殤.)라고 하였고, 『구사론』에는 “북 구로인 수명이 1천년, 서 우화인은 수명이 5백년, 동 승신인은 수명이 250년, 남 섬부인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권11 대29 p.61b6~8 北俱盧人定壽千歲, 西牛貨人壽五百歲, 東勝身人壽二百五十歲, 南瞻部人壽無定限.)라고 하였다. 이 불바제주의 수명은 『기세경』에는 3백년, 『구사론』에는 2백5십년이어서, 2백5십을 5백으로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195) 『기세경』에는 1백년, 『구사론』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기세경』을 인용한 셈이다.

196) 『기세경』에는 2백년, 『구사론』에는 5백년이어서, 5백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197) 팔난(八難): 부처님을 뵈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하는 여덟가지 어려운 경계. ①지옥, ②아귀, ③축생, ④장수를 즐겨 구도심이 생기지 않는 장수천(長壽天), ⑤즐거움이 너무 많은 변방 지역인 울단월, ⑥인간 중의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감각장애자, ⑦세속지 뿐이라 정리를 따르지 못하는 세지변충(世智辯聰), ⑧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인 불전불후(佛前佛後).

은 상품 십선을 닦아 그 중에 태어날 수 있다)이며, 셋째는 야마천(夜摩天)이고, 넷째는 도솔천(兜率天)이며, 다섯째는 화락천(化樂天)이고, 여섯째는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다.(이상의 4천은 허공에 거주하며, 상품의 열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고 아울러 미도정(未到定)<sup>198</sup>)에 이르러 그 가운데 태어난다) 다음으로 색계 18천은 4선으로 나뉘니, 초선천의 3천과(범중천(梵衆天)·범보천(梵輔天)·대범천(大梵天)), 이선천의 3천과(소광천(少光天)·무량광천(無量光天)·광음천(光音天)), 삼선천의 3천과(소정천(少淨天)·무량정천(無量淨天)·변정천(遍淨天)), 사선천의 9천이다(무운천(無雲天)·복생천(福生天)·광과천(廣果天) 이상 3천은 범부가 사는 곳이며 상품의 열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고 좌선하는 자가 이 가운데 태어날 수 있다. 무상천(無想天)은 외도가 사는 곳이다. 무번천(無煩天)·무열천(無熱天)·선견천(善見天)·선현천(善現天)·색구경천(色究竟天) 이상 5천은 제3과<sup>199</sup>)의 거처이다. 이상의 18천은 욕계의 거칠고 산란함을 벗어났으나 아직 색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색계라 한다. 좌선하여 선정(禪定)을 얻었으므로 선(禪)이란 이름을 얻었다. 세 번째는 무색계의 4천이다(공처천(空處天)·식처천(識處天)·무소유처천(無所有處天)·비비상처천(非非想處天) 이상 4천은 단지 (오온 중의) 네 가지 음(陰: 蘊의 구역)만 있고 색온(色蘊)<sup>200</sup>)이 없으므로 (무색계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이제까지 풀이한 지옥으로부터 비비상처천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괴로움과 즐거움은 같지 않지만 태어나서 다시 죽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태어나고 죽는다[生死]라고 이름한다. 이것이 바로

198) 미도정(未到定): 색계와 무색계에서 닦는 선정으로 근본정(根本定)에 미치지 못하는 방편정.

199) 제3과: 성문(聲聞) 4과 중의 제3과인 아나함과(阿那含果, ānāgāmin). 욕계 구품의 번뇌를 모두 끊어 욕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성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색계 사선천 중의 무번천 등 5천이다.

200) 색온(色蘊):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친 일체 유위법을 가리키는 오온(五蘊) 중 하나. 스스로 생멸변화하고 장애하는 것들이 모인 것 곧 물질계.

장교(藏敎)에 실제로 있는 고제(苦諦)이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集諦]이다. 곧 견혹(見惑)<sup>201)</sup>과 사혹(思惑)<sup>202)</sup>을 말하며, 또는 견수(見修), 사주(四住), 염오무지(染汚無知), 취상혹(取相惑), 지말무명(枝末無明), 통혹(通惑), 계내혹(界內惑)이라고도 한다.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견혹과 사혹일 뿐이다.

먼저 견혹을 풀이하면 88번뇌[使]<sup>203)</sup>가 있다. 첫째 신견(身見), 둘째 변견(邊見), 셋째 견취(見取), 넷째 계취(戒取), 다섯째 사견(邪見)〈이상은 이사(利使)<sup>204)</sup>〉, 여섯째 탐(貪), 일곱째 진(瞋), 여덟째 치(癡), 아홉째 만(慢), 열째 의(疑)〈이상은 둔사(鈍使)<sup>205)</sup>〉이다. 이 열 가지 번뇌가 삼계(三界)의 사제(四諦)를 거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어 같지 않으므로 88번뇌가 된다. 욕계(欲界)에서 고제(苦諦)는 열 가지 번뇌를 모두 갖추지만 집제(集諦)와 멸제(滅諦)는 각각 일곱 가지 번뇌이니 신견·변견·계금취견을 제외한 것이며, 도제(道諦)는 여덟 가지 번뇌이니 신견과 변견을 제외한 것이다. (욕계의) 4제는 합하여 32번뇌가 된다. (욕계보다) 위의 두 계[上二界]<sup>206)</sup>의 4제는 나

201) 견혹(見惑): 견도위(見道位)에서 사제(四諦)의 이치를 볼 때에 끊는 번뇌.

202) 사혹(思惑): 개별 사물의 진상(眞相)을 알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번뇌.

203) 사(使): 번뇌의 다른 이름. 사람이 이끌어 미혹한 생사의 세계에 유전시키므로 번뇌를 사라 함. 수면(隨眠)과 같은 뜻. 열 가지가 있어 전체를 정사(正使)라 하고, 각각 다섯 가지씩 성질에 따라 유신견(有身見)·변집견(邊執見)·사견(邪見)·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의 5견은 이사(利使),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는 둔사(鈍使)로 나눔.

204) 이사(利使): 10종 근본 번뇌 중 유신견(有身見)·변집견(邊執見)·사견(邪見)·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의 5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뇌. 사리의 이치를 알지 못해 일어나는 번뇌로 그 성질에 예리하기 때문에 이사로 함.

205) 둔사(鈍使): 10종 근본 번뇌 중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의 5감(惑). 사물의 진상을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계의 번뇌로 성질이 둔하기 때문에 둔사로 함.

206) 위의 두 계[上二界]: 색계와 무색계

머지는 모두 육계와 같지만 다만 각 제(諦)마다 진사(眞使)가 제외되므로 하나의 계(界)에 각기 28번뇌<sup>207)</sup>가 있게 되며, 두 개의 계를 합하면 56번뇌가 된다. 여기에 앞의 32번뇌를 합하면 88번뇌가 된다.

둘째 사혹을 밝히면 81품(品)이 있다. 삼계는 아홉 머무는 곳[九地]<sup>208)</sup>으로 나뉘는데 육계는 통합하여 1지이고, (색계의) 사선(四禪)과 (무색계의) 사정(四定)을 합하면 8지이니 모두 9지이다. 육계의 1지에는 9품의 탐(貪)·진(瞋)·치(癡)·만(慢)이 있다. 9품이란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이다. (육계보다) 상위인 8지에 각기 9품이 있지만 진사(眞使)를 제외하므로<sup>209)</sup> 81이 된다.<sup>210)</sup> 위에서 본 견혹과 사혹이 다르지만 모두 장교에 실제로 있는 집제(集諦)이다.

셋째 괴로움의 상태를 없애는 진리[滅諦]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 치우친 진리[偏眞理]<sup>211)</sup>를 드러낸다. 없앴으로

207) 색계와 무색계는 각각 고계의 9사, 집제와 멸제 각각 6사씩 12사, 도제에 7사로 합하면 28사이다.

208) 아홉 머무는 곳[九地]: 구지는 구유(九有)라고도 한다. 중생이 머무는 세계를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로 나누고, 선정삼매(禪定三昧)의 깊고 낮은 정도에 따라 색계와 무색계를 4선천과 4무색천으로 나누어 육계의 1지와 합한 것이다. 9지는 ①육계오취지(欲界五趣地): 육계는 지옥·아귀·축생·인·천의 5취가 함께 사는 곳, ②이생희락지(離生喜樂地): 색계 초선천, ③정생희락지(定生喜樂地): 색계 이선천, ④이희묘락지(離喜妙樂地): 색계 삼선천, ⑤사념청정지(捨念淸淨地): 색계 사선천, ⑥공무변처지(空無邊處地): 무색계 제1정, ⑦식무변처지(識無邊處地): 무색계 제2정, ⑧무소유처지(無所有處地): 무색계 제3정, ⑨비상비비상처지(非想非非想處地): 무색계 제4정이다.

209) 진사(眞使)를 제외한다는 것은 육계보다 상위인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성내는 마음을 끊기 때문에 진사를 제외하는 것이다.

210) 육계 1지의 9품, 색계 4지에 각 9품씩 있으므로 36품, 무색계 4지에 각 9품씩 있으므로 36품, 따라서 모두 삼계 9지에는 모두 81품이 있게 된다.

211) 치우친 진리[偏眞理]: 아직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非有非空] 중도(中道)의 이치

인하여 진제(眞諦)를 만나지만 멸제(滅諦)가 곧 진제인 것은 아니다.<sup>212)</sup>

넷째 괴로움과 그 원인을 없애고 열반으로 통하는 길을 밝힌 진리[道諦]이다. 간략히 말하면 계(戒)·정(定)·혜(慧)이고 넓게 말하면 37도품(道品)<sup>213)</sup>이다. 이 37도품은 일곱 개의 과목으로 묶인다. 첫째는 사념처(四念處)<sup>214)</sup>이니, 첫째 몸이 깨끗하지 않다고 관(觀)하는 것<색온(色蘊)<sup>215)</sup>>, 둘째 감수(感受) 작용이 곧 괴로움임을 관하는 것<수온(受蘊)<sup>216)</sup>>, 셋째 마음이 무상함을 관하는 것<식온(識蘊)<sup>217)</sup>>, 넷째 법이 무아(無我)임을 관하는 것<상온(想蘊)과 행온(行蘊)<sup>218)</sup>>이다. 둘째는 사정근(四正勤)<sup>219)</sup>이니, 첫째 아직 생기

---

를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치우친 진리라 한다.

212) 멸제(滅諦)가 곧 진제인 것은 아니다: 멸(滅)에는 생(生)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은 괴로움을 없애는 정도이지 공인 것이 아니므로 진제가 아니라고 한다.

213) 37도품(道品): 열반에 이르는 37가지의 수행 방법. 사념처(四念處)·사정근(四正勤)·사여의족(四如意足)·오근(五根)·오력(五力)·칠각분(七覺分)·팔정도(八正道).

214) 사념처(四念處): 오온이 단지 인연의 화합일 뿐임을 깨닫기 위해 신(身)·수(受)·심(心)·법(法)의 네 가지를 관상(觀想)하는 것.

215) 색온(色蘊): 몸(형체). 색온(色蘊)을 염하는 신념처(身念處). 색·수·상·행·식의 오온(五蘊)은 일체의 유위법(有爲法)을 총괄하여 크게 나눈 것. 온(蘊, skandha)은 쌓는다, 분류하여 구별한다는 뜻으로 일체의 유위법을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는 의미이다.

216) 수온(受蘊): 감수작용. 수온(受蘊)을 염하는 수념처(受念處).

217) 식온(識蘊): 마음. 식온(識蘊)을 염하는 심념처(心念處).

218) 상온(想蘊)과 행온(行蘊): 생각과 의지. 상온(想蘊)과 행온(行蘊)을 염하는 법념처(法念處).

219) 사정근(四正勤): 한 마음으로 네 가지를 바르게 힘쓰는 것. 부지런한 마음으로 게으른 마음을 끊고 열심히 정진하여 악을 끊고 선을 생겨나게 하는 수행. 이미 생겨난 악을 없애려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이 생기도록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 이미 생겨난 선이 더 크도록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의 네 가지.

지 않은 악(惡)은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둘째 이미 생겨난 악은 없애며, 셋째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도록 하고, 넷째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크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여의족(四如意足)<sup>220)</sup>〈욕구[欲], 기억[念], 정진[進], 지혜[慧]〉이다. 넷째는 오근(五根)<sup>221)</sup>〈믿음[信], 정진[進], 기억[念], 선정[定], 지혜[慧]〉이다. 다섯째는 오력(五力)<sup>222)</sup>〈5근의 이름과 같다〉이다. 여섯째는 칠각지(七覺支)<sup>223)</sup>〈기억[念], 분별[擇], 정진[進], 환희[喜], 안정[輕安], 선정[定], 평등[捨]〉이다. 일곱째는 팔정도(八正道)<sup>224)</sup>〈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동[正業]<sup>225)</sup>,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선정[正定], 바른 기억[正念]<sup>226)</sup>, 바른 생

220) 사여의족(四如意足) : 사신족(四神足)이라고도 한다. 욕구[欲]·마음[念]·정진[勤]·사유[觀]의 네 가치를 자기의 뜻대로 갖추어 갖가지 신비한 작용을 내서 정(定)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221) 오근(五根) : 번뇌 없는 바른 지혜를 생기게 하는 다섯 가지 근본. 번뇌를 항복시키기 때문에 근이라고 한다. ①신근(信根)은 삼보와 사제 등의 도리를 믿는 믿음, ②진근(進根)은 용맹하게 선법을 닦는 정진, ③염근(念根)은 정법을 마음에 기억하는 마음, ④정근(定根)은 마음을 한 경지에 그치게 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선정, ⑤혜근(慧根)은 선정 중에서 관찰하는 지혜가 일어나 여실하게 진리를 아는 지혜이다. 뿌리[根]란 커지게 한다, 생겨나게 한다는 뜻이 있어, 이 다섯 가지 힘으로 사람이 번뇌 없는 성도(聖道)에 나게 하기 때문에 오근이라 한다.

222) 오력(五力) : 앞의 오근이 커져 만들어 내는 다섯 가지의 수행을 유지하는 힘, 해탈에 이르게 하는 역량. 오근과 이름이 같다.

223) 칠각지(七覺支) :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일곱 가지 요소. ①염(念) : 마음이 밝아서 잊지 않는 것, ②택법(擇法) : 밝은 지혜로 교법을 판별하는 것, ③정진(精進) : 노력하는 것, ④희(喜) :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 ⑤경안(輕安) : 마음도 몸도 가라앉아서 고요하고 경쾌한 것, ⑥정(定) : 마음을 통일하여 삼매를 닦는 것, ⑦사(捨) : 고(苦)나 락(樂)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불고불락(不苦不樂)의 상태. 곧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의 상태.

224) 팔정도(八正道) : 여덟 가지 바른 길.

225) 바른 행동[正業] : 몸이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

활[正命]<sup>227)</sup>이다. 이상 7과목은 곧 장교에서의 태어나고 사라짐이 있는 도제(道諦)이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사제(四諦)의 이름들은 아래의 삼교(통교·별교·원교)에도 통한다. 다만 가르침의 넓고 좁음과 수승하고 하열함에 따라 생멸(生滅), 무생(無生), 무량(無量), 무작(無作)의 사제가 같지 않을 뿐이다.<sup>228)</sup>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름을 다시 나열하지 않는다. 그런데 4제 중에는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어 앞의 2제는 세간의 인과(고제는 과(果)이며 집제는 인(因)이다)라 하고, 뒤의 2제는 출세간의 인과(멸제는 과이며 도제는 인이다)라 한다.

묻는다. 무엇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에서 앞의 것은 과라 하고 뒤의 것은 인이라 하는가?

답한다. 성문은 근기가 둔하므로 고제를 안 이후에 집제를 끊으며, 결과를 원하여 원인을 닦으므로 그러한 것이다.

第一三藏教者，一修多羅藏(四阿含等經)，二阿毗曇藏(俱舍婆沙等

226) 바른 기억[正念]: 잘못된 생각[邪念]을 버리고 항상 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잊지 않는 것. 염(念)은 잊지 않고 있는 마음.

227) 바른 생활[正命]: 행동[身]·말[口]·생각[意]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정당한 생활을 하여 잘못된 법으로 이익을 얻어 살아가는 다섯 가지 생활을 여의는 것.

228) 천태종에서 말하는 네 가지 사제. 생멸사제·무생사제·무량사제·무작사제. 생멸사제란 장교(藏教)에 해당하는 말인데, 곧 미혹한 인(因)과 깨달은 과(果)가 함께 실체가 있으며 실로 생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무생사제란 통교(通教)에 해당하는 말인데, 고제·집제·도제의 3제는 거짓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대로 공한 것이며 멸제는 본래 생멸이 없는 공적인 것이므로 무생이라 한다. 무량사제란 별교(別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여가 무명의 혼습을 받아 미오인과(迷悟因果)의 법을 한량없이 내는 것이다. 무작사제란 원교(圓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사가 곧 열반이라고 보면 고(苦)를 멸하고 멸(滅)을 증득할 필요가 없으며, 번뇌가 곧 보리라고 보면 집제를 끊고 증과(證果)에 이를 도법을 닦을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단(斷)과 증(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論》，三毗尼藏〈五部律〉。此之三藏，名通大小，今取小乘三也。大智度論云，“迦旃延子，自以聰明利根，於婆沙中，明三藏義，不讀衍經，非大菩薩”，又法華云，“貪著小乘三藏學者”。依此等文故，大師稱小乘爲三藏教。此有三乘根性。初聲聞人，依生滅四諦教。

言四諦者，一苦諦。二十五有，依正二報是。言二十五有者，四洲 四惡趣 六欲 并梵天 四禪 四空處 無想 五那含〈四洲四趣成八，六欲天并梵王天成十五，四禪四空處成二十三，無想天及那含天，成二十五〉，別則二十五有，總則六道生死。一地獄道。梵語捺落迦，又語泥黎，此翻苦具。而言地獄者，此處在地之下，故言地獄。謂八寒八熱等大獄，各有眷屬，其類無數。其中受苦者，隨其作業，各有輕重，經劫數等。其最重處，一日之中八萬四千生死，經劫無量。作上品五逆十惡者，感此道身。二畜生道，亦云旁生。此道徧在諸處，被毛戴角，鱗甲羽毛，四足多足，有足無足，水陸空行，互相吞啖，受苦無窮。愚癡貪欲，作中品五逆十惡者，感此道身。三餓鬼道。梵語閼梨哆，此道亦徧諸趣。有福德者，作山林塚廟神，無福德者，居不淨處，不得飲食，常受鞭打，填河塞海，受苦無量。諂誑心意，作下品五逆十惡，感此道身。四阿脩羅道。此翻無酒，又無端正，又無天。或在海岸海底，宮殿嚴飾，常好鬪戰，怕怖無極。在因之時，懷猜忌心，雖行五常，欲勝他故，作下品十善，感此道身。五人道。四洲不同，謂東弗婆提〈壽五百歲〉，南閻浮提〈壽一百歲〉，西瞿耶尼〈壽一百五十歲〉，北鬱單越〈壽一千歲，命無中天，聖人不出其中，卽八難之一〉，皆苦樂相間。在因之時，行五常五戒。五常者，仁·義·禮·智·信，五戒者，不殺·不盜·不邪淫·不妄語·不飲酒。行中品十善，感此道身。六天



道，二十八天不同〈欲界六天 色界十八天 無色界四天〉。初欲界六天者一四天王天〈居須彌山腹〉，二忉利天〈居須彌山頂 自有三十三天 已上二天 單修上品十善 得生其中〉，三夜摩天，四兜率天，五化樂天，六他化自在天〈已上四天，空居，修上品十善，兼坐未到定，得生其中〉。次色界十八天，分爲四禪，初禪三天〈梵衆 梵輔 大梵〉，二禪三天〈少光 無量光 光音〉，三禪三天〈少淨 無量淨 徧淨〉，四禪九天〈無雲 福生 廣果 已上三天，凡夫住處，修上品十善，坐禪者，得生其中，無想天，外道所居，無煩 無熱 善見 善現 色究竟 已上五天 第三界(果?)居處，上之十八天，離欲麤散，未出色籠故，名色界，坐得禪定故，得禪名〉。三無色界四天〈空處 識處 無所有處 非非想 已上四天 只有四陰 而無色蘊 故得名也〉。上來所釋，從地獄至非非想天，雖然苦樂不同，未免生而復死，死已還生，故名生死，此是藏教實有苦諦。

二集諦者。卽見思惑，又云見修，又云四住，又云染污無知，又云取相惑，又云枝末無明，又云通惑，又云界內惑。雖名不同，但見思耳。初釋見惑，有八十八使。所謂一身見，二邊見，三見取，四戒取，五邪見〈已上利使〉，六貪，七瞋，八癡，九慢，十疑〈已上鈍使〉。此十使，歷三界四諦下，增減不同，成八十八。謂欲界苦，十使具足，集滅各七使，除身見邊見戒取，道諦八使，除身見邊見。

四諦下合爲三十二。上二界四諦下，餘皆如欲界，只於每諦下，除瞋使，故一界，各有二十八，二界合爲五十六。并前三十二，合爲八十八使也。二明思惑者，有八十一品。謂三界分爲九地，欲界合爲一地，四禪四定爲八，共爲九地。欲界一地中，有九品貪瞋癡慢，言九品者，上上 上中 上下 中上 中中 中下 下上 下中 下下。上八地各有九品，除瞋使，故成八十一也。上來見思不同，總是藏教，實有集諦。

三滅諦者. 滅前苦集, 顯偏真理. 因滅會眞, 滅非眞諦.

四道諦者. 略則戒定慧, 廣則三十七道品. 此三十七, 合爲七科. 一四念處, 一觀身不淨(色蘊), 二觀受是苦(受蘊), 三觀心無常(識蘊), 四觀法無我(想行蘊). 二四正勤, 一未生惡令不生, 二已生惡令滅, 三未生善令生, 四已生善令增長. 三四如意足(欲念進慧). 四五根(信進念定慧). 五五力(同上根名). 六七覺支(念擇進喜輕安定捨). 七八正道(正見 正思惟 正語 正業 正精進 正定 正念 正命). 已上七科, 卽是藏教生滅道諦, 然如前所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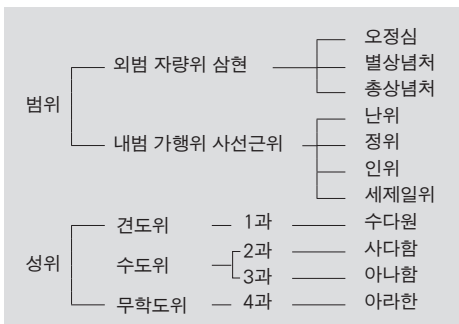
四諦名數, 通下三教. 但是隨教廣狹勝劣, 生滅無生無量無作不同耳. 故向下, 名數更不再列. 然四諦之中, 分世出世, 前二諦爲世間因果(苦果集因), 後二諦爲出世間因果(滅果道因). 問 何故世出世前果後因耶? 答 聲聞根鈍, 知苦斷集, 慕果修因, 是故然也.

장교의 수행인과 계위에 대하여 간략히 밝힌다.

### (1) 성문(聲聞)

처음에 성문(聲聞)의 계위를 밝힌다. 둘로 나뉘니 첫째는 범부의 지위[凡

229) 장교 성문의 계위차례.



位]이고 둘째는 성인의 지위[聖位]<sup>229)</sup>이다. 범부의 지위[凡位]에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외범(外凡)<sup>230)</sup>과 내범(內凡)<sup>231)</sup>이다. 외범을 풀이하는데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오정심(五停心)<sup>232)</sup>이다. 그중의 첫째는 탐욕이 많은 중생에게는 부정관(不淨觀)을, 둘째는 성념이 많은 중생에게는 자비관(慈悲觀)을, 셋째는 산란됨이 많은 중생에게는 수식관(數息觀)을, 넷째는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인연관(因緣觀)을, 다섯째는 장애가 많은 중생에게는 염불관(念佛觀)을 닦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별상념처(別相念處)<sup>233)</sup>〈앞의 사념처가 이것이다〉이다. 셋째는 총상념처(總相念處)<sup>234)</sup>이니, 먼저 몸[身]이 깨끗

230) 외범(外凡) : 불도를 수행하는 범부의 지위. 밖으로는 진리를 구하지만 내부로부터 인연하는 진성을 그치지 못해 외라고 하고, 아직 지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외범이라 하여 얼마간의지해를가진 내범과 구별한다. 견도(見道) 이전의 계위로서, 소승에서는 5정심·별상념처·총상념처의 수행위이며, 대승에서는 52위의 처음인 10신의 계위에 해당한다.

231) 내범(內凡) : 외범(外凡)의 상대어. 견도 이전의 계위. 불도를 수행하여 바른 이치를 증득하지는 못한 이를 범부라 하고, 얼마간의 지해(智解)를 가진 범부를 내범이라 한다. 소승에서는 7방편 중에서 난위(煖位)·정위(頂位)·인위(忍位)·세제일위(世第一位)의 4선근의 4위이고, 대승에서는 10주·10행·10회향의 계위에 해당한다.

232) 오정심(五停心) : 오정심관(五停心觀)이니, 마음의 허물을 멈추게 하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이다. 첫째 부정관(不淨觀)은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 육신의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관찰하는 것. 둘째 자비관(慈悲觀)은 성념을 다스리기 위해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관찰하는 것. 셋째 수식관(數息觀)은 마음의 산란을 방지하기 위해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관찰하는 것. 넷째 인연관(因緣觀)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 12인연이 삼세에 인과로 상속하는 것을 관하는 것. 다섯째 염불관(念佛觀)은 악업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부처님의 상호(相好)를 일심으로 관하는 것.

233) 별상념처(別相念處) :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진리를 깨닫는 네 가지의 방법인 신(身)·수(受)·심(心)·법(法)의 사념처(四念處)의 상(相)을 낱낱이 염하는 것.

234) 총상념처(總相念處) : 사념처를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관하는 것.

하지 않음을 관(觀)하여 감수작용[受]·마음[心]·법(法)도 모두 깨끗하지 않음을 알고, 나아가 법이 무아(無我)임을 관하여 몸·감수작용·마음 또한 무아임을 알며, 그 중간(受와 心)도 예에 따라 안다.〈이상 세 가지 과문을 외범(外凡)이라고 하고 또 자량위(資糧位)<sup>235)</sup>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내범을 밝히는 데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난위(煖位)<sup>236)</sup>·정위(頂位)<sup>237)</sup>·인위(忍位)<sup>238)</sup>·세제일위(世第一位)<sup>239)</sup>이다.〈이 네 가지 지위를 내범이라 하며, 또 가행위(加行位)<sup>240)</sup>라 하고, 사선근위(四善根位)라고도 한다.〉 이제까지의 내범과 외범을 총괄하여 범위(凡位)라 하며 또한 칠방편위(七方便位)<sup>241)</sup>라고도 한다.

235) 자량위(資糧位): 유식 수행의 5위(位)의 첫 번째.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닦는 계위. 10주·10행·10회향위가 해당된다. 유식 오위는 자량위·가행위(가행위)·통달위(通達位)·수습위(修習位)·구경위(究竟位)이다.

236) 난위(煖位): 사선근위(四善根位) 중 제1위. 이 지위에서는 견도(見道)의 번뇌가 없는 지혜[無漏智慧]에 접근하여 유루의 선근을 내며, 아울러 4제를 관찰하고 16행상(行相)을 닦아 유루의 관혜(觀慧)를 일으킨다.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는 견도의 체(體)를 불에 비유하고, 난위는 아직 그 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근처에 다가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름한 것이다.

237) 정위(頂位): 4선근위 중 제2위. 이 지위에서 나아가면 인위(忍位)에 이르고 물러서면 난위(煖位)로 떨어지는 것이 마치 산정(山頂)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므로 정위라 한다.

238) 인위(忍位): 4선근위 중 제3위. 사제(四諦)의 이치를 분명하게 승인하고 아는 지위이다.

239) 세제일위(世第一位): 4선근위 중 제4위. 번뇌가 있는 세간법 중에서 최상의 선근위. 인위와 같지만 육계의 고제 아래의 하나의 행상을 관찰하고 수행하여 다음 일찰나에 견도위에 들어가 성자가 된다.

240) 가행위(加行位): 유식 5위의 두 번째로 더욱 정진하여 진여를 증득하기를 추구하는 지위로서, 4선근위를 얻는 계위이다.

241) 칠방편위(七方便位): 내범의 4위와 외범의 3위를 합하여 7현(賢)이라 하는데, 이때는 번뇌가 다한 참다운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방편을 쓰는 지위이므로 방편위라 한다.

다음으로 성인의 지위[聖位]를 밝히는데 또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견도위(見道位)<sup>242)</sup>〈처음의 과위(果位)〉, 둘째는 수도위(修道位)<sup>243)</sup>〈둘째와 셋째 과위〉, 셋째는 무학도위(無學道位)<sup>244)</sup>〈넷째 과위〉이다. 첫째 수다원(須陀洹)<sup>245)</sup>은 예류(豫流)라 번역한다. 이 지위는 삼계의 88사의 견혹을 끊고 진제(眞諦)를 보기 때문에 견도(見道)라 이름하며 또 성위(聖位)라고도 한다. 둘째 사다함(斯陀含)<sup>246)</sup>은 일래(一來)라 번역한다. 이 지위는 욕계의 9품 사혹을 끊는 중에 앞의 6품을 끊어 없애지만 뒤의 3품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와야 한다. 셋째 아나함(阿那含)<sup>247)</sup>은 불래(不來)라 번역한다. 이 지위는 욕계의 남은 사혹을 끊어 없애고 나아가 상위의 8지[上八

242) 견도위(見道位): 견도·수도·무학도의 삼도(三道) 중 견도에 해당하는 수행 계위. 번뇌가 없는 지혜[無漏智]로써 사제(四諦)를 보게 되는 지위로서, 견도위 이전은 범부의 지위이나 견도위에 들어간 이후부터 비로소 성인의 지위가 된다.

243) 수도위(修道位): 견도위 후에 구체적인 사상(事相)을 반복적으로 수습(修習)하는 계위. 견도위와 합하여 유학도(有學道)라고 하며, 이와 상대하여 무학도(無學道)는 무학위(無學位)라 한다.

244) 무학도위(無學道位): 수도위를 지나 궁극적인 최고의 경지를 깨달아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지위.

245) 수다원(須陀洹): ㉠srota-āpanna. 성문사과(聲聞四果) 중의 최초의 과(果). 구역(舊譯)에서는 입류(入流)·지류(至流)·역류(逆流) 등으로 한역하고 신역(新譯)에서는 예류(預流)·입류(入流) 등으로 한역한다. 견혹(見惑)을 모두 끊어 처음으로 성위(聖位)에 들어가는 지위이다.

246) 사다함(斯陀含): ㉠sakṛd-āgāmin. 성문사과 중의 두 번째 과. 일래(一來)라 한역한다. 욕계 9지(地)의 사혹(思惑) 9품 중에서 앞의 6품을 끊고 아직 3품이 남아서 인간과 천상에 한번 왕래하면서 한번의 생(生)을 받아야 하는 지위이다.

247) 아나함(阿那含): ㉠anāgāmin. 성문사과 중의 세 번째 과. 불래(不來)·불환(不還)이라 한역한다. 사다함과 함께 남은 3품의 번뇌를 끊어 욕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不來, 不還) 색계와 무색계에 나는 지위이다.

地]<sup>248)</sup>의 사혹마저 끊는다. 넷째 아라한(阿羅漢)<sup>249)</sup>은 무학(無學)이라 번역하고, 또 무생(無生), 살적(殺賊), 응공(應供)이라고도 한다. 이 지위는 견혹과 사혹을 끊어 모두 없애는데 자박(子縛)<sup>250)</sup>은 이미 끊었지만 과박(果縛)<sup>251)</sup>이 아직 있으므로 유여열반(有餘涅槃)<sup>252)</sup>이라 이름한다. 가령 몸이 재가 되고 지혜가 사라지면[灰身滅智]<sup>253)</sup> 무여열반(無餘涅槃)<sup>254)</sup>이라 이름

248) 상위의 8지[上八地]: 욕계보다 위의 8지이니, 색계와 8지와 무색계의 8지를 일컫는다.

249) 아라한(阿羅漢): [S]arhat, [P]arahant. 성문사과 중의 제일 마지막 과. 응공(應供)·살적(殺賊)·불생(不生)·이악(離惡)이라 한역한다. 삼계의 견혹과 사혹을 모두 끊어 비로소 마땅히 공양받을 수 있는 성인의 지위로서, 소승의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과위이다.

250) 자박(子縛): 이박(二縛)의 하나. 견혹과 사혹이 중생이 삼계에 생을 받는 인자(因子)가 되므로 자라고 하고, 이 때문에 삼계를 벗어나지 못해 매인다[縛]고 한다. 자박이란 번뇌로써 몸을 속박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제(四諦) 중 집제(集諦)가 자박에 해당하고, 고제(古諦)가 과박에 해당한다. 이 이박을 끊지 못하면 성문의 보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251) 과박(果縛): 이박(二縛)의 하나. 이전에 지은 업으로 인해 오온의 과보를 얻은 것을 과라고 하고, 이 또한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매인다고 한다. 유루(有漏)의 과 또한 유정(有情)을 결박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므로 과박(果縛)이라 한다. 앞의 각주 자박 참조

252) 유여열반(有餘涅槃): [S]opadhiśeṣa-nirvāṇa. 갇춘 이름은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 비록 일체생사의 원인인 번뇌를 끊어 열반을 증득하였지만, 전세의 혹업(惑業)이 만들어낸 과보신(果報身)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유여열반이라고 한다.

253) 몸이 재가 되고 지혜가 사라지면[灰身滅智]: 육신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마음의 지혜도 없어졌다는 뜻. 몸과 마음이 모두 공적한 무위의 열반계에 돌아간 것을 말한다. 이것이 소승의 최종 목적인 무여열반(無餘涅槃)이다. 삼계의 번뇌를 끊으면 유여열반을 증득하고, 몸이 재가 되고 지혜가 사라지면 무여열반을 증득한다고 한다.

254) 무여열반(無餘涅槃): [S]nirupadhiśeṣa-nirvāṇa. 유여열반의 상대어. 생사의 인(因) 뿐만 아니라 생사의 과(果) 또한 모두 끊어 몸이 재가 되고 지혜가 사라지는[灰身滅智] 구경열반(究竟涅槃)의 경지를 달성하였으므로 무여열반이라 한다.

하고 또 고조해탈(孤調解脫)<sup>255)</sup>이라 이름한다. 성문의 지위를 간략히 밝혀 마친다.

## (2) 연각(緣覺)

다음으로 연각(緣覺)의 계위를 밝힌다. 또한 독각(獨覺)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를 만나 십이인연(十二因緣)의 가르침을 받는다. 12인연이란, 첫째는 무명(無明)〈번뇌장(煩惱障)<sup>256)</sup> 또는 번뇌도(煩惱道)<sup>257)</sup>〉, 둘째는 행(行)〈업장(業障)<sup>258)</sup> 또는 업도(業道)<sup>259)</sup>〉. 무명과 행 이 두 가지는 과거에 속한 다, 셋째는 식(識)〈모태에 의탁하여 처음으로 호흡을 구분함〉, 넷째는 명색(名色)〈명은 마음, 색은 숨〉, 다섯째는 육입(六入)〈육근이 이 태중에서 이뤄짐〉, 여섯째는 촉(觸)〈태에서 나옴〉, 일곱째는 수(受)〈앞의 대상[境]의 좋고 나쁜 일을 받아들인다. 식(識)으로부터 수(受)까지 이름하여 현재의 5과라 함〉, 여덟째는 애(愛)〈성애·남녀·금은·금전·재물 등에 대해 애착을 일으키는 것〉, 아홉째는 취(取)〈모든 대상을 보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애와 취 이 두 가지는 미래의 인(因)이고 모두 번뇌에

255) 고조해탈(孤調解脫): 겨우 자기 자신의 미혹만 조복시켜 해탈하는 것으로, 미혹한 경지에서의 해탈을 말한다. 이타행을 겸하는 대승의 해탈과는 달리, 이타행의 정신이 결여된 소승의 해탈을 비판하는 말이다.

256) 번뇌장(煩惱障): ㉠kleśāvaraṇa, 혹장(惑障)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도 즉 성도(聖道)를 장애하여 열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번뇌의 특성을 일컫는 말.

257) 번뇌도(煩惱道): ㉠kleśa-vartman, 삼도(三道)의 하나. 모든 법의 사리(事理)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괴롭고 어지러운 망령된 마음을 일컫는 말. ‘도’는 통한다, 바뀌처럼 구른다는 뜻으로, 번뇌에 이해 업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258) 업장(業障): ㉠karmāvaraṇa, 업(業)이 곧 장애[障]임을 가리키는 말. 중생이 신(身)·구(口)·의(意) 3업으로 지은 악업은 능히 바른 도(道)를 가리므로 업장이라 한다.

259) 업도(業道): 중생이 신·구·의 3업으로 짓는 선악의 행업(行業)은 사람으로 하여금 6취(趣)에 가게 하므로 도(道)라 이름한다.

속하며 마치 과거의 무명과 같다), 열째는 유(有)(업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는 미래의 인(因)이며 업도에 속하고 마치 과거의 행과 같다), 열한째는 생(生)(미래에 생(生)을 받는 것이다), 열두째는 노사(老死)이다. 12인연은 없애야 할 대상이며, 앞의 4제와는 더하고 빼는[開合]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엇을 더하고 빼고 하는가? 무명·행·애·취·유의 이 다섯 가지는 합하여 집제(集諦)가 되고, 나머지 일곱 가지는 고제(苦諦)가 된다. 이미 이름이 다르지만 뜻은 같은데 어떤 이유로 거듭 말하는 것인가? 근기에 맞음(機宜)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각인이 먼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관하는데, 무명에 인연하여 행이 되고 행에 인연하여 식이 되며, 나아가 생에 인연하여 노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 멸하는 것으로 관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이렇게 하여 생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지게 된다. 12인연을 관하여 참된 진리(眞諦)의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연각(緣覺)이라 한다. 독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 홀로 높은 봉우리 위에 머물며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여 스스로 무생(無生)을 깨닫기 때문에 독각(獨覺)이라 한다. 두 이름이 다르지만 수행의 계위는 다르지 않다. 이 사람이 삼계의 견혹과 사혹을 끊으면 성문과 같지만, 다시 습기(習氣)를 침범하기 때문에 성문의 위에 있는 것이다.<sup>260)</sup>

### (3) 보살(菩薩)

다음으로 보살(菩薩)<sup>261)</sup>의 계위를 밝힌다. 처음 마음을 낼 때부터 4제의

260) 성문과 연각에게는 아직 중생의 습기(習氣)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습기는 보살 위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다만 연각이 성문보다는 뛰어나 습기를 침범하는 정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연각을 성문의 위에 둔다.

261) 보살(菩薩): ㉠bodhi-sattva, 보리살타(菩提薩陀)로 음역하고, 줄여서 보살(菩薩)이라 하며 개사(開士) 등 여러 표현으로 한역한다. bodhi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sattva는 생명 있는 존재인 유정(有情)을 의미한다. 이런



대상으로 인연하여 네 가지 큰 서원을 일으키고 육바라밀행[六度行]<sup>262)</sup>을 닦는다. (네 가지 큰 서원이란) 첫째 아직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는 것이니,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모두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이는 고제의 대상에 인연한 것이다. 둘째 아직 알지 못한 이를 알게 하는 것이니, 곧 번뇌가 다함이 없지만 모두 끊기를 서원한다. 이는 집제의 대상에 인연한 것이다. 셋째 편안하지 못한 이를 모두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곧 법문이 헤아릴 수 없지만 모두 배우기를 서원한다. 이는 도제의 대상에 인연한 것이다. 넷째 열반을 이루지 못한 이를 모두 열반케 하리니, 곧 부처님의 도가 위없이 높지만 모두 이루기를 서원한다. 이는 도제의 대상에 인연한 것이다.

이미 마음을 일으켰다면 모름지기 행하고 행하여 서원을 채워야 하고, 3아승기겁(阿僧祇劫)<sup>263)</sup> 동안 육바라밀행을 닦고 백겁 동안 수행하여 좋은 모습을 심어야 한다. 3아승기겁(아는 없다, 승기는 헤아린다, 겁은 시간이란 뜻)이란 또 석가모니께서 보살도를 닦을 때에 맞추어 한도를 논하는 것을 말한다

---

뜻에서 유래하여 보살은 위로는 지혜로써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以智上求無上菩提, 以悲下化衆生] 유정으로 정의한다. 이를 도중생(度衆生), 각유정(覺有情) 등으로 번역한다. 성문(聲聞)·연각(緣覺)과 함께 삼승의 하나이다. 보살은 여섯 가지 바라밀(波羅蜜)을 수행하여 미래에 불과를 성취하는 수행자이다.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원만하게 갖추어 융맹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의 이상적인 수행자이다.

262) 육바라밀행[六度行]: 육도(六度)란 육바라밀을 말한다.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닦는 여섯 가지 수행 덕목.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

263) 아승기겁(阿僧祇劫): 아승기(Asamkhyā)는 인도의 수 단위에서 끝이 없는 수 또는 극히 큰 수를 말한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어서 무량수(無量數)라고 번역한다. 겁(劫)은 아주 긴 시간을 말하니 아승기겁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말한다.

다. 옛 석가로부터 시기불(尸棄佛)<sup>264)</sup>에 이르기까지 7만5천의 부처님을 만나는 기간을 첫 아승기라 한다.<sup>265)</sup> 이로부터 항상 여인의 몸과 네 가지 악취로부터 벗어나 항상 육바라밀을 닦았으나, 스스로는 마땅히 부처가 되리란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 성문의 계위에 견주어보면 오정심·총상념처·별상념처가 된다(외범부). 다음으로 시기불부터 연등불(然燈佛)<sup>266)</sup>에 이르기까지 7만6천의 부처님을 만나는 기간을 두 번째 아승기라고 한다. 이

264) 시기불(尸棄佛) : ㉠Śikhi-buddha, ㉡Sikhi-buddha. 과거칠불(過去七佛) 중 두 번째 부처님. 식불(式佛)·식기불(式棄佛) 등으로도 음역하며, 정계(頂髻)·유계(有髻)·화수(火首)·최상(最上) 등으로 한역한다. 『장아함경(長阿含經)』 권1의 「대본경(大本經)」에 나온다. 과거 장엄겁에 출현한 1천불 중 제888불이다. 사람의 수명 7만세 때에 광상성(光相城)의 왕족으로 출생하여, 아버지의 이름은 명상(明相 ㉢Aruṇa), 어머니의 이름은 광요(光曜 ㉣Pathāvati)라고 한다. 분타리(分陀利)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3회에 걸쳐 설법하였다.

265) 삼아승기겁과 7만 5천, 7만 6천, 7만 7천의 부처님을 만나는 것을 연계하여 설한 것은 『대비바사론』(권178 大27 p.892c4~10)에 나온다. 삼아승기겁을 석가불에서 시기불, 시기불에서 연등불, 연등불에서 비바시불의 기간으로 설명한 것은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에 보인다. (『大智度論』 권4 大25 p.87a12~18)

266) 연등불(然燈佛) : ㉠Dīpaṃkara. 제화갈라(提和竭羅)로 음역하고, 연등불(燃燈佛)이라고도 쓰며 보광불(普光佛)·정광불(錠光佛)이라고도 한다. 과거세에 석가보살계 성도의 기별을 준 부처님이다.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에 따르면 제위화국(提和衛國)의 성왕 등성왕(燈盛王)이 임종하며 태자 정광(錠光)에게 나라를 부탁했는데 태자는 세상이 무상함을 알고 아우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출가하여 불과를 이루었다. 그때 범지(梵志) 유동(儒童)이 정광불의 유행 교화를 만나 꽃을 사서 공양하니 부처께서 유동에게 내세에 성도하리라는 수기를 주었다. 이 유동이 뒤의 석가모니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과거칠불 중에는 연등불이 나오지 않는다. 과거 7불은 첫째 비바시불(毘婆尸佛, ㉠Vipaśyin), 둘째 시기불(尸棄佛, Śikhiṇ), 셋째 비사부불(毘舍浮佛, Viśvabūm), 넷째 구류손불(拘留孫佛, Krakucchanda), 다섯째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Kanakamuni), 여섯째 가섭불(迦葉佛, Kāśyapa), 일곱째 석가모니불(Sākyamuni)이다. 이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까지는 과거 장엄겁에 성불한 부처이고, 네 번째 부처부터 현재 현겁에 성불한 부처이다.

때에 일곱 줄기의 연꽃을 공양하고 머리카락을 깎아 진흙을 덮어 기별(記  
 効)<sup>267)</sup>을 받아 석가모니[釋迦文]라는 부처 이름을 얻었다. 이때 스스로 부  
 처가 되리란 것을 알았지만 아직은 입으로 능히 설법할 수 없었다. 만약 성  
 문의 계위에 견주어보면 곧 난위이다. 다음으로 연등불부터 비바시불(毘婆  
 尸佛)<sup>268)</sup>에 이르기까지 7만7천의 부처님을 만나는 기간을 세 번째 아승기  
 가 왔다고 한다. 이때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또한  
 사람들에게 설하여 자타가 모두 의심하지 않았다. 성문의 계위에 견주어보  
 면 정위이다. 이러한 때를 지나야 육바라밀을 닦아 마치게 된다. 다시 백겁  
 을 머물면서 상호(相好)<sup>269)</sup>의 종자를 심는데, 백 가지 복을 닦아야 하나의  
 좋은 모습[相]을 이룬다. 복의 뜻은 여러 갈래여서 판정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대천세계의 맹인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의 복이 된다”<sup>270)</sup> 고도

267) 기별(記効) : ㉠vyākaraṇa. 본래 교설을 분석하거나 문답방식으로 교리를 해석하  
 는 것을 가리켰으나, 문답방식으로 제자가 증득한 것·사후의 생처(生處) 등을  
 예언하는 것으로 변하였고, 특히 미래세의 증과(證果)와 성불하였을 때의 명호  
 를 예언하는 말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 기별을 주고받는 수기(授記)를 부  
 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받는 것으로 본다.

268) 비바시불(毘婆尸佛) : ㉠Vipaśyin, ㉡Vipassin. 과거칠불 중 첫 번째 부처님. 비바  
 시불(轉婆尸佛)·유위불(維衛佛) 등으로 음역하고, 승관불(勝觀佛)·정관불(淨觀  
 佛)·승견불(勝見佛) 등으로 한역한다. 과거 91겁 전, 사람의 수명이 8만세인 때  
 에 반두바제성(槃頭婆提城)의 왕족으로 출생하여, 바라(波羅)나무 아래에서 성  
 도하여 2회에 걸쳐 설법하였다.

269) 상호(相好) : 부처가 갖추는 32상과 80종호의 좋은 모습. 부처의 육신이 갖추는  
 특수한 용모 중에 특히 두드러져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32상(相)이라 하고, 미세  
 하고 보기 어려운 것을 80종호(種好) 또는 수형호(隨形好)라 한다. 전륜성왕도  
 32상을 갖추지만 80종호는 불보살만이 갖추 수 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과  
 거세의 백대겁 동안 상호업(相好業)을 닦았기 때문에 금생에서 이런 상호를 이  
 루었다고 한다.

270) 이 전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잠연(湛然)의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에  
 이와 같은 글이 있다. 무엇이 하나의 복이 되는가 하는 물음에 여러 가지로 답

한다.

육바라밀을 닦는데 각기 채워지는 때가 있다. 가령 시비왕(尸毘王)<sup>271)</sup>이 비둘기를 대신한 것은 보시[檀]바라밀을 완성한 것이고, 보명왕(普明王)<sup>272)</sup>이 나라를 버린 것은 지계[尸]바라밀을 완성한 것이며, 찬제선인(瞿提仙人)<sup>273)</sup>이 가리왕(歌利王)을 위해 베이고 잘렸지만 원한이 없는 것은 인욕[忍]바라밀을 완성한 것이고, 대시태자(大施太子)<sup>274)</sup>가 바닷물을 퍼내

---

하는 중에 “어떤 이는 말한다. ‘대천 중생의 눈먼 것을 치유하면 한 복이 된다’고.”(『止觀輔行傳弘決』 권3 大46 p.234b1~2 有云, 大千衆生盲能治得差爲一福。)라고 하였다.

271) 시비왕(尸毘王) : ㉠Śibi, ㉡Sivi.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닦을 때의 왕 이름.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살을 떼어 매에게 주었다는 왕이다.

272) 보명왕(普明王) : ㉠Śrutasoma.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위에서 수행하여 지계바라밀을 성취했을 때의 이름. 녹족왕(鹿足王)이 999명의 왕을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보명왕을 잡아먹으려 할 때, 보명왕은 먼저 브라만에게 보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녹족왕을 떠났다가 브라만과의 약속을 이행한 후 다시 녹족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 녹족왕은 약속을 지키려는 보명왕의 행동에 감화를 받았고, 보명왕의 설법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살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273) 찬제선인(瞿提仙人) : ㉠Kṣānti-vādi-rṣi. 인욕선(忍辱仙)이라 한역한다. 찬제파리(瞿提波梨 ㉠Kṣānti-pāla) · 찬제비구(瞿提比丘)라고도 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위에서 수행하여 인욕바라밀을 성취했을 때의 이름이다. 『현우경(賢愚經)』 권2 찬제파리품(瞿提波梨品)에 수록되어 있다. 과거 구원겁 때 인도 바라국의 가리왕(迦梨王 ㉠Kālī)에게 손발과 코와 귀를 베였지만 선인은 모욕을 견디어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 마침내 가리왕을 감화시켰다고 한다.

274) 대시태자(大施太子) : 능시(能施)태자라고도 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위에서 수행할 때 정진바라밀을 완성했을 때의 이름이다. 대의왕(大醫王)이 병자는 많은데 힘이 부쳐 죽게 되자 도리천과 용궁을 거쳐 다시 염부제 대국에 나서 능시(能施)태자가 되었다. 태자는 주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배풀어 주었다. 용왕의 여의주를 얻으려고 용궁에 들어갔더니 용왕은 본래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여의주를 주었다. 태자는 여의주를 가지고 염부제에 돌아와

고 아울러 이레 동안 발돋움하고 서서 기다리며 불사불(弗沙佛)<sup>275)</sup>을 찬탄한 것은 정진[進]바라밀을 완성한 것이며, 상사리(尙闍梨)<sup>276)</sup>는 까치가 그의 정수리 위에 집을 지었으니 선정[禪]바라밀을 완성한 것이고, 구빈대신(勸嬪大臣)<sup>277)</sup>이 염부제를 일곱 개로 나누어 다툼이 사라진 것은 지혜[智]바라밀을 완성한 것이다. 처음의 성문위에 견주어보면 이는 하인위(下忍位)이다. 다음으로 보처(補處)에 들어가 도솔천에 태어나며 모태에 의탁하였다가 모태에서 나와 태어나고, 출가하여 마귀를 항복시키고 편안히 앉아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중인위(中忍位)이다. 다음으로 일찰나에 상인위(上忍位)에 들어가고 다음 일찰나에 세제일위(世第一位)에 들어간다. 참되어 번뇌가 없는 마음을 일으켜 34심<sup>278)</sup>으로 견혹과 사혹의 습기를 단번에 끊고 나무보리수 아래에 앉아 풀로 자리를 만들어 열등한 응화신인 장륙(丈六)의 부처님을 이루었다. 범왕의 청을 받아 세 번 법륜을 굴려서 세 부류의 근성을 제도하시고, 80년 동안 세상에 머무시며 늙은 비구의 모습을 드

---

일체의 재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고, 염부제의 모든 사람들이 보배와 의식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한다.

275) 불사불(弗沙佛) : ㉟Tisya.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과거세 3아승기겁에 수행하여 이를 다 채우고 다시 백겁상호업(百劫相好業)을 닦을 때 받들었던 부처님이다.

276) 상사리(尙闍梨) :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위에서 선정바라밀을 완성했을 때의 이름. 머리를 상투 틀어 나발처럼 정수리에서 묶어 나계선인(螺髻仙人)이라고도 한다. 숨을 끊고 나무 아래 오목하게 앉아 움직이지 않고 선정 수행하니 새들이 보고는 나무인줄 알고 상투에 알을 낳았다. 후에 선인이 선정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다가 머리에 알이 있는 것을 알고는 다시 선정에 들어가 어린 새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277) 구빈대신(勸嬪大臣) : 석가모니부처님이 전생에 대신이었을 때의 이름. 일곱 명의 왕들이 서로 천하의 영토를 점령하려고 할 때 염부제를 7등분하여 공평하게 나누어줌으로써 전쟁을 막은 대신이다.

278) 34심 : 보살의 경지에서 번뇌를 끊어 깨달음을 얻는 지혜로서, 견도(見道)의 16심(心)과 수도(修道)의 18심이다.

러내셨으며, 땀감이 다하여 불이 꺼지자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간 것은 곧 삼장교의 불과(佛果)이다.

지금까지 해석한 3인의 수행 증과가 비록 다르지만, 함께 견혹과 사혹을 끊고 함께 삼계를 벗어나며 함께 원만한 진리를 깨달아 3백 유순<sup>279)</sup>을 가서 화성(化城)에 들어갈 따름이다.

장교를 대략 밝혀 마친다.

略明藏教修行人之與位.

初明聲聞位. 分二, 初凡二聖. 凡又二, 外凡內凡. 釋外凡, 中自分三. 初五停心, 一多貪衆生不淨觀, 二多瞋衆生慈悲觀, 三多散衆生數息觀, 四愚癡衆生因緣觀, 五多障衆生念佛觀. 二別相念處(如前四念處是). 三總相念處, 一觀身不淨, 受心法皆不淨, 乃至觀法無我, 身受心亦無我, 中間例知(已上三科 名外亦名資糧位). 二明內凡者, 有四, 謂煖·頂·忍·世第一(此四位 爲內凡 亦名加行位 又名四善根位). 上來內凡外凡, 總名凡位, 亦名七方便位. 次明聖位, 亦分三. 一見道(初果), 二修道(二三果), 三無學道(四果). 一須陀洹, 此翻預流, 此位斷三界八十八使見惑, 見眞諦故, 名爲見道, 又名聖位. 二斯陀含, 此云一來, 此位斷欲界九品思中, 斷前六品盡, 後三品猶在故, 更一來. 三阿那含, 此云不來, 此位斷欲殘思盡, 進斷上八地思. 四阿羅漢, 此云無學, 又云無生, 又云殺賊, 又云應供. 此位斷見思俱盡, 子縛已

279) 유순: 踰yojana, 유사나(踰閼那)·유선나(踰繕那)·유순(由旬)·유연(由延) 등으로 음역하고 합(合)·일정(一程)·역(驛) 등으로 한역한다. 인도의 거리 계산의 단위로서 소에 멍에를 걸고 하루 가는 여정을 말한다. 계산법과 현재 단위로 환산하는데는 8km 정도의 거리인 8구로사라거나, 중국의 40리에 해당한다거나, 19.5km 또는 8.5km가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斷，果縛猶在，名有餘涅槃，若灰身滅智，名無餘涅槃，又名孤調解脫。略明聲聞位竟。

次明緣覺，亦名獨覺。值佛出世，稟十二因緣教。所謂一無明〈煩惱障 煩惱道〉，二行〈業障 業道 二支屬過〉，三識〈託胎一分氣息〉，四名色〈名是心色是息〉，五六入〈六根成此胎中〉，六觸〈出胎〉，七受〈領納前境好惡等事，從識至受，名現在五果〉，八愛〈愛色男女金銀錢物等事〉，九取〈凡見一切境，皆生取著心，此二未來因，皆屬煩惱，如過去無明〉，十有〈業已成就，是未來因，屬業道，如過去行〉，十一生〈未來受生事〉，十二老死。此是所滅之境，與前四諦，開合之異耳。云何開合？謂無明行愛取有，此之五支，合爲集諦，餘七支爲苦諦也。旣名異義同，何故重說？爲機宜不同故。緣覺之人，先觀集諦，所謂無明緣行緣識，乃至生緣老死，此則生起。若滅觀者，無明滅則行滅，乃至生滅則老死滅。因觀十二因緣，覺真諦理，故言緣覺。言獨覺者，出無佛世，獨宿孤峯，觀物變易，自覺無生，故名獨覺。兩名不同，行位無別。此人斷三界見思，與聲聞同，更侵習氣故，居聲聞上。

次明菩薩位者。從初發心，緣四諦境，發四弘願，修六度行，一未度者令度，卽衆生無邊誓願度，此緣苦諦境。二未解者令解，卽煩惱無盡誓願斷，此緣集諦境。三未安者令安，卽法門無量誓願學，此緣道諦境。四未得涅槃者令得涅槃，卽佛道無上誓願成，此緣滅諦境。旣已發心，須行行填願，於三阿僧祇劫，修六度行，百劫種相好。言三阿〈無〉僧祇〈數〉劫〈時〉者，且約釋迦，修菩薩道時，論分限者。從古釋迦，至尸棄佛，值七萬五千佛，名初阿僧祇。從此常離女身及四惡趣，常修六度，然自不知當作佛。若望聲聞位，卽五停心，總別念處〈外凡〉。次從尸棄佛，至



然燈佛, 值七萬六千佛, 名第二阿僧祇. 此時用七莖蓮華供養, 布髮掩泥, 得受記莚, 號釋迦文. 爾時自知作佛, 口未能說. 若望聲聞位, 卽煥位. 次從然燈佛, 至毗婆尸佛, 值七萬七千佛, 名第三阿僧祇滿. 此時自知亦向人說必當作佛, 自他不疑. 若望聲聞位, 卽頂位. 經如許時, 修六度竟. 更住百劫, 種相好因, 修百福, 成一相. 福義多途, 難可定判, 有云“大千盲人治差, 爲一福”等. 修行六度, 各有滿時. 如尸毗王代鴿, 檀滿, 普明王捨國, 尸滿, 羼提仙人爲歌利王, 割截無恨, 忍滿, 大施太子, 抒海并七日翹足, 讚弗沙佛, 進滿, 尙闍梨鵲巢頂上, 禪滿, 劬嬪大臣分閭浮提七分息諍, 智滿. 望初聲聞位, 是下忍位. 次入補處, 生兜率, 託胎出胎, 出家降魔, 安坐不動, 爲中忍位. 次一刹那, 入上忍位, 次一刹那, 入世第一位. 發眞無漏, 三十四心頓斷見思習氣, 坐木菩提樹下, 生草爲座, 成劣應丈身佛. 受梵王請, 三轉法輪, 度三根性, 住世八十年, 現老比丘相, 薪盡火滅, 入無餘涅槃者, 卽三藏佛果也.

上來所釋, 三人修行證果, 雖則不同, 然同斷見思, 同出三界, 同證偏眞, 只行三百由旬, 入化城耳.

略明藏教竟.

## 2) 통교(通敎)

다음으로 통교(通敎)<sup>280)</sup>를 밝힌다.

---

280) 통교(通敎): 천태종의 화법사교 중 제2교. 성문·연각·보살의 3승이 함께 받는 법. 부처님은 알고 깊은 법을 함께 말하여 듣는 이의 근기가 낮으면 장교(藏敎)의 결과를 낳고, 근기가 수승하면 별교(別敎)와 원교(圓敎)의 결과를 낳게 되기



앞의 장교에 통하고 뒤의 별교와 원교에도 통하므로 통교라 한다. 또 해당 가르침으로부터 이름을 얻었으니, 이른바 세 사람<sup>281)</sup>이 함께 무언(無言)의 설법<sup>282)</sup>으로써 색(色)을 체득하여 공(空)에 들어가므로 통교라 이름한다.

『대품경(大品經)』<sup>283)</sup>에 따르면 간혜지(乾慧地) 등 십지(十地)<sup>284)</sup>가 곧 통교의 계위차례이다.<sup>285)</sup> 첫째 간혜지는 아직 범성의 물에 닿지 못하였으므

때문에 앞으로는 장교에, 뒤로는 별교와 원교에 통하는 가르침이다. 장교처럼 3계 6도의 인과를 설하지만 장교에서는 생멸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인연의 화합에 따라 생멸하는 것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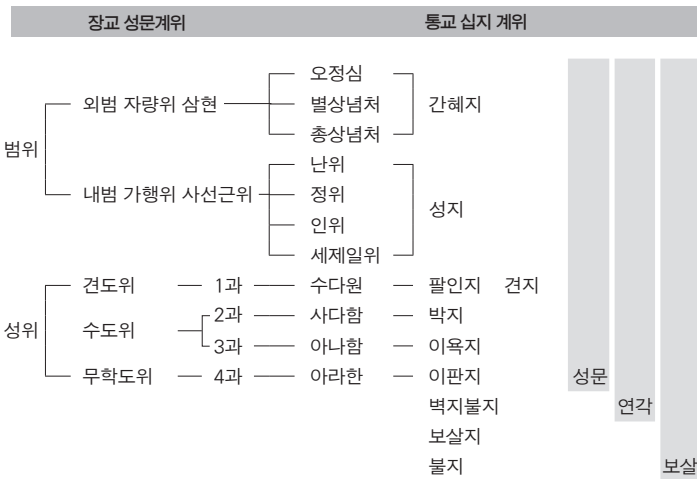
281) 세 사람[三人]: 성문·연각·보살

282) 무언(無言)의 설법: 통교에서는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중도진여(中道眞如)의 이치를 직접 드러내므로 무언의 설법이라 한다.

283) 대품경(大品經):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과 『대지도론(大智度論)』을 말함.(『摩訶般若波羅蜜經』 권6 大8 p.259c12~14; 『大智度論』 권50 大25 p.417a21~23 등)

284) 십지(十地): 보살의 52위 수행계위 중 제41위부터 제50위까지를 일컫음. 불지(佛智)를 생성하고 능히 주지(住持)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일체중생을 짊어지고 교화하는 이익이 마치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십지라 한다.

285) 장교 성문의 계위차례와 통교 십지의 계위차례 비교.



로 그 이름을 얻었으니 곧 외범위(外凡位)로서 장교의 오정심(五停心), 총상념처(總相念處), 별상념처(別相念處) 등 세 가지 계위와 같다. 둘째 성지(性地)는 법성의 물을 얻은 것과 같아서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을 조복하니 곧 내범위(內凡位)로서 장교의 사선근(四善根)과 같다. 셋째는 팔인지(八人地)이고 넷째는 견지(見地)인데, 이 두 계위는 무간삼매(無間三昧)<sup>286)</sup>에 들어가 삼계의 88사 견혹을 모두 끊고 참된 무루(無漏)를 내어 진제(眞諦)의 이치를 보니 장교의 초과(初果, 수다원과)와 같다. 다섯째 박지(薄地)는 욕계의 9품 사혹 중 앞의 6품을 끊어 장교의 2과[사다함과]와 같다. 여섯째 이욕지(離欲地)는 욕계의 9품 사혹을 모두 끊으니 장교의 3과[아나함과]와 같다. 일곱째 이판지(已辦地)는 삼계의 견혹과 사혹을 모두 끊는데 다만 정사(正使)<sup>287)</sup>를 끊어 없앨 뿐 습기(習氣)를 없애지 못하므로 마치 나무를 태워 숯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장교의 4과[아라한과]와 같다. 성문(聲聞)의 계위가 이와 같다. 여덟째 벽지불지(辟支佛地)는 거듭 습기를 없애니 마치 숯을 태워 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아홉째 보살지(菩薩地)는 정사까지 모두 끊으므로 2승과 같으나 습기를 붙들어 중생을 제도하니<sup>288)</sup> 도(道)

286) 무간삼매(無間三昧): 중간에 쉼이 없이 계속 삼매에 들.

287) 정사(正使): 근본적인 번뇌

288) 부습윤생(扶習潤生)은 습기를 붙들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으로 삼승통교(三乘通敎)의 수행계위인 십지 중 제9 보살지에서의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통교의 보살은 성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계의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 이타행을 닦는다. 그런데 이미 제7 이판지에서 견혹과 사혹의 두 가지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다시 삼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원을 세워 그 서원의 힘에 의해 남아 있는 습기를 붙들고, 그로 인해 삼계에 태어나 중생을 제도하고 이타행을 성취해야 하니, 이것을 부습윤생(扶習潤生)이라 한다. 장교의 보살은 이미 견혹과 사혹을 조복시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므로 삼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별교와 원교의 보살은 비록 견혹과 사혹의 두 가지 미혹을 끊었기 때문에 무명혹(無明惑)의 힘으로 삼계에 태어난다.

와 관(觀)을 동시에 병행하며<sup>289)</sup> 신통을 자유자재로 부리면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열제 불지(佛地)는 (중생의) 근기와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이 무르익으면 한 찰나에 지혜에 상응함으로써<sup>290)</sup> 남은 습기를 단번에 끊고 칠보로 장식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천의(天衣)로 자리를 삼고 열등한 응신과 수승한 응신을 드러내어 성불한다.<sup>291)</sup> 3승 근성의 중생을 위하여 생멸이 없는 네 가지 진리[無生四諦]<sup>292)</sup>의 법륜을 굴리며 인연이 다하면 열반에 들어 바른 습기도 모두 없애니 마치 재와 숯이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다.

경전에 이르기를 “세 동물이 강을 건넌다”<sup>293)</sup>고 한 것은 코끼리·말·토

289) 도관쌍류(道觀雙流)는 교화하는 도(道)와 수행하는 관(觀)을 동시에 병행함을 말함. 통교의 제9보살지 보살이 닦은 수행의 모습을 말한다. 도는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화도(化道)이고 관은 스스로 공의 이치를 보는 관법을 가리킨다. 즉 이타(利他)의 화도와 자리(自利)의 관법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의미이다.

290) 한 찰나에 지혜와 상응한다는 것은 한 생각으로서 공(空)의 이치를 파악하는 지혜를 말한다.

291) 장교의 부처와 통교의 부처 비교

장 교	통 교
34심으로 견혹과 사혹의 습기를 단박에 끊음	일념상응의 지혜로써 남아 있는 습기를 단박에 끊음
나무보리수 아래에 앉음	칠보보리수 아래에 앉음
풀로 자리를 만듦	천의로 자리를 만듦
열웅장축신을 이룸	열웅신과 승웅신을 이룸
생멸사제	무생사제

292) 생멸이 없는 네 가지 진리[無生四諦]: 천태종에서 말하는 4종 사제 중의 하나. 통교에서 설하는 사제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다. 무생사제란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일체법은 허깨비와 같은 것이므로 그 체는 공이고 생멸이 있지 않다고 하는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제를 관한다.

293) 세 짐승이 강을 건넌다[三獸渡河]는 비유는 삼승 수행인이 번뇌를 끊는 정도를 비유한 말이다. 강물을 공(空)에, 강 바닥을 불공의 실상에 비유하여, 삼승법을 성문·연각·보살이 어떻게 증득했는지를 토끼·말·코끼리의 세 짐승이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토끼는 겉으로 해엄쳐 건너니 이는 사제법을 닦은 성문이 번뇌의 주체만을 끊고 습기는 그대로 있는 것을 비유하고, 말은 바닥에는

끼인데, 번뇌[惑]를 끊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또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법의 실상은 삼승이 모두 터득하였으나 또한 부처라 이름하지 않는다”<sup>294)</sup>라고 한 것이 곧 통교이다.<sup>295)</sup> 통교의 삼승은 인(因)이 같지만 증과(證果)가 다르다.<sup>296)</sup> 비록 증과가 다르지만 견혹과 사혹을 함께 끊고 분단(分段)<sup>297)</sup>을 함께 벗어나 진리의 일면만을<sup>298)</sup> 함께 증득한다.

이르지 못하지만 조금 깊이 건너니 이는 12인연법을 닦은 연각이 번뇌의 주체를 끊었지만 경우에 따라 습기가 침범하는 것을 비유하고, 코끼리는 강바닥을 밟고 건너니 이는 6바라밀을 닦은 보살이 공의 이치를 철저하게 깨달아 번뇌의 주체와 습기를 모두 끊은 것을 비유한다. 지의가 『법화현의』에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권8하 大33 p.781c12~22) 나아가 지의는 보살승의 코끼리를 둘로 나누어 힘이 작은 코끼리는 별교, 큰 코끼리는 원교에 비유하였다. 흔히 『열반경』에서 나온 말로 이야기하지만 『열반경』에서는 말과 토끼는 12인연의 강을 건너는 비유를 들었지만 코끼리는 함께 나오지 않는다.( 권27 大12 p.523c29~524a1 又未能渡十二因緣河, 猶如兔馬. 何以故, 不見佛性故.) 이 비유는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권1에 그대로 등장한다.(大24 p.1038b8~14 善男子. 如恒河水三獸俱渡, 兔馬香象. 兔不至底, 浮水而過. 馬或至底或不至底. 象則盡底. 恒河水者, 即是十二因緣河也. 聲聞渡時猶如彼兔, 緣覺渡時猶如彼馬, 如來渡時猶如香象. 是故如來得名爲佛, 聲聞緣覺雖斷煩惱不斷習氣, 如來能拔一切煩惱習氣根原, 故名爲佛.)

294) “모든 법의 실제의 성상은 상주하여 달라짐이 없다. 이승도 또 이를 터득하였으니 부처라 이름하지 않는다.”(『華嚴經』(60권본) 권26 大9 p.566c19~20 諸法實性相, 常住無變異. 二乘亦得此, 而不名爲佛.)

295) 통교의 부처는 아직 중도(中道)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96) 인(因)이 같지만 증과(證果)가 다르다[因同果異]는 것은 통교의 3승은 모두 공(空)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지만 번뇌와 습기를 없애고 진리를 증득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297) 분단(分段): 분단생사(分段生死)의 줄임말. 분단생사란 삼계를 윤회하는 중생의 생사를 말하는데, 이들의 생사에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수명과 모습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분단생사라 한다. 이에 비해 아라한 보살 등은 수명도 육체도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번역생사(變易生死)라 한다.

298) 진리의 일면만을: 가령 공(空)을 깨달음에 있어 공인 것만을 알고 공이 아닌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므로 진리에 치우치다[偏眞]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보살에는 두 부류가 있으니 이근(利根)과 둔근(鈍根)이다. 근기가 둔한 보살은 다만 치우친 공(空)만을 볼 뿐 공하지 않음은 보지 못하므로 단지 통교의 과두불(果頭佛)을 이룰 뿐이다.<sup>299)</sup> 수행의 인(因)이 비록 다르나 과(果)는 장교와 같으므로 앞에 통한다고 말한다. 근기가 예리한 보살은 단지 공을 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공하지 않음도 본다. 공하지 않음은 곧 중도(中道)인데, 두 가지로 나뉘니 단중(但中)<sup>300)</sup>과 부단중(不但中)이다. 단중을 보면 별교와 만나게 되고 부단중을 보면 원교와 만나게 되므로 통교 이후에 통한다고 말한다.

묻는다. (통교의) 어느 계위를 받아 이어서 (별교나 원교의) 어느 계위로 진입하는가?

답한다. 받아 잇는 사람의 세 근기가 같지 않으니, 상근기의 사람은 제3지(팔인지)와 4지(견지)에서, 중근기의 사람은 제5지(박지)와 6지(이욕지)에서, 하근기의 사람은 제7지(이판지)와 8지(벽지불지)에서 접하게 된다. 잇는 바의 가르침<sup>301)</sup>에는 참[眞]과 비슷함[似]이 다르니, 비슷한 자리[似

299) 단지 통교에서만 과두불(果頭佛)을 이룰 뿐이다: 과두(果頭)란 구경(究竟)의 깨달음 즉 불과(佛果)를 말한다. 천태종에 과두무인(果頭無人)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4교 중 장·통·별교에는 진정한 의미의 부처(불과를 터득한)가 없다는 말이다. 즉 장·통·별교의 수행인이 일정한 행을 닦아 불과를 얻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일불승(一佛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교에서 불과를 말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통교에서만 불과’라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는 말이다.

300) 단중(但中): 부단중(不但中)의 대칭어. 공(空)·가(假)·중(中) 삼관 중 별교의 중관(中觀)을 가리킨다. 공관·가관을 여의고 따로 불이(不二)의 중도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공관·가관을 융합하여 두 가지에 족해서 중도의 도리를 관하는 원융한 중관을 부단중관(不但中觀)이라 하는데, 이는 원교의 관법이다.

301) 피접(被接)해 들어가는 별교와 원교의 자리.

位]<sup>302)</sup>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별교의 십회향위(十回向位)와 원교의 십신위(十信位)이고, 참된 자리[眞位]<sup>303)</sup>에서 받아 있는 것은 별교의 초지위(初地位)와 원교의 초주위(初住位)이다.

묻는다. 이 장교와 통교의 2교는 같은 3승으로서 함께 4주를 끊고 삼계를 벗어나 함께 치우친 진제를 증득하고 함께 3백 유순을 가서 함께 화성(化城)에 들어가는데 무슨 이유로 둘로 나눈 것인가?

답한다. 진실로 묻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증득한 것이 비록 같지만 큰 것과 작은 것, 교묘함과 졸렬함이 아주 다르다. 이 두 교는 삼계 안의 가르침이다. 장교는 삼계 안에서 작고 서투르니, 큰 것에 통하지 않으므로 작다고 하며, (현상인) 색(色)을 분석하여 (본체인) 공(空)에 들어가므로 서투르다고 한다. 이 장교의 세 사람은 비록 장교 안에서 상·중·하의 차이가 있지만 통교의 세 사람에 견주어 보면 모두 둔한 근기이므로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통교는 삼계 안에서 크고 교묘하니, 크다는 것은 대승(大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까닭이며, 교묘하다는 것은 색(色)을 체득하여 공(空)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통교 가운데 세 사람의 상·중·하가 다르지만 장교에 견주면 대체로 예리한 근기라고 할 수 있다.

묻는다. 통교가 이미 대승인데 무슨 까닭으로 2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답한다. 주작문(朱雀門)<sup>304)</sup>에서 어찌 서민의 출입을 막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은 비록 작으나 가르침은 확실히 크니, 대승이 소승을 겸하여 점차 이 끌어 진실로 들어가는데<sup>305)</sup> 어찌 교묘하지 않겠는가? 반야(般若)와 방등

302) 비슷한 자리[似位]: 무명(無明)을 다 끊지는 못한 자리.

303) 참된 자리[眞位]: 무명을 완전히 끊은 자리.

304) 주작문(朱雀門): 궁성의 남문으로 황제가 다니는 문.

305) 통교는 대승의 가르침과 소승의 가르침을 함께 설하면서도 대승을 진실로 하고 소승을 방편으로 겸하여 모두 대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라는

(方等) 경전 안의 공통된 반야[共般若]<sup>306)</sup> 등은 바로 통교의 가르침이다.

대략 통교를 밝혀 마친다.

次明通教者. 通前藏教, 通後別圓, 故名通教. 又從當教得名, 謂三人同以無言說道, 體色入空, 故名通教. 依大品經, 乾慧等十地, 卽是此教位次也. 一乾慧地, 未有理水故, 得其名, 卽外凡位, 與藏教五停心總別等三位齊. 二性地, 相似得法性水, 伏見思惑, 卽內凡位, 與藏教四善根齊. 三八人地, 四見地, 此二位, 入無間三昧, 斷三界八十八使見盡, 發真無漏, 見真諦理, 與藏教初果齊. 五簿地, 斷欲界九品思前六品, 與藏教二果齊. 六離欲地, 斷欲界九品思盡, 與藏教三果齊. 七已辨地, 斷三界見思惑盡, 但斷正使, 不能侵習, 如燒木成炭, 與藏教四果齊. 聲聞位齊此. 八壁支佛地, 更侵習氣, 如燒炭成灰. 九菩薩地, 正使斷盡, 與二乘同, 扶習潤生, 道觀雙流, 遊戲神通, 淨佛國土. 十佛地, 機緣若熟, 以一念相應慧, 頓斷殘習, 坐七寶菩提樹下, 以天衣爲座, 現帶劣勝應身成佛. 爲三乘根性, 轉無生四諦法輪, 緣盡入滅, 正習俱除, 如炭灰俱盡. 經云“三獸度河, 謂象馬兔”也, 喻斷惑不同故. 又經云“諸法實相三乘皆得, 亦不名佛,”卽此教也. 此教三乘, 因同果異. 證果雖異, 同斷見思, 同出分段, 同證偏真. 然於菩薩中, 有二種, 謂利鈍. 鈍則但見偏空, 不見不空, 止成當教果頭佛. 行因雖殊, 果與藏教齊, 故言通前. 若利根菩薩, 非但見空, 兼見不空. 不空卽中道,

뜻이다.

- 306) 공통된 반야[共般若]: 2종 반야 중 하나. 성문·연각 등의 소승근기와 대승의 보살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통으로 설한 가르침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보살에게만 설한 반야를 불공반야(不共般若)라 한다.

分二種, 謂但不但. 若見但中, 別教來接, 若見不但中, 圓教來接, 故言通後.

問 何位受接, 進入何位? 答 受接人三根不同, 若上根三地四地被接, 中根之人五地六地, 下根之人七地八地. 所接之教, 眞似不同, 若似位被接, 別十廻向, 圓十信位, 若眞位受接, 別初地圓初住.

問 此藏通二教, 同是三乘, 同斷四住, 止出三界, 同證偏眞, 同行三百由旬, 同入化城, 何故分二? 答 誠如所問. 然同而不同. 所證雖同, 大小巧拙永異. 此之二教, 是界內教. 藏是界內小拙, 不通於大故小, 析色入空故拙. 此教三人, 雖當教內, 有上中下異, 望通三人, 則一槩鈍根, 故須析破也. 通教則界內大巧, 大謂大乘初門故, 巧謂體色入空故. 雖當教中三人上中下異, 若望藏教, 則一槩爲利.

問 教旣大乘, 何故有二乘之人? 答 朱雀門中, 何妨庶民出入? 故人雖有小, 教定是大, 大乘兼小, 漸引入實, 豈不巧哉? 般若方等部內, 共般若等, 卽此教也.

略明通教竟.

### 3) 별교(別教)

다음으로 별교(別敎)<sup>307)</sup>를 밝힌다.

---

307) 별교(別敎): 천태종 화법사교 중 제3교. 앞의 장교·통교와 구별되고, 뒤의 원교와도 구별되므로 별교라 한다. 오직 보살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고, 이승(二乘)과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교(不共敎)·독보살교(獨菩薩敎)라고도 한다. 별교에서의 공·가·중(空假中)은 점차적인 것으로 원융상즉에는 이르지 못한



이 가르침은 삼계(三界) 밖<sup>308)</sup>의 독보살법(獨菩薩法)<sup>309)</sup>을 밝힌 것이다. 가르침[敎]·이치[理]·지혜[智]·끊음[斷]·수행[行]·계위[位]·원인[因]·결과[果]가 이전의 두 가르침과 다르고 뒤의 원교와도 다르므로 별교라고 한다. 『열반경』에 “사제(四諦)의 인연은 한량없는 모습이 있어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310)</sup>라 하였다. 여러 대승경전에서 보살이 오랜 겁 동안 수행한 것과 수행 계위의 차례가 서로 포용되지 않음<sup>311)</sup>을 널리 밝혔으니 이는 모두 별교의 모습이다. 『화엄경』에서는 십주위(十住位)·십행위(十行位)·십회향위(十回向位)를 현위(賢位)<sup>312)</sup>로, 십지위(十地位)를 성위(聖位)<sup>313)</sup>로, 묘각위(妙覺位)를 불위(佛位)로 삼았음을 밝혔고, 『영락경』에서는 52위<sup>314)</sup>를 밝혔고, 『금광명경』에

다. 차례대로 공·가·중 3관을 닦고, 차례대로 삼계의 이치를 비추며, 차례대로 52계위를 밟아가고, 차례대로 견사혹·진사혹·무색혹 등을 끊어가며, 차례대로 이체지·도종지·일체종지의 세 가지 지혜를 얻는다.

308) 삼계(三界) 밖: 생사유전이 반복되는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를 벗어난 그 밖의 모든 불보살의 정도.

309) 독보살법(獨菩薩法): 별교는 오직 보살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살수행의 단계적인 계위를 설정한 가르침이므로 독보살법이라 한다.

310) 『열반경』의 다음 구절에서 가져옴. “선남자여. 사성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음을 알라. 첫째는 중지이고 둘째는 상지이다. 중지는 성문과 연각의 지혜이고 상지는 불과 보살의 지혜이다. 선남자여. 여러 음이 고통임을 아는 것을 이름하여 중지라 한다. 여러 음을 분별하는데 무량한 모습이 있어 모두 여러 고통이어서 성문이나 연각이 아는 바가 아니니 이것이 상지이다.”(권12 대12 p.684a23~27 善男子. 知四聖諦有二種智. 一者中二者上. 中者聲聞緣覺智, 上者諸佛菩薩智. 善男子. 知諸陰苦, 名爲中智. 分別諸陰有無量相悉是諸苦非諸聲聞緣覺所知, 是名上智.)

311) 별교에서는 하나하나의 수행계위를 차례로 닦아 올라가야 함을 말한다.

312) 현위(賢位): 범부위 가운데 내범부로서 수행을 한 후에 진여를 보는 계위.

313) 성위(聖位): 무명을 끊고 진여를 보는데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부처의 성품을 깨달아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임을 깨달아 아는 계위.

서는 다만 십지위와 불과위(佛果位)만을 드러냈으며, 『승천왕경』에서는 십지위를 밝혔고, 『열반경』에서는 오행(五行)<sup>315)</sup>을 밝혔다. 이와 같이 여러 경전에서 더하고 덜함이 다른 것은 삼계 밖의 보살의 근기에 따라 이익 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일정한 설이 있겠는가? 그러나 계위의 차례가 두루 갖춘 것으로는 『영락경』보다 나은 것이 없으므로 지금 이 경에 의거하여 대략 보살이 거치는 수행 계위와 번뇌를 끊고 지혜를 증득하는 모습 등을 설명하겠다.

52위는 일곱 과문(科門)으로 묶이는데, 10신위·10주위·10행위·10회향위·10지위·등각위·묘각위이다. 또 일곱 과문을 합쳐 둘로 나뉘보면 첫째는 범부의 지위[凡位]이고 둘째는 성인의 지위[聖位]이다. 범부의 계위에는 또 둘이 있으니 10신위는 외범위(外凡位)이고, 10주위·10행위·10회향위는 내범위(內凡位)이며 내범위를 또 현위(賢位)라고도 한다. 성인의 계위 또한 둘인데 10지위·등각위는 인위(因位)이고 묘각위는 과위(果位)이다.<sup>316)</sup> 크게 나누면 이와 같은데, 아래에서 자세히 풀이한다.

314) 52위 : 10신위·10주위·10행위·10회향위·10지위·등각위·묘각위.

315) 오행(五行) : 보살이 전심으로 사유하여 항상 수행하는 다섯 가지 행. 첫째 성행(聖行)은 삼학에 의해 닦는 보살의 정행, 둘째 범행(梵行)은 애착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행, 셋째 천행(天行)은 천연의 이치에 의해 이루는 훌륭한 행, 넷째 영아행(嬰兒行)은 마치 어린애를 대하는 것처럼 인 천 소승의 작은 선의 행과 같은 행, 다섯째 병행(病行)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번뇌로 괴로워하는 행.(『大般涅槃經』 권11 大12 p.432a8~12)

316) 별교의 수행계위.

범위	□	외범 — 10신
	□	내범 — 10주 10행 10회향
성위	□	인위 — 10지 등각
	□	과위 — 묘각

### (1) 십신위(十信位)

먼저 십신위(十信位)<sup>317)</sup>이다. 첫째는 믿음[信], 둘째는 마음에 새김[念], 셋째는 정진(精進), 넷째는 지혜[慧], 다섯째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定], 여섯째는 물러서지 않음[不退], 일곱째는 수행의 공덕을 되돌림[回向], 여덟째는 불법을 지킴[護法], 아홉째는 계(戒), 열째는 원(願)이다. 이러한 10위는 삼계의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의 번뇌를 조복시키므로 복인위(伏忍位)<sup>318)</sup>라고 한다. <외범> 장교(藏敎)의 일곱 현위(賢位)<sup>319)</sup>, 통교(通敎)의 간혜지위(幹慧地位)·성지위(性地位)<sup>320)</sup>와 같다.

### (2) 십주위(十住位)

다음으로 십주위(十住位)<sup>321)</sup>를 밝힌다. 첫째는 발심주(發心住)<sup>322)</sup><삼계의 견혹을 끊어 없애므로 장교의 첫 번째 수다원과(須陀洹果), 통교의 팔인지(八人地)·견지(見地)와 같다>, 둘째는 치지주(治地住)<sup>323)</sup>, 셋째는 수행주(修行住)<sup>324)</sup>, 넷째

317) 십신위(十信位):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처음의 10위.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계위이다.

318) 복인위(伏忍位): 과(果)를 증득하여 번뇌를 모두 끊어 없애지는 못하고 단지 유루(有漏)의 뛰어난 지혜로써 번뇌를 숨기고 눌러 일어나지 않도록 할 뿐인 계위.

319) 장교칠현위(藏敎七賢位): 장교의 범부위인 5정심처·별상념처·총상념처·난위·정위·인위·세제일위.

320) 통교의 10지 가운데 초지인 간혜지와 제2지인 성지

321) 십주위(十住位):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제11위부터 제20위까지의 계위. 10신(信)의 계위를 지나서 마음이 진제(眞諦)의 이치에 안주(安住)하게 되는 계위이다.

322) 발심주(發心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보살은 이 계위에서 중가입공관(從假入空觀)을 성취하여 참된 무루지를 내고 참된 방편으로 십주심을 일으켜 항상 신심을 갖고 일체행을 수행한다.

323) 치지주(治地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2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항상 공관(空

는 생귀주(生貴住)<sup>325)</sup>, 다섯째는 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sup>326)</sup>, 여섯째는 정심주(正心住)<sup>327)</sup>, 일곱째는 불퇴주(不退住)<sup>328)</sup>〈이상 여섯 계위는 삼계의 사혹을 끊어 없앤다. 물러서지 않는 계위를 얻으므로 장교와 통교의 불지(佛地)와 같다〉, 여덟째는 동진주(童眞住)<sup>329)</sup>, 아홉째는 법왕자주(法王子住)<sup>330)</sup>, 열째는 관정주(灌頂住)<sup>331)</sup>〈이상 세 주는 삼계 안의 진사혹(塵沙惑)<sup>332)</sup>을 끊고 삼계 밖의 진사혹을 조복시킨다. 이전의 장교와 통교는 진사혹이란 이름을 알지 못한다<sup>333)</sup>〉이다. 또한 습종성

---

觀)을 닦아 심지(心地)를 청정하게 다스리고 앞의 지에서 닦은 묘심으로 실천수행하고 다스린다.

- 324) 수행주(修行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두루 밝아져서 시방 어느 곳이고 교화하는데 걸림이 없이 모든 선행을 닦는다.
- 325) 생귀주(生貴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 여래종(如來種)에 들어가는 지위.
- 326) 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5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부처님과 같이 자리아타의 방편행을 갖추어 모습에 결함 없이 모두 구족되는 지위.
- 327) 정심주(正心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6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용모 뿐만 아니라 바른 마음도 부처님과 같아지는 지위.
- 328) 불퇴주(不退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7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몸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날마다 더욱 자라고 물러서지 않는 지위.
- 329) 동진주(童眞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8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그릇된 소견이 생기지 않고 보리심을 없애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하여 애욕이 없는 것과 같아서 부처님의 심신의 모습이 일시에 갖추어지는 지위.
- 330) 법왕자주(法王子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19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해가 생겨, 다음 세상에 부처님 지위를 이을 지위.
- 331) 관정주(灌頂住):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0번째에 해당하는 지위. 보살이 이미 부처님의 왕자로서 법왕인 부처님으로부터 머리에 관정을 받는 지위.
- 332) 진사혹(塵沙惑): 티끌과 모래처럼 많은 번뇌.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마음이 어두워 한없이 많은 법문을 알아 자재로이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임. 삼혹의 둘째. 삼혹은 첫째는 견도와 수도에서 끊는 견혹과 사혹을 말하는 견사혹(見思惑), 셋째는 미망의 근본이 되어 밝은 지혜가 없는 번뇌를 말하는 무명혹(無明惑).

(習種性)<sup>334)</sup>이라 이름하니 가(假)로부터 공(空)에 들어가는 관법[從假入空觀]<sup>335)</sup>으로써 진제(眞諦)의 이치를 보고 지혜의 눈[慧眼]을 열어 일체지(一切智)를 이루고 삼백유순을 가는 것이다.

### (3) 십행위(十行位)

다음으로 십행위(十行位)<sup>336)</sup>를 밝힌다. 첫째는 환희행(歡喜行)<sup>337)</sup>, 둘째는 요익행(饒益行)<sup>338)</sup>, 셋째는 무위역행(無違逆行)<sup>339)</sup>, 넷째는 무굴요행(無屈撓行)<sup>340)</sup>, 다섯째는 무치란행(無癡亂行)<sup>341)</sup>, 여섯째는 선현행(善現行)<sup>342)</sup>, 일

333) 장교와 통교는 삼계안의 견혹과 사혹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삼계 밖의 진 사혹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34) 습종성(習種性): 보살의 인행(因行)으로부터 과(果)에 이르는 여섯 가지 수행위(修行位) 종성(種性) 중 하나. 보살 수행의 계위 중 10주위 보살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위에서는 공관(空觀)을 닦아 견혹과 사혹을 끊고 이것으로 중좌에 이르는 중자를 삼음으로 습종성이라 한다.

335) 가(假)로부터 공(空)에 들어가는 관법[從假入空觀]: 천태종의 별교관법인 차제 삼관(次第三觀) 중 하나. 미(迷)의 경계를 관파(觀破)하여 일제개공의 이치에 들어가는 관법이다.

336) 십행위(十行位):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제21위부터 제30위까지의 계위이다. 보살이 십주의 마지막에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인가를 얻은 후에 나아가 이타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중생제도에 노력하는 계위이다.

337) 환희행(歡喜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1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첫째 지위. 공의 이치를 체득하였으므로 번뇌에 동요되지 않고 기뻐하는 행이다.

338) 요익행(饒益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2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둘째 지위. 세달음으로 얻은 기쁨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교화하는 행이다.

339) 무위역행(無違逆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3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셋째 지위. 중생을 교화할 때 근기에 따라 적용하여 어긋나거나 거스름이 없는 행이다.

340) 무굴요행(無屈撓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4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넷째 지위.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지만 교화의 목적에 대하여 뜻을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행이다.

341) 무치란행(無癡亂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5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다섯째

곱째는 무착행(無著行)<sup>343)</sup>, 여덟째는 난득행(難得行)<sup>344)</sup>, 아홉째는 선법행(善法行)<sup>345)</sup>, 열째는 진실행(眞實行)<sup>346)</sup>〈삼계 밖의 진사혹을 끊음〉이다. 또한 성종성(性種性)<sup>347)</sup>이라고도 하니 공(空)으로부터 가(假)에 들어가는 관법[從空入假觀]<sup>348)</sup>으로써 속제(俗諦)를 보고 법안(法眼)을 열어 도종지(道種智)<sup>349)</sup>를 이룬다.

---

지위. 중생 교화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근기를 잘 구별하여 어리석거나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 행이다.

- 342) 선현행(善現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6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여섯째 지위.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언제나 복덕과 지혜를 나타내는 행이다.
- 343) 무착행(無著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7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일곱째 지위.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좋다 나쁘다 집착하지 않는 행이다.
- 344) 난득행(難得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8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여덟째 지위. 증득하기 어려운 선근(善根)을 성취하여 얻기 어려운 덕을 마음에 지님으로써 중생에게 가르침을 직접 베풀지 않아도 그것이 귀감이 되는 행이다.
- 345) 선법행(善法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29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아홉째 지위. 중생을 교화하는 좋은 행위가 중생에게 모범이 되어 중생들이 스스로 좋은 일을 짓게 하는 행이다.
- 346) 진실행(眞實行): 보살의 52 수행 계위 중 30번째에 해당하는 10행의 열째 지위. 공관과 가관을 모두 익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진실의 중도(中道)를 터득하여 말과 행동이 상응하는 행이다.
- 347) 성종성(性種性): 6종성의 하나. 공(空)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가성(假性)을 분별하는 종자를 심음으로 성종성이라 한다. 보살의 수행 계위 중 10행위 보살이 이에 해당한다.
- 348) 공(空)으로부터 가(假)에 들어가는 관법[從空入假觀]: 천태종 별교의 차제삼관 중의 하나. 보살이 공(空)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나아가 중생교화를 위하여 가유(假有)의 이치를 관하는 관법. 마치 병도 알고 약도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어 먹게 하는 것과 같이, 이 관법을 닦는 결과로서 3혹 가운데 진사혹을 끊고 3지 중 도종지를 얻는다.
- 349) 도종지(道種智): 세간과 출세간이 모든 도의 종류와 차이를 두루 아는 지혜. 보살만이 가지는 보살의 불공지(不共智).

#### (4) 십회향위(十廻向位)

다음으로 십회향위(十廻向位)<sup>350)</sup>를 밝힌다. 첫째는 중생을 구호하지만 중생의 모습을 떠나는[救護衆生離衆生相] 회향, 둘째는 모든 현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공한[不壞] 회향, 셋째는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等一切諸佛] 회향, 넷째는 모든 곳에 도달하는[至一切處] 회향, 다섯째는 다함이 없는 공덕을 쌓는[無盡功德藏] 회향, 여섯째는 모든 평등한 선근에 들어가는[入一切平等善根] 회향, 일곱째는 일체 중생에 평등하게 따르는[等隨順一切衆生] 회향, 여덟째는 진여의 모습을 관하는[眞如相] 회향, 아홉째는 속박되거나 집착함이 없는 해탈을 이룬[無縛無著解脫] 회향, 열째는 법계의 무량함 속으로 들어가는[入法界無量] 회향이다<무명을 억누르고 중관(中觀)을 익힘>. 또 도종성(道種性)<sup>351)</sup>이라고도 하고 4백 유순을 가서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sup>352)</sup>에 머무른다<이상 30위는 3현이니 또 내범(內凡)이라고도 함. 8주(동진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행에서 물러서지 않는[行不退]<sup>353)</sup> 지위라 함>.

350) 십회향(十廻向)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중에서 제31위부터 제40위까지. 10행을 마치고, 다시 지금까지 닦은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여러 행을 일체중생을 위하여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덕으로 불과를 향해 나아가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위.

351) 도종성(道種性) : 6종성의 하나. 중도관을 닦아 계외의 미혹을 조복시켰으므로 중도의 종자가 되는 성품. 보살의 수행 계위 중 10회향위가 이에 해당한다.

352)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 : 방편도인 공관(空觀)과 가관(假觀)을 수행하여 삼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견혹과 사혹을 끊어 분단생사를 벗어났으나, 아직 무명혹(無明惑)을 벗어나지 못하여 다시 계외에서 변역생사(變易生死)를 받는 장교의 이승, 통교의 삼승, 별교의 10주·10행·10회향 보살이 태어나는 불토.

353) 수행에서 물러서지 않는[行不退] : 3불퇴 중 하나. 보살의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위. 길장(吉藏)의 『법화의소』에 “그러나 경문에서 곧바로 무상보리(無上菩提)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하였는데 다만 예전에 삼중불퇴를 밝혔다. 첫째는 위불퇴(位不退)요, 둘째는 행불퇴(行不退)요, 셋째는 염불퇴(念不退)이다.”(권 1 대 34 p.461b23~25 然經文直言於無上菩提不退轉, 但舊明有三種不退, 一位不退, 二

## (5) 십지위(十地位)

다음으로 십지위(十地位)<sup>354)</sup>를 밝힌다. 첫째는 환희지(歡喜地)<sup>355)</sup>(이로부터 중도관(中道觀)을 써서 한 부분의 무명<sup>356)</sup>을 깨뜨리고 한 부분의 삼덕(三德)<sup>357)</sup>을 나타내며 나아가 등각(等覺)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성종성(聖種性)<sup>358)</sup>이라 이름함)이니 이는 중도(中道)를 보는 지위[見道位]이고 또 의식적인 작용이 없는 지위[無功用位]이다. 모든 세계에서 부처가 되어 여덟 가지 모습으로 성도(成道)를 보이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5백 유순을 가서 처음으로 참된 보토(報土)로서 장애가 없는 국토[實報無障閼土]에 들어가 처음으로 보소(寶所)에 들어간다. 둘째는 번뇌의 때를 떠난 지위[離垢地], 셋째는 지혜의 광명을 내는 지위[發光地], 넷째는 지혜가 밝게 빛나는 지위[焰慧地], 다섯째는 분별이 있는 지혜[有分別智]와 분별이 없는 지혜[無分別智]를 모두 닦아 상응시키는 어렵고도 수승한 지위[難勝地], 여섯째는 진여법성이 현전하는 지위[現前地], 일곱째는 보다 먼 곳으로 나아가는 지위[遠行地], 여덟째는 혼

---

行不退, 三念不退.)라고 하였다. 위불퇴란 십주위 중 제7주 이상의 보살은 계위에서 이승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행불퇴란 십지 중 제7지 보살은 수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염불퇴란 십지 중 제8지 이상의 보살은 불도에 정진하려는 의지를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불도에 정진한다는 뜻이다.

354) 십지위(十地位):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제41위부터 제50위까지의 계위이다. 불지(佛智)를 생성하고 능히 주지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온갖 중생을 끊어지고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이 마치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운택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地)라 한다.

355) 환희지(歡喜地): 처음으로 중도지(中道智)를 얻어 불성(佛性)의 이치를 보고 견혹을 끊으며 자리이타하여 진실한 기쁨에 가득찬 지위.

356) 상중하 3품 중 하품의 무명을 말함.

357) 삼덕(三德): 대열반이 갖추는 법신·반야·해탈의 세 가지 덕.

358) 성종성(聖種性): 6종성 중 하나. 초지에 들어와서 중도진여(中道眞如)의 이치를 보고 성위(聖位)에 들어가는 것. 보살의 수행 계위 중 10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들리지 않는 지위[不動地], 아홉째는 좋은 지혜로 미묘하게 공용하는 지위[善慧地], 열째는 법의 구름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지위[法雲地]이다(이상 9지는 각기 1품 무명<sup>359)</sup>을 끊고 일부분의 중도를 증득함).

#### (6) 등각위(等覺位)·묘각위(妙覺位)

다시 1품을 끊어 부처님과 같아지는 지위[等覺位]에 들어가니, 또한 금강처럼 굳은 마음[金剛心]이라 이름하고, 또한 일생보처(一生補處)<sup>360)</sup>라 이름하며, 또한 위 있는 대사[有上士]라 이름한다. 다시 1품 무명<sup>361)</sup>을 깨뜨려 오묘한 깨달음의 지위[妙覺位]에 들어가 연화장세계의 칠보로 장식된 보리수 아래의 대보화왕좌(大寶華王座)<sup>362)</sup>에 앉아 원만한 보신(報身)을 드러내고, 둔한 근기의 보살대중을 위해 무량한 사제[無量四諦]<sup>363)</sup>의 법륜을 굴리니, 즉 이것이 부처님의 지위[佛地]이다.<sup>364)</sup>

어떤 경론에서 설하기를 “7지 이전을 공용이 있는 도[有功用道]<sup>365)</sup>라 이

359) 상중하 3품 중 중품의 무명을 말함.

360) 일생보처(一生補處): ㉔eka-jāti-pratibaddha, 마지막으로 윤회하는 자라는 뜻. 이번 한 생만 미혹의 세계에 묶여 있는 자. 다음 생에서는 미혹을 벗어나 세간에 서 성불하는 자. 보살의 최고위인 등각을 말한다. 흔히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 있으면서 이 생이 끝나면 인간세에 하생하여 성불하여 석존의 불위를 돕게 되므로 일생보처보살이라 한다.

361) 상중하 3품 중 상품의 무명을 말함.

362) 대보화왕좌(大寶華王座): 보신불이 앉는 자리의 장중함을 형용한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더 수승한 원교의 묘각인 청정법신은 허공을 자리로 삼고 상적광토에 산다고 한다.

363) 무량한 사제[無量四諦]: 천태종 4종사제 중의 하나.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무수한 차별상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한량없는 차별이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성문과 연각은 이를 알 수 없고 오직 보살만이 이 법을 통달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름하고 8지 이상을 공용이 없는 도[無功用道]<sup>366)</sup>라 이름하고,<sup>367)</sup> 묘각위에 서는 다만 1품 무명만을 깨뜨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방편적인 교도(敎道)<sup>368)</sup>이다. 어떤 곳에서는 설하기를 “초지는 견혹을 끊고, 2지로부터 6지까지 사혹을 끊어서 아라한과 같다”<sup>369)</sup>고 한 것은 별교의 계위 이름을

364) 장·통·별교의 부처 비교.

장 교	통 교	별 교
34심으로 견혹과 사혹의 습기를 단박에 끊음	일념상응의 지혜로써 남아 있는 습기를 단박에 끊음	상중하 3품의 무명을 모두 깨트림
나무보리수 아래에 앉음	칠보보리수 아래에 앉음	연화장세계의 칠보보리수 아래
폴로 자리를 만듦	천의로 자리를 만듦	대보화왕좌에 앉음
열응장륙신을 이룸	열응신과 승응신을 이룸	보신을 드러냄
생멸사제	무생사제	무량사제

365) 공용이 있는 도[有功用道]: 신·구·의 삼업의 동작을 빌려 무상관(無相觀)을 익히는 것.

366) 공용이 없는 도[無功用道]: 작위적인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작용으로 삼업을 빌지 않고도 뜻대로 자재로운 도. 8지 이전의 수행자는 진여의 경지에서 자재로움을 얻지 못했으나, 8지 이상은 순전한 무무를 계속 일으켜 뜻대로 자재롭게 하므로 무공용도라 한다.

367) 『섭대승론석』에서 7지를 유공용, 8지를 무공용이라 하였고(권11 大31 p.230c19~20 以七地無相有功用, 八地無相無功用故.), 지의는 『법화외소』에서 초지에서 7지까지를 유공용도, 8지 이상을 무공용도라 하였다(권1 大34 p.460c16~19 宜約菩薩明學無學, 初地以上七地以還有功用道, 名之爲學, 八地以上無功用道, 稱爲無學. 故大品明菩薩有學無學地, 卽其事也.)

368) 교도(敎道): 언어 문자로 설명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하는 것. 교도는 언어 문자로 설명된 가르침 또는 거기에 바탕을 둔 실천을 뜻하며, 이에 비해 중도(證道)는 깨달음의 진리 또는 그에 합당한 경지를 가리킨다. 천태종에서 『법화경』 이외의 가르침은 모두 방편교이므로 교도이고 오직 『법화경』의 교리만이 진실한 가르침이므로 중도라고 한다.

369) 『법화현의(法華玄義)』에는 초지에서 견혹을 끊음을 말하고, 6지에서 번뇌를 끊어 나한과 같다는 견해를 소개하였고(권4 大33 p.731a18~20 豈得初地斷見乃至三地, 或云四地耶, 若斷別惑不共二乘, 此義有之. 又或言六地斷結齊羅漢.), 『마하지관(摩訶止觀)』에서는 6지에서 사혹을 모두 끊어 나한과 같다고 한 견해를 소개하였다(권6 大46 p.72b9~10 則初地斷見惑, 二地斷欲界一兩品思, …b22~23 舊云, 六地

빌려서 통교의 계위를 이름한 것일 뿐이다. 또 말하기를 “삼현십성(三賢十聖)<sup>370)</sup>은 과보에 머물지만 오직 부처님 한 분은 정토에 머문다”<sup>371)</sup> 고 하였는데 이는 별교의 이름을 빌려 원교의 계위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비슷한 종류들이 매우 많다. 이 별교에서 번뇌를 끊고 증득하는 지위가 어느 계위에 이르러 어느 번뇌를 끊으며 어느 이치를 증득하는가<sup>372)</sup>를 자세히 알아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계위를 판단하면 모두 통달할 것이다.

대략 별교를 설명해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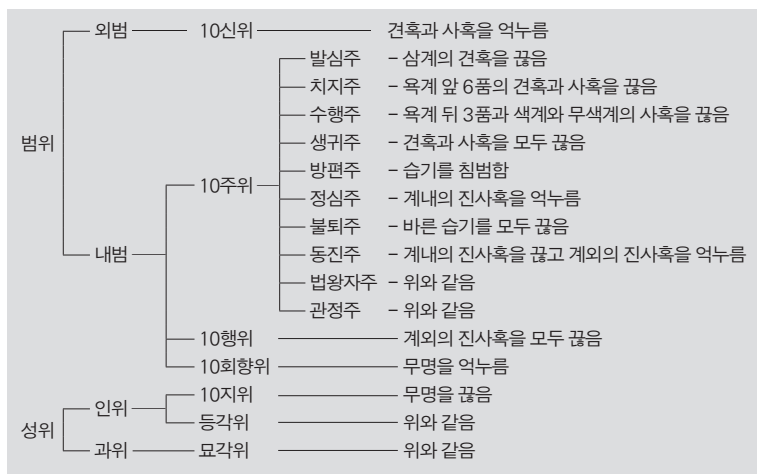
次明別教者. 此教, 明界外獨菩薩法. 教理智斷行位因果, 別前二教, 別後圓教, 故名別也, 涅槃云“四諦因緣有無量相, 非聲聞緣覺所知.” 諸大乘經, 廣明菩薩歷劫修行, 行位次第, 互不相攝, 此竝別教之相也. 華嚴明十住十行十迴向爲賢, 十地爲

斷思盡齊羅漢.)

370) 삼현십성(三賢十聖): 3현위 즉 10신위 · 10주위 · 10회향위와 10성 즉 10지위를 말함.

371) 『인왕경』 권1(大8 p.828a01)

372) 별교 수행계위에서 번뇌와 무명을 끊는 과정



聖，妙覺爲佛，瓔珞明五十二位，金光明但出十地佛果，勝天王明十地，涅槃明五行。如是諸經，增減不同者，界外菩薩，隨機利益，豈得定說？然位次周足，莫過瓔珞經故，今依彼，略明菩薩歷位斷證之相。以五十二位，束爲七科，謂信住行向地等妙。又合七爲二，初凡二聖。就凡又二，信爲外凡，住行向爲內凡，亦名爲賢。約聖亦二，十地等覺爲因，妙覺爲果。大分如此，自下細釋。

初言十信者。一信，二念，三精，四慧，五定，六不退，七迴向，八護法，九戒，十願。此十位，伏三界見思煩惱故，名伏忍位〈外凡〉。與藏教七賢位，通教乾慧性地齊。

次明十住者。一發心住〈斷三界見惑盡，與藏教初果，通教八人見地齊〉，二治地，三修行，四生貴，五具足方便，六正心，七不退〈已上六位，斷三界思惑盡，得位不退，與藏通二佛齊〉，八童真，九法王子，十灌頂〈已上三住，斷界內塵沙，伏界外塵沙，前二不知名目〉。亦名習種性，用從假入空觀，見真諦理，開慧眼，成一切智，行三百由旬。

次明十行者。一歡喜，二饒益，三無違逆，四無屈撓，五無癡亂，六善現，七無著，八難得，九善法，十真實〈斷界內塵沙惑〉。亦云性種性，用從空入假觀，見俗諦，開法眼，成道種智。

次明十迴向者。一救護衆生，離衆生相，二不壞，三等一切諸佛，四至一切處，五無盡功德藏，六入一切平等善根，七等隨順一切衆生，八眞如相，九無縛無著解脫，十入法界無量〈伏無明習中觀〉。亦名道種性，行四百由旬，居方便有餘土〈已上三十位，爲三賢，亦名內凡，從八住至此，爲行不退位〉。

次明十地者。一歡喜〈從此，用中道觀，破一分無明，顯一分三德，乃至等覺，俱名聖種性〉，此是見道位，又無功用位，百界作佛，八相成

道, 利益衆生, 行五百由旬, 初入實報無障閼土, 初入寶所. 二離垢地, 三發光地, 四燄慧地, 五難勝地, 六現前地, 七遠行地, 八不動地, 九善慧地, 十法雲地(已上九地, 各斷一品無明, 證一分中道).

更斷一品, 入等覺位, 亦名金剛心, 亦名一生補處, 亦名有上士. 更破一品無明, 入妙覺位, 坐蓮華藏世界, 七寶菩提樹下, 大寶華王座, 現圓滿報身, 爲鈍根菩薩衆, 轉無量四諦法輪, 卽此佛也. 有經論說, “七地已前, 名有功用道, 八地已上, 名無功用道, 妙覺位, 但破一品無明”者, 總是約教道說. 有處說, “初地斷見, 從二地至六地斷思, 與羅漢齊”者, 此乃借別教位名, 名通教位耳. 有云 “三賢十聖住果報, 唯佛一人居淨土”, 此借別教名, 明圓教位也. 如此流類甚衆, 須細知, 當教斷證之位, 至何位, 斷何惑, 證何理, 往判諸教諸位, 無不通達. 略明別教竟.

#### 4) 원교(圓敎)

다음으로 원교(圓敎)<sup>373)</sup>를 밝힌다.

원(圓)이라는 이름은 두루한 묘함[圓妙], 두루 가득 참[圓滿], 두루 갖추

---

373) 원교(圓敎) : 구경원만(究竟圓滿)의 가르침. 『화엄경』(60) 권55에서는 선재동자(善財童子)를 위해 원만인연수다라(圓滿因緣修多羅)를 설했다고 하였다. 중국의 교판에서 북위(北魏)의 혜광(慧光)이 점(漸)·돈(頓)·원(圓) 3교를 세우고 『화엄경』을 원교에 배당하였다. 그런데 수의 천태지의(天台智顗)는 오시팔교(五時八敎)의 교판을 세워 그 중 화법사교(삼장교·통교·별교·원교) 중 하나로 보았다. 지의가 본 ‘원(圓)’은 ‘치우치지 않고 원만한’이란 뜻이며, 특히 법화의 가르침을 원교로 파악하였다.

[圓足], 두루 한순간에 깨달음[圓頓]이므로 원교라 이름한다. 두루 조복시킴[圓伏], 두루 믿음[圓信], 두루 끊음[圓斷], 두루 행함[圓行], 원만한 계위[圓位], 원만한 자재[圓自在], 원만한 장엄[圓莊嚴], 두루 중생을 건립함[圓建立衆生] 등을 말한다.

여러 대승경론에서 부처님의 경계를 설할 때 삼승의 수행계위의 차례가 같지 않은 것은 모두 이 가르침에 속한다. 『법화경』에서 말한 “열고[開] 보이고[示] 깨닫고[悟] 들어가는[入]”<sup>374)</sup> 네 글자를 원교의 10주·10행·10회향·10지에 대위시키는데, 이것이 40위이다. 『화엄경』에서는 “처음 발심할 때 곧바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본래 가진 지혜의 몸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sup>375)</sup>거나 “청정하고 미묘한 법신이 고요히 일체에 응한다”<sup>376)</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교의 42위를 밝힌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참보(瞻蔔)나무<sup>377)</sup> 숲에서는 다른 향을 맡을 수 없으며 이 방에 들어오

374) “사리불이여! 무엇을 이름하여 제불 세존께서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라고 하는가? 제불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부처의 지건을 열어 청정을 얻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에게 부처의 지건을 보이시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들이 부처의 깨닫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중생들이 부처의 지건의 도에 들어가게 하려는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妙法蓮華經』 권1 大9 p.7a22~27 舍利弗! 云何名諸佛世尊唯以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 諸佛世尊, 欲令衆生開佛知見, 使得清淨故, 出現於世. 欲示衆生佛之知見故, 出現於世. 欲令衆生悟佛知見故, 出現於世. 欲令衆生入佛知見道故, 出現於世.)

375) “처음 발심할 때 곧바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법의 진실한 본성을 알아 지혜의 몸을 갖추니,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大方廣佛華嚴經』(60) 권8 大9 p.449c14~15 初發心時, 便成正覺, 知一切法真實之性, 具足慧身, 不由他悟.)

376) 지의의 3대부인 『법화현의』(권5 大33 p.734b17)와 『법화문구』(권10 大34 p.136c13), 『마하지관』(권9 大46 p.128c29)에 모두 언급된 구절이다. 경전 전거로는 『화엄경』에 유사한 구절이 있다.(『大方廣佛華嚴經』(60) 권9 大9 p.455a14~15 清淨法身一, 普應一切世, 湛然常不動, 十方無不現.)

377) 참보(瞻蔔)나무: ㉸campaka. 참파수(瞻波樹)·점박가수(占博迦樹)·참포(簪蔔) 등으로도 쓰며 금색화수(金色花樹)·황화수(黃花樹)로 한역한다. 열대 삼림지대나

는 이는 오직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를 맡는다”<sup>378)</sup>고 하고 또 “둘이 아닌 법문[不二法門]에 든다”<sup>379)</sup>라고 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최상승(最上乘)을 밝혔고, 『열반경』에서는 “일심오행(一心五行)”<sup>380)</sup>을 밝혔다. 또 정전에서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들어가 목욕하는데 이미 모든 강물의 물을 쓴 것이다”<sup>381)</sup>라 하였고, 또 “사가라용왕<sup>382)</sup>이 수레를 돌려 폭우를 내려도 오직 큰 바다만이 능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는 감당하지 못한다”<sup>383)</sup>고 하였으며, 또 “만 가지의 향을 찢어 환(丸)을 만들면 한 티

---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로 나무의 높이가 크고 잎이 큰데, 황색 꽃이 피어 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향기가 몇 리까지 퍼진다. 껍질과 잎과 꽃이 모두 향료로 쓰인다.

378) “사리불이여! 사람이 침복함에 들어가면 단지 침복 향기만 맡을 뿐 다른 향기는 맡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 방에 들어오면 단지 부처님의 공덕의 향기만 맡을 뿐 성문이나 벽지불 공덕의 향기를 즐겨 맡을 수 없다.”(『維摩詰所說經』 권2 大14 p.548a25~27 舍利弗! 如人入瞻蔔林, 唯嗅瞻蔔, 不嗅餘香. 如是若入此室, 但聞佛功德之香, 不樂聞聲聞辟支佛功德香也.)

379) 『유마경』 제9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서 입불이법문이 무엇이나는 유마의 물음에 법자재보살로부터 문수보살에 이르는 여러 보살들이 각자 그 내용에 대해 답하는 부분이 나온다.(『維摩詰所說經』 권2 大14 550b29~551c26)

380) 『열반경』에 오행을 말하였는데(권18 大12 p.472a7~8 若大涅槃經乃至有是五行, 所謂聖行梵行天行病行嬰兒行) 천태종에서 한 마음에 오행의 공덕을 갖추었다 하여 일심오행을 말하였다. 오행은 성행(聖行)·범행(梵行)·영아행(嬰兒行)·병행(病行)·천행(天行)이다. 오행을 삼제삼매에 배당하여 성행은 진제삼매, 범행 등 셋은 속제삼매, 천행은 중도삼매라고 한다.

381)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큰바다에서 목욕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여러 강과 샘의 물을 썼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大般涅槃經』 권24 大12 p.509b26~27 善男子. 譬如有入, 在大海浴, 當知是人已用諸河泉池之水.)

382) 사가라(娑伽羅)용왕: ㉮ Sāgara-nāgarāja. 불법을 수호하는 팔대용왕 중의 하나. 사가라는 큰 바다라는 뜻.

383) 『화엄경』에서의 인용. “비유하면 사가라용왕이 내린 큰 비는 오직 큰바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같다.”(『大方廣佛華嚴經』(60) 권27 大9 p.573a12~13 譬如娑伽羅龍王所澍大雨, 唯除大海, 餘不能受.)

끝만 태워도 모든 향기가 갖추어져 있다”<sup>384)</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원교에 속한다.

지금 『법화경』과 『영락경』에 의거하여 계위의 차례를 밝힌다. 여덟 가지이니 첫째는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외범이니 『법화경』에 나옴〉, 둘째는 십신위(내범), 셋째는 십주위(성위(聖位)의 처음), 넷째는 십행위, 다섯째는 십회향위, 여섯째는 십지위, 일곱째는 등각위(이것은 인위(因位)의 끝), 여덟째는 묘각위(이는 과위(果位))이다.<sup>385)</sup>

### (1) 오품위(五品位)

먼저 오품위(五品位)<sup>386)</sup>이다.

첫째는 수희품(隨喜品)이니 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들으면 비방하지 않고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sup>387)</sup>고 하였다.

384) 『능엄경』에서 구절을 인용하여 뜻을 취함. “건의보살이여. 비유하면 왕이 여러 대신들에게 백천 가지의 향을 찢어 가루로 만들어 어떤 사람이 그중 한 가지를 찾으면 나머지 향기를 서로 섞여 피우고 싶지 않은 것과 같다.”(『首楞嚴三昧經』 권상 大15 p.633b23~25 堅意. 譬如有王若諸大臣, 百千種香搗以爲末, 若有人來索中一種, 不欲餘香共相熏雜.)

385) 원교의 수행계위.

범위	〔	외범 —	5품위 - 견혹과 사혹을 조복시킨
		내범 —	10신위 - 견혹과 사혹, 진사혹을 모두 끊음
성위	〔	인위 —	10주위, 10행위, 10회향위, 10지위, 등각위 - 무명을 끊음
		과위 —	묘각위

386) 오품위(五品位) :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 또는 관행오품위(觀行五品位)라고도 한다. 천태종에서 원교를 수행하는 10신위 이전의 다섯가지 지위. 외범위에 해당하며 육즉위(六卽位) 중에는 관행즉의 지위에 해당한다. 이 지위는 문자의 뜻을 알아서 관행을 일으키고 심관(心觀)이 명료해지며 이해(理慧)가 상응하는 지위로서 5품 공덕을 능히 성취할 수 있다 한다. 5품은 수희품·독송품·설법품·검행육도품·정행육도품이다.



묻는다. 어느 법을 따라서 기뻐하는가?

답한다. 묘법이다.

묘법이란 곧 이 마음이다. 묘심의 체가 갖추어져 마치 여의주와 같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 차별이 없으므로”<sup>388)</sup> 이 마음은 곧 공(空)<sup>389)</sup>이며 곧 가(假)<sup>390)</sup>이며 곧 중(中)<sup>391)</sup>이다. 변함없는 경계[常境]<sup>392)</sup>는 모습이 없고 변함없는 지혜[常智]<sup>393)</sup>는 인연하는 것이 없다. 인연함이 없으면서 인연하므로 삼관[三觀]<sup>394)</sup>이 아닌 것이 없고, 모습이 없으면서 모습이 있으므로 삼제[三諦]<sup>395)</sup>가 완연하다. 처음 마음에 이를 알고 스스로 기뻐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므로 수희(隨喜)라고 한다.

안으로 삼관으로써 삼제의 대상을 관하고 밖으로 다섯 가지 뉘우침[五悔]<sup>396)</sup>으로써 부지런히 더욱 정진하여 이해를 도와 이루도록 한다. 다섯 가지 뉘우침이란 (첫째는 참회인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근원적인 이치로 참회함[理懺]<sup>397)</sup>이고 둘째는 일로써 참회함[事懺]<sup>398)</sup>이다. 이치로 참회

387) 『법화경』 권5(大9 p.45b23)

388) 『화엄경』 권10(大9 p.465c29)

389) 공(空): 인연으로 생긴 모든 존재가 자성이 없음을 관하여 하나의 성품으로 통일시키는 것.

390) 가(假): 공에 머물지 않고 연기의 차별된 세계로 전개하여 나가는 것.

391) 중(中): 공과 가의 양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것

392) 변함없는 경계[常境]: 삼제(三諦)의 진리를 말함.

393) 변함없는 지혜[常智]: 삼관(三觀)의 지혜를 말함.

394) 삼관(三觀): 공관(空觀)·가관(假觀)·중관(中觀)

395) 삼제(三諦): 공제(空諦)·가제(假諦)·중제(中諦)

396) 다섯 가지 뉘우침[五悔]: 죄를 없애기 위해 실천하는 다섯 가지 행동. ①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懺悔), ②가르침을 설하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께 요청하는 권청(勸請), ③다른 사람이 한 선행을 기뻐하는 수희(隨喜), ④착한 행위를 깨달음을 위해 돌리는 회향(回向), ⑤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발원(發願).

하는 것이란, “만약 참회하려는 이가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면 모든 죄가 서리와 이슬과 같아 지체의 태양이 녹아 없애는”<sup>399)</sup> 듯하다 하니 곧 이 뜻이다. 일로써 참회하는 것이란, 밤낮으로 하루내내<sup>400)</sup>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존상 앞에서 지은 잘못을 나열하는 것이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과거로부터 지금 몸을 받기까지 지은 모든 잘못, 아버지를 죽이고[殺父], 어머니를 죽이고[殺母], 아라한을 죽이고[殺阿羅漢], 화합승단을 깨뜨리고[破和合僧],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出佛身血], 음탕한 짓을 하고[邪淫], 도둑질하고[偷盜], 망령된 말을 하고[妄言], 꾸미는 말을 하고[綺語],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兩說], 욕설하고[惡口], 탐내고[貪], 성내고[瞋], 어리석은[癡] 것과 같은 같은 오역죄(五逆罪)와 십악행(十惡行)과 여타의 모든 일에 대하여, 뜻에 따라 드러내고 다시 덮어 감추지 않으며 필경에는 고의로 새로운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 이와 같이 하면 밖의 장애가 점점 없어지고 안의 관법이 점차 밝아져 마치 물결을 타는 배에 다시 노를 더하듯 하니 어찌 빨리 나아가 멈출 곳에 이르지 않겠는가? 원교의 수행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원교의 이치를 바르게 관하고 일과 수행이 서로 돕는다면 어찌 빨리 묘각의 피안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설을 보고 곧 점진적인 수행이라 해서는 안된다. 원교와 돈교에 이와 같은 수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어느 곳에 타고난 미륵과 자연스레 이루어진 석가가 있으랴! (모두 수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생사가 곧 열반이고 번뇌

397) 이치로 참회함[理懺] : 실상의 도리(道理)를 관(觀)하여 여러 가지 죄를 참회하는 것.

398) 일로써 참회함[事懺] : 죄를 지은 일을 낱낱이 고백하여 참회하는 것.

399)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대9 p.393b11~12)

400) 주야육시(晝夜六時)는 하루 밤낮을 여섯 시간대로 나눈 것을 말한다. 새벽 아침[晨朝], 한낮[日中], 해질녘[日沒]의 낮 삼시와, 초저녁[初夜], 한밤중[中夜], 후야(後夜)의 밤 삼시를 합쳐 하루가 된다.

가 곧 보리이며, 마음이 곧 부처이고, 움직이지 않고도 도달하며, 닦아 익히지 않아도 곧 정각을 이룬다는 것을 듣자마자 시방세계가 모두 정토이며 닿는 대로 향하여 대면하면 깨닫지 않는 이가 없다. 지금 비록 그렇게 ‘곧 부처’라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치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이는 바탕으로서의 법신[素法身]이므로 그 장엄이 없는데 어찌 수행하여 증득한 것에 관계 되겠는가? 우리들처럼 어리석은 무리들이 ‘곧 공’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곧’이 말미암는 것을 모르는 것이니, 이는 쥐가 소리를 내고[鼠唧] 새가 구구거리는[鳥空]<sup>401)</sup> 것과 같다. 경론에 널리 수록되어 있으므로 찾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권청(勸請)이란 시방의 모든 여래께서 몸을 남겨 오랫동안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셋째 수희(隨喜)란 모든 좋은 근기를 칭찬하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넷째 회향(廻向)이란 본래 가지고 있던 칭찬받는 선근을 모두 보리(菩提)로 회향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발원(發願)이란 만약 발심이 없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모름지기 발심하여 앞의 네 가지를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다섯 가지 뉘우침이다. 아래의 모든 계위로부터 곧바로 등각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다섯 가지 뉘우침이 쓰이는데, 다시 설명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미루어 알아야 한다.

둘째 독송품(讀誦品)이니 경에 이르기를 “어찌 하물며 독송하여 가져 다니지 않겠는가?”<sup>402)</sup>라고 하였다. 안으로 원관(圓觀)을 하고 거기에 독송을 더하는 것이므로 마치 기름이 불을 돕는 것과 같다.

401) 『마하지관』에 “곧 이것이다라고 잘못 말하는 것은 쥐가 짹짹거리는 소리와 같고, (요지가 없는) 빈 것만 말하는 것은 허공을 나는 새가 공공거리는(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권8 大46 p.104c17~18) 謬謂卽是 猶如鼠唧 若言空空 如空鳥空”라고 하였다.

402) 『법화경』 권5(大9 p.45c18 若人讀誦受持是經)

셋째는 설법품(說法品)이니 경에 이르기를 “만약 가져 지니며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sup>403)</sup>이라 하였다. 안의 이해가 더욱 뛰어나서 이끄는 이로움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교화의 공덕이 자기에게 돌아와 마음이 전보다 배나 뛰어나게 된다.

넷째는 겸행육도품(兼行六度品)이니 경에 이르기를 “하물며 다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수지하고 아울러 보시바라밀 등을 행하리오”<sup>404)</sup>라고 하였다. 복덕의 힘 때문에 관심(觀心)을 배로 증가시킨다.

다섯째는 정행육도품(正行六度品)이니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고 다시 능히 지계바라밀 등을 행한다”<sup>405)</sup>라고 하였다. 스스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을 말하니, 행위와 이치가 구축되어 마음을 관하는 데 장애가 없으므로 이전보다 더욱 뛰어나서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오품위는 오주(五住)의 번뇌를 원만히 조복시키므로 외범부의 계위이다. 별교의 십신의 계위와 같다.

## (2) 십신위(十信位)

다음으로 6근의 청정한 계위에 나아가니 바로 십신위(十信位)<sup>406)</sup>이다. 처음의 신위에서 견혹을 끊어 참된 이치를 드러내니 장교의 초과, 통교의 팔인지와 견지, 별교의 초주와 같으며 증득한 지위는 불퇴위이다.

다음으로 2신부터 7신에 이르기까지 사혹을 완전히 끊어 장교와 통교의

403) 『법화경』 권5(大9 p.45c18 若人讀誦受持是經, 爲他人說.)

404) 『법화경』 권5(大9 p.45c14~16 況復有人能持是經, 兼行布施 持戒 忍辱 精進 一心 智慧, 其德最勝, 無量無邊.)

405) 『법화경』 권5(大9 p.45c18 若人讀誦受持是經, 爲他人說 ; p.45c22 復能清淨持戒)

406) 십신위(十信位) :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

2불, 별교의 7주와 같다. 삼계의 고제와 집제를 모두 끊어 남음이 없다. 그러므로 『인왕경(仁王經)』에 이르기를 “열 가지 선을 닦은 보살이 큰 마음을 내어 길이 삼계의 고통스런 윤회의 바다를 떠난다”<sup>407)</sup> 고 하였다. 해석하면, 십선은 각기 열 가지 선을 갖춘 것이다. 만약 별교의 십신이라면 곧 조복시킬 뿐 끊지 못하기 때문에 원교의 십신위에 속한다. 그러나 원교 수행인이 본래 기대한 것은 견혹과 사혹, 진사혹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십주위에 들어가 무명을 끊고 불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철을 다룰 때 거친 때가 먼저 없어지는 것은 본래 기대한 것이 아니고, 뜻은 기물을 완성하는데 있는 것과 같다. 기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자연히 먼저 떨어져나가니 비록 먼저 사라짐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한 생각도 기쁜 마음이 없다. 왜 그런가? 아직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교의 수행인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본래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 자연히 먼저 떨어진 것이다.

영가대사가 “(장교와 원교가) 함께 사주를 없애는<sup>408)</sup> 점에서는 같지만 무명을 조복시키는 데는 삼장교가 열등하다”<sup>409)</sup> 고 한 것이 바로 이 원교의 계위이다.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주란 단지 견혹과 사혹이다. 견혹은 하나인데 견일체처주지(見一切處住地)라 이름한다. 사혹은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욕애주지(欲愛住地)이니 욕계의 구품 사혹이다. 둘째는 색애주지(色愛住地)이니 색계 사지의 각기 구품 사혹이다. 셋째는 무색애주지(無色愛住地)이니 무색계 사지의 각기 구품 사혹이다. 이 사주는 삼장교의 부처

407)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권상(大8 p.827b14)

408) 함께 사주를 없앤다는 동제사주(同除四住)는 장교와 원교 모두가 견혹인 견일체처주지(見一切處住地), 사혹인 욕애주지(欲愛住地)·색애주지(色愛住地)·유애주지(有愛住地)를 함께 없앤다는 말이다.

409)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大48 p.392c21~22)

님이 원교의 육근이 청정한 계위의 사람과 함께 끊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주를 없앤다”고 한다. “무명을 조복시키는 데는 삼장교가 열등하다”고 한 것은 무명은 곧 삼계 밖에서 중도를 장애하는 또 다른 번뇌인데, 삼장교는 오직 삼계 안에 통하는 번뇌만을 논하는 데 그칠 뿐 무명이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찌 조복시켜 끊을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삼장교는 열등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8신에서 10신까지는 삼계 안팎의 진사혹을 모두 끊으므로 가관(假觀)<sup>410</sup>이 현전하여 속제(俗諦)의 도리를 보며 법안을 열어 도종지(道種智)를 성취하고 4백 유순을 간다. 별교의 8주위·9주위·10주위와 10행위·10회향위와 같으며 행불퇴(行不退)를 행한다.

### (3) 십주위(十住位)

다음으로 초주에 들어가서 1품의 무명을 끊고 1분의 삼덕을 증득하는데, 삼덕이란 해탈·반야·법신이다. 이 삼덕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어서 산스크리트어 이(伊)의 세 점(·)과 같고 천주(天主, 대자재천)의 세 눈과 같다. 백계에 몸을 나타내어 여덟 가지 모습으로 도를 이루며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처음 마음을 낼 때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본래부터 지닌 지혜의 몸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며, 청정하고 미묘한 법신은 고요히 일체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마음을 낸다[初發心]는 것은 초주의 이름이다.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여덟 가지 모습의 부처님<sup>411</sup>을 이루는 것

410) 가관(假觀): 가(假)를 관한다는 뜻으로, 공(空)에 머물지 않고 연기하는 존재[假]를 살피는 것이다.

411) 여덟 가지 모습의 부처님: 이 땅에 내려와 태어나 수행을 하여 성도하고 법을 설하며 열반에 든 팔상(八相)으로 대표되는 생애를 보인 부처님

이다. 이는 부분을 증득한 결과로서 곧 원교의 참된 원인이 된다. 묘각을 이론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2주 이후의 모든 계위는 헛된 것이고, 만일 거듭 설한다면 부처님에게 번거롭고 무거운 잘못이 있는 것이다. 비록 계위마다 각기 여러 계위를 포용한다는 말이 있고, 또 말하기를 “발심과 구경은 둘이 다르지 않다”<sup>412)</sup>고 하더라도 반드시 포용하는 유래를 알아야 하고 둘이 아닌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용녀(龍女)가 문득 정각을 이루고<sup>413)</sup> 모든 성문인이 당래(當來)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음은 모두 이 계위의 성불하는 모습이다. 지혜의 몸은 곧 반야의 덕으로서 요인성(了因性)<sup>414)</sup>이 개발된 것이고, 묘법신은 곧 법신의 덕으로서 정인성(正因性)<sup>415)</sup>이 개발된 것이며, 일체에 융합은 곧 해탈의 덕으로서 연인성(緣因性)<sup>416)</sup>이 개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삼신은 본래 있는 것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중관이 현전하여 부처님의 지혜안을 열고 일체의 모든 지혜를 이루어 5백

412) 『열반경』에 나오는 취지의 글. “발심과 필경은 둘이 다르지 않다”(大般涅槃經, 권38 大12 p.590a21 發心畢竟二不別)

413) 용녀의 성불: 여덟살 난 용녀가 『법화경』을 수지한 공덕으로 즉신성불한다는 것. 사갈라용왕의 딸이 여덟살이나 지혜가 매우 뛰어나 여러 부처께서 설하신 깊은 이치를 모두 수지하고 한 순간에 보리심을 내어 불퇴전의 지위를 얻었다. 다시 보주를 부처님께 바치고 이 공덕과 원력으로 문득 여자의 몸이 남자가 되어 보살행을 갖추고 찰나간에 남방 무구세계에 가서 보련화 앉아 정등각을 이루었다. (『법화경』 권4 大9 p.35b15~c19) 인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아 부파불교에서는 여자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여 대승 불전의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과 어긋나므로 불전에서 여인이 남자로 변해 성불한다는 설이 나오게 되었다.

414) 요인성(了因性): 진여의 이치를 완전히 통달하고 깨닫는 지혜

415) 정인성(正因性): 온갖 중생이 다 가지고 있고, 일체의 샅된 것을 여원 중정(中正)의 진여. 바로 부처가 될 본성.

416) 연인성(緣因性): 지혜로 하여금 더욱 밝게 하는 육바라밀의 행.

유순을 가서 보소(寶所)에 이른다. 처음에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礙土)에 머무니 염불퇴(念不退)<sup>417)</sup>의 계위이다. 다음으로 제2주부터 제10주에 이르기까지는 각기 1품 무명을 끊고 1분 중도를 증득하니, 별교의 십지와 같다.

#### (4) 십행위(十行位) · 십회향위(十廻向位) · 십지위(十地位)

다음으로 십행 중 제1행에 들어가 1품 무명을 끊으니 별교의 등각과 같고, 다음으로 제2행에 들어가니 별교의 묘각과 같다. 제3행 이후부터는 별교의 수행인이 오히려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조복시켜 끊을 수 있겠는가? 별교는 다만 12품의 무명을 깨뜨리기 때문이다.<sup>418)</sup> 그러므로 우리 집의 참다운 원인으로써 저들 집의 으뜸가는 결과로 삼는 것인데, 단지가르침이 더욱 방편이 되면 계위는 더욱 높게 되고 가르침이 더욱 진실되면 계위는 더욱 낮게 된다. 비유하면 변방이 평정되지 않으면 직위를 높이 주지만, 벼슬을 정하고 공을 논할 때는 그 자리는 실제로 낮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비록 묘각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이는 진실한 가르침 중에서는 제2 행이 된다.

#### (5) 등각위(等覺位) · 묘각위(妙覺位)

다음으로 제3행 이후로 제10지에 이르기까지는 각기 1품 무명을 끊고 1분 중도를 더하니 곧 40품의 번뇌를 끊게 된다. 다시 1품 무명을 끊고 등각위(等覺位)에 들어가니 이것이 곧 일생보처(一生補處)이다. 나아가 1품의 미세한 무명을 깨뜨리고 묘각위(妙覺位)에 들어가니, 길이 무명의 부모와

417) 염불퇴(念不退): 3불퇴 중 하나. 십지 중 제8지 이상의 보살은 불도에 정진을 하려는 의지를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불도에 정진한다는 뜻이다.

418) 10지위에서 10품, 등각과 묘각에서 각각 1품씩 모두 12품의 무명을 깨뜨림을 말함.



이별하고 구경에는 열반의 산 꼭대기에 올라 제법이 생겨나지 않고 반야도 생겨나지 않으며 생겨나지 않음도 생겨나지 않아 이를 대열반이라 한다. 허공을 자리로 삼고 청정한 법신을 이루어 항상 고요히 빛나는 땅[常寂光土]<sup>419)</sup>에 거주하니 곧 원교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원교의 계위 차례를 육즉(六卽)<sup>420)</sup>으로써 판단하지 않는다면 윗 성인에게 크게 잘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육즉으로써 계위를 판별해야 한다.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고,”<sup>421)</sup> 또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성품과 모습이 상주한다”<sup>422)</sup>고 한다. 또 이르기를 “한 색 한 향기도 중도가 아닌 것이 없다”<sup>423)</sup>라고 한 것들은 모두 이즉(理卽)<sup>424)</sup>이다. 다음으로 선지식을 따라 경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보는 것을 명자즉(名字卽)<sup>425)</sup>이라

419) 항상 고요히 빛나는 땅[常寂光土]: 우주의 진리를 국토라 하면 여기에 상주하는 부처님이 법신불(法身佛)이다. 부처님이 증득한 진리는 불신(佛身)인데, 상주하는 이와 상주하는 국토로 나누어 법신과 상적광토로 부른다. 천태종에서는 불토(佛土)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①범부와 성자가 함께 사는 범성동거토(凡聖同居土), ②방편도인 공관(空觀)과 가관(假觀)을 닦아 삼계에 태어나는 인연은 끊었지만 무명의 흠을 끊지 않아 변역생사를 받는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 ③진실한 구경의 법인 중관을 닦아 무명을 끊는 실보무장애토(實報無障礙土), ④불과를 깨달은 부처가 사는 법계의 이치 아님이 없는 상적광토 중에서 최상의 넷째를 말한다.

420) 육즉(六卽): 원교의 수행 상의 계위를 여섯으로 나눈 것. 이는 사람의 수행상 미혹하고 깨달은 차별이 있을 뿐 수행의 대상인 실상의 이치에서는 미혹함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므로 육즉이라 한다. 이즉(理卽)·명자즉(名字卽)·관행즉(觀行卽)·상사즉(相似卽)·분증즉(分證卽)·구경즉(究竟卽).

421) 『대반열반경』 권7(大12 p.404c4~5)

422) 『대반열반경』 권21(大12 p.492a17~18)

423) 지의의 삼대부인 『법화현의』(권1 大33 p.683a07), 『법화문구』(권4 大34 p.50c29), 『마하지관』(권1 大46 p.1c24~25)에 나오는 구절.

424) 이즉(理卽): 육즉의 첫 번째. 불성진여를 갖추고서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고 생사에 윤회하는 위.

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관행즉(觀行卽)<sup>426)</sup>〈오품위〉이라 하고, 비슷한 깨달음을 일으키는 것을 상사즉(相似卽)<sup>427)</sup>〈십신〉이라 하고, 한 부분을 깨뜨리고 한 부분을 보는 것을 분증즉(分證卽)<sup>428)</sup>〈초주에서 등각에 이름〉이라 하고, 지혜와 끊음이 원만한 것을 구경즉(究竟卽)<sup>429)</sup>〈묘각위〉이라고 한다.

수행의 계위 차례로 보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에 이르기 때문에 6이라 하고, 나타난 이치의 체로 보면 계위와 계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즉(卽)이라 한다. 그러므로 6자를 깊이 알면 상만(上慢)을 내지 않게 되고, ‘즉’자를 자세히 밝히면 스스로 비굴하지 않게 되어 귀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생각하고 이를 선택해야 한다.

대략 원교의 계위를 밝혀 마친다.

次明圓教者。圓名，圓妙，圓滿，圓足，圓頓故，名圓教也。所謂圓伏，圓信，圓斷，圓行，圓位，圓自在，圓莊嚴，圓建立衆生。諸大乘經論，說佛境界，不共三乘位次，總屬此教也。法華中“開示悟入”四字，對圓教住行向地，此四十位。華嚴云“初發心時便成正覺”，“所有慧身，不由他悟”，“清淨妙法身，湛然應一切，”此明圓四十二位。維摩經云“簷蔔林中，不嗅餘香，入此室者，唯聞諸佛功德之香，”又云，“入不二法門。”般若明最

425) 명자즉(名字卽): 일체가 모두 부처인 것을 가르쳐 보여 주었지만, 내 몸이 곧 부처라는 것을 이름만으로 하는 지위.

426) 관행즉(觀行卽): 처음 관지(觀智)로 심승관법을 닦으면서 육바라밀을 겸하여 닦고 육바라밀을 바로 닦는 등의 수행으로써 원묘한 이치와 상응하는 지위.

427) 상사즉(相似卽): 이렇게 하여 미혹을 없애고 깨달음의 경지에 접근하는 것.

428) 분증즉(分證卽): 1분씩 무명을 끊고 1분씩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증득하여 나아가는 지위.

429) 구경즉(究竟卽): 최후로 진리를 완전히 깨달음으로써 실증되는 것.

上乘，涅槃明一心五行。又經云“有人入大海浴，已用一切諸河之水，”又“袈伽羅龍，澍車軸雨，唯大海能受，餘地不堪，”又“擣萬種香爲丸，若燒一塵，具足衆氣。”如是等類，竝屬圓教。今且依法華瓔珞，略明位次。有八，一五品弟子位（外凡 出法華經），二十信位（內凡），三十住位（聖初），四十行，五十廻向，六十地，七等覺（是因位末），八妙覺（是果位）。

初五品位者。一隨喜品，經云“若聞是經，而不毀訾，起隨喜心。”問隨喜何法？答妙法。妙法者，卽是心也。妙心體具，如如意珠。“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此心卽空，卽假，卽中。常境無相，常智無緣。無緣而緣，無非三觀，無相而相，三諦宛然。初心知此，慶己慶人，故名隨喜。內以三觀，觀三諦境，外以五悔，勤加精進，助成理解。言五悔者，有二，一理，二事。理懺者，“若欲懺悔者，端坐念實相，衆罪如霜露，慧日能消除，”卽此義也。言事懺者，晝夜六時，三業清淨，對於尊像，披陳過罪。無始已來，至于今身，凡所造作，殺父殺母，殺阿羅漢，破和合僧，出佛身血，邪淫偷盜，妄言綺語，兩舌惡口，貪瞋癡等，如是五逆十惡，及餘一切，隨意發露，更不覆藏，畢故不造新。若如是則，外障漸除，內觀增明，如順流舟，更加櫓棹，豈不速疾，到於所止？修圓行者，亦復如是，正觀圓理，事行相助，豈不速疾，至妙覺彼岸？莫見此說，便謂漸行。謂圓頓無如是行，謬之甚矣。何處天然彌勒自然釋迦！若纔聞生死卽涅槃，煩惱卽菩提，卽心是佛，不動便到，不加修習便成正覺者，十方世界，盡是淨土，觸向對面，無非覺者。今雖然卽佛，此是理卽，亦是素法身，無其莊嚴，何關修證者也？我等愚輩，纔聞卽空，便廢修行，不知卽之所由，鼠啣鳥空。廣在經論，尋之思之。二

勸請者，勸請十方諸如來，留身久住，濟含識。三隨喜者，隨喜稱讚諸善根。四迴向者，所有稱讚善，盡迴向菩提。五發願者，若無發心萬事不成，故須發心，以導前四。是爲五悔。下去諸位直至等覺，總用五悔，更不再出，例此可知。二讀誦品者，經云“何況讀誦受持之者。”謂內以圓觀，更加讀誦，如膏助火。三說法品者，經云“若有受持讀誦，爲他人說。”內解轉勝，導利前人，化功歸己，心陪勝前。四兼行六度，經云“況復有人能持是經，兼行布施等。”福德力故，陪增觀心。五正行六度者，經云“若人讀誦，爲他人說，復能持戒等。”謂自行化他，事理具足，觀心無闕，轉勝於前，不可比喩。此五品位，圓伏五住煩惱，外凡位也。與別十信位同。

次進六根清淨位，卽是十信。初信斷見惑，顯真理，與藏教初果，通教八人見地，別教初住齊，證位不退也。次從二信，至七信，斷思惑盡，與藏通二佛，別教七住齊。三界苦集，斷盡無餘，故仁王云“十善菩薩發大心，長別三界苦輪海。”解曰十善者，各具十善也。若別十信，卽伏而不斷故，定屬圓信。然圓人本期，不斷見思塵沙，意在入住，斷無明，見佛性。然譬如冶鐵，麤垢先去，非本所期，意在成器。器未成時，自然先落，雖見先去，其人無一念欣心，所以者何？未遂所期故。圓教行人，亦復如是，雖非本所望，自然先落。永嘉大師云“同除四住，此處爲齊，若伏無明，三藏卽劣，”卽此位也。解曰四住者，只是見思。謂見爲一，名見一切處住地。思惑分三。一欲愛住地，欲界九品思，二色愛住地，色界四地各九品思，三無色愛住地，無色界四地各九品思。此之四住，三藏佛與六根清淨人同斷故，言同除四住也。言若伏無明，三藏卽劣者，無明卽界外障中道之

別惑，三藏教止論界內通惑，無明名字，尚不能知，況復伏斷？故言三藏卽劣也。次從八信，至十信，斷界內外塵沙惑盡，假觀現前，見俗諦理開法眼，成道種智，行四百由旬。與別教八九十住，及行向位齊，行不退也。

次入初住，斷一品無明，證一分三德，謂解脫般若法身。此之三德，不縱不橫，如世伊三點，若天主三目。現身百界，八相成道，廣濟群生。華嚴經云“初發心時，便成正覺，”“所有慧身，不由他悟，”“清淨妙法身，湛然應一切，”解曰 初發心者，初住名也。便成正覺者，成八相佛也。是分證果，卽此教真因。謂成妙覺謬之甚矣。若如是者，二住已去，諸位徒施，若言重說者，佛有煩重之咎。雖有位位，各攝諸位之言，又云“發心究竟二不別，”須知攝之所由，細識不二之旨。龍女便成正覺，諸聲聞人，受當來成佛記莚，皆是此位成佛之相。慧身卽般若德，了因性開發，妙法身卽法身德，正因性開發，應一切卽解脫德，卽緣因性開發。如此三身，發得本有，故言不由他悟。中觀現前，開佛眼，成一切種智，行五百由旬，到寶所，初居實報無障閼士，念不退位。次從二住，至十住，各斷一品無明，增一分中道，與別教十地齊。

次入初行，斷一品無明，與別教等覺齊。次入二行，與別教妙覺齊。從三行已去，別教之人，尚不知名字，何況伏斷？以別教，但破十二品無明故。故以我家之真因，爲汝家之極果。只緣教彌權，位彌高，教彌實，位彌下。譬如邊方未靜，借職則高，定爵論勳，其位實下。故權教雖稱妙覺，但是實教中，第二行也。

次從三行，已去至十地，各斷一品無明，增一分中道，卽斷四十品惑也。更破一品無明，入等覺位，此是一生補處。進破一品微

細無明，入妙覺位，永別無明父母，究竟登涅槃山頂，諸法不生，般若不生，不生不生，名大涅槃。以虛空爲座，成清淨法身，居常寂光土，卽圓教佛相也。

然圓教位次，若不以六卽判之，則多濫上聖，故須六卽判位。謂“一切衆生，皆有佛性，”“有佛無佛，性相常住，”又云“一色一香，無非中道”等言，總是理卽。次從善知識，及從經卷，聞見此言，爲名字卽，依教修行，爲觀行卽〈五品位〉，相似解發，爲相似卽〈十信〉，分破分見，爲分證卽〈從初住至等覺〉，智斷圓滿，爲究竟卽〈妙覺位〉。約修行位次，從淺至深，故名爲六，約所顯理體，位位不二，故名爲卽。是故深識六字，不生上慢，委明卽字，不生自屈，可歸可依，思之擇之。略明圓教位竟。

#### 4. 관심(觀心)

그런데 위의 사교(四敎)에 의지하여 수행할 때 각기 방편과 바른 수행이 있으니 이십오방편과 십승관법이다. 만약 교(敎)마다 각기 밝히면 문장이 다소 번잡해진다. 그 뜻이 비록 다르지만 이름과 수는 다르지 않으므로 이제 총괄하여 밝히니 그 뜻을 알 것이다.

##### 1) 25방편(二十五方便)

25방편은 다섯 과목으로 묶이니, 첫째는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具五緣], 둘째는 다섯 가지 욕망을 꾸짖음[訶五欲], 셋째는 다섯 가지 번뇌를 버림[棄五蓋], 넷째는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함[調五事], 다섯째는 다섯 가지 법을

행함[行五法]이다.

(1)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具五緣]

첫째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추는 것을 밝힌다.

첫째는 계를 지킴이 청정함이다. 경에서 설하기를 “이 계로 인하여 모든 선정,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는 지혜가 나오므로 비구는 마땅히 청정한 계를 지켜야 한다”<sup>430)</sup>고 한 것과 같다. 재가와 출가, 대승과 소승의 계가 다르다.

둘째는 옷과 음식이 갖추어짐이다. 옷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설산대사(雪山大士)<sup>431)</sup>처럼 얻은 옷에 따라 모습을 가리면 되는 것이니, 사람들 틈에서 노닐지 않으며 감내하여 견디는 힘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섭 등의 제자처럼 버려진 옷감을 모아 만든 옷[糞掃衣]<sup>432)</sup>이니 다만 세 가지 옷[三衣]<sup>433)</sup>만을 가지며 나머지는 갖지 않는다. 셋째는 매우 추운 나라

430) 『유교경(遺教經)』(大12 p.1111a3)

431) 설산대사(雪山大士): 설산동자(雪山童子)라고도 함. 석가모니부처님이 과거세에 브라만이 되어 청정한 설산에 들어가 보살행을 닦았다. 어느날 제석천이 변한 무서운 모습의 나찰이 시험하고자 과거불이 설한 계승을 절반만 말해 주자 브라만은 이를 듣고 마음에 환희심이 생겨나서 나머지도 말해줄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나찰은 브라만의 피와 살을 먹기를 바랐고 브라만은 구법의 마음이 간절하여 나머지 계승을 듣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암벽과 나무에 새겨두고 약속대로 나찰에게 몸을 던졌다. 그때서야 나찰은 제석천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안전하게 영접하였다. 이 인연으로 12겁을 뛰어 넘어 석가불은 미륵보다 먼저 성불하게 되었다고 한다.(『열반경』권14)

432) 버려진 옷감을 모아 만든 옷[糞掃衣]: ㉠pāṃsu-kūla, 납의(衲衣)·백납의(百衲衣)라고도 한다. 세속의 사람들이 오물이나 쓰레기에 버린 헌 옷이나 조각난 천을 주워 모아 빨아서 지은 가사. 더러운 마음을 없애고 정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 출가자들이 입는다 한다.

433) 삼의(三衣): 비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옷. ①승가리(僧伽梨, ㉠Saṃghāti)는 대의(大衣)라고 하며 정장하는 옷으로서 거리에 나가 탁발할 때, 왕명을 받아 궁궐에 들어갈 때 등에 입는 옷이다. ②울다라승(鬱多羅僧, ㉠

에서는 여래께서 또한 세 가지 옷 이외에 비구가 갖추어야 할 많은 종류의 물건 중 한 가지[百一衆具]<sup>434)</sup>를 갖도록 허락하였다. 음식에도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상근기의 대사(大士)가 깊은 산 속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나물 뿌리와 풀 열매를 원하는 대로 얻어서 몸을 지탱하는 것이다. 둘째는 항상 결식하는 것이다. 셋째는 단월이 보내주는 음식과 승가 안에서 만든 청정한 음식만 먹는 것이다.

셋째는 고요한 곳에서 한가로이 거처함이다.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한가롭다고 하며 시끄러운 곳이 없는 것을 고요하다고 한다. 거처하는 곳에도 세 가지가 있으니, 옷과 음식의 예에 준하여 알 수 있다.

넷째는 모든 인연과 일을 쉽다. 생활을 쉬고, 세상 일을 쉬고, 공교로운 기술 등을 쉬는 것이다.

다섯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함이다. 선지식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밖에서 보호하는 선지식, 둘째는 함께 가는 선지식, 셋째는 가르쳐주는 선지식이다.

## (2) 다섯 가지 욕망을 꾸짖어 제거함[訶五欲]

둘째는 다섯 가지 욕망을 꾸짖어 제거하는 것이다.

첫째는 형색[色]을 꾸짖어 제거하는 것이다. 남녀의 용모가 단정하며 장

---

uttarāsaṅga)은 상의(上衣)라고 하며 예배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포살할 때 등에 입는다. ③안타회(安陀會, ㉟antarvāsa)는 내의(內衣)라고 하며 일상 생활을 할 때나 잠을 잘 때 입는 옷이다. 이들 옷은 모두 괴색(壞色, ㉟kaṣāya)으로 만들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가사(袈裟)라고 부른다.

434) 많은 종류의 물건 중 한 가지[百一衆具]: 백일물(百一物), 백일공신(百一供身)이라고도 한다. 비구가 삼의일발(三衣一鉢) 외에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종류마다 하나의 물건만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 백이란 100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갖가지 물품이라는 뜻이다.



엄한 것, 긴 눈과 높은 눈썹, 붉은 입술과 흰 치아와 세간의 보물, 검고 누렇게 붉고 자주빛의 여러 가지 오묘한 색을 말한다.

둘째는 소리[聲]를 꾸짖어 제거하는 것이다. 현악기와 관악기[絲竹]나 고리 패옥[環珮]에서 나는 소리, 남녀가 노래 부르고 시 읊는 소리 등을 말한다.

셋째는 향기[香]를 꾸짖어 제거하는 것이다. 남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와 세간의 음식 냄새 등을 말한다.

넷째는 맛[味]을 꾸짖어 제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음식과 안주나 반찬의 뛰어난 맛 등을 말한다.

다섯째는 촉감[觸]을 꾸짖어 제거하는 것이다. 남녀 육체의 부드럽고 유연하며 섬세하고 매끄러움, 추울 때 몸의 따뜻함, 더울 때 몸의 시원함과 모든 좋은 촉감 등을 말한다.

### (3) 다섯 가지 번뇌를 버림[棄五蓋]

셋째는 다섯 가지 번뇌[蓋]<sup>435)</sup>를 버리는 것이다.

다섯 가지 번뇌란 탐욕, 성냄[瞋恚], 잠, 산란되고 후회함[掉悔]<sup>436)</sup>, 의심[疑] 등을 말한다.

### (4)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함[調五事]

넷째는 다섯 가지 일을 조절하는 것이다.

435) 개(蓋): ㉠āvaraṇa, 원래 뜻은 덮는다는 것인데, 번뇌를 말한다. 바른 지혜가 생기는 마음을 덮어서 착한 마음의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번뇌이다. 다섯 가지가 있으니 탐욕(貪欲)·진에(瞋恚)·혼면(昏眠)·도회(掉悔)·의(疑)이다.

436) 산란되고 후회함[掉悔]: 마음을 들뜨게 하고 소란하게 하는 마음 작용인 도거(掉舉, ㉠auddhatya)와 자기가 한 행위가 나빴다고 후회하는 마음 작용인 악작(惡作, ㉠kaukrtya)을 말한다.

다섯 가지 일이란 마음을 조절하여[調心]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것, 몸을 조절하여[調身] 느리거나 급하게 하지 않는 것, 숨을 조절하여[調息] 너무 느리거나 너무 가쁘지 않게 하는 것, 수면을 조절하여[調眠] 너무 절제하거나 너무 멋대로 하지 않는 것, 음식을 조절하여[調食] 배고프거나 배부르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5) 다섯 가지 법을 행함[行五法]

다섯째는 다섯 가지 법을 행하는 것이다.

첫째는 바람[欲]이니, 세간의 일체 망상의 전도됨을 떠나 일체 모든 선정과 지혜의 문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진(精進)이니, 금계(禁戒)를 굳게 지켜 다섯 가지 번뇌를 버리고 초저녁이나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열심히 정진을 행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생각[念]이니, 세간의 속임은 가볍고 천하게 여길 만하고 선정과 지혜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는 공교로운 지혜[巧慧]이니, 세간의 세속적인 즐거움과 선정과 지혜의 즐거움의 이로움과 해로움, 가볍고 무거움을 잘 헤아리는 것이다. 다섯째는 한마음[一心]이니, 생각과 지혜가 분명하여 세간은 근심스럽고 나쁘게 여길 만함을 밝게 보고, 선정과 지혜의 공덕은 존귀하게 여길 만함을 잘 아는 것이다.

이 스물다섯 가지 법은 4교 이전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편이 없다면 세간의 선정도 오히려 얻을 수 없으니 하물며 출세간의 묘한 이치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앞서 밝힌 가르침에도 이미 돈교와 점교가 같지 않았고 방편 또한 다르다. 어떤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더라도 때에 따라 살피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然依上四教修行時，各有方便正修，謂二十五方便十乘觀法。

若教教各明，其文稍煩，義意雖異，名數不別，故今總明，可以

意知。

言二十五方便者，束爲五科，一具五緣，二訶五欲，三棄五蓋，四調五事，五行五法。

初明五緣者。一持戒清淨。如經中說，“依因此戒，得生諸禪定，及滅苦智慧，是故比丘應持淨戒，”有在家出家，大小乘不同。二衣食具足。衣有三，一者如雪山大士，隨所得衣，蔽形即足，不游人間，堪忍力成故。二者如迦葉等，集糞掃衣，及但三衣，不畜餘長。三者多寒國土，如來亦許，三衣之外，畜百一衆具。食亦有三，一者上根大士，深山絕世，菜根草果，隨得資身。二常乞食。三檀越送食，僧中淨食。三閑居靜處。不作衆事名閑，無慣鬧處名靜。處有三，例衣食可知。四息諸緣務。息生活，息人事，息工巧技術等。五近善知識。有三，一外護善知識，二同行善知識，三教授善知識。

第二訶五欲。一訶色，謂男女形貌端嚴，脩目高眉，丹唇皓齒，及世間寶物，玄黃朱紫，種種妙色等。二訶聲，謂絲竹環珮之聲，及男女歌詠聲等。三訶香，謂男女身香，及世間飲食香等。四訶味，謂種種飲食，肴膳美味等。五訶觸，謂男女身分，柔輒細滑，寒時體溫，熱時體涼，及諸好觸等。

第三棄五蓋。謂貪欲瞋恚睡眠掉悔疑。

第四調五事。謂調心不沈不浮，調身不緩不急，調息不澁不滑，調眠不節不恣，調食不飢不飽。

五行五法。一欲，離世間一切妄想顛倒，欲得一切諸禪定智慧門故。二精進，堅持禁戒，棄於五蓋，初中後夜，勤行精進故。三念，念世間欺誑，可輕可賤，禪定智慧，可重可貴。四巧慧，籌量世間世樂，禪定智慧樂，得失輕重等。五一心，念慧分明，

明見世間，可患可惡，善識禪定智慧功德，可尊可貴。

此二十五法，爲四教前方便故，應須具足，若無此方便者，世間禪定，尚不可得，豈況出世妙理乎？然前明教，旣漸頓不同，方便亦異。依何教修行，臨時審量耳。

## 2) 십승관법(十乘觀法)

다음으로 바른 수행인 십승관법(十乘觀法)<sup>437)</sup>을 밝힌다. 또한 4교가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 지금은 원교를 밝히니 다른 교는 이를 예로 삼아야 한다.

첫째는 사랑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관하는[觀不思議境]<sup>438)</sup> 것이다. 한 생각의 마음[一念心]에는 삼천세간의 성상[三千性相]<sup>439)</sup>과 백계(百界)와 천여(千如)<sup>440)</sup>가 갖추어져 부족함이 없음을 관(觀)하여, 이러한 경계

---

437) 십승관법(十乘觀法) : 예비 조건으로 25방편을 닦은 후 대상을 바르게 관(觀)하는 때 규범이 되는 열 가지 관법. 이 관법으로 미망을 없애는 것이 마치 바람이 나 먼지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하여 십승풍(十乘風)이라고도 한다.

438) 사랑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관하는[觀不思議境] : 현재 일념(一念)의 마음에 대하여 부사의한 이치를 관하는 것. 일념의 망심(妄心)이 삼천의 모든 법을 갖추고, 공(空)·가(假)·중(中) 삼제의 묘리를 갖추었다고 관하는 것이다.

439) 삼천세간의 성상[三千性相] : 한 생각의 마음[一念心]에 10법계(法界)가 구축되어 있고, 1법계마다 또 10종의 법계가 구축되므로 모두 100법계를 공유(共有)하며, 100법계의 1법계마다 30종의 세간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삼천세간이 된다. 결국 한 마음에는 삼천세간의 제법성상(諸法性相)이 구축된다고 한다.

440) 백계(百界)와 천여(千如) : 한 생각의 마음에 10법계가 구축되어 있고, 1법계마다 또 10종의 법계가 구축되므로 모두 100 법계, 곧 백계(百界)가 된다. 백계는 각각 10여시(如是 : 존재하고 생기하는 방식의 범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여(千如)가 된다. 백계천여의 사상이 더욱 발전하여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로 정착되었다.

에 즉하여 곧 공(空)이며, 곧 가(假)이며, 곧 중(中)이어서 다시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며 넓고 크고 원만하여 가로 세로로 자재하다. 『법화경』에 이르기 “그 수레는 높고 넓다”<sup>441)</sup> 고 하였다(상근기는 이 경계를 바르게 관함).

둘째는 참되고 바르게 보리심을 내는[眞正發菩提心]<sup>442)</sup> 것이다. 묘한 경계에 의지하여 작위(作爲)함이 없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을 내어, 자기와 남을 모두 가없게 여기고,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 “또 그 위에 장막과 천개를 두른다”<sup>443)</sup> 고 하였다.

셋째는 교묘하게 마음을 편안케 하는 지관[善巧安心止觀]<sup>444)</sup>이다. 앞의 묘한 이치를 체득하여 항상 고요하므로 선정이라고 하고, 고요하면서도 항상 비추므로 지혜라고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 “붉은 가로지름 나무[枕]<sup>445)</sup>를 편안히 놓는다”<sup>446)</sup> 고 한 것이다(수레 안의 가로지름 나무).

441) 『법화경』 권2(大9 p.12c18~19)

442) 참되고 바르게 보리심을 내는[眞正發菩提心]: 수행자가 처음의 관(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교(圓敎)의 작위함이 없는 보리심을 발하여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홍서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443) 『법화경』 권2(大9 p.12c19~20)

444) 교묘하게 마음을 편안케 하는 지관[善巧安心止觀]: 마음을 진실한 본성에 편안히 머물도록 하는 지관이다.

445) 가로지름 나무[枕]: 수레를 멈출 때 사용하는 가로지르는 나무.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주에 “수레뒤턱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레 뒤쪽의 가로지르는 나무이니, 지금의 수레 가로지름 나무와 같은 것이다.”(云軫 輿後橫木者, 卽今之車枕一也.)라고 하였다. 지의는 “붉은 가로지름 나무를 편안히 놓는다는 것은 수레를 운행하다 멈출 때 반드시 이것으로 지탱하는 것을 말한다. (수레 밖의 가로지름 나무는) 비유하면 움직이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고, 수레 안의 가로지름 나무는 몸과 머리를〈행동을〉 쉬는 것이다.”(『법화문구』 권5 大34 p.72a25~27 安置丹枕者, 車若駕運隨所到處須此支昂, 譬卽動而靜卽靜而動, 若車內枕者休息身首.)라고 풀이하였다.

넷째는 법을 두루 깨뜨리는[破法徧]<sup>447)</sup> 것이다. 삼관(三觀)<sup>448)</sup>으로써 삼혹(三惑)<sup>449)</sup>을 깨뜨리고, 삼관일심(三觀一心)<sup>450)</sup>으로 깨뜨려지지 않는 번뇌가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바람처럼 빠르다”<sup>451)</sup>고 하였다.

다섯째는 통함과 막힘을 아는[識通塞]<sup>452)</sup> 것이다. 고제·집제·십이인연·육폐(六蔽)<sup>453)</sup>·진사혹·무명혹 등을 막힘[塞]이라 하고, 도제·멸제·인연을 없애는 지혜·육바라밀·일심삼관 등을 통함[通]이라고 함을 말한다. 통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막힌 것은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통함에서 막힘이 일어나면 깨뜨리는 것이 깨뜨려지는 것과 같으므로, 마디마디 점검하는 것을 통함과 막힘을 안다고 한다. 경에 이르기를 “붉은 가로지름 나무를 편안히 놓는다”<sup>454)</sup>고 하였다(수레 바깥의 가로지름 나무).

여섯째는 37도품을 적절하게 조절하는[道品調適]<sup>455)</sup> 것이다. 지음이 없

446) 『법화경』 권2(大9 p.12c21)

447) 법을 두루 깨뜨리는[破法徧]: 일체법에 대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두루 깨뜨리는 것이다.

448) 삼관(三觀): 천태종의 공((空)·가(假)·중(中) 삼관.

449) 삼혹(三惑): 견사혹·진사혹·무명혹을 일컫음.

450) 삼관일심(三觀一心): 일심삼관(一心三觀)이라고도 함다. 일심(一心)을 대상으로 하고, 공·가·중 삼제의 원융함을 관하여 3관상(觀相)이 일심 중에 성립함을 관하는 것이다.

451) 『법화경』 권2(大9 p.12c23)

452) 통함과 막힘을 아는[識通塞]: 어떤 행상(行相)이 법성(法性)에 통하여 들어가고 어떤 행상이 법성을 덮어 가리는가를 분별하여 통하여 들어가는 것은 남기고 덮어 가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453) 육폐(六蔽): 사람들의 청정한 마음을 덮어 가리는 여섯 가지 나쁜 마음. 간탐심(慳貪心)·과계심(破戒心)·진애심(瞋恚心)·해태심(懈怠心)·산란심(散亂心)·우치심(愚癡心)이다.

454) 『법화경』 권2(大9 p.12c21~22)

는 도품[無作品]<sup>456)</sup>을 낱낱이 조정하여 알맞게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경에 이르기를 “커다란 흰 소가 있다”<sup>457)</sup>고 한 것 등이다.(이상 다섯은 중근기를 위한 것).

일곱째는 보조가 되는 방도를 열어 대치하는[對治助開]<sup>458)</sup> 것이다. 만약 바른 도에 장애가 많아서 원교의 이치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事)의 조도(助道)를 닦아야 함을 말하니, 오정심(五停心)과 육바라밀 등을 말한다. 경에 이르기를 “또 많은 종이 따른다”<sup>459)</sup>고 하였다.(이 아래로는 하근기를 위한 것).

여덟째는 계위의 차례를 아는[知次位]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니, 자신이 더 높다는 오만[增上慢]<sup>460)</sup>을 면하기 때문이다.

아홉째는 능히 편안하게 인내하는[能安忍] 것이다. 역경이나 순경에서 안정되어 동요되지 않고 오품위에서 채찍질하여 나아가 육근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455) 37도품을 적절하게 조절하는[道品調適]: 37도품을 낱낱이 검토하여 그중 자신의 근기에 알맞은 것을 수행하여 묘리(妙理)에 들어간다.

456) 조작이 없는 도품[無作道品]: 원교(圓敎)에서 수행하는 37도품을 장교(藏敎)에서의 37도품과 구별하기 위해 설정한 용어. 원교의 도품은 수행자가 수행을 지음이 없이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무작도품이라 한다.

457) 『법화경』 권2(大9 p.14c14)

458) 보조가 되는 방도를 열어 대치시키는[對治助開]: 조도(助道)로써 장애를 대치하여 삼해탈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관행을 닦을 때 도를 장애하는 사혹(思惑)이 일어나면 그것은 무명(無明)을 도와 중도지혜(中道智慧)를 덮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바라밀과 십부정관 등으로 상응하는 법을 닦아 그것을 대치하고 바른 수행도를 도와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459) 『법화경』 권2(大9 p.12c23)

460) 자신이 더 높다는 오만함[增上慢]: ㉔abhi-māna, 교리나 수행 경지가 아직 제대로 터득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여서 거만하고 스스로 대단하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밖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도 증상만이라 한다.

열째는 법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無法愛] 것이다. 심신의 상사즉(相似卽)에 도에 집착하지 말고 초주의 진실한 이치에 들어가야 함을 말한다. 경에 이르기를 “이 보배수레를 타고 사방으로 노닐면서(40위에 노닐) 바로 도량에 이른다(묘각위)”<sup>461)</sup>고 하였다.

삼가 천태교의 광본(廣本)<sup>462)</sup>을 참고하여 오시팔교를 간추려 기록하니 대략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이는 청컨대 『법화현의(法華玄義)』 10권을 보기 바란다. 지방삼세 제불의 설법의식을 자세히 판별하여 마치 밝은 거울과 같을 것이다. 또 『정명현의(淨名玄義)』 중 제4권은 교상(敎相)을 모두 판석하였다.

이제부터는 대략 제가(諸家)의 교상을 판석한 의식을 밝힐 뿐이다.

次明正修十乘觀法. 亦四敎名同義異. 今且明圓敎, 餘敎例此. 一觀不思議境. 謂觀一念心, 具足無減, 三千性相, 百界千如, 卽此之境, 卽空, 卽假, 卽中, 更不前後, 廣大圓滿, 橫豎自在. 故法華經云 “其車高廣”〈上根正觀此境〉. 二眞正發菩提心. 謂依妙境, 發無作四弘誓願, 憫己憫他, 上求下化. 故經云 “又於其上張設憶蓋”. 三善巧安心止觀. 謂體前妙理, 常恒寂然, 名爲定, 寂而常照, 名爲慧. 故經云 “安置丹枕”〈車內枕〉. 四破法徧. 謂以三觀, 破三惑, 三觀一心, 無惑不破. 故經云 “其疾如風.” 五識通塞. 謂苦集十二因緣六蔽塵沙無明爲塞, 道滅滅因緣智六度一心三觀爲通, 若通須護, 有塞須破. 於通起塞, 能破如所破, 節節檢校, 名識通塞. 經云 “安置丹枕”〈車外枕〉. 六道

461) 『법화경』 권2(大9 p.14c18 乘是寶車, 遊於四方 ; 14a13~14 乘此寶乘, 直至道場.)

462) 광본(廣本) : 천태종의 주요 전적. 지의의 3대부인 『법화현의』·『법화문구』·『마하지관』과 5소부인 『관무량수경소』·『금광명경현의』·『금광명경문구』·『관음현의』·『관음의소』를 말한다.



品調適. 謂無作道品, 一一調停, 隨宜而入. 經云“有大白牛”等(已上五中根). 七對治助開. 謂若正道多障, 圓理不開, 須修事助, 謂五停心, 及六度等. 經云“又多僕從”(此下爲下根). 八知位次. 謂修行之人, 免增上慢故. 九能安忍. 謂於逆順, 安然不動, 策進五品, 而入六根. 十無法愛. 謂莫著十信相似之道, 須入初住真實之理. 經云“乘是寶乘, 游於四方(游四十位), 直至道場”(妙覺位).

謹案台教廣本, 抄錄五時八教, 略知如此. 若要委明之者, 請看法華玄義十卷, 委判十方三世諸佛說法儀式, 猶如明鏡, 及淨名玄義中四卷, 全判教相.

自從此, 略明諸家判教儀式耳.

## 발문(跋文)

기록한 사람인 제관스님의 전기에 “일찍이 『천태사교의』를 찬술하여 십년 만에 마쳐, 상자 속에 넣어 두고는 땀감으로나 쓰이기를 바라며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였다. 그 후 신비한 빛이 상자 속에서 나와서, 꺼내어 열어 보았더니 오직 1권 『사교의』만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전혀 없었다.”<sup>463)</sup> 고 하

463) 제관의 전기는 『불조통기』에만 있을 뿐인데, 이 책의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사교의』를 지어 광주리에 비장해 두어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대사가 나에게 머문 지 10년이 되는 어느 날 가부좌를 한 채로 입적하였다. 뒤에 사람들이 그 광주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열어 보았더니 오직 이 책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부터 여러 곳에 널리 전해져 처음 배우는 이들이 깨우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佛祖統紀』 권10 大49 p.206a28~b2 嘗以所製四教儀藏於篋, 人無知者. 師留螺溪十年, 一日坐亡. 後人見故篋放光, 開視之唯此書而已. 由是盛傳諸方, 大爲初學發蒙之助云.)

였다. 이 책은 연구마다 모두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고 감응하지 않음이 없어 도가 밝게 빛났다. 그러므로 시방제불이 근기에 응하여 설하신 점교와 돈교, 방편과 진실의 교법과 삼승인이 근기에 따라 닦은 얇고 깊으며 더디고 빠른 수행문과 일불승(一佛乘) 최상의 선관(禪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서 모두 이 책에 모여 있다. 마치 밝은 거울을 든 것처럼 모든 형상이 이에 드러나니 부처를 배우는 이들이 다투어 깊이 익히는 것은 오직 이로 말미암는다. 다만 옛 판본은 글자가 크고 두루마리가 무거워 가지고 다니는데 편치 않아 사람들이 모두 병통으로 여겼다. 지금 문인 대선사 굉지(宏之)가 사람을 시켜 고쳐 쓰도록 하고 판각하여 유통시켜, 뒤에 올 배우는 이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발문을 짓는다.

1314년(연우 1) 갑인년 초가을 첫 길일(吉日)에 목암(牧庵)<sup>464</sup> 노인이 쓴다.

錄主觀師傳云“嘗撰天台四教儀，十年乃畢，藏于篋中，薪盡之期，趺坐而逝。厥後神光，從篋中出，開視之，唯有一卷四教儀，罄無他物。”斯乃言言句句，皆符佛意，無非感應，道交然耳。故十方諸佛，應機所說，漸頓權實之教法，三乘之人，隨根所修，淺深遲速之行門，及一佛乘，最上禪觀，囊括始終，鍾在此書。如執明鏡，萬像斯現，學佛之徒，爭相溫習者，職由是也。但舊本字大卷重，未便於齋持，人皆病之。今有門人大禪師宏之，倩人改書，鏤梓流行，欲資來學故，茲跋云。

延祐年甲寅，孟秋，初吉，牧庵老人題。

464) 목암(牧庵): 생몰연대나 행적 등은 알 수 없다. 송나라 때 임제종 스님으로 천태 교관을 닦아 일심삼관의 도리를 깨달은 목암법충(牧庵法忠 1084~1149)과는 다른 사람이다.



野雲 야운

## 【自警文 자경문】

해제

1.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고

공안을 참구하라 \_\_\_\_\_

2. 열 가지 경책 \_\_\_\_\_

3. 열 가지 계법을 지켜 정각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라 \_\_\_\_\_







## 解題 해제

이 글은 고려말에 활동한 야운각우(野雲覺玆) 선사가 불법을 공부 하려는 이들에게 당부한 글이다.

야운 선사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고승인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의 제자로서 나옹의 충애를 받고 입적 후에는 다비하고 탑 과 비를 세우는 일을 주선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

자세한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야운의 생애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야운에 대한 당대의 자료는 고려 후기의 저명한 문인인 권근(權近)이 1382년에 쓴 기록이다. 이에 의하면 야운은 나옹을 오랫동안 모셨고 나옹이 매우 사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야운은 나옹이 입적하자 장례를 치르고 사리탑과 비를 세우는 일을 힘써 하였다고 하였다.<sup>1)</sup> 권근은 이 글에서 그 야운이 동료와 함께 중국 구법하러 간다 하므로 이숭인이 권근에게 글을 지어 주기를 요청하여 지은 글임을 밝히고 있다.

---

1) 권근, 『陽村先生文集』 권15 「贈玆野雲上人後序」今有玆野雲者, 懶翁侍者也. 其侍翁, 久而謹, 翁甚愛之. 及翁示寂, 荼毗得舍利, 置浮圖, 勒碑以記. 凡翁之後事, 無不力爲.



이에 따르면 야운의 법명은 각우(覺玆)로 추정된다. 우야운(玆野雲)이라 하여 법명 한 글자를 법호 앞에 쓰는 예는 고려말 기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해에 야운은 중국에 가고자 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를 세우는 일을 주선했다는 야운 또는 각우의 이름은 현재 알려진 나옹의 비인 신륵사 보제존자비나 안심사 나옹화상석종명 등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sup>2)</sup> 그러나 조선 시대에 편찬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는 나옹의 문도 중에 야운각우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sup>3)</sup>

한편 조선 초에 활동한 함허기화(涵虛己和, 1376~1433)는 야운선사와 관련된 시를 남겼다.

강월헌 위에는 강과 달이 밝고

야운당 위에는 들 구름이 한가롭네.

구름빛과 달빛이 서로 빛나는 곳

한 방에 허공 머금으니 몸 스스로 편안하도다.

江月軒上江月白 野雲堂上野雲閑

雲光月色交輝處 一室含虛體自安(「贈懶翁侍者覺牛號野雲」)<sup>4)</sup>

동 시대를 살았던 기화가 남긴 이 시 역시 야운이 나옹의 제자임을 알려 주는 명확한 자료이다. 여기서 기화가 표기한 ‘각우(覺牛)’는 ‘각우(覺玆)’의 다른 표기로 생각된다.

2) 비의 문도 명단 중에 일부 마멸된 부분이 있어 그중에 들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

나옹의 문도들은 각(覺)자와 지(志)자를 많이 따르고 있다.

3) 采永,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韓10 p.101b17

4) 己和, 『涵虛堂得通和尚語錄』, 韓7 p.245c3

야운이라는 이름으로 승려 생활을 한 사람은 또 권단(權坦, 1228~1311)이 있다.<sup>5)</sup> 이 「자경문」에 나오는 ‘생사대사’ 등의 구절이 몽산(蒙山)화상의 글에도 나오는데, 야운[권단]은 몽산의 제자인 철산소경(鐵山紹瓊)을 따라 출가하였으므로 몽산의 사상이 전수되어 그런 저술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도 권단설의 근거로 주장된다. 또한 조선시대에 「자경문」은 『몽산화상법어』와 함께 간행되어 유통된 것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몽산의 영향은 조선 전기에 지대하였으므로 이 합철 간행이 반드시 그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런데 해인사판 「자경문」의 서두에 “뜰과 문이 높고 가파르며 뜻과 기상이 고상하고 한가하다. 노함을 드러내 샅됨을 격파하는 모습을 갖추었으며, 자비를 열어 인도하는 모습을 가진 명현 대덕이신 야운우선사(門庭巖峻, 意氣高閑. 現忿怒具折邪之相, 開慈悲有引導之容, 名賢大德. 野雲牛禪師.)”라는 기록이 있다.<sup>6)</sup> 여기에서 「자경문」을 지은 야운은 각우임을 알 수 있다. 곧 나옹의 제자인 야운각우가 「자경문」의 저자인 것이다. 이에 비해 야운[권단]은 나옹의 출생 이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야운각우와 야운[권단]은 서로 다른 인물이고, 「자경문」의 저자는 야운각우로 보아야 한다.

「자경문」은 수행자가 경구로 삼아야 할 지침이다. 이 글이 일찍부터 「계초심학인문」·「발심수행장」과 함께 『초발심자경문』으로 묶여 알려졌기 때문에<sup>7)</sup> 「자경문」의 이름이 익숙하다. 그러나 이런 경책을 뜻하는 글에 ‘계

5) 李頊, 「權坦墓誌」公於許多年, 修白業斷酒, 內雖在家, 已爲靈運之佛. 頃有南嶽鐵山和尚, 航海而來, 公知其見性, 落髮而師之. 道號野雲, 遊名山飽禪味, 強七霜矣.

6) 李智冠, 1969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寶蓮閣, p.36. 이 판본은 1579년 신흥사본을 중간(重刊)한 것이다.

7) 한국불교전서 편찬시 참고한 판본은 1579년 신흥사본과 1635년 용장사본이 발

(誠), ‘잠(箴)’, ‘명(銘)’, ‘녹(錄)’ 등의 글 형식이 있고 이들은 역시 강원 교재인 『치문경훈』에 여러 편 실려 있다. 이런 글에 전주어 「자경」이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지금 전하는 판본에 「자경서(自警序)」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경에 붙인 서문이라는 이 판본의 의의를 존중하면 「자경」이 적절하나, 일반적으로 「자경문」이라고 익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경문」으로 해둔다.

「자경문」의 내용은 불법을 수행하는 이들을 위한 간절한 당부이다. 모두 열 가지 항목을 들어 후학들을 경계하였는데, 그 열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

둘째, 내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자주 움직이지 말라.

넷째, 좋은 벼를 사귀고 나쁜 벼는 사귀지 말라.

다섯째, 삼경 외에는 잠을 자지 말라.

여섯째, 망녕되게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일곱째, 재물과 여색을 대할 때는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대하라.

여덟째, 세속 사람과 사귀어 다른 이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지 말라.

아홉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열째, 대중 가운데 살면서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하라.

이 내용의 서술에 각각 계송을 붙여 마무리했고, 이 본문 내용 앞뒤에 장문의 서론과 마무리 글을 붙여 전체를 구성하였다. 육도 윤회 중에 인간 세상을 만나기 어려우니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고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간절한 당부의 내용이다.

---

심·환산시몽산·범어약록과 합철, 1633년 석왕사본이 초심·발심·사법어와 합철, 간년 미상의 동국대 소장본이 발심과 합철 간행되었다. (『한국불교전서』 권6 p.765c 각주)



여기에 나타난 사상은 나옹의 선사상 경향과 유사한 면이 있다. 주인공(主人公)을 강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주인공은 『진각국사어록』이나 『백운화상어록』 등 여러 여말 선사들이 강조한 선 수행 제시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옹의 「나옹화상승원가(懶翁和尚僧元歌)」에서는 ‘주인공주인공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인공을 강조하는 장문의 우리말 노래를 서술하고 있어 연관성이 짙게 느껴진다. 이를 보더라도 이 「자경문」의 저자는 나옹의 제자인 야운각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자경」이 보여주는 간절한 수행 방향은 일찍부터 수행자들의 지침이 되어 비슷한 성격의 지눌의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원효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과 함께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묶여 승단의 수학과정인 이력(履歷)에서 첫 번째 사미과의 교재로 채택되어 학습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우리말로도 풀어 간행되어 1577년 송광사본과 1583년 서봉사본 언해본(諺解本)이 알려져 있다. 현재에도 십여 종이 넘는 우리말 해석본이 간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 참고문헌

- 金吞虛, 1971 『吞虛講義 初發心自警文』, 佛書普及社
- 無觀, 1998 『초발심자경문 강의』, 민족사
- 白雲, 1989 「自警文의 修行思想-自警文」 『修多羅』 4, 해인사승가대학
- 성백인, 1978 「해제 야운자경서」 『명지어문학』 12·13,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 圓昌, 2001 『正音本佛典 譯註』, 曹溪宗立僧伽大學院
- 일타, 2005 『초발심자경문』, 효림
- 정우영, 2005 『초발심자경문언해』, 신구문화사



# 자경문

自警文<sup>1)</sup>

야운(野雲)<sup>2)</sup> 지음

## 1.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고 공안을 참구하라

주인공(主人公)이여, 내 말을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안에서 도(道)를 얻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긴 세월 동안 고힘(苦海)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대는 비릇함이 없는 때로부터<sup>3)</sup> 와서 지금의 생애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어울려 어리석음에 떨어져, 널리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여 3악도(三惡道)<sup>4)</sup>의 고통스런 윤회에

---

1) 『한국불교전서』 권6(p.765~767)에 수록된 원문은 제목을 「스스로 일깨우는 글 서문[自警序]」이라 하였다. 그러나 서문에 그치지 않고 내용 모두를 말하고 있으므로 「자경문(自警文)」을 제목으로 한다.

2) 야운(野雲): 고려말에 활동한 승려. 법명은 각우(覺玆). 고려말의 고승인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의 제자. 유학자인 이승인(李崇仁)도 그를 존중할 만큼 인정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권근의 글이 남아 있다. (權近, 「贈玆野雲上人後序」 『陽村先生文集』 권15)

3) 비릇함이 없는 때는 무시(無始)를 말한다. 저 먼 옛날인 태고(太古)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4) 3악도(三惡道): 윤회하는 중생이 그 지은 업에 따라 가게 되는 곳 중에서 악업을 지어 가는 세 가지 좋지 못한 곳인 지옥(地獄, ㉠narakagati)과 아귀(餓鬼, ㉠pretagati)와 축생(畜生, ㉠tiryagyonigati). 지옥으로 갈수록 더 힘든 곳이다. 이에

떨어지고, 여러 착한 일은 하지 않아 4생(四生)<sup>5)</sup>의 업의 바다에 빠졌다. 몸이 6적(六賊)<sup>6)</sup>을 따르기 때문에 혹은 악취(惡趣)<sup>7)</sup>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마음은 일승(一乘)<sup>8)</sup>을 저버렸기 때문에 혹은 사람으로 태어

비해 선한 업을 쌓아 가게 되는 삼선도(三善道)는 천상(天上, ㉔devagati)과 인간(人間, ㉕manuṣyagati)과 아수라(阿修羅, ㉖asuragati)를 말한다. 이들을 모두 합쳐 육도(六道) 또는 육취(六趣)라고 한다.

- 5) 4생(四生): 육계·색계·무색계의 삼계(三界)와 천상·인간·수라·축생·아귀·지옥의 육도(六道)의 중생들이 태어나는 네 가지 종류의 방식. 첫째는 알로 태어나는 것[卵生, ㉗aṇḍaja-yoni]이니 알의 껍질을 깨고 나는 종류로서 새와 같은 조류, 뱀과 같은 파충류, 물고기와 같은 어류를 말한다. 둘째는 태로 태어나는 것[胎生, ㉘arāyujā-yoni, ㉙jalābu-ja]이니 어미의 태 속에서 자라 태어나는 종류로서 사람과 소나 말 등의 포유류를 말한다. 셋째는 습기로 태어나는 것[濕生, ㉚samsvedajā-yoni]이니 습기가 많은 곳에서 습기로 인해 생겨나는 종류로서 파기나 모기 또는 나방 등의 곤충류를 말한다. 이 종류는 인연으로 낳는 것[因緣生] 또는 차고 뜨거운 기운의 합쳐 나는 것[寒熱和合生]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변화하여 태어나는 것[化生, ㉛upapāduka-yoni]이니 무었에 의지하지 않고 갑자기 변화하여 태어나는 종류로서 하늘과 지옥 그리고 그 중간을 떠도는 유정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업의 힘으로 인해 변화하여 낳는다고 하며, 네 종류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윤회하는 육도 중생 중에서 인간과 축생은 네 가지 종류 모두 태어나며, 아귀는 태생과 화생, 천상과 지옥은 화생으로만 태어난다고 한다. 사생은 보통 모든 중생을 통털어 부를 때 쓰이는 말이다.
- 6) 6적(六賊): 번뇌를 만들어내는 근원 여섯 가지. 모양[色]·소리[聲]·향기[香]·맛[味]·촉감[觸]·법[法]의 여섯 가지로서 육진(六塵)이라고도 한다. 번뇌인 육진은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뜻[意]의 여섯 가지 감각 작용인 육근(六根)을 매체로 모든 좋은 법을 빼앗아 가므로 도적이라고 비유한다.
- 7) 악취(惡趣): 악도(惡道)와 같은 말로 삼악도(三惡道)를 말한다. 윤회하는 중생이 악업을 지어 가게 되는 세 가지 좋지 못한 곳인 지옥과 아귀와 축생.
- 8) 일승(一乘): 부처의 가르침을 말한다. ㉜eka-yāna, 승(乘)은 실어 나른다는 뜻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다. 부처는 일승의 법을 설하여 중생들이 이에 따라 수행하여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를 의도하였다. 이 부처의 가르침은 불교의 유일한 진리로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성불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일승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중생들의 소양과 능력을 구분하

나더라도 부처님께서 탄생하기 전이나 열반한 후가 된다. 지금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의 말세<sup>9)</sup>이다. 아아, 슬프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대가 능히 반성하여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발우<sup>10)</sup>를 가지고 큰 법복을 입어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밟으며 번뇌가 없는 신묘한 법을 배우면, 마치 용이 물 속에서 노는 것 같고, 호랑이가 산에서 활개치는 것 같아 그 특히 뛰어난 이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사람에게는 옛날과 지금이 있지만 불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지만 도(道)는 성하고 쇠함이 없는 것이다. 비록 부처님께서 계실 때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로움이

---

여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의 삼승을 말하고, 이들 삼승은 궁극적으로 일승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 9) 말세: 말법(末法) 시대. 정법이 끊어져서 불법이 쇠퇴한 시대를 말한다. 불교에 서는 교법(敎法)과 수행과 증과(證果)가 갖추어졌으나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정법(正法)·상법(像法)·말법(末法)의 세 시기로 나누는데, 석가가 입멸한 뒤 불법이 유지되어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그래서 불과를 증득할 수 있는 시대를 정법시대라 하고, 가르침과 수행자는 있으나 대부분 불과를 증득하지 못하는 시대를 상법시대라 하며, 가르침은 있으나 수행할 수도 불과를 증득할 수도 없는 시대를 말법시대라 한다. 시간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은데 대체로 석가입멸 후 500년을 정법시대로, 그 다음 1000년을 상법시대, 그 뒤의 1만년을 말법시대로 구분한다.
- 10) 응기(應器)는 발우를 말함. 걸식을 하는데 필요하여 승려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구 중의 하나인 발우는 원명이 𑖀pātra로서 발다라(鉢多羅) 등으로 음역하고 응량기(應量器) 또는 응기(應器)로 의역하였다. 법대로 만든 식기로서 마땅히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하고 양에 따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응량기의 이름을 붙였다. 발다라에서 ‘발’자를 가져 오고 여기에 그릇을 뜻하는 한자 우(盂)를 덧붙여 흔히 ‘발우’라고 한다. 원형으로 아래가 넓고 평평하며 위쪽이 약간 줄어든 형태로서 철제나 토제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목제로 만들어 썼다.

있으며, 비록 말세를 만났지만 불교를 받들어 수행하면 어찌 해롭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주지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또 나는 좋은 안내자와 같아서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이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안내자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오래 세상에 머문다고 하여도 이밖에 별다른 도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여러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이어가며 실천하면 여래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sup>11)</sup>라고 하셨다.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 자신이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 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걱정하겠는가?

간절히 바라건대 그대는 모름지기 굳은 뜻을 세우고 특별한 마음을 열어 모든 인연을 버리고 뒤바뀐 생각을 없애며, 참으로 나고 죽는 큰 일<sup>12)</sup>을 위

---

11) 이 말은 『유교경론(遺敎經論)』으로부터의 인용임.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말하지만,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또 나는 좋은 안내자와 같아서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이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안내자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일 괴로움 등 사제를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묻는 것이 좋지 의심을 갖고 해결하기를 구하지 않아서는 안된다.”(『遺敎經論』 권1 大26 p.289b27~29 我如良醫，知病說藥，服與不服，非醫咎也。又如善導，導人善導，聞之不行，非導過也。汝等若於苦等四諦有所疑者，可疾問之，無得懷疑不求決也。)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오래 산다고 하여도 이밖에 별다른 도움이 없을 것이다. 제도할 만한 중생은 천상이나 인간 세상이나 간에 이미 모두 제도하였으므로 아직 제도받지 못한 중생도 모두 제도받을 인연을 지은 것이다. 이제 부터 내 여러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받들어 실천하면 여래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遺敎經論』 권1 大26 p.290b23~27 自利利人法皆具足，若我久住更無所益，應可度者，若天上人間，皆悉已度，其未度者，皆亦已作得度因緣。自今已後，我諸弟子展轉行之，則是如來法身，常在而不滅也。)

12) 나고 죽는 큰 일: 생사대사(生死大事). 나고 죽는 일은 해탈과 대비되는 불교

하여 조사들의 공안(公案)<sup>13)</sup>을 잘 참구하여 크게 깨닫는 것을 법칙으로 삼고 절대로 스스로 가벼이 여겨 물려서지 않아야 한다.

말세가 되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오래 되고 보니 마(魔)의 무리는 강해지고 불법은 약해져 사람들은 다들 사악해지니, 사람답게 할 사람은

의 근본적인 명제이므로 선가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인 생사를 마주하여 해탈을 구하도록 매우 중요하게 드는 말이다. 대혜(大慧)선사가 생사대사를 결택하는 것이 선 수행의 요체임을 말한 것이 그런 예이다. 『大慧普覺禪師語錄』 권22 「示永寧郡夫人」 大47 p.904b21) 또 남종선의 중종인 혜능(慧能)은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에서 여러 문인들을 모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고 죽는 일이 크다. 너희들이 종일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려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성이 이처럼 혼미한 데 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너희들은 각자 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아 본심의 반야의 성품을 취하여 계승 하나씩을 지어 내가 보도록 가져와라.”(『六祖大師法寶壇經』 大48 p.348a28~b3 吾向汝說。世人生死事大。汝等終日只求福田。不求出離生死苦海。自性若迷。福何可救? 汝等各去。自看智慧。取自本心般若之性。各作一偈。來呈吾看。)라고 하여 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구절은 「자경」과 함께 엮여 승가의 교재로 쓰이는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에 부가 수록된 몽산법어 중의 「몽산화상시중어(蒙山和尚示衆語)」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다. “만약 와서 이에 함께 즐거워하고 고요히 수행하려는 자는 세속의 인연과 잘못된 집착을 버리고 진실로 나고 죽는 큰일을 위하여 암자의 규칙에 따라 인간 세상의 일을 끊고 인연에 따라 받아들이라.”(『誡初心學人文』 「蒙山和尚示衆語」 大48 p.1005b18~20 若有來此同甘寂寥者。捨此世緣除去執著顛倒。眞實爲生死大事。肯順庵中規矩。截斷人事隨緣受用。)

- 13) 공안(公案): 선종에서 역대 고승들의 언행 기록 중에서 선 수행의 지침이 되거나 좌우명이 될 만하다고 꼽혀 참고해 온 것. 공안의 본 뜻은 관청에서 시비를 판결하는 법식을 말하는 것으로, 후대의 선 수행자가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법식과 같다고 하여 비유한 말이다. 이들 조사의 언행록이 정부의 정식 법령과 같이 존엄하여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를 부여한데서 시작되었다 한다. 당대에 시작되어 송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공안은 모두 합쳐 1,700 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수량에는 차이가 많다. 그중에서 한 글자나 한 구절의 말로 이루어진 것을 화두(話頭)라 하였다. 공안은 논리나 일반 상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언어를 초월한 선종의 정신을 상징한다.

적고 사람을 망칠 자는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이는 많아,  
자기가 도를 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고통스럽게 하니, 수행을 방해하는  
일 같은 것은 이루 말로써 다 할 수 없다. 그대가 길을 잘못 갈까 염려하여 내  
작은 소견으로 열 가지 수행문을 만들어 그대를 경책(警策)하려 하니 그대  
는 반드시 믿고 실천하여 한 가지도 어기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빈다.

옳는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커지고

어리석은 뜻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아상(我相)<sup>14)</sup>과 인상(人相)<sup>15)</sup>만  
는다네.

빈 속에 마음만 높아 굶주린 호랑이 같고

아는 것 없이 멋대로 하니 미친 원숭이 같네.

잘못되고 망녕된 말은 즐겨 따르면서

성현의 훌륭한 가르침은 일부러 듣지 않네.

좋은 길에 인연 없으니 누가 그대를 제도할까

기나긴 세월 악도에 빠져 고통에 몸을 얹매이네.

主人公，聽我言。幾人得道空門裏，汝何長輪苦趣中？汝自無  
始已來，至于今生，背覺合塵，墮落愚癡，亘造衆惡，而入三途

---

14) 아상(我相):나라는 생각.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이  
모여 이루어진 것을 실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사람이니 지옥이나  
축생과 다르다는 생각인 인상(人相), 내가 오온으로 생겨나 중생으로 살고 있다  
고 생각하는 중생상(衆生相),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자  
상(壽者相)과 함께 중생이 심신의 개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는 사상(四  
相)의 하나.

15) 인상(人相):우리는 사람이니 지옥이나 축생과 다르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아  
상(我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과 함께 중생이 심신의 개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는 사상(四相)의 하나.



之苦輪，不修諸善，而沉四生之業海。身隨六賊，故或墮惡趣則極辛極苦，心背一乘，故或生人道則佛前佛後。今亦幸得人身，定是佛後末世。嗚呼痛哉。是誰過歟？雖然汝能反省，割愛出家，受持應器，着大法服，履出塵之逕路，學無漏之妙法，如龍得水，似虎靠山，其殊妙之理，不可勝言。人有古今，法無遐邇，人有愚智，道無盛衰。雖在佛時，不順佛教則何益，縱值末世，奉行佛教則何傷？故世尊云，我如良醫，知病設藥，服與不服，非醫咎也。又如善導，導人善道，聞而不行，非導過也。自利利人，法皆具足，若我久住，更無所益，自今而後，我諸弟子，展轉行之，則如來法身，常住而不滅也。若知如是理，則但恨自不修道，何患乎末世也？

伏望 汝須興決烈之志，開特達之懷，盡捨諸緣，除去顛倒。真實爲生死大事，於祖師公案上，宜善叅究，以大悟爲則，切莫自輕而退屈。惟斯末運，去聖時遙，魔強法弱，人多邪侈，成人者少，敗人者多，智慧者寡，愚癡者衆，自不修道，亦惱他人，凡有障道之緣，言之不盡。恐汝錯路故，我以管見，撰成十門，令汝警策，汝須信持，無一可違，至禱至禱。

頌曰

愚心不學增憍慢 癡意無修長我人  
空腹高心如餓虎 無知放逸似顛猿  
邪言魔語肯受聽 聖教賢章故不聞  
善道無因誰汝度 長淪惡趣苦纏身<sup>16)</sup>

---

16) 『자경문』의 원문은 韓6 p.765b1~767c6.

## 2. 열 가지 정책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

밭 갈고 씨 뿌림으로부터 먹고 입기까지 사람과 소의 수고가 많은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sup>17)</sup> 해를 끼침이 끝이 없다. 남의 공으로 수고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남의 생명을 죽여 나를 살리려는 것을 차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농부도 늘 굶주리고 헐벗는 고통이 있고 직녀(織女)<sup>18)</sup>도 항상 몸 가릴 옷도 없는데, 하물며 우리는 항상 손을 놀리면서 어찌 배고프고 추운 것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그 (시주의) 은혜가 무겁고 도에 손해되지만, 헤진 옷과 채소 음식은 반드시 배뼉은 작지만 음덕을 쌓는 것이다.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소화해내기 어렵다.

옳는다.

풀뿌리 나무열매로 주린 배 달래고

송낙(松落)<sup>19)</sup>과 풀옷으로 이 몸 가리네.

---

17) 방생(傍生)은 보통 축생(畜生)을 말한다. 축생과 구분해서 말할 때는 몸이 옆으로 되어 있는 벌레나 날짐승 또는 물고기 등을 말하기도 한다.

18) 직녀(織女): 직녀성을 말하는데, 옷을 짜는 천제의 딸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시경(詩經)』에도 나오는데 “삼각형의 저 직녀성, 하루에도 일곱 번 도네(跂彼織女 終日七襄)”라고 하였다. 나중에 견우(牽牛) 직녀 설화로 정착되었는데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은하수 동쪽에 직녀성이 있는데 천제의 딸이었다. 해마다 베를 짜서 천의를 만들었는데 천제가 홀로 지내는 것을 가엽게 여겨 은하수 서쪽의 견우에게 시집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결혼한 후 베 짜는 것을 그만 두자 천제가 노하여 은하수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1년에 하루만 만나도록 하였으니 그 날이 칠월 칠석날이다. 여기서는 하늘의 옷 짜는 직녀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다는 비유로 쓰였다.

19) 송낙(松落): 송라립(松蘿笠)이라고도 한다. 소나무겨우살이를 우리나라에서 송

산두루미와 푸른 구름을 벗삼아  
높은 산 깊은 골에서 남은 해를 지내네.

其一 軟衣美食 切莫受用

自從耕種，至于口身，非徒人牛，功力多重，亦乃傍生，損害無窮。勞彼功而利我，尚不然也，況殺他命而活己，奚可忍乎？農夫每有飢寒之苦，織女連無遮身之衣，況我長游手，飢寒何厭心？軟衣美食，當恩重而損道，破衲蔬食，必施輕而積陰。今生未明心，滴水也難消。頌曰

菜根木莫慰飢腸 松落草衣遮色身  
野鶴青雲爲伴侶 高岑幽谷度殘年

둘째, 내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3악도의 고통 중에서는 탐욕이 으뜸이고 여섯 가지 바라밀<sup>20)</sup> 가운데서  
는 베풀어주는 것이 으뜸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라(松蘿)로 기생 부르는데 지의류(地衣類)에 속한다. 이 소나무겨우살이로 엮어 만드는 둥그런 갓을 송낙이라 한다. 꼭대기 부분이 뿔죽한 원뿔 모양의 고깔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 20) 여섯 가지 바라밀: 피안(彼岸)에 이르는 여섯 가지 수행. 바라밀(波羅蜜)은 바라밀다(波羅蜜多, ㄱpāramitā). 파라미타는 피안에 이른다[到彼岸]는 뜻으로 이상을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소승의 수행이 팔정도(八正道)나 37조도(助道) 등인데 비해 특히 대승의 수행을 말하여 보살(菩薩)의 수행으로 꼽는다. 첫째는 베풀어 주고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집착을 떠나는 보시(布施, ㄱdāna), 둘째는 계와 율을 잘 지켜 악업을 없애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지계(持戒, ㄱśīla), 셋째는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받아들이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 마음이 안주하는 인욕(忍辱, ㄱkṣānti), 넷째는 심신을 가다듬고 쉽없이 수행하여 게으름을 없애고 선법을 키우는 정진(精進, ㄱvīrya), 다섯째는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선과 정, 삼매를 수행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선정(禪定, ㄱdhyāna), 여섯째는 어리석음을 고쳐 진리를 체득하는 지혜(智慧, ㄱprajñā)이다.

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올 때도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내 재물도 아끼는 마음이 없는데 하물며 남의 것에 마음을 두겠는가? 온갖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보만이 내 몸을 따르는 것이다. 사흘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가 될 것이요, 백년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말 것이다.

옳는다.

3악도 괴로움의 근본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그것은 다만 여러 생 동안 애정을 탐내서였네.

우리는 부처님 옷과 발우가<sup>21)</sup> 생리에 넉넉하니

어찌 쌓아두고 무명<sup>22)</sup>을 기르겠는가.

其二 自財不吝 他物莫求

三途苦上, 貪業在初, 六度門中, 行檀居首. 慳貪能防善道, 慈施必禦惡徑, 如有貧人來求乞, 雖在窮乏 無憫惜. 來無一物來, 去亦空手去, 自財無戀志, 他物有何心? 萬般將不去, 唯有業隨身, 三日修心千載寶, 百年食物一朝塵. 頌曰

三途苦本因何起 只是多生貪愛情

我佛衣盂生理足 如何畜積長無明

21) 옷과 발우: 원문의 우(盂)는 발우를 말한다. 근본불교 시대에 비구가 개인적으로 지닐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걸식하여 먹고 살 밥그릇[발우 鉢盂] 하나와 세가지의 기본적인 옷[삼법의 三法衣] 뿐이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이 법의 특히 가사와 발우를 전하는 것을 상징으로 하였고, 여기에서 의발(衣鉢)을 전수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22) 무명: 무명(無明).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몸을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아 선정(禪定)이 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가 된다.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진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자주 나는 새는 갑자기 그물에 걸릴 재앙이 있고, 자주 나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다칠 위험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산(雪山)<sup>23)</sup>에 머무시며 6년 동안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고, 달마(達摩)<sup>24)</sup> 대사는 소림굴(少林窟)<sup>25)</sup>에

---

23) 설산(雪山): 히말라야산. ㉠Himalaya. 항상 흰 눈이 덮여 있는 히말라야를 일컫는 이름. 인도 북부 지방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대이다. 아쇼카왕 시대에 불교가 전해져 근봄나상좌부가 설산에서 교의를 드날려 부파 중의 하나인 설산부(雪山部)를 이루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흔히 석가가 정각을 이루기 위해 6년 동안 수행한 곳으로 알려져 와서 우리나라의 불전(佛傳) 팔상에서는 ‘설산에서 수도함[雪山修道]’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석가가 수행한 곳은 마가다국이었던 가야 부근 지역으로 설산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석가의 진실한 수행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석가가 전생에 설산동자(雪山童子) 또는 설산대사(雪山大士)로서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설화가 만들어져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화는 나아가 설산대사가 “제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이 모두 없애고 적멸을 즐거움으로 삼는다(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이라는 계승을 받았다는 『열반경』의 구절도 이루어지게 되었다.(『大般涅槃經』 권14 大12 p.450a12~451a1)

24) 달마(達摩): 달마(達磨)라고도 쓴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선종의 시조. 원이름은 보리달마(菩提達磨, Bodhidharma). 남인도 향지국(香至國)의 왕자로 중국 양나라에 와서 건업에서 양무제(梁武帝)를 만났으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양자강을 건너 북위에 가서 송산 소림사(少林寺)에서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했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달마의 주장이 제자 혜가(慧可)에게 전해지고 이어 승찬(僧璨), 도신(道信), 홍인(弘忍), 혜능(慧能)에 이어져 선종이 크게 융성하면서 선종의 시조로 추앙되어 초조(初祖) 달마와 육조(六祖) 혜능의 전승이 수립되었다. 전기와 저술 등에 여러 이견이 많다.

살면서 9년을 조용히 말없이 지냈다. 후대에 참선하는 사람들이 어찌 옛 길을 따르지 않겠는가?

옴는다.

몸과 마음을 잡아 정하여 본래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초암(草庵)에 앉으니 왕래가 끊어졌네.

고요하고 쓸쓸하여 한 가지 일도 없으니

단지 마음의 부처 보아 스스로 귀의하네.

其三 口無多言 身不輕動

身不輕動，則息亂成定，口無多言，則轉愚成慧。實相離言，真理非動，口是禍門，必加嚴守，身乃災本，不應輕動。數飛之鳥，忽有懼網之殃，輕步之獸，非無傷箭之禍。故世尊住雪山，六年坐不動，達摩居少林，九歲默無言。後來叅禪者，何不依古蹤？

頌曰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庵絕往來

寂寂寥寥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넷째, 좋은 벼를 사귀고 나쁜 벼는 사귀지 말라.

새가 쉬려면 반드시 숲을 가려야 하고 사람이 배우려면 스승과 벼를 잘

- 
- 25) 소림굴(少林窟): 소림사에서 조금 떨어진 산중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굴. 달마대사가 이곳에서 9년 동안 면벽 수련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소림사(少林寺)는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서북지방에 있는嵩山(嵩山)의 서쪽 봉우리인 소실산(少室山) 북쪽 기슭에 있는 절이다. 북위 효문제(北魏 孝文帝)가 천축승 불타(佛陀)선사를 위해 처음 세웠다고 하며, 달마대사 이후 선종의 조정이 되었다. 북주 무제의 폐불에 훼손되고 후에 복구되었는데 특히 당나라 초기에 소림사 승려들이 당 태종을 도왔다 하여 이후 그들이 익힌 무술이 유명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은 이어지고 있다.

선택해야 한다. 좋은 숲과 나무를 가리면 그 쉼이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가리면 배움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벗을 섬기기를 부모를 모시듯 해야 하고 나쁜 벗을 멀리하기는 원수처럼 해야 한다. 두루미는 까마귀를 벗어나지 않는데 어찌 봉새<sup>26)</sup>가 뱀새의 무리와 벗어나려 하겠는가?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칙은 천 길이나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잡초 밭의 나무는 석자도 크지 못한다. 어질지 못한 소인의 무리들은 자주 멀리해 버리고 뜻을 이룬 고상한 사람들은 자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을는다.

머물러 있을 때나 다닐 때나 반드시 착한 벗과 함께 하고

몸과 마음을 결심하여 가시와 먼지를<sup>27)</sup> 멀리 하세.

가시와 먼지를 모두 없애 앞 길이 흰히 뚫리면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고서도 조사의 관문<sup>28)</sup>을 통과하리라.

#### 其四 但親善友 莫結邪朋

26) 봉새: 봉(鵬)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전설적인 새. “북쪽 바다에 곤(鯨)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알지 못했다. 변화해서 새가 되는데 이름을 봉(鵬)이라 하였다. 봉의 등은 몇천 리나 되는지 알지 못했다. 힘차게 날면 그 날개가 하늘에 구름을 가득 드리운 듯하였다. … 봉이 남쪽 바다로 옮겨 가는데 물을 삼천리나 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나 날아 올랐다.”(『莊子』 권1 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爲鯨. 鯨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새를 봉새라 하게 되었고, 흔히 참새나 비둘기와 같은 작은 새와 견주어 일화가 만들어졌다. 한치 밖에 못가는 가는 참새나 제비가 봉새의 노정을 어찌 알겠느냐(寸步燕雀 不知鵬程)는 것이나, 봉새가 하늘로 높이 나는 뜻을 저 아래 참새가 어찌 알겠느냐(鵬飛上天 雀下不知)와 같은 말이 그것이다.

27) 형진(荊塵)은 가시와 먼지. 세상 일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비유로 쓰여 세상의 번뇌를 일컬음.

28) 조사의 관문: 깨달음을 얻어 조사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

鳥之將息，必擇其林，人之求學，乃選師友。擇林木則其止也安，選師友則其學也高。故承事善友如父母，遠離惡友似冤家。鶴無鳥朋之計，鵬豈鷗友之謀。松裏之葛，直聳千尋，茅中之木，未免三尺。無良小輩頻頻脫，得意高流數數親。頌曰  
住止經行須善友 身心決擇去荊塵  
荊塵掃盡通前路 寸步不移透祖關

다섯째, 삼경(三更)<sup>29)</sup> 외에는 잠을 자지 말라.

아득한 옛날부터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잠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의심을 일으켜 흐릿하지 말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sup>30)</sup> 하는데 상세히 빛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도록<sup>31)</sup> 하라. 한 평생을 헛되이 보내면 두고두고 한이 따를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이 잠깐이기에<sup>32)</sup> 나날이 놀랍고 두려우며, 사람의 생명도 잠깐인지라 실로 때때마다 보전하기 어렵다. 만약 조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는가?

29) 삼경(三更) : 밤 시간을 다섯으로 구분한 중에 한 중간인 한밤중의 시간. 초경은 저녁 7시~9시, 이경은 밤 9시~11시, 삼경은 11시~다음날 1시, 사경은 1시~3시, 오경은 새벽 3시~5시를 말한다.

30) 원문의 사위의(四威儀)는 행주좌와(行住坐臥) 곧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작을 말한다.

31) 원문의 회광이자간(廻光而自看)은 빛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의미로 선종에서 언어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심성을 비쳐 보는 선 수행을 말한다. 회광반조(廻光返照)도 같은 뜻이다.

32) 원문의 찰나(剎那)는 아주 짧은 한 순간. kṣaṇa, 수유(須臾) 등으로 번역한다. 한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 사이와 같이 시간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경론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현재 시간의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구사론(俱舍論)』에는 120찰나가 1달찰나(tat-kṣaṇa)이고, 60달찰나가 1라바(lava)이며, 30라바가 1무후르타(muhūrta)이며, 30무후르타가 1주야라고 하여, 이에 따르면 1찰나는 약 0.13초가 된다고 한다.



옴는다.

땀 같은 잠이 구름처럼 휘감으니 마음의 달 흐려지고

길 가는 이 여기 이르러 헤매다 다 보냈네

그중에 날랜 칼<sup>33)</sup>을 잡아 들면

구름은 저절로 모습 없어져 달은 스스로 밝으리라.

其五 除三更外 不許睡眠

曠劫障道，睡魔莫大。二六時中，惺惺起疑而不昧，四威儀內，密密廻光而自看。一生空過，萬劫追恨。無常刹那，乃日日而驚怖，人命須臾，實時時而不保。若未透祖關，如何安睡眠。頌曰  
睡蛇雲籠心月暗 行人到此盡迷程

箇中拈起吹毛利 雲自無形月自明

여섯째, 망녕되게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짐을 닦아 어진 사람이 되고자 하면 겸손하여 사양하는 것이 근본이고, 벗과 친하게 지내고 화합하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4상(四相)<sup>34)</sup>의 덧없는 산이 높아질수록 삼악도의 고통의 바다는 더욱 깊어진다.

---

33) 원문의 취모리(吹毛利)는 칼날 위에 머리털을 대고 불었더니 잘라질 만큼 칼의 날이 날카로움을 말한다. 그런 칼인 취모검(吹毛劍)은 선종에서 번뇌를 없애는 예리한 지혜를 상징한다. 반야 지혜의 예리한 칼로 삼라만상의 모든 번뇌를 단숨에 잘라내듯 무명의 잘못된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 밝은 심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취모검’이라는 화두도 생겨났는데, “어느 스님이 파릉호감(巴陵顥鑒) 스님을 찾아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파릉이 ‘산호 가지마다 달이 매달렸다’고 답했다.”(『碧巖錄』 권3 大48 p.223b21~22 僧問巴陵, 如何是吹毛劍? 陵云 珊瑚枝枝撐著月.)는 것이 그 내용이다.

34) 4상(四相): ①중생이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이 모여 이루어진 심신의 개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는 네 가지. 아상(我相)은 실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인상(人相)은 우리는 사람이니 지옥이나 축

겉으로는 존귀한 위엄을 드러냈지만 내면에 참된 소득이 없으면 썩은 배와 같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마음을 더욱 작게 하고 도가 높아질수록 뜻을 더욱 낮게 해야 한다. 인상(人相)과 아상(我相)의 산이 무너지는 곳에 진실한 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온다.

옳는다.

교만의 티끌 속에 지혜를 감추어 두고

아상 인상의 산을 높여 무명을 기르는구나.

남을 업신여기고 공부 앓아 비틀비틀 늙어가면

병들어 누워 신음하는데 한탄은 끝이 없구나.

其六 切莫妄自尊大 輕慢他人

修仁得仁, 謙讓爲本, 親友和友, 敬信爲宗. 四相山漸高, 三途海益深, 外現威儀如尊貴, 內無所得似朽舟. 官益大者心益小, 道益高者意益卑. 人我山崩處, 無爲道自成, 凡有下心者, 萬福自歸依. 頌曰

憍慢塵中藏般若 我人山上長無明

輕他不學躑躅老 病臥呻吟恨不窮

---

생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생상(衆生相)은 내가 오온으로 생겨나 중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수자상(壽者相)은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②모든 법이 생겨나고 없어져 변화하는 생겨남[生]·머물[住]·다름[異]·없어짐[滅]의 네 가지 모습. 사유위(四有爲)라고도 한다. 무상한 모든 법이 미래의 위로부터 인연의 힘으로 현재 생겨나고, 현재의 위에 안주하고, 현재의 위가 달라지고, 현재의 위에서 과거의 위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상이 찰나간에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유부의 주장을 비롯하여 부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여기서는 ①의 사상을 말한다.

일곱째, 재물과 여색을 대할 때는 반드시 바른 마음으로 대하라.

몸을 망치는 바탕은 여색(女色)보다 더한 것이 없고, 도를 잃게 하는 근본은 재물(財物)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여 재물과 여색을 엄금하셨다. 여색을 보기를 호랑이나 독사를 보듯이 하고 금과 옥을 대할 때는 나무나 돌을 보듯이 하라.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이 해서 안과 밖이 다르지 않게 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착한 신이 지켜줄 것이요 여색을 그리워하면 여러 천신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신들이 보호하면 험난한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없고, 천신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편안한 곳에 있어도 편안하지 못하다.

옳는다.

재리와 색욕은 염라왕<sup>35)</sup>이 지옥으로 인도하고

청정한 행실은 아미타불이 연화대<sup>36)</sup>에서 인접하네.

쇠사슬에 묶여 지옥에 끌려가면 고통이 천 가지요

---

35) 염라왕: 지하세계의 10대명왕을 대표하는 왕. 염라(閻羅)는 염마(閻魔)·야마(夜摩)라고도 한다. ㉔ Yāma. 인도 신화에서는 귀신세계의 시조이자 지하세계의 대표이며 지옥의 주신으로 알려졌다. 또 염라왕이 항상 노(老)·병(病)·사(死)의 세 사자를 세상에 보내 무상의 괴로움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한다. (『長阿含經』 권19 地獄品) 이 사상은 중국에 들어와 도교의 명부(冥府) 신앙과 결합하여 더욱 성행하여 명계 시왕(十王) 사상을 낳아 동아시아에 널리 수용되었다. 염라왕은 시왕 중 제5왕으로 명계 제오전을 관장하면서 대해 밑에 있는 규환(毗喚) 지옥 등을 관장한다고 한다. (『預修十王生七經』·『地藏十王經』) 그러나 실제로 시왕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명계의 대표이다.

36) 연화대: 불보살이 앉는 연화로 만든 대좌. 특히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앉는 자리를 가리킨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 오염되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불보살이 혼탁한 이 땅에 머물면서 청정함을 이루어내는 것에 비유하여 사용한다.

반야선<sup>37)</sup> 타고 연화대에 태어나면 즐거움이 끝이 없네.

其七 見財色 必須正念對之

害身之機, 無過女色, 喪道之本, 莫及貨財. 是故佛垂戒律, 嚴禁財色. 眼觀女色, 如見虎蛇, 身臨金玉, 等視木石. 雖居暗室, 如對大賓, 隱現同時, 內外莫異. 心淨則善神必護, 戀色則諸天不容, 神必護則雖難處而無難, 天不容則乃安方而不安. 頌曰  
利慾閻王引獄鎖 淨行陁佛接蓮臺  
鎖拘入獄苦千種 船上生蓮樂萬般

여덟째, 세속 사람과 사귀어 다른 이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지 말라.

마음의 애정을 떠난 사람을 사문(沙門)<sup>38)</sup>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出家)<sup>39)</sup>라 한다. 이미 애정을 끊고 인간 세상을 물리쳤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세상 사람들<sup>40)</sup>과 모임을 맺어 교유하겠는가? 세상 일을 그리워하면 하면 도철(饕餮)<sup>41)</sup>이 되는데, 도철은 예로부터 수행하는 마음이 없다. 인정이 짊어지면 수행하려는 마음이 멀어지니, 인정을 냉정

---

37) 반야선: 배[船]는 고해를 건너 극락으로 인도하는 배를 상징함. 반야의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정토에 감.

38) 사문(沙門): Śramaṇa, 출가자를 총칭하는 말. 머리를 깎고 모든 악을 그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출가자.

39) 출가(出家): 번뇌에 싸인 세속과 인연을 끊고 집을 떠나 오로지 사문의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 출가하면 머리를 깎고 낡은 옷을 입고 생활하여 체발염의(剃髮染衣)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출가하지는 않았으나 수행하는 것을 재가(在家)라고 한다. 비구·비구니·식차마나·사미·사미니를 출가오중이라 한다.

40) 원문의 백의(白衣)는 먹물 옷인 치의(緇衣)를 입은 출가자들과 대비되는 흰 옷을 입은 세상 사람들을 말함.

41) 도철(饕餮): 탐욕이 많고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괴수. 이로부터 재물과 음식을 탐내는 탐욕이 많은 사람을 말함.

히 물리치고 영영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sup>42)</sup> 참으로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명산에 들어가 불법의 신묘한 뜻을 끝까지 참구해야 한다. 가사 한 벌과 발우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정을 끊고, 배고프고 배부른 데 마음 쓰지 않으면 도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옳는다.

남 위하고 나 위함이 작은 선이지만

이 모두 윤회하는 생사의 원인이라네.

원컨대 솔바람 칠평쿨 속 달빛 아래 들어가

길이 참된 조사선(祖師禪)<sup>43)</sup>을 닦으라.

其八 莫交世俗 令他憎嫉

離心中愛曰沙門, 不戀世俗曰出家. 既能割愛揮人世, 復何白衣結黨游? 愛戀世俗爲饕餮, 饕餮由來非道心. 人情濃厚道心疎, 冷却仁情永不顧.<sup>44)</sup> 若欲不負出家志, 須向名山窮妙旨. 一衣一鉢絕人情, 飢飽無心道自高. 頌曰

爲他爲己雖微善 皆是輪迴生死因

願入松風蘿月下 長觀無漏祖師禪

42) 판본에 따라 “인정을 냉정히 물리치고 영영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冷却仁情永不顧)” 부분이 없기도 하나, 내용상으로 보나 다른 조목과 비교하여 문장의 대구로 보나 이 구절이 있어야 자연스럽다. 그래서 『한국불교전서』본에도 누락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추가하였다.

43) 조사선(祖師禪): 경전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조사 대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온[以心傳心]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선. 『능가경』에서 말하는 여래선(如來禪)에 대해 달마 이래의 조사 정전(正傳)의 선 특히 남종선을 말한다.

44) ‘冷却仁情永不顧’ 구절은 다른 판본에 의거하여 보완한 구절임

아홉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비록 좋거나 나쁜 말을 듣더라도 마음에 동요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잘한 일 없이 칭찬을 받는 것은 참으로 나의 부끄러움이며, 잘못이 있어 헐뜯음을 듣는 것은 참으로 내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을 알아 반드시 고치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수행에 나아가 게으름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끝내는 돌아와 반드시 내 몸을 손상하게 할 것이다. 만약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헐뜯는 말과 같이 생각하라. 오늘 아침에 비록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언젠가는 머리를 돌려 내 잘못을 말할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모든 있는 바의 모습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sup>45)</sup> 헐뜯고 칭찬하는데 어찌 걱정하고 어찌 기뻐하겠는가?

옳는다.

온종일 어지러이 남의 잘잘못을 말하고

밤새도록 흐릿하여 잠만 즐기는구나.

이러한 출가라면 도대체 시주만 받을뿐

반드시 삼계<sup>46)</sup>에서 멀리 벗어나기 어려워지.

其九 勿說他人過失

雖聞善惡，心無動念，無德而被讚，實吾慚愧，有咎而蒙毀，誠

45) 원문의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은 『금강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구절. “모든 있는 바의 모습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金剛經』 大8 p.749a24~25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46) 삼계: 중생이 생사에 유전하는 생사윤회의 미혹한 세계를 셋으로 나눈 것. 식욕·음욕·수면욕을 가진 유정이 사는 세계인 욕계(欲界), 정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로 사선을 닦은 사람이 나는 색계(色界), 물질을 초월한 세계로 사무색정을 닦은 이가 나는 무색계(無色界). 삼계는 미혹한 고통의 세계인데 바다와 같이 끝이 없어 고계(苦界) 또는 고훤(苦海)라고도 한다.

我欣然. 欣然則知過必改, 慚愧則進道無怠. 勿說他人過, 終歸必損身, 若聞害人言, 如毀父母聲. 今朝雖說他人過, 異日迴頭論我咎. 雖然凡所有相, 皆是虛妄, 譏毀讚譽, 何憂何喜. 頌曰  
終朝亂說人長短 竟夜昏沈樂睡眠  
如此出家徒受施 必於三界出頭難

열째, 대중 가운데 살면서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하라.

애정을 끊고 부모와 작별한 것은 법계가 평등하기 때문이니, 만일 친하고 멀리함이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출가한들 무슨 덕이 있겠는가? 마음 가운데 만약 사랑하고 미워함을 취하고 버림이 없다면 몸에 어찌 괴롭고 즐거움을 성하고 쇠하게 함이 있겠는가?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너와 나가 없고 대원경지(大圓鏡智)<sup>47)</sup>에는 친하고 멀리함이 끊어진다. 삼악도에 드나드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얽매인 때문이요, 육도(六道)<sup>48)</sup>에 오르내리는 것은 친하고 멀리하는 업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등함에 들어맞으면 본래 가지고 버릴 것이 없으니, 만약 가

47) 대원경지(大圓鏡智): 큰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 유식 사지(四智)의 하나로 불과(佛果)에서 처음으로 얻는 지혜. 미망의 상태에서는 아뢰야식 등 8식의 상태이나 깨달으면 제 8식인 아뢰야식은 대원경지, 제7색인 마나식은 평등성지(平等性智), 제6식인 의식은 묘관찰지(妙觀察智), 전5식은 성소작지(成所作智)로 바뀐다고 한다.

48) 육도(六道): 윤회하는 중생이 그 지은 업에 따라 가게 되는 여섯 가지 곳. 육취(六趣)라고 한다. 선한 업을 쌓으면 천상(天上, ㉠devagati), 인간(人間, ㉠manuṣyagati), 이수라(阿修羅, ㉠asuragati)에 가는데, 천상으로 갈수록 좋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 셋을 삼선도(三善道)라 한다. 악업을 지어 가는 세 가지 좋지 못한 곳은 축생(畜生, ㉠tiryagyonigati), 아귀(餓鬼, ㉠pretagati), 지옥(地獄, ㉠narakagati)이며 지옥으로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 이 셋을 삼악도(三惡道)라 한다. 부파불교에서는 육도 대신 이수라를 제외한 오도(五道)를 말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대체로 육도가 보편적이다.

지고 버릴 것이 없다면 나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옳는다.

위없는 깨달음<sup>49)</sup>을 이루고자 한다면

언제나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하네

친하고 멀리하며 사랑과 증오를 헤아리면

도는 더욱 멀어지고 업장만 더 깊어지리.

其十 居衆中 心常平等

割愛辭親, 法界平等, 若有親疎, 心不平等. 雖復出家, 何德之有? 心中若無憎愛之取捨, 身上那有苦樂之盛衰? 平等性中無彼此, 大圓鏡上絕親疎. 三途出沒, 憎愛所纏, 六道昇降, 親疎業縛. 契心平等, 本無取捨, 若無取捨, 生死何有? 頌曰

欲成無上菩提道 也要常懷平等心

若有親疎憎愛計 道加遠兮業加深

### 3. 열 가지 계법을 지켜 정각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라

주인공이여!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눈 먼 거북이 나무토막을 만난 것처럼<sup>50)</sup> 아주 어려운 일인데, 한 평생이 얼마나 된다고 수행하지 않고

---

49) 보리도(菩提道)는 깨달음을 말함.

50) 눈 먼 거북이 나무토막을 만난 것처럼 :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을 비유하여 바다 한 가운데 떨어진 눈 먼 거북이 우연히 몸을 지탱할 나무토막을 만나는 것처럼[盲龜遇木] 어렵다는 말. 『잡아함경』 권15 맹구경(盲龜經)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미후 못가에 있는 2층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대지가 모두 큰 바다가 되었는데, 수명이 한량 없는 눈먼 거북이 하나 있어 백년에 한번 그 머



게으름만 피우겠는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니, 지금 생에서 잃어버리면 만겁(萬劫)<sup>51)</sup>을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반드시 이 열 가지 계법을 가져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아 물러서지 않아서 빨리 정각(正覺)을 이루어 돌이켜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본래 바라는 것은 그대 혼자 생사의 큰바다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시작

리를 밖에 내놓는다. 바다 가운데 구멍이 하나 뿐인 떠다니는 나무가 있는데, 파도 따라 표류하여 동서로 바람을 타고 오락가락한다. 저 눈먼 거북이 백년만에 한번 머리를 내밀어 그 구멍을 만날 수 있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면 이 눈 먼 거북이 만약 바다 동쪽으로 가면 뜬 나무는 바람을 따라 바다 서쪽에 가 있을 것이고, 혹은 남쪽이나 북쪽, 사방을 두루 떠돌아서 또한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눈 먼 거북과 뜬 나무는 비록 서로 어긋나다가도 혹 서로 만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범부가 오악도에 표류하다가 잠깐이나마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왜냐 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그 이치를 행하지 않고 법을 행하지 않으며, 선(善)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며 한량없는 악(惡)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아직 빈틈없고 한결같지 못하다면 마땅히 힘써 방편을 쓰고 왕성한 의욕을 일으켜 빈틈없는 한결같음을 배워야 하느니라.’ (『雜阿含經』 권15 大2 p.108c6~18 如是我聞。一時佛住獼猴池側重閣講堂。爾時，世尊告諸比丘 譬如大地悉成大海，有一盲龜壽無量劫，百年一出其頭，海中有浮木，止有一孔，漂流海浪，隨風東西，盲龜百年一出其頭，當得遇此孔不？’ 阿難白佛 “不能，世尊！所以者何，此盲龜若至海東，浮木隨風，或至海西，南北四維圍遶亦爾，不必相得。” 佛告阿難 “盲龜浮木，雖復差違，或復相得，愚癡凡夫漂流五趣，暫復人身，甚難於彼。所以者何，彼諸衆生，不行其義，不行法，不行善，不行眞實，展轉殺害，強者陵弱，造無量惡故，是故比丘，於四聖諦，當末無間等者，當勤方便，起增上欲，學無間等。”)

- 51) 만겁(萬劫): 겁(劫, kalpa)은 아주 긴 시간의 단위. 계산할 수 없는 장대한 시간을 말할 때 쓰인다.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일대겁(一大劫)은 성(成)·주(住)·괴(壞)·공(空)을 거쳐 한 세계가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겁은 정말 오랜 시간을 말한다.

이 없는 이래로 금생에 이르기까지 항상 사생으로 태어나 자주 오며가며 할 때 모두 부모에 의지하여 나고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나긴 세월 동안 부모되었던 이가 헤일 수도 끝도 없이 많았을 것이니, 이렇게 보면 육도 중생이 그대의 여러 생의 부모 아닌 이가 없다. 이런 무리들이 모두 악도에 떨어져 밤낮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만약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악도를 벗어나겠는가? 아아, 슬프도다. 고통이 가슴에 매여 있구나.

천만 번 그대에게 바라노니, 어서 빨리 큰 지혜를 내고 신통한 힘을 갖추어 방편의 수단을 자재하게 하여 빨리 넓은 바다에 지혜의 배가 되어 널리 욕망의 차안에서 헤매는 무리들을 제도하라.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위로부터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모두다 옛날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다는 것을. 저들은 이미 장부요 그대 또한 그러하니 단지 하지 않을 뿐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 한다.”<sup>52)</sup> 고 하였으며, 또 “내가 어질게 하고자 하면 이 어짊이 다다른다.”<sup>53)</sup> 고 하였으니 진실되도다 이 말씀이여! 만일 신심을 내어 몰려나지 않는다면 누가 자성을 깨쳐 성불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이

---

52) 『논어(論語)』에 나오는 구절을 해석한 데서 나온 말. 『논어』 웅야(雍也)편 제6에 “공자께서 이르시되 ‘누가 능히 나오는데 창문을 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이 도로 말미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子曰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홍씨의 주에 “사람들은 나올 때 반드시 문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반드시 행하는데 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은 모른다.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 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洪氏曰 人知出必由戶, 而不知行必由道. 非道遠人, 人自遠爾. (『論語集註大全』 권6)

53)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 『논어』 술이(述而)편 제7에 “공자께서 이르시되 ‘어짊은 먼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니 여기 어짊이 이르렀구나.’라고 하셨다.”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라는 구절이 있다.

제 삼보(三寶)<sup>54)</sup>를 증명하고 하나하나 그대에게 경계했으니, 잘못된 줄 알면서 일부러 범한다면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삼가지 앓을 수 있겠는가! 삼가지 앓을 수 있겠는가!

옳는다.

옥토끼<sup>55)</sup> 뜨고 지니 늙은 모습 재촉하고  
 금까마귀<sup>56)</sup> 들고 나니 세월을 재촉하네.  
 명예와 이익 구함은 아침 이슬과 같고  
 괴롭고 영화로움은 저녁 연기와 같네.  
 그대에게 부지런히 좋은 도 닦기 권하노니  
 빨리 불과(佛果)를 이루어 미혹한 무리를 제도하라.  
 금생에 만약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에 당연히 한이 만 가지나 되리.

主人公. 汝值人道, 當如盲龜遇木, 一生幾何, 不修懈怠? 人生難得, 佛法難逢, 此生失却, 萬劫難遇. 須持十門之戒法, 日新勤修而不退, 速成正覺, 還度衆生. 我之本願, 非爲汝獨出生死大海, 亦乃普爲衆生也. 何以故? 汝自無始以來, 至于今生, 恒值四生, 數數往還, 皆依父母而出沒也. 故曠劫父母, 無量無邊, 由是觀之, 六道衆生, 無非是汝多生父母. 如是等類, 咸沒惡趣, 日夜受大苦惱, 若不拯濟, 何時出離? 嗚呼哀哉. 痛纏

54) 삼보(三寶): 불교에서 존승하고 공양하는 세 가지인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을 인도한 불교의 교주인 불보와, 부처가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연설한 교법인 법보와, 불법을 수학하는 불제자들인 승보이다. 이 셋은 위엄과 덕망이 위없이 높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간의 보배와 같기 때문에 삼보라 부른다.

55) 옥토끼: 달에 산다고 하는 토끼, 곧 달을 말한다.

56) 금까마귀: 해 속에 산다고 하는 말이 셋 달린 까마귀, 곧 해를 말한다.

心腑，千萬望汝，早早發明大智，具足神通之力，自在方便之權，速爲洪濤之智楫，廣度欲岸之迷輪。君不見，從上諸佛諸祖，盡是昔日，同我凡夫。彼旣丈夫，汝亦爾，但不爲也，非不能也。古曰‘道不遠人，人自遠矣’。又云“我欲仁，斯仁至矣”。誠哉是言也。若能信心不退，則誰不見性成佛？我今證明三寶，一一戒汝，知非故犯，則生陷地獄。可不慎歟！可不慎歟！頌曰

玉兔昇沉催老像 金烏出沒促年光  
求名求利如朝露 或苦或榮似夕烟  
勸汝慇懃修善道 速成佛果濟迷倫  
今生若不從斯語 後世當然恨萬端



己和기화

## ◀ 顯正論 현정론 ▶

해제

1. 불교의 특성 \_\_\_\_\_
2. 불효론에 대해 \_\_\_\_\_
3. 불충론에 대해 \_\_\_\_\_
4. 불살생에 대해 \_\_\_\_\_
5. 불음주에 대해 \_\_\_\_\_
6. 재보시에 대해 \_\_\_\_\_
7. 윤회응보설에 대해 \_\_\_\_\_
8. 화장에 대해 \_\_\_\_\_
9. 삼세인과설에 대해 \_\_\_\_\_
10. 이단설에 대해 \_\_\_\_\_
11. 불교 유해론에 대해 \_\_\_\_\_
12. 무위도식설에 대해 \_\_\_\_\_
13. 불교 사태에 대해 \_\_\_\_\_
14. 불교 무용론에 대해 \_\_\_\_\_
15. 도·유·불 삼교의 같고 다름 \_\_\_\_\_







## 解題 해제

현정론(顯正論)은 조선 초기의 승려 함허기화(涵虛己和, 1376~1433)가 유교의 불교에 대한 비판을 이론적으로 논박하여 불교가 유교나 도교와 그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다. 고려말 이래 많은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 초에 정도전(鄭道傳)이 쓴 『불씨잡변(佛氏雜辨)』이다. 기화의 현정론은 이런 비판에 대한 불교계의 대표적인 반론이다.

기화는 성이 유씨(劉氏)이고 본관은 중원(中原)이며 부친은 유청(劉聽)으로 빈객을 접대하는 관청의 자인 정3품의 빈객시사(賓客寺事)를 지냈고 모친은 방씨(方氏)이다. 부모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관음보살에 기도하여 기화를 낳았다 한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행동을 보였으며 공부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글을 기억하였다. 일찍이 유학을 공부하여 깊이 통달하였고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하는 등 유교적 환경에서 자랐다. 21세 때인 1396년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관악산 의상암으로 출가하여 법명을 수이(守伊), 법호를 무준(無準)이라 하였다. 출가 동기와 관련하여 이 『현정론』에서는 유교에서 인을 강조하면서 살생을 금하지 않는데 의심을 품고 있다가



불교의 불살생 사상에서 깨우침을 얻어 출가하였다고 하였다. 출가 이듬해에 회암사에 가서 당대의 고승인 무학(無學)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나옹혜근(懶翁慧勤)-무학자초(自超)-기화로 이어지는 선맥을 계승하였다. 무학의 입적 후 1406년 회암사를 떠나 상주 대승사에 가서 4년간 『금강경』을 강의하고, 1410년에 개성의 천마산 관음굴에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141년에 불희사(佛禧寺)에서 3년 결제하며 대중들을 이끌었고 1414년 평산의 자모산(慈母山) 연봉사(烟峰寺)에서 3년 동안 수행하고 지낼 때 당호를 함허당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금강경오가해』를 강설하였다. 1420년에 오대산 영감암(靈鑑庵)에 머물다 꿈에 신인이 주었다는 기화를 법명으로, 득통(得通)을 법호로 사용하였고, 1421년 세종의 요청으로 고양의 대자사(大慈寺)에 가서 왕실천도법회를 주관하였다. 1424년부터 길상산 공덕산 운암산 등을 유력하다가 1431년 문경 봉암사에 들어가 절을 중수하고 머물다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현정론』 외에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 2권, 『금강경윤관(金剛經綸貫)』 1권, 『원각경설의(圓覺經說誼)』 3권, 『선종영가집과주설의(禪宗永嘉集科註說誼)』 2권이 있고, 시문과 설법 등을 모은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尚語錄)』 1권이 있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불교 억제책을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출가를 억제하고 부녀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하며 사원 소속 토지를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정책으로 불교 교단을 제한하다가 사원 수를 점점 줄여 나가 선교 양종으로 종단을 통합하여 36개 사원만 인정하는 승과도 폐지하여 불교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처럼 태종과 세종대의 억불정책이 추진되던 상황을 직접 겪으며 출가하여 수도의 길을 걸었던 기화는 유학자들의 배불 논리를 논파하고 불교의 ‘바른 뜻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현정론』을 저술하였다. 여말선초 유학자들의 배불 논리는 고려말의 불교가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정신적 지주로



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승단의 운영 질서가 무너져 사회적 위상이 추락됨에 따라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불교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기화의 『현정론』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자 미상의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과 함께 이런 비판에 대한 불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론이다.

기화는 서론과 14개 조목으로 구성된 문답식 서술로 불교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뛰어난 것을 역설하고 불교의 오계가 유교의 오상과 비슷하지만 덕행과 상벌로 가르치는 유교가 겉으로만 복종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인과로써 가르쳐 진실로 기뻐하여 복종하는 것이라 하면서 불교와 유교가 모두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답 중 13개 조목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교의 출가는 효도에 어긋난다
- ② 불교도는 임금이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
- ③ 육식과 살생을 금하는 것은 불효이며 예가 아니다
- ④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다
- ⑤ 보시와 응보설은 사람들을 곤궁하게 한다
- ⑥ 천당지옥의 윤회설은 허망한 것이다
- ⑦ 화장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 ⑧ 삼세인과설은 잘못된 것이다
- ⑨ 부처는 오랑캐 사람이니 성인의 도가 아니다
- ⑩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재앙이 일어났다
- ⑪ 불교도들은 무위도식하여 백성들이 빈궁해진다
- ⑫ 불교도들은 수행에 힘쓰지 않고 타락했다
- ⑬ 불교는 허위하고 적멸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⑭번째 문답은 유교나 도교와 불교를 비교하여 그 같고 다름과 우열을 논하여, 삼가(三家)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 것과 같지만 그 실행의 우열과 활용의 차이에서 보면 불교가 월등함을 강조하였다.

기화는 유교의 배불 논리에 대해 불교의 해탈의 지향과 성취를 위한 출가 그리고 계율주의의 바탕에서 불교를 옹호하였다. 기화는 천하에 두 가지 도가 없다는 진리의 보편성에 따라 불교와 유교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진리에 근거하고 있어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불교의 오승(五乘) 구분으로 보면 삼승의 불교의 가르침이 뛰어난 것이고 그 아래 인천승에서 말하는 오계(五戒)와 십선(十善)만으로도 진실로 이를 행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성실하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하여 유교의 가르침과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교가 지향하는 천지만물과 하나된다는 인(仁)의 실천이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허용하는 경전의 다른 구절과 배치됨을 들어 그 철저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불교에서는 불살생계로 인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화는 그동안 중국의 불교 배척론자들이 주장해왔던 삼세인과공보설과 같은 내용이 『주역』에서 말하는 선을 쌓으면 경사가 넘치고 악을 쌓으면 재앙이 넘친다는 구절처럼 유교 경전에도 있음을 들어 이를 논박하였다. 그리고 유교에서 도의 요체로 삼는 오상(五常)이 불교의 오계와 같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덕성과 행위의 범주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또 기화는 현실적인 면에서 유교가 세속적 도덕을 세우는데 그치는 반면 해탈의 길은 오직 불교에서만 가능함을 들어 불교의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사회적인 효용성을 들었다. 유교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덕행(德行)과 형벌로 하는데 행정 명령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이를 면하고자 하여 겉으로 따를 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인과로 가르치면 이를 따르기만 하면 겉으로만 따르는 경우는 결코 없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정론』은 삼교와는 다른 불교만의 가르침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그 바탕에는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해탈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본적인 가치로 인식되던 충이나 효조차도 해탈을 위해서라면 버려야하며, 불살생이나 불음주와 같은 계율들은 해탈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주장이다. 기화는 독자적인 불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함으로써 불교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당당한 의지를 뚜렷이 밝힌 것이다.

기화는 유학자들의 배불 논리가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불교의 의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편견과 지나친 비판 논리를 타파하고 불교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던 것이다. 불교의 입장만을 두둔하거나 불교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가장 문제가 되는 논점들에 대해 유교의 주장과 견주어 당당하게 불교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바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던 데 『현정론』의 의의가 있다.

간행본은 『한국불교전서』 제7책에 실려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판본으로는 1526년 전라도 광양 백계산 송천사(松川寺)에서 간행한 것이 동국대에 소장되어 있고, 이밖에 1537년 전라도 흥덕 연기사(緣起寺) 간행본, 1538년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神興寺) 간행본, 1544년 황해도 토산 석두사(石頭寺) 간행본, 간년 미상의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오대산 상원사에서 간행한 연인본(鉛印本) 외에 필사본도 여러 종 있다.

## 참고문헌

- 김기영 역주, 2003 『현정론·간폐석교소: 조선시대의 호불론』, 한국불교연구원
- 金達鎭 譯, 1988 『顯正論』, 동국대학교 역경원, 현대불교신서 63
- 金容祚, 1982 「己和와 그의 顯正論」 『慶尙大學校論文集』 21
- 金容祚, 1988 「朝鮮前期 儒佛會通論」 『慶尙大學校論文集』 27-1
- 朴太源, 1991 「麗末鮮初의 排佛과 護佛論理-三峰과 己和를 중심으로-」 『釋山韓鍾萬博士華甲紀念 韓國思想史』
- 朴海鎭, 1996 「己和의 佛教思想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 논문
- 朴海鎭, 1996 「己和의 心性論」 『泰東古典研究』 13, 한림대학교 대동고전연구소
- 박해당, 2003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의 삼교론」 『불교학연구』 10, 불교학연구회
- 朴虎男, 1985 「涵虛堂 得通의 顯正思想 研究」 『畿甸文化研究』 15,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학연구소
- 宋天恩, 1975 「己和의 사상」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
- 吳京厚, 1996 「涵虛堂 己和의 儒佛調和論」 『한국문화의 전통과 불교-蓮史洪潤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吳京厚, 1999 「麗末鮮初 己和의 禪思想과 儒佛調和論」 『경주사학』 18, 경주사학회
- 吳京厚, 2006 「麗末鮮初 己和의 儒佛會通論」 『韓國思想과 文化』 32, 한국사상문화학회
- 유정엽, 2007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의 호불논리 비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6, 원불교사상연구원
- 韓鍾萬, 1985 「朝鮮朝 初期의 老佛融合論」 『韓國宗教』 10,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韓鍾萬, 1990 「韓國의 儒佛道三教 會通論」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 韓國哲學宗教思想史』

# 현정론

顯正論

함허 기화(涵虛己和)<sup>1)</sup> 지음

## 1. 불교의 특성

본체[體]로는 있고 없는 것이 아니지만 유무(有無)에 통하고, 근본[本]으로는 옛과 지금이 없지만 고금(古今)에 통하는 것이 도(道)이다. 유무는 성정(性情)<sup>2)</sup>을 원인으로 하고, 고금은 생사(生死)를 원인으로 한다. 성

---

1) 함허 기화(涵虛己和) : 1376~1433. 성은 유씨(劉氏), 부친은 빈객시사(賓客寺事) 유청(劉聽), 모친은 방씨(方氏). 늙도록 자식이 없어 관음보살에 기도하여 낳았다 하며 어려서부터 남다른 행동을 보였다. 일찍이 유학을 공부하고 21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관악산 의상암으로 출가하였다. 이듬해에 회암사에 가서 무학(無學)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법맥을 계승하였다. 1406년 상주 대승사에 가서 4년간 『금강경』을 강의하고, 1410년에 개성의 천마산 관음굴에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1411년에 불회사(佛禪寺)에서 3년간 대중들을 이끌었고 1414년 평산의 연봉사(煙峰寺)에서 3년 동안 수행하였다. 이때 당호를 함허당이라 하고, 여기서 『금강경오가해』를 강설하였다. 1420년에 오대산 영감암(靈鑑庵)에 머물다 꿈에 신인이 주었다는 기화를 범명으로, 득통(得通)을 범호로 사용하였다. 1421년 세종의 요청으로 대자사(大慈寺)에서 왕실천도법회를 주관하고 이후 길상산 공덕산 운암산 등을 유력하다가 1431년 봉암사에 들어가 머물다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현정론』 외에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 2권, 『금강경윤관(金剛經綸貫)』 1권, 『원각경설의(圓覺經說誼)』 3권, 『선종영가집과주설의(禪宗永嘉集科註說誼)』 2권이 있고, 시문과 설법 등을 모은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尚語錄)』 1권이 있다.

2) 성정(性情) : 사람의 품성(稟性)과 기질(氣質). 성은 선천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

(性)에는 본래 정(情)이 없지만 성에 미혹하면 정을 일으키게 된다. 정이 생겨나면 지혜가 막히고 생각[想]이 변하면 체(體)가 달라지니, 만상(萬象)<sup>3)</sup>이 이 때문에 형성되었고 생사가 이 때문에 시작되었다. 정에는 더러움[染]과 깨끗함[淨]이 있고 착함[善]과 악함[惡]이 있으니, 깨끗함과 착함은 성인이 생겨나는 원인이고 더러움과 악함은 범부가 되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정이 만일 생기지 않으면 범부도 성인도 모두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體非有無，而通於有無，本無古今，而通於古今者，道也。有無因於性情也，古今因於生死也。性本無情，迷性生情。情生智隔，想變體殊，萬象所以形也，生死所以始也。夫情也，有染淨焉，有善惡焉，淨與善，聖之所以興也，染與惡，凡之所以作也。故知情若不生，則凡之與聖，悉無得而興焉。<sup>4)</sup>

보살(菩薩)<sup>5)</sup>은 성(性)에 대해서라면 이미 깨달았지만 정(情)에 대해서

는 본성 혹은 본질, 정은 외적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구체적 감정. 불교에서는 성은 사람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법성(法性)이나 불성(佛性)을 말하며, 정은 무명(無明)에 의해 인식작용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 3) 만상(萬象) :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줄임말로 형상이 있는 모든 사물을 말한다.
- 4) 『현정론』의 원문은 韓7 p.217a1~225b19.
- 5) 보살(菩薩) : ㉠bodhi-sattva의 준말이며 보리살타(菩提薩陀)로 음역하고 줄여서 보살(菩薩)이라 하며 개사(開士) 등 여러 표현으로 한역한다. bodhi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sattva는 생명 있는 존재인 유정(有情)을 의미한다. 이런 뜻에서 유래하여 보살은 위로는 지혜로써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는[以智上求無上菩提，以悲下化衆生] 유정으로 정의한다. 이를 도중생(度衆生), 각유정(覺有情) 등으로 번역한다. 성문(聲聞)·연각(緣覺)과 함께 삼승의 하나이다. 보살은 여섯 가지 바라밀(波羅蜜)을 수행하여 미래에 불과를 성취하는 수행자이다.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원만하게 갖추어 융맹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대승의 이상적인 수행자이다.

라면 아직 다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달은 유정[覺有情]’이라 부른다. 보살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나머지 이승(二乘)<sup>6)</sup>이야 어떠하겠으며, 삼승(三乘)<sup>7)</sup>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과 천신 등의 다른 부류들이야 어떠하겠는가? 부처님이 깨달음이 충만하여 지혜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깨끗함이 지극하여 정으로 인한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정이라는 말은 부처님에게 붙이지 않는다. 오직 부처님 한 분 이외에 모두를 유정(有情)<sup>8)</sup>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저 삼승이나 5승(五乘)<sup>9)</sup>은 모두 그에 맞는 정을 다스리니, 인승(人乘)과 천승(天乘)은 더러운 번뇌[染垢]<sup>10)</sup>를 다스

- 
- 6) 이승(二乘) :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을 말한다. 성문승은 사성제(四聖諦)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구하는 자이며, 연각승은 연기법(緣起法)을 관조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생구제의 발심을 아직 일으키지 않은 유정(有情)이다. 그러므로 소승(小乘)으로 분류된다.
- 7) 삼승(三乘) : 성문승(聲聞乘) · 연각승(緣覺乘) · 보살승(菩薩乘)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보살승은 성문승과 연각승의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구제의 발심을 일으킨 유정이다. 그러나 아직 정(情)의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각유정(覺有情)이라고 부른다.
- 8) 유정(有情) : 여기서는 생명을 가지고 인식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중생’과 같은 말로 쓰였다. 중생은 ⑤sattva로서 음역하여 살다바(薩多婆) · 살타(薩埵)라고도 한다. 중생과 유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유정은 사람 · 천인 · 아귀 · 축생 · 아수라 등 정식(情識)이 있는 생물을 가리키고 초목금석과 산하대지와 같은 것은 비정(非情)이요 무정(無情)이다. 그런데 중생은 유정과 비정을 포괄하므로 유정과 중생은 차이가 있다. 다른 견해는 유정이 곧 중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 9) 5승(五乘) : 인승(人乘), 천승(天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말한다. 인승은 인간세상의 중생을 말하고, 천승은 하늘 세계의 중생을 말한다. 인승으로부터 보살승까지는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번뇌를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생으로 분류된다.
- 10) 더러운 번뇌[染垢] : 사성제의 이치를 증득하는 견도(見道) 이전의 지혜를 유루지(有漏智)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루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세속의 행위를 유루행(有漏行)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루행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번뇌를 ‘더러운 번

리고, 삼승은 깨끗한 번뇌[淨垢]<sup>11)</sup>를 다스린다. 더럽고 깨끗한 번뇌가 다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대각(大覺)<sup>12)</sup>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5계(五戒)<sup>13)</sup>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길이고, 10선(十善)<sup>14)</sup>은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길이며, 4성제(四聖諦)<sup>15)</sup>와 12인연(十二因緣)<sup>16)</sup>은 이승이 되

뇌'라고 한다.

- 11) 깨끗한 번뇌[淨垢]: 사성제의 이치를 증득하는 견도 이후의 지혜를 무루지(無漏智)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루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무루행(無漏行)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루행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번뇌를 '깨끗한 번뇌'라고 한다.
- 12) 대각(大覺): 큰 깨달음이라는 뜻으로서 부처님의 다른 표현이다.
- 13) 5계(五戒): 불교에서 출가하지 않은 일반 신도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① pañca śīlāni, ①살생하지 말라[不殺生], ②도둑질하지 말라[不偷盜], 또는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말라[不與取], ③샷된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④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술을 마시지 말라[不飲酒]. 부파의 경량부(經量部)에서는 삼귀의(三歸依)를 받으면 우바새(優婆塞) 곧 재가신자가 되기 때문에 오계는 따로 받도록 하지만,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는 반드시 먼저 삼귀의를 받고 그후에 오계를 받아야 우바새로 인정한다.
- 14) 10선(十善): 몸[身]과 입[口]과 뜻[意]으로 짓는 열 가지 나쁜 짓을 십악(十惡)이라고 하는데 그 십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십선이다. 몸으로 짓는 것으로는 살생하지 않음[不殺生], 도둑질 하지 않음[不偷盜], 샷된 음행을 하지 않음[不邪淫]의 세 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것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음[不妄語], 두 말하지 않음[不兩舌], 나쁜 말을 하지 않음[不惡口], 기이한 말을 하지 않음[不綺語]의 네 가지가 있으며, 뜻으로 짓는 것으로는 탐욕하지 않음[不貪慾], 성내지 않음[不瞋恚], 샷된 견해를 갖지 않음[不邪見]의 세 가지가 있다.
- 15) 4성제(四聖諦): 부처님이 깨달으신 네 가지의 진리. 즉, ①고성제(苦聖諦)는 인생은 생노병사의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고(苦)의 존재라고 하는 진리, ②집성제(集聖諦)는 고의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탐진치의 삼독을 비롯한 온갖 번뇌로 인한 업행(業行)이 다 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 ③멸성제(滅聖諦)는 현실의 번뇌를 정화하고 인생의 고통문제를 뛰어 넘어 가장 적정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함을 말한다. ④도성제(道聖諦)는 고통 없애는 성스러운 길을 말하며 팔정도가 그것이다.
- 16) 12인연(十二因緣): 십이연기(十二緣起)와 같은 말로서, 범부가 생존하는 12가지



는 원인ियो, 육바라밀[六度]<sup>17)</sup>은 보살이 되는 원인이다. 가만히 삼장(三藏)<sup>18)</sup>의 귀결점을 살펴보니,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정(情)을 제거하여 성(性)이 드러나도록 할 따름이다. 정이 성에서 생겨나는 것은 구름이 넓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고, 정을 제거하여 성을 드러내는 것은 구름이 걷혀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구름에 열은 것과 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정에도 옅은 것과 두터운 것이 있다. 구름에 진하고 옅음의 차이가 있으나 하늘의 광명을 가리기는 마찬가지로 정에 두텁고 옅음의 차이가 있으나 성의 밝음을 막기는 마찬가지이다. 구름이 일어나면 해와 달이 빛을 거두어 천하가 캄캄해지고, 구름이 걷히면 광명이 대천세계(大千世界)<sup>19)</sup>를 비추어 우주가 탁 트이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견주어 보면 마치 맑은 바람이 하늘에 떠 있

---

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그 12가지는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생(生), 노사(老死)이다. 만물의 존재방식을 상의상관(相依相關)으로 설명하는 연기법의 원리에 따라 12가지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유전연기문(流轉緣起門)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로부터 무명에 이르는 환멸연기문(還滅緣起門)이다.

- 17) 육바라밀[六度] : Ṣṣaṭ-pāramitā, 한문으로는 육도(六度)라고 번역한다.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닦는 여섯 가지 수행 덕목으로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이다.
- 18) 삼장(三藏) : 삼(三)은 경(經)·율(律)·논(論)을 말하고, 장(藏)은 Ṣṣṭhaka로서 창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經)을 모아 놓은 것을 경장이라 하고, 율(律)을 모아 놓은 것을 율장이라 하고, 논(論)을 모아 놓은 것을 논장이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지칭하여 삼장이라 한다.
- 19) 대천세계(大千世界) :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사대주(四大洲)가 있고 그 바깥 주위를 칠위산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일천세계(一天世界)라 하고, 이러한 일천세계 천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소천세계(小千世界)라 한다. 그리고 소천세계 천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중천세계(中千世界)라 하고, 중천세계 천 개를 합한 것이 대천세계(大千世界)이다.

는 구름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니, 탁 트인 하늘을 보고자 하면서 맑은 바람을 싫어하는 것은 미혹한 것이요, 나와 남이 태평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도(道)를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에 의지해 닦게 한다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몸이 닦아지리니,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기(根機)<sup>20)</sup>가 뛰어난 자는 보살이 될 수 있고 성문이 될 수 있고 연각이 될 수 있으며, 근기가 열악한 자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고서도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는 있지 않다.

菩薩，性雖已覺，而情猶有所未盡，故稱之云覺有情也。菩薩尚爾，況餘二乘乎，三乘尚爾，況餘人天異類乎？佛則覺滿而智無不周，淨極而情累已盡，故情之言，不可加於佛也。唯佛一人之外，皆稱有情者，以此。夫三乘五乘，皆所以治其情也，人天乘所以治其染垢，三乘所以治其淨垢也。染淨垢盡然後，方親造大覺之境矣。五戒所以生人道也，十善所以生天道也，諦緣所以成二乘也，六度所以成菩薩也。竊觀三藏指歸，只要令人去情顯性而已。情生於性，猶雲起於長空，去情顯性，猶雲開而現大清也。情有薄者焉，有厚者焉，猶雲有淡者焉，有濃者焉。雲有濃淡之異，而掩天光則一也，情有厚薄之殊，而碍性明則同也。雲起也，日月收照而天下暗然也，雲開也，光被大千而宇

---

20) 근기(根機): 기연(機緣)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가진 종교적인 소질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 근(根)은 근본이 되는 힘이고, 기(機)는 발동하는 능력이다. 근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다르므로 사람에 따라 교법을 이해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부처님의 설법은 바로 이 근기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설법을 하신 데[對機說法] 있다. 종파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근기를 나누어 교리 체계를 세운다.

宙廓如也. 佛教比之, 則若清風之掃浮雲也, 欲所見之廓如, 而厭清風者, 惑矣, 欲自他之清泰, 而厭吾道者, 失矣. 若教人人, 依此而修之, 則心可得而正矣, 身可得而修矣, 可以齊家, 可以治國, 可以平天下矣. 機之利者, 可以爲菩薩, 可以爲聲聞, 可以爲緣覺, 機之劣者, 可以生天, 可以成善人矣. 苟如是而世不治, 未之有也.

왜 그런가? 죄의 과보(果報)<sup>21)</sup>를 싫어한다면 모든 악(惡)을 끊어야 하는데, 비록 악을 모두 끊어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악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악을 제거하면 한 가지 형벌이 없어질 것이고, 한 가지 형벌이 집집마다 없어지면 만 가지 형벌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이다. 복의 인연을 기꺼워한다면 모든 선(善)을 닦아야 하는데, 모든 선을 비록 다 닦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선은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선을 실천하면 한 가지 경사를 얻게 될 것이니, 한 가지 경사가 집집마다 생겨나면 만 가지 경사가 나라에서 생겨날 것이다. 오계와 십선은 가르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본래 근기가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실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자신을 진실되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니, 하물며 사성제와 십이인연의 가르침에 있어서이겠으며, 하물며 육바라밀의 가르침에 있어서이겠는가?

유교는 오상(五常)<sup>22)</sup>을 도(道)의 중추로 삼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

21) 죄의 과보(果報) : 과보(Ṭvipāka)란 과거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말한다. 즉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결과를 초래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죄의 과보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 받는 과보를 말한다.

22) 오상(五常) : ①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②다섯 가지의 중요한 윤리 도덕. 아버지는 의롭고[父義], 어머니는 자애롭고[母慈], 형은 우애하고[兄弟], 아우는 공경하고[弟恭], 아들은 효도하는 것[子孝]. ③오륜(五倫). 임금과 신

(五戒)가 곧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이다. 살생하지 않는 것[不殺]은 인(仁)이요, 도둑질 하지 않는 것[不盜]은 의(義)요, 사음하지 않는 것[不淫]은 예(禮)요, 술 마시지 않는 것[不飲酒]은 지(智)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不妄語]은 신(信)이다.<sup>23)</sup> 다만 유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덕행(德行)으로써 하지 않고 정사와 형벌을 가지고 한다. 그러므로 “정사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형벌은 면하겠지만 부끄러움이 없고, 덕(德)으로써 이끌고 예(禮)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또 바르게 된다.”<sup>24)</sup>라고 하였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는 것은 성인이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묵묵히 있어도 이루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믿는 것은 덕행에 달려 있다.”<sup>25)</sup>라고 말하고, 정사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상벌(賞罰)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므로 “상주고 벌주는 것은 나라의 큰 권력이다.”<sup>26)</sup>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릇 ‘묵묵히 있어도 이루어지고 말하지 않

---

하 사이에는 의로운 도리가 있어야 하고[君臣有義], 부자 사이에는 친한 도리가 있어야 하고[父子有親], 부부 사이에는 분별되는 도리가 있어야 하고[夫婦有別],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의 도리가 있어야 하고[長幼有序], 벗 사이에는 믿음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朋友有信] 것.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상(上)에 나오는 말.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 되고[君爲臣綱],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 되고[父爲子綱], 남편은 부인의 근본이 된다[夫爲婦綱]는 삼강(三綱)과 함께 사회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 후한의 동중서(董仲舒)가 삼강오살설(三綱五常說)을 주장한 이래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로 전승되어 왔다.

- 23) 유교의 오상과 불교의 오계를 대비하여 서술하기 시작한 것은 『광홍명집(廣弘明集)』 권3(大52 p.107b23~25)에서부터이다.
- 24) 『논어(論語)』 「위정(爲政)」 제3장.
- 25) 『주역전의(周易傳義)』 「계사상전(繫辭上傳)」 제12장.
- 26) “상과 벌은 나라의 큰 권력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고려사(高麗史)』 권46 공양왕(恭讓王) 3년 5월 경술 賞罰國之大柄, 不可不謹也.;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34 공양왕(恭讓王) 경오년) 이때를 비롯해 고려말 상소문에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송나라 설송(契嵩)은 “상과 벌은 천하의 대중이다.”(『심진문집(鑣津文

아도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 부처님의 교화인데 게다가 인과법(因果法)<sup>27)</sup>도 아울러 가르치셨으니, 상벌로써 가르치면 아마도 면전에서만 복종할 뿐이겠지만, 인과법으로써 가르치면 복종할 때 마음으로 복종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만일 상을 주어 권장하고 벌을 주어 금지한다면 악(惡)을 그치는 자는 그 벌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그칠 것이고, 선(善)을 행하는 자는 그 상을 이롭게 여겨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화를 따름이 면전에서만 복종할 뿐이고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현재 궁핍하거나 영달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숙업의 종자[宿種]<sup>28)</sup>로써 가르치고 훗날의 화(禍)와 복(福)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현재의 원인[現因]<sup>29)</sup>으로써 가르친다면, 영달한 사람은 전생에 선의 종자를 심었던 것을 기뻐하여 더욱 부지런히 실천할 것이고, 궁핍한 사람은 전생에 닳지 않았던 것을 참회하여 스스로 힘쓸 것이며, 또 내생에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착한 일을 부지런히 행할 것이고, 내생에 화를 피하려는 사람은 악한 것을 반드시 삼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복종한다면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요 면전에서만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何則? 厭罪報則應斷諸惡, 諸惡雖不斷盡, 而足以去一惡矣. 去一惡則息一刑, 一刑息於家, 萬刑息於國矣. 忻福緣則應修諸善, 諸善雖未盡修, 而足以行一善矣. 行一善則得一慶, 一慶

集)』 권5 大52 p.669b3~4 賞罰者天下之大中也.)라고 하였다.

27) 인과법(因果法): 연기법(緣起法)과 같은 말로서 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이다. 연기법이란 어떤 원인이 조건을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서 모든 존재를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相依相關]고 보는 것이다.

28) 숙업의 종자[宿種]: 과거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

29) 현재의 원인[現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원인이 됨.

興於家，萬慶興於國矣。夫五戒十善，教中之最淺者也，本爲機之最下者而設也。苟能行之，則足以誠於身利於人矣，況於諦緣乎，況於六度乎？儒以五常而爲道樞，佛之所謂五戒，卽儒之所謂五常也。不殺，仁也，不盜，義也，不淫，禮也，不飲酒，智也，不妄語，信也。但儒之所以教人者，不以德行，卽以政刑也。故云，“導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導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夫導之以德，齊之以禮，非聖人不能，故云，“默而成之，不言而信，存乎德行。”導之以政，齊之以刑，則未免有賞罰，故云，“賞罰國之大柄”也。夫默而成之，不言而信，固吾佛之化也，而兼以因果示之，示之以賞罰，則或不過面從而已，示之以因果則服乃心服也。今於世上，目觀其然也。何則？若勸之以賞，禁之以罰，則止惡者，畏其威而止之，爲善者，利其賞而爲之。故其從化也，面從而已，非心服也。若人欲知今之所以窮達者，則示之以宿種，欲知後之禍福者，則示之以現因，則達者忻前世之種善而益勸，窮者悔前世之不修而自勉，且邀福於後世者，則孜孜於爲善，避禍於後世者，則必慎於爲惡也。此則不服則已，服則心服，而未嘗有面從者也。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저마다 모두 마음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가? 아직 마음으로 복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은 상벌을 가지고 인도하되 빨리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과법으로써 가르친 것 외에 또한 상벌의 가르침도 주셨던 것이니, 이른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굴복시킬 만한 사람은 굴복시킨다.”<sup>30)</sup> 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러한 점은 유교와 비슷하다. 따라서 유교와 불교가 모두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涅槃)

槃)<sup>31)</sup>에 들려고 하실 적에 그러한 법으로써 군주들과 신하들에게 부촉(付囑)<sup>32)</sup>하셨으니, 이는 올바른 도로써 천하 사람들을 인도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함이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수행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고자 함이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가(在家)와 출가(出家)를 가리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도의 작용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니, 반드시 머리를 깎고 옷을 달리한 이후에야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방편에 따라 번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을 임시로 삼매(三昧)<sup>33)</sup>라 이름 한다”<sup>34)</sup>고 하였고, 또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아

30) 『대보적경(大寶積經)』(권119)에서 “조복시키는 것이 마땅한 사람은 조복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사람은 받아들인다.”(大11 p.673b21~22 應調伏者而調伏之, 應攝受者而攝受之.)라고 하였다.

31) 열반(涅槃): nirvāṇa의 음역으로서 ‘불어 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멸(滅), 적(寂), 적멸(寂滅) 등으로 번역한다. 원래 ‘열반’이라는 말은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모두 없애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으로서 해탈(解脫)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표현하였으며, 후대에 이르러 승려의 죽음을 열반 또는 입적(入寂)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32) 부촉(付囑): 부처님은 설법한 뒤에 청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가려내어 그 법의 유통을 부탁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를 부촉이라고 한다.

33) 삼매(三昧): samādhi의 음역으로서 등지(等持), 정(定), 정정(正定) 등으로 번역한다. 마음이 조용히 통일되어 안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지에서 바른 지혜가 생겨난다고 한다.

34)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권1)에서 “길주(吉州) 지성(志誠)선사가 육조대사에게 ‘신수대사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 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며, 자기의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 하였습시다. 그 분은 이렇게 설하셨는데, 화상께서는 무슨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육조대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약 법과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대에게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다만 방편에 따라 번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을 임시로 삼매라고 이름 할 뿐이다. 그대의 스승이 말한 계정혜는 실로 불가사의하구나.’”(大48 p.358c1~6. 誠曰 秀大師說, ‘諸惡莫作名爲戒, 諸

녹보리(阿耨菩提)<sup>35)</sup>라 이름 한다”<sup>36)</sup>고 하였다. 부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어찌 좁은 통로이겠는가? 그러나 만일 참아내는 힘[忍力]<sup>37)</sup>이 없는 자라면 티끌세상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고 속가에 머물면서 도를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출가하여 원리행(遠離行)<sup>38)</sup>을 닦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雖然，安得使人人，皆可以心服也？其未能心服者，則姑以賞罰而導之，使駸駸然心悅而誠服也。故示之以因果之外，亦有賞罰之訓存焉，所謂“應攝受者而攝受之，應折服者而折服之，”是也。此則近於儒也，所以儒與釋，皆不可廢也。佛之將化也，以其法，付之君，付之臣，蓋欲以其道，導天下而爲治世之大助，而令共蹈乎修真之路也。吾佛之教，不論在家出家，只要令人不違道用而已，不必剪其髮異其服然後爲也。所以云，“隨方解縛，假名三昧”，又云，“無有定法名阿耨菩提”，佛之心如此，豈小通哉？然若無忍力者，則居塵不染，在家成道，難矣。所以教人出家令修遠離行也。

---

善奉行名爲慧，自淨其意名爲定。彼說如此，未審和尚以何法誨人.’ 師曰 ‘吾若言有法與人，卽爲誑汝。但且隨方解縛，假名三昧。如汝師所說戒定慧，實不可思議.’ 라고 하였다.

35) 아녹보리(阿耨菩提) : 아녹다라삼막삼보리(Ānuttara-samyak-saṃbodhi)의 줄임말로써 가장 완벽한 깨달음을 뜻한다. 아녹다라는 위 없는[無上]의 뜻이고, 삼막삼보리는 정등각(正等覺)을 뜻하므로 아녹보리는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 번역한다. 즉 부처님이 깨달은 최상의 진리를 말한다.

36)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권1 大8 p.749b14~15.

37) 참아내는 힘[忍力] : 욱바라밀 중에서 인욕(忍辱)하는 힘을 말한다.

38) 원리행(遠離行) : 속세의 번뇌를 멀리 떠나는 수행을 말하는데, 몸의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신원리(身遠離)라 하고 마음의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심원리(心遠離)라 한다.



## 2. 불효론에 대해

유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어 가업(家業)을 계승하여 그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불제자[浮圖氏]<sup>39)</sup>들은 혼인을 끊어 인륜(人倫)을 저버리고, 오래도록 산속으로 가서 영원히 후사(後嗣)를 끊어 버리니, 어찌 효라 할 수 있겠는가? 날이 어두우면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날이 밝으면 문안을 드리면서 부모님의 안색을 살펴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뵈어야 한다.<sup>40)</sup> 그런데 지금 불제자들은 부모님께 고하지도 않고 제 맘대로 출가하며, 한 번 출가한 뒤로는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받들어 봉양하지 않고, 돌아가신 뒤에도 정성껏 장사 지내려 하지 않으니, 어찌 불효가 아니겠는가?

儒之言曰，男有室女有家，以嗣家業，不絕厥祀，可謂孝矣。今浮圖氏，絕婚姻去人倫，長往山林，永絕後嗣，豈可謂孝乎？昏定晨省，承顏順色，出必告反必面。今浮圖氏，不告父母，自許出家，一自出家，終身不返，生不奉甘旨，死不計厚

39) 불제자[浮圖氏] : 부도(浮圖)는 𑖀buddha를 음역한 말. 부처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불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부도씨(浮圖氏)는 불법을 믿고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을 갖는다.

40) 『소학(小學)』 「명륜(明倫)」에서 “곡례에 말하기를, ‘무릇 자식으로서의 예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어두우면 이부자리를 정리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나갈 적에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 반드시 얼굴을 뵈며, 가는 곳에 일정함이 있게 해야 하며, 익히는 바를 일삼음이 있게 해야 하며, 평소애 늙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曲禮曰，凡爲人子之禮，冬溫而夏凊，昏定而晨省，出必告，反必面，所遊必有常，所習必有業，恒言不稱老)라고 하였다.

## 葬, 豈非不孝乎?

시험 삼아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겠다. 원칙[經]과 방편[權]은 도를 행하는 큰 요점이다. 원칙이 아니면 상도(常道)<sup>41)</sup>를 지킬 수 없고, 방편이 아니면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니, 원칙으로써 상도를 지키고, 방편으로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한 다음에라야 도의 ‘큰 온전함[大全]’을 얻어서 이르는 곳마다 옳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상도를 지킬 줄 모르면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줄 모르면 큰 일[大事]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이란 부모에게 의탁하여 몸을 받아 태어나고 임금과 나라에 의지하여 생존할 수 있으니,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벼슬길에 나가서는 충성하는 것이 진실로 신하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혼인과 제사도 인륜의 큰 원칙이니, 혼인이 아니면 거둬서 태어나는 이치가 끊어지고, 제사가 아니면 조상을 추모하는 법도가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신하와 자식으로서 충성과 효도를 다하기 어려우며, 혼인해서 죽을 때까지 바른 도리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면서 마음을 다해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 근신하기는[齋戒]<sup>42)</sup> 더욱 어려울 것이다.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면서 맡은 직분을 힘써 지키고, 바른 도리를 지키고 재계하기를 극진히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은 후에야 살아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고 죽어서는 인간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원칙으로써 상도를 지킨 결과이다. 그러나 살아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뿐 애욕(愛欲)을 끊은 경우는 거의 드물며, 죽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날 뿐 윤회(輪廻)<sup>43)</sup>를 면하기

---

41) 상도(常道): 항상 지켜야 하는 변하지 않는 도리.

42) 재계(齋戒): 마음과 몸의 행동을 삼가는 것. 재(齋)는 청정(淸淨)의 의미이고, 계(戒)는 청정을 이루기 위한 규범이다.

43) 윤회(輪廻): ①saṃsāra.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태어났다가 다시 죽어

는 어려우니, 애욕은 윤회의 뿌리이고 욕망은 몸을 받아 태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이 처자(妻子)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서 애욕을 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애욕을 끊지 못한 사람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애욕을 끊어야 하고, 애욕을 끊고자 한다면 먼저 처자를 버려야 하며, 처자를 버리고자 한다면 속세를 떠나야 한다. 속세를 떠나지 않고 처자를 버리지 않은 채 애욕을 끊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 훌륭한 방편의 자취를 나타내는 큰 성인을 제외하면 보통의 범인이나 속인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사람은 수십억의 세월이 지나더라도 만나기 어렵고, 수천만 명 가운데에서도 얻기 어렵다.

저 애욕의 인연은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아서 참아내는 힘이 없는 자라면 속세에 살면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본사(本師)<sup>44)</sup>이신 석존(釋尊)께서는 도솔천(兜率天)<sup>45)</sup>에 계실 때에는 호명보살(護明菩薩)<sup>46)</sup>이라 불렀고, 왕궁에 내려 오셔서선 실달(悉達)<sup>47)</sup>이라 불리셨는

---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육도(六道)를 윤회한다고 말하는데, 육도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다.

44) 본사(本師): 으뜸가는 스승이란 뜻으로 '석가여래'를 이르는 말이다.

45) 도솔천(兜率天): ☉Tusita-deva의 음역으로서 지족천(知足天)·희락천(喜樂天) 등으로 번역한다. 육계 6천의 네 번째 천으로 야마천과 낙면화천 사이에 있다.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호명보살(護明菩薩)이라는 이름으로 머무셨다는 곳이 바로 도솔천이다.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보살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부처님이 되셔서 3회의 설법 끝에 수십억의 대중을 제도한다고 한다.

46) 호명보살(護明菩薩): 석가모니불이 보살로서 도솔천에 머물렀을 때에 부르던 이름이다.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중생을 보호하고 그 길을 밝혀주고자 하므로 호명(護明)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47) 실달(悉達): ☉Siddhārtha, 실달다(悉達多). 부처님이 카필라국에서 슈도다나왕[淨飯王]의 태자로 태어나 출가하기 전에 불리던 이름. 일체의 뜻을 이루다, 일

데, 이 분이 어찌 참아내는 힘이 없는 분이였겠는가? 그야말로 태양 빛도 멀리 비춤에 있어서 그 분보다 멀리 비추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천신들도 애욕의 인연을 소멸시킴에 있어서 그 분보다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이셨다. 그 분은 비록 애욕의 인연을 넘어섰으므로 애욕의 인연에 물들지 않았지만 후세를 위해 모범을 보이려고 하셨다. 그래서 금륜(金輪)<sup>48)</sup>의 적자(嫡子)로 태어나 부모님께 고하지도 않고 떠나 설산(雪山)<sup>49)</sup>에 들어가

---

체의 일을 이루다는 뜻이다. 부처님이 태어나시자 점을 잘 치는 아사타(阿私陀)이 보고는, 태자가 과거세에 갖가지 좋은 공덕을 쌓아 뛰어난 상호를 갖추었고 일체의 모든 좋은 일을 이룰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보통 왕자의 길을 가면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위없는 큰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런 의의를 참작하여 싯달다라고 이름지었다 한다.

48) 금륜(金輪) :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다른 말이다. 전륜성왕은 인도의 신화에서 통치의 수레바퀴를 굴러 세계를 통일하여 정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으로서 전륜왕이라고도 약칭한다. 전륜성왕에는 금륜·은륜·동륜·철륜의 네 종류가 있는데 그중 금륜이 가장 뛰어나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을 높여 지칭한 말이다.

49) 설산(雪山) : ㉠Himālaya. 인도 북부인 지금의 네팔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흔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수행했던 곳으로 전해 왔지만, 실제로 수행했던 마가다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과거 수행 시절에 이곳에서 수행했다는 저명한 본생담(本生譚)이 있어 설산동자(雪山童子)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열반경(涅槃經)』에 나온다. 부처님께서 과거 브라만으로서 수행하실 때 청정한 설산에 들어가 고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제석천이 무서운 나찰로 변화해 나타나 수행자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과거불의 계승인 “제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라네(諸行無常, 是生滅法)”라는 구절을 말한 후 다음 구절을 듣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하자 몸을 던졌더니 나찰이 “생멸이 모두 없어지면 고요하여 즐거우리라(生滅滅已, 寂滅爲樂)”는 뒷 구절을 알려 주고는 다시 제석천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은 이 연연 공덕으로 12겁을 뛰어 넘어 미륵보다 앞서 성불하게 되었다고 한다. (『大般涅槃經』 권14 大12 p.450a12~451b5) 그래서 이 계승을 설산계(雪山僞)라고 한다. 이런 전생담이 석가의 생애에 섞여 들어가 중국에서는 송대의 불교 사서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1004년)이나 『불조통기(佛祖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굳게 절도를 지켰으며 인욕을 편히 여기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번뇌가 씻은 듯이 다 없어지고 진실한 지혜가 환희 드러나기를 기다린 이후에야 고향에 돌아와<sup>50)</sup> 아버지를 찾아뵙고 천상에 올라 어머니를 방문하여<sup>51)</sup> 그 부모님을 위해 법요(法要)<sup>52)</sup>를 설하고 모두 제도(濟度)하여 해탈(解脫)<sup>53)</sup>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인께서 방편으로 써 변화에 대응하고 상도(常道)를 뒤집어 도(道)에 합하는 방법<sup>54)</sup>인 것이다. 게다가 부처님은 3명(三明)<sup>55)</sup>과 6통(六通)<sup>56)</sup>을 빠짐없이 다 갖추었으

統紀』(1269년) 등에 실리게 되었고, 이후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50) 부처님의 고향은 석가(釋迦)족이 살던 카필라성[☉Kapila-vastu, 迦毘羅城]이다. 지금의 네팔 남부 타라이(Ta-rai)지방의 킬라우라코트((Tilaurakot)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그 인근인 룸비니 남쪽의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시타르트나가르(Siddharthnagar)의 피프라하와(Piprahwa)라는 설도 있다. 부처님이 되신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카필라성을 찾아 아버님을 뵙고 아들 라후라(羅睺羅)와 이복 아우인 난다(難陀), 사촌 제바닷다[提婆達多], 우바리[優波離] 등 많은 이를 출가시켰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고향을 찾아 이모이자 자신을 길러준 양모인 마하파사파제(摩訶波闍波提)와 부인이었던 야쇼다라[耶輸陀羅] 등에게 출가를 하용하여비구니 교단을 이루도록 하였다.
- 51)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은 석가모니를 출산한 후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마야부인이 도리천(忉利天, 삼십삼천)에 있다고 하여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 석 달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고 다시 지상에 내려왔다고 한다.
- 52) 법요(法要): 불법(佛法)의 요체로서 진리의 본질을 말한다.
- 53) 해탈(解脫): ☉vimokṣa.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또 생사의 원인을 끊고 업보의 윤회에 다시는 구애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 하여 열반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불교는 본래 열반과 해탈을 실천 수행의 마지막 경지라고 여겨 여러 가지의 해탈에 관한 이론을 두고 있다.
- 54) 『논어집주(論語集註)』「자한(子罕)」 제29장에서 “정자가 말씀하였다. ‘한나라 유자들은 경도를 뒤집어 도에 합하는 것을 권도라고 하였다. 그래서 권변과 권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옳지 못하다. 권도는 다만 경도일 뿐이니, 한나라 이래로 누구도 권자의 뜻을 안 사람이 없었다.’”(程子曰 漢儒以反經合道爲權, 故有權變權術之論, 皆非也. 權只是經也, 自漢以下, 無人識權字.)라고 하였다.

며 4지(四智)<sup>57)</sup>와 8해(八解)<sup>58)</sup>를 원만히 갖추었다. 그 덕이 천하 후세에 전파되어 천하 후세가 부처님의 부모를 ‘큰 성인의 부모’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의 성(姓)으로써 모든 출가자의 성을 삼게 하여 출가한 사람들을 모두 ‘석자(釋子)’라고 부르게 하였으니,<sup>59)</sup> 어찌 큰 효도라 하지 않겠는가? 공

55) 3명(三明):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신통으로서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명(明)이라고 하였다. 즉 천안통의 지혜인 천안명(天眼明), 숙명통의 지혜인 숙명명(宿命明), 누진통의 지혜인 누진명(漏盡明)을 말한다.

56) 6통(六通):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여섯 가지 신통력을 말한다. 즉 ①자유로이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신족통(神足通), ②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천안통(天眼通), ③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天耳通), ④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타심통(他心通), ⑤과거세의 일을 환히 아는 숙명통(宿命通), ⑥번뇌를 자유자재하게 끊을 수 있는 누진통(漏盡通)을 말한다.

57) 4지(四智): 불교의 유식학과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로서 성소작지(成所作智), 묘관찰지(妙觀察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대원경지(大圓鏡智)이다. 성소작지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 유루(有漏)의 전오식(前五識)을 바꾸어 얻는 지혜이고, 묘관찰지는 제육식(第六識)을 바꾸어 얻는 지혜이며, 평등성지는 제칠식(第七識)을 바꾸어 얻는 지혜이고, 대원경지는 제팔식(第八識)을 바꾸어 얻는 지혜를 말한다.

58) 8해(八解): 팔해탈(八解脫)을 의미한다. 팔해탈은 여덟 가지 선정(禪定)의 힘으로 욕심을 없애는 것으로서, 사선(四禪)과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말한다. 사선은 색계(色界)의 선정 단계로서 초선(初禪), 제이선(第二禪), 제삼선(第三禪), 제사선(第四禪)이고, 사무색정은 무색계(無色界)의 선정 단계로서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다.

59) 승려들은 석가모니의 석(釋)자를 따서 성(姓)으로 삼는데, 이것은 중국의 도안(道安, 314~385)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초기의 중국불교를 집대성한 도안은 승단의 의식 등 여러 제도를 확립하였는데, 그동안 천축국, 월지국, 안식국 등 국명을 따라 쓰던 승려들의 성을 모두 석가(釋迦)의 후예라는 뜻에서 석씨로 바꾸었고, 이후 이 제도는 근대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벼슬길에 나아가 도를 실천하여 그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서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 된다.”<sup>60)</sup>라고. 올바른 도로써 천하 후세를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교화에 감동되게 하였으며 크고 작은 근기에 따라 그 법을 받아 해탈하게 하였으니, 어찌 큰 자비라 하지 않겠는가? 공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올 것이다.”<sup>61)</sup>라고.

試嘗論之曰，經權爲道之大要也。非經，無以守常，非權，無以應變，經以守常，權以應變。然後得夫道之大全，而無所往而不可也。不知守常，無以正人心，不知應變，無以成大事。夫人也，托父母而受生，寄君國以得存，入孝出忠，固臣子之所當爲也。又婚姻祭祀，亦人倫之大經也，非婚，生生之理絕，非祀，追遠之法廢。然爲臣子而盡忠孝者難矣，婚姻而終身守正，奉祀而盡心致齊者，又其難矣。盡忠盡孝，而謹守其職，守正致齊，而終身不輟，然後生不失善名，死得生人道，此經以守常之效也。然生得善名而已，斷愛欲者幾希，死生人道而已，免輪迴者難矣，愛爲輪迴之本，欲爲受生之緣。夫人者，既未免妻子之累，愛欲其可斷乎？苟未斷於愛欲，則輪迴其可免乎？欲免輪迴，先斷愛欲，欲斷愛欲，先去妻子，欲去妻子，須出塵寰。不出塵寰，不去妻子，斷愛欲，免輪迴，大聖垂慈大權示迹之外，庸人凡俗，其可得乎？夫如是者，億億世而難遇，萬萬人而難得。夫

60) 『효경』 「개종명의(開宗明義)」에서 “공자가 이르기를, ‘신체의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아 나온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 되고, 벼슬길에 나아가 도를 실천하여 그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서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 된다’라고 하였다.”(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立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也。)라고 하였다.

61) 『논어』 「안연(顔淵)」 제1장

愛緣, 如磁石與鐵偶相似, 無忍力者, 居塵世而難免. 如本師釋尊, 居兜率而稱爲護明菩薩, 降王宮而名曰悉達, 此豈無忍力者哉? 可謂玄曦慙其照遠, 上界惡以緣銷者也. 雖涉愛緣, 應不爲愛緣所染也, 將欲爲後世垂範. 以金輪之嫡子, 不告父母而辭入雪山, 輕生苦節, 安忍不動, 待其情累蕩盡, 眞明朗發然後, 返鄉而覲父, 登天而訪母, 爲說法要, 皆令度脫. 此聖人之所以權以應變而反常合道者也. 且佛者, 三明六通而悉備, 四智八解而圓具. 其德播天下後世, 而使天下後世, 稱其父母曰, 大聖人之父母, 以其姓, 姓一切姓, 使出家者, 皆稱之曰釋子, 豈不謂之大孝乎? 孔不云乎?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現父母孝之終也.” 以其道, 導天下後世, 而使天下後世, 聞其風, 感其化, 隨其機之大小, 稟其法而得度, 豈不謂之大慈乎? 孔不云乎?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

### 3. 불충론에 대해

묻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온 정성을 기울여 나라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불제자들은 천자에게도 조회(朝會)<sup>62)</sup>하지 않고 왕후(王侯)<sup>63)</sup>도 섬기지 않으며 멀리 떠나 고상

62) 조회(朝會): 원래 관리들이 아침에 임금에게 문안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을 조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섬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3) 왕후(王侯): 천자(天子)와 천자로부터 각 지역을 나누어 받은 제후(諸侯). 나중에는 다섯 작위 중에서 첫째와 둘째인 왕의 작위와 후의 작위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고관 귀족을 널리 부르는 말로도 쓰였다.



한 삶을 살면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니, 어찌 충(忠)이라 할 수 있겠는가?

曰，人生斯世，當盡忠於君，傾誠輔國。今浮圖氏，不朝天子，不事王侯，高棲遐舉，坐觀成敗，豈可謂忠乎？

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임금이 되려는 자에게는 먼저 계품(戒品)<sup>64)</sup>을 받아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 다음에야 비로소 보위(寶位)<sup>65)</sup>에 오르라 하였고, 또 모든 출가한 자들에게는 아침에 향을 사루고 저녁에 등불을 켜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축원하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였으니, 이것을 충(忠)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임금은 벼슬과 녹봉으로써 선을 권하고 형벌로써 악을 금지하지만 이 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경사를 부르고 악을 저지르면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쳤으니,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자연히 그 악한 마음을 거두고 착한 마음을 내게 될 것이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벼슬과 상으로써 권하거나 형벌의 위엄을 빌지 않고도 사람들로 하여금 풀이 바람에 따라 쏠리듯이 교화를 따르게 하였으니, 어찌 임금과 나라에 도움이 없겠는가?

曰，教中，使爲君者，先受戒品，潔淨身意，然後方登寶位，又令凡出家者，莫不朝焚夕點而祝君祝國，可不謂之忠乎？且君者，爵祿以勸善，刑罰以禁惡之外，吾佛，示之以爲善招慶，爲惡招殃，人之聞者，自然收其惡心，發其善意。吾佛之教，不假爵賞之勸，刑罰之威，令人靡然趨化，豈無輔於君國乎？

---

64) 계품(戒品): 오계, 십선계 등 계의 품류(品類).

65) 보위(寶位): 보배로운 자리, 곧 왕위를 뜻함.

## 4. 불살생에 대해

묻는다. 사람이 만물을 먹고 만물이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은 진실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이 70인 자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므로<sup>66)</sup> 노인을 봉양하는 자는 고기를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에 따라 행하는 사냥<sup>67)</sup>은 바로 선왕(先王)<sup>68)</sup>께서 백성을 위해 해로움을 없애고자 하여 절기에 따라 세운 법이므로 바뀌서는 안 된다. 또한 희생(犧牲)<sup>69)</sup>은 예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받드는 예물(禮物)이므로 더욱더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부모가 늙어 입맛이 없는데도 고기를 공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왕의 제도와 희생의 예법을 폐지하도록 가르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曰, 人食物, 物給人, 固其自然也. 而七十者, 非肉不飽故, 養老者不可不以此供之. 又春蒐夏苗秋獮冬狩, 乃先王之所以爲民除害, 順時立法, 不可易也. 且犧牲, 從古于今, 奉祀之禮物, 尤不可廢也. 今浮圖, 親老而食不甘, 不供之以肉, 教人亦廢先王之制, 犧牲之禮, 豈非過歟?

66) 『맹자』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제22장

67) 옛날에는 임금이 사계절에 사냥을 하였는데 그 중에 봄 사냥을 춘수(春蒐), 여름 사냥을 하묘(夏苗), 가을 사냥을 추선(秋獮), 겨울 사냥을 동수(冬狩)라고 한다. 『춘추정전(春秋正傳)』 권2 환왕(桓王) 2년(隱5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에 따라 사냥하니 모두 농사짓는 여가에 일을 익히는 것이다.(春蒐夏苗秋獮冬狩, 皆於農隙, 以講事也.)”라고 하였다.

68) 선왕(先王): 원뜻은 전대의 왕을 말한다. 보통 중국 선대의 왕으로서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는 현명한 임금을 말한다.

69) 희생(犧牲): 제사 때 바치는 예물(禮物)로서 소, 양 등을 말한다.

답한다. 하늘이 준 만물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성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하늘의 도(道)가 지극히 어질거늘 어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목숨을 죽여 제 생명을 기르도록 하였겠는가? 『서경(書經)』<sup>70)</sup>에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진실로 총명한 사람이 임금이 되며, 임금은 백성의 부모가 된다.”<sup>71)</sup>고 하였으니, 천지가 이미 만물의 부모이니 천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모두 천지의 자식이다. 천지와 만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으니, 자식에게 어리석고 똑똑한 것이 있는 것은 사람과 만물에게 총명함과 어리석음은 것이 있는 것과 같다. 부모는 자식이 비록 어리석고 못났더라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며, 오히려 제대로 기르지 못할까 염려하거늘 하물며 해를 끼치겠는가? 살아 있는 목숨을 죽여 제 생명을 기르는 것은 형제를 죽여 제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으니, 형제를 죽여 제 생명을 기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은 부모가 바라는 마음이 아니니, 사람과 만물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어찌 천지의 뜻이겠는가? 사람과 만물은 천지의 기운을 똑같이 받았고 또 천지의 이치를 똑같이 얻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미 동일한 기운과 동일한 이치를 부여받았는데, 어찌 살아 있는 목숨을 죽여 제 생명을 기르는 이치가 있겠는가? 예컨대, “천지는 나와 뿌리가 같고,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sup>72)</sup>고 하였으니 이것은 불교의 말씀이요, “어진 사람은

---

70) 『서경(書經)』: 유교의 성전(聖典)으로서 오경(五經) 중의 하나이다. 오경은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를 말한다. 『서경』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에 걸친 중국 고대의 기록으로서, 원래 사관(史官)이 기록했던 것을 공자가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것은 『서경집전(書經集傳)』이다. 이 책은 송나라의 주자(朱子)가 그의 제자 채침(蔡沈)에게 명하여 만든 것으로 주자는 책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71) 『서경』 「태서상(泰書上)」 제3장.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긴다”<sup>73)</sup>고 하였으니 이것은 유가의 말씀이다. 행동이 그 말과 같아진 뒤라야 비로소 인(仁)의 도를 다하게 될 것이다.

의서(醫書)에 “손발에 풍이 드는 것을 불인(不仁)”<sup>74)</sup>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손발은 몸 전체를 두고 볼 때는 미미한 것이지만, 아무리 미미한 병이 들더라도 기운이 소통하지 않게 된다. 인이란 천지의 만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끼어들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치를 깊이 체득한 자는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해를 끼친 적이 없을 것이니, “어진 사람(仁人)의 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주(鵝珠)비구<sup>75)</sup>와 초계(草繫)비구<sup>76)</sup>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와 같지 않다면 사람과 만물은 기운

72) 『조론(肇論)』 권1 大45 p.159b28~29.

73) 『논어집주』 「옹야(雍也)」 제28장에서 “정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천지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니, 자기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程子曰 …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라고 하였다.

74) 『논어집주』 「옹야」 제28장에서 “정자가 말하기를 ‘의서에 손발이 마비된 것을 불인이라 하니, 이 말이 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程子曰 醫書以手足痿痺爲不仁, 此言最善名狀.)라고 하였다.

75) 아주(鵝珠)비구 : 아주(鵝珠)는 거위 구슬이라는 뜻으로 다음의 이야기가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에 전한다. 옛날 어떤 비구가 걸식하다가 어느 집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집의 주인이 구슬을 꿰고 있었다. 그런데 비구가 밥을 얻는 사이에 거위가 와서 구슬을 삼켜 버렸다. 주인은 비구가 구슬을 훔쳤다고 의심하여 꾸짖었는데, 비구는 주인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구슬을 취할까 두려워 거위가 삼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모진 매질을 당했지만 거위가 배설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그 비구를 아주비구라고 불렀다.(『大莊嚴論經』 권11 大4~319a20~321a18)

76) 초계(草繫)비구 : 초계(草繫)라는 말은 풀에 얽매었다는 말로 다음의 이야기가 『대장엄론경』에 전한다. 옛날 어떤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다. 도둑들은 옷을 빼앗고 비구를 벗긴 채 풀에 묶어 놓고 가버렸다. 그 비구는 풀이 끊어질까 두려워 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견디고 있었다. 이때에 사냥을 나왔던 임금이 이것을 보고 풀어주고 그 연유를 듣고는 비구의 행동에 감동하여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한다. 그 비구를 초계비구라고 불렀다.(『大莊嚴論經』 권3 大

이 어그러져 온화하지 못하고 이치가 막혀 통하지 못하여 손발에 풍병이 든 것처럼 될 것이니, 의서(醫書)에서 한 말은 그 인을 잘 나타냈다고 할 만하다.

『시경(詩經)』<sup>77)</sup>에는 “한 번 활을 쏘아 다섯 마리 암돼지를 잡는다.”<sup>78)</sup>고 하였고, 『논어(論語)』<sup>79)</sup>에는 “낚시질은 하지만 그물질은 하지 않고, 주살로는 잡지만 잡자는 새는 쏘지 않는다.”<sup>80)</sup>고 하였으며, 『맹자(孟子)』<sup>81)</sup>에는

4~268c5~269c24)

77) 『시경(詩經)』: 유교의 성전(聖典)으로서 오경(五經) 중의 하나이다. 이 책은 춘추 시대의 민요를 모은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된 시집이다. 원래 3,000여 편이었던 것을 공자가 311편으로 간추려 정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전하는 것은 305편이다.

78) 『시경』 「소남(召南)」 추우(騶虞).

79) 『논어(論語)』: 유교의 성전(聖典)으로서 첫손 꼽히는 사서(四書) 중의 하나이고, 유교 성전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다. 사서는 『논어』·『맹자』·『대학』·『중용』을 말한다. 『논어』는 공자(孔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과 제자들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표현이 간결하고 함축성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논어’라는 책 이름은 공자의 말을 모아 간추려서 일정한 순서로 편집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언제 누가 편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학이편(學而篇) 이하 모두 20편으로 이루어졌으며, 편 이름은 그중에 나오는 말을 따서 붙였다. 인(仁)을 핵심으로 한 공자와 제자들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 인도주의가 중심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송나라의 주자가 편찬한 『논어집주(論語集注)』에 따라 읽었다.

80) 『논어』 「술이(述而)」 제26장.

81) 『맹자(孟子)』: 유교의 성전(聖典)으로서 사서(四書) 중의 하나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에 살았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한 사람으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였는데,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맹자』이다. 약 15년 동안 전국 각국을 유세하고 돌아다니면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채택하는 제후는 없었다. 『맹자』는 양혜왕(梁惠王) 이하 7편은 맹자의 말을 모아 구성한 것으로, 맹자의 사상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변론조의 문장으로 예로부터 명문으로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송나라의 주자가 편찬한 『맹자집주(孟子集註)』를 가장 많이 읽었다.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 하니, 그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sup>82)</sup>고 하였고, 또 “촉촉한 그물을 못에 치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sup>83)</sup>라고 하였는데, 이 말들은 모두 인을 행하려 하면서도 그 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하여 ‘한 몸으로 여긴다’는 말과 부합하지 못하는가? 『중용(中庸)』<sup>84)</sup>에는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아야 하니 군자가 어찌 독실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sup>85)</sup>라고 하였는데, 지금 어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는 유학자들이 ‘인을 행하는 도’에 대해서 잘 논하긴 하였지만 끝까지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적게 죽이고자 하면서 왜 굳이 화살을 쏘며, 이미 그 잡자는 새를 불쌍히 여기면서 왜 자지 않는 새를 쏘며, 이미 푸줏간을 멀리 하면서 왜 반드시 고기를 먹으며, 작은 고기가 죽는 것을 슬퍼하면서 왜 큰 고기는 굳이 해치려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대계(大戒)<sup>86)</sup>에서 살생하지 말라[不殺生]는 것을 첫 번째

82) 『맹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제7장.

83) 『맹자』 「양혜왕장구상」 제3장.

84) 『중용(中庸)』: 유교의 성전(聖典)으로서 사서(四書) 중의 하나이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저작이라 알려졌다.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있는 「중용편(中庸篇)」이 송나라 때 단행본이 된 것이다. ‘중(中)’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용(庸)’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 예로부터 송의 주자가 주석한 『중용장구(中庸章句)』를 가장 많이 읽었다.

85) 『중용』 제13장.

86) 대계(大戒): 『범망경(梵網經)』(大24)에 있는 열 가지 큰 계율[十重大戒]을 말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중생을 죽이지 말라[殺戒], 둘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盜戒], 셋째는 음행하지 말라[淫戒], 넷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妄語戒], 다섯째는 술을 팔지 말라[酤酒戒], 여섯째는 남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說四衆過戒], 일곱째는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自讚毀他戒], 여덟째는 인색하지 말라[慳惜加毀戒], 아홉째는 성내지 말고 남의 참회를 받아주어라[瞋

에 두셨고, 또 『자심인연불식육경(慈心因緣不食肉經)』<sup>87)</sup>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기 먹는 자는, 이런 사람은 자비를 행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늘 단명(短命)하고 병이 많은 몸을 받아서, 생사에 빠져 헤매어 성불하지 못한다.”<sup>88)</sup>라고 하셨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녹낭(漚囊)<sup>89)</sup>을 지니게 한 이유는 미미한 생명체를 해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옛날 어떤 두 비구가 함께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마르던 차에 벌레가 들어 있는 물을 발견하였다. 한 비구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만 있다면 이 물을 마신들 무슨 죄가 되리오.’ 하고는 곧 마셨다. 다른 한 비구는 ‘부처님께서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으니, 만일 부처님이 정해주신 계율을 깨뜨린다면 부처님을 친견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갈증을 참고 마시지 않았다. 이 비구는 결국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먼저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sup>90)</sup> 이

---

心不受悔戒], 열째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謗三寶戒]이다.

87) 『자심인연불식육경(慈心因緣不食肉經)』: 『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에 수록. 내용은 가파리(迦波利)바라문의 아들인 미륵(彌勒)의 본생담(本生譚)이다. 옛날에 미륵불이 승화부세계(勝花敷世界)에 나타나 자삼매광대비해운경(慈三昧光大悲海雲經)을 설하셨는데 일체지광명(一切智光明)바라문이 이 경을 듣고 보리심을 내서 이 경을 지송하기를 서원하고 미래에 성불하여 미륵이라 이름하기를 원하였다. 그 후 출가하여 8천년간 일심으로 이 경을 지송하였는데 어느 때 연일 호우가 쏟아져 7일이나 밥을 먹지 못하자 숲속의 모자(母子)가 이를 보고 불 속에 투신하여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하였다. 이를 본 선인은 생생세세토록 살생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발원하고는 역시 불에 뛰어 들었다. 그 선인이 바로 미륵이었다고 한다.

88) 『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 권1 대3 p.458 c3~4.

89) 녹낭(漚囊): 물을 걸러 마실 때 쓰는 도구.

90) 『중아함경(中阿含經)』 권22 『구법경(求法經)』(大1 p.570a6~b8)에 비슷한 이야기

것이 바로 어진 사람의 진실한 말과 행동이며 ‘한 몸으로 여긴다’는 말과 ‘독실히 한다’는 교훈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다.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해월(海月)이라는 스님이 나에게 『논어』를 읽어주다가 “넌리 배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점에 있어서는 요순(堯舜)<sup>91)</sup>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다”<sup>92)</sup>는 대목을 설명하는 주(註)에서 “어진 사람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긴다”<sup>93)</sup>는 내용에 이르러서 책을 놓고 나에게 물었다.

“맹자가 어진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닭과 돼지와 개와 큰 돼지는 만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진 사람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긴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이치에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진실로 어진 사람이고 닭과 돼지와 개와 큰 돼지가 또한 만물이라면, 무엇 때문에 맹자가 ‘닭과 돼지와 개와 큰 돼지를 기르면서 새끼 칠 때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sup>94)</sup>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때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 유교 경전을 찾아보았

---

가 있다. 배고픈 두 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남긴 음식을 탐내어 먹은 비구와 먹지 않은 비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먹지 않은 비구가 부처님의 뜻에 합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91) 요순(堯舜): 중국 상고 시대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한다. 이들은 정치를 잘하여 화평한 세상을 이루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상 세계로 여겼다.

92) 『논어』 「옹야(雍也)」 제28장.

93) 『논어집주』 「옹야」 제28장. “인자는 천지와 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니 자기 아닌 것이 없다.”(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94) 『맹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제7장.



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주장도 없었고, 선배들에게 널리 물어 보았지만 시원스레 의심을 풀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늘 이러한 의문을 품은 채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병자년(1396) 즈음에 삼각산(三角山)<sup>95)</sup>을 유람하다가 승가사(僧伽寺)<sup>96)</sup>에 이르러 어떤 늙은 선사(禪師)와 밤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선사가 “불교에는 열 가지 큰 계율[十重大戒]<sup>97)</sup>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불살생(不殺生)입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시원스레 의심이 풀리어 마음으로 수긍하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어진 사람의 행동이고 깊이 인도(仁道)를 체득한 말이다.” 그 때부터 나는 유교와 불교의 차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마침내 이런 시를 지었다.

#### 예전엔 경사(經史)<sup>98)</sup>에서 정자와 주자가 혈뜬는 글만 보고서

95) 삼각산(三角山): 서울의 동북쪽에 있는 산. 지금은 북한산(北漢山)이라고 부른다. 높이 836.5m의 최고봉인 백운대(白雲臺)와 인수봉(仁壽峰)과 만경대(萬景臺)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삼국시대 이래 중시되어온 산이다. 삼천사(三川寺)·태고사(太古寺) 등 여러 사찰이 있었고, 북한산성이 기능을 할 때는 중흥사(重興寺)를 비롯한 12개의 사찰이 산성 안에 있었다. 지금도 산 안쪽과 기슭으로 도선사·화계사·승가사·진관사 등 많은 사찰이 있다.

96) 승가사(僧伽寺): 진흥왕순수비가 있던 북한산 비봉(碑峰) 동쪽에 위치한 사찰. 신라시대에 수태(秀臺)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당나라 고종 때 천복사(薦福寺)에서 대종을 가르쳤던 승가(僧伽)대사를 기리는 뜻에서 승가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고려 전기에 여러 차례 중수하였고, 1422년(세종 4)에 7종을 합하여 선교양종으로 통합할 때 선종에 속하였다. 1941년에 도공(道空)이 크게 고쳤고, 한국 전쟁으로 불에 탄 것을 1957년에 도명(道明)이 크게 수리하여 많은 당우를 새로 지었다. 절 뒤편 바위에 마애석불석가여래좌상(보물 제215호)이 있고, 석굴 안에 고려 현종 때 조성하였다는 승가대사상(보물 제1000호)이 있다.

97) 열 가지 큰 계율[十重大戒]: 『범망경』에 있는 열 가지 계율을 말한다. 주84) 참조

98) 경사(經史): 유교의 경전과 사서(史書). 영원불변의 진리를 탐구하는 경학으로

부처님 법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했네  
반복해서 곰곰이 생각한지 여러 해 지나서  
비로소 진실을 알아 그만 귀의하노라.

무릇 동지 틀고 사는 짐승은 바람이 불어올 줄을 알고, 구멍 속에 사는 짐승은 비가 내릴 줄을 알며, 거미는 그물을 치는 재주가 있고, 쇠똥구리는 둥글게 굴리는 능력이 있다. 만물이 모두 이와 같이 신령스러운 밝음[靈明]을 타고났으니, 살기 좋아하고 죽기 싫어하는 감정에 있어서라면 또한 어찌 사람과 달랐던 적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희희 놀리는 백정의 칼에 벌벌 떨면서 사지(死地)로 나아갈 때에 힐끗힐끗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부짖는 것이 어찌 원망을 품고 원한을 맺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그 때문에 사람과 만물이 서로 업(業)을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보상(報償)해 주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고도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좋아하는 맛을 가지고 저들이 참아 내야 할 아픔에 비교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이 분명하여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응보(應報)<sup>99)</sup>의 설이 거짓말이라면 그 업이 이루어지는 대로 맡겨두겠지만, 만일 거짓말이 아니라면 다가올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냥이 비록 선왕(先王)의 법제라고 하지만, 지금 큰 산속이나 섬과 같은 사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사람과 만물은 각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고, 각기 그 곳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수명을 잘 마치고 있다. 이로써 본다면 백성이 어찌 반드시 사냥

---

기초를 세우고, 시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는 역사로 사회를 인식하는 정신. 곧 전통시대의 바람직한 공부의 큰 바탕을 말함.

99) 응보(應報): 선악의 업에 따라 생겨나는 고통(苦樂)의 과보.

을 따라야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겠는가? 옛 사람은 “사방을 둘러싸지 않고 한꺼번에 덮치지 않는다”<sup>100)</sup>라고 가르쳤으니, 이로써 볼 때, 살생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이치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치에 합당한 것만은 아니니, 이미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큰 원칙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주역(周易)』<sup>101)</sup>에 “옛날의 성인은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신성한 무덕[神武]<sup>102)</sup>으로 죽이지 않은 자일 것이다”<sup>103)</sup>라고 하였다. 사계절의 사냥은 성인이 이 말에 의거하여 신성한 무덕으로 미리 외적의 노략질을 예방한 것일 뿐이니, 어찌 살생을 마음에 둔 것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천하를 위한 큰 방편인 것이다. 이로써 보면 사냥이란 것도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지는 의리와 똑같다.<sup>104)</sup>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지는 것은

100) 『예기(禮記)』 「왕제(王制)」 제5장에서 “천자는 사면을 둘러싸지 않으며, 제후는 짐승의 떼를 한꺼번에 덮치지 않는다.”(天子不合圍，諸侯不掩群)라고 하였다.

101) 『주역(周易)』: 유교의 성전(聖典)으로서 오경(五經) 중의 하나이다. 주역(周易)이란 글자 그대로 주(周)나라의 역(易)이란 말이며 주역이 나오기 전에 하(夏)나라 때의 『연산역(連山易)』과 상(商)나라 때의 『귀장역(歸藏易)』이 있었다고 한다. 역(易)이란 ‘바뀌다’는 의미이며,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풀이한 책이다.

102) 신무(神武): 신성한 무덕(武德)

103) 『주역전의』 「계사상전」 제11장.

104) 『맹자』 「이루장구상(離婁章句上)」 제17장에서 “순우곤이 맹자에게 물기를, ‘남녀간에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라고 하였다. 맹자가 ‘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순우곤이 물기를, ‘제수가 우물에 빠지면 손으로써 구원하여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제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승냥이이다. 남녀 사이에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음은 예이고, 제수가 물에 빠졌으면 손으로써 구함은 권도이다.’라고 하였다.”(淳于髡曰，男女授受不親，禮與？孟子曰，禮也。曰 嫂溺則援之以手乎？曰 嫂溺不援，是豺狼也。男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니, 어떻게 이것을 인간의 상법(常法)으로 삼겠는가? 제사를 위한 희생에 있어서도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면 그가 죽은 후에 좋아했던 음식으로 제사지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것은 얼음에 물을 끼얹는 격이니 반드시 죄를 가중시킬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양(羊)을 잡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 조상이 꿈에 나타나 그것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것이 그 징험이다. 이러한 자취를 볼 때 희생이 비록 성대한 예이기는 하지만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曰, 暴殄天物, 聖人之所不與也. 況天道至仁, 豈令人殺生以養生哉? 書云, “惟天地, 萬物父母, 惟人, 萬物之靈. 亶聰明作元后, 元后作民父母.” 天地既爲萬物之父母, 則生乎天地之間者, 皆天地之息也. 天地之於物也, 猶父母之於子也, 子有愚智之殊, 猶人與萬物之有明昧也. 父母之於子也, 雖愚不肖, 亦愛而愍之, 猶恐不得其養焉, 況其加害乎? 殺生養生, 如殺同息以自養也, 殺同息以自養, 則於父母之心爲如何哉. 子之相殺, 非父母之心也, 人物之相殘, 豈天地之意乎? 人與萬物, 既同得天地之氣, 又同得天地之理, 而同生於天地之間. 既一氣一理之所賦, 焉有殺生養生之理哉? 如云,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此釋氏之言也, “仁者, 以天地萬物爲一己,” 此儒者之言也. 爲行一如其言然後, 方盡仁之道矣. 醫書, “以手足痿痺爲不仁,” 蓋手足一身之微者也, 雖微病焉, 則氣不通矣. 仁也者, 天地萬物, 融爲一體, 而無所間然之謂也. 深體此理者, 則雖微物, 未嘗有所加害也, 可謂“得仁人之道”矣. 如鵝珠草繫, 蓋其人矣. 不如是則人與物, 氣攄而不斂, 理碍而不

---

女授受不親, 禮也, 嫂溺援之以手者, 權也.)라고 하였다.

通，如手足之痺也，醫書所云，可謂善狀其仁矣。詩云，“一發五紕，”論語云，“鈞而不綱，弋不射宿，”孟子云，“君子遠庖廚也，聞其聲，不忍食其肉，”又云，“數罟不入污池，魚鼈不可勝食，”此皆爲仁而未盡其道也，何不契於一己之言乎？中庸云，“言顧行行顧言，君子胡不慥慥爾，”今何至此乎？此儒者之所以善論爲仁之道而未盡善也。既要殺少，何必發矢，既憐其宿，何射不宿，既遠庖廚，何必食肉，小既傷殘，何須害大。佛於大戒，以不殺居先，又慈心因緣不食肉經云，“如佛所說食肉者，此人行慈不滿足。常受短命多病身，迷沒生死不成佛。”又教中所以教持漚囊者，恐傷微命也。昔有二比丘，同欲見佛，行於曠野，渴遇蟲水。一人云，‘但得見佛，飲之何罪，’卽飲。一人云，‘佛戒殺生，若破佛戒，見佛何益，’忍渴不飲。死生天上，先見於佛，得佛讚嘆。此乃仁人之真語實行，而冥相契於一己之言，慥慥之訓也。余未出家，有釋曰海月者，讀論語於予，至“博施濟衆，堯舜其猶病諸，”註云，“仁者以天地萬物爲一己”之言，置卷而問予曰，“孟子仁者乎？”曰，“然。”“雞豚狗彘萬物乎？”曰，“然。”曰，“‘仁者，以天地萬物爲一己’，此真稱理之談也。孟子苟爲仁者，而雞豚狗彘，又爲萬物，則何以云，‘雞豚狗彘之畜，無失其時，七十者可以食肉’乎？”予於是，辭窮而未能答。考諸經傳，而無有殺生稱理之論，博問先知，而無有釋然決疑之者。常蘊此疑，久未能決，越丙子許，游三角山，到僧伽寺，與一老禪夜話。話次，禪云，“佛有十重大戒，一不殺生。”予於是，釋然心服，而自謂“此真仁人之行也，而深體乎仁道之語也。”從此，不疑於儒釋之間，而遂有詩云，素聞經史程朱毀，未識浮圖是與非，反復潛思年已遠，始知真實却歸依。夫巢

知風穴知雨，蜘蛛有布網之巧，蜣螂有轉圜之能。物皆如是，同稟靈明，至於好生惡殺之情，亦何嘗異於人哉？方其砉然奏刀，愬然就死之時，眈眈然視，喑喑然鳴，豈非含怨結恨之情狀也，而人自昧耳。所以人與物，相作而不覺，相償而無休，安有仁人見其如是而忍爲之哉？以我之嗜味，較彼之忍痛，苦樂皎然，而輕重可忖。報應之說，如其妄也，則一任其作，如其不妄，來苦難當，可不慎歟？夫春蒐夏苗秋獮冬狩，雖先王之法制，今有大山之中海島之間，眈所不及之處，人與物，各遂其生，各安其所，而善終天年者。以此觀之，則夫民也，何必因其獵而遂其生也。古人教以“不合圍，不掩群，”此知其殺之不可而事出乎不得已也。大抵不得已底事，或中而不必合理也，既不合理，何以爲大經乎？易云，“古之聰明睿智，神武而不殺夫。”蓋四時之眈，聖人托此，示之以神武，預防其外寇爾，豈以殺爲心哉？此乃爲天下者之大權者爾。以此觀之，則夫眈也，正同嫂溺，援之以手之義。嫂溺手援，暫時之用爾，何以爲人間之常法也。至於犧牲，則人居平日，以肉爲甘旨，則其死也，以其所嗜，祭之宜也，然潑水添水，罪必加矣。昔人有殺羊祭先，其先托夢而禁之，此其驗也。迹此觀之，則犧牲，雖曰盛禮，亦廢之可也。

## 5. 불음주에 대해

묻는다. 술은 모여서 기쁨을 함께 하는 약으로서 혈맥(血脈)을 조화롭게 하여 풍기와 냉기를 물리친다. 또 제사에서 술이 강신(降神)<sup>105)</sup>하게 하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계율에서 술을 금지하여

팔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曰, 酒所以合歡之藥也, 調和血脈, 以却風冷. 又於祭祀, 酒令降神, 不可無也. 今浮圖, 設戒以禁, 不酤不飲, 豈非過歟?

답한다. 술은 정신을 어지럽히고 덕을 무너뜨리는 근본이며 게다가 도에 더욱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계율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여 서른여섯 가지<sup>105)</sup>라고 하였고, 또 유교에서도 그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기를 “안으로는 그 심지(心志)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는 그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sup>107)</sup>고

105) 강신(降神): 신이 내려움을 말한다. 제사에서 주인이 조상의 신위(神位)에 분향하고 재배한 뒤 제주(祭酒)를 올리는 의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106) 『분별선악보응경(分別善惡報應經)』 권2(大1 p.899 b27~c11)에 음주의 36가지의 허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①재산을 잃는다 ②질병이 많아진다 ③싸움을 일으킨다 ④살생이 늘어난다 ⑤성냄이 많아진다 ⑥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⑦지혜가 점점 줄어든다 ⑧복덕이 늘지 않는다 ⑨복덕이 도리어 감소한다 ⑩비밀이 드러난다 ⑪사업을 이루지 못한다 ⑫근심과 괴로움이 많아진다 ⑬감각기관이 둔해진다 ⑭부모를 욕되게 한다 ⑮사문을 공경하지 않는다 ⑯바라문을 믿지 않는다 ⑰부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⑱불법과 승려를 공경하지 않는다 ⑲나쁜 친구와 친하게 된다 ⑳좋은 친구를 떠나게 된다 ㉑음식을 버리게 된다 ㉒신체부위를 숨기지 않는다 ㉓음욕이 성대하게 된다 ㉔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㉕웃고 떠드는 것이 많아진다 ㉖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 ㉗자녀들이 싫어하거 멀리한다 ㉘그릇된 법을 지니게 된다 ㉙바른 법을 멀리한다 ㉚어질고 착한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 ㉛잘못을 범하게 된다 ㉜열반을 멀리하게 된다 ㉝미친 행동이 증대된다 ㉞몸과 마음이 산란해진다 ㉟악을 행하고 방일해진다 ㊱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107) 이 부분은, 『논어』「향당(鄉黨)」 제8장에서 “술은 일정한 양이 없었는데, 어지러운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唯酒無量 不及亂)라고 한 부분을 『논어집주』의 주(註)에서 “정자가 말하였다. ‘어지러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을 어지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혈기(血氣)라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며, 다만 몸을 훈훈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程子曰, 不及亂者, 非唯不使亂志, 雖血氣, 亦不可使亂, 但浹洽而已可也.)라고 하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소주



하였으니, 이 말씀들은 음주가 큰 허물이 됨을 잘 밝힌 것이다. 술은 안으로 그 심지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을 방해하고, 밖으로 그 위의를 잃게 하기 때문에 교화의 길을 가로 막는다. 따라서 나와 남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끝없이 재앙과 화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의적(儀狄)<sup>108)</sup>은 우(禹)임금<sup>109)</sup>에게 술을 바쳤다가 소원해졌고,<sup>110)</sup> 나한(羅漢)<sup>111)</sup>은 술을 마셨다가 부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우임금께서 의적을 멀리하신 까닭과 부처님께서 나한을 꾸짖은 까닭이, 어찌 술의 해로움이 사람을 음탕하고 거칠고 어리석고 어지럽게 하여 결국은 몸을 망치고 도를 무너뜨리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지위를 잃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하기

(小註)의 “호씨(胡氏)가 말하기를” 이하의 내용과 같다.

- 108) 의적(儀狄) : 하나라 때 최초로 술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
- 109) 우(禹)임금 : 하(夏)나라의 시조. 하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서 서기전 16세기에 폭군 걸(桀)이 멸망하기까지 17대 432년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우는 성이 사(似)이고 이름은 문명(文命)이다. 그는 곤(鯀)의 아들이고 전욱(顓臾)의 손자이다. 아버지 곤이 홍수를 막으려고 하다 실패하자, 당시 순(舜)임금은 우에게 그 일을 맡겼다. 우는 노심초사 그 일에 열중해서, 13년 동안이나 집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치수사업에 열중하여 홍수의 피해를 이겨냈다. 이 공으로 부락의 장이 되었고, 순임금으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왕이 되었다.
- 110) 『전국책(戰國策)』 「위책(魏策)」에서 “의적이 술을 만들어 우임금에 바치니, 우임금이 맛보고는 맛있게 여기며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술로 인하여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고는 마침내 의적을 멀리 하고 맛있는 술을 끊었다.”(儀狄作酒, 禹飲而甘之曰, 後世必有以酒亡其國者, 遂疏儀狄而絕旨酒.)라고 하였다.
- 111) 나한(羅漢) : 아라한(阿羅漢)의 준말. ㉠arhat, ㉡arahant, 성문(聲聞)이 수행하여 얻는 네 가지 최고 경지[四果]의 마지막 단계. 응공(應供)·무학(無學)·불생(不生) 등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깨닫지 못한 중생이 윤회 유전하는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三界)에서 이치를 보고서 끊는 견혹(見惑)과 수도하여 끊는 감각적·육체적·정의적인 사혹(思惑)을 다 끊고 참 앎을 증득하였으므로 마땅히 세간의 큰 공양을 받을 만한 성인을 가리킨다. 이 과위(果位)는 대승(大乘)·소승(小乘)에 공통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승불교에서 얻는 최고의 과위를 뜻한다. 여래(如來) 십호(十號)의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로는 하늘과 땅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려 할 적에 반드시 먼저 며칠 동안 재계(齋戒)한 뒤에 하루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재계란 훈채(葷菜)<sup>112)</sup>와 술을 먹지 않고 정성을 전일하게 하고 정결(淨潔)히 하는 것이다. 정성이 전일하지 않고 정결함이 지극하지 않으면 귀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재계란, 정성스러움에 있어서는 늘 성실하여 잡됨이 없어야 하고, 정결함에 있어서는 이 몸이 다하도록 더럽히지 않아야 하니, 만약 ‘며칠 동안’을 거기에 견준다면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어찌 멀겠는가? 이미 재계가 옳은 줄 알았다면 어찌 며칠 동안만 재계하고 그쳐야 하겠는가? 그 며칠이 지난 뒤 제사가 없을 때엔 방심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유교가 불교와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曰，酒爲亂神敗德之本，而尤害於道也。故律中指其過曰三十有六，儒傳亦明其失云，“內昏其心志，外喪其威儀，”斯言善明爲過之甚也。內昏其心志故，妨其自修也，外喪其威儀故，妨其化道也。非惟無益於自他，亦乃招殃禍於無窮也。由是儀狄獻之而致疎於禹，羅漢飲之而見呵於佛。夫禹之所以疎儀狄，佛之所以責羅漢者，豈非以酒之爲害，當使人淫荒迷亂，至於滅身敗道亡國失位者乎？禮將有事於天地鬼神，必先數日齋然後，行一日祭。齋者，不茹薰酒，專誠而致潔也。以誠不專潔不至，則神不享矣。佛之齋戒也，誠則長誠而無雜，潔則終身而不汙，若以數日比之，天地何遠？旣知齋之爲是，何必數日而已哉？數日之外，無祭之時，其可放緩乎？此儒之所以與佛有間者也。

---

112) 훈채(葷菜): 파, 마늘, 생강 등 향기 짙은 채소를 말한다.

## 6. 재보시에 대해

묻는다. 보배와 재물은 사람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그것을 사용함에 절도가 있어야 하고 저축하여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조상을 제사지내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가난으로 떠돌이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사민(四民)<sup>113)</sup> 밖으로 도망가서 임금의 일[王事]을 받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거늘, 게다가 사람들에게 보시(布施)<sup>114)</sup>의 응보(應報)를 과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재물을 가져다 부처를 봉양하게 하고 마침내는 배고프고 추위에 떨며 가난으로 떠돌이 신세가 되게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曰, 珍財, 人之所賴以生, 當用之有節, 畜而不費. 以遺夫子孫, 令不墜其宗祀, 不見其窮露. 今浮圖, 逃於四民之外, 不事王事, 亦已足矣, 更誇人以布施報應, 令人盡持奉佛, 而終至於飢寒窮露, 豈非過歟?

113) 사민(四民): 전통시대에 모든 백성들을 아울러 말하는 말, 선비[士]·농민[農]·수공업자[工]·상인[商]. 앞 순서대로 신분이 우위에 있었다.

114) 보시(布施): ⑤ dāna. 음역하여 단(檀) 또는 단나(檀那)로 표기하기도 한다. 본래 뜻은 옷이나 음식물 등을 대덕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였는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과 이익을 베푸는 뜻으로 쓰였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일반 신자들에게 권하는 실천이었는데, 대승불교 시대에 보살이 수행하는 6바라밀의 첫 번째가 되었다.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에 세 가지의 구분이 있어 재보시(財布施), 법보시(法布施), 무위시(無畏施)로 나눈다. 재보시는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설법 등과 같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며, 무위시는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답한다. 보배와 재물을 길이 탐하는 것은 화(禍)를 불러오는 도구요, 보시하여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유교의 가르침에 어찌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겠는가? “재물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을 나누어주면 백성이 모인다.”<sup>115)</sup> 고 하였다. 불교에서 사람들에게 보시를 권하는 까닭은 자신의 이익<sup>116)</sup>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제거하여 마음의 밭[心田]<sup>117)</sup>을 정화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세 가지를 항상 부족하게 하라”고 훈계하셨다.<sup>118)</sup> 그 세 가지 부족한 것은 옷과 음식과 수면으로서 모두 부족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것으로써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는데, 어찌 옷과 음식을 위해 사람들에게 보시하라고 권하겠는가? 만일 옷과 음식을 마음에 두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는가? 응보(應報)의 설에 있어서라면, 이것이 어찌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만 있겠는가? 『주역』에서 “선을 쌓으면 경사가 넉넉하게 있고 악을 쌓으면 재앙이 넉넉하게 있다.”<sup>119)</sup> 고 하였고, 또 홍범(洪範)<sup>120)</sup>에서 “사람이 황극(皇極)<sup>121)</sup>에 합하면 하늘이 다섯가지 복[五福]<sup>122)</sup>

115) 『대학』 「전문(傳文)」 제10장.

116) 자리(自利)는 자신의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는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뜻한다.

117) 심전(心田)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종자에서 온갖 것이 자라난다는 의미에서 밭에 비유하였다. 그래서 흔히 ‘마음의 밭’으로 번역한다.

118) 『치문경훈(緇門警訓)』 권1 「위산대원선사경책(滄山大圓禪師警策)」 大48 p.1042b20~22.

119) 『주역전의』 「곤괘(坤卦)」에서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積善之家，必有余慶，積不善之家，必有余殃.)라고 하였다.

120) 홍범(洪範) :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의 1편. 유가(儒家)의 천하적 세계관에 따라 정치철학을 말한 글이다. 정치는 하늘의 상도(常道)인 오

으로써 응하고, 어기면 하늘이 여섯가지 크게 불길한 일[六極]<sup>123)</sup>으로써 응한다.”<sup>124)</sup>고 하였으니, 이것은 응보의 설이 아니겠는가? 육체[形]가 살아 있을 때의 응보가 이미 그러하고, 죽고 나서도 육체는 비록 떠났지만 정신은 남아 있으니, 선과 악의 응보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설사 백 천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인연(因緣)이 모일 때에 과보(果報)를 다시 받는다.”<sup>125)</sup>고 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는가?

---

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 등 아홉가지 범주에 의해 인식되고 실현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어어서 홍범구주(洪範九疇)라고도 한다. 후대에 홍범은 군주 정치의 이념과 관련하여 황극(皇極)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었다.

- 121) 황극(皇極) :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도(道),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바른[大中至正] 도, 사방 만민의 법칙으로 삼기 위해 제왕이 정한 대도.
- 122) 다섯가지 복[五福] :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의 복. 첫째는 수(壽)이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며, 둘째는 부(富)이니 넉넉한 재물을 말하며, 셋째는 유호덕(攸好德)이니 덕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며, 넷째는 장녕(康寧)이니 재앙이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하며, 다섯째는 고종명(考終命)이니 제 명대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한다.
- 123) 여섯가지 크게 불길한 일[六極] : 첫째는 흉단절(凶短折)이니 제대로 죽지 못하거나 요절하는 것, 둘째는 질병[疾]이니 몸이 편안하지 못한 것, 셋째는 근심[憂]이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것, 넷째는 가난함[貧]이니 재물이 부족한 것, 다섯째는 악(惡)이니 강함이 지나친 것, 여섯째는 약(弱)이니 유순함이 지나친 것이다.
- 124) 『서경』 「홍범(洪範)」 제4장에서 “향함을 오복으로써 하고 위엄 보이기를 육극으로써 한다.”(嚮用五福, 威用六極.)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서경집전』의 주(註)에서 “오복을 향함이라 한 것은 권면하기 위한 것이요, 육극을 위엄이라 한 것은 징계하기 위함이다.”(五福曰嚮, 所以勸也, 六極曰威, 所以懲也.)라고 하였다.
- 125) 『대보적경』 권57 대11 p.335b14~15 ;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권6 대23 p.657c5~6.

曰, 珍財長貪, 取禍之具也, 布施清心, 致福之方也. 儒傳豈不云乎?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佛之所以勸人行施者, 非爲自利而然也, 只要令人, 破除慳貪, 以淨心田而已. 佛誡比丘, “三常不足.” 三不足者, 衣食睡眠, 皆不足也. 旣以此誡其徒也, 豈爲衣食於人而勸之以施乎? 若以衣食爲心, 則佛之教, 豈到今日. 至於報應之說, 則豈獨吾教乎? 易云, “積善有餘慶, 積惡有餘殃,” 又如洪範, “人合乎皇極, 則天應之以五福, 違則應之以六極,” 此非報應歟? 形存而其應已然, 及其死也, 形雖謝而神存, 善惡之應, 豈不然乎? 佛之言曰, “假饒百千劫, 所作業不亡.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 豈欺人哉?

## 7. 윤회응보설에 대해

묻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음(陰)으로써 바탕[質]을 받고, 양(陽)으로써 기운[氣]을 받아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짝해 혼백(魂魄)이 되어 육체를 이루다가, 죽음에 이르러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지게 된다. 무릇 사람에게 지각(知覺)이 있는 이유는 그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란 혼과 백이 합하여 한 몸의 주인이 된 것으로, 죽을 때에 기(氣)와 함께 흩어져 육체와 정신이 더 이상 저승에서도 머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니,<sup>126)</sup> 누가 다시 복을 받고 재앙을 받겠는가? 지금 불교는 천당으

126) 고려말 조선초 사대부들의 불교 비판을 대표하는 정도전(鄭道傳)의 『불씨잡변(佛氏雜辯)』 「불씨윤회지변(佛氏輪廻之辨)」에서 “『주역』에 이르기를, ‘사물의 처음을 따져보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죽고 삶의 설을 알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 ‘정기는 사물이 되고 윤회(游魂)은 변화가 된다.’라고 하

로써 기쁘게 하고 지옥으로써 두렵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하늘은 푸르고 아득하여 있는 것이라곤 해와 달과 별들뿐이요, 땅은 흙과 돌로 이루어져 그 위에 살고 있는 것은 사람과 만물뿐이다. 그러니 “없어지지 않는 것[不亡]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을 감득(感得)한다.”<sup>127)</sup>는 말이 어찌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曰, 人之生也, 陰以稟其質, 陽以稟其氣, 一陰一陽, 配爲魂魄而成形, 及其死也, 魂昇魄降而就盡. 夫人之所以有知覺者, 以其心也. 心也者, 魂魄之合而一身之主也, 其死也, 與氣俱散, 而更無有形神尚留於冥漠之中, 誰更受福受殃? 今浮圖, 忻之以天堂, 怖之以地獄, 令人致惑. 天是蒼蒼, 而所有者日月星辰而已, 地是土石, 而所載者人與萬物而已. 謂之 “不亡者存而

었는데, 선유(先儒)는 이를 해설하기를, ‘천지의 변화가 비록 끊임없이 나고 나지만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 처음을 따져서 모이며 생기는 것을 알면, 그 후에는 반드시 흩어져 죽는 것을 알게 되고, 생길 때에 능히 기화(氣化)의 자연스러움을 얻은 것이요, 애초에 정신이 큰 허공 가운데 붙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죽을 때에 기(氣)와 함께 흩어져 형상이 더 이상 저승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易曰,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又曰, 精氣爲物, 游魂爲變. 先儒解之曰, 天地之化, 雖生生不窮, 然而有聚必有散, 有生必有死, 能原其始而知其聚之生, 則必知其後之必散而死, 能知其生也得於氣化之自然, 初無精神寄寓於大虛之中, 則知其死也與氣而俱散, 無復更有形象尚留於冥漠之內.)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정론』의 저자인 기화(己和, 1376~1433)가 정도전의 『불씨잡변』을 보았을 가능성은 적다. 정도전이 『불씨잡변』을 저술한 것은 1398년(태조 7) 무렵으로 추정되지만, 1456년(세조 2)에 처음 간행되었고, 일 반에게 유통된 것은 1465년(세조 11) 이후이다. 그러므로 1433년에 입적한 기화가 『불씨잡변』을 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 혼백과 관련한 질문은 당시 유학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127) 『법화경요해(法華經要解)』(권4)에서 “만물은 죽고 살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卽30 p.320c3. 萬物死生而不亡者存)라고 하였다. 본문에서의 없어지지 않는 것[不亡者]은 영혼을 말한다.

感天堂地獄”者，豈非妄乎？

답한다. 음(陰)과 양(陽)은 진실로 사람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니, 음양이 합하면 생명을 받게 되고 음양이 흩어지면 죽게 된다. 그러나 본래부터 있는 진명(眞明)<sup>128)</sup>은 육체를 따라 나지도 않으며 육체를 따라 사라지지도 않으니, 비록 천 가지로 변하고 만 가지로 바뀔지라도 고요히 홀로 존재한다. 무릇 마음은 두 가지가 있으니, 견실심(堅實心)<sup>129)</sup>과 육단심(肉團心)<sup>130)</sup>이다. 육단심은 혼백(魂魄)의 낮이요, 견실심은 진명(眞明)을 말하는 데, 지금 말하는 마음은 진명이자 육단심이 아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요 육체는 마음이 부리는 것이니, 선악(善惡) 등의 일을 임금인 마음이 명령하면 신하인 육체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응보(應報)에 있어서는, 살아서는 임금과 신하가 똑같이 받지만, 죽어서는 신하인 육체가 이미 떠나갔으므로 임금인 마음이 홀로 받는다. 『시경』에 “문왕(文王)<sup>131)</sup>의 오르고 내리심이 상제(上帝)의 좌우(左右)에서 하도다.”<sup>132)</sup>라

128) 진명(眞明): 진실로 밝은 상태로서 어둠에 상대적인 밝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밝음을 말한다.

129) 견실심(堅實心):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참된 심성 곧 진여(眞如)의 실체를 말함. 심장을 말하는 육단심(肉團心), 대상을 포착하여 사유하는 마음인 연려심(緣慮心), 아뢰야식을 뜻하는 집기심(集起心)과 함께 사종심(四種心)의 하나.

130) 육단심(肉團心): 물질적인 마음이란 뜻으로 심장(心臟)을 말함. 사종심(四種心)의 하나.

131) 문왕(文王): 중국 주(周)나라의 시조. 이름은 희창(姬昌). 황하의 상류 지역인 위수 분지에서 일어나 처음에는 상(商)나라를 받드는 작은 나라의 하나였는데 차차 세력이 커져 문왕 때에 이르러서 서방 여러 왕후(王侯)의 우두머리인 서백(西伯)이 되었다. 상의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이 폭정을 하여 문왕은 태공망 등 어진 선비들을 모아 국정을 바로잡고 외적을 토벌하여 힘을 키워 아들 무왕이 주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주었다. 그래서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의 전형으로 꼽힌다. 무왕(武王)이 마침내 상을 멸망시키고, 지금의 시안(西

고 하였으니, 그 오르내린 것이 어찌 하늘에 있는 영혼이 아니겠는가?

옛날에 왕회지(王淮之)라는 수재(秀才)가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불법(佛法)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기를 “지난 날 나는 육체와 정신이 함께 멸한다고 여겼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육체는 떠나도 정신은 존재한다’<sup>133)</sup>는 부처님 말씀이 진실로 거짓이 아님을 알겠다.”라고 하였다.<sup>134)</sup>

또 송(宋)나라 사람 이원(李源)이 원택(圓澤)스님과 교우(交友)하면서 세세생생 서로를 저버리지 말자고 약속하였다. 하루는 함께 노닐다가 원택스님이 물 길은 어떤 부인을 보고서 “저 여인의 성은 왕씨인데 나는 저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요, 12년 후에 항주(杭州) 천축사(天竺寺) 밖에서 그대를 만나 교우의 의리를 밝히겠소.”라 말하더니, 그날 저녁에 원택스님이 과연 죽었다. 이원은 12년이 지난 후, 약속했던 그곳에 갔다가 갈홍천(葛洪川)이라는 냇가에서 어떤 목동이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삼생석(三生石) 위의 옛 혼령이여  
달 감상하고 시 읊던 일 논할게 못되네.  
정든 사람 멀리서 찾아움을 부끄러워 하니  
이 몸은 비록 다르나 본성은 늘 그대로라네.

---

安)부근인 호경(호경)에다 도읍을 정하고 주나라를 열었다.

132) 『시경』 「대아(大雅)」 문왕.

133) 『홍명집(弘明集)』의 「신불멸론(神不滅論)」(大52 p.27c29), 「난범진신멸론(難范縝神滅論)」(大52 p.54c21), 「난범중서신멸론(難范中書神滅論)」(大52 p.58a14) 등에서 ‘육체는 없어져도 정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34) 왕회지에 대한 이야기는 『법원주림(法苑珠林)』 권79(大53 p.875a14~20)에 보인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남에 이르러 “이공(李公)은 참으로 믿을 만한 선비요”  
라고 말하고는 또 이렇게 노래하였다.

전생과 후생의 일 아득하고 아득하여  
인연을 말하려니 창자가 끊어질 듯하네.  
오월(吳越)의 산천은 이미 둘러보았으니  
곤장 뱃머리 돌려 구당(瞿塘)<sup>135)</sup>으로 올라가리.<sup>136)</sup>

또 양호(羊祜)가 이(李)씨의 아들이 되고 왕(王)씨의 아들이 채(蔡)씨의  
손자가 된 이야기<sup>137)</sup>를 내가 예전에 보고서 「양이송(羊李頌)」을 지었다.

양호와 이씨 동일한 사람일 뿐이니  
가고 옴은 돌아옴과 다르지 않다.

---

135) 구당(瞿塘): 중국 사천성(四川省) 동쪽 끝에 있는 양자강(揚子江) 삼협(三峽)의 하나로서, 제1협이다. 수려한 경관과 깎아지른 협곡으로 삼협의 대표적인 경치로 유명하다.

136) 이원과 원택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14(大49 p.604c28~a26)에도 실려 있지만, 『낙방유고(樂邦遺稿)』 권1「원택법사보연생사(圓澤法師報緣生死)」(大47 p.238a1~17)의 기록이 여기 서술된 내용과 글자가 더 일치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생석(三生石)’이라는 주제로 『태평광기(太平廣記)』를 비롯하여 『절강통지(浙江通志)』 등 지지류에 널리 실려 있다.

137) 양호가 이씨의 아들이 된 이야기는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10(大49 p.559b11~29)에 보인다. 왕자가 채씨의 손자가 된 이야기는 분명하지 않다. 양호의 이야기는 ‘양호식환(羊祜識環, 양호가 반지를 알다)’이라는 주제로 널리 전해 왔다. 진(晉)나라의 양호는 형주도독을 지낸 관리였다. 그런데 그가 5세 때 이웃 집 이씨 집의 동산 뽕나무 밑에서 있던 금반지를 캐 오게 하였다는데, 이 반지는 이씨의 죽은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양호의 전신이 이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일곱 살 난 아들이  
죽었다가 5년 만에 돌아올 줄을.

또 「왕채송(王蔡頌)」을 지었다.

지난날 왕씨 집안의 아들이  
지금은 채씨의 손자가 되었네.  
점 하나 찍지 않았더라면  
같다 다르다 논쟁이 분분했으리.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건대, 신령스럽게 밝은 것[靈明]은 육체의 변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정신이 함께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우매한 것이 아니겠는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실제로 본디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업감(業感)<sup>138)</sup>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다. 공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에 주공(周公)<sup>139)</sup>을 다시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sup>140)</sup>고 하였으니, 대개 꿈이란 사람의 정신이 노니는 것이지 육체가

---

138) 업감(業感):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행위에 의해 선악의 과보를 감득(感得)하는 것을 말한다.

139) 주공(周公): 서기전 12세기 경에 활동한 주(周)나라의 성인.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 문왕(文王)의 아들이자 주나라를 창업한 무왕(武王)의 동생으로 무왕을 돕고, 무왕이 죽자 왕권을 계승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무왕의 아들 성왕(成王)을 보필하여 섭정을 맡아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화북지방 대부분을 주나라에 편입시켰으며 낙양(洛陽) 인근에 동도(東都)를 건설했다. 확보한 영역에 새로운 행정제도를 시행하여 문물과 제도를 확고히 하였다. 이때 확립한 행정조직은 후대 중국 왕조들의 모범이 되었고, 후에 공자에 의해 성인으로 존경받았다.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꿈에서 주공과 만났던 것은 평소  
에 마음을 주공의 도에 두고 오로지 그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정신이 자연히 서로 감응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날마다 선이나 악을 오로지 행한다면 선을 행한 자는 꿈에 그 영광을 볼 것  
이요, 악을 행한 자는 꿈에 그 치욕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자는 부지  
런히 의(義)만 좇고, 악한 자는 호시탐탐 이익만 구하기 때문이다. 선한 자  
는 의만 좇기 때문에 일마다 사리에 맞고, 악한 자는 오직 이익만 구하기  
때문에 일마다 의에 어긋난다. 선한 자는 일마다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람  
들이 반드시 그를 좋게 여기고, 악한 자는 일마다 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  
람들이 반드시 그를 미워한다. 선한 자는 사람들이 그를 좋게 여기기 때문  
에 윗사람에게 전달되어 벼슬과 녹봉이 더해지고, 악한 자는 사람들이 그  
를 미워하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전달되어 형벌(刑罰)이 가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선한 자는 차분하게 그 영광됨을 기뻐하여 맞아들이고,  
악한 자는 깜짝 놀라 그 재앙을 피하려고 도모한다. 선과 악의 습관과 기뻐  
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정신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꿈에서 영광을 보거나  
치욕을 보는 것이다. 그 정신이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곧 내생(來生)<sup>141)</sup>이  
니, 이것이 선한 자가 천당을 감득하는 까닭이요, 악한 자가 지옥을 감득하  
는 까닭이다. 천당과 지옥이 설사 없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천  
당을 흠모하여 선으로 나아가고 지옥을 싫어하여 악을 그친다면, 천당과  
지옥의 가르침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그 이익이 막대할 것이다. 과연 천당  
과 지옥이 있는 것이라면, 선한 자는 반드시 천당에 올라가고 악한 자는 반  
드시 지옥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140) 『논어』 「술이(述而)」 제5장.

141) 내생(來生): 죽은 다음에 오는 생.

선한 자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천당을 누릴 것이고, 악한 자들은 스스로 악을 그쳐 지옥에 들어감을 면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천당과 지옥의 설을 배척하여 거짓이라고만 하겠는가?

曰, 陰陽, 固人之所賴以生者也, 陰陽合而受生, 陰陽散而就死. 若固有之眞明, 則不隨形生, 不隨形謝, 雖千變萬化, 而湛然獨存也. 夫心有二, 曰堅實心, 曰肉團心. 肉團心者, 魂魄之精也, 堅實心者, 眞明之謂也, 今所謂心者, 眞明也, 非肉團也. 夫心者, 身之主也, 形者, 心之使也, 善惡等事, 心君命之, 形臣作之. 至於報應, 生則君臣等受, 死則形臣已謝, 而心君獨受. 詩云, “文王陟降, 在帝左右,” 陟降之者, 豈非在天之靈乎? 昔有秀才曰, 王淮之, 自小不信佛法. 一日死而復蘇曰, “向者自謂形神俱滅, 今始知佛之所謂 ‘形謝而神存’, 信不誣矣.” 又宋人李源, 與僧圓澤交, 相約世世無相棄. 一日同遊, 澤見夫人之汲者曰, “此婦姓王氏, 吾當爲其子. 十二年後, 杭州天竺寺外, 須公相見, 以明交義.” 至暮澤果死. 源果十二年, 赴其約, 聞葛洪川畔, 有牧童扣牛角而歌曰, 三生石上舊精魂, 賞月吟風不要論. 慙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 及相見曰, “李公眞信士也,” 而又歌曰, 身前身後事茫茫, 欲話因緣恐斷腸, 吳越山川尋已徧, 却回煙棹上瞿塘. 至如羊祜爲李氏之子, 王子爲蔡氏之孫, 余曾觀此傳, 爲羊李頌云, 羊李只一人, 往復非異環. 誰知七歲子, 滅已五年還. 爲王蔡頌云, 昔日王家子, 今爲蔡氏孫. 不因一點墨, 同異議紛紛. 觀此數事, 則足知靈明之不隨形變也. 謂之 “人死而形神俱滅,” 豈非昧乎? 至於天獄, 則非是實然固有, 乃人之業感, 自然如是也. 孔子嘗曰, “吾不復夢見周公久矣,” 蓋夢者, 人之神游, 非形之使然

也. 夫子之所以夢與周公見者, 蓋平日心存周公之道, 專而行之. 故其精神自然, 相感而然也. 人亦如是, 日於善惡, 爲之既專, 則善者夢見其榮, 惡者夢見其辱. 所以然者, 善者亹亹然惟義是從, 惡者忤忤然惟利是求. 善者惟義是從故, 事事而適宜, 惡者惟利是求故, 事事而違義. 善者事事而適宜故, 人必善之, 惡者事事而違義故, 人必惡之. 善者人善之故, 自達於上, 而加之以爵祿, 惡者人惡之故, 自達於上, 而加之以刑罰. 由是, 善者與與, 忻致其榮, 惡者錯愕, 謀避其殃. 善惡之習, 忻厭之情, 蘊在情神故, 其於夢也, 亦見榮見辱. 其神往而不返, 則便是來生, 此善者之所以感天堂, 惡者之所以感地獄者也. 天堂地獄, 設使無者, 人之聞者, 慕天堂而趨善, 厭地獄而沮惡, 則天獄之說之於化民, 利莫大焉. 果其有者, 善者必昇天堂, 惡者必陷地獄. 故使之聞之, 則善者自勉而當享天宮, 惡者自止而免入地獄, 何必斥於天獄之說, 而以爲妄耶?

## 8. 화장에 대해

묻는다.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것은 인간 세상의 큰 일[大事]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상(喪)을 당한 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성인께서 “후하게 장사지내고 먼 조상을 추모하라”<sup>142)</sup>고 교훈을 내리신 것이

142) 『논어』「학이(學而)」 제9장에서 “상(喪)을 당하여 삼가 정성을 다하고 제사에서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갈 것이다.”(愼終追遠, 民德歸厚矣.)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유교에서는 장례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해 후하게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바로 그 중요함을 보이신 것이다. 후하게 장사지내라고 하신 까닭은 마치 나무뿌리가 깊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많이 열리고 뿌리가 얕으면 가지와 잎이 시들어 열매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것은 나무가 열매에 대한 것과 같으며, 자식이 부모에 대한 것은 열매가 나무에 대한 것과 같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는 것은 나무가 열매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은 땅을 가려서 적당한 곳을 얻고, 구덩이를 깊이 파서 장례를 후하게 치르며, 숲을 무성하게 조성하고 물을 저장해야 한다. 녹음(綠陰)을 짙게 하여 기운이 축적되게 하며, 땅을 두텁게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번창하여 그 제사가 먼먼히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이러한 이치는 돌아보지 않고 제멋대로 화장(火葬)<sup>143)</sup>하는 법을 설치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후손을 없애 제사가 끊어지도록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부모를 화장할 때에 자식 된 마음으로 어찌 차마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니 법도를 크게 어긴 것[過犯]<sup>144)</sup>이 하늘에 가득한 것이다.

曰，夫送死，人間世之大事者也。故丁父母之喪者，不可不以爲重也。聖人垂“厚葬追遠”之訓，所以示其重也。所以令厚葬者，如木根深則枝葉扶疎而實多，根淺則枝葉夭闕而無實，夫父母之於子也，如木之於實也，子之於父母，猶實之於木也。故云，“父之傳於子，猶木之傳於實也，”由是遇其喪者，要須擇其地

143) 화장(火葬): ᱥᱚᱨᱚᱝᱜᱚᱸᱰᱤ, 본래 인도에서 가장 중시하던 장법. 다비(ᱢᱤᱨᱤᱰᱤᱦᱚᱱ)라고도 하니, 다비는 태운다는 뜻이다. 유체를 태워 남은 유골을 땅에 묻는 장법이다. 세존 또한 입적 후에 화장하여 사리를 모아 추앙하였으므로 불교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승되어 동아시아에 이르러서도 불교의 장법으로 지켜졌다.

144) 과범(過犯)은 지나치게 법도를 어긴 것을 말함.

得其宜, 深其穴厚其葬, 茂其林貯其水. 令陰深而畜氣, 土厚而不澆. 致令子孫繁衍, 而闕祀綿綿. 今浮圖, 不顧此理而妄設火化之法, 令人無後而絕嗣, 豈非過也? 況方其火化之際, 人子之心, 其可忍親乎? 以是惑人, 過犯漫天.

답한다. 무릇 사람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다. 육체는 비유하자면 집과 같고 정신은 비유하자면 주인과 같아서, 육체가 죽으면 그 정신이 떠나는 것은 집이 무너지면 주인이 머물 수 없는 것과 같다. 집은 흙과 나무로 만 들고 온갖 속세의 것으로 장식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그 속에 빠져 탐착하면서 그것의 비루함을 알지 못한다. 비록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더라도 단번에 잊지 못하여 멀리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몸은 물과 흙으로 그 육체[形]를 구성하고, 불과 바람으로 그 바탕[質]을 유지하고 있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담고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금이나 옥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니 어찌 싫어하여 버리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겠는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불과 바람이 먼저 없어지고 흙과 물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전에 그 흙과 물에게 사랑받고 보호받았으므로 단번에 잊어버리고 걸림 없이 떠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흙과 물을 불태워 왕생(往生)<sup>145)</sup>하는 길을 가리켜 주면 그 정신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되어 가

145) 왕생(往生): 본래는 목숨을 마칠 때 다른 세계로 가는 것. 삼계육도(三界六道)와 제불의 정토(淨土)에 가는 것을 모두 말한다. 그러나 미타와 미륵정토 신앙이 보편화된 이후에는 염불하거나 갖가지 공덕을 쌓아 아미타불의 극락(極樂)정토나 미륵의 도솔(兜率)정토에 가는 것을 흔히 왕생이라 부른다. 또 겨울에 따라서는 약사여래의 정유리세계(淨琉璃世界), 석가모니불의 영취산(靈鷲山), 관음보살의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장세계(華藏世界) 등 여러 세계로의 왕생을 말하기도 한다.

넓고 맑은 구름처럼 깨끗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부처님 세존(世尊)께서는 부친의 상을 당했을 때 몸소 향로를 잡으셨고, 사천왕이 관(棺)을 들고 나한들이 땀감을 모아 화장<sup>146)</sup>하여, 부친의 정신이 깨끗이 올라가 천상에 태어나게 하셨다.<sup>147)</sup> 황벽 희운(黃蘗希運)<sup>148)</sup> 선사는 어머니를 천도할 적에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을 부처님께 말씀드린 뒤에 헛불을 강에 던지자, 어머니가 불꽃 속에서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큰 광명을 타고 천궁(天宮)으로 올라갔다. 이때 강가의 양쪽 언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강 이름이 ‘복천(福川)’이었는데 관청에서 ‘대의도(大義渡)’로 바꾸었다.<sup>149)</sup>

146) 원문의 사유(闇維)는 다비(荼毘) 곧 화장을 말함. ㉠jhāpita.

147)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석씨요람(釋氏要覽)』 권3에 나와 있다. “『정반왕열반경』에 말하기를, ‘정반왕이 임종하자 시체를 칠보관에 넣어 부처님과 난다가 그 앞에 공경히 서 있었고, 아난과 라후라가 그 뒤에 있었다. 부처님은 훗날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지 않으려는 포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려고 직접 관을 메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대천세계가 크게 진동하더니 사천왕이 부처님을 대신해 관을 메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향로를 잡으시고 관 앞에서 인도하여 가셨다.’라고 하였다.”(大T54 p.309a7~12 淨飯王涅槃經云, “淨飯王命終, 殮以七寶棺, 佛與難陀, 在前恭肅而立, 阿難與羅睺羅在後. 佛念當來兇暴, 不報父母深恩, 躬自擎棺. 爾時大千世界六種振動, 時四天王乃代佛擎棺. 佛乃執香爐, 在棺前, 導引而行.”)

148) 황벽희운(黃蘗希運): ?~850. 중국 당나라의 선승으로 복주(福州) 민현(閩縣) 출신이며, 시호(諡號)는 단제(斷際)이다. 어려서 홍주(洪州)의 황벽산에서 출가하였고, 『백장청규(百丈清規)』의 저자로 유명한 백장희해(百丈懷海, 720~814)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종릉(鍾陵)의 용흥사(龍興寺)와 완릉(宛陵)의 개원사(開元寺)에 머무르면서 찾아오는 학인들을 가르쳤고, 황벽산에서 입적하였다. 선사의 제자로는 중국 임제종(臨濟宗)의 개조(開祖)인 임제의현(義玄)을 비롯하여 십여 명이 있다. 그리고 선사의 법어를 기록한 것으로 『전심법요(傳心法要)』와 『완릉록(宛陵錄)』이 남아 있다.

149)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의 「황벽단제선사(黃蘗斷際禪師)」에서 “스님의 속가는 가난하였다. 그래서 노모가 황벽산에 스님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



이로써 보견대, 화장하는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움을 제거하여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멀리 노닐게 하니, 천도(薦度)하여 왕생(往生)하는 것을 돕는 방도이고 대대로 전할 큰 법도가 될 만하다. 만일 화장을 차마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구덩이를 파서 묻는 것은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지금 큰 산의 기슭과 넓은 들판에 있는 많은 옛 무덤들이 모두 농부의 경작지가 되어 해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햇볕에 쪼이고 바람에 뒹굴지만 아무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 없다. 그 무덤들도 처음에는 비석을 세우고 소나무를 심어서 그 땅을 장엄하여 이로써 자손들이 번창하고 제사가 면면히 이어지도록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겠지만, 지금 어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나 살아생전에 5온(五蘊)<sup>150)</sup>이 모두 공(空)하고 6근(六根)<sup>151)</sup>이 청정(淸淨)하여 하나의 망념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록 육체는 우주 안에 있으나 정신은 항상 세상 밖에 깃들기 때문에 허공처럼 맑고 맑으며 물처럼 깊고 깨끗하여 오히려 있는 몸도 허깨비로 여긴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는 마치 흑을 떼어내고 때를 제거하

---

아갔으나 스님이 만나주지 않았다. 노모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대의도에 이르러 발을 헛디더 넘어져 죽고 말았다. 그런데 후에 천상에 태어나 꿈에 스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시에 만약 그대의 쌀 한 톨이라도 받았더라면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니 어찌 오늘과 같은 날이 있었겠는가?’라 말하고 두 번 절하고 떠나갔다.” (卍78 p.581a12~15. 師俗居貧, 母老, 聞師住黃蘗, 特來相見, 師不顧. 母爲飢寒, 至大義渡頭, 失脚顛死. 後果生天, 夢師曰, 我當時若受汝一粒米, 當墮地獄, 寧有今日? 再拜而去.)라고 하였다.

- 150) 5온(五蘊) : 모든 존재를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의 집합으로 설명한 것이다. 색온(色蘊)은 물질의 일반, 수온(受蘊)은 단순한 감각작용, 상온(想蘊)은 마음에 떠오르는 표상작용, 행온(行蘊)은 의지적인 마음작용, 식온(識蘊)은 대상에 대한 식별작용을 말한다.
- 151) 6근(六根) : 인간의 신체적 감각기관을 여섯 가지로 나눈 것으로 육식(六識)의 근거가 된다. 그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뜻[意]이다.

듯 하고, 결박을 풀고 형틀을 벗어버리듯 하며, 새가 새장을 벗어나고 말이 우리를 벗어나듯이 하여, 드넓은 곳을 끝없이 소요자적(逍遙自適)하고, 가고 머무름에 걸림이 없으니, 그 육체의 흠과 물에 어찌 미련을 두겠는가? 이런 사람의 경지에서는 수장(水葬)<sup>152)</sup>을 하여도 좋고 풍장(風葬)<sup>153)</sup>을 하여도 좋으며, 석굴을 파서 안장하건 땅을 파서 묻건, 심지어 들불에 태우고 벌레와 개미의 먹이가 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에 안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달마(達摩)는 웅이산(熊耳山)에서 장사지냈고,<sup>154)</sup> 육조(六祖)는 전신(全身)을 세상에 남겨 두었으며,<sup>155)</sup> 보화(普化)는 요령을 흔들며 하늘로 갔고,<sup>156)</sup> 청량(淸涼)은 ‘산 속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라’고 명하였던 것

152) 수장(水葬): 시신을 물속에 넣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153) 풍장(風葬): 시신을 들뜬에 내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사법이다.

154)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香至國)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불교에 귀의하여 선(禪)에 통달하였다. 그 후 중국 양나라에 와서 혜가(慧可) 법을 전하여 중국 선종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달마의 입적과 관련하여 『불조통기(佛祖統紀)』 권29(大49 p.291b12~14)에서, 양나라 대통(大統) 원년(535)에 우문(禹門) 천성사(千聖寺)에서 좌선한 채로 입적했는데, 문인들이 전신(全身)을 받들어 웅이산 정림사(定林寺)에서 장사 지냈다고 하였다.

155) 육조(六祖)는 선종의 제6조인 혜능(慧能, 638~713)을 말한다. 혜능은 남종선의 시조이며 시호는 대감선사(大鑑禪師)이다. 저서로는 『육조단경』이 있다. 그의 입적과 관련하여 『불조통기』 권29(大49 p.292b18)에서는 “제자들이 영체를 받들어 조계산으로 돌아와 장사지냈다.”(弟子奉靈體, 反葬於曹溪.)라고만 되어 있는데,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5(大51 p.236c11~12)에서는 “철엽과 칠포로써 대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하였다.”(以鐵葉漆布 固護師頸)라고 하였고, 몇 년 후 신라 승려 김대비(金大悲)가 선사의 목을 훔치려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한편 하동 쌍계사의 창건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 「선종육조혜능대사정상동래연기(禪宗六祖慧能大師頂相東來緣起)」에서는 삼법(三法)이라는 승려가 육조 혜능의 정상(頂相)을 모셔왔다고 하였다.

156) 보화(普化, ?~860)는 선종의 일파인 보화종의 개조이다. 반산보적(盤山寶積)의 교화를 받고 깊이 깨달았다. 그 후 각지로 다니면서 요령을 흔들며 교화하였다

이다.<sup>157)</sup> 이는 모두 통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남긴 고상한 자취이며, 자신을 잊은 훌륭한 자취이다.

이런 분들 외에는 육체를 잊은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을 한 뒤에야 그 정신이 깨끗이 올라가 막힘이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향에서 객사하여 그 유골을 거두어 화장해 주었더니, 그 후에 덕망(德望)이 세상에 높아지고 총망(寵望)<sup>158)</sup>이 자기에게 돌아와 자손이 번창하여 제사가 면면히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화장하면 이익

---

고 한다. 그의 입적과 관련하여 『경덕전등록』 권10(大51 p.280b12~c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날 관(棺)을 들고 사람들에게 내일 동문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동문에 모이자 다시 내일 남문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몇몇 사람들이 남문에 모이자 다시 내일 서문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몇 사람만이 서문에 모여 있었는데 다시 내일 북문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4일 째 되는 날 북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자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 입적하였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관 속에 사람은 없고 요령 소리만이 멀리 사라졌다고 한다.

157) 청량(淸涼) : 중국 화엄종의 제4조인 징관(澄觀, 738~839). 월주(越州) 산음인(山陰人)으로 속성은 하후(夏侯)씨이고, 자는 대휴(大休)이며 호는 청량(淸涼)국사이다. 11세에 보림사(寶林寺) 패(霽)선사에게 출가하여 계율과 삼론·기신·열반·화엄·천태·선을 두루 익히고 유학에도 능통하였는데, 특히 법장의 화엄학에 열중하였다. 776년에 오대산과 아미산을 순례하고 오대산 화엄사에서 방등참법(方等懺法)을 수행하고 화엄종지를 펴서 이름을 드날렸다. 796년에 덕종의 부름으로 장안에 가서 계빈삼장과 함께 『40화엄경』을 번역하고 종남산 초당사(草堂寺)에서 이 신경의 소를 지었다. 덕종으로부터 청량국사의 호를 받고 순종과 헌종도 국사로 봉하였다. 3조인 법장(法藏)의 직제자는 아니나 법장의 사상을 계승하여 4법계론을 완성하고 선종의 발흥에 대응하여 화엄사상을 발전 대성하였다. 『화엄경소(華嚴經疏)』 60권, 『수소연의초(隨疏演義抄)』 90권, 『화엄경강요(華嚴經綱要)』 3권, 『오온관(五蘊觀)』, 『삼성원융관문(三聖圓融觀門)』 등 30여종의 저술이 있다. 제자로는 종밀(宗密)을 비롯하여 승예(僧叡)·법인(法印)·적광(寂光) 등 백 여 명이 있다.

158) 총망(寵望) : 임금에게 총애 받는 것을 말한다.

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근심이 너무 지나친 것이니, 부디 터무니없는 말로써 부질없이 명귀(冥龜)<sup>159)</sup>의 과보를 초래하지 말지어다.

曰，夫人者，有形焉，有神焉。形比則如屋，神比則如主，形謝而其神往焉，猶屋倒而主不得住焉。夫屋也，成以土木，嚴以雜穢，人以為己有，貪涵其中而不知其陋也。雖見其倒，未能頓忘，而不能遠去也。夫身也，水土以構其形，火風以持其質。中含雜穢，不淨流溢，人之護之，甚於金玉，何嘗有厭離之情也？及其死也，火風先去，而地水猶存，其為地水，前所愛護故，不能頓忘而隨往無碍也。智者，焚其地水，而指其往生之路，其神，更無稽滯之情，即同膠葛而清昇也。由是，吾佛世尊，丁父之喪，躬自執爐，四天舉棺，羅漢採薪而闡維，令其父之神，清昇而生天。黃蘗運公之度母也，陳懷白佛，隔江擲炬，其母於火焰中，化為男子，身乘大光明，上昇天宮，兩岸皆見，咸以為奇。江名福川，官司改福川為大義渡。以是觀之，則火化之法，令人去穢而就淨，神清而遐舉，堪為薦往之助道，垂世之洪規。若以火化為不忍，方其穴土而埋之，其可忍也。今有大山之麓，大野之原，多有古墳，盡為農者之所耕，頭骨星散，日煮風飄，無人顧護。其初莫不立石栽松以嚴其地，以圖子孫之繁衍，厥祀之綿綿，今何至此乎？但生前五蘊皆空，六根清淨，一念無生者，則雖寓形宇內而常棲神於物表故，澄澄合空，湛湛如水，猶以

159) 명귀(冥龜): 저승사자의 의미인 ‘명귀(冥鬼)’를 말하는 것 같다.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한 과보로 지옥에 가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有身爲幻也。由是，及其化也，如決疣去垢，如解懸脫枷，如鳥出籠，如馬出閑，洋洋乎于于乎，逍遙自適也，去留無碍也，其於地水，安有稽滯之情哉。此人分上，沈之可也，露之可也，鑿石而藏之，穴土而坑之，以至爲野火之所燒，蟲蟻之所食，無所施而不可也。故達磨葬於熊耳，六祖全身留世，普化搖鈴騰去，清涼命飴林獸。此皆達人遺世之高蹤，忘我之勝迹者也。自餘，則未能忘形無我故，須經火化然後，其神清昇而無滯也。有人客死他鄉，收其骨而火之，而其後德望高於世，寵望歸於己，子孫振振而厥祀綿綿。謂之“火化而利不及後著，私憂過計之甚也，毋以無稽之談，枉招冥龜之報。

## 9. 삼세인과설에 대해

묻는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다만 태어나서 죽는 것만 말하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sup>160)</sup> 그런데 지금 불교는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해 말하고 태어나서 죽는 사이를 아울러 삼세(三世)<sup>161)</sup>라고 말한다. 무릇 태어나기 전과 죽

160) 『논어』 「술이」 제20장에서 “공자는 괴이함과 용력과 패란의 일과 귀신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子不語怪力亂神)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진(先進)」 제11장에서는 자로(子路)가 공자에게 귀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未能事人 焉能事鬼?)라고 대답하였고, 바로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未知生 焉知死?)라고 대답하였다.

161) 삼세(三世): 태어나기 이전의 전세와 현재의 살고 있는 현세, 그리고 죽고 난 이후를 내세를 합쳐 삼세라 한다.

은 뒤는 귀나 눈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느 누가 직접 그것을 보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니 어찌 거짓된 말이 아니겠는가?

曰, 人之生死, 卽人之始終也. 故孔子只言生死而未嘗言其前後也. 今浮圖言其前後, 而并其死生之間, 謂之三世. 夫生前死後, 非耳目之所接, 孰親視之乎. 以之惑人, 豈非誕也?

답한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낮과 밤이 교대로 뒤바뀌는 것과 같으니, 이미 교대로 뒤바뀌어 있다면 그 이전과 이후는 저절로 성립된다. 낮은 지나간 밤으로써 이전을 삼고 다가오는 밤으로써 이후를 삼으며, 밤은 지나간 낮으로써 이전을 삼고 다가오는 낮으로써 이후를 삼으니, 그 낮과 밤을 아우르면 자연히 삼세가 성립된다. 낮과 밤이 이미 그러하다면 세월도 또한 그러하고, 세월이 이미 그러하다면 태어남과 죽음도 또한 그러하니, “이미 지나간 것은 시작이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주역』에 “지난 것을 밝히고 올 것을 살펴, 잃고 얻음의 과보를 밝힌다.”<sup>162)</sup>라고 하였으니, 지나가고 올 것을 말한 것이 어찌 이전과 이후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삼세의 가르침을 거짓된 말이라고 여기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162) 『주역전의』 「계사하전」 제6장에서 “역은 지나간 것을 드러내고 미래를 살펴며, 드러남을 은미하게 하고 그윽함을 밝히며, 명칭에 마땅하게 하고 사물을 분별하며,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결단하니, 구비하다. 이름을 칭함은 작으나 유(類)를 취함은 크며, 뜻이 원대하고 말이 문채나며, 말이 곡진하면서도 맞으며, 일이 진열되어 있으면서도 은미하니, 의심나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의 행함을 구제하여 득실의 응보를 밝힌 것이다.”(夫易, 彰往而察來微顯而闡幽, 開而當名, 辨物正言, 斷辭則備矣. 其稱名也小, 其取類也大, 其旨遠, 其辭文, 其言曲而中, 其事肆而隱, 因式以濟民行, 以明失得之報.)라고 하였다.

曰, 人之生死, 猶晝夜之代謝, 既有代謝, 則自成前後. 晝則以去夜爲前, 來夜爲後, 夜則以去日爲前, 來日爲後, 并其晝夜, 自成三際. 晝夜旣爾, 歲月亦然, 歲月旣爾, 生死亦然, “已往之無始, 未來之無窮,” 亦由是而可知也. 易云, “彰往察來, 明失得之報,” 往來之言, 豈非所謂前後乎? 以三世之說爲誕者, 未之思也.

## 10. 이단설에 대해

묻는다. “천하의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것은 오제(五帝)<sup>163)</sup>와 삼왕(三王)<sup>164)</sup>의 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이신 공자께서 조술(祖述)<sup>165)</sup>하시고

---

163) 오제(五帝): 고대 중국의 다섯 성군(聖君).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황제(黃帝, 또는 소호少昊) · 전욱(顓頊) · 제곡(帝嚳) · 요(堯) · 순(舜)을 말한다. 오제는 실제 역사가 아닌 전설상의 시대로서 이상적인 제왕의 대명사로 불린다. 이보다 앞서 삼황(三皇)을 들어 중국 전설상의 초기 역사를 삼황오제(三皇五帝)로 함께 드는 경우가 많다. 삼황도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복희(伏羲) · 신농(神農) · 황제(黃帝)가 대표적이다. 복희는 사람들에게 팔괘와 그물, 요리법 등을 가르쳤고, 신농은 농사와 기상을, 황제는 수레와 문자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오제는 중국 고대의 세 임금인 우왕(禹王) · 탕왕(湯王) · 문왕(文王)의 삼왕(三王)과 함께 중국의 역사를 시작하고 빛낸 이상적인 제왕의 대명사로 불린다.

164) 삼왕(三王): 중국 고대의 훌륭한 세 임금.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말하며, 이들을 삼대(三代)의 이상시대라고 여긴다. 황제(黃帝, 또는 소호少昊) · 전욱(顓頊) · 제곡(帝嚳) · 요(堯) · 순(舜)의 오제(五帝)와 더불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왕상으로 여긴다. 오제는 실제 역사가 아닌 전설상의 시대이지만 삼왕은 전승은 역시 전설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기로서, 동아시아권의 역대 제왕들이 추구한 이상시대의 군주를 말한다. 삼왕은 혹은 오제 이전의 중국 전설상의 삼황(三皇)을 말하기도 하는데, 복희(伏羲) · 신농(神農) · 황제(黃帝) 등을 든다.

여러 현인들이 서로 전하여 온갖 책에 실려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다 준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도는 중국에서만 구할 수 있고, 오랑캐에게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는 서쪽 오랑캐 사람이니, 어떻게 그 도(道)를 중국에 유행시키겠는가? 한(漢)나라 명제(明帝)<sup>166)</sup>가 그 법을 서역(西域)<sup>167)</sup>에서 구했던 것은 우매해서이지 현명해서가 아니다.

曰, 天下之可遵者, 五帝三王之道而已. 故孔聖祖述, 而群賢相傳, 載諸方策, 而列國皆遵. 此道可求之於中國, 不可求之於夷狄也. 佛西夷之人也, 豈以其道流行於中國也? 漢明帝, 求其法於西域, 昧也非明也.

답한다. 도가 있는 곳이 바로 사람들이 귀의해야 할 곳이다. 오제(五帝)

165) 조술(祖述): 선인(先人)이 말한 바를 근본으로 하여 서술하고 밝힘.

166) 명제(明帝): 중국 후한(後漢)의 제2대 황제(57~75)로서 성은 유(劉)이며 이름은 장(莊)이다. 재위 기간 중인 영평 10년(서기 67)에 불교를 서역에서 처음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 왔다. 명제가 영평 7년에 꿈에 금인(金人)이 전각 사이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다음날 여러 신하에게 물었더니 그것이 부처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낭중 채읍(蔡愔)을 친축에 파견하여 불법을 구하도록 했는데, 도중에서 가섭마등(迦攝摩騰)과 축법란(竺法蘭) 두 승려를 만나 흰 말[白馬]에 경전을 싣고 돌아왔다. 이 해가 영평 10년(67)이다. 그래서 이 해가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해라고 전승되어 왔다. 명제는 또 두 승려를 사신들이 묵는 홍려시(鴻驪寺)에 머물게 하다가 이듬해 낙양 인근에 백마사(白馬寺)를 지어 주석하도록 하여 중국 최초의 절이 되었다고 한다.

167) 서역(西域): 넓은 의미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대개 지금의 신강성 천산남로 지방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인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서역은 일정한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불교사에서는 인도에서 육로로 불교가 전해진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불교와 관련 있는 나라들은 파미르 고원 서쪽의 월지국(투르크িস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부), 안식국, 강거국(투르크িস탄 북부, 시베리아 남부), 간다라, 계빈국(카슈미르), 파미르고원 동쪽의 호탄, 쿠차, 카슈가르, 투르판 등을 말한다.



와 삼왕(三王)은 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의를 받아 중국<sup>168)</sup>에서 왕이 되었다. 부처님이 천축(天竺)<sup>169)</sup>에 태어나서 법륜왕(法輪王)<sup>170)</sup>이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천축을 가리켜 서쪽이라 하는 것은 천축에서 중국을 가리켜 동쪽이라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천하의 한 가운데를 정한다면 정오에 그림자가 없는 곳이 한 가운데가 되어야 할 것이니, 천축이 바로 그곳이다. 부처님이 그 곳에서 태어나신 까닭이 어찌 그 곳이 천하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sup>171)</sup> 이른바 동서(東西)란 모두 이곳저곳의 시속(時俗)에 따라 서로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 한 가운데에 자리를 정하여 동서를 정한 것이 아니다. 만약 부처님을 오랑캐라고 하여 그 도를 따르지 않겠다면, 순임금은 동쪽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고 문왕(文王)은 서쪽 오랑캐 땅에서 태어났으니, 그들도 오랑캐이므로 그들의 도를 따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태어난 곳은 자취[迹]이고, 실행한 것은 도이니, 다만 그 도가 따를 만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살필지언

168) 원문의 화하(華夏)는 중국을 말함. 상고시대에 화하족이 황하(黃河) 유역 일대에 건국하여 천하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하여 중국(中國)이라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원(中原) 지방을 일컬었으나, 후에 중국 영토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고, 화하는 중국의 옛 명칭이 되었다.

169) 천축(天竺): 인도의 다른 호칭이다. 당나라 때는 인도를 오천축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인도 전 지역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이 다섯으로 나뉘어 중천축·동천축·남천축·서천축·북천축으로 불렸다. 신라 혜초(慧超)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나 당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가 광범위한 인도 지역을 순례하고 천축 여행기를 남긴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70) 법륜왕(法輪王): 불교에서는 속세의 나라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임금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 하고, 법계의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을 법륜왕이라고 부른다.

171) 송나라 설송(契嵩)은 “저곳에서 출생하고 이곳에서 출생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 저곳도 한 천하의 대중이기 때문이다.”(『심진문집』 권2, 大52 p.659b19~20. 出於彼而不出於此何也? 以彼一天下之大中也.)라고 하였다.

정 태어난 자취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도가 있는 곳이 바로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춘추(春秋)』<sup>172)</sup>에서는 서(徐)나라가 거(莒)나라를 정벌하여 오랑캐라 하였고,<sup>173)</sup> 적인(狄人)이 제(齊)나라 사람들과 형(邢) 지방에서 동맹하여 중국이라 하였다.<sup>174)</sup> 서나라가 중국에 있는데도 오랑캐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그 불의(不義)때문 이요, 적인(狄人)이 중국의 호칭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의(義)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릇 칭찬하거나 폄하할 때에는 다만 그 사람의 현명함과 우 매함, 그 일의 옳음과 그름만을 보아야 한다. 어찌 태어난 곳으로써 그 사 람을 평가하겠는가? 만일 부처님의 자취를 보지 않고 실행한 도를 본다면, 5계(五戒)와 10선(十善)의 도만으로도 오제와 삼왕의 도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4제(四諦)<sup>175)</sup>, 12인연(十二因緣), 육바라밀(六波羅蜜) 등의 법에 있어서이겠는가? 만일 오제와 삼왕이 부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니, 명제가 불법을 구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曰, “道之所存, 是人之所歸也. 五帝三王, 旣道之所存故, 爲人之所歸, 而王於華夏也. 佛之興天竺, 而爲法輪王, 亦復如

172) 『춘추(春秋)』: 중국 노(魯)나라에 전해오던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자가 B.C 722년(은공 원년)에서부터 B.C 481년(애공 14)에 이르는 사이의 중요한 사건을 편년체로 엮은 사서(史書)이다. 중국 최초의 편년사이며 간략한 서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73) 『춘추』 문공(文公) 7년에 “겨울에 서나라가 거나라를 토벌하였다.”(冬 徐伐莒)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에서 토벌군의 장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서나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이다.(정태현 역주, 『춘추좌씨전』 2, 전통문화연구회, 2004, p.362 참조)

174) 『춘추』 희공(僖公) 20년에 “가을에 제나라 사람들이 적나라 사람들과 형나라에서 결맹하였다.”(齊人狄人盟于邢)라고 하였다.

175) 4제(四諦): 4성제(四聖諦)의 줄임말이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이다. 주) 15참조.

是。華夏之指天竺爲西，猶天竺之指華夏爲東也。若取天下之大中，則當午無影爲中，天竺乃爾。佛之所以示生於彼者，豈非以其天下之大中也？所謂東西者，蓋彼此時俗之相稱爾，非占其中而定其東西也。苟以佛爲夷而不遵其道，則舜生於東夷，文王生於西夷，可夷其人而不遵其道乎？所出迹也，所行道也，但觀其道之可遵不可遵也，不可拘其所出之迹也。前不云乎？道之所存，是人之所歸也。春秋，‘以徐伐莒而夷狄之，狄人與齊人盟于邢而中國之。’夫徐以中國而受夷狄之名，以其不義也，狄人受中國之稱，以其有義也。凡於褒貶之間，但觀人之明昧，事之當否。豈以其所出，而議其人乎？如不求其迹，而求其所行之道，則但五戒十善之道，可無愧於五帝三王之道矣。況諦緣六度等法乎？若使五帝三王遇之，則必合掌跪膝而聽受矣，明帝之求，不其宜乎？

## 11. 불교 유해론에 대해

묻는다. 부처의 법이 중국에 들어온 이래로 세상은 점점 야박해지고 기근(飢饉)이 자주 닥쳐, 많은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전염병은 날로 심해지니, 그 해로움이 크지 않은가?

曰, 自佛法入中國以來, 世漸澆漓, 飢饉荐臻, 民多失所, 爲癘日甚, 其爲害也, 不亦大哉?

답한다. 요(堯)<sup>176)</sup>임금과 순(舜)<sup>177)</sup>임금, 우왕(禹王)<sup>178)</sup>과 탕왕(湯王)<sup>179)</sup>은 천하의 대성인이었으나 홍수와 가뭄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였고,<sup>180)</sup> 걸

(桀) 주(紂) 유(幽) 려(厲)는 천하(天下)의 주인이었으나 독부(獨夫)<sup>181)</sup>가

176) 요(堯)임금: 중국 신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제왕. 호가 도당(陶唐)씨여서 당노(唐堯)라고도 한다. 요임금은 어질고 덕망있는 사람들을 초빙하여 국정을 보좌케 하였다. 후직(后稷)은 농사(農師), 수는 공사(工師), 고요(皋陶)는 법관, 기(夔)는 악관(樂官), 순(舜)은 교육의 사도(司徒), 설(契)은 군대의 사마(司馬)를 각각 맡아 천하는 태평하고 비바람도 순조로와 백성들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특히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뒤지는 아들 대신 능력이 뛰어난 순(舜)에게 계승하여 선양(禪讓)의 미덕을 이루었다. 이런 치세를 기려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요순시절을 꼽는다. 이는 공자에 의해 덕(德)과 정의(正義) 및 이타적인 희생의 영원한 본보기로 찬양된 결과이다.

177) 순(舜)임금: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제왕. 성은 우(虞), 이름은 중화(重華). 장남인 아버지와 계모 등의 횡포를 참으며 효도를 다하였다. 30세에 천거되어 요임금을 섬기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여 신임을 얻어 50세에 요의 섭정을 하였다. 요가 죽은 뒤에 인심이 순에게 기울어 61세로 제위에 올랐다. 천하에 덕을 편 성인으로 제위에 오른 지 39년이 되던 해에 남방으로 순수(巡狩)하던 중에 죽었다고 한다. 왕위를 아들이 아닌 능력있는 우(禹)에게 계승시켰다. 유가에서는 요·순·우 3대를 선위(禪位)에 의해 왕위가 계승된 이상적인 시대로 평한다. 임금이 되기 전에 밭을 가니 사람들이 밭두둑을 양보하고, 고기를 잡으니 자리를 양보하고, 그릇을 구우니 그릇이 우그러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는 그를 완전함과 찬연히 빛나는 덕의 상징으로 칭송했다. 전대의 전설적인 제왕인 요(堯)와 나란히 요순시대로 칭송된다.

178) 우왕(禹王): 하(夏)나라의 시조. 주109) 참조

179) 탕왕(湯王): 성은 자(子), 이름은 리(履), 상(商) 부락의 장. 하(夏)왕조 말기에 상족(商族)이 점점 강성해지고 하의 걸왕(桀王)이 폭정으로 민심을 잃자 탕은 하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탕의 세력에 위협을 느낀 걸왕은 그를 하대(夏台)에 가두었고, 상족은 측신들을 매수하여 탕을 석방시켰다. 탕은 어진 덕망으로 민심을 얻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이윤의 도움을 받아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하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세웠다. 탕은 세금을 줄이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온후하고 관대한 왕으로 칭송받는다.

180)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 제11장에서는 “요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아! 사악아,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폐해를 끼쳐서 가득히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번져서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으니, 능히 다스릴 만한

됨을 면하지 못하였다.<sup>182)</sup> 주(周)나라가 쇠퇴하자 인민(人民)들이 궁핍해졌고,<sup>183)</sup> 진(秦)나라가 일어나자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다.<sup>184)</sup> 공자 같은 큰 성인도 양식이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였고,<sup>185)</sup> 안회(顔回) 같은 성인에 버금가는 사람도 요절을 면하지 못했으며,<sup>186)</sup> 원헌(原憲) 같은 큰 현인도

---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리라.'고 하였다.”(帝曰，咨四岳，湯湯洪水方割，蕩蕩懷山襄陵，浩浩滔天，下民其咨，有能俾乂.)라고 하였으며, 「우서」 대우모(大禹謨) 제14 장에서는 “순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이리 오너라. 우야! 홍수가 나를 경계하였는데 믿음을 이루고 공을 이룬은 너의 어짐이로다.’”(帝曰，來禹，洚水傲予，成允成功，惟汝賢.)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홍수 등 천재지변을 짐작할 수 있다.

- 181) 독부(獨夫) : 포악한 정치를 하여 국민에게 외면을 당한 군주.
- 182) 겐(桀)왕은 하(夏)나라 마지막 임금이고, 주(紂)왕은 은(殷)나라 마지막 왕이며, 여(厲)왕은 주(周)나라 제10대 왕이고, 유(幽)왕은 주(周)나라 제12대 왕이다. 이 네 임금은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폭군으로 알려져 있다. 겐왕은 은나라의 탕왕(湯王)에게 쫓겨나 죽었고, 주왕은 주나라의 무왕(武王)에게 공격을 받고 자살하였다. 여왕은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백성들에게 쫓겨났고, 유왕은 향락과 주색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다가 서쪽 오랑캐의 침입을 받아 죽었다.
- 183) 주나라가 쇠퇴하면서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가 되었다. 춘추시대(기원전, 722~481)에는 제(齊), 진(晉), 초(楚), 오(吳), 월(越)나라가 번갈아 가며 패자(覇者)가 되었고, 전국시대(기원전, 403~221)에는 진(秦), 조(趙), 위(魏), 한(韓), 제(齊), 연(燕), 초(楚)나라가 대립하며 전쟁하였다. 이런 잦은 전쟁으로 백성들이 궁핍해졌다.
- 184) 진(秦)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전국을 통일하여 기원전 206년에 멸망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한(漢)나라의 유방(劉邦)과 초(楚)나라의 항우(項羽)가 격돌하여 한나라가 승리하여 전국을 통일하였다.
- 185) 『논어』 「위령공(衛靈公)」 제1장에서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에 양식이 떨어지니, 따르는 자들이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在陳絕糧，從者病，莫能興.)라고 하였다.
- 186) 『논어』 「선진」 제8장에 안연이 요절하자 공자가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구나!”(噫，天喪予! 天喪予!)라고 하였다.

집안이 가난함을 면하지 못하였다.<sup>187)</sup> 이것도 또한 부처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부처님이 천축에 태어난 것은 바로 주(周)나라 소왕(昭王) 때에 해당하고,<sup>188)</sup> 한(漢)나라 명제 때에 이르러서야 부처님의 법이 동쪽 땅으로 흘러들어 왔으니,<sup>189)</sup> 하(夏)·은(殷)·주(周) 3대<sup>190)</sup> 이전에는 불법이 아직 흥

---

187) 『장자(莊子)』 「잡편(雜篇)」 양왕(讓王)에서 “원헌이 노나라에 있을 때에 사망 한 칸의 좁은 집에 잡초로 지붕을 덮고 쭉대로 문을 만들었는데 완전치도 못했다. 뽕나무로 지도리를 만들고 깨진 독으로 창을 만든 두 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창은 누더기로 가리고 있었다.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는 습하였는데 거기에 단정히 앉아 거문고를 뜯고 있었다.”(原憲居魯，環堵之室，茨以生草，蓬戶不完。桑以爲樞，而甕牖二室，褐以爲塞，上漏下溼，匡坐而弦。)라고 하였다.

188) 부처님의 탄생과 입멸에 대해서는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해를 주(周)나라 소왕(昭王) 때라고 믿어 왔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 삼국시대부터 주나라 소왕 24년(갑인년, 서기전 1027년)을 전통적으로 불기(佛紀) 연대로 사용해 왔다. 이는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의연(義淵)스님을 중국 북제(北齊)에 보내 부처님의 탄생 등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대통(大統)이던 법상(法上) 스님이 주나라 소왕 때에 부처님이 탄생하였다고 답하였다고 하였다.(大49 p.23a17) 이로부터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불교 국가는 전통적으로 불기(佛紀) 연대를 주나라 소왕 24년 갑인년(甲寅年)의 서기전 1027년으로 계산하였다.

189)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해진 것은 여러 설이 있지만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서기 67)이라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보다 3년 전에 황제가 꿈에 목에서 빛이 나는 장륙의 금인(金人)을 보고 무엇이니하고 물었더니 주 소왕 때 서방에 탄생한 성인이라고 답하여 채음(蔡愔)과 진경(秦景) 등을 보내 서역에 불도를 구하러 보냈다. 그리고 이 해에 채음 등이 대월지국에서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을 만나 불상과 경전을 싣고 낙양에 돌아왔다. 이두 승려를 만나보고 홍러시(鴻臚寺)에 머물게 하고, 이듬해에 백마사(白馬寺)를 지었다는 것이다.

190) 3대: 하(夏)·은(殷)·주(周).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임금은 덕으로 다스리는 이상시대. 요순시대와 함께 요순삼대로 불리며 성군으로 칭송되는 이들이 다스리던 이상적인 시대를 말한다.

기하지 않았고 공자와 안희 때에도 그 이름이 아직 중국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때에 재앙이 없고 기근도 없었어야 했는데, 요임금 때는 왜 9년의 흉수가 있었고 탕임금 때는 왜 7년의 가뭄이 있었으며, 공자와 안희는 왜 궁핍했고, 원혼은 왜 가난했는가?

당나라 태종이 위징(魏徵)<sup>191)</sup>, 이순풍(李淳風)<sup>192)</sup> 등과 마음을 모으고 덕을 함께하여 천하를 통일하자, 온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사방의 온 나라가 찾아와 축하 해주었다. 그때 신라의 진덕왕(眞德王, 647~654)이 직접 태평가(太平歌)<sup>193)</sup>를 짓고 비단에 수를 놓아 바쳤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당나라 나라를<sup>194)</sup> 여시니  
드높은 황제의 법도 창성하도다.  
전쟁을 그치어 천하를 평정하고

191) 위징(魏徵) : 580~643. 자는 현성(玄成),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으로 곡성(曲城, 지금의 산동성) 출신이다. 수나라 말 혼란기에 이밀(李密)의 군대에 참가하였으나 곧 당나라 고조(高祖)에게 귀순하였다. 고조의 후계 싸움에서 장자 이建成(李建成)의 측근이 되어 이세민(李世民)과 대립하였으나 패배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된 이세민은 위징의 인격과 능력을 인정하여 등용하였고, 위징은 태종을 도와 중국 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192) 이순풍(李淳風) : 602~670. 당나라의 천문학자이며 수학자로서 어려서부터 여러 서적에 통달했다고 한다. 그는 혼천황도동의(渾天黃道銅儀)를 제작하여 태양과 달,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였고, 『진서(晉書)』와 『수서(隋書)』를 편찬할 때 「천문(天文)」, 「율력(律曆)」, 「오행(五行)」 등의 지(志)를 찬술하였다. 또 「인덕력(麟德曆)」을 만들어 曆算(역산)의 방법으로 정삭법(定朔法)을 채용하였다. 저서에는 역대의 혼의(渾儀)를 해설한 『법상지(法象志)』와 『전장문물지(典章文物志)』 등이 있다.

193) 태평가(太平歌) :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당서(唐書)』 등의 당시 사서와 『전당시(全唐詩)』에 실려 있고, 『동문선(東文選)』이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 후대 문집이나 사서에도 실렸다.

194) 원문의 홍업(洪業)은 제왕의 큰 사업, 곧 나라를 새로 세움을 말함.

문치를 닦아서 백왕을 계승하였네.

깊은 인덕이 일월과 조화를 이루고

백성을 사랑함은 요순을 능가하네.

(중략)<sup>195)</sup>

산악의 정기가 보필할 재상을 내리고

임금은 어질고 성실한 인재를 쓰도다.

오제와 삼왕의 덕을 하나로 합쳤으니

우리 당나라 황제의 가문이 찬란하도다.

또 신라 태종(太宗) 김춘추공(金春秋公)<sup>196)</sup>은 김유신(金庾信)<sup>197)</sup>과 마음

195) 원문은 4구 다음에 2구를 생략하고 7~8구가 인용되었고, 다시 마지막 4구를 인용하였다. 5구부터 중간 생략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統天崇雨施	하늘을 본받으니 기후가 순조롭고
理物體含章	만물을 다스림에 저마다 빛나도다
(深仁諧日月)	깊은 인덕이 일월과 조화를 이루고
撫群邁虞唐	백성을 사랑함은 요순을 능가하네.)
幡旗何赫赫	깃발은 어찌 저리 붉게 빛나며
鉦鼓何鏗鏘	군악 소리는 어찌 그리 우렁찬가
外夷違命者	명을 어기는 외방 오랑캐는
剪覆被天殃	칼날에 얹어져 천벌을 받으리.
淳風凝幽顯	순박한 풍속 곳곳에 드러나니
遐邇競呈祥	원근에서 다투어 상서를 바치는구나
四時和玉燭	사시절 날씨 화창하고 밝게 빛나고
七曜巡萬方	해와 달과 오성은 만방을 두루 도누나.

196) 김춘추공(金春秋公) : 604~661. 신라 제29대 왕. 재위기간 654~661년. 생존기간 603~661년.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金龍春)이고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天明)부인이다. 왕비는 김서현(金舒玄)의 딸로서 김유신(金庾信)의 누이인 문명(文明)왕후이고, 그 사이에 문무왕과 김인문(金仁問) 등 여러 아들을 낳았다. 신라 사회가 무열왕에서부터 '상대(上代)'에서 '중대(中代)'로 바뀐다. 무열왕대에 백제를, 그리고 이어 문무왕대에 고구려를 패망시키고 삼국통



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삼국을 통일하여 사직(社稷)에 큰 공을 세웠다. 그 당시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서〈베 한 필의 값이 벼 30석이었다〉 백성들은 즐겁고 근심이 없어져 모두들 성인의 시대라고 하였다. 만약 불법이 나라를 태평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때는 불법이 성행했던 시기에 해당하니, 어찌하여 나라의 태평함이 그토록 지극함에 이르렀겠는가?

조주 종심(趙州從稔)선사<sup>198)</sup>는 700갑자(甲子)를 살았고,<sup>199)</sup> 오대산(五

일을 이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대체로 무열왕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여 중대의 번영기를 누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197) 김유신(金庾信): 595~673. 신라 때 장군. 본관 김해(金海).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의 12대손. 아버지는 소판(蘇判)과 대량주도독(大梁州都督)을 역임한 서현(舒玄), 어머니는 숙흥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이다. 진평왕 31년(609)에 화랑이 되었고, 진평왕 51년(629)에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할 때 중당(中幢)의 당주(幢主)로서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선덕왕 11년(642) 압량주(押梁州) 군주(軍主)가 되었고, 647년(진덕여왕 1) 1월 여왕을 폐하려고 난을 일으킨 귀족회의 수뇌인 비담(毗曇)과 염종(廉宗)의 반군을 토벌하였고, 648년에는 상주행군대총관(上州行軍大總管)이 되었다. 654년 3월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죽자 재상이던 알천(閼川)과 의논하여 김춘추(金春秋)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태종 7년(660) 상대등에 올랐고, 신라 정예군 5만과 소정방(蘇定方)이 이끈 당나라군 13만이 연합하여 사비성(泗沘城)을 함락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3년 8월 백제의 부흥군을 대파하였고, 668년 9월 나당 연합군이 평양을 칠 때 연합군 대총관이 되었으나 왕명으로 금성에 남아 국방을 도맡았다. 고구려 정벌 직후 태대각간(太대角干)의 최고직위에 오른 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는 데 힘써 한강이북의 고구려 땅을 수복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수하였다. 문무왕 13년(673)에 세상을 떠났다. 흥덕왕 10년(835) 흥무대왕(興武大王)에 추존되었다.

- 198) 조주 종심(趙州從稔)선사: 778~897. 이름은 종심(從稔)이고, 시호는 진제(眞際)이다. 그는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5) 문하에 입문하여 남종선(南宗禪)의 법맥을 이었다. 80세 때부터 조주성(趙州) 관음원(觀音院)에 머물렀기 때문에 호를 조주(趙州)라 하였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시주를 권하는 일이 없어 고불(古佛)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897년 120세로 입적하였으며, 제자들에게 사리를 줌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는 특히 화두를 많이 남겨 후대 선승들의 수행과제가 되었다. 『벽암록(碧巖錄)』에 전하는 100개의 화두 중 12개가 조주의 것

臺山)의 개(開)법사<sup>200)</sup>는 300여 년을 살았다. 만일 불법이 사람을 요절하게 한다면, 저 사람들은 불자인데 왜 그 수명이 이처럼 장수(長壽)하였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우며 오래살고 단명하며 괴롭고 즐거운 것은 시운(時運)이 성(盛)하고 쇠(衰)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이것은 중생들이 업으로 감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태평하지 않고 백성이 편안히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불법에게 허물을 돌린다면 이 또한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曰，堯舜禹湯，以天下之大聖，而尚未免水旱之災，桀紂幽厲，以天下之人主，而未免爲獨夫。周衰而人民已匱，秦作而天下大亂。以孔子之大聖，而未免於絕糧，顏回之亞聖，而未免於夭折，原憲之大賢，而未免於家貧。此亦以佛而然歟？佛興天竺，正當周昭，至漢明帝，法流東土，三代以前，佛未之作，孔顏之時，名亦未聞。彼時當無災孽，亦無飢饉，堯何有九年之水，湯何有七年之旱，孔顏何窮，而原憲何貧乎？唐太宗，與魏徵李淳風等，協心同德，混一天下，兆民咸熙，率土來賀。新羅眞德王，自製太平歌，織錦爲文而獻之。其略曰，大唐開洪業，巍巍

---

으로, ‘무자(無字)’ 화두와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가 유명하다.

199) 조주선사는 120년을 살았으므로 700갑자(4200년)를 살았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런데 700갑자를 살았다고 한 것은 탑기(塔記)의 내용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 권13에 의하면, “스님은 700갑자를 얻었을 것이다.”(卽68 p.76a11. 師得七百甲子歟)라고 한 데서 기인한 것 같다. 한편 같은 책에 “스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칠세의 아이가 나보다 낫다면 나는 그에게 물을 것이요, 백세의 노인이 나보다 못하다면 나는 그를 가르칠 것이다.’”(卽68 p.76a23~24. 常自謂曰，七歲童兒勝我者，我卽問伊，百歲老翁不及我者，我卽教他.)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곱 살과 백 살을 같은 나이로 여긴다는 말이 와전되어 700세를 산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200) 개(開)법사: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皇猷昌，止戈戎威定，修文繼百王，深仁諧日月，撫群邁虞唐。  
 以至云，維岳降宰輔，惟帝任忠良，五三成一德，昭我唐家皇。  
 又新羅太宗春秋公，與金庾信，同心勳力，一統三韓，有大功於  
 社稷。彼時年豐穀賤〈一疋布價租三十碩〉，民樂無憂，皆謂之聖代。  
 若是佛法，使不昇平，此當佛法盛行之時也，何其昇平，至於  
 如是之極乎？趙州稔禪師，生經七百甲子，五臺開法師，生存  
 三百餘載。若是佛法，令人夭折，彼旣佛子，何其命也，至於如  
 是之壽乎？古今治亂脩短苦樂，大關時運之盛衰，亦是衆生之  
 業感。以世不昇平，民不聊生，歸咎於佛法，亦未之思也。

## 12. 무위도식설에 대해

묻는다. 그대 불제자들은 편안하게 노는 백성이 되어 누에도 치지 않고  
 밭도 갈지 않고 남에게 옷과 음식을 받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 따른 괴  
 로움을 당하고 자주 궁핍하기에 이르니 그 폐단이 크지 않은가?”

曰，爾浮圖輩，逸爲遊民，不蠶不耕，而衣食於人。故民被其惱，  
 屢至於窮，其爲廢也，不亦大哉？

답한다. 승려의 임무는 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으니,  
 법을 널리 펴서 혜명(慧命)<sup>201)</sup>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승려의 임무이다. 만약 이  
 와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봉양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겠지만,

201) 혜명(慧命): 불법(佛法)의 명맥(命脈)이라는 뜻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그 사람의 죄이지 어찌 부처님의 잘못이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면 어른에게 공손하며 선왕(先王)의 도를 지켜 후세의 학자를 기다리지만, (일없이 음식을 얻어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에게서 음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목수나 수레 만드는 장인들은 높이면서 인의(仁義)를 실천하는 사람은 가벼이 여기는가?”<sup>202)</sup>라고 하였다. 이 말은 도를 지키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서 옷과 음식을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사람의 가난하고 넉넉함[貧富]은 각자에게 타고난 분수가 있으니, 전생에 선한 종자를 심은 사람은 비록 날마다 소비하더라도 여유가 있겠지만, 전생에 선한 종자를 심지 않은 사람은 비록 날마다 모으더라도 부족할 것이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부처님을 보고도 예배하지 않고 스님을 보면 욕하고 헐뜯으며, 평생토록 한 톨도 베풀지 않았지만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면, 이것도 승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曰，僧之任在弘法利生，弘法而令慧命不斷，利生而使人人自善，是僧之務也。苟能如是，則可無愧於爲人之所奉矣，苟不能然，是其人之罪也，豈佛之過歟。孟子曰，“於此有人焉，入則孝出則悌，守先王之道，以待後之學者，不得食於子。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此豈非以守道利人而可衣食於人乎？夫人之貧富，各自有素分，宿有善種者，則雖日費而有餘，宿無善種者，則雖日聚而不足。世有人焉，見佛不禮，見僧呵毀，終身而不施一錢，衣不蔽形，食不充口，此亦因僧而致然歟？

202) 『맹자』 「등문공장하(滕文公章下)」. 이 부분은 팽경(彭更)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선비가 일없이 음식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士無事而食，不可也.)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맹자가 대답한 것이다.

### 13. 불교 사태에 대해

묻는다. 청정하고 욕심을 줄여 법을 위해 몸을 버리며 많이 듣고 힘써 기억하여 후배들을 맞아 인도하는 것은 진실로 불제자들이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불제자들은 그러한 행실을 닦지 않고 도리어 스승의 법을 더럽히고 있으니, 사람들이 불도(佛道)에 대해 물으면 마치 담장을 대하여 서있는 것 같고, 부처님을 썬 값에 팔아 제 몸을 기르는 밀천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이 살고 있는 곳을 농막(農幕)으로 쓰고 저들을 사람답게 하여 사민(四民)에 충당하여 임금과 나라를 보필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曰, 淸淨寡欲, 爲法亡軀, 多聞強記, 接引後來, 固釋子之行也. 今浮圖輩, 不修其行, 反汚師法, 人問其道, 如立面牆, 裨販如來, 資養身命. 廬其居人其人, 以充乎四民之數, 而令輔弼乎君國, 可也.

답한다. 기린과 난새와 봉황은 모여서 무리 짓지 않고, 한 척이나 되는 옥과 한 마디나 되는 구슬은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 공자의 문하(門下)에 3천 명이나 있었지만 철인(哲人)으로 불린 사람은 열 명뿐이요, 부처님의 바다 같은 회상(會上)<sup>203)</sup>에 제일(第一)이라 불린 사람도 열 명에 불과하다. 하물며 지금은 성인께서 떠나신지 더욱 오래되어 근기가 미약하고 열등한데, 어떻게 사람마다 가섭(迦葉)<sup>204)</sup>의 청정한 행실[淨行]이나 아난(阿

203) 회상(會上) :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소에 대중들이 모여든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바다 같은 회상’이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바다같이 넓게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204) 가섭(迦葉) : ㉠Mahākāśyapa, 음역하여 마하가섭이라고 부르며, 부처님의 십대

難)<sup>205)</sup>의 많이 들음[多聞]과 같게 할 수 있겠는가? 공자와 안회가 떠난 지 천 년이 지났으나 안연(顔淵)<sup>206)</sup>이나 민자건(閔子騫)<sup>207)</sup> 같은 이가 있었다는 말을 또한 듣지 못했다.

승려가 승려다우려면 5덕(五德)<sup>208)</sup>과 6화(六和)<sup>209)</sup>를 구비한 후에야 그

---

제자로서 두타제일(頭陀第一)이다. 바라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으나 12세에 부모를 잃고 세속적인 욕망의 허무함을 깨달아 아내와 함께 출가하였다. 그 후 석가모니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 선종(禪宗)에서는 가섭이 부처님의 마음을 전수받았다고 여겨 초조(初祖)로서 숭앙하고 있다.

205) 아난(阿難) : ㉔Ānanda, 음역하여 아난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며, 부처님의 십대 제자로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다. 그는 대중들의 천거에 의하여 20여 년간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으므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고 불렸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여명의 제자들이 왕사성(王舍城, ㉔Rājagha) 칠엽굴(七葉窟)에서 모여 부처님의 설법을 결집(結集)할 때 아난이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이 승인하여 경전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206) 안연(顔淵) : 공자의 십대 제자 중의 한 명으로 안회(顔回)를 말한다. 공자가 가장 신임하였던 제자이며, 공자보다 30세가 어리지만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학문과 덕이 특히 높아서 공자도 그를 가리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고 또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고 도(道)를 즐긴 것을 칭찬하였다.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술이나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

207) 민자건(閔子騫) : 공자의 십대 제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므로 『논어』 「선진」 제4장에서 공자가 “효성스러워라. 민자건이여! 사람들이 그 부모형제가 그를 효자라고 칭찬하는 말에 트집 잡지 못하는구나.(孝哉, 閔子騫. 人不聞於其父母昆弟之言.)”라고 칭찬하였을 정도이다.

208) 5덕(五德) : 비구가 수행함으로써 얻는 다섯 가지 공덕으로서, 포마(怖魔)·걸사(乞士)·정계(淨戒)·정명(淨名)·파악(破惡)이다. 포마는 비구계를 지키면 반드시 열반에 들게 되므로 마군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걸사는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받들고 아래로는 음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며, 정계는 청정한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정명은 깨끗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파악은 번뇌를 끊게 되는 것이다.

209) 6화(六和) : 수행자들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섯 가지의 윤리덕목(倫理德

이름에 걸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름과 실상이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숲에는 재목이 못되는 나무가 있고 논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벼가 있으니, 설령 법에 맞게 만들어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너무 심하게 미워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려의 모습[形服]<sup>210)</sup>을 통해서 점점 훈습하여 본성을 이루도록 하여 그 도를 잃지 않게 할 따름이니, 어찌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의 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曰，麒麟鸞鳳，族不成群，尺璧寸珠，市不可求。孔門三千，稱哲人者，十人而已，如來海會，稱第一者，亦不過十人而已。況今去聖愈遠，根機微劣，安得使人人，如迦葉之淨行，阿難之多聞？孔顏之後，千載之下，如顏淵閔子騫，亦未之聞也。夫僧之爲僧，具五德備六和然後，方稱其名也。然名實相符者，蓋難其人矣。林有不材之木，田有不實之禾，縱有不能如法奉行，不可疾之甚也。但令因其形服，漸薰成性，不失其道而已，豈得因其失而廢其法也？

## 14. 불교 무용론에 대해

문는다. 불교의 책들을 살펴보건대, 허원(虛遠)<sup>211)</sup>한 데에 힘쓰고 적멸

目)이다. 즉 신화(身和)·구화(口和)·의화(意和)·계화(戒和)·이화(利和)·견화(見和)이다. 신화는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이고, 구화는 자비롭게 말하는 것이며, 의화는 남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계화는 함께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이화는 이익을 균등하게 가지는 것이고, 견화는 바른 견해를 같이 가지는 것이다.

210) 승려의 모습[形服]: 원래 형복(形服)이란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란 뜻이지만, 글의 문맥에 맞춰 '승려의 모습'이라고 해석하였다.

211) 허원(虛遠): 허황되고 고원하다는 의미.

(寂滅)을 숭상하고 있어서 『소학(小學)』<sup>212)</sup>보다 배로 공부하더라도 쓸모가 없고, 『대학(大學)』<sup>213)</sup>보다 더 고상하지만 실리가 없으니,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曰, 考其爲書, 務於虛遠, 崇於寂滅, 其功倍於小學而無用, 其高過於大學而無實, 不可以爲修己治人之方也矣.

답한다. 책이란 도를 신는 도구이며 널리 교화하는 방편이다. 그 책을 보면 그 도가 따를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고, 그 예가 본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 그 도가 따를 만하고 그 예가 본받을 만하다면 어찌 내가 익힌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sup>214)</sup>는 말을. 성인은 비록 천리나 떨어져 있고 만년이나 지났더라도 그 마음은 일찍이 달랐던 적이 없다. 공자의 말씀에 “사사로운 뜻이 없고, 반드시 그렇겠다는 것이 없으며, 집착함이 없고, 이기심이 없다.”<sup>215)</sup>고 하였고, 『주역』에 또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 나가 없고 그의 뜰에 나아가도 남이 없다.”<sup>216)</sup>고 하였으니,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212) 『소학(小學)』: 송나라의 주자가 제자 유자정(劉子澄)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하여 만든 것으로 주자가 교열(校閱)하고, 가필(加筆)하였다. 1185년에 착수하여 2년 뒤에 완성하였다.

213) 『대학(大學)』: 유교의 성전으로서 사서(四書) 중의 하나이다. 본래 『예기(禮記)』의 제42편에 있던 것을 송(宋)나라의 사마 광(司馬光)이 처음으로 따로 떼어서 『대학광의(大學廣義)』를 만들었고, 그 후 송나라의 주자가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만들어 경(經) 1장(章), 전(傳) 10장으로 구별하여 주석(註釋)을 붙였다. 주자는 경(經)은 공자의 말을 증자(曾子)가 기술한 것이고, 전(傳)은 증자의 뜻을 그 제자가 기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214) 장상영(張商英), 『호법론(護法論)』 권1 大52 p.637c4.

215) 『논어』 「자한(子罕)」



“나 없음[無我]과 남 없음[無人]으로 일체의 선법(善法)을 닦으면 곧 보리(菩提)를 증득한다.”<sup>217)</sup>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성인이 살다간 시대는 다르지만 그 마음은 같은 이유이다.

그대가 “허원(虛遠)하고 적멸(寂滅)하다”고 한 말은 삼장십이부(三藏十二部)<sup>218)</sup> 가운데 어떤 전적(典籍)에 근거하여 말한 것인가? 대계(大戒)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한 법도이니 효를 계(戒)라 이름하고 또한 제지(制止)라고도 이름 한다.”<sup>219)</sup>고 하였으니, 오로지 ‘허원하다’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원각경(圓覺經)』에 “마음 꽃이 피어나서 시방 세계를 밝게 비춘다.”<sup>220)</sup>고 하였으니, 오로지 ‘적멸하다’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불

216) 『주역전의』 「간괘(艮卦)」에서 “그 등에 그치면 그 몸을 얻지 못하며 그 뜰에 가더라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여 허물이 없으리라.”(艮其背 不獲其身 行其庭 不見其人 无咎)라고 하였다. 이 말은 보이는 것이 앞에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뜰에 나가더라도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남과 등지고 있으므로 나와 남이 사귀지 않아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217) 자선(子璿), 『기신론소필삭기(起信論疏筆削記)』 권17 大44 p.387c26~27.

218) 삼장십이부(三藏十二部):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을 말한 것이며, 십이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식과 내용에 따라 열두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십이부는 ①경(經): 경전에서 산문(散文)으로 설한 부분, ②중송(重頌): 산문의 설법과 똑같은 취지를 거듭 운문(韻文)으로 설한 부분, ③수기(授記): 부처님이 제자에게 성불의 예언을 내리시는 뜻을 서술한 부분, ④고기송(孤起頌): 산문의 부분과 상관없이 운문으로만 이루어진 부분, ⑤무문자설(無問自說): 질문하는 자가 없는데도 부처님이 자발적으로 설하신 부분, ⑥인연(因緣):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인연을 설하시는 부분, ⑦비유(譬喻): 비유를 설하신 부분, ⑧본사(本事): 과거세의 일을 말씀한 부분, ⑨본생(本生): 부처님의 전생을 설하신 부분, ⑩방광(方廣): 문답을 통해 도리를 밝힌 부분, ⑪미증유법(未曾有法): 부처님과 보살의 갖가지 기적을 기술한 부분, ⑫논의(論議): 도리를 논의해 해석 설명하는 부분이다.

219) 『범망경』 권2 大24 p.1004a25.

220) 『원각경』 大17 p.920b17~18.

교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그 글을 살펴보지 않고 함부로 배척한다면 반드시 통달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천하의 문장을 다 읽지 않았으면 옛날과 지금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공자의 말씀에 “대저 효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이고, 땅의 의로움이며,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sup>221)</sup>라고 하였으니, 어찌 지극한 도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감득하여 천하 모든 일에 마침내 통달한다.”<sup>222)</sup>고 하였으니, 어찌 밝게 비춤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유교에서 말하는 ‘밝은 덕[明德]’<sup>223)</sup>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오묘하고 순일한 밝은 마음[妙精明心]”<sup>224)</sup>이요, 이른바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득하여 마침내 통달한다.”<sup>225)</sup>는 말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히 비춤[寂照]’이다. 이른바 “자기가 착한 뒤에야 남의 착함을 따질 수 있고, 자기에겐 악이 없는 뒤에야 남의 악을 바르게 할 수 있다.”<sup>226)</sup>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 말한 “악을 끊고 선을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221)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5년조에서 “대저 예라는 것은 하늘의 떳떳한 도이고, 땅의 후한 덕이며, 사람이 행하는 길이다.”(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고 하였다.

222) 『주역전의』 「계사상전」 제10장에 “역은 생각이 없고 함이 없어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득하여 마침내 천하의 일에 통달하니,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에 참여하겠는가.”(易 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与於此)라고 하였다.

223) 밝은 덕[明德]: 『대학』 「경문(經文)」에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在止於至善)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가 『대학장구』에서 ‘밝은 덕’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밝은 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하고 어둡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치를 갖추어 있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224) 『수능엄경(首楞嚴經)』 권2 大19 p.111a24~25.

225) 『주역전의』 「계사상전」 제10장.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말한 이치가 이미 같다면 가르친 자취인들 어찌 다르겠는가?

자기에게는 오로지 하면서 남에게는 소홀히 하며, 이것은 옳다고 하면서 저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통달한 사람들은 오직 의(義)만 따를 뿐이니, 어찌 나와 남, 이것과 저것으로써 시비를 가리겠는가? 사람들에게 벼슬과 상으로 권하지 않더라도 풀이 바람에 쏠리듯이 따라 교화되는 것은 유불도 삼교 가운데 불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부처님과 같은 큰 성인이 큰 자비로 감화하기 때문이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천근한 말에서 살피기를 좋아하며 남의 악을 숨겨 주고 선한 일을 드러내었고,<sup>227)</sup>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했다<sup>228)</sup>고 하니, 만일 순임금과 우임금이 부처님의 교화를 만났더라면 어찌 귀의하고 찬미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曰，書者，載道之具也，弘化之方也。見其書則知其道之可遵不可遵，知其禮之可慕不可慕也。其道可遵，其禮可慕，則豈以非吾所習而可棄之也。君不聞乎？“天下無二道，聖人無兩心。”夫聖人者，雖千里之隔，萬世之遠，其心未嘗有異也。孔夫子之言曰，“毋意毋必毋固毋我”，易又云，“艮其背，無我也，行其庭，無人也”，無我無人，何垢之有？釋迦老之言曰，“無我無人，

226) 『대학』 「전문」 제9장.

227) 『중용』 제6장에 공자가 순 임금의 덕을 일컬어 “순 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고, 남의 악을 감춰 주고 선한 일은 드러냈다.”(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라고 하였다.

228)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는데, 『서경』 「우서」 대우모(大禹謨) 제21장과 고요모(皋陶謨) 제1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修一切善法，卽得菩提，”此聖人之所以異世而同其心也。所謂“虛遠寂滅”之言，三藏十二部中，據何典而言歟？大戒云，“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亦名制止，”一向謂之虛遠可乎？圓覺云，“心花發明，照十方刹”，一向謂之寂滅可乎？若欲驗其真偽，必先審其書也，不審其書而妄排之，則必爲達者之所嗤矣。君不聞乎？“未盡天下文章，不得雌黃古今”孔之言曰，“夫孝，天之經也，地之義也，民之行也，”豈非至道之謂乎。“感而遂通天下之故，”豈非明照之謂乎？儒之所謂明德，卽佛之所謂妙精明心也，所謂“寂然不動，感而遂通，”卽佛之所謂寂照者也。所謂“有善於己然後，可以責人之善，無惡於己然後，可以正人之惡”者，與吾教所謂“斷惡修善，饒益有情”者，何以異乎？所言之理旣同，而所教之迹，何以異乎？專己略人，是此非彼，人之常情也。通人達士，唯義是從，豈以人我彼此而是非者乎？使人不待爵賞之勸而靡然從化者，三教之中，佛教能然也。蓋以吾佛大聖大慈之所感也。舜好問而好察邇言，隱惡而揚善，禹拜昌言，若使舜禹，遇佛之化，則豈不歸美乎？而以爲不可爲修己治人之方者，亦未之思也。

## 15. 도·유·불 삼교의 같고 다름

문는다. 도교, 유교, 불교의 같고 다른 점[同異]과 낮고 못한 점[優劣]은 어떠한가?

曰, 老與儒釋, 同異優劣, 如何?

답한다. 노자(老子)의 말씀에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이 없고, 함이 있으되 함이 없어야 한다.”<sup>229)</sup> 고 하였고, 석가(釋迦)의 말씀에 “고요하지만 늘 비추고 비추지만 늘 고요하다.”<sup>230)</sup> 고 하였으며, 공자의 말씀에 “역(易)은 생각도 없고 함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득하여 천하 모든 일에 마침내 통달한다.”<sup>231)</sup> 고 하였다.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감득함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이니 곧 고요하면서도 늘 비추는 것이고, ‘감득하여 통달한다’는 것은 고요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니 곧 비추면서도 늘 고요한 것이다.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고요히 늘 감득하는 것이고, ‘함이 있으되 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곧 감득하지만 늘 고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의거해보면, 도·유·불 삼교의 말이 완전히 부합하여 마치 같은 입에서 나온 말 같다. 만약 이리저리 실천하고 같고 다른 점을 활용하려 한다면, 마음의 때를 다 씻어 버리고 지혜의 눈을 맑게 한 뒤에 대장경과 유교와 도교의 여러 서적을 모두 훑어보고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생사(生死)와 화복(禍福)의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이니, 내가 어찌 굳이 변론하여 그대의 귀를 놀라게 하겠는가?

曰，老之言曰，“無爲而無不爲，當有爲而無爲。”釋之言曰，“寂而常照，照而常寂。”孔之言曰，“夫易，無思也無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夫寂然者，未嘗無感，卽寂而常照也，感

229) 『도덕경(道德經)』 제37장에서 “도는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이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교화될 것이다.”(道常無爲而無不爲，侯王若能守之，萬物將自化)라고 하였다. 그러나 “함이 있으되 함이 없어야 한다.”(當有爲而無爲)라는 말은 『도덕경』에 보이지 않는다.

230) 『인왕반야경소(仁王般若經疏)』 권2(大33 p.330b28)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27(大35 p.705b23~24) 등에 보인다.

231) 『주역전의』 「계사상전」 제10장.

通者，未嘗不寂，卽照而常寂也。無爲而無不爲，卽寂而常感也，有爲而無所爲，卽感而常寂也。據此，則三家所言，冥相符契，而如出一口也。若履踐之高低，發用之同異，則洗盡心垢，廓清慧目然後，看盡大藏儒道諸書，參於日用之間，生死禍福之際，則不待言而自點頭矣，吾何強辨以駭君聽？



## 索引 찾아보기







가(假) 467  
 가관(假觀) 472  
 가르침은 하나[敎一] 402  
 가리왕(歌利王) 438  
 가섭(迦葉) 246, 607  
 가섭불(迦葉佛) 266  
 가실차별문(假實差別門) 71  
 가오욕(訶五欲) 480  
 가전연자(迦旃延子) 412  
 가행(加行) 137  
 가행위(加行位) 430  
 각천(覺天) 336, 337  
 간정(刊正) 81  
 간혜지위(幹慧地位) 453  
 감득(感得) 576  
 감로(甘露) 124  
 강신(降神) 568  
 강주(江州) 190  
 개(盖) 483  
 개(開)법사 604  
 개회(開會) 409  
 거송정답(擧頌正答) 341  
 건타월(乾陀越) 242  
 건타월국 235  
 겹(桀) 597  
 겁수(劫數) 416  
 견도위(見道位) 431, 458  
 견등(見登) 41, 278  
 견번뇌(見煩惱) 393  
 견분(見分) 69, 331, 344  
 견실심(堅實心) 577


견일체처주지(見一切處住地) 471  
 견지(見地) 453, 470  
 견혜(堅慧) 94  
 견혹(見惑) 421, 444  
 결명회시분(結名廻施分) 276, 294  
 결정성문(決定聲聞) 129  
 겸행육도품(兼行六度品) 470  
 경(境) 64, 293  
 경(經) 66  
 경(境)·행(行)·과(果) 277  
 경덕왕대 38  
 경량부 336  
 경부종(經部宗) 73, 107  
 경사(經史) 563  
 경전 87  
 경흥(憬興) 25, 43, 159  
 계(戒) 42  
 계(契) 66  
 계(界) 72  
 계경(契經) 66  
 계두말(雞頭末) 225  
 계두성(鷄頭城) 223  
 계수(稽首) 294  
 계위 443, 473  
 계윤부(雞胤部) 93  
 계율(戒律) 42, 407  
 계주(係綯) 243  
 계주마라나(係綯波羅捺) 243  
 계초심학인문 497  
 계탁(計度) 311, 320, 330  
 계품(戒品) 555  
 계합(契合) 66  
 고(苦) 94

고산지원(孤山智圓) 366  
 고요히 비춤[寂照] 612  
 고적기(古迹記) 274  
 고제(苦諦) 413, 421, 488  
 고조해탈(孤調解脫) 433  
 고통을 주는 도구[苦具] 415  
 고행(苦海) 501  
 공(空) 23, 94, 170, 284, 467  
 공관(空觀) 53  
 공덕 210  
 공반야(共般若) 449  
 공비량(共比量) 327  
 공안(公案) 505  
 공용(功用) 132, 152  
 공유(空有) 53  
 공유화쟁 279  
 과(果) 64, 121, 151, 276, 293  
 과두불(果頭佛) 447  
 과박(果縛) 432  
 과범(過犯) 584  
 과보(果報) 541, 574  
 과위(果位) 295, 452  
 관(觀) 444  
 관부사의경(觀不思議境) 357, 486  
 관불삼매(觀佛三昧) 174  
 관욕(觀欲) 264  
 관위(觀位) 107  
 관음신앙 20  
 관정(灌頂) 383  
 관정주(灌頂住) 454  
 관찰하는 문[觀察門] 216  
 관천(貫穿) 66

관해지 298  
 관행즉(觀行卽) 476  
 관혜(觀惠) 41  
 광문(廣文) 384  
 광본(廣本) 490  
 광석본모송(廣釋本母頌) 276  
 광찬반야경(光讚般若經) 380  
 괴겁(壞劫) 171  
 광지(宏之) 492  
 교(敎) 121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 276, 293  
 교도(敎道) 460  
 교상판석(敎相判釋) 358  
 교소피기(敎所被機) 162  
 교원유사(敎苑遺事) 367  
 교장(敎藏) 365  
 교판(敎判) 358  
 교혜(巧慧) 484  
 교흥제목(敎興題目) 56, 59  
 구경즉(究竟卽) 476  
 구경청정(究竟淸淨) 120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266  
 구당(瞿塘) 579  
 구루손불(拘樓孫佛) 266  
 구마라집(鳩摩羅什) 188  
 구빈대신(劬嬪大臣) 439  
 구사론(俱舍論) 77, 79, 411  
 구슬 보배[珠寶] 241  
 9식설 52  
 구식장(九識章) 149  
 구야니(瞿耶尼) 418  
 구오연(具五緣) 480

구유식 22  
 9조 367  
 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 454  
 구지(九地) 422  
 9품(九品) 312  
 구호중생이중생상(救護衆生離衆生相) 457  
 국청사(國淸寺) 363  
 궁자(窮子) 403  
 권근(權近) 495  
 권단(權坦) 497  
 권청(勸淸) 469  
 궤(軌) 345  
 궤지(軌持) 344  
 귀계(歸戒) 368  
 귀력(歸力) 264  
 규기(窺基) 22, 190, 197, 205, 274  
 균여(均如) 41  
 극과성(極果性) 147  
 극소열(極燒熱)지옥 207  
 근(慙) 233  
 근기(根機) 129, 540  
 근본경부(根本經部) 322  
 글을 풀이함[講文] 221  
 금강(金剛) 316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 530  
 금강경유관(金剛經綸貫) 530  
 금강군(金剛軍) 94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 381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 292, 296  
 금강반야바라밀경론 101  
 금강삼매경 29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28, 29, 32  
 금강심(金剛心) 459  
 금계(禁戒) 213, 484  
 금광명경(金光明經) 95, 228, 379  
 금광명최승왕경약찬(金光明最勝王經略贊) 160  
 금까마귀 525  
 금륜(金輪) 238, 550  
 기근(飢饉) 597  
 기별(記別) 437  
 기신론 28  
 기신론내의약탐기(起信論內義略探記) 274, 275  
 기신론동이약집(起信論同異略集) 41  
 기신론별기 30  
 기신론소 29  
 기오개(棄五蓋) 480  
 기의(機宜) 434  
 김유신(金庾信) 602  
 김춘추공(金春秋公) 602  
 깨달은 유정[覺有情] 537  
 깨달음을 이루는 것[成道] 260  
 깨달음을 이루는 것[成菩提] 260



나가서나(那伽犀那) 94  
 나계(螺溪) 365  
 나계의적(螺溪義寂) 355  
 나라의 장엄[國邑莊嚴] 224  
 나옹화상승원가(懶翁和尚僧元歌) 499  
 나옹혜근(懶翁慧勤) 495, 530

나한(羅漢) 570  
 낙(醺) 124, 386, 390, 392, 398, 408  
 낙산(洛山) 35  
 난다(難陀) 308  
 난득행(難得行) 456  
 난위(煙位) 430  
 날락가(捺洛迦 naraka) 415  
 남천축산(南天竺山) 372  
 내범(內凡) 429  
 내범위(內凡位) 444, 452  
 내생(來生) 581  
 내영(來迎) 163  
 내용[部] 385  
 내전(內典) 363  
 내종(內宗) 77  
 내증법(內證法) 100  
 네 가지 분위[四分] 351  
 네 가지 진리[四諦] 391  
 네 가지 아함 411  
 노사(老死) 434  
 노사나불(盧舍那佛) 387  
 노자(老子) 615  
 녹낭(漉囊) 561  
 녹야원[鹿苑] 390  
 녹원시(鹿苑時) 378, 401  
 논어(論語) 559, 562, 569, 581, 583, 599, 610  
 논어집주(論語集註) 551, 558, 562  
 농막(農幕) 607  
 능가경(楞伽經) 98, 101, 102, 112, 378  
 능가경 제2권 151  
 능가경 제4권 151  
 능변(能變) 342

능변심(能變心) 106  
 능안인(能安忍) 489  
 능엄삼매경(楞嚴三昧經) 379  
 능의(能依) 90  
 능전(能詮) 66, 79, 90  
 능취(能取) 326  
 니려(泥黎 niraya) 415



다라시기(多羅尸棄) 225  
 다문부(多聞部) 93  
 다섯 가지 뉘우침[五悔] 467  
 다섯가지 복[五福] 573  
 다섯 가지 욕망을 경책함[訶五欲] 357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具五緣] 357  
 다섯 부파의 율장[五部律] 412  
 다섯 사람 391  
 다섯 인도 95  
 다중일(多中一) 36  
 다즉일(多卽一) 36  
 단멸견[斷滅見] 406  
 단역(單譯) 187  
 단중(但中) 447  
 달마(達摩) 511, 588  
 담마난제(曇摩難提) 193  
 당(唐) 20  
 대각(大覺) 538  
 대계(大戒) 560  
 대계경(大界經) 87  
 대과(大果) 119

- 대교(對敎) 394
- 대기(大記) 41
- 대당삼장(大唐三藏) 65
- 대반야경(大般若經) 63, 98
- 대반열반(大般涅槃) 132, 297
- 대범천(大梵天) 420
- 대법론(對法論) 182
- 대보살장경(大菩薩藏經) 138
- 대보화왕좌(大寶華王座) 459
- 대본(大本) 366, 384
-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77, 82, 411, 436
- 대성문(大聲聞) 150
- 대수석(帶數釋) 121
-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 290
- 대승기신론동이약탐기(大乘起信論同異略探記) 278
-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29
- 대승시교(大乘始敎) 358
- 대승입능가경 151
- 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 283
- 대승종교(大乘終敎) 358
- 대시태자(大施太子) 438
- 대안(大安) 29
- 대야차신(大夜叉神) 226
- 대업론(大業論) 142
- 대열반경(大涅槃經) 406
- 대열반성 134
- 대원경지(大圓鏡智) 170, 521
- 대종(大種) 337
- 대중부(大衆部) 93
- 대중이 받들어 행하는 것[大衆奉行分]  
259
- 대지도론(大智度論) 86, 132, 149, 412, 436
- 대천세계(大千世界) 539
- 대치조개(對治助開) 489
- 대품경(大品經) 443
-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381
- 대학(大學) 610
- 대행(大行) 119
- 대현(大賢) 25, 43, 273, 281
- 대혜(大慧) 99
- 덕망(德望) 589
- 덕소(德韶) 363, 367
- 도(道) 118, 444
- 도과(道果) 394
- 도관쌍류(道觀雙流) 445
- 도륜 24, 43, 54
- 도리천(忉利天) 202, 419, 551
- 도솔천(兜率天) 160, 171, 195, 206, 391, 420, 549
- 도신장 38
- 도인(道因) 367
- 도정(道政) 190
- 도제(道諦) 421
- 도종성(道種性) 457
- 도종지(道種智) 456, 472
- 도증(道證) 24, 274, 278
- 도철(饒飴) 518
- 도품조적(道品調適) 488
- 도회(掉悔) 483
- 독각승 115
- 독보살법(獨菩薩法) 451
- 독부(獨夫) 598
- 독선(獨善) 146

독송품(讀誦品) 469  
 독자부(讀子部) 321  
 돈교(頓敎) 193, 358, 382  
 돈부(頓部) 401  
 동신설법(動身說法) 110  
 동유과(同喩過) 327  
 동제사주(同除四住) 471  
 동진주(童眞住) 454  
 두 가지 공[二空] 307  
 두 가지 분위[二分] 351  
 두타행 25  
 둔근(鈍根) 447  
 둔사(鈍使) 421  
 득익(得益) 264  
 등각(等覺) 316, 317, 458  
 등각위(等覺位) 459, 474  
 등수순일체중생(等隨順一切衆生) 457  
 등일체제불(等一切諸佛) 457  
 등활(等活)지옥 206  
 땅의 넓고 아름다움[地土廣美] 225, 228  
 땅의 풍요롭고 편안함을 답한 것[答境豐樂] 224  
 때[時] 385  
 뜻을 분별하는 것[辨來意] 255

마가다국(摩伽他國) 258  
 마덕록가어(摩德勒伽語) 87  
 마음의 체[心體] 330  
 마하반야(摩訶般若) 404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 380  
 마하연(摩訶衍, mahā-yāna) 413  
 마하연경(摩訶衍經) 413  
 마하지관(摩訶止觀) 358, 475  
 만겁(萬劫) 523  
 만교(滿敎) 33  
 만상(萬象) 536  
 만자교(滿字敎) 394  
 말세 503  
 맛[味] 386  
 망식(妄識) 21  
 망신참(亡身懺) 27  
 맹자(孟子) 556, 559, 560, 562, 565, 606  
 멸도(滅度) 143  
 멸제(滅諦) 421  
 멸하는 때를 답한 것[答滅時] 224  
 명(名)·구(句)·문(文) 68  
 명구문(名句文) 182  
 명권실(明權實) 358  
 명귀(冥龜) 590  
 명사문입리(明四門入理) 358  
 명색(名色) 433  
 명자(命者) 347  
 명자즉(名字卽) 475  
 명제(明帝) 594  
 명판위부동(明判位不同) 358  
 명효(明畝) 38, 40

려(厲) 598  
 리(理) 121

모든 곳[諸處] 417  
 모든 취[諸趣] 417  
 목암(牧庵) 492  
 몽산화상법어 497  
 몽운(蒙潤) 372  
 묘각(妙覺) 170, 318  
 묘각위(妙覺位) 407, 459, 474, 476  
 묘관찰지(妙觀察智) 299  
 묘법연화경현의 365  
 묘정명심(妙精明心) 612  
 묘현(妙玄) 365  
 무(無) 23  
 무간도(無間道) 317  
 무간삼매(無間三昧) 444  
 무간(無間)지옥 208  
 무공용도(無功用道) 460  
 무공용위(無功用位) 458  
 무구칭경(無垢稱經) 112  
 무굴요행(無屈撓行) 455  
 무기(無記) 78  
 무단정(無端正) 418  
 무량(無量) 425  
 무량사제(無量四諦) 459  
 무량수경론(無量壽經論) 215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  
 贊) 160  
 무량의경 87  
 무루(無漏) 105, 106, 147  
 무루지(無漏智) 140  
 무림(武林) 371  
 무명(無明) 363, 433, 458, 510, 516  
 무박무착해탈(無縛無著解脫) 457  
 무반열반법 141  
 무번천(無煩天) 420  
 무법애(無法愛) 490  
 무분별지(無分別智) 458  
 무상(無想) 415  
 무상(無相) 61  
 무상(無常) 94  
 무상법륜(無相法輪) 63  
 무상상(無常想) 257  
 무상승(無上乘) 140  
 무색계 420  
 무색애주지(無色愛住地) 471  
 무생(無生) 425  
 무생사제(無生四諦) 445  
 무생인(無生忍) 251  
 무성(無性) 82, 120, 141  
 무성보살(無性菩薩) 104, 143  
 무성유정(無姓有情) 126, 136, 145  
 무시(無始) 501  
 무아(無我) 94  
 무애행 42  
 무언(無言)의 설법 443  
 무여 134  
 무여열반(無餘涅槃) 116, 117, 148, 317,  
 432  
 무여의(無餘依) 132, 149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 118  
 무연청불경(無延請佛經) 267  
 무열천(無熱天) 420  
 무위(無爲) 282  
 무위공덕(無爲功德) 299  
 무위법(無爲法) 283  
 무위역행(無違逆行) 455  
 무작(無作) 85, 425

무작품(無作品) 489  
 무종성인(無種姓人) 54  
 무주(無住) 39  
 무주(無酒) 418  
 무주열반(無住涅槃) 296  
 무진공덕장(無盡功德藏) 457  
 무착(無著) 292, 333  
 무착행(無著行) 456  
 무천(無天) 418  
 무치란행(無癡亂行) 455  
 무학(無學) 530  
 무학도위(無學道位) 431  
 문무왕 35  
 문수(文殊) 192  
 문왕(文王) 577  
 문장[文] 90  
 물음과 답[正問答] 224  
 미(味) 483  
 미도정(未到定) 420  
 미륵 195, 205  
 미륵(彌勒) 대사(大士) 170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 200, 260  
 미륵보살 60  
 미륵상생 27  
 미륵상생경 173, 174  
 미륵상생경요간기 161, 163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 173, 175, 256  
 미륵성불경소 163  
 미륵성시경(彌勒成時經) 189  
 미륵수결(彌勒受決) 189  
 미륵작불경(彌勒作佛經) 260  
 미륵하생경 173, 175  
 미륵하생경소 163

미제라(彌梯羅) 243  
 미제라국 235  
 미지욕지근(未知欲知根) 127  
 미타신앙 20  
 민자견(閔子蹇) 608  
 밀교 20  
 밀엄경 51



바다처럼 무수한 부처님의 말씀[海藏]  
 373  
 바라나국(波羅奈國) 62, 235  
 바라날(波羅捺)국 243  
 바라밀 509  
 바르게 답하신 것[如來正答] 224  
 바른 수행[正修] 357  
 바사산(波沙山) 258  
 바퀴 보배[輪寶] 241  
 바탕으로서의 법신[素法身] 469  
 박지(薄地) 444  
 반겁(半劫) 201  
 반니원경(般泥洹經) 198  
 반야(般若) 298, 448  
 반야경(般若經) 33, 395  
 반야관혜(般若觀慧) 395  
 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 281  
 반야론(波若論) 100, 101  
 반야선 518  
 반야시(般若時) 380  
 반야심경찬 52  
 반열반(般涅槃) 98, 134



- 반중겁(半中劫) 208
- 받는 자[所受] 222
- 발광지(發光地) 458
- 발기서(發起序) 162
- 발심(發心) 29, 162
- 발심수행장 497
- 발심주(發心住) 453
- 발우 503, 510
- 발원(發願) 469
- 발지론(發智論) 79, 81
- 발타파라(跋陀婆羅) 192
- 밝은 덕[明德] 612
- 방등(方等) 170, 448
- 방등경 175
- 방등다라니경(方等陀羅尼經) 174
- 방등부(方等部) 393
- 방등시(方等時) 378, 401
- 방생(旁生) 416
- 방생(傍生) 508
- 방편(方便) 22
- 방편유여토(方便有餘土) 457
- 방편을 없애고 진실을 세운다[廢權立實]  
400
-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開權顯實]  
400
- 백계(百界) 486
- 백법론 86
- 백운화상어록 499
- 백일중구(百一衆具) 482
- 번뇌 210
- 번뇌도(煩惱道) 433
- 번뇌장(煩惱障) 256, 310, 315, 433
- 범망경 33
-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43, 275
-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  
記) 30, 42
- 범망경보살계본종요(梵網經菩薩戒本宗  
要) 275
-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43
- 범망계(梵網戒) 30, 42
- 범보친(梵輔天) 420
- 범부위(凡夫位) 407
- 범부의 지위[凡位] 428, 452
- 범수 40
- 범왕친(梵王天) 415
- 범위(凡位) 430
- 범음(梵音) 260
- 범인(凡人) 211
- 범천(梵天) 414
- 범행(梵行) 134
- 범계(法界) 34, 74, 169
- 범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 41
- 범계도인(法界圖印) 34
- 범계만 117
- 범계연기(法界緣起) 34, 36
- 범계연기설 36
- 범공(法空) 286, 309
- 범구문(法句文) 88
- 범기(法記) 41
- 범락(法樂) 108
- 범륜왕(法輪王) 595
- 범상(法常) 51
- 범상종(法相宗) 20, 27
- 범성(法性) 100, 169
- 범성신(法性身) 146
- 범수(法數) 75
- 범수문(法數門) 82
- 범수출체(法數出體) 75

법수출체문(法數出體門) 75  
 법신(法身) 108, 121, 217, 298, 407  
 법신대사(法身大士) 386  
 법신불(法身佛) 107  
 법안(法眼) 456  
 법운(法蘊) 78  
 법왕자주(法王子住) 454  
 법요(法要) 551  
 법운지(法雲地) 212, 459  
 법위(法位) 163  
 법융(法融) 38  
 법장(法藏) 20, 38  
 법족경(法足經) 334  
 법주(法主) 132  
 법집(法執) 292, 309, 323  
 법차별상위(法差別相違) 328  
 법처(法處) 73, 85  
 법해 40  
 법화(法華) 404  
 법화경(法華經) 117, 146, 399  
 법화경론(法華經論) 121  
 법화론(法華論) 133  
 법화문구(法華文句) 358, 475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 381  
 법화현문(法華玄文) 372  
 법화현의(法華玄義) 355, 358, 402, 460, 475  
 벽지불승 151  
 벽지불지(辟支佛地) 444  
 변(變) 350  
 변경종체(辨經宗體) 56, 59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52, 292, 304  
 변설(辨說) 89  
 변소진(辨所詮) 358  
 변역생사(變易生死) 134  
 변음일이(辨音一異) 75  
 변재(辨才) 88  
 변제정(邊際定) 151  
 변화신(變化身) 104  
 변화토(變化土) 110  
 별교(別敎) 33, 358, 382, 450, 470  
 별상념처(別相念處) 429, 436, 444  
 보덕(普德) 28  
 보리(菩提) 119, 299, 611  
 보리도(菩提道) 522  
 보리수(菩提樹) 112, 259, 260  
 보리유지 24  
 보림사 40  
 보명왕(普明王) 438  
 보법(普法)사상 32  
 보빙(報聘) 365  
 보살(菩薩) 129, 149, 211, 434, 443, 536  
 보살계(菩薩戒) 19, 30, 42  
 보살계 사상 43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43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30, 42  
 보살사상 19  
 보살성 136  
 보살승(菩薩乘) 63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316  
 보살장아비달마논의경(菩薩藏阿毗達摩論議經) 293  
 보살지(菩薩地) 444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140  
 보살처태경(菩薩處胎經) 199

보성론(寶性論) 94, 131  
 보소(寶所) 474  
 보시(布施) 572  
 보신(報身) 217, 459  
 보신불(報身佛) 147  
 보운원(寶雲院) 356  
 보위(寶位) 555  
 보인사(寶因寺) 188  
 보장(寶藏) 243  
 보장(報障) 256  
 보특가라(補特伽羅) 137, 141  
 보화(普化) 588  
 복인위(伏忍位) 453  
 본모(本母) 87, 318  
 본문을 바르게 풀이하는 것[正解本文]  
     255  
 본사(本師) 549  
 본영구유(本影俱有) 95, 96  
 본영유무(本影有無) 75  
 본주법(本住法) 100  
 본질과 그림자가 있고 없음[本影有無]  
     92  
 본체(本體) 294  
 부도(不盜) 419  
 부도씨(浮圖氏) 547  
 부동지(不動地) 459  
 부란나 263  
 부분적으로 청정함[分淨] 295  
 부사의(不思議) 397  
 부석사 35, 38  
 부습윤생(扶習潤生) 444  
 부율담상교(扶律談常敎) 407  
 부정과(不定過) 325  
 부정관(不淨觀) 429  
 부정교(不定敎) 382  
 부정성(不定姓) 146  
 부정종성(不定種姓) 117  
 부종계충(扶宗繼忠) 368  
 부처가 같지 않은 것을 봄[見聖不同] 217  
 부처님 일대의 교화 372  
 부처님 일대의 교화[一化] 366  
 부처님 일대의 성스러운 가르침[一代聖敎] 377  
 부처님을 답한 것[答佛] 224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하는 시기[末世]  
     406  
 부처님의 지위[佛地] 459  
 부촉(付囑) 545  
 부파(部派) 23  
 북량(北凉) 187  
 분과 162  
 분교(分敎) 33  
 분단(分段) 446  
 분단생사(分段生死) 134, 212  
 분별상사과(分別相似過) 327  
 분별선악보응경(分別善惡報應經) 569  
 분소의(糞掃衣) 481  
 분위(分位) 113  
 분증즉(分證卽) 476  
 불공(不空) 284  
 불과(佛果) 117, 309, 440, 525  
 불과위(佛果位) 452  
 불괴(不壞) 457  
 불국토 112  
 불국토[諸土] 106  
 불도(佛道) 321, 607

불래(不來) 431  
 불롱산(佛隴山) 367  
 불림열반기법주경(佛臨涅槃記法住經)  
     299  
 불망어(不妄語) 419  
 불바제(弗婆提) 418  
 불법(佛法) 62  
 불변(不變) 31  
 불보(佛寶) 303  
 불본행경(佛本行經) 202  
 불사(佛事) 112  
 불사불(弗沙佛) 439  
 불사음(不邪淫) 419  
 불살(不殺) 419  
 불살생(不殺生) 563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술찬(佛說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述贊) 161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  
     行法經) 468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  
     羅蜜經) 471  
 불성론 19  
 불승(佛乘) 120, 147  
 불씨잡변(佛氏雜辨) 529  
 불음주(不飲酒) 419  
 불이(不二) 60  
 불이법문(不二法門) 465  
 불인(不仁) 558  
 불조통기(佛祖統紀) 362, 372  
 불지(佛地) 445  
 불지경론(佛地經論) 143  
 불지론(佛地論) 110, 112, 285  
 불퇴위 470  
 불퇴주(不退住) 454

불환희일(정월 15일) 374  
 봉새 513  
 비니어(毗尼語) 87  
 비니장(毘尼藏) 412  
 비밀교(秘密敎) 382  
 비바사론(毗婆娑論) 93, 196  
 비바시불(毗婆尸佛) 265, 437  
 비사바불(毗舍婆佛) 266  
 비원(悲願) 148  
 비택멸(非擇滅) 85  
 빈객시사(賓客寺事) 529  
 빗장과 자물쇠[關鑰] 372  
 빛을 비추어 제도할 수 있게 이끄는 것  
     [放光引可度] 260



사(事) 148  
 사가라용왕 465  
 사공처천(四空處天) 415  
 사교(四敎) 33, 358  
 사교의(四敎義) 358  
 사구(飼估) 225  
 4구(四句) 292  
 사념처(四念處) 423  
 사다함(斯陀含) 431  
 사대(四大) 76  
 4대종(大種) 85  
 사람들이 서로 화목함[人民相和] 225  
 사람의 무리를 답한 것[答徒衆] 224  
 사랑식(思量識) 342  
 사려치(閻黎哆) 417

사리불(舍利弗) 179, 259, 395  
 사리불이 청을 내는 것[鶖子發請分] 259  
 사명(四明) 367  
 사명지반(四明志磐) 372  
 사문(沙門) 59, 518  
 사미과제 263  
 사민(四民) 572, 607  
 사번뇌(思煩惱) 393  
 사부제자(四部弟子) 215  
 사분율(四分律) 42, 65  
 사사(四事) 246  
 4상(四相) 515  
 4생(四生) 502  
 사선근(四善根) 444  
 사선근위(四善根位) 430  
 사선천(四禪天) 420, 414  
 4성제(四聖諦) 538  
 4시 401  
 사실단의(四悉檀義) 358  
 41위(位) 386  
 4아함(阿含) 378  
 사악취(四惡趣) 414  
 사여의족(四如意足) 424  
 4열반(四涅槃) 295  
 사위(似位) 447  
 사위의(四威儀) 514  
 사익경(思益經) 378  
 사자후(師子吼) 123  
 사정(邪定) 138, 139  
 사정근(四正勤) 423  
 사정취(邪定聚) 143  
 4제(四諦) 413, 421  
 4제법륜(四諦法輪) 63

사주(四洲) 414, 418  
 사주(四住) 363  
 4지(四智) 170, 299, 300, 552  
 사지심품(四智心品) 121  
 사직(社稷) 603  
 사참(事懺) 467  
 사천왕천(四天王天) 206, 419  
 사현(似現) 350  
 사혹(思惑) 421, 444  
 사홍서원(四弘誓願) 487  
 산선(散善) 237  
 살바다부(薩婆多部) 322, 324  
 살바다종(薩婆多宗) 72, 77, 86  
 삼각산(三角山) 563  
 삼거(三車) 403  
 삼경(三更) 514  
 삼계(三界) 421, 451, 520  
 삼계유심 만법유식(三界唯心 萬法唯識)  
 28  
 삼과(三科) 72  
 삼관(三觀) 467, 488  
 삼관의(三觀義) 358  
 삼관일심(三觀一心) 488  
 삼국유사 273  
 3대 31, 600  
 삼덕(三德) 458, 472  
 삼독(三毒) 233  
 삼론학 20  
 삼마발제(三摩跋提) 133  
 삼매(三昧) 135, 210, 545  
 삼매락문(三昧樂門) 151  
 삼매락정(三昧樂定) 134  
 3명(三明) 551

삼무성(三無性) 115  
 삼미륵경소 160  
 삼법륜(三法輪) 62  
 삼법정체문(三法定體門) 72  
 삼법품(三法品) 72  
 삼보(三寶) 524  
 삼선천 420  
 삼성(三性) 60, 105  
 삼성삼무성설 52  
 삼성설(三性說) 52  
 삼세(三世) 232, 591  
 삼세겁 32  
 삼세제불 32  
 삼수도하(三獸渡河) 445  
 삼승(三乘) 33, 120, 390, 402, 537  
 삼승도(三乘道) 128  
 삼승통교(三乘通敎) 444  
 삼시(三時)교관 23  
 삼신(三身) 106, 108  
 삼신론(三身論) 94  
 34심 439  
 삼십삼천(三十三天) 206, 241  
 37도품(三十七道品) 78, 423  
 3아승기겁(阿僧祇劫) 435  
 3악도(三惡道) 501, 509  
 삼업(三業) 294  
 삼왕(三王) 593, 595  
 삼의(三衣) 481  
 삼의일발(三衣一鉢) 35  
 삼장(三藏) 331, 408, 539  
 삼장교(三藏敎) 363, 393  
 삼장십이부(三藏十二部) 611  
 삼전의(三轉依) 314  
 삼제(三諦) 467  
 삼주설법(三周說法) 408  
 삼천성상(三千性相) 486  
 삼취(三聚) 139  
 삼학(三學) 42  
 삼행(三行) 147  
 삼현십성(三賢十聖) 461  
 삼혹(三惑) 488  
 상(相) 99, 100  
 상(相)·성(性)·위(位) 277  
 상거(蟻法) 235, 243  
 상경(常境) 467  
 상근기 482  
 상대하여 설하고 끼워 설함[兼但對帶]  
 402  
 상도(常道) 548, 551  
 상락아정(常樂我淨) 124  
 상만(上慢) 476  
 상법(常法) 566  
 상변(常邊) 286  
 상분(相分) 69, 331, 344  
 상사리(尙闇梨) 439  
 상사즉(相似卽) 476, 490  
 상생(上生)신앙 160  
 상생경술찬 161  
 상속해탈경(相續解脫經) 87  
 상온(想蘊) 423  
 상위의 8지[上八地] 431  
 상이계(上二界) 421  
 상인위(上忍位) 439  
 상적광토(常寂光土) 475  
 상즉상입(相卽相入) 34  
 상지(常智) 467

- 상품(上品) 221, 416  
 상호(相好) 437  
 색(色) 482  
 색구경천(色究竟天) 420  
 색신(色身) 105  
 색심(色心) 105  
 색애주지(色愛住地) 471  
 색온(色蘊) 72, 78, 423  
 생(生) 434  
 생공(生空) 309  
 생귀주(生貴住) 454  
 생멸(生滅) 31, 425  
 생멸사제(生滅四諦) 413  
 생사(生死) 615  
 생사대사(生死大事) 504  
 생소(生酥) 394  
 생신불(生身佛) 107  
 생집(生執) 310  
 서경(書經) 557, 574, 598  
 서(徐)나라 596  
 서로 달리 이해하는 의견[異計] 366, 372  
 서명사(西明寺) 22, 51, 59  
 서분(序分) 190  
 서역(西域) 594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서즐(鼠啣) 469  
 서진(西晉) 189  
 석가(釋迦) 205, 615  
 석가모니의위신경(釋迦牟尼以衣爲信經) 256  
 석사교명(釋四教名) 358  
 석충(釋忠) 27  
 선견천(善見天) 420  
 선계경(善戒經) 136, 139  
 선관(禪觀) 492  
 선교안심지관(善巧安心止觀) 487  
 선굴(禪窟) 248  
 선근(善根) 125  
 선남자 139  
 선법(善法) 141, 611  
 선법행(善法行) 456  
 선사(禪師) 563  
 선삼매성(禪三昧城) 134  
 선악(善惡) 577  
 선여인 139  
 선왕(先王) 556  
 선인(善因) 141  
 선정(禪定) 511  
 선종영가집과주설의(禪宗永嘉集科註說誼) 530  
 선주(善珠) 274  
 선지식 139, 482  
 선취(善趣) 140  
 선현천(善現天) 420  
 선현행(善現行) 455  
 선혜지(善慧地) 459  
 설명된 것[所詮] 222  
 설명하는 것[能詮] 222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 89  
 설법품(說法品) 470  
 설산(雪山) 511, 550  
 설산대사(雪山大士) 481  
 설일체유부 336, 339  
 설출세부(說出世部) 93  
 설하는 것[能說] 222  
 설한 뜻[來意] 221

- 설해진 것[所說] 222  
 섭부(贍部) 195  
 섭대승론(攝大乘論) 21, 24, 104, 126, 339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 333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82, 305, 333  
 섭론(攝論) 21  
 섭망귀진문(攝妄歸真門) 68, 71  
 섭상귀식문(攝相歸識門) 71  
 섭수(攝受) 299  
 섭중(攝衆) 264  
 섭지(攝持) 66  
 성(聲) 68, 483  
 성(性) 85, 100  
 성계(聲界) 73, 74  
 성교(聖敎) 202  
 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 276, 294  
 성기(性起) 37  
 성도(聖道) 115, 127  
 성량(聲量) 88  
 성론(聲論) 76  
 성문(聲聞) 119, 251, 389, 392, 443  
 성문승(聲聞乘) 62, 115, 139  
 성상(性相) 26  
 성상의 대립 274  
 성상화해 279  
 성실론(成實論) 335, 339  
 성위(聖位) 451  
 성유식론(成唯識論) 54, 69, 285  
 성유식론본모승(成唯識論本母頌) 276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 52, 302  
 성유식론술기 303, 340  
 성유식론요의등(成唯識論了義燈) 54, 318  
 성유식론요집(成唯識論要集) 24  
 성유식론장중추요 303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26, 273, 275  
 성인의 지위[聖位] 429, 452  
 성전사원(成典寺院) 19  
 성정열반(性淨涅槃) 296  
 성제(聲諦) 75  
 성종(性宗) 274  
 성종성(性種性) 456  
 성종성(聖種性) 458  
 성지(性地) 444  
 성지위(性地位) 453  
 성처(聲處) 73, 84, 85  
 세 가지 근[三根] 127  
 세 가지 때[三時] 390  
 세 가지 맛[三味] 390  
 세 가지 바퀴[三輪] 397  
 세 가지 분위[三分] 351  
 세간(世間) 94, 119  
 세계를 움직여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  
[動世界怖魔] 260  
 세속문(世俗門) 330  
 세속제(世俗諦) 286, 339  
 세제일위(世第一位) 430, 439  
 세존(世尊) 586  
 세친(世親) 275, 276, 308  
 셋을 모아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會三歸一] 400  
 소(蘇) 124  
 소과(小果) 119  
 소달람(素怛纒) 64  
 소림굴(少林窟) 511



소변상(所變相) 105  
 소분(少分) 146  
 소승(小乘) 358  
 소승계 30  
 소왕(昭王) 600  
 소요자적(逍遙自適) 588  
 소의(所依) 90  
 소진(所詮) 66  
 소지(所知) 330  
 소지장(所知障) 311, 315  
 소취(所取) 326  
 소학(小學) 547, 610  
 소행(小行) 119  
 속(俗) 31  
 속제(俗諦) 282, 287, 320, 456, 472  
 송낙(松落) 508  
 수(受) 152, 433  
 수(隋) 19  
 수(隋)나라 377  
 수광(水光) 223  
 수기(授記) 129, 149, 408, 473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 174, 192  
 수다라(修多羅) 387  
 수다라어(脩多羅語, 경) 87  
 수다라장(修多羅藏) 411  
 수다원(須陀洹) 135, 431  
 수다원과(須陀洹果) 453  
 수달나 263  
 수도(授道) 264  
 수도위(修道位) 431  
 수론(數論) 320  
 수론외도(數論外道) 75  
 수뢰타(須賴託) 243  
 수뢰타대국 235  
 수번뇌(隨煩惱) 132  
 수보리(須菩提) 395  
 수식관(數息觀) 429  
 수십전설 37  
 수연(隨緣) 31  
 수엽불(隨葉佛) 268  
 수온(受蘊) 423  
 수용신(受用身) 104, 108  
 수용토(受用土) 110  
 수인(脩因) 186  
 수장(水葬) 588  
 수장보(守藏寶) 240  
 수진천자소문경(須眞天子所問經) 125  
 수행 계위[行位] 357  
 수행(修行) 36  
 수행인[行人] 357  
 수행주(修行住) 453  
 수희(隨喜) 467, 469  
 숙소(熟酥) 395, 404  
 숙종(宿種) 543  
 순(舜)임금 597  
 순경(順璟) 24, 278  
 순경(順憬) 290  
 순세외도(順世外道) 76  
 순정리론(順正理論) 79, 80  
 승제 27  
 습기(習氣) 312  
 습종성(習種性) 454  
 승(乘) 140  
 승가사(僧伽寺) 563  
 승론종(勝論宗) 75  
 승만경(勝鬘經) 116, 134, 139, 379

승변(僧辯) 51  
 승보(僧寶) 303  
 승사(僧史) 362  
 승의생(勝義生) 115  
 승의제(勝義諦) 96, 286, 287, 330  
 승장 24  
 승전(勝詮) 39  
 승지(勝地) 458  
 승통(僧統) 362  
 승해행지(勝解行地) 212  
 시경(詩經) 559, 577  
 시기불(尸棄佛) 266, 436  
 시록림(施鹿林) 62  
 시방정토 37  
 시변(時邊) 141  
 시분천(時分天) 206  
 시비왕(尸毘王) 438  
 시호 19  
 식(識) 21, 69, 328, 433  
 식능변(識能變) 277  
 식불(式佛) 268  
 식상(識相) 105  
 식상차별문(識相差別門) 71  
 식설(識說) 52  
 식온(識蘊) 423  
 식통색(識通塞) 488  
 신림(神琳) 38  
 신묘한 변화[神變] 224  
 신방 24  
 신성한 무덕[神武] 565  
 신아(神我) 348  
 신앙 27  
 신유식 22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30, 356  
 싯달(悉達) 549  
 싯보무장애토(實報無障礙土) 474  
 싯유(實有) 325  
 싯차난타 52  
 싯체[實]·속성[德]·행위[業] 347  
 심(心) 349  
 심밀해탈경(深密解脫經) 87, 138  
 심법(心法) 325  
 심분(心分) 350  
 심상(審祥) 39  
 심생멸(心生滅) 31  
 심소(心所) 336  
 심소법(心所法) 85, 325  
 심왕(心王) 85, 336  
 심인(尋因) 264  
 심전(心田) 573  
 심지(心地) 27  
 심지(心志) 569  
 심진여(心眞如) 31  
 십대제자 38  
 십대지(十大地) 338  
 십륜경(十輪經) 140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29  
 십선(十善) 532, 538, 541, 596  
 십선법(十善法) 163  
 십승관법(十乘觀法) 358, 486  
 십신 476  
 십신위(十信位) 448, 453, 470, 151  
 십악행(十惡行) 468  
 12부경(十二部經) 79, 388  
 12유순(由旬) 223

12인연(十二因緣) 433, 488, 538, 596  
 12처 73, 84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 86  
 십주위(十住位) 453  
 십중대계(十重大戒) 563  
 10지(十地) 296, 443  
 십지경론 89  
 십지위(十地位) 452, 458  
 십천겁 149  
 18계 73  
 십행위(十行位) 455  
 십회향위(十廻向位) 408, 448, 451, 457

아견(我見) 313, 323  
 아공(我空) 286  
 아귀도(餓鬼道) 417  
 아나함(阿那含) 431  
 아난(阿難) 607  
 아녹다라삼막삼보리 137, 195, 259  
 아녹보리(阿耨菩提) 545  
 아라한(阿羅漢) 246, 432  
 아뢰야식[阿賴耶識] 21  
 아미타불 517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323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337  
 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82, 338  
 아비담장(阿毘曇藏) 411  
 아상(我相) 506, 516

아수라도(阿修羅道) 418  
 아주(鵝珠)비구 558  
 아집(我執) 309  
 아타나식(阿陀那識) 335  
 아함시 393  
 악도(惡道) 127  
 악취(惡趣) 502  
 악취공(惡取空) 287, 322  
 안사(安史)의 난 365  
 안식(眼識) 331  
 안식대상[所緣] 141  
 안양후(安陽侯) 187  
 안연(顏淵) 608  
 안혜(安慧) 306, 308, 351  
 안혜종(安慧宗) 310  
 안회(顏回) 599  
 앙굴마라경(央掘摩羅經) 139  
 애(愛) 433  
 애욕(愛欲) 548  
 애주지(欲愛住地) 471  
 야마천(夜摩天) 420  
 야운각우(野雲覺玆) 495  
 약관심(約觀心) 358  
 약사본원경고적기(藥師本願經古迹記) 275  
 약의 맛을 구별 383  
 약의 처방 383  
 양(陽) 577  
 양호(羊祜) 579  
 어언설법(語言說法) 110  
 어업(語業) 81  
 업(業) 564  
 업감(業感) 580

업도(業道) 433  
 업설 19  
 업장(業障) 256, 433  
 여래(如來) 138, 386  
 여래승 115  
 여래장(如來藏) 19, 24, 123, 146  
 여색 517  
 여섯 가지 509  
 여섯 가지 바라밀[六度] 391  
 여섯 가지 크게 불길한 일[六極] 574  
 여의주(如意珠) 238  
 연각(緣覺) 119, 149, 392, 443  
 연기(緣起) 34, 40, 169  
 연등불(然燈佛) 436  
 연범음중득익(演梵音衆得益) 260  
 연인성(緣因性) 473  
 연화대 517  
 열 가지 선행[十善] 418  
 열 가지 악행[十惡] 416  
 열두 가지 인연법[十二因緣] 391  
 열반(涅槃) 115, 134, 145, 287, 544  
 열반경(涅槃經) 123, 388  
 열반성 134  
 열반적정(涅槃寂靜) 94  
 열반학 20  
 열응신(劣應身) 391 496  
 염(念) 484  
 염구(染垢) 537  
 염라왕 517  
 염부제(閻浮提) 178, 195  
 염불관(念佛觀) 429  
 염불퇴(念不退) 474  
 염혜지(焰慧地) 458

엽화(葉華) 223  
 영가집(永嘉集) 355, 363  
 영락경 33  
 영명(靈明) 580  
 영심(永深) 27  
 예류(預流) 149, 151, 347  
 예류(豫流) 431  
 예배하는 문[禮拜門] 215  
 예참(禮懺) 371  
 5경(境) 85  
 오계(五戒) 532, 538, 541, 596  
 5계위 275  
 5교(五敎) 358  
 오근(五根) 85, 127, 334, 424  
 오근[五門] 336  
 오근생식경(五根生識經) 334  
 오나함천(五那含天) 415  
 5덕(五德) 608  
 오력(五力) 424  
 5미(五味) 381  
 오백문론(五百門論) 356  
 오백세 418  
 오분법신(五分法身) 107  
 오분율(五分律) 202  
 오상(五常) 418, 532, 541  
 오성(五姓) 136  
 오성각별 122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 24, 56  
 오승(五乘) 532, 537  
 오승성(五乘性) 125  
 오시팔교(五時八敎) 356, 358, 377  
 5식(前五識) 21  
 52위 407, 451

오역(五逆) 256, 416  
 오역죄(五逆罪) 468  
 오온(五蘊) 73, 320, 587  
 오월(吳越) 355, 362, 579  
 오정심(五停心) 429, 436, 444, 489  
 오제(五帝) 594, 595  
 오주(五住) 470  
 5지(五地) 313  
 오척신(五尺身) 39  
 오탁악세(五濁惡世) 256  
 오품위(五品位) 466, 489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 466  
 오행(五行) 452  
 옥토끼 525  
 온(蘊) 72, 121  
 온(蘊)·처(處)·계(界) 347  
 옷 510  
 옹중(禺中) 395  
 와서 물음에 답하는 것[來酬答分] 259  
 왕과 신하가 매우 선함[王臣勝善] 225  
 왕사성(王舍城) 225  
 왕생(往生) 29, 211, 585, 587  
 왕후(王侯) 554  
 외도(外道) 77  
 외범(外凡) 429  
 외범위(外凡位) 444, 452  
 외부 대상[外境] 324  
 외집(外執) 345  
 요(堯)임금 597  
 요별(了別) 350  
 요별경식(了別境識) 343  
 요순(堯舜) 562  
 요의대승(了義大乘) 63  
 요익행(饒益行) 455  
 요인성(了因性) 473  
 요체[體] 169, 181  
 욕(欲) 484  
 욕계(欲界) 421  
 욕애주지(欲愛住地) 471  
 용군(龍軍) 94  
 용맹종(龍猛宗) 85  
 용화삼회(龍華三會) 163  
 용화수(龍華樹) 260  
 용수(龍樹)대사 61  
 용장사(茸長寺) 273  
 우(禹)임금 570  
 우단월(優單越) 230  
 우담발화(憂曇鉢華) 239  
 우바리(優婆離)존자 179  
 우왕(禹王) 597  
 우유[乳] 124  
 운제사 22, 51  
 울단월(鬱單越) 245, 419  
 웅이산(熊耳山) 588  
 원각경(圓覺經) 611  
 원각경설의(圓覺經說誼) 530  
 원건립중생(圓建立衆生) 464  
 원광(圓光) 21  
 원교(圓教) 358, 382, 463  
 원단(圓斷) 464  
 원돈(圓頓) 464  
 원리행(遠離行) 546  
 원만(圓滿) 463  
 원만한 가르침[圓教] 34  
 원만한 경 387  
 원만히 청정함[滿淨] 295

원묘(圓妙) 463  
 원복(圓伏) 464  
 원성실성(圓成實性) 286, 304  
 원신(圓信) 464  
 원위(圓位) 464  
 원을 짓는 문[作願門] 216  
 원음(圓音) 60  
 원자재(圓自在) 464  
 원장엄(圓莊嚴) 464  
 원적(圓寂) 299  
 원족(圓足) 464  
 원측(圓測) 20, 22, 51, 59, 274, 288  
 원택(圓澤) 578  
 원표 40  
 원행(圓行) 464  
 원행지(遠行地) 212, 458  
 원헌(原憲) 599  
 원효(元曉) 20, 24, 28, 38, 163, 293  
 월장보살(月藏菩薩) 95  
 위의(威儀) 112, 210, 569  
 위징(魏徵) 601  
 유(有) 23, 170, 434  
 유(幽) 598  
 유가계 26, 42  
 유가론(瑜伽論) 24, 132, 137, 140, 206  
 유가론기(瑜伽論記) 24  
 유가론소(瑜伽論疏) 52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70, 196, 302  
 유가사지론석(瑜伽師地論釋) 341  
 유가석론(瑜伽釋論) 119  
 유가설(由假說) 345  
 유공용도(有功用道) 459  
 유교경론(遺敎經論) 504

유근신(有根身) 150  
 유루(有漏) 92, 105, 106  
 유루법(有漏法) 93  
 유마경(維摩經) 68, 89, 102, 113, 358, 378  
 유마힐소설경 89  
 유문불명자결정득면팔난경(有聞佛名者  
 決定得免八難經) 256  
 유법자상상위(有法自相相違) 328  
 유본무영(有本無影) 92  
 유분별지(有分別智) 458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 531  
 유수장자(流水長者) 369  
 유식(唯識) 19, 30, 61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275  
 유식성(唯識性) 295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 349  
 유애주지(有愛住地) 471  
 유여(有餘) 134  
 유여열반(有餘涅槃) 317, 432  
 유영무본(有影無本) 94  
 유위(有爲) 281  
 유위공덕(有爲功德) 299  
 유위법(有爲法) 283, 337  
 유위불(惟衛佛) 267  
 유위심(有爲心) 113  
 유정(有情) 115, 142, 287, 347  
 유치(由致) 67  
 유학(有學) 316  
 육경(六境) 232  
 6구의(六句義) 321  
 6근(六根) 587  
 육근위 489  
 육단심(肉團心) 577

육도(六道) 415, 521  
 육도(六度) 539  
 육바라밀(六波羅蜜) 489, 596  
 육바라밀행[六度行] 435  
 육상설 37  
 육시(六時) 192  
 육신통 210  
 육욕천(六欲天) 237, 414  
 6 의식(意識) 21  
 육입(六入) 433  
 6적(六賊) 502  
 육조(六祖) 588  
 육즉(六卽) 475  
 6지(六地) 313  
 육통(六通) 86, 551  
 육폐(六蔽) 488  
 6화(六和) 608  
 윤회(輪廻) 548  
 윤회사상 19  
 율(律) 42  
 융통무애 32  
 으뜸으로 여기는 도리[宗途] 372  
 은(慇) 233  
 은(殷) 600  
 음(陰) 577  
 응보(應報) 564, 572, 573, 577  
 응신(應身) 217  
 응화성문(應化聲聞) 129  
 의(意) 350  
 의(疑) 483  
 의견[異計] 366  
 의문정석(依文正釋) 56, 59  
 의미[義] 90  
 의보(依報) 179, 186, 413  
 의보의 수승함을 분별함[依報勝] 237  
 의사업(意思業) 333  
 의삼명(義三名) 298  
 의상(義相) 34  
 의적(義寂) 25, 43, 278, 355, 363  
 의적(儀狄) 570  
 의정 24  
 의주석(依主釋) 66, 222  
 의천(義天) 356  
 의타기성(依他起性) 52, 304  
 의통(義通) 356  
 의학(義學) 264  
 이 능변[此能變] 344  
 이(理) 148  
 이가중실문(以假從實門) 70, 71  
 이공(二空)의 진여(眞如) 319  
 이과(二果) 316  
 이근(利根) 447  
 이라발(伊羅鉢) 243  
 이력(履歷) 499  
 이름을 해석함[釋名] 221  
 이문(二門) 31  
 이문징기(以問徵起) 341  
 이변(二邊) 296  
 이부종륜론(異部宗輪論) 321  
 이사(理事) 170  
 이사(利使) 421  
 이사달다 263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가르침[拈拾教] 406  
 이생(異生) 316  
 이선천 420

이성(理性) 54, 123  
 이숙(異熟) 143  
 이숙식(異熟識) 342  
 이순풍(李淳風) 601  
 이승(二乘) 120, 193, 211, 312, 402, 537  
 이승도(二乘道) 213  
 이승열반(二乘涅槃) 297  
 이신(二身) 105  
 25가지 세계[二十五有] 413  
 25방편 357  
 25유(二十五有) 123  
 25제(二十五諦) 321  
 28번뇌 422  
 이열(羸劣) 313  
 이요유정문(利樂有情問) 341  
 이욕지(離欲地) 444  
 이원(李源) 578  
 이이상즉설(理理相卽說) 37  
 이일(理一) 403  
 이장(理障) 170  
 이제(二諦) 61, 287  
 이즉(理卽) 475  
 이지(二地) 147  
 2지(二智) 299  
 이참(理懺) 467  
 이치[理] 60  
 이타행(利他行) 36, 42  
 이판지(已辦地) 444  
 인과(因果) 180  
 인과법(因果法) 543  
 인도(人道) 237, 418  
 인력(忍力) 546  
 인명(因明) 25  
 인상(人相) 506, 516  
 인연관(因緣觀) 429  
 인연을 닦을 것을 권함[勸修因] 224  
 인왕경(仁王經) 88, 89, 471  
 인왕경소 52, 356  
 인위(忍位) 128, 430  
 인위(因位) 300, 452  
 인의(仁義) 606  
 인일(人一) 402  
 인지(因地) 299  
 인천도(人天道) 128  
 인천성(人天性) 139  
 일곱 453  
 일념(一念) 214  
 일념심(一念心) 486  
 일래(一來) 347, 431  
 일미(一味) 124  
 일미관행(一味觀行) 29  
 일불승(一佛乘) 492  
 일생보살(一生菩薩) 213  
 일생보처(一生補處) 459, 474  
 일설부(一說部) 93  
 일성개성 53, 122  
 일승(一乘) 33, 119, 502  
 일승문(一乘門) 121  
 일승법 402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34  
 일심(一心) 31, 32, 37, 170, 484  
 일심오행(一心五行) 465  
 일심이문(一心二門) 29  
 일중겁(一中劫) 208  
 일중다(一中多) 36  
 일즉다(一卽多) 36



일찰나 32  
 일천제(一闡提) 24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 53  
 일체법(一切法) 100, 173, 283  
 일체의 아는 경계[一切所知境界] 90  
 일체중생단오역업장보장번뇌장수습자  
 심여미륵공행경(一切衆生斷五逆業障  
 報障煩惱障修習慈心與彌勒共行經) 256  
 일체중생문미륵불명필면오탁세불수악  
 도경(一切衆生聞彌勒佛名必免五濁世  
 不隨惡道經) 256  
 일체지(一切智) 455  
 일체지광선인자심경(一切智光仙人慈心  
 經) 198, 201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 137  
 입법계무량(入法界無量) 457  
 입세경(立世經) 196  
 입의(立義) 366  
 입일체평등선근(入一切平等善根) 457

지수용신 109  
 자승(自乘) 118  
 자심불식육경(慈心不食肉經) 256  
 자심인연불식육경(慈心因緣不食肉經)  
 561  
 자은학과 55  
 자장(慈藏) 21  
 자증분(自證分) 69  
 자찬훼타계 43  
 자체(自體) 343, 344  
 잘못을 가려내는 인연[簡擇非因] 215  
 잘못을 예방하는 인연[防非因] 214  
 잡심론(雜心論) 77, 200  
 잡집론(雜集論) 72  
 장경(藏經) 371  
 장교(藏敎) 358, 382, 421, 470  
 장륙(丈六) 390  
 장아함경 192, 233  
 장안 22  
 장안관정(章安灌頂) 359  
 장애가 없는 국토[實報無障閼土] 458  
 장엄론(莊嚴論) 141, 339  
 장행(長行) 78  
 재(宰) 345  
 재가(在家) 545  
 재계(齋戒) 210, 571, 548  
 재물 517  
 적멸(寂滅) 118, 138, 609, 611  
 적멸도량(寂滅道場) 386, 390  
 적인(狄人) 596  
 적자(嫡子) 550  
 적종(寂宗) 150  
 전5식(前五識) 310

자경문 497  
 자득법(自得法) 99  
 자량(資糧) 213  
 자량위(資糧位) 430  
 자리행(自利行) 36  
 자박(子縛) 432  
 자비관(慈悲觀) 429  
 자비량(自比量) 326  
 자비살생 43  
 자상(自相) 101  
 자성(自性) 83, 286, 337

ㄸ

전교십찰(傳敎十刹) 39  
 전기(轉起) 346  
 전단(梅檀) 239  
 전륜성왕(轉輪聖王) 237  
 전법륜(轉法輪) 96  
 전변(轉變) 70, 128  
 전의(轉依) 152, 300  
 전적(典籍) 371  
 점교(漸敎) 193, 382  
 점찰법(占察法) 27  
 접인(接引) 62  
 정(定) 42  
 정각(正覺) 523  
 정광대사(淨光大師) 367  
 정구(淨垢) 538  
 정굴(靜窟) 248  
 정궁(淨宮) 60  
 정근(定根) 148  
 정도삼매경(淨度三昧經) 231  
 정도전(鄭道傳) 529  
 정량(定量) 104  
 정량부(正量部) 322  
 정명경(淨名經) 393  
 정명현의(淨名玄義) 358  
 정법(正法) 172  
 정법화경 149  
 정보(正報) 180, 186, 413  
 정보의 수승함을 분별함[辨正報勝] 237  
 정사(正使) 444  
 정성이생(定性離生) 140  
 정성이승(定性二乘) 116, 136, 145  
 정심주(正心住) 454  
 정업당(淨業堂) 371  
 정위(頂位) 127, 430  
 정의(正義) 81, 82  
 정의경(定意經) 201  
 정인성(正因性) 473  
 정정(正定) 138, 139  
 정종분(正宗分) 172  
 정진(精進) 484  
 정토 29  
 정토신앙 38  
 정행육도품(正行六度品) 470  
 정혜원(定慧院) 367  
 제(齊)나라 190, 596  
 제2 마나식 278  
 제3 능변인 278  
 제3과 420  
 제6식(第六識) 311  
 제7 마나식[末那識] 21  
 제7식(第七識) 311  
 제8식(第八識) 275, 310  
 제9 아말라식[阿摩羅識] 21, 52  
 제관(諦觀) 355  
 제도(濟度) 551  
 제명분별문(題名分別門) 275, 276, 281  
 제목을 해석하는 것[釋題目] 255  
 제일의(第一義) 78  
 제호(醍醐) 404  
 조공(鳥空) 469  
 조면(調眠) 484  
 조법륜(照法輪) 96  
 조복(調伏) 87  
 조사선(祖師禪) 519  
 조술(祖述) 593  
 조식(調息) 484

조식(調食) 484  
 조신(調身) 484  
 조심(調心) 484  
 조오사(調五事) 480  
 조회(朝會) 554  
 존자(尊者) 150  
 증가입공관(從假入空觀) 455  
 종공입가관(從空入假觀) 456  
 중남산 22, 51  
 중성 140, 142  
 중성인(種姓人) 137  
 종심(趙州從稔) 선사 603  
 종의(宗義) 331  
 종자(種子) 312  
 종자의(種子義) 277  
 종지(宗旨) 181, 276, 358  
 종지[宗] 169  
 주(紂) 598  
 주(周) 600  
 주(肘) 239  
 주는 자[能受] 222  
 주병보(主兵寶) 240  
 주야육시(晝夜六時) 468  
 주역(周易) 565, 573, 592  
 주역전의(周易傳義) 542, 565, 573, 592, 611, 612, 615  
 주작문(朱雀門) 448  
 주장보(主藏寶) 240  
 주재(主宰) 344  
 주지 471  
 주처(住處) 149  
 중(中) 36, 467  
 중겁(中劫) 201

중과(中果) 119  
 중관(中觀) 19, 30  
 중도(中道) 23, 286, 458  
 중도사상 37  
 중변론(中邊論) 182  
 중생 146  
 중아함경(中阿含經) 561  
 중역(重譯) 187  
 중용(中庸) 560, 613  
 중인위(中忍位) 439  
 중중무진(重重無盡) 34  
 중합(衆合) 지옥 207  
 중행(中行) 119  
 중현(衆賢) 82  
 즉(卽) 36  
 증과(證果) 308, 357, 446  
 증상만(增上慢) 489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 129, 149  
 증신서(證信序) 162  
 증의(證義) 52  
 증일아함경 192, 233  
 지(地) 309  
 지(持) 345  
 지각(智覺) 369  
 지각(知覺) 575  
 지단(智斷) 319  
 지론(地論) 21  
 지론소(智論疏) 356  
 지반(志磐) 362  
 지법륜(持法輪) 96  
 지상대중(地上大衆) 110  
 지의(智顗) 20, 355  
 지일체처(至一切處) 457

지전대중(地前大衆) 110  
 지족천(知足天) 207  
 지지경(地持經) 137  
 지지론(地持論) 137  
 지차위(知次位) 489  
 지통(智通) 38  
 지혜 40  
 지혜 298  
 지혜안 473  
 지혜의 광명[智慧光] 215  
 지혜의 명[慧命] 407  
 직녀(織女) 508  
 진(晉) 188  
 진(眞) 31  
 진(秦)나라 599  
 진각(眞覺)스님 371  
 진각국사어록 499  
 진기(眞記) 41  
 진나(陳那) 25, 351  
 진덕왕(眞德王) 601  
 진리[滅諦] 422  
 진망차별문(眞妄差別門) 71  
 진명(眞明) 577  
 진사(眞使) 422  
 진사혹(塵沙惑) 454  
 진성(眞性) 60, 283, 286, 288  
 진속(眞俗) 53  
 진식(眞識) 21  
 진신(眞身) 217  
 진실로 상주함[眞常] 406  
 진실행(眞實行) 456  
 진예(眞惠) 483  
 진여(眞如) 31, 94, 287, 407

진여상(眞如相) 457  
 진여지(眞如智) 94  
 진위(眞位) 448  
 진유(眞有) 330  
 진정(眞定) 38  
 진정발보리심(眞正發菩提心) 358, 487  
 진정한 해탈[眞解脫] 318  
 진제(眞際) 170  
 진제(眞諦) 122, 282, 320, 455  
 진지등불(眞智等佛) 317  
 진표(眞表) 27  
 집제(集諦) 421, 422, 434, 488  
 (사교의) 집주(集註) 372



찬녕(贊寧) 362  
 찬제선인(闡提仙人) 438  
 찬탄하는 문[讚歎門] 215  
 참회 27  
 창사(彰師) 264  
 처(處) 72  
 천도(天道) 419  
 천도(薦度) 587  
 천룡이 꽃비를 내리는 것[天龍雨華] 260  
 천룡팔부(天龍八部) 387  
 천안통(天眼通) 86, 240  
 천여(千如) 486  
 천이통(天耳通) 86  
 천제(闡提) 125  
 천축(天竺) 595  
 천축사(天竺寺) 578

천태사교의 355, 491  
 천태산(天台山) 363  
 천태삼대부 359  
 천태종(天台宗) 20  
 천태지의의(天台智顗) 358  
 천태지자(天台智者) 364, 377  
 천태팔교대의(天台八教大意) 383  
 철산소경(鐵山紹瓊) 497  
 첨복(瞻蔔)나무 464  
 청량(淸凉) 588  
 청변(淸辨) 53, 96, 281, 330  
 청변종 339  
 청정행(淸淨行) 294  
 체(體) 81  
 체삼명(體三名) 297  
 체성(體性) 121, 343, 344  
 초개사(初開寺) 28  
 초계(草繫)비구 558  
 초과 470  
 초발심(初發心) 36, 212, 472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497, 499  
 초주 470, 448  
 초지(初地) 408, 448  
 촉(觸) 433, 483  
 총망(寵望) 589  
 총상(總相) 173  
 총상념처(總相念處) 429, 436, 444  
 최상승(最上乘) 465  
 최정각(最正覺) 98  
 최치원(崔致遠) 40  
 추동기 38  
 축법호(竺法護) 189  
 축생도(畜生道) 416

춘추(春秋) 596  
 출가(出家) 518, 545  
 출세간(出世間) 93  
 출체(出體) 56  
 충의왕(忠懿王) 355, 362  
 취(取) 433  
 취봉산(鷲峯山) 63  
 취적성문(趣寂聲聞) 115  
 취집현현력심차별(聚集顯現歷心差別)  
 75  
 치우친 진리[偏真理] 422  
 치지주(治地住) 453  
 친광(親光) 95, 351  
 친승(親勝) 351  
 칠각지(七覺支) 424  
 칠방편위(七方便位) 430  
 칠보(七寶) 234, 235  
 7전성(七轉聲) 303  
 7지(七地) 313  
 침(枕) 487



큰 깨달음[大菩提] 319



타비량(他比量) 326  
 타수용신 108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420  
 탄지경(彈指頃) 215

탑(塔) 291  
 탕왕(湯王) 597  
 태평가(太平歌) 601  
 택멸(擇滅) 85, 288, 297, 317  
 통경론(通經論) 358  
 통교(通敎) 33, 358, 382, 442, 446, 470  
 통혜록(通惠錄) 362  
 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 129

8해(八解) 552  
 편진(偏眞) 447  
 평가(評家) 82  
 평등사상 43  
 평등성지(平等性智) 299  
 표원(表員) 38, 40  
 표훈(表訓) 38  
 풍몽정(馮夢禎) 374  
 풍장(風葬) 588  
 피분열반(彼分涅槃) 318  
 피안 134  
 필경(畢竟) 141

## 교

파법편(破法偏) 488  
 파아경(破我經) 323  
 파악악업심여련화정견미륵불경(破惡惡業心如蓮華定見彌勒佛經) 256  
 판교(判敎) 366  
 판비량론(判比量論) 24, 29  
 팔계재(八戒齋) 214  
 팔교(八敎) 382  
 팔난(八難) 419  
 팔상(八相) 177, 222, 472  
 팔상성도(八相成道) 217  
 8식설 21, 52  
 81품 422  
 88번뇌[使] 421  
 팔열지옥(八熱地獄) 416  
 팔인지(八人地) 444, 453, 470  
 팔정도(八正道) 424  
 팔지(八地) 212  
 8품(八品) 312  
 팔한지옥(八寒地獄) 416

## 응

하(夏) 600  
 하생(下生)신앙 160  
 하생경술찬 161  
 하안거(夏安居) 258, 371  
 하인위(下忍位) 439  
 하품(下品) 221  
 한 음성[一音] 398  
 한(漢)나라 600  
 한수 남쪽 371  
 함허기화(涵虛己和) 496, 529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尚語錄) 530  
 합(合) 66  
 합봉(合奉) 264  
 항주(杭州) 578  
 해반(害伴) 313

해석문의문(解釋文義門) 275, 276, 281  
 해심밀경(解深密經) 33, 87, 117, 283, 316, 335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51, 52  
 해인사 39  
 해인삼매 37  
 해인삼매론(海印三昧論) 40  
 해탈(解脫) 138, 551  
 해탈도(解脫道) 317  
 해탈분(解脫分) 141  
 행(行) 64, 121, 276, 293, 433  
 행불퇴[行不退] 457, 472  
 행성(行性) 54, 124, 146  
 행오법(行五法) 481  
 행온(行蘊) 78, 423  
 행일(行一) 402  
 행적(行迹) 118  
 향(香) 483  
 향방성(香芳城) 225  
 허공(虛空) 85  
 허공의 꽃[空華] 283  
 허망 71  
 허망분별(虛妄分別) 284  
 허원(虛遠) 609, 611  
 현겁경(賢劫經) 198  
 현소의위(顯所依爲) 59  
 현식론 52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 87  
 현우경(賢愚經) 199  
 현위(賢位) 451, 452, 453  
 현인(現因) 543  
 현일(玄一) 163  
 현장(玄奘) 20, 25, 68, 274

현전지(現前地) 458  
 현정론(顯正論) 529  
 현종론(顯宗論) 80  
 현종출체문(顯宗出體門) 275, 276, 281  
 현초 20  
 현행(現行) 312  
 혈맥(血脈) 568  
 형계잠연(荊溪湛然) 358  
 형복(形服) 609  
 형진(荊塵) 513  
 혜(慧) 42  
 혜경 43  
 혜관(慧觀) 스님 346  
 혜당(慧幢) 225  
 혜명(慧命) 605  
 혜소(惠沼) 54, 274, 318  
 혜안(慧眼) 455  
 혜원 163  
 혜초 20  
 호규(號叫)지옥 207  
 호명보살(護明菩薩) 549  
 호법(護法) 53, 96, 274, 276, 283, 290, 351  
 혼백(魂魄) 577  
 홍범(洪範) 573  
 홍시(弘始) 189  
 화법(化法) 383  
 화변(火辨) 308, 351  
 화복(禍福) 615  
 화생(化生) 287  
 화신(化身) 101, 108, 217  
 화락천(化樂天) 420  
 화림원(華林園) 265  
 화성(化城) 403

화성의 비유[化城喻] 133  
 화엄(華嚴) 34  
 화엄경(華嚴經) 385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 38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訣問答) 40  
 화엄경소 32, 40  
 화엄골목(華嚴骨目) 356  
 화엄교학 38  
 화엄사상 32  
 화엄시(華嚴時) 378, 401  
 화엄일승(華嚴一乘) 34  
 화엄일승성불묘의(華嚴一乘成佛妙義) 41  
 화엄종(華嚴宗) 20  
 화의(化儀) 383  
 화장(火葬) 584  
 화쟁(和諍) 31  
 화지부(化地部) 322  
 환희지(歡喜地) 458  
 환희행(歡喜行) 455  
 황극(皇極) 573  
 황룡사 40  
 황벽 희운(黃蘗希運) 586  
 황복사 35  
 회광반조(廻光返照) 514  
 회광이자간(廻光而自看) 514  
 회상(會上) 607  
 회신멸지(灰身滅智) 432  
 회입(會入) 400  
 회창(會昌) 폐불 365  
 회향(廻向) 469  
 회향성문(廻向聲聞) 115  
 회향심(廻向心) 213  
 회향하는 문[廻向門] 216  
 후득지(後得智) 104  
 후진(後秦) 189  
 훈습 132  
 훈채(葷菜) 571  
 흑승(黑繩)지옥 206  
 흩어지는 인연[離散因] 214  
 희랑(希朗) 41  
 희론(戲論) 152  
 희사하고 보시하는 인연[捨施因] 214  
 희생(犧牲) 556





## 譯注者 역주자

● 鄭炳三 정병삼...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문학박사. 신라불교사와 화엄사상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상사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2003)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2000) 『의상 화엄사상 연구』(1998) 『일연과 삼국유사』(1998)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2007, 공저) 『추사와 그의 시대』(2002, 공저) 『중국화엄사상사』(2005, 공역) 등의 저서와 「고려 후기 體元 관음신앙의 특성」(2009)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 불교」(2007) 「신라 구법승의 구법과 전도」(2007)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승려비문의 문도 구성」(2006) 「慧超의 활동과 8세기 신라밀교」(2005)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2005) 등의 여러 논문이 있다.

● 朴貞美 박정미...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태동고전연구소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 李鍾勳 이종수...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大谷大學 교환유학생을 거쳤다. 조선시대불교사 특히 정토사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동국대 사학과 강사. 주요 논문으로 「조선후기 三門修業의 성립과 전개」(2008)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간행」(2008) 「조선후기 불교계의 心性 논쟁-雲峰의 『心性論』을 중심으로」(2008) 등이 있다.

● 羅淨淑 라정숙...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주요논문 「『삼국유사』를 통해 본 신라와 고려의 관음신앙」(2009), 「고려시대 지장신앙」(2005) 등이 있다.

● 玉娜 類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신라불교사와 밀교사상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2007) 등이 있다.







#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 ●간행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伽山智冠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圓學 · 기획실장 藏寂 · 勝源(前) · 재무부장 正念

문화부장 修鏡 · 사회부장 世英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玄宗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宗薰 · 불교신문사장 慧慈 · 기획국장 彌燈

##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吾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해인총림 강원 前 강사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 · 제작… 尙賢淑 · 朴鍾壹







##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한국인 그리고 한국 내에서 유구히 전승·축적된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한국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文化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 晉譯華嚴經疏序 · 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 勸修定慧結社文 · 修心訣 · 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 淸虛堂行狀 · 禪家龜鑑 · 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 I … 華嚴一乘法界圖 · 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 II … 海印三昧論 · 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 三彌勒經疏 · 成唯識論學記 (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 … 禪門拈頌說話
金榮郁	精選 禪語錄 … 眞覺語錄 · 白雲語錄 등 4篇
李晋吾	精選 詩選集 … 無衣子詩集 · 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 往五天竺國傳 · 三國遺事 (選)
圓徹	精選 戒律 I … 梵網經古述記 I
圓徹	精選 戒律 II … 梵網經古述記 II · 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 韓國高僧碑銘 15基

